2019年度 韓國中語中文學會 春季學術大會

중어중문학 연구의 새로운 모색과 저변확대를 위한 신진연구자 논문 발표회

- 일시 : 2019년 4월 27일(土) 10:00~16:30
- 장소 : 숭실대학교 조만식기념관
- 주최 : 한국중어중문학회
- 주관 : 한국중어중문학회, 숭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 후원 : 숭실대학교

2019年度 韓國中語中文學會 春季學術大會

중어중문학 연구의 새로운 모색과 저변확대를 위한 신진연구자 논문 발표회

‖ 전체 일정표 ‖

10:00~10:30	**개회식**	조만식기념관 330호 사회: **윤순일** (총무이사, 고려대) 개회사 : **류동춘** (한국중어중문학회 회장, 서강대) 축 사 : **전규안** (숭실대학교 학사부총장)
10:30~12:30	**분과발표 1부**	고전시가, 근대 문화와 사상, 어법(1), 어법(2)
12:30~14:00	점심식사	
14:00~16:00	**분과발표 2부**	고전소설, 고전산문, 현당대 문학, 어법(3), 언어 변천, 응용언어학
16:00~16:30	**폐회식**	조만식기념관 330호 사회: **윤순일** (총무이사, 고려대) 폐회사 : **김종성** (중국어문논역학회장, 숭실대 중어중문학과 학과장)

◂ ‖ 자료집 목차 ‖ ▸

† 개회사 : **류동춘** (한국중어중문학회 회장, 서강대) ····· ▪ i

10:30~12:30 분과발표 1부

❖ 문학1분과 **고전시가** (209호) 사회: **신하윤**(이화여대)

이욱진(서울대) 시경의 이슬 이미지 ····· ▪ 3

박부경(연세대) 鄭板橋의 詩書畵에 나타난 竹의 心象 硏究 ····· ▪ 9

김하늬(서울대) 朱彝尊 前·後期詞의 창작 양상 변화
– 明淸 교체기 강남 지식인의 정체성 변화와 관련하여 ····· ▪ 17

전가람(전북대) 秋史 金正喜 詩論 硏究
– 淸代 乾嘉時期 詩論의 受容과 變容을 중심으로 ····· ▪ 25

❖ 문학2분과 **근대 문화와 사상** (326호) 사회: **천진**(서울시립대)

이성현(서울대) 新奇한 近代 :『點石齋畵報』硏究 ····· ▪ 35

이화진(서울대) 鄭觀應의 글쓰기와 사유방식의 경계적 특성 연구
– ≪易言≫과 ≪盛世危言≫을 중심으로 ····· ▪ 43

❖ 어학1분과 **어법(1)** (311호) 사회: **박재승**(오산대)

이명정(한국외대) '句尾"的/了"与"应该"的语义互动及其对情态解读的影响 ▪ 55

염죽균(홍익대) 중국어 '要'와 '会'의 미래시제 용법 연구 ····· ▪ 63

김홍실(서울대) 현대중국어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관계 연구 ····· ▪ 69

김설화(중앙대) 중국어 의문사의 원형범주와 확장범주
– 미정사 '什么'를 중심으로 ····· ▪ 75

❖ 어학2분과 **어법(2)** (312호) 사회: **정소영**(광운대)

류야페이(서울대) 조건문의 '会'의 사용현상 분석
– 유형론적 접근 ····· ▪ 83

김혜진(서울대) V个N구문 연구 ····· ▪ 91

김승현(연세대) 현대중국어 'V在(到)一起' 구문 연구 ····· ▪ 99

이정인(한국외대) 현대 중국어 방향표지구문 연구
– '向/往/到+DP'구를 중심으로 ····· ▪ 107

◂ ‖ 자료집 목차 ‖ ▸

14:00~16:00 분과발표 2부

❖ 문학3분과 **고전소설** (209호) 사회: **정유선**(상명대)

안인(연세대) 唐代 文人 네트워크 硏究
-『太平廣記』문인여행 故事를 중심으로 ····· ■ 115

배우정(경희대) 『西漢演義』版本 硏究
- 국내 소장된 版本을 중심으로 ····· ■ 121

吳曉麗(숭실대) 明代 公案小說의 敍事전략 연구 ····· ■ 129

함영은(한양대) 清代 子弟書 硏究 ····· ■ 137

❖ 문학4분과 **고전산문** (326호) 사회: **김종성**(숭실대)

김미라(원광대) 朝鮮 文壇의 唐宋 古文 지향 연구
- 茅坤과 그의 ≪唐宋八大家文鈔≫의 영향을 중심으로 ··· ■ 145

박소현(전북대) 祈雨 祝文과 醮禮 靑詞를 통해 본 儒家와 道家의 祝文 比較
- 文體와 書寫를 중심으로 ····· ■ 153

조민우(연세대) 중개자: 19세기 조선 역관 이상적의 세계도상 ····· ■ 163

陳亦伶(香港嶺會大學) 한국에서의『효경』의 수용과 전개 ····· ■ 169

❖ 문학5분과 **현당대 문학** (404호) 사회: **이욱연**(서강대) · **김순진**(한신대)

조영경(고려대) 중일전쟁시기 여성 생존 현실의 모순성
- 巴金의 ≪寒夜≫를 중심으로 ····· ■ 179

남희정(고려대) 일본 점령시기 상하이 문학의 일상성 연구 ····· ■ 187

이승희(연세대) 路遙 소설에 나타난 1980年代 中國 回鄕知靑 서사 연구 ■ 193

❖ 어학3분과 **어법(3)** (312호) 사회: **전기정**(선문대)

이은경(서울대) 현대중국어『S的O+VP』구문의 의미 기능 연구 ····· ■ 203

서진현(전북대) 현대중국어 焦點敏感詞 연구 ····· ■ 209

김은주(고려대) 현대중국어 어휘 사동문 연구
- 형태, 통사, 의미적 특징과 형식 기제를 중심으로 ····· ■ 217

김원희(연세대) 현대중국어의 '원형적 초래구문' ····· ■ 223

14:00~16:00 분과발표 2부

❖ 어학4분과 **언어 변천** (328호) 사회: **임영택**(서울신학대)

王贝贝(서울대) "X+容易+V" 구문의 특징과 문법화 ····· ■ 235

姜燕(명지대) 浅析上古汉语"S+以+O+V+C"句式的致使情况
– 以≪论语≫, ≪孟子≫, ≪吕氏春秋≫, ≪韩非子≫为中心
····· ■ 245

홍현지(한국외대) 近古時期 중국어 북방음 韻母체계 연구 ····· ■ 253

❖ 어학5분과 **응용언어학** (311호) 사회: **송지현**(안양대)

김춘희(연세대) 韩国汉语禮貌语用教学 ····· ■ 261

김웅(경북대) 2015 개정 교육과정 중국어 기본어휘의 텍스트 점유율 고찰
····· ■ 269

吳思敏(연세대)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 아동 중국어 교육 ····· ■ 277

이혜중(한국외대) 음성언어가 수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 한중 수어에 나타난 차용어의 유형과 수용양상 ····· ■ 283

4월 27일(토) 10:30~12:30

분과발표 1부

❖ 문학1분과 _ 고전시가

(장소: 209호)

이욱진(서울대) 시경의 이슬 이미지

박부경(연세대) 鄭板橋의 詩書畵에 나타난 竹의 心象 硏究

김하늬(서울대) 朱彝尊 前·後期詞의 창작 양상 변화
– 明淸 교체기 강남 지식인의 정체성 변화와 관련하여

전가람(전북대) 秋史 金正喜 詩論 硏究
– 淸代 乾嘉時期 詩論의 受容과 變容을 중심으로

시경의 이슬 이미지

이욱진*

<目 次>

1. 기존 해석 검토
2. 정형구의 존재
3. 접객 모티프와 두터운 정의
4. 이슬의 비유와 시적 화자의 태도

1. 기존 해석 검토

본고는 시경에 나타난 이슬이 임금과 신하의 두터운 情誼를 비유한 것임을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슬 이미지가 쓰인 작품으로는 召南 <行露>, 邶風 <式微>, 鄭風 <野有蔓草>, 秦風 <蒹葭>, 小雅 <蓼蕭>, <湛露>, <白華> 등 총 7편이 있다.

기존 해석에 따르면 이들 시의 이슬 이미지는 시의 내용에 따라 성격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로 아침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나타낸다. <항로>, <야유만초>, <겸가>, <잠로>가 이에 해당한다. 덩굴 밭에 이슬이 맺힌 아침에 우연히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났다거나(야유만초), 갈대밭에 이슬내린 아침에 사랑하는 이를 좇아도 만나지 못한다거나(겸가), 아침이든 밤이든 상대방이 부르면 만나러 가야 하지만 가는 길에 이슬에 젖을까봐 못 가겠다거나(항로) 하는 내용이다. 이슬이 시간적 배경을 나타낸다고 풀이된 것은 대체로 남녀 간의 사랑 노래일 경우이다(<잠로>의 경우 귀족 가문 구성원 간의 우의라고 볼 수 있다).

둘째로 고난을 상징한다. <항로>, <식미>가 이에 해당한다. <항로>의 이슬은 시의 화자가 상대방을 거절하는 구실인데 단순히 발을 적시는 불편함을 뜻하는 것을 넘어서 그의 요구를 들어줬을 때 예상되는 괴로움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식미>의 이슬은 黎侯가 衛에 망명하는 동안 신하들의 고된 객지 생활을 風餐露宿으로 나타낸 것이다(저물녘에 이슬을 맞으며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노래로 보기도 한다).

셋째로 임금의 은혜를 비유한다. <륙소>, <잠로>, <백화>가 이에 해당한다. <륙소>와 <잠로>는 모시에서 연이어 배열된 작품군으로 모두 천자가 같은 종친인 제후들을 불러 연회를 베풀며 참석자들을 칭송하는 내용이다. 초목을 흠뻑 적시는 이슬은 신하인 제후들에게 내려진 천자의 은혜를 비유한다. <백화>의 이슬 역시 모전에 따르면 시의 화자인 申后가 입은 幽王의 은혜를 가리킨다.

이상에서 든 이슬이 각 작품에서 해석되는 방식에는 일관된 기준을 찾기 어렵다. 예컨대 <항로>에서는 화자가 이슬에 발을 적시기 싫다고 상대방을 거절하는데 <야유만초>에서는 화자가 이슬 가득한 덩굴 밭에서 마음에 든 사람을 만나 기뻐한다. <식미>의 신하들은 이슬 맞는 것 때문에 임금을 원망하는데 <륙소>나 <잠로>의 신하들은 이슬 가득한 것을 임금의 은혜로 여기고 기뻐한다. 같은 이슬이라도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면 똑같이 기쁨을 나타내고 원망이나 거절을 읊으면 불편한 존재가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왕에게서 버림받은 이의 원망이 담긴 <백화>의 이슬이 은혜로 해석된 까닭은 무엇일까? 이렇듯 작품마다 이슬의 해석 방식이 다르고 서로가 모순이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이미지 해석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경의 작품은 풍아송으로 나뉘어 있더라도 서로 같은 구절이나 모티프를 공유하는 사례가 많다. 본고

* 서울대학교 시간강사

에서 다루는 시에서도 정형적인 시구가 반복해서 등장하고 다른 시와 내용상 긴밀하게 연결해서 보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이슬의 이미지는 물론 시의 주제도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자신을 위협하는 상대방에 대한 항거의 의지를 노래한 <항로>와 자신을 버린 임금을 원망하는 내용인 <백화>를 제외한 나머지 시는 모두 임금과 신하의 단합하는 정의를 나타낸 내용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에는 국풍의 시를 청춘남녀의 사랑을 노래한 민가로 보려는 성향이 강했으나, 定型句와 모티프의 반복이라는 형식상의 강한 연계성에 비추어볼 때 이들이 오히려 궁정가요로 해석될 가능성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시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마련함으로써 기존의 시구 해석의 난점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

2. 정형구의 검토

시경에는 心之憂矣(내 마음의 근심이여)와 같이 여러 작품에 반복하여 나타나는 정형구가 많다. 이 정형구는 구성성분이 완전히 같은 경우도 있고 한 두 글자가 변형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정형구는 단순히 자구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 역시 같은 의미로서 서로 다른 작품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단서를 제공한다. 風, 雅, 頌이 별개의 장르가 아니라 형식과 내용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근거가 된다.

본고에서 다루는 이슬 이미지 관련 작품에도 상호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시구가 있다. <야유만초>와 <륙소>는 零露瀼瀼(내린 이슬 아롱아롱)가 완벽하게 일치하고, 零露溥兮(야유만초)와 零露湑兮(륙소) 역시 약간의 글자만 변형되어 같은 구조가 반복된다. 또한 <겸가>의 白露未晞(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았네)는 <잠로>의 湛湛露斯, 匪陽不晞.(가득한 이슬이여 햇볕이 아니면 마르지 않으리)와 같은 뜻의 구절이다. 이슬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물기가 가득한 모습과 햇볕이 내리쬐면 마르는 성질이 공존한다.

공통된 글자 하나만으로도 내용상의 연관성이 있는 사례도 있다. <식미>의 胡爲乎泥中(어찌 진흙 속에 있으리오)과 <륙소>의 零露泥泥(내린 이슬 질척질척)는 '泥'라는 글자를 공유하여 의미상 연관성을 의심하게 한다. 즉 <식미>의 '진흙 속'이란 다름 아닌 이슬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슬이 너무 많이 내려 땅이 질어졌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륙소>의 '질척질척' 역시 기존의 이슬이 많은 모양이라는 풀이에 따르기보다 이슬이 많이 내려 땅이 진흙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두 작품에 쓰인 이슬 이미지는 동일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생긴다.

이슬 이미지 관련 자구 외에도 본고에서 다루는 작품에는 다른 시와 연계되는 정형구가 더러 등장한다. 예컨대 <륙소>의 是以有譽處兮(이로써 즐거움이 있다네)는 <裳裳者華>에도 반복된다. 旣見君子(군자를 뵙게 되니)는 <出車>, 唐風 <揚之水>, 周南 <汝墳> 등 국풍과 소아 곳곳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정형구이다. 萬福攸同(만복이 함께하리라)은 <采菽>에 나온다.

또한 <항로>의 豈不夙夜(어찌 아침저녁으로 하지 않으리오)는 大雅 <烝民> 夙夜匪解, 以事一人.(아침저녁으로 풀어지지 않고 임금을 모신다), <韓奕> 無廢朕命, 夙夜匪解.(짐의 명을 저버림 없이, 아침저녁으로 풀어지지 말라.), 魯頌 <有駜> 夙夜在公, 在公載燕.(아침저녁으로 조정에 있네. 조정에 있으며 연회를 여네.) 주남 <小星> 肅肅宵征, 夙夜在公.(서둘러 밤길을 가네. 아침저녁으로 공무 중에 있다네.) 魏風 <陟岵> 父曰嗟予子, 行役夙夜無已.(아버지가 말한다. 아아 내 아들아, 행역은 아침저녁으로 그침이 없구나.) 등 임금을 위해 아침저녁으로 일하는 내용에 많이 쓰이는 구절과 겹친다. 따라서 <항로> 역시 임금을 위해 일하는 신하의 노래로 볼 여지가 생긴다.

한편 <겸가>의 所謂伊人, 在水一方.(이른바 그 사람 물 한쪽에 계시네)은 소아 <白駒>의 所謂伊人, 於焉逍遙.(이른바 그 사람 여기서 거니시길)와 정형구를 공유한다. '所謂伊人'이라는 구절은 오로지 이 두 편에

만 쓰인다. 따라서 <겸가>와 <백구>를 내용상 연관해서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3. 접객 모티프와 두터운 정의

시경이 지어진 서주 시기에는 봉건제와 예악제도가 종법질서에 따라 운용되었다. 그 가운데 이른바 賓禮라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손님을 접대하는 예법이다. 제후는 천자를 정기적으로 또는 특별한 시기에 알현할 의무가 있었고 천자는 자신을 찾아온 손님인 제후를 잘 대접해야 했다. 빈례에는 몇 가지 절차가 있는데, 신하가 임금을 뵙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신하의 도착 – 임금 알현 - 선물 하사와 연회 – 신하의 복귀

여기서 임금 알현의 목적은 주로 업무 보고 또는 작위나 관직 수여였다. 임금 알현은 수직적인 질서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禮의 절차였다. 반면에 연회는 긴장을 풀고 맛있는 술과 음식을 함께 먹으며 음악으로 화합하는 자리였다.

시경에는 이 연회 자리에서 불렀음직한 노래가 많이 실려 있다. 이른바 君子란 연회에 참석한 천자와 제후 또는 대부를 가리킨다. 이 노래는 대체로 군자를 만난 기쁨과 더불어 주인인 임금이 손님인 신하에게 내리는 선물을 열거하고, 군자를 칭송하고 장수를 기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주인의 입장에서 손님을 두터이 대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손님이 집에 돌아가려는 것을 만류하는 표현이 나오기도 한다.

본고에서 다룬 이슬 관련 시에서는 <륙소>, <잠로>가 접객을 주제로 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륙소>는 宗法制에서 형제벌인 천자와 제후의 우애를 노래하며 손님인 군자와 연회에서 웃고 즐기며, 그에게 말굴레장식과 수레방울을 선물로 주고, 그의 장수를 비는 내용이다. <잠로>는 천자가 밤에 연회를 열어 손님인 제후들에게 밤새 마실 것을 권하며 그들의 덕성과 위의를 칭송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위의 두 편의 시와 정형구를 함께하는 <야유만초>와 <겸가> 역시 손님 접대에 관한 노래로 볼 여지가 없는지 검토해보자. <야유만초> 제1장 3~4구 有美一人, 淸揚婉兮.(아름다운 한 사람, 또렷한 눈동자가 곱구나.)는 邶風 <簡兮> 제4장 云誰之思, 西方美人. 彼美人兮, 西方之人兮.(누구를 생각하나? 서방의 미인. 저 미인은 서방의 미인이라네.)와 齊風 <猗嗟> 제3장 猗嗟孌兮, 淸揚婉兮. 舞則選兮, 射則貫兮. 四矢反兮, 以禦亂兮.(이야 멋지다, 또렷한 눈동자가 곱구나. 춤을 추면 들어맞고 활을 쏘면 과녁 뚫네. 화살 네 발 연거푸 맞히니 전란을 다스리겠네.)와 견주어 생각해볼 수 있다. <간혜>는 임금의 궁정에서 춤추는 사람을 칭송한 것이고, <의차>는 춤과 활쏘기에 뛰어난 사람을 찬미한 것이다. <간혜> 제2장의 公言錫爵(공께서 잔을 내리신다)에 비추어볼 때, 미인은 임금의 부하를 가리킨다. <의차>에서 춤과 활을 동시에 잘할 정도의 인재는 역시 임금에게 신임받는 신하로 보인다. 이들 두 작품에서 다루는 인물이 궁정 인사인 것으로 미루어 이들과 형식상 조응하는 <야유만초> 역시 궁정 인사를 칭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야유만초>에서 들판의 덩굴풀을 흠뻑 적시는 이슬은 <잠로>에서 초목에 가득 내린 이슬과 마찬가지로, 실제 궁정의 풍경이라기보다는 비유적 의미가 담긴 것으로 이해된다. 소아 <鹿鳴>의 呦呦鹿鳴, 食野之芩.(유유 사슴이 울며 들판의 산떡쑥 먹네)이 임금이 신하를 초대해서 잔치를 여는 것을 비유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겸가>는 일반적으로 험한 길 따라 아무리 찾아도 닿을 수 없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물가에 있는 임이 여기저기로 위치를 옮기면서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으로 높이 평가되는 작품이다. 물의 여신을 찬미한 노래라는 설도 있고, 늦봄 上巳日 축제 때 청춘남녀가 물놀이하며 짝을 만나는 행사를 읊은 것이라는 설도 있다. 하지만 “遡洄從之, 道阻且長.(물길 거슬러 따라가니 길이

험하고 머네)", "遡游從之, 宛在水中央.(물길따라 좇아가니 물 가운데 계시네)"은 글의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다. 물길을 거스르든 따르든 간에 '從之'는 사랑하는 상대방을 좇아가는 것이다. 험하고 먼길은 물의 흐름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또한 마지막에 갑자기 물의 중앙에 있는 것은 어찌된 일인지 도무지 알기 어렵다. 상대방이 귀신이 아니라면 도대체 왜 물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고, 시의 화자는 어째서 배를 타고 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고 험한 길을 돌아다니는 것일까?

이 시에서 遡洄나 遡游는 물의 흐름과 상관없이 '거닐다', '돌아다니다'라는 뜻의 連綿詞(聯綿詞)로 보아야 한다. 연면사는 이음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글자의 뜻이 아니라 두 음절이 합쳐진 소리를 취하는 말이다. 따라서 글자는 발음이 같은 다른 자로 변환이 가능하며, 따로따로 해석하지 않는다. 즉 合成語나 派生語가 아니라 그 자체로 형태소가 된다는 말이다.

遡洄에서 '洄'는 回로 바꾸어 쓸 수 있으며 徘回(徘徊), 低回, 遲回, 遑回(偟徊, 偟佪) 등과 마찬가지로 특정 방향이나 목적 없이 한 바퀴 돌다의 뜻이다. 이것은 한자의 표음성을 활용한 것이므로 '遡(溯)'는 '洄'에 덧붙은 글자일 뿐, '물을 거슬러 오르다'라는 의미를 살리지 못한다. 遡游도 역시 游의 뜻만 취한다. 游는 優游의 游와 같이 노닐다, 거닐다의 뜻이다. 소아 <白駒> 제3장 爾公爾侯, 逸豫無期. 愼爾優游, 勉爾遁思.(당신 공후들은 편안히 끝없이 즐기시오. 제발 거니시길, 달아날 생각은 마시오.) <采菽> 제5장 樂只君子, 福祿膍之. 優哉游哉, 亦是戾矣.(즐거우신 군자여 복록을 두터이 하네. 거닐고 거니시게 이곳에 오셨으니.) 大雅 <卷阿> 제2장 伴奐爾游矣, 優游爾休矣.(한가로이 그대 노니시네, 거닐며 그대 쉬시네.)에 游의 뜻이 잘 드러나 있다.

앞에서 소아 <백구>의 所謂伊人, 於焉逍遙.(이른바 그 사람 여기서 거니시길)를 언급한 바 있다. 遡洄나 遡游는 곧 逍遙와도 같은 뜻이다. 즉 遡洄나 遡游를 하는 사람은 <백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른바 그 사람'이다. <백구> 제2장에 所謂伊人, 於焉嘉客.(이른바 그 사람 여기서 귀한 손님)에서 알 수 있듯이 伊人은 초대받아 놀러온 손님이며, <겸가>의 遡洄從之란 천천히 산책하며 거니는 손님을 좇는 것이다. 좇는다는 것은 무슨 행위일까? <채숙> 제4장의 樂只君子, 萬福攸同. 平平左右, 亦是率從.(즐거우신 군자여 만복이 함께 하네. 당당한 좌우 시종이 그를 따르네.) 주송 <有客>의 薄言追之, 左右綏之. 旣有淫威, 降福孔夷.(그를 따라가 좌우 시종이 편안히 해드리네. 큰 위엄이 있으시니 내리는 복 크시도다.)에서 알 수 있듯이 숙소 또는 연회장에서 노니는 손님을 시중드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손님이 물 가운데나 물의 모래톱이나 물가에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천자나 제후는 궁성에 辟雍이나 泮宮이라는 이름의 廟堂 또는 學宮을 두어 귀족 자제를 가르치는 한편, 제사와 연회 등 국가 주요 행사를 거행하는 용도로 쓰기도 했다. 반궁은 반원 모양의 연못을 파서 다리로 건너 건물에 드나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손님을 대접하기도 했다. 노송 <泮水> 제3장에 魯侯戾止, 在泮飮酒. 旣飮旨酒, 永錫難老. 順彼長道, 屈此羣醜.(노나라 제후 도착하여 반수에서 술을 마신다. 맛좋은 술을 마셨으니 길이 장수를 내리리라. 저 먼 길을 따라 이 오랑캐를 굴복시켰네.)라는 구절이 있다. 글의 맥락으로 보았을 때, 노나라 제후는 반궁에 도착한 손님이다. 먼 곳의 이민족을 정벌하고 개선한 노나라 제후를 치하하며 축수한 것이다. 정풍 <淸人> 제2장 淸人在消, 駟介麃麃. 二矛重喬, 河上乎逍遙.(청인이 소에 있네. 철갑 두른 네 마리 말 씩씩하네. 두 자루 창은 겹으로 된 깃털 장식. 황하 가에서 거닐고 있네.)를 보면 이 역시 청인이라는 사람을 소라는 곳에서 대접하며 말과 창을 선물로 주고 황하 물가에서 거닐게 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즉 <겸가>에서 물의 모래톱, 물가 등 손님이 있는 장소는 곧 반궁 등 물가에 설치한 귀빈용 숙소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道阻且長.(길이 험하고 머네)의 의미를 살펴보자. 이것은 물가의 길이 험하다는 말이 아니라,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는 손님의 여행길이 험하고 멀다는 말이다. 시경에는 흔히 떠나려는 손님을 만류하는 표현이 나온다. 豳風 <九罭> 제2장 鴻飛遵渚, 公歸無所, 於女信處.(기러기 날며 물가를 따라가네. 공께서는 돌아가도 계실 곳 없잖소. 아아 그대 두 밤만 더 주무시오.)에서 보듯이 엄연히 제자리로 돌아가려

는 손님에게 있을 곳이 없다고 강변하며 좀 더 머물기를 요구하는 과장된 표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겸가>의 표현도 실제 길이 험한 것이 아니라 손님이 돌아가는 것이 못내 아쉬운 주인의 의례적 인사말로 보인다.

4. 이슬의 비유와 시적 화자의 태도

시경의 이슬은 무성한 초목을 듬뿍 적시며 땅바닥을 진흙탕으로 만들기도 한다. 햇볕이 쬐지 않는 이상 마르지 않으며 심지어 서리로 얼어붙기도 한다. 이 이슬은 다름아닌 임금이 신하에게 베푸는 은혜를 나타낸다. 초목이 이슬에 젖어 생기있게 자라듯이 신하는 임금의 총애를 받으면 의기양양 충성을 다하게 된다. 이들 초목과 이슬은 외로운 個體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群體를 이루고 있다. 꽃이 흐드러지게 핀다든지 물이 콸콸 흐른다든지 나뭇잎이 빽빽하게 우거져 있는 이런 번성의 상태를 통해 남녀의 사랑이나 부모자식의 정, 임금과 신하의 의리를 비유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연 상태와 평행하게 되고, 떨어져 있으면 자연과 상반된 구도를 이룬다. 이 관점에 유의하여 <식미>와 <항로>, <백화>를 비교해보자.

<식미>는 반문의 형식으로 임금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제1장을 보자.

式微式微, 胡不歸.	없다면 없다면 왜 돌아가지 않겠어요?
微君之故, 胡爲乎中露.	임금님 당신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이슬 속에 있을까요?

기존의 해석에는 제1구의 '微'를 쇠미하다, 어둡다 등으로 풀이하여 제3구의 '微'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여기서는 둘 다 '없다'로 풀이하여 임금의 부재를 가정하는 말로 삼는다. 임금이 없다면 손님인 시의 화자는 자신의 영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임금님이 계신 덕택에 자신이 이슬(곧 임금의 은혜)을 듬뿍 받고 있다고 칭송하는 내용이다.

<항로>는 임금의 총애를 받던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는 사람의 노래로 볼 수 있다. 제1장은 厭浥行露, 豈不夙夜, 謂行多露.(방울방울 길의 이슬. 어찌 아침저녁으로 하지 않으리오. 길에 이슬이 많다고 할 밖에.), 즉 이슬(임금의 은혜)이 많으므로 아침저녁으로 충성을 다하여 일하겠다는 다짐이다. 제2장과 3장은 생각지도 못하게 참새와 쥐 같은 자의 공격을 받아 소송에 휘말렸지만 그 정도 집안 세력으로는 어림도 없으니 절대 그를 따르지 않겠노라는 선포이다. 魏風 <碩鼠>나 小雅 <黃鳥>에는 쥐나 새에게 자신의 곡식을 먹지 말라고 외치는 시적화자의 괴로움이 잘 나타나 있다. 이들 동물은 화자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모함하고 음해하는 세력을 비유한 것이다. <항로> 역시 지금까지 듬뿍 내린 이슬처럼 임금의 총애를 한 몸에 받다가 위기를 맞게 된 것을 동물의 비유로 잘 묘사하였다.

<백화> 제2장에는 이슬이 내린 모습과 화자가 처한 상황이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英英白雲, 露彼菅茅.	뭉게뭉게 흰 구름 억새와 띠에 이슬 내린다.
天步艱難, 之子不猶.	천명이 어려우나 그이는 노력하지 않네.

天步라는 말로 미루어보아 '그이'는 천자를 가리킨다. 이 시는 전통적으로 申后의 노래로 본 설이 많지만 특정 인물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 천자에게 버림받은 신하의 노래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억새나 띠 같은 풀이 구름에서 내린 이슬에 젖는 것은 자연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반면에 인간 세상의 '그이'는 시적 화자의 충간을 듣지 않고 방종을 일삼고 있다. 임금과 신하 사이가 원활하게 유지되지 못하

는 상황을 자연과 인간의 대조로 그려낸 것이다.

시경의 이슬 이미지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시경에서 이슬은 번성의 상태로서 이상적인 자연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여러 가지 인간 관계 가운데 특히 임금과 신하의 돈독한 의리를 비유한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좋을 때는 이슬의 이미지가 시의 내용과 평행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대조적인 관계를 보인다. 대다수의 작품은 <륙소>, <잠로> 등과 같이 임금이 신하를 초대하는 연회의 접객 모티프로 구성되어 있다. 연회에서는 선물을 주고받거나 맛좋은 음식을 먹거나 참석자인 군자를 칭송하는 내용이 많다. <야유만초>, <식미>, <겸가> 등이 기존의 해석과 달리 서주 시기 왕이나 제후가 신하를 불러 손님으로 대접하는 내용으로 새롭게 풀이될 가능성을 보였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긴장 상태에 있는 작품으로는 <항로>와 <백화>를 들 수 있다. 이 경우 이슬이 가득 내린 모습은 다른 작품과 마찬가지이지만 작중 화자가 처한 상황은 임금의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경쟁자에게 빼앗길 위험에 놓인 모습이다.

鄭板橋의 詩書畵에 나타난 竹의 心象 硏究

朴富慶*

<目 次>

제1장 序論
제2장 鄭板橋의 생애와 시대 배경
제3장 鄭板橋의 詩歌에 나타난 竹의 心象
제4장 鄭板橋의 書에 나타난 竹의 心象
제5장 鄭板橋의 畵에 나타난 竹의 心象
제6장 鄭板橋의 예술적 성취와 影響
제7장 結論
參考文獻

제1장 序論

중국인들에게 대나무는 기능적 생활 도구로서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깊은 의미가 있다. 대나무는 대쪽 같은 절개와 선비의 기상 그리고 청정한 경계 등을 상징하여 문인들에게 기림을 받았는데 특히 淸朝의 鄭板橋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鄭板橋의 작품세계에서 대나무는 시대정신이자, 사상이며, 희로애락의 상징이다. 그에게는 '가지마다 잎새마다(一枝一葉)' 서린 백성들의 울음소리였다. 그의 대나무는 詩 속에서도 노래하고, 서법 속에서도 꿈틀거리며 또한 그림 안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림 밖에서도 절개와 기상을 자랑한다. 대나무가 鄭板橋이고, 그가 대나무이다. 그의 창작정신은 기존 詩文의 경계를 넘어 개성을 추구하는 현대 예술정신에 가까웠다.

본 연구는 정판교의 詩書畵에 나타난 대나무의 心象을 연구함에 있어서 그의 생애와 인품, 詩書畵 작품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의 예술적 성취와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鄭板橋는 '詩書畵 三絶'로 불리는데 이는 그의 인품・학문・사상 등이 詩書畵라는 형식으로 함축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관리로서의 鄭板橋의 삶과 예술인으로서의 삶을 기반으로 하여 그가 바라본 인격적인 대나무가 그의 작품 詩書畵에서는 어떠한 풍격의 대나무로 표현되었으며, 작품 속 대나무 이미지들 사이의 유기적 관련성은 무엇인가를 연구하였다. 이는 문인과 예술인으로서의 鄭板橋에 대한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이다.

鄭板橋에 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중국의 연구는 80년대 중반을 전후해서 문학적 성취 쪽에 더 치중한 연구와 서・화와 예술 풍격 등 다양한 주제로의 연구가 돋보인다. 특히 대만에서 2010년대에 鄭板橋의 시가를 재조명한 시학이론 관련 논문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특이한 현상은 鄭板橋의 행적에 얽힌 일화 등에 일반인들이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이다.[1)]

鄭板橋에 대한 한국의 연구는 대체로 중국에 비하여 질과 양에 있어서 다양하지 못하다. 그러나 최근 논문들의 경향을 보면 鄭板橋를 타국의 화가와 비교하는 등 연구의 영역을 넓히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

* 연세대학교

1) 중국 기간 논문 데이터베이스(중국지망, CNKI)에서 정판교에 관하여 검색을 하면 1,000여 편이 넘는 단편 논문이 제시되는데, 거의 절반이 그에 관한 일화 소개이다.

고 있다. 일본에서는 鄭板橋의 詩書畵 풍격에 관하여 각각 논하였는데 2000년대 이후 六分半書와 印章 그리고 篆刻에 관한 연구가 돋보인다. 서구 논문 중 언어의 시각적 통합 곧 시와 그림의 의미론적 구조(단어와 이미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주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연구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鄭板橋에 관한 연구가 사상・문예・제화・서법・회화 등 각각의 개별 주제에 한정되어 있거나 시문 혹은 書畫・詩書 등의 연구로 합일과 융합을 꾀하였지만, 鄭板橋의 詩書畵를 하나로 통합한 연구는 드물어 보이는 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詩書畵 三絶'이라 불리는 鄭板橋가 대나무라는 연결 고리를 통하여 어떻게 詩書畵를 교융하고 합일된 모습으로 연출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며 예술가 鄭板橋를 연구하고자 한다.

제2장 鄭板橋의 생애와 시대 배경

제2장에서는 청초의 정치와 사회 그리고 양주의 시대적 상황을 살피며, 鄭板橋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조망하였다. 필자는 본 논문의 연구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정판교의 『鄭板橋全集』(증보본)을 저본으로 하였고, 그의 저작들과 『板橋集』의 체제 분류와 특징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鄭板橋의 詩書畵와 그의 작품에 담긴 학문과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그의 생애와 저작을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그가 추구했던 삶을 '사람 되는 도리(爲人之道)'와 '학문하는 도리(爲學之道)'로 나누어 논하고자 하였다.

爲人之道로서는 4가지를 말하였는데 첫째, 생명 중시의 만물관[2] 둘째, 평등사상[3] 셋째, 인애사상[4] 넷째, 농본사상[5]이다.

鄭板橋가 말하는 爲學之道는 독서할 때 유익이 되는 자신만의 체계적인 논리와 관점의 독서 방법이다. 또한 학문의 참된 도는 문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과 참된 이치로 자신을 수양하고 밖으로는 구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당대 한유의 '文者以載道'와 유종원의 '文者以明道'의 논술과 일치한다.

鄭板橋가 말하는 학문의 도리는 벼슬하고 재물을 축적하는 데 있지 않고, 사람이 되는 도리를 깨닫고 행하는 데 두었다. 鄭板橋는 아쉽게도 학문적으로는 공자의 刪詩說을 인정하고 八股文을 두둔하는 등 청대의 시대적인 상황을 뛰어넘지는 못하였지만, 그의 爲人之道와 爲學之道는 현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와 울림이 크다고 여겨진다.

제3장 鄭板橋의 詩歌에 나타난 竹의 心象

문학사적으로 보면, 한 詩人의 잠재의식은 그가 살아온 시대정신과 연륜이 어우러져 심미가치를 드러내는 누적된 층이다. 이러한 층을 때로는 시로 때로는 글씨로 때로는 그림으로 드러낸 예술인이 鄭板橋이다.

3장에서는 탈속한 선비상을 이상으로 여긴 鄭板橋가 끈질기게 추구한 대나무의 심미의상을 살펴보고자 먼저 그의 시가와 죽의 관계를 탐구하고, 그 다음으로 대나무의 어원과 대나무에 대한 역대 심미의상을 고찰하였다. 鄭板橋는 詩歌에서 대나무에 대하여 다양한 물상들을 이끌어 비유했는데, 그의 詩歌에서의 대나무는 그의 인격・사상・학문 때로는 그의 恨과 원망 그리고 축원 등이 녹아져 다양한 모습으로 묘사

2) 鄭板橋는 천지간의 자연만물과 인간 모두의 생명근원은 하늘에 있다고 보았다. 이는 각각의 독립된 상태에서 존재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한 부분으로서 가치를 갖는 것이다.
3) 鄭板橋는 출신의 귀천으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황제・요・순의 자손'이라고 하였다. 前代의 노비문서를 몰래 태워버리고 집안 하인들의 자제들도 '天地间一般人'으로 보아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하였다.
4) 鄭板橋는 길 가다가 선량한 동향 사람을 만나면 돈 자루 안의 돈을 손길 닿는 대로 다 나누어 주었고, 사촌동생 鄭墨을 통해서는 자신의 봉급을 면식 없는 어려운 친척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였다.
5) 鄭板橋는 천지간에 첫 번째 사람은 농부요 선비는 四民 중의 꼴찌라 여겼다.

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그의 詠竹詩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대나무의 심상을 入世的 시가(儒家, 군자)와 자연을 선으로 여기는 隱逸의 시가(道家, 자연), 그리고 出世的 시가(佛家, 색공)로 볼 수 있었다. 그의 영죽시에는 이 셋의 요소가 서로 교융하며 생명으로 작동하고 있다.

특히 그의 詠竹詩에 나타난 사상과 예술적 심미의상은 儒佛道 어느 한 곳으로 경사됨이 없이 고르게 표현되었다고 여겨진다. 鄭板橋는 노장학문에 심취하면서도 결코 불로장생을 탐하지 않았으며 불교의 '空手來空手去'의 의미를 깊이 통찰했음에도 결코 이를 자신의 도피처로 삼지 않았다. 또한 그는 주현의 7품 관리임에도 결코 烏紗帽에 연연하지 않았고 돈에 묶이지도 않았다. 그가 바라는 것은 한낱 범부로 강호에서 詩書畵를 즐기며 대나무처럼 살고자 하는 것이었다.

鄭板橋의 이러한 인생관과 가치관은 각각의 詩書畵 예술세계를 조화롭게 형성하였다. 그의 작품에는 언어예술인 詩와 시각예술인 書畫의 審美理想이 서로 교융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詩와 書는 '운률과 리듬' 그리고 '審美理想'으로 詩書一律을 이루고 詩와 畵는 無形畫와 有形詩로 불리며 詩畫一律을 이루었다. 鄭板橋, 그의 굴곡진 인생살이와 애증이 교차한 관료생활 그리고 그가 걸어간 예술가로서의 거친 삶은 후학들에게 또 하나의 이정표로서 손색이 없다고 여겨진다.

제4장 鄭板橋의 書에 나타난 竹의 心象

중국 書畫史에 있어서 鄭板橋는 청대를 대표하는 揚州八怪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 '楚阳三高'[6], '雍嘉七子'[7], '潍县三贤'[8]에 속한다. 그는 詩書畵 三絶로도 유명한데 그의 성취는 특히 서법 부분에서 특출하여 '板橋派'의 宗師로 불릴 정도였다. 이러한 鄭板橋의 서법은 당시의 전통서법과 차별화를 이루었다. 그는 개성 없는 館閣體와 고인들의 오묘한 서체 본래의 모습이 사라진 帖學 등을 선호하는 당시 서법의 천편일률적인 행태에 저항하고 이것을 후학들에게 경계하고자 파격서인 '六分半書'[9]를 창신하였다. 鄭板橋의 '六分半書'는 八分에 진서・초서・행서・예서・전서 5종류의 서체를 종합하여 창신한 서체이다. 이러한 '破格書'의 형성에 있어서 시대의 정치 상황과 양주 상업문화의 번영이 외부요인으로 작용했다면, 파격서 형성의 내부 요인은 올곧고 청렴한 관리이면서도 자유분방한 鄭板橋의 성품으로 창신된 시대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鄭板橋는 한대에서 당대에 이르는 대가들에게서는 陽剛의 美를, 송대에서 청대에 이르는 대가들에게서는 陰柔의 정취를 배웠다[10]고 할 수 있는데, 그의 六分半書는 중화의 美를 중시하는 전통서법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陽剛陰柔의 조화를 이루는 서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창신한 六分半書는 그의 학문과 인품을 포함하여 글자의 기운과 조형성까지 갖춘 '文字香書卷氣'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여러 서체가 한 폭의 작품 속에서 화합을 이루고 있는 '多體合一'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더 세분화하여 살피면 한 글자에 여러 서체가 결합되어 있는 '一字多變'의 모습도 있다. 또한 '古字의 활용'을 즐겨 하였고, 필획

6) 당시 사람들이 興化의 李鱓과 郑板桥 그리고 그의 文友 顾于观을 '楚阳三高'라고 하였다. 顾于观(1693-?)의 字는 萬峰 또는 桐峰이고, 號는 瀣陆으로 诗文을 잘하였다고 한다.

7) 청대 전각가 丁敬과 후에 그를 계승한 金冬心, 郑板桥, 黄易, 奚冈, 蒋仁, 陈鸿寿 등 7인이다.

8) 周亮工(1612－1672), 賴光表, 鄭板橋를 '三賢'이라며 사람들은 그들의 공적을 기려 제사를 지냈다. 賴光表는 건륭 3년-9년까지, 정판교는 건륭 11년-18년까지 潍縣에서 縣令을 하였다.(임종욱 편저, 앞의 책, p.1739.)

9) '六分半书'는 고정불변의 형식이 아니라 때로는 五分・五分半・六分・六分半・七分 등이기 때문에 '六分半书'를 한 종류의 서체 명칭에 국한시키는 것은 잘못된 견해라 본다. 이는 鄭板橋의 서체가 끊임없이 발전하여 완성된 것임을 반증한다고 여겨진다.

10) 실제 鄭板橋는 晉代 왕희지의 小楷와 행서 「蘭亭序」와 「宋拓聖教書」를 배웠고, 채옹의 글씨에서는 예서와 八分을, 종요에게는 眞書의 영향을 받았고, 송대 四家 중에서 蘇東坡와 黃庭堅 양가의 서풍을 익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鄭板橋의 '破格書'에 骨・力・勢의 필력과, 용필의 剛柔와 方圓 그리고 曲直 등의 형식미가 이미 익숙하게 운용되고 있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을 간소화하거나 偏旁의 위치를 바꾸는 방법 등을 취하였다. 그리고 六分半書는 '醜와 亂'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六分半書는 글자의 크고 작음이 일정하지 않고, 또 행서와 초서・예서・전서가 한데 뒤섞여 글자배열이 삐뚤빼뚤하여 亂해 보인다. 그러나 한 글자씩 보면, 보면 볼수록 아름다워 醜한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그의 '六分半書'는 그의 개성이 잘 반영된 것으로, 서법예술에서 '고정불변하는 형식은 없다'를 웅변한다. 특히 그의 六分半書를 보면 대나무 그리는 화법이 보인다. 곧 화법으로 서법을 쓰고, 서법으로 묵죽을 그린 것(以畵入書, 以書爲畵)과 鄭板橋의 書와 畵가 形과 神을 서로 보완하며 독특한 공간화의 양상을 실제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 鄭板橋의 畵에 나타난 竹의 心象

鄭板橋는 蘭竹石 등의 예술작품 외에 회화 창작원칙과 창작이론이 있다. 창작원칙에는 4가지가 있다. 첫째는 '造物爲師'로써 화가는 마땅히 대자연을 스승으로 하여 마음의 깊은 깨달음과 결합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좋은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不泥古法'으로써 古人의 이론과 법식의 틀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는 '師其意不在跡象間'으로써 그 意를 스승으로 하되 자취와 형상은 흉내 내지 않는 것이다. 넷째는 '簡易瘦勁'으로써 간단하면서도 가늘고 힘이 있는 것이다.

창작이론에는 '眼中之竹', '胸中之竹', '手中之竹'이 있다. 본 연구자는 이 3단계 회화론에 객관적으로 실재하고 있는 '自然之竹'을 더하였다. 이 自然之竹은 외부에 나타난 형상상태만이 아니라 내재된 그 무엇(對象自體)으로 鄭板橋는 대숲을 통해서 모든 우주 삼라만상의 근원이 되는, 하나의 그러한 것, 그 무엇인 一心을 본 것이다. 따라서 自然之竹은 鄭板橋가 심층 속에 내면화한 一心(眞如)을 보는 순간, 자신과 타인, 주와 객으로 표면화한 이원성의 다름과 차별성을 극복하고, '새벽에 일어나 본 대숲'을 통해서 대상의 본질이 하나임을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각적 인식단계인 '眼中之竹'에서는 '새벽의 대숲'이 鄭板橋라는 주체에 나타난 객관의 현상(표상)이라는 '眼观'과, 하늘을 보고 사람을 보는 '大观'의 기초 위에 觀其와 觀我를 아우른 '心观'이라고 할 수 있다. 지각적 인식단계인 '胸中之竹'은 眼中之竹에 대한 화가의 사상과 정감 등이 내면화된 주관적인 대나무 '胸有成竹'과 '胸無成竹'으로 결국 한 가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표현단계인 '手中之竹'은 胸中之竹의 의상이 物化된 것으로 화가의 주관과 객관이 일치된 예술세계를 화폭에 담은 창조적 심미의상이다. 鄭板橋는 화가가 화폭에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 즉 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법 너머의(趣在法外) 자연이며, 禪의 세계이며(不二禪), 自得의 경지이다. 그림의 상내와 상외의 허와 실이 서로 어우러져 마침내 오묘한 경관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대나무가 각각의 단계로 '變相'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조화의 오묘한 경지(化機)'이다. 이러한 變相은 창작의 한 과정이며 이 또한 鄭板橋와도 분리해서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유기적인 교융이 통섭적인 예술로 '승화'되는 것이다. 鄭板橋의 회화예술에서는 창신성과 더불어 儒佛道의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혼의 진수를 볼 수 있었는데, 그 진수는 즉 화면에 담긴 象內之象, 화가의 사상과 정감・심미취미 등이 표현된 象外之象, 그리고 예술정신의 최고 체현인 心象의 內外 合一이다. 바로 시간 안에서 시간 밖을 보고 공간 안에서 공간 밖을 보는 無形之形이었다.

제6장 鄭板橋의 藝術的 成就와 影響

鄭板橋가 이룩한 예술적 성취는 당대의 사람들과 후대 사람들이 '詩書畵 三絶'이라는 말로 그의 예술세계를 평가하였다. 논자에 따라서 정판교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도 하였지만 '詩書畵 三絶'이라는 평가에는

그 누구도 주저하지 않았다.

鄭板橋의 詩書畵 중에서 그가 전인의 성취를 뛰어넘은 분야는 서법부분으로 '六分半書'라는 하나의 격을 창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사람들과 후세의 사람들은 鄭板橋의 서법에 대하여 적지 않은 평들을 하였는데, 鄭板橋의 서법에서의 성취는 논쟁할 여지없이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서화는 중국뿐 아니라 조선 그리고 일본에도 그 명성이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얻고자 하였으며 鄭板橋의 서화를 임모하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은 적지 않다. 揚州八怪 중에서도 鄭板橋로 이어진 개성파의 계보는 다시 후대에서 후대로 천년의 요원한 생각을 담고 많은 書畵家들에게로 이어졌는데 특히 海上畫派[11]이다. 鄭板橋의 예술특징 가운데 '인문정신'은 현대문인화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근래에 중국 문화계에서는 鄭板橋에 대한 소개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TV, 영화, 음반, 우표 등으로 꾸준히 전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32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鄭板橋의 영향은 계속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의 詩書畵 작품에 매료되는 것은 작품의 문학적, 예술적인 수준뿐 아니라 淸官으로서의 그의 인품도 인정하고 존경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종합하면, 鄭板橋의 예술적 성취는 그의 별호인 三絶에 걸맞게 詩書畵에서 당대는 물론 이전의 전통과 이후를 잇는 架橋와 創新으로 시대의 경계를 허무는 뛰어난 예술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그의 예술적 성취는 국내외적으로 널리 파급되어 동서양의 예술이 교융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 鄭板橋의 이러한 파격적인 창신성은 현대에도 장차 올 새 시대에도 도전과 희망을 주는 예술혼으로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第7章 結論

대나무의 마디는 사람의 척추와 비슷하다고 한다. 때문에 옛사람들은 대나무에 사람의 심상을 조화시켜 군자의 풍모로 말하기를 즐겼다.

본 논문은 '鄭板橋의 詩書畵에 나타난 竹의 心象을 연구'하였는데 鄭板橋의 인식 안에는 자기만의 개성을 추구하는 자유분방함과 전통적인 유자관념 그리고 인간적인 애민사상이 공존한다. 특히 문화예술관에서는 개성과 창신을 추구하고, 삶에서는 현실을 중시하는 경세적 관점 등을 강조하면서도, 당시 폐해가 극심하던 八股文을 능동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진취성과 보수성이 병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 그의 의식세계와 문화예술관의 주된 흐름은 진취적이며 창의적 측면이 돋보인다 할 것이다.

그의 詩書畵에 나타난 대나무의 심상은 그의 사상・학문・恨・추구 등 실체적 내면을 儒佛道를 통하여 나타내었으나 그는 어느 한 곳에도 집착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서법에 나타난 대나무의 심상은 '文字香書卷氣'를 근간으로 하여 전통의 계승과 개혁적 변화의 결정체인 破格書로 나타났다. 이러한 독특한 풍격의 '六分半書'는 '醜'와 '亂'을 통하여 파격과 조화를 나타내었고, '形'과 '神'을 통하여는 대나무의 형체와 정신을 드러내었다. 鄭板橋의 회화이론인 '寫竹論'에서는 '自然之竹'을 논하여 鄭板橋의 '眼中之竹', '胸中之竹', '手中之竹'의 심미의상의 발전단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나무의 '象內之象'과 '象外之象' 그리고 '心象의 內外合一'을 그림 안과 밖에서 나타냄으로써 鄭板橋의 詩書畵는 파편화된 의경이 아니라 모

11) 海上畫派는 일반적으로 19세기 중엽(1843)에 발생하여 20세기 초(1927年)까지 일련의 화가들이 上海지역에서 활약한 것으로 '海派' 혹은 '沪派'라고도 한다. 해상화파는 唐・宋 전통을 이어 明・淸의 陳淳・徐渭・八大山人・石濤・揚州八怪 등의 대가들과 金石學의 영향을 받았는데, 일찍 외래문화를 받아들여 전통적인 中國畫에 대담한 개혁과 창신(서양화 기법과 전통화의 융합 등)을 진행하여 시대의 숨결을 나타내었다. 대표 화가로는 '淸末海派四傑'로 虛穀・任伯年・吳昌碩・蒲華가 있다.(张曼华,「扬州八怪绘画思想中的雅俗观」, 南京艺术学院硕士论文, 2002. pp.27-30 참고.)

두가 합일되고 교융되어 드러나는 전인적인 예술성의 추구임을 소개하고자 했다. 오늘날 詩書畵의 합일을 추구하는 그의 예술세계가 더욱 빛나는 이유는 다가올 미래에는 예술가들 모두가 독립적 예술의 벽을 넘어 상호 연합하고 협업하는 종합예술이 대세일 것으로 미래학자들이 전망하기 때문이다.[12)]

끝으로 예술의 목적이 천하의 백성을 위로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그의 통 큰 예술혼을 좀 더 전인적으로 객관화하여 연구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불민한 필자의 몫은 아닌 듯 멈추었다. 이제 원하기는 이 연구를 토대로 鄭板橋에 관한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더 다양하게 더 깊이 있게 그의 예술세계를 규명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參考文獻〕

1. 기본자료-1
卞孝萱・卞岐 編著,『郑板桥全集』, 凤凰出版社, 2012.

2. 기본자료-2
王幻,『鄭板橋評傳』, 臺灣商務印書館, 民國 56.
陳書良,『鄭板橋評傳』, 巴蜀書社, 1989.
周积寅・王風珠 編著,『鄭板橋年譜』, 山東美術出版社, 1991.
周积寅,『郑板桥』, 吉林美术出版社, 1996.
馬道宗 主編,『鄭板橋傳』, 京華出版社, 2002.
鄭中建・林存陽 著,『鄭板橋的狂怪人生』, 北京古籍出版社, 2002.
殷德儉,『鄭板橋書畵集』, 中國民族攝影藝術出版社, 2003.
肖志娅・张冰 著,『郑板桥书畵鉴赏』, 北京, 中国轻工业出版社, 2009.
鍾隆榮 著,『鄭板橋的詩書畵』, 台北, 印書小舖, 中华民国 97.
陈书良 著,『陈书良说郑板桥:诗书画印'糊涂人'』, 长沙, 中南大学出版社, 2011.
李金旺 主編,『鄭板橋家書』, 外文出版社有限責任公司, 2012.
양귀숙 譯,『鄭板橋集』, 소명, 2017.

3. 事典
許愼,『說文解字注』, 學海出版社, 中華民國 71.
王向奉 主編,『文藝美學辭典』, 辽寧大學出版社, 1988.
王世德 主編,『美學辭典』, 知識出版社, 1986.
中國書法大字典編輯組 編,『中國書法大字典』, 世界圖書出版公司北京, 1994.
복건증경 編, 최광렬 譯,『書道大字典』, 미술문화원, 1986.
金星元 編譯,『五體字典』, 明文堂, 1983.
林鍾旭 編著,『中國歷代人名辭典』, 이회문화사, 2010.
李熙昇 編著,『國語大辭典』, 民衆書林, 1982.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編,『원불교대사전』, 2013.
月刊美術 譯,『世界美術用語辭典』, 月刊美術, 1999.

高麗大藏經 지식베이스 http://kb.sutra.re.kr/ritk/service/diction/dicSearch.do

12) 박영숙・제롬 글렌・테드 고든・엘리자베스 플로레스큐 지음,『유엔미래보고서 2025』, 교보문고, 2012. pp.218-219. 참고.

漢典 http://www.zdic.net/c/8/14c/329560.htm
漢典 http://www.zdic.net/z/1e/js/7368.htm
說文解字 http://www.shuowen.org/view/3707
네이버사전 http://dedic.naver.com/#entry/dk/DK1061803.nhn
ChineseEtymology http://www.chineseetymology.org/CharacterEtymology.

外 詩書畵 關聯著書, 단행본, 國內外 논문 다수

朱彝尊 前·後期詞의 창작 양상 변화*

— 明淸 교체기 강남 지식인의 정체성 변화와 관련하여

김하늬**

<目 次>

1. 들어가며
2. '詞人의 詞'에서 '學人의 詞'로
   1) 前期詞: 작자의 내적 비애 표현
   2) 과도기적 단계에서의 集句詞 창작
   3) 後期詞: 비애의 축소와 '詠物'에의 몰두
3. 朱彝尊 詞의 前後期 변화의 의미
   1) 명청교체기 小遺民의 불안정한 정체성과 표현의 한계
   2) '學人詠物'의 발전: '나'에서 '외부 세계'로의 초점 전환
   3) 詞體에 대한 인식과 尊體 전략의 변화
4. 나가며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淸初 詞壇의 영수인 朱彝尊(1629-1709)의 詞作 양상의 변화를 명청교체기 강남 지식인의 내면세계 변화라는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명청교체기는 한족의 왕조가 이민족의 왕조로 교체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은 六朝 시대 이래로 중국전통문화의 중심축이 된 '江南'의 지식인 사회였으며, 이 가운데 많은 이들이 새로운 왕조로 귀순하기를 거부함에 따라 유민 집단이 대거 발생하였다. 명 유민 집단에게서 나타나는 강한 지역적 특색은 강남이 이전 왕조의 도읍지, 혹은 그 주변이었고, 북방 이민족 지역과 비교적 떨어진 거리에 있다는 물리적 위치 때문만은 아니다. 그보다는 강남 지역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한족 문인 문화의 중심'이라는 상징성이 당대 지식인들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강남의 지식인, 특히 유민 집단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생계의 문제, 혹은 강압책과 회유책을 병행하는 청조의 이중적인 정책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분화하게 되었으며, 끝내는 새로운 왕조 안으로 흡수되고 말았다. 강남의 지식인 사회가 통합됨으로써 '청'은 마침내 통일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강남 지식인들이 경험한 내면적 변화는 그들의 문학창작에도 영향을 미쳤다. 浙江省 嘉興 출신인 주이준과 그와 교류하며 '浙西詞派'라는 문학 집단을 형성한 동향의 문인들 또한 그 상당수가 이러한 '강남'이라는 상징적 공간에서 유민 집단화된 인물이었다. 이 가운데 주이준의 詞는 그것이 창작된 시기에 따라 문학적 양상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고는 이러한 창작 양상의 변화가 '명'이라는 구 왕조의 遺民에서 새로운 왕조의 學人으로 그 정체성이 변화해갔던 명청 교체

---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朱彝尊 前·後期詞의 창작 양상 변화 — 明淸 교체기 강남 지식인의 정체성 변화와 관련하여>(2018)를 요약·정리한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기 강남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반영한 것이라 보고, 전・후기의 변화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주이준의 사를 고찰하였다.

본고에서는 주이준이 博學鴻詞科에 응시한 康熙18년(1679)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전기, 이후를 후기로 구분하였다.[1]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曝書亭集≫에 수록된 작품 중 주이준의 前期詞에 해당되는 작품은 1679년 이전에 완성된 사집 ≪靜志居琴趣≫ 1권, ≪江湖載酒集≫ 3권, ≪蕃錦集≫ 1권에 수록된 작품이며, 後期詞에 해당되는 작품은 1679년 이후에 완성된 ≪茶煙閣體物集≫ 2권에 수록된 작품이다.

2. '詞人의 詞'에서 '學人의 詞'로

주이준의 사 창작은 서정주체로서의 '나'의 내면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에서 '외부 세계'를 탐구하고 기록하는 것으로 그 초점이 옮겨갔다. 주이준의 전기사가 사의 서정 기능을 극대화하여 작자 개인의 비애를 토로하였던 '詞人의 詞'였다면, 주이준의 후기사는 문학 창작에서의 학문의 가치를 강조하고 학식을 활용하여 '외부 세계'에 관한 지식을 기록하는 '學人의 詞'로 변화한 것이다.

1) 전기사: 작자의 내적 비애 표현

주이준은 강희 11년(1672), 그의 전기사집 중 하나인 ≪강호재주집≫을 완성하고 스스로 이에 제하는 <解珮令・自題詞集> 사를 지었는데, 이 작품에서 그는 "나이 들어 사를 지은 것은 절반은 공중에 한을 전한 것이라네.(老去填詞, 一半是, 空中傳恨.)"라고 하여 사를 통해 자신의 한을 토로하였음을 밝혔다. ≪강호재주집≫에 제한 이 작품은 작자 자신이 ≪강호재주집≫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창작하였는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강호재주집≫에 수록된 200여 편의 사는 실의한 작자의 감정을 토로한 것이며, 이는 ≪강호재주집≫과 유사한 시기에 창작된 일련의 전기 사 작품으로까지 확대시켜 볼 수 있다. 결국 주이준 전기사는 '비애'를 주로 하는 '나'의 情을 노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작되었으며, 이는 대체로 작자 자신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서정적 자아의 自我述懷의 형태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작자의 내면적 비애 토로를 목표로 하는 주이준 전기사는 '자기서사'로서의 애정사 창작과 '역사의식'을 중심으로 한 사대부적 비애의 표출, 두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사의 가장 대표적인 제재인 애정사의 경우, 주이준 역시 다량으로 창작하였는데, 그의 사집 중 가장 이른 시기인 강희6년(1667)에 완성된 ≪靜志居琴趣≫ 83수는 사집 전체가 특정 여성-주이준의 처제-과 관련된 작자의 애정 경험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愛情詞史에 유례없는 창작물이다.

주이준 애정사의 핵심은 그것이 결국 작자인 '나' 개인의 이야기라는 점이다. 송대 이후 사는 보편적 정서를 노래하는 데서 벗어나 사대부의 개인적인 서정 문학으로서 완전히 자리 잡았지만, 유독 '애정'이라는 영역에서는 여전히 실체를 알 수 없는 여성 화자를 내세워 정형화된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보편적인 감정을 노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주이준은 작자 자신을 형상화한 서정적 자아를 등장시키고. 실제 체험에서 비롯된 개인의 비애를 진정성 있게 토로하였다는 점에서 이전의 애정사의 한계를 극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주이준의 또 다른 전기사집인 ≪강호재주집≫은 주이준이 遊幕 생활로 전국 각지를 이동하던 도중에 지은 것으로, "넋을 잃고 강호에서 술을 싣고 다니네.(落魄江湖載酒行)"(杜牧, <遣懷>)라는 시구에서 가져온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실의에 빠진 채 떠도는 작자의 비애를 토로한 것이다. 여기서 그가 실의에

1) 다만 본고는 주이준이 만년에 직접 편찬한 문집 ≪曝書亭集≫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초기작 ≪眉匠詞≫의 경우 이전 시대 작품의 모방을 통한 습작으로 아직 작자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사를 창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빠지게 된 것은 결국 그가 '유민'이고 그로 인하여 한 곳에 머물지 못하는 '객'의 신세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사대부 유민으로서의 역사의식과 客愁를 사로 노래하는 것은 이 시기 주이준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이 시기 사의 尊體 경향과 더불어 사가 詩化하고 詞史 의식이 발전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대적 원인으로 당시 지식인들이 느낀 不平의 감정이 사의 영역에서까지 그것을 토로하게끔 만들었으며, 특히 淸朝의 시문 통제는 지식인들이 詞體에 몰두하게 된 원인 중 하나였다. 오랜 기간 '小道'로 인식되었던 사는 상대적으로 통치자의 관심 밖의 영역이었고, 이에 따라 시문을 통해 시대적 감개를 드러내는 것에 제한을 받게 된 지식인들이 표현의 돌파구로서 사를 선택하여 왕조 교체기의 비애를 토로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과도기적 단계에서의 集句詞 창작

1678년 완성된 주이준의 ≪蕃錦集≫은 총 109수의 작품이 수록된 集句詞集으로, 109수 모두 唐人의 시구를 모은 것이다. ≪번금집≫에 드러난 주이준 사 창작의 새로운 목적과 태도는 주이준의 사 창작에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전기사에서 후기사로 넘어가는 그 경계에 완성된 ≪번금집≫은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애정의 좌절'과 '객수'라는 '나'의 비애를 표출하는 自我抒情을 추구하지만 '집구'라는 까다로운 형식을 사용함으로써 '지식의 활용과 과시', '문학적 유희의 추구'가 사 창작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집구사의 창작을 통한 抒情은 제3자의 표현을 빌려 감정을 드러내는 간접화된 표현 방식이다. 따라서 주이준이 이 시기, 집구사의 창작에 몰두하였던 것은 그가 자신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번금집≫이 완성된 1678년은 주이준이 박학홍사과에 추천된 해이다. 즉, 유막 생활로 전국을 떠돌아다니던 주이준에게 제도권 진입의 가능성이 열린 시점인 것이다. 박학홍사과의 추천으로 통치자의 주목을 받게 되었고, 스스로도 제도권 진입을 희망하는 상황에서 주이준은 이전처럼 자유롭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다. 대신 前人의 시구를 빌린 감정의 토로는 만약 그것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원작자에게 돌림으로써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하여 주이준은 '집구'의 방식을 택하여 자신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기존에 존재하는 시구를 새로이 조합하여 본래의 의미를 파괴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행위는 문학적 유희의 추구다. 200인이 넘는 전인들의 시구로 구성된 주이준의 집구사는 博學의 결과물로, 주이준의 사가 내면의 갈등을 토로하는 개인적 抒情으로서의 '사인의 사'에서 학식이 창작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학인의 사'로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前人의 시구라는 지식을 창작의 직접적인 재료로 삼고, 前人들의 名詩가 사 창작의 기교를 연마하는데 본보기가 된다는 점에서 문학 창작에 작자의 학문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용상으로 오묘한 이치를 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는 사 창작에서 학문적 지식이 반드시 어떠한 이치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만은 아니며 지식의 나열을 통한 창작 행위, 그 자체, 즉 오락성의 추구를 위한 것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과도기적 시기의 집구사 창작은 사 창작에서 지식의 오락화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비애의 축소와 '詠物'에의 몰두

1679년, 주이준은 박학홍사과에 응시하여 관직에 진출함으로써 제도권 안으로 완전히 편입되었다. 이제 더 이상 유민의 신분이 아니게 된 그는 청조의 '학인'으로 그 정체성이 변화함에 따라 문학의 창작 양상 또한 이전과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이게 되었다.

주이준의 후기사에 해당되는 것은 詠物詞集인 ≪다연각체물집≫ 2권으로, 오로지 영물사 114수로만 채

운 이 사집은 주이준의 후기 사 창작이 '영물'이라는 주제에 편향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청초 사단에 영물사가 발달하게 된 것은 1679년 박학홍사과를 전후한 시기에 京師에서 남송대 유민의 영물사집 ≪樂府補題≫을 읽고 창화하는 것이 유행[2]했던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 ≪악부보제≫를 발굴하고 유행시킨 것이 바로 주이준이었다.[3]

≪악부보제≫ 창화가 유독 유민 문인들이 대거 뜻을 꺾고 출사한 박학홍사과를 전후한 시기에 성행하였고, 박학홍사과에 응시한 주이준과 陳維崧 등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악부보제≫의 유행에 변절한 유민 집단의 죄책감이 영향을 끼쳤음을 예상하게 한다. 그러나 이들의 실제 창작물은 '故國之恨'을 다룬 遺民詞로서의 성격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는 점에서 남송 유민의 영물사와 큰 차이를 보인다. 주이준의 경우, ≪악부보제≫의 소재를 차용한 8편[4] 모두 物의 묘사는 세밀하지만 작자 개인의 감정은 모호하거나 아예 사물과 거리를 두고 있다.[5]

주이준의 영물사는 직접적으로 토로하기 어려웠던 감정을 '物'과의 일체를 통해 암시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던 ≪악부보제≫와는 그 창작의 목표가 다르다. 작자는 오히려 '物'과 거리를 둠으로써 대상을 객관화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주이준의 영물사가 객관적인 존재로서의 '物' 그 자체를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이다. 외부 사물에 대한 관찰과 탐구의 결과인 주이준의 영물사는 그것 자체로 정보와 지식의 기술로서의 성격을 새로이 갖게 되었으며, '학문 과시'와 '문학적 유희'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이는 실의한 사대부의 개인적 서정을 위한 '사인의 사'로서의 주이준 사가 점차 '학인의 사'로 변화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이준의 영물사는 전통적인 경학은 물론 雜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지식을 아우르는 博物學的 특징을 보여준다. 예컨대 주이준은 ≪다연각체물집≫을 구성함에 자연현상, 사물류(문구・완구・복식・악기), 인체류, 식물류(화초・열매・버들), 동물류(조류・짐승・곤충・수중생물)의 순으로 카테고리 별로 각각의 항목을 분류하는 백과사전식 구성을 채택하였다. 또한 영물사의 제재 확대 역시 온갖 사물을 두루 아우르는 博物志로서의 성격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식물류의 주제가 영물사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것에 비해 주이준의 영물사는 자연현상이 5수, 문구와 완구, 복식 등의 사물이 13수, 인체가 13수, 꽃, 열매 등의 식물이 52수, 곤충과 동물이 31수로 이전 시대의 영물사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제재를 활용하였다.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다양한 소재의 채택은 주이준의 사물 인식과 지식 세계가 확대되었음을 의미

---

2) 蔣景祁, <刻瑤華集述>: ≪악부보제≫를 얻게 되어 도읍의 벼슬아치들의 사체가 일변하고 ≪악부보제≫를 이어 '후보제'를 모방하여 지으니 ≪악부보제≫의 정수를 얻으려는 노력이 보인다.(得樂府補題, 而輦下諸公之詞體一變, 繼此復擬作後補題, 亦見動筋擢髓之力.)

3) ≪曝書亭集≫ 卷36 <樂府補題序>: ≪악부보제≫ 1권은 상숙 오씨의 필사본으로 휴녕의 왕진현(즉 汪森)이 장흥의 장서가에게 산 것이다. 나는 그것을 좋아하여 급히 베껴 경사에 가지고 갔다. 의흥의 장경소(즉 蔣景祁)는 곡조에 맞추어 장단구를 짓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그것을 읽고는 찬탄이 그치지 않으니 마침내 판각하여 전하였다.(樂府補題一卷. 常熟吳氏抄白本. 休寧汪氏, 購之長興藏書家. 予愛而亟錄之. 攜至京師. 宜興蔣京少, 好倚聲為長短句, 讀之賞激不已, 遂鏤版以傳.)

4) <天香・龍涎香> 2수, <水龍吟・白蓮> 1수, <摸魚子・蓴> 1수, <臺城路・蟬> 2수, <桂枝香・蟹> 2수의 총 8수.

5) 예컨대 ≪악부보제≫의 '용연향' 사는 용이 전통적으로 황제를 상징하는 동물이었고, 용연향이 용의 입에서 나온 분비물을 채취하여 제조한 것이라는 전설이 있어 원나라의 僧官인 楊璉眞伽가 송나라 황제의 능을 도굴하고 理宗이 입에 물고 있었던 야명주를 훔쳤다는 이야기를 암시하는 것으로 읽혔다. 그러나 주이준의 용연향 사는 용연향의 생산부터 사용, 효능까지 용연향에 관한 다양한 지식을 기록하였지만, 그것에 寓意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이준의 <天香・龍涎香>은 다음과 같다.
"깊은 못 아래에는 울음소리 남아있는데, 물결 속에서 불꽃 일어난 뒤, 용궁을 걸어 닫지 않고 자는 데 열중하였지. 거품 말리고 소용돌이치며, 작은 나무에 비린내를 드리우면, (향을) 채집하여 단인의 배와 교인의 시장으로 들어가네. 남쪽 변경 지역의 새로운 기록에 붉은 육일니와 섞어 나누어 만들었다는데, 비단 주머니에 싸는 것은 아직 허락되지 않아, 금갑을 가지고 돌아가 먼저 시험해 보네. // 뜨거운 계절에는 더위 식힐 생각이 제일 넘쳐나니, 새벽에 길은 물을 대어, 澄水帟을 펼치고 옥고를 오래도록 끓여내어, 창문 반을 뒤덮는 구름기운을 불어내네. 사향노루 따뜻한 향에 빠져드는데, 또 무소뿔 휘장에 꺾여 들어가 하늘거리니 일어나기 어렵네. 나갑향 거듭 돋우니, 차 연기 조금 가늘구나.(泓下吟殘, 波中燄後, 珠宮不鎖癡睡. 沫卷盤渦, 腥垂尺木, 采入蜑船鮫市. 南蕃新譜, 和六一、丹泥分製. 裹向羅囊未許, 攜歸金匜先試. // 炎天最饒涼思. 井華澆、帟鋪澄水. 百沸瓊膏, 噓作半窗雲氣. 麝火溫馨欲陷, 又折入犀帷裊難起. 螺甲重挑, 茶煙較細.)"

하며, 동시에 주이준의 영물사가 '새로운 지식의 서술'을 위한 목적으로 창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지식의 서술'로서의 주이준 영물사의 특징은 그의 自註 사용에서 드러난다. 주이준의 자주는 주로 작품의 창작 배경을 알려주거나 내용의 보충을 위한 것이지만, ≪다연각체물집≫에 수록된 38수의 작품의 자주는 이전의 자주와는 달리 대체로 작자가 노래하고 있는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6] 주이준이 그의 영물사에서 이처럼 자주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은 그것이 독자들이 보편적으로 알지 못하는 정보를 서술하고 있어 그것을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주이준의 자주는 주이준 영물사가 '物'에 대한 작자의 광범위한 관심과 학문적 탐구의 결과임을 보여주며, 이는 학문을 문학 창작의 주된 재료로 사용하는 '학인의 사'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朱彝尊 詞의 前後期 변화의 의미

1) 명청 교체기 小遺民[7]의 불안정한 정체성과 표현의 한계

유민은 결코 세습될 수 없기에 끝이 예정된 집단이다. 명청 교체기 유민의 후손들은 끝내 경제적 빈곤을 이기지 못하고 벼슬길로 나아갔고 유민 사회마저도 그들의 자식 세대가 관직에 진출하는 것을 용인하는 분위기였다.[8] 주이준은 바로 이러한 흐름의 한 가운데에 놓인 과도기적 세대였다. 그는 명의 멸망을 목격하였지만 그것을 10대의 어린 시절에 경험하였고 명 왕조에서 벼슬을 한 적도 없으니 명말에 정치적 혼란을 직접 경험한 세대와는 차이가 있었다. 유민 후속 세대처럼 자신과 아버지 세대를 분명하게 구분 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유민 1세대처럼 유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뚜렷하지도 않았던 이 과도기적 세대는 태생적으로 유민 의식에 한계가 있었고 경제적 빈곤이 더해지자 유민으로서의 절조를 지키기 더욱 어려워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학의 흥기를 통한 국가 통치를 기치로 내건 박학홍사과는 유민 집단이 지키고자 했던 자존심의 근원, 즉 강남으로 대표되는 한족 사대부 집단의 문화적 우월성을 인정해줌으로써 그들의 타협을 유도하였다. 즉, 정치적으로는 명조에 대한 충성을 꺾어야 했지만, 한족 지식인이 이민족과 스스로를 거리두기 하였던 '문화적 우월성'이라는 정체성은 유지할 수 있었기에 박학홍사과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학술 활동에 몰두하고 문학에서의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당시 문단의 전반적인 흐름이었다. 국가 멸망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던 명대 학문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되었던 古學에 대한 몰두는 이 시기 청조에 대한 저항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자 더욱 심해졌다. 이는 '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함에 따라 새 왕조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된 대신, '학인'으로서 그들에게 남은 마지막 민족적 자존심인 문화적 우월성만은 지키고자 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주이준이 사를 통해 개인의 비애를 토로한 '사인'에서 학문을 활용하여 문학을 창작하는 '학인'으로 변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정신적 타협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주이준의 사풍 변화를 유민 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9] 문제는 유민 의식은

6) <雪獅兒・錢葆馚舍人書詠貓詞索和, 賦得三首>(其一)의 예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에는 총 6개의 자주가 있는데 이는 독자에게 고양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소금과 고양이를 교환하는 풍속, 고양이의 명칭과 같은 고양이 자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물론, 고양이에 관한 시구와 그림에 대한 정보까지 기록하여 고양이의 색이나 행동을 묘사하는 표현 방식의 예를 제공하였다.

7) 본고에서 사용하는 '小遺民'은 弱冠이 되기 전인 어린 시절에 이미 명이 멸망한 세대를 가리킨다. 명 왕조를 살긴 하였지만 나이가 어려 실질적으로 명 왕조에서 활약한 적은 없는 세대를 말한다.

8) 예컨대 박학홍사과 응시를 거부하고 평생을 유민으로 산 黃宗羲도 그의 아들 黃百家를 입궁시켜 ≪명사≫ 편찬에 참여하도록 한 바 있다.

9) 주이준은 황종희에게 "내가 출사한 것이 선생께 부끄럽습니다.(予之出, 有愧於先生.)"(<黃徵君壽序>)라고 하여 자신의

남아있으나 그것을 표현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스스로 자제하게 된 것이다. 강남이 전통중국에서 갖는 상징적 의미에 따라 청조는 강남의 지식인들을 강압적으로 억누르거나 혹은 회유하고자 하였다. 특히 通海案・奏銷案・哭廟案'의 3大案과 같은 고압정책이 강남 지식인들에게 미친 영향은 대단히 컸는데, 반청 세력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처벌은 지식인 사회를 정신적으로 위축시켰다. 陳確이 "칼끝은 조금도 드러낼 수 없으니 한번 드러내면 곧 죽음으로 이르는 길이다.(鋒芒圭角, 露一毫不得, 一露即是殺機.)"(<名利>)라고 한 것은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 글을 써서 재주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풍조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일련의 사건들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주이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내면적 갈등, 특히 유민 의식에서 비롯된 내면세계를 표출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꼈다. 그렇다고 하여 그의 유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다. 그것은 남송사인에게 동질감을 느끼고 ≪악부보제≫를 비롯한 남송사를 추종하고 모방하는 행위 그 자체로 여전히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것을 모방하되 형식적인 면에 머무르고 내용적인 면으로는 이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으니, 이는 곧 주이준 자신의 자기 검열에 따른 결과였던 것이다.

2) '學人詠物'의 발전: '나'에서 '외부 세계'로의 초점 전환

중국 고대의 사유 체계에서는 세계를 주체인 '나'와 객체인 '외부 대상'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心'과 '物'을 대립적인 관계로 파악하여 '心'을 중심으로 '物'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철학적 논의를 진행하였다.[10] 전통중국의 '玩物喪志' 관점은 바로 이와 같은 '物'에 대한 경계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었다.

그런데 명대에 풍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도시문화와 상업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사상적 변환이 일어났다. 특히 明末 물질문화의 발전은 '物'에 대한 관심과 '玩物'을 긍정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는데, 이에 따라 '物'에 대한 문인 사회의 담론을 적은 '감상 문헌' 역시 대량으로 출현하였다. 다만 16세기 후반~17세기 초반의 문인들이 '감상 문헌'을 통해 '物'에 대한 담론을 생산한 것은 순수한 앎의 추구라기보다는, 명말의 불안정한 계층 질서에 반발하여 고급스러운 심미안을 제시함으로써 자신들을 다른 집단과 경계 짓기 위함이거나,[11] 혹은 실의한 문인이 '物'에 대한 몰두를 통해 자아를 표현하고자 한 것이라 볼 수 있다.[12]

淸初 지식인들의 '영물'에 대한 관심은 물질문화의 발달로 '物'에 대한 담론이 활발하였던 명대 후기 문인 사회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소외된 문인이 '物'에 자아를 의탁하는 詩的인 방식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주이준의 영물사집은 抒情과 완전히 분리되지는 않았지만 '物'과 '我'를 일치시키는 자아 기탁에서 벗어나 外物의 속성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문헌에서 근거를 찾아 그것에 대한 지식을 축적・분류・재배치하는 박물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유민 의식의 약화와 표현의 위축으로 '物'에 대한 기탁을 통해 실의한 문인으로서의 비애를 토로하는 서정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으며, 또 다른 원인은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格物致知' 관점의 변

변절을 수치스러워 했고, <北山移文>에서 은거하다 벼슬하러 나간 周顒을 비난하는 장면에서 사용한 '騰笑'를 자신의 시문집의 이름으로 삼은 것에서도 그의 내면에 유민 의식이 잔존하고 있으며, 적어도 유민으로서 절조를 꺾은 것을 대단히 부끄러워하였음을 알 수 있다.

10) 손정희, <심(心)과 물(物)의 관계로 본 '완물상지(玩物喪志)'의 철학적 쟁점>, ≪철학사상≫ 제62호, 2016, 54쪽 참조.

11) ≪장물지≫가 그 예로, 문장에서 종종 '吾黨', '吾輩', '吾儕'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사대부 계층의 순수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폐쇄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김지선, <≪長物志≫ 에 나타난 明末 사대부의 내면세계>, ≪中國學論叢≫ 第42輯, 2013, 136쪽 참조.

12) 최수경은 이 시기, '物'에 대한 '癖'으로 승화된 감상주의의 배경에는 경쟁 사회에서 밀려나 대안적 삶을 선택해야 했던 문인들의 자아표현 수단의 확대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최수경, <明代 後期 상업출판물 속의 '物' - '爭奇' 시리즈를 중심으로>, ≪中語中文學≫ 제60집, 2015, 35쪽 참조.

화와 명말청초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경세치용 학문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학문적 관심을 우주와 도덕의 원리를 밝히는 것에서 현실적인 經世로 전환하였던 명말청초의 학술적 흐름은 도덕적·관념적이었던 宋明理學의 인식 체계에서 벗어나 사물을 그 자체로 탐구하는 '格物'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物'에 대한 지식 탐구가 성리학에서 지향하는 "천리의 체현"에서 벗어나 온갖 만물을 다루는 박학의 차원으로 변화하였고,[13] 인간의 '마음'에 대한 이해에서 외부 세계에 대한 탐구로 그 관심의 초점이 옮겨가기 시작한 것이다.

더불어 정치적 위기,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강남 지식인들의 이동 범위 확장은 그들의 경험 세계를 확대시켰고, 이는 '物'에 대한 인식의 확대로 이어졌다. 동시에 강남 지역의 인쇄업·출판업 발달로 인한 대규모 지식·정보의 유통은 '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식인들로 하여금 간접 체험을 통해서 역시 인식 세계를 확장시킬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이 다시 그들의 '글쓰기'에 영향을 주었으니 간접 체험을 통해 얻게 된 '物'에 대한 지식을 '사'라는 문학 체제를 통해 새로이 기록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한 것이다.

청초 사단에서 博物志的 성격의 영물사가 창작된 것은 '物'에 대한 지식인들의 관점이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나'와 '物'을 분리하여 인식하기 시작한 청초의 지식인들은 혼란스러운 시기에 '物'에 몰두하여 현실에서 도피하되, '나'를 표현하는 '詞人'의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學人'의 입장에서 외부 세계의 객관적인 존재로서의 '物'에 관심을 가졌다. 결국 옛 왕조의 '유민'에서 새 왕조의 '학인'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었던 강남 지식인 계층의 정체성 변화가 외부의 '物'에 대한 관심 고조와 인식 세계 확대와 맞물리면서 '학인 영물사'의 창작을 유도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3) 詞體에 대한 인식과 尊體 전략의 변화

주이준의 사 창작 양상이 크게 변화하게 된 데에는 사라는 문학 체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 강희 10년(1671) 전후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陳緯雲紅鹽詞序>에서 주이준은 "사를 잘 말하는 사람은 규방의 아녀자의 말을 빌려 <이소>와 변아의 뜻에 통하니, 이는 특히 당시에 뜻을 얻지 못한 자가 그것에 정을 기탁하기에 마땅한 바일 따름이다.(善言詞者, 假閨房兒女子之言, 通之於離騷變雅之義, 此尤不得志於時者所宜寄情焉耳.)라고 하였다. 사가 실의한 자가 정을 기탁하여 우회적으로 표현하기에 적합한 문체임을 이야기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사에서 중요한 것은 내면의 不平을 담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詞學觀이 지속된 것은 아니다. 강희 25년(1686) 무렵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紫雲詞序>에서 주이준은 "시는 전쟁이나 동란으로 흩어져 떠돌고 어려움에 처하면 작자는 더욱 잘 쓰게 되지만, 사는 연회에서 즐기고 편안한 때에 노래로 태평성대를 읊기에 적당하다.(故詩際兵戈俶擾流離鎖尾而作者愈工. 詞則宜於宴嬉逸樂, 以歌詠太平. 此學士大夫並存焉而不廢也.)"라고 하여 '태평성대의 노래'로서의 사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사의 효용에 대한 인식 변화를 드러내었다.

이와 같은 주이준의 입장 변화는 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인 동시에 尊體의 전략이 변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言情'을 본색으로 하는 사를 詩教와 결합시킴으로써 그것이 여성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시 못지않은 심원한 뜻을 담아낼 수 있다고 주장하여 詞體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시와 사의 역할을 완전히 달리함으로써 사의 존재의 당위성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다. 즉, 시와 사가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모두 실의한 자의 불평의 감정을 토로하는 것으로 보았던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 노래하는 영역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시와 사가 공존해야함을 주장한 것이다. 이는 국세의 안정에 따라 '유민의

13) 元明代를 거치면서 '격물치지'가 성리학의 맥락에서 점차 벗어나 박학의 차원으로 변화한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 김선희, <격물궁리지학, 격치지학, 격치학 그리고 과학 -서양 과학에 대한 동아시아의 지적 도전과 곤경->, ≪개념과 소통≫ 제17호, 2016을 참조할 수 있다.

사’로서의 생명이 끝난 詞體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 그것의 생명력을 연장시키기 위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4. 나가며

이전의 것을 부정하고 새로운 이론과 사풍을 제시하는 행위는 안정된 정치적 위상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문단에서 위세를 떨쳤던 王士禎 등에 비하여 후발주자였던 주이준과 그의 추종자들이 사단에서 새로운 문화 권력을 창출하는 데 성공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이준은 ≪악부보제≫의 복간으로 청초 사단의 영물사 유행을 주도하였고, 남송사를 추종하는 사론을 제시하여 사단의 흐름을 바꾸었으며, ‘공중에 한을 전하는 것[空中傳恨]’에서 ‘태평성대의 노래’로 존체의 전략을 바꾸어 ‘학식의 활용을 통한 오락 추구’라는 새로운 사 창작의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당시 구 왕조의 ‘유민’에서 새 왕조의 ‘학인’으로 정체성이 변화하는 중이었던 지식인층의 입장과 정확히 합치되면서 큰 호응을 얻게 되었다. 여기에 박학홍사과를 통해 제도권 진출에 성공하면서 주이준은 새로운 문화적 권력을 획득할 수 있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절서사파가 청 중기까지 문화적 권력을 누리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參考文獻〕

唐圭璋 編, ≪詞話叢編≫, 北京: 中華書局, 1986.
朱彝尊, ≪曝書亭集≫ 上・中・下冊, 臺北: 世界書局, 民國78[1989].
김선희, <격물궁리지학, 격치지학, 격치학 그리고 과학 -서양 과학에 대한 동아시아의 지적 도전과 곤경->, ≪개념과 소통≫ 제17호, 2016.
김지선, <≪長物志≫에 나타난 明末 사대부의 내면세계>, ≪中國學論叢≫ 第42輯, 2013.
손정희, <심(心)과 물(物)의 관계로 본 ‘완물상지(玩物喪志)’의 철학적 쟁점>, ≪철학사상≫ 제62호, 2016.
최수경, <明代 後期 상업출판물 속의 ‘物’ - ‘爭奇’ 시리즈를 중심으로>, ≪中語中文學≫ 제60집, 2015.

秋史 金正喜 詩論 硏究

― 淸代 乾嘉時期 詩論의 受容과 變容을 중심으로

전가람*

<目 次>

1. 序論
2. 秋史 金正喜 詩論의 배경과 수용
   1) 淸代 乾嘉時期 詩論의 배경
   2) 淸代 乾嘉時期 詩論의 수용
3. 秋史 金正喜 詩論의 분석과 변용
   1) 學詩의 '門徑'과 단계적 학습법
   2) 詩法의 '結穴'과 兩價的 要素의 折衷
4. 秋史 金正喜 詩論의 특징과 의의
   1) '神理'와 '實境'의 辨證法的 止揚
   2) '由陸入杜'論의 비판적 수용을 통한 朝鮮 詩壇에서의 독자성 구축
5. 結論

1. 序論

지금까지 秋史 金正喜에 대한 연구는 經學이나 詩學보다는 書·畫 방면에 치우쳐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秋史體'라는 독창적인 서체를 탄생시킨 점 하나만 가지고도 추사라는 인물의 업적과 성취를 논할 수 있겠으나, 한 인물이 이룬 성과는 종합적으로 연구할 때 비로소 그 인물의 眞面目을 보다 더 명료하게 볼 수 있다. 시를 연구하여 그것을 서예와 대비해 보고, 서예를 통하여 그림을 보며, 학문을 연구하여 예술을 가늠하고, 예술을 연구하여 그 예술적 성과를 통해 학문을 진단한다면 그 인물이 이룬 학문적, 예술적, 詩的, 書藝的, 繪畵的 업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추사는 일찍이 자신이 지향해온 서화 예술 외에 추구한 학문의 범주에 대해 '金石學', '經學', '詩學'이라 지목하고 이를 관통하는 핵심사상을 '好古'라 정의하였다.[1] 이 가운데 필자가 추사 연구의 한 單面으로서 특별히 주목하고자 하는 부문은 추사가 이룬 '詩學' 방면의 성취이다.

추사의 시학이론은 淸代 乾嘉時期의 시학이론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翁方綱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크다. 주지하다시피 翁方綱의 '肌理說'은 王士禎의 '神韻說'과 沈德潛의 '格調說', 袁枚의 '性靈說'의 단점을 절충·보완한 것이다. 따라서 추사의 시학이론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옹방강의 시론인 肌理說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며 神韻說, 格調說, 性靈說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아울러 추사는 건가시기 시학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변용하여 '門徑'과 '結穴'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상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상정하는 데 있어서 옹방강의 시학 모듈(module)을 차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11명의 시인을 典範으로 내세워 學詩의 단계적 학습 경로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 전북대학교 BK21+ 한·중문화「화이부동(和而不同)」연구 창의인재양성사업단 박사후과정생, dominica85@naver.com

1) "好古有時搜繼碣, 研經婁日罷吟詩."

神理와 實境이라는 兩價的 요소를 절충・보완하고자 하는 관점을 피력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추사가 청대 건가시기 시론을 어떻게 수용하여 門徑과 結穴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는지, 門徑과 結穴의 시학이론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설정한 시인들은 누구인지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추사 김정희의 시학 성취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19세기 淸-朝鮮 간 학술 교류사의 한 단면을 추적하는 작업이 될 것이며, 동시에 청대 건가시기 사대 시론의 본질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秋史 金正喜 詩論의 배경과 수용

1) 淸代 乾嘉時期 詩論의 배경

청대 건가시기에 사대 시론이 흥성하게 된 배경에는 淸初, 明을 그리워하던 수많은 지식인과 遺老들의 보편적인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통치자들은 封建綱常만을 강조할 수는 없었다. 그들은 明에 대한 그리움을 약화시켜야만 했고, 동시에 지식인들의 뇌리에 자리한 참혹한 대학살의 기억을 지워내야만 했다. 그런 그들에게 虛無縹緲한 왕사정의 예술이론은 심리적 탈출구가 되어주었다.

왕사정의 신운설은 표면적으로 前後七子의 폐해를 수정하기 위해 제창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민족이 통치하는 현실 정치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왕사정은 이론적으로 과거 대숙륜・교연・사공도・엄우 등의 견해를 계승하여 含蓄과 言外의 뜻을 중시하였는데, 이로써 새로운 시론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그가 현실도피적이고 공허하며, 玄虛한 시론을 표방한 점은 이후 치명적인 이론적 한계로 작용하게 되었다.

왕사정 이후 원매는 다소 진보적인 성령설을 제창하였는데, 이에 대항하기 위해 심덕잠은 溫柔敦厚의 詩教를 근본으로 삼을 것을 주장한다. 이는 원매의 성령설이 개성과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함으로써 전통적으로 '감정의 절제'를 미덕으로 여겼던 주류 담론에서 벗어나 봉건윤리를 위협하고, 속박에 반대하여 무절제한 감정의 발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심덕잠으로부터 제기된 격조설은 신운설의 한계와 성령설의 폐해를 동시에 보완할 의도를 가지고 제창된 시론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나중에 제창된 옹방강의 기리설은 당시 통치자들이 經學을 적극 장려하고, 고증학풍이 만연했던 역사적 배경 하에서 출현한 것이다. 강희제는 적극적으로 경전읽기를 장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 역시도 경서 학습을 지속적으로 행하였다.

옹방강이 말한 '肌理'는 주로 유가경적을 기초로 하는 義理를 지칭하며, 때로는 수사적 측면인 文理를 지칭한다. 그가 이토록 경술과 학문을 중시한 것은 정치상 儒家의 道統과 봉건윤리 관념을 선양하기 위해서였는데 옹방강의 기리설은 桐城派의 시론[2]을 비롯하여 청대 중엽 이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건가시기 사대 시론은 왕사정이 신운설을 제기한 이래로 각자 한계와 약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제창되었으며, 가장 나중에 제기된 옹방강의 기리설은 제 시론의 종합・절충적 성격이 강한 시론으로 신운・격조설의 보완과 성령설의 비판적 토대 위에서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淸代 乾嘉時期 詩論의 수용

(1) '神韻'의 수용 - 虛(禪理)와 實(儒家之法)의 조화

추사는 '흔적을 찾을 수 없는(羚羊掛角)' 신운의 요소와 '유가에 법을 둔(法本儒家)' 학문의 요소를 절충

2) 桐城派의 시론은 義理, 詞章, 考證을 주장했기 때문에 상당부분 옹방강의 기리설과 합치된다.

시켜 이를 시 속에서 구현해내야 함을 주장하였다.[3] 아울러 學詩 혹은 作詩의 과정에 있어서 '물 속의 달, 거울에 비친 꽃'과 같은 추상적이면서도 모호한 요소를 섣불리 좇아서는 안 됨을 설파[4]하였는데, 추사는 섣불리 禪理를 좇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함으로써 시의 본원이 여전히 ≪詩經≫의 가르침에 있음을 적시[5]한다. 이는 '思無邪'의 宗旨로 대변되는 시의 효용성을 언급한 것으로 민간의 풍속을 변화시키고 雅正한 본성을 장려하는 '詩敎'의 측면을 지적한 것이다.

(2) '格調'의 수용 - 格調를 통한 性靈의 純化

추사는 詩道가 공교해지기 위해서는 性靈과 格調의 두 요소가 필수적으로 갖춰져야 함을 자각하였지만 또한 性靈의 요소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바름(正)을 잃지 않는" 경지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즉, 추사는 "格調로써 性靈을 純化하여 淫放鬼怪를 면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詩가 무절제한 감정의 표출이 되어서는 안 됨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지를 權敦仁(1783-1859)의 시가 제대로 구현하였다고 평가한다.[6]

이러한 관점은 추사가 性靈의 요소를 깊이 수용하면서도 그 보다 우위에 格調를 두어 자유분방한 性靈의 표출을 제한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3) '性靈'의 수용 - '唐宋不分' 입장의 견지

추사는 "唐宋이 모두 나의 스승[唐宋皆吾師]"이라는 포괄적 관점에 전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을 피력함과 동시에 어느 한 시대의 시만을 높이 평가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唐과 宋을 구분하지 않고 두루 학습해야 함을 권고한다.

아울러 "이백과 두보가 늦게 태어났더라면 또한 스스로 矩規를 바꾸었을 것"이라는 시 구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시대마다 각기 장단점이 존재하고,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으며(變出不得已), 참신한 변화를 이루어내기란 진실로 어렵다는 점(開闢眞難爲)에 깊이 공감하기도 하였다.[7]

추사의 이러한 주장은 "唐人들은 漢·魏의 것을 배워 변화했고 宋人들은 唐의 것을 배워 변화했다. 변화한 이유는 변화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8], "唐詩를 배워서 변화시킨

3) ≪阮堂先生全集≫ 卷九 <次紫霞象山詩韻> "君從詩境叩眞如, 文藻猶能證舊墟. 已聞空山參雨雪, 且須碧海掣鯨魚. 力追神韻尋無處, 法本儒家學不疎. (以下缺)"

4) ≪阮堂先生全集≫ 卷九 <念以仲論詩卷, 又要一轉語. 近日末流之弊極矣, 率題如此, 只可收之巾箱而已.> "(其一)斷斷忠孝旨, 法本自儒家. 胡爲禪理喩, 標水月鏡花."

5) ≪阮堂先生全集≫ 卷九 <念以仲論詩卷, 又要一轉語. 近日末流之弊極矣, 率題如此, 只可收之巾箱而已.> "(其二)關關河洲雎, 灌木黃鳥喈. 興衆乃如此, 古正無邪哇."

6) ≪阮堂先生全集≫ 卷六 <題彝齋東南二詩後> "然性靈格調具備, 然後詩道乃工. 然大易云: '進退得喪, 不失其正.' 夫不失其正者, 以詩道言之, 必以格調裁整性靈, 以免乎淫放鬼怪, 而後非徒詩道乃工, 亦不失其正也. 况於進退得喪之際乎! 噫, 今東南二詩, 所以性靈格調之具備焉耳."

7) ≪阮堂先生全集≫ 卷9 <士說爲詩二十年, 忽欲學元人詩, 盖其意元人多學唐故也. 余遂書辨詩一篇, 以明詩道之作.> "唐宋皆偉人, 各成一代詩. 變出不得已, 運會實迫之. 格調苟沿襲, 焉用雷同詞. 宋人生唐後, 開闢眞難爲. 一代只數人, 餘子故多疵. 敦厚旨則同, 忠孝無改移. 元明不能變, 非僅氣力衰. 能事有止境, 極詣難角奇. 奈何愚賤子, 唐宋分藩籬. 哆口崇唐音, 羊質冒虎皮. 習爲廓落語, 死氣蒸伏屍. 撐架陳氣象, 桎梏立威儀. 可憐餒敗物, 欲代郊廟犧. 使爲蘇黃僕, 終日當鞭笞. 七字推王李, 不免貽笑嗤. 況設土木形, 浪擬神仙姿. 李杜若生晩, 亦自易矩規. 寄言善學者, 唐宋皆吾師." 본래 이 시는 추사의 시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이철희(2004)는 이에 대해 "청대 장사전의 <辯詩> 작품으로 밝혀져 ≪阮堂先生全集≫에 竄入되었음이 밝혀졌다."고 하였다.(<추사 김정희의 시문학에 나타난 고증학의 영향>, 264쪽) 그런데 필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시 자체는 장사전의 작품이 확실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추사가 인지하고서 元代의 詩를 배우고자 하는 士說(玄在德)에게 이 시를 글씨(서예작품)로 써서 주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장사전의 시가 등장하기에 앞서 추사가 쓴 詩序를 살펴보면 추사는 "余遂書辨詩一篇, 以明詩道之作."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辯詩> 一篇이라고 하여 장사전의 시 제목이 명백하게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추사 스스로 '書'라고 함으로써 장사전의 시를 士說에게 '글씨로 써서' 주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추사가 자신의 관점과 생각이 온전하게 담겨있다고 판단되는 장사전의 시를 인용하여, 이를 士說에게 글씨로 써서 주고, 元詩를 배우고자 하는 생각을 교정해주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리라고 판단된다.

사람은 宋・元人들이다. 그러나 唐詩를 배운 사람 중에 宋・元人보다 나은 사람들이 없고, 明代 前後七子보다 낫지 않은 사람이 없다. (…) 변해야 해서 변했다면 그들이 이어받은 것은 정신이다. 변해야 하는데 변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지켜낸 것은 자취일 뿐이다."[9]라고 한 원매의 주장과 그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추사 역시 唐詩 혹은 宋詩를 추종하는 流派를 내세워 서로를 깎아내릴 것이 아니라 각자 시인마다 지닌 장단점에 대해 두루 인지하고 학습한 뒤, 최종적으로 '나만의 시(有我之詩)'를 쓸 것을 깊이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性靈'의 요소를 깊이 수용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다.

⑷ '肌理'의 수용 - 沈思를 통한 學問의 중시

추사는 學詩 과정의 전반에 經書 학습을 통한 '沈思'의 요소가 구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관점은 옹방강의 기리설의 영향이 크다고 보인다. 추사는 시를 지음에 있어서 오로지 '沈思'와 '妙悟'를 위주로 하여야 하며 시 속에 이 둘의 요소가 담겨있지 않으면, 사사로운 견해에 천착하고 정신을 요동쳐 제멋대로 다루는 데에 이르게 됨으로써 心靈마저 고루해진다고 역설한다.[10]

또 추사는 風雅를 거슬러 올라가 儒家의 여러 經書의 내용을 시 속에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11]함으로써 心靈이나 妙悟와 같은 '不可學的' 요소가 經籍에 대한 탐구의 과정, 즉 沈思로 대변되는 '可學的' 요소와 합치되었을 때, 비로소 참된 시(眞詩)를 써낼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관점은 옹방강의 관점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이다.

옹방강 역시 儒家經典을 기초로 한 '義理'와 '學問'의 요소를 매우 중시하였으며 徐禎卿의 시를 예로 들어 "만약 진실되게 옛것을 배운 사람이 있었더라면, 반드시 그를 이끌어 詩의 깊이를 더해주었을 것이다. 性情으로부터 말미암아 그것을 學問과 합치시키는 이 일이야말로 古今을 超越하는 일이다."[12]라고 역설함으로써 '性情과 學問의 합치'를 거듭 강조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추사가 學詩 전반의 과정에서 妙悟와 沈思라는 두 요소를 강조한 것은 옹방강이 주장한 '性情과 學問의 합치'라는 관점을 매우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고 보인다.

3. 秋史 金正喜 詩論의 분석과 변용

1) 學詩의 '門徑'과 단계적 학습법

추사는 자신의 학문과 예술 경로를 설정함에 있어서 '門徑'을 매우 강조하였다. '門徑'은 시・서・화를 비롯한 추사의 학문 전반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자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추사에게 예술은 경학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학문이었으며, 학문의 최고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최적의 루트, 즉 門徑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제대로 된 門徑을 찾는 것이야말로 학문의 요체라고 여겼던 것이다.[13]

즉, 추사가 말한 '門徑'이란 자신의 학문과 예술경로를 설정함에 있어서 목적한 바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경로였다. 그리고 이러한 門徑의 설정은 추사의 말을 빌려 표현하면 "끝내 下人이 되

8) ≪小倉山房文集≫ 卷17 ＜答沈大宗伯論詩書＞ "唐人學漢・魏變漢・魏, 宋學唐變唐. 其變也, 非有心於變也, 乃不得不變也."
9) ≪小倉山房文集≫ 卷17 ＜答沈大宗伯論詩書＞ "變唐詩者, 宋、元也. 然學唐詩者, 莫不善於宋、元, 莫不善於明七子. (…) 當變而變, 其相傳者心也. 當變而不變, 其拘守者跡也."
10) "妙悟與沈思, 撒爾心靈錮. 苟以不學求, 可畏魔精附." 金正喜, ≪秋史山泉≫, 고려대학교 소장본.
11) "爾勿輕視詩, 浴之風雅溯. 倘欲學眞詩, 經籍以鎔鑄."
12) ≪復初齋文集≫ 卷8 ＜徐昌谷詩論(一)＞ "此時若有眞實學古之人, 必將引而深之. 由性情而合之學問, 此事遂超軼今古矣."
13) 박철상 지음, ≪세한도≫, 문학동네, 2015, 107-112쪽 참조.

지 않기 위한 것”[14], 즉 흉내나 내는 亞流가 되지 않고 자신만의 참신하면서도 심오한 경지에 이르기 위한 방법론으로 볼 수 있다.

> 詩道로 말하면 漁洋[王士禎]과 竹垞[朱彝尊]가 門徑이 잘못되지 않았는데 어양의 경우, 순수하게 자연에서 나와 마치 天衣無縫과 같고, 또 마치 華嚴樓閣을 한 손가락으로 튕겨서 열어버린 것과도 같아서 자취를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죽타의 경우, 人力으로 정진하여 하나하나의 계제를 밟아 올라서 비록 태산의 정상까지라도 한걸음 한걸음으로 차츰 올라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모름지기 죽타를 위주로 하고 어양을 참작해서 한다면 色・香・聲・味가 완전하여 흠결이 없게 될 것입니다. 牧齋[錢謙益]에 이르러서는 기력은 대단히 크지만 끝내 天魔外道[15]를 면치 못하여 가장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니, 오로지 어양・죽타를 좇아서 착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보다 아래로는 또 查初白[查愼行]이 있는데 그는 어양과 죽타 이후로 門徑이 가장 잘못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三家[왕사정・주이존・사신행]로부터 시작하여 元遺山[元好問]・虞道園[虞集]으로 나아가, 다시 東坡・山谷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杜甫로 들어가는 준칙으로 삼는다면 공이 이루어지고 소원이 성취되어 見佛[16]함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이를 만할 것입니다.[17]

추사는 먼저 淸代 시인인 王士禎과 朱彝尊을 언급한다. 왕사정 시의 경우는 “天衣無縫과 같고, 마치 華嚴樓閣을 한 손가락으로 튕겨서 열어버린 것과 같아서 자취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점”을 역설한다. 그러나 반대로 朱彝尊의 시는 “태산의 정상까지라도 한걸음 한걸음으로 차츰 올라갈 수 있는 것과 같다”고 하여 그 흔적과 자취가 없는 왕사정의 시보다 단계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주이존의 시를 위주로 학습하면서도 왕사정의 시를 참작한다면 “色・香・聲・味가 완전하여 흠결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어서 추사는 查愼行을 들어 “왕사정・주이존 이후 門徑이 가장 잘못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적시하고 시를 배울 때, 왕사정・주이존・사신행으로부터 시작할 것을 하여 권고하였다. 이로써 추사가 제시한 學詩의 門徑 제1단계에는 淸代 詩人인 王士禎・朱彝尊・查愼行이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추사는 이들 三家를 배운 이후에는 “元遺山과 虞道園으로 나아가야”함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추사가 제시한 학시의 문경 제2단계에는 金・元代 詩人인 元好問・虞集이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추사는 이후 “東坡와 山谷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杜甫로 들어가는 준칙을 세운다면 學詩의 功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점을 피력함으로써 學詩의 門徑 제3단계와 제4단계에 각각 蘇軾・黃庭堅과 杜甫를 배치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詩法의 ‘結穴’과 兩價的 要素의 折衷

추사는 ‘門徑’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역대 시인들의 詩法에 관해 설명하면서 중국 詩史에서 커다란 성취를 이룬 시인들을 적시하여 ‘結穴’[18]이라는 개념으로 언급하였다.

---

14) ≪阮堂先生全集≫ 卷一 ＜實事求是說＞「但聖賢之道, 譬若甲第大宅. 主者所居, 恒在堂室, 堂室非門逕, 不能入也. (…) 一生奔走于門逕之間, 不求升堂入室, 是廝僕矣.」

15) 佛敎語로 正統 이외에 異端의 流派를 뜻한다.

16) 부처를 본다는 뜻으로 즉 道를 깨달은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곧 어떤 분야에 一家를 이루는 것을 비유하여 이른 말이다.

17) ＜與申威堂觀浩(二)＞:「詩道之漁洋、竹垞, 門徑不誤. 漁洋純以天行, 如天衣無縫, 如華嚴樓閣, 一指彈開, 難以摸捉. 竹垞人力精到, 攀緣梯接, 雖泰山頂上, 可進一步. 須以竹垞爲主, 參之以漁洋, 色香聲味, 圓全無虧缺. 至如收齋, 魄力持大, 然終不免天魔外道, 其最不可看, 專從漁洋竹垞下手爲妙. 下此又有查初白, 是兩家後門逕最不誤者也. 由是三家進, 以元遺山、虞道園, 溯洄於東坡、山谷, 爲入杜準則, 可謂功成願滿, 見佛無怍矣.」 김정희 저/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 완당전집 Ⅰ≫, 솔출판사, 1995, 188쪽.

18) 옛날에 地官들은 地脈이 멈추거나 끊긴 곳의 地形이 움푹 꺼지거나, 튀어나와있다고 보았다. 즉 ‘결혈’이란 風水 용어의 하나로 地氣가 감춰져 있거나 맺혀 있는 곳을 뜻하며, ‘結節’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의미로 말미암아 후대에는 文

古今의 詩法이 陶淵明에 이르러 하나의 結穴이 되고, 唐의 王維와 杜甫가 각기 하나의 結穴이 된다. 왕유의 시는 바느질한 자리 없는 天衣와도 같으며 또 天女가 흩뿌린 꽃과 같아서 많건 적건 막론하고 세간의 보통 꽃으로는 비할 바가 아니다. 두보의 시는 마치 흙과 돌로 만든 기와와 벽돌을 땅으로부터 쌓아 올린 五鳳樓의 재목을 輕重을 재량하여 지은 것과 같다. 하나는 바로 神理요, 하나는 바로 實境으로서 仁者가 보면 仁이라 이르고, 知者가 보면 知라 이를 것이며 백성은 날로 써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 두 사람은 마치 각자 하나의 門戶인 것 같지만 禹·稷과 顔回는 그 법이 한 가지이니, 같고 다름을 분별할 것 없이 능히 이 관문을 뚫고 난 연후라야 시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李商隱과 杜牧 같은 이는 다 杜甫의 嫡派이며, 白居易가 또 하나의 結穴이 되어 그 廣大敎化의 명목에 부끄럽지 않다. 宋의 蘇軾과 黃庭堅이 또 하나의 結穴이 되며, 陸游의 七言近體는 고금을 통하여 능히 彀率을 다한 것이다. 金의 元好問과 元의 虞集이 또 하나의 結穴이 되는데, 우집으로 말하면 性情과 學問이 합쳐져 一事가 되었다.

明 삼백년 동안에는 족히 칭할 것이 하나도 없다가 王士禎에 이르러 대대로 내려오던 竟陵派의 퇴탕한 풍조를 일소해 버리고, 또 능히 하나의 結穴이 되었으니 추대하여 一代 正宗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朱彝尊은 왕사정과 더불어 太華山의 雙峯이 함께 일어난 것과 같아 또 甲乙을 다툰다. 이외에는 다 旁門, 散聖[19]일 뿐이다.[20]

추사는 중국 역대 시인 가운데 특별히 陶淵明, 王維, 杜甫, 李商隱, 杜牧, 白居易, 蘇軾, 黃庭堅, 陸游, 元好問, 虞集, 王士禎, 朱彝尊의 13명의 시인들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들 시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旁門, 散聖일 뿐"이라고 함으로써 시의 正宗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힘과 동시에 시인의 계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즉, 추사는 東晋~淸代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마다 詩風의 변화와 詩體의 변천을 개괄하고, 그 가운데 결혈이 되는 시인들을 선별하여 詩法의 귀결점으로 삼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 시인 가운데 杜甫·蘇軾·黃庭堅·元好問·虞集·王士禎은 앞서 學詩의 門徑에서 典範으로서 제시하였던 시인들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4. 秋史 金正喜 詩論의 특징과 의의

1) '神理'와 '實境'의 辨證法的 止揚

門徑과 結穴로 대변되는 추사의 시론을 살펴보면 '神理—實境', '性情—學問', '妙悟—沈思', '唐—宋'과 같은 상이한 두 요소가 빈번히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필자가 이를 '辨證法的 止揚'의 특성으로 파악한 것은 추사의 인식 속에서 이들 요소는 상이함을 이루면서도 결코 상충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즉, 이들 요소는 서로의 모순을 찾아 그것을 자각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단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종국에는 보다 고차원적인 시적 경지에 이르도록 하는 데 필수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無로 환원되는 부정의 형태가 아니라, 부정되면서도 보존되는 유의미한 유기적 관계를 이룬다.

추사는 왕유 시의 '바느질한 자국이 없는 경지(天衣無縫)'의 경지와 두보 시의 '땅에서부터 쌓아올린 경

辭가 귀결되는 요점이나 근거지를 비유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19) 중국 정통화엄의 법맥에 끼지 못함을 뜻한다.

20) ≪阮堂先生全集≫ 卷8 <雜識> 「古今詩法. 至陶靖節. 爲一結穴. 唐之王右丞, 杜工部. 各爲一結穴. 王如天衣無縫. 如天女散花. 曼多曼少. 非世間凡卉所可比擬. 杜如土石瓦塼. 自地築起. 五鳳樓材. 稱劑其輕重以成之. 一是神理. 一是實境. 仁者見之謂之仁. 知者見之謂之知. 百姓日用而不知. 似若各一門戶. 然禹稷與顔. 其揆一也. 無用分別同異. 能透得此關然後可以言詩. 如李義山, 杜樊川. 皆工部之嫡派. 白香山又爲一結穴. 不媿其廣大教化之目. 宋之蘇, 黃. 又爲一結穴. 陸務觀七言近體. 爲古今之能盡彀者. 金之元裕之. 元之虞伯生. 又爲一結穴. 虞則性情學問. 合爲一事. 有明三百年. 無一足稱. 至王漁洋. 掃廓歷下竟陵之頹風. 又能爲一結穴. 不得不推爲一代之正宗. 朱竹垞. 如太華雙峯並起. 又以甲乙. 外此皆旁門散聖耳.」

지(自地築起)'가 각기 상이한 시적 성취를 이루었다고 인식하였지만(一是神理, 一是實境), 종국에는 "우임금과 후직, 안회의 법이 한 가지인 것처럼 같고 다름을 분별할 것 없이 능히 이 관문을 통과한 뒤에야 시를 말할 수 있다.(似若各一門戶. 然禹稷與顔. 其揆一也. 無用分別同異. 能透得此關然後可以言詩.)"는 관점을 분명하게 피력함으로써 이 둘을 고도의 시적 경지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보았던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宗唐이나 宗宋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21] 그 이전의 源流(晉)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好古[22] 의식의 發露 또한 正과 反을 통해 合을 이루고자 하는 변증법적 사유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상호 모순을 제거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 보완을 이루고자 하는 관점은 변증법적 지양의 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2) '由陸入杜'論의 비판적 수용을 통한 朝鮮 詩壇에서의 독자성 구축

당시 조선 시단에는 이미 정조가 내세운 '杜甫'와 '陸游'라는 詩人 典範이 존재했다. 이에 이의현・이하곤・신정하 등의 農巖계열 문인들은 육유의 시를 차운하거나 시풍을 본떠 다수의 작품을 남김으로써 육유 애호에 대한 사실을 반증하였고, 정범조・이덕무・정약용 등의 문인들도 육유의 시를 즐겨 읽었다.[23]

이렇듯 몇몇 주요 문인들 사이에 육유는 두보와 함께 律詩의 典範으로 자리하고 있었지만, 추사는 자하 신위와 함께 자신의 中人層 門人들을 구심점으로 삼아 육유가 아닌 蘇軾이라는 새로운 전범을 제시하기에 이른다.

주지하다시피 '由蘇入杜'의 시론은 단지 杜甫와 蘇軾의 시만을 배운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주장은 唐詩가 나온 이래 宋・元・明・淸까지의 시와 시학의 발전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唐代 이래로 배출된 수많은 시인들 가운데 나름대로 찾아낸 學詩의 指南이다.[24]

추사가 두보와 소식을 시인 전범으로 내세우기 이전에 조선 시단에는 이미 정조에 의해 두보와 육유가 시인 전범으로 자리하고 있었고, 추사 역시 육유의 시학 성취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육유를 典範으로까지 내세우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던 듯하다. 이에 육유 대신 蘇軾이라는 시인 전범을 제시하였고, 이후 자하 신위를 비롯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拜坡會'를 활발히 주선함으로써 蘇軾 典範化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5. 結論

추사의 시학이론은 淸代 乾嘉時期의 시학이론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추사는 이들 乾嘉時期 시학 주장을 그대로 수용만한 것이 아니라 이를 변용하여 '門徑'과 '結穴'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상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을 상정하는 데 있어서 옹방강의 시학 모듈(module)을 차용하였는데, 추사는 '門徑'과 '結穴'이라는 개념을 통해 열 네 명의 시인을 계보화 하여 學詩의 단계적 학습 경로를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神理와 實境이라는 兩價的 미학요소를 절충・보완하고자 하는 관점을 피력하였다.

추사는 각각 [杜甫—杜牧・李商隱—朱彝尊], [王維—王士禎]으로 이어지는 시인의 계보를 정립하고, 이를 통해 시 속에 '實境'과 '神理'라는 양가적 요소를 절충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추사는 '由蘇入杜'論을 제시하였는데 이처럼 杜甫와 蘇軾을 詩人의 典範으로 제시하게 된 배경에는 正祖의 文體反正을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尊唐 일변도이던 朝鮮 詩壇의 風潮를 혁신함과 동시에 문단의 典範化 요

21) "唐宋皆偉人, 各成一代詩. (…) 唐宋皆吾師."
22) "古今詩法, 至陶靖節, 爲一結穴."
23) 자세한 내용은 田娟, <農巖계열 문인의 陸遊 관심에 대한 일고찰 -申靖夏를 중심으로->, ≪民族文化≫ 제47집, 2016 참고 바람.
24) 이현일, <申緯의『焚餘錄』硏究>, ≪韓國漢文學硏究≫ 32집, 2003, 158쪽.

구에 부응함으로써 조선 시단에서 독자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피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淸代 乾嘉時期 四大 詩論은 추사 김정희에 의해 조선 시단에 적극 수용됨으로써 '門徑'과 '結穴'이라는 새로운 詩學 개념을 생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 시단의 문학 典範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고 이를 통해 김정희는 조선 시단에서 독자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參考文獻〕

≪復初齋文集≫
≪小倉山房文集≫
≪阮堂先生全集≫
박철상 지음, ≪세한도≫, 문학동네, 2015.
田娟, <農巖계열 문인의 陸遊 관심에 대한 일고찰 -申靖夏를 중심으로->, ≪民族文化≫ 제47집, 2016.
이현일, <申緯의『焚餘錄』研究>, ≪韓國漢文學研究≫ 32집, 2003.

4월 27일(토) 10:30~12:30

분과발표 1부

❖ 문학2분과 _ 근대 문화와 사상

(장소: 326호)

이성현(서울대) 新奇한 近代 :『點石齋畵報』研究

이화진(서울대) 鄭觀應의 글쓰기와 사유방식의 경계적 특성 연구
– ≪易言≫과 ≪盛世危言≫을 중심으로

新奇한 近代 : 『點石齋畵報』 硏究

이성현*

<目 次>

0. 박사논문 전체 목차
1. 서론: 『點石齋畵報』와 역사적 '假晶'
2. 결론: 기이한 근대

0. 박사논문 전체 목차

『點石齋畵報』 연구

Ⅰ. 서론 ····· 1
1. 『點石齋畵報』 개요 ····· 1
2. 『點石齋畵報』 연구사 ····· 6
3. 연구의 시각 ····· 13

Ⅱ. 중국식 畵報의 등장과 그 역사적 배경 ····· 18
1. '최초의 중국화보' 논쟁 ····· 18
1.1. 석인술과 중국화보 ····· 22
1.2. 매체의 유통과 독자의 수용 ····· 30
1.3. 畵報의 정의와 新聞性 ····· 32
2. 서양 삽화신문의 수용 ····· 47
2.1. 삽화신문의 유행 ····· 47
2.2. 삽화신문의 기술적 기반 ····· 50
2.3. The Illustrated London News와 중국 ····· 53
3. 『寰瀛畵報』와 중국 화보의 출발 ····· 63
3.1. 申報館의 '洋畵' 판매 ····· 64
3.2. 광고를 통해 본 『寰瀛畵報』의 제작과정 ····· 67
3.3. 『寰瀛畵報』와 서구 삽화신문의 대조 ····· 70
4. 소결 ····· 82

Ⅲ. 『點石齋畵報』의 매체적 성격 ····· 83
1. 『點石齋畵報』 版本을 통해 본 매체의 변화양상 ····· 83
1.1. 정기간행물의 발행과 수집 ····· 83

* 서울대학교

1.2. 책으로의 재편 과정 ····· 86
1.3. 初刊本들: 예일대 도서관 소장본 ····· 91
1.4. 현대적 서적으로의 재탄생 ····· 97
2.『點石齋畵報』에서의 글과 그림의 관계 ····· 101
2.1. 대중이 이미지를 소유하게 된 시대 ····· 102
2.2. 그림 속 문자 ····· 105
2.3. 서양 삽화신문의 문자와 그림의 관계 ····· 112
2.4.『點石齋畵報』의 텍스트 구성 ····· 114
3. 소결 ····· 121

Ⅳ.『點石齋畵報』에 나타난 奇異의 양상 ····· 123
1. 奇異함을 추구하는 경향 ····· 123
1.1. 志怪傳統과 奇異 ····· 123
1.2. 明末의 奇異에 대한 태도 ····· 126
1.3. 海外知識과 奇異 ····· 133
1.4. 清末의 奇異에 대한 태도 ····· 136
2. 博物과 奇異 ····· 145
2.1. 뉴스의 志怪化 ····· 145
2.2. 지도와 세계의 경이 ····· 150
2.3. 銅人巨像과 중국적 전통 ····· 158
2.4. 박물과 뉴스의 이미지 재현 ····· 169
3. 格致와 奇異 ····· 172
3.1. 과학의 이미지적 재현 ····· 176
3.2. 신문물과『點石齋畵報』의 奇異에 대한 태도 ····· 184
3.3. 格致에 대한 오해와 시각적 재현 ····· 198
4. 日常과 奇異 ····· 207
4.1. 도시와 日常生活 ····· 207
4.2. 전통과 근대의 충돌 공간 ····· 221
5. 소결 ····· 226

Ⅴ. 結論 ····· 228

발표에 앞서 간단히 언급해 두고 싶은 사항이 있다. 비교적 생소한 연구대상인『點石齋畵報』에 대해 제한된 시간 안에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시할 것이며, 본고의 문제의식을 어떤 방식으로 공유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중국문학에서 이미 고전의 지위를 취득한 작품이나 작가를 대상으로 했다면, 혹은 적어도 문학의 제도 안에서 언급되는 텍스트였다면 불필요하거나 최소한의 언급만으로 충분했을 과정이다. 개별 논문이 취하는 문제의식이 아무리 독특하더라도 그것은 사실 학제가 제공하는 공통의 토대를 기반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공통의 토대에서 벗어나는 순간 어떤 난처함이 발생한다.[1] 공유하는 토대의 부재에서

1) 미셸 푸코의『말과 사물』은 보르헤스가 인용한 "어떤 중국 백과사전"의 기괴한 분류가 드러내는 사유의 불가능성을

비롯되는 이러한 난처함을 '기이함'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보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이다.

『點石齋畵報』의 기사에 해당하는 문자 텍스트는 志怪 서사의 전통을 잇고 있지만, 문언단편소설의 일부로 중국문학사에서 다뤄지기가 힘들다. 형식적, 내용적 유사성을 인정한다 해도 신문 연재소설이 아닌 기사 자체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특정한 시대적 현상으로 언급될 수는 있지만, 문학적 분석으로 접근할 정도의 밀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화보의 글과 그림은 역사적 증거로 사용하기에 많은 한계가 뒤따른다. 신문기사에 비해 서사성/허구성이 강화되었으며, 진실의 전달보다는 읽는 재미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허구적 요소나 왜곡이 많다. 한편, 신문의 역사에서는 소략하게만 언급된다. 여타의 일간지나 정론지에 비해 시사성이 떨어지며, 그 형식을 잇는 직접적인 매체적 후예는 20세기 초 이후 사라졌다. 미술사에서 중요하게 다루기에 『點石齋畵報』의 그림은 지나치게 전형적이다. 비슷한 화풍을 지닌 여러 화가가 10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기사의 주제를 선정하고 그에 맞는 글과 그림을 편찬해야 하는 정기간행물의 특성상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펼치기가 쉽지 않았다. 독창적인 기교를 부리기보다는 관습적인 표현 위주로 되어 있다는 특징은 기사의 문체 뿐 아니라 그림의 스타일에서도 적용된다. 화가에 따라 다소간의 개성은 반영되지만, 배경을 구성하는 요소의 문양과 구조는 『芥子園畵譜』 등에서 익히 볼 수 있는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스타일을 반복적으로 사용한다. 오래된 관습의 틀을 사용하여 새로운 정보를 그려내는 것은 『點石齋畵報』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이처럼 『點石齋畵報』는 문학, 역사, 매체, 미술 모두에 발을 걸치고 있으면서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기 힘든 텍스트이다.

『點石齋畵報』는 토대가 흔들리던 시기, 질서가 무너져가던 시대의 산물이다. 그것이 보여주려는 세계는 장회소설이나 엄정한 규칙의 장르가 아닌 파편적인 모습으로만 구성될 수 있다. 질서 우위의 시대에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에 온갖 모순적인 것들을 포괄하는 서사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 세계관에 포함되지 못할 이질적인 존재는 쉽게 억압할 수 있었고, 오히려 그러한 억압과 배제를 통해 질서는 더욱 공고해질 수 있었다. 그러나 강력한 질서에서 억눌러진 이질적인 사유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침묵을 강요당한 怪力亂神은 잠복된 채 언제고 질서의 토대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다. 질서가 와해되는 시기에 (질서 확립에 기여했지만 이제 무질서를 초래한 것으로 지목될) 기존 사유의 정당성을 돌아보게 하고 그것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잠복된 이질적인 요소를 소환하고, 그 이질적인 것들 하나하나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해야 했다.[2] 화음을 위해 목소리를 억누르기보다 여기저기 웅성거리는 불협화음의 세계, 중심/주체과 주변/타자의 크기가 뒤섞인 비원근법적인 세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필기와 잡문 등 파편적인 글쓰기일 수밖에 없었다.

『點石齋畵報』는 또한 새로운 질서의 도전에 직면한 시대의 산물이다. 서구 근대는 앞서 억눌러져 왔던 怪力亂神조차 전통적 형식의 일부였음을 자각하게 할 정도로 차원이 다른 이질성이었다. 공간 차원에 한정했을 때, 전통시기 중국에서 이질적인 것의 이질성을 가능케 했던 외부는 이미 위계화된 공간이었다. 중국의 천하관에서 중심의 지위를 전복시킬 정도의 주변은 등장한 적이 없었다. 강력한 주변이 나타나면 그것이 중심에 흡수될지언정 중심과 주변의 위계가 역전되지는 않았다. 서구에 대한 최초의 접근법에도 이 관행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서구는 중국의 천하관을 뒤흔들고 공간적 위계를 무효화시켰다. 서구는 '공통의 토대'에서 파악되는 주변적인 요소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대등한 차원의 다른 질서였으며 중국이 당연시했던 토대 자체를 뒤흔드는 토대였다. 이러한 만남에서 기인하는 뒤틀림, 수용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질서와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난처함을 분석하는 입구로 '기이함'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다. 본고가 주

'공통의 장소', '토대'의 부재에서 찾고 있다. 하나의 문화에서 당연시하는 경험적 질서는 다른 토대와의 접촉을 통해 기존의 경험적 질서와 거리를 두고, 애초의 투명성을 잃게 되며, 그 질서가 유일하게 가능하지도, 가장 좋지도 않을지 모른다는 사실과 마주하게 된다.

2) 당대의 지식으로 판단할 수 없었던 기이한 현상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역사가 출신 위진 시기 지괴 작가의 변명은 보다 적극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 역사가의 책무라는 차원을 넘어, 기이하고 이질적인 것을 담론화함으로써 당대의 상식과 합리로 해석하지 못하는 무질서의 해결 가능성을 이질적인 사유에서 발견하려 했다고 볼 수 없을까?

목하는 '기이함'의 한 층위는 기이한 대상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기이함을 불러오는 구조에 대한 것이다.

사유의 기반이 되는 토대가 서로 충돌할 때, 익숙한 나의 토대를 거부하고 강력한 새로운 토대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일은 쉽지 않다. 나의 토대가 아무리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가장 익숙한 그 사유의 토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이질적인 것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깎아내는 것이 수용의 첫 단계이다.[3]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최초의 방법은 익숙한 전통의 틀에 그것을 끼워 맞추는 것이다. 새로운 자연(Ⅳ.2. 博物과 奇異), 새로운 과학(Ⅳ.3. 格致와 奇異), 새로운 문화(Ⅳ.4. 日常과 奇異)의 경이로움은 익숙한 외양의 형식을 갖추고서야 수용될 수 있었다. 이 논문에서 이러한 과정의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개념은 '역사적 假晶'(*histrorical pseudomorphosis*)이다.

1. 서론: 『點石齋畵報』와 역사적 '假晶'

이 연구가 다루는 주요 대상은 『點石齋畵報』이다. 1884년 5월 8일 상해에서 창간된 『點石齋畵報』는 중국 최초의 본격적인 삽화 신문(Illustrated News)[4]이다. 종간호인 제528호(1898년 8월 13일)를 내기까지 15년간 총 4,666편의 글과 그림을 하나의 화면 프레임 안에 구성한 뉴스를 열흘에 한 번 전국 단위로 유통시켰다. 그 내용은 정치, 사회, 외교, 대중문화, 신문물, 일상생활, 민간신앙, 민속, 세태풍자, 기담 등 다양한 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발간 직후 『點石齋畵報』는 중국 각지의 독자들로부터 즉각적인 환영을 받았으며, 그 후 상당 기간 이미지를 사용하는 여러 매체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적어도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유통된 정기간행물의 삽화, 광고, 영화 등에서 『點石齋畵報』에 등장한 소재나 그림 양식의 영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통 문단과 예술계에서 『點石齋畵報』의 글과 그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관련기록을 남겼던 흔적은 확인할 수 없다. 이 매체에 대한 당시 독자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굉장히 빈약하다. 발간 주체인 『申報』 측에서 남긴 기록도 빈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창간사와 광고 등을 통해 사주인 어니스트 메이저(Ernest Major)와 초기 편집인의 발간 의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제 『點石齋畵報』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창작의도, 글과 그림 각각의 저자 분포, 시기별 잡지의 주편 등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보의 부재는 『點石齋畵報』라는 매체에 대한 당시의 가치평가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간접적 증거이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학술분야에서 이미지에 대한 가치평가가 달라지고 연구영역이 확대되기 전까지 『點石齋畵報』는 소수의 애호자들의 수집대상이거나, 기본적인 고증의 차원에서 언급되는 제한적인 연구분야로 남아 있었다.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點石齋畵報』에 대한 본격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을 때 이 잡지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둘러싼 여러 접근법이 나타난 것도 이러한 상황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방대한 분량의 잡지의 본문 전편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5] 텍스트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거나, 그림 한두 장을 골라 기존 역사서술의 시각적 근거로 활용하는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 『點石齋畵報』가 재현한 신문물

3) "전통이란 사건들을 역사 안으로 병합시킴으로써 사건들의 울퉁불퉁한 모서리들을 매끈하게 다듬고, 새로운 사건의 갑작스러운 시작이 주는 충격을 완화하고, 역사적으로 생산된 것을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역사의 현재 밑에는 언제라도 다시 나타나 역사적 기억과 전통을 뒤엎으려고 기다리는 유령이 있다.)" 해리 하르투니언, 『역사의 요동』, 73쪽.

4) 서구의 "illustrated news"를 번역한 "畵報"라는 한자조합이 지면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點石齋畵報』의 발행처인 『申報』 1877년 5월 12일자 6면 광고(「寰瀛**畫圖**待售」)의 본문에 언급된 『寰瀛**畫報**』의 발간예고를 통해서이다. 중국에서 화보는 서구 삽화신문의 재유통, 서구 삽화신문의 형식을 차용한 중국화보, 중국화한 중국화보가 동시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

5) 1897년 點石齋書局의 중인본을 근거로 『點石齋畫報』, 廣東人民出版社, 1983年(5函 44集 528号)에서 영인한 이후부터 텍스트 전편을 활용할 수 있었다. 다만 표지와 광고 등이 빠져 있으므로, 잡지의 원모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전세계 도서관에 흩어져 보관 중인 초간본을 확인해야 한다.

이나 당시 도시의 일상풍경은 문자가 전하지 못하는 직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지금까지 『點石齋畵報』는 주로 기존 역사서술을 보완하거나 시각적으로 입증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 경우 『點石齋畵報』의 그림이 실제 모습을 어느 정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하여, 『點石齋畵報』의 성격을 시사 뉴스를 주로 그리는 시사 화보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중국근대사와 상해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로 판단하는 연구도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자면, 소재의 측면에서 『點石齋畵報』를 이용하는 연구는 풍부하지만 『點石齋畵報』의 성격을 규명하는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點石齋畵報』 연구는 (방법론이 아니라) 그 추구하는 방향에 있어 크게 근대적 경향과 전통적 경향으로 나눌 수 있다. 『點石齋畵報』 연구에 있어 근대적 경향의 연구는 현대적 시각에서 미신으로 판단되는 괴물, 초자연 현상 등 "기이한" 요소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서구 및 근대와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뤄져 왔다. 陳平原(대륙)과 王爾敏(대만) 등의 학자가 대표적이다. 陳平原 이후 대륙의 『點石齋畵報』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 관점을 전제하고 있다. 중국 근대를 규정하는 "충격-반응" 도식은 이론 측면에서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여러 수정된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개별연구로 들어가면 충격-반응, 서구-중국, 근대-전통 등의 이분법이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하나의 출발점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구라는 공간은 근대라는 시간 개념으로 등치되며, 중국적인 것의 함의는 전근대적이고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 『點石齋畵報』가 90년대 이후 연구대상으로 호명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연구할 가치가 있는 텍스트로 격상시키는 작업이었고, 그에 따라 "서구 문물과 신지식을 소개하는 근대적인 시사잡지"라는 성격규정이 일반화되었다.

비교적 소수에 불과한 전통적 경향의 연구에서는 『點石齋畵報』의 근대적 성격을 다소 인정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기이한" 내용의 성격을 논의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전통문화의 요소와 지괴식의 토착적 이미지에 주목한 李孝悌와 weird, strange 등의 개념을 통해 『點石齋畵報』의 매체적 특성에 관한 분석을 시도한 Rania Huntington 등이 대표적이다.

연구방향에서 보이는 이러한 경향성은 분석대상의 선택에서 이 매체의 성격 규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근대적 연구경향을 지닌 학자들도 『點石齋畵報』가 지닌 전통적 경향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들이 이 매체에 규정한 특성에서 벗어난 소재는 학술적 가치를 부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제쳐둔 것이다. 이에 반해 전통적 경향을 지닌 일부의 학자들은 전통적 소재가 가진 중요성을 강조하되 그 속에 스며있는 서구적이고 근대적 면모에 대해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다. 여러 화가에 의해 다년간 독자에게 흥미를 끌 수 있고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온갖 소재가 다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소재를 통해 『點石齋畵報』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소재의 雜多함은 이 잡지의 특징이다. 잡다하게 펼쳐진 글과 그림 속에 그 시기를 관통하는 다양한 일상적 경험이 녹아 있다. 전통적인 외양 아래 변화된 근대적 일상이 잠복되어 있고,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것에 익숙한 형태를 부여하는 옛 형식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오래된 강력한 문화인 중국의 근대 경험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이러한 "역사적 假晶(*Pseudomorphosis*)"[6] 현상은 『點石齋畵

6) 슈펭글러가 처음 고안한 이 개념은 "오래된 외래문화가 어떤 지역에서 아주 강력해서 젊은 문화가 숨을 쉴 수 없게 눌러, 순수하고 독특한 표현 형태를 형성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의 자의식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도 없는 경우"를 지칭한다. 假晶은 원래 한 광물이 다른 광물의 결정형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지칭하는 광물학 용어이다. 즉, 광물a의 결정이 용해되어 없어진 후 틀만 남은 상황에서 광물b가 광물a의 틀에 충전되어 "내부 구조와 외부 형상이 모순되는 결정을 형성하여, 다른 종류의 돌 모양을 한 어떤 돌"이 되는 현상이다. 오스발트 슈펭글러/박광순, 『서구의 몰락』 3 (범우사, 1995), 5-6쪽, (일부 수정된 번역). "假晶"이란 개념을 지성사에 소개함으로써, 슈펭글러는 새로 조직되는 원칙과 강력한 오랜 형식 …… 사이의 비극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었다. Michael Waldstein, Hans Jonas' Construct "Gnosticism": Analysis and Critique, *Journal of Early Christian Studies* 8:3, 2000. p.354. 중요한 것은 틀의 역할을 하는 오랜 형식과 그 틀의 형상으로만 대지에 뿌리내릴 수 있는 새로운 문화의 관계에 대한 설정이므로, 중국에 적용하면 "오래된 외래문화"라는 말을 "오래된 중국의 고유문화"로 바꿔야 할 것이다. 중국문화라는 (빈?) 틀은 어떠

報』의 매체적 특성이자, 각 화보의 기저를 관통하고 있다. '언어'를 옛 '형식'의 대표로 봤을 때 "역사적 假晶"이란 "오래된 강력한 문화의 영향권 안에서 탄생한 새로운 문화가 자신의 고유한 분투와 비전을 오래된 문화의 언어로 표현하게 되는 현상, 다시 말해 오래된 문화의 언어가 가지는 의미들이 새로운 문화의 언어가 가지는 의미들에 그림자를 드리우게 되는 현상이다."[7] "새 술을 헌 부대에"라는 격언을 문명적 층위로 구조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질적 내용과 적용범위에서 차이가 나지만 기본발상은 "中體西用"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8] 線裝本 서적의 외양, 전통회화 양식, 글과 그림의 공존 등 『點石齋畵報』가 채택한 옛 형식은 서구의 illustrated news라는 새로운 매체를 당시 중국 독자에게 익숙한 형태로 변용시켰다.[9] 익숙한 형태 속에 깃든 이질적 실질을 대면할 때 받게 되는 뒤틀림은 기이함을 불러온다. 이런 면에서 "기이함"이란 단순히 소재의 차원이 아니라 형식적 차원에서 받게 되는 효과이다.

"기이함"에 주목하는 이유는 『點石齋畵報』에 나타나는 전통적인 요소를 밝히려는 게 아니다. 지괴라는 전통소설의 형식을 빌어야만 했던, 뭔가 뒤틀리고 기괴한 형식으로만 표출되는 그 무엇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로테스크는 미지의 '무엇'을 구체화한 것이다."[10] 이 '무엇'의 존재가 세력을 떨친 시기들은 "기존의 세계관에 대한 믿음, 이전 시대의 안전한 세계 질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던 때"였다.[11] 구체적인 실제 이미지를 떠올리기 힘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어떠한 오래된 옛 형식들이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 논문의 중심적인 분석대상이다.

2. 결론: 기이한 근대

『點石齋畵報』를 위시한 19세기 말 정기간행물은 지괴를 대신하여 기이함의 주요한 수집가이자 공급자임을 자임했다.[12] 異聞과 新聞의 착종은 지식인의 博學이라는 오래된 전통과 대중적 정보라는 새로운 개념이 만나는 장소를 제공하였다. 『搜神記』, 『神異經』, 『幽明錄』, 『述異記』, 『錄異傳』, 『列異傳』 등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육조시기 志怪는 당시의 지식으로 판단내릴 수 없었던 神, 異, 怪, 幽의 세계에 대해 역사가의 기록정신으로 수집(搜)하고 기록(記, 錄, 述, 傳)하여 왔다. 그 전통은 신문에 이르러 새로운 모습

한 새로운 문화도 다른 결정형을 가지게 할 정도로 강력했다. 대표적인 것이 불교와 서구 근대이다.

7) 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 『역사, 끝에서 두번째 세계』(김정아 옮김, 문학동네, 2012), 58쪽.

8) 中學과 西學의 내용 및 體用의 철학적 함의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중체서용을 "이질적 문화를 받아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논리구조"로 봤을 때 역사적 假晶과 그 출발점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민두기, 「중체서용론고」, 『중국근대개혁운동의 연구』(일조각, 1985), 52-3쪽.

9) "Ⅱ. 중국식 畵報의 등장과 그 역사적 배경"에서 『點石齋畵報』의 형식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중국에서 화보를 출판하려는 시도는 1870년대 후반부터 몇 가지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 시도는 The Illustrated London News나 The Graphic 등 서구 삽화신문을 그대로 가져와 중국어 해설을 달아 유통하는 것(『寰瀛畫報』)에서 시작하여 중국독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전통회화의 양식으로 출간하는 것까지의 스펙트럼에 걸쳐 있다. 즉 서양의 낯선 형식을 도입하되 내용적인 부분에서 중국 독자들에게 수용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는가, 아니면 중국의 익숙한 형식을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내용의 낯섦을 중화시키도록 할 것인가의 선택의 차이로 볼 수 있다. 발생기의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중국에서 '화보'라는 매체는 틀을 확립하고 독자에게 익숙한 형식으로 수용되어 갔다. 또한 목판화와 활자의 조합을 통한 서구 삽화신문 형식의 유포(『小孩月報』, 『畫圖新報』)와 석판인쇄를 통한 전통양식의 기계적 복제인가의 기술적 선택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10) 볼프강 카이저, 『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이지혜 옮김, 아모르문디, 2011), 304쪽. 미학용어로서의 '그로테스크'와 '기이함'을 직접 연결시키려는 것은 아니며, 그로테스크가 발현되는 구조적 측면, 생경해진 세계를 통해 느끼는 낯섦과 당혹스러움이라는 본질적 특성에 주목한다.

11) 볼프강 카이저, 309쪽.

12) "유령과 여우, 요술, 인과응보, 기형출산, 괴물 등을 기록할 때 명말에서 청말로 오면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매체이다. 1870-1880년대에 정기간행물은 지괴와 일사 선집을 제치고 이상함의 주요 수집자이자 공급자가 되었다." Rania Huntington, "The Newspaper, *Zhiguai*, and the Sorcery Epidemic of 1876", *Dynastic Crisis and Cultural Innovation: From the Late Ming to the Late Qing and Beyond*(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5), p.355. 문자 매체가 지괴류 사건을 날 것 그대로 수집하고 전한다면, 화보 매체는 前史와 評語를 앞뒤에 배치하면서 구성적인 완성도를 추구했다.

으로 이어졌다.

단순히 기록하고 전하는 행위를 넘어, 기이함이 하나의 태도로서 새롭고 긍정적인 것을 지시하는 용어로 정착하게 되는 것을 명말의 비평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獵奇" 경향으로 대표되는 명말 비평계는 독창성의 근거를 시간적, 공간적 다름에서 찾았다. 두 가지 주요한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양명좌파의 영향으로 개인의 독창성을 부각시키던 문학적 움직임의 측면과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된 새로운 세계에 대한 지식이 그것이다. 고대와 명말 독자들 사이의 시간적 거리는 옛 이야기와 일화들에서 기이함의 효과를 증대시켰다. 사람들, 풍속, 고대의 유물 등은 더 이상 일상적 경험의 일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상하고 기이한 분위기를 보다 쉽게 만들어낼 수 있었다. 중국과 외국의 엄청난 거리 또한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다. 외국 인종, 문화, 물산 등이 명말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시켰다. "외국"이라는 단어도 이상하고, 낯설고, 이국적이고 새로운 것을 암시했다. 이 모든 것이 기이함의 특징이었다.[13] 기이함은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특정한 한 방식이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 기이할 수 없고, 기이하지 않으면 새롭지 않다. 가까이 이웃에서 벌어진 일에서부터 멀리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까지, 태고의 먼 과거에 벌어진 일에서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까지 개인의 경험과 다른 무엇에 주목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위이다.

새로운 경험을 표현하기 위해 익숙한 옛 형식을 사용하는 태도는 19세기에 처음으로 서구와 조우한 중국 지식인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이 경험을 표현하려 했을 때 부딪치는 문제는 새로운 사물, 지식, 개념을 표현할 적절한 대응어를 찾기가 힘들다는 점이었다. 새로움의 거리가 멀수록 말로 설명되기에 곤란하고 낯설기 마련이다. 새로움이 표현되고 이해받기 위해서는 익숙한 형식의 도움이 필수적이었다. 『點石齋畵報』에서 새로움을 담기 위한 전통적인 형식의 사용은 매체형식과 개별작품의 두 층위에서 공히 일어난다.

매체형식의 측면에서 『點石齋畵報』는 동시대 서구의 정기간행물의 시스템을 채택하되, 중국적인 형식을 취함으로써 새로운 매체형식의 충격을 중국인들이 어느 정도 완화된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였다. 이에 중국식 화보의 형성 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는 한편, 화보와 같은 새로운 매체가 가능할 수 있었던 기술적 조건들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러한 기술적 기반 위에서 새로운 미학적 실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한, 매체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판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기간행물에서 서적으로의 재편 과정을 추적했다. 그 결과 『點石齋畵報』는 시간의 영향에서 벗어나 더 보편적인 관람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출간 당시에는 특정한 시공간적 맥락을 담은 뉴스로, 그리고 일단 뉴스의 배경이 사라진 후에는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를 담은 자료로 보존된 것이다.

『點石齋畵報』는 하나의 화면 안에 글과 그림이 공존하는 독특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프레임 안에 포섭되는 순간 서구의 새로운 자연, 새로운 과학, 새로운 문화는 기이하게 뒤틀려 버린다. 아무리 멀리 있고 새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바로 곁에 있는 익숙한 대상으로 재현되는 것이다. 원근법은 일그러지고 중심은 흩어져, 모두가 주인공이고 모두가 구경꾼인 세계가 그려진다.

『點石齋畵報』는 세계의 다양한 경관을 수집하고 재현하여 '인쇄된 박물관'(printed museum)의 역할을 했다. 근대 중국에 있어 과학은 학문적 방법론이나 과학적 세계관의 직접적인 수용이 아니라, 기구, 증기선, 기차 등 제작된 器物의 이미지로 대중들의 시각을 사로잡았다. 의미없는 군중과 자질구레한 도시의 일상 또한 재현의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點石齋畵報』가 제시하는 풍경이 현재와 일상에 대해 지극히 무관심하다는 결론이 아니다. 전통시기 필기나 지괴에서 이미 완성된 서사를 『點石齋畵報』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 지점은 『點石齋畵報』의 성격을 규정하는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시

13) Bai, Qianshen. *Fu Shan's World: The Transformation of Chinese Calligraphy in the Seventeenth Century*.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3. p. 14.

기 지식체계가 놓인 환경을 읽기 위한 예비적 단계로서 기능한다. Nanny Kim이 "낡은 부대에 새 술을"이라고 천명한 것은『點石齋畵報』가 단순히 지괴나 필기와 같은 전통적인 형식으로 새로운 소재를 형상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에 따르면『點石齋畵報』는 "독자에게 낡은 것을 가장한 부대에 새 것을 가장한 술을 제공"하고 있다.[14] 신기한 사건은 그 울퉁불퉁한 모서리들이 매끈하게 다듬어지면서 더 이상 완전히 새로운 것만은 아니게 되었다. 그런데 수용능력을 넘어서는 완전히 새로운 사유체계의 모서리를 감내할 환경이 이 시기에 갖춰졌을까?

일견 새로운 것으로 보이는 경험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포착한다. 그것이 아무리 새로운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을 담지한 근대적 경험일지라도, 오히려 그렇게 유동적이며 포착될 수 없는 성격 때문에 더더욱 기존의 사유체계 내에서 어떻게든 질서를 부여하려는 노력을 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단순히 '기이함'이란 개념으로 단순화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點石齋畵報』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은 흥미로운 볼거리를 통해 기이함을 포착하고 유통시키고 소비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서구적인 건물과 새로운 물건들로 가득 찬 상해의 남경로에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중국인의 일상과도 유사하다. 그들은 빠르게 근대화되고 있는 도시에서 여전히 전통적인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19세기 말 중국에서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근대'라는 개념을 끌어오면서 서구적 근대화를 본원적인 것으로 상정하지 않기란 힘들다. 그러한 전제에 입각하여 '비서구'로서 중국에서 일어난 변화를 살피고 서구의 충격에 반응하는 중국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다. 이는 대안적 근대를 말할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우리는 "인간을 결정하는 것이 역사 속의 커다란 사건들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15]『點石齋畵報』는 戈公振이 정확하게 평가했듯이 "애석하게도 그 내용은『요재지이』와 유사하며, 시국과는 무관"(惜取材有類聊齋, 無關大局)한 기록이다.[16] 이처럼 하찮고 자질구레한 사건의 분석을 통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거대한 사건과 지식인의 사유에 의해 고착된 그 시기의 경험을 다시 쓸 필요가 있다. 지식인이 서구의 충격에 맞서 근대적 지식을 구성해 가고 있던 바로 그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중국의 보통 사람들은 근대에 관하여 어떤 감각을 키워 갔을까? 그것은 일기, 잡문, 필기, 신문 잡지 등에 흩어져 있는 편린들을 통해 제한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들은 명시적인 주장의 형태가 아닌 이미 변용을 거친 전통의 외양 속에 감춰져 있다.

14) Nanny Kim, "New Wine in Old Bottles? Making and Reading an Illustrated Magazine from Late Nineteenth-Century Shanghai", Wagner, R. G. *Joining the Global Public: Word, Image, and City in Early Chinese Newspapers, 1870-1910.*(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7), pp.195-6.

15) 지그프리트 크라카우어,『화이트칼라』; 해리 하루투니언,『역사의 요동』, 158쪽 재인용.

16) 戈公振,『中国报学史』(三联书店, 1955), pp.248-9.

鄭觀應의 글쓰기와 사유방식의 경계적 특성 연구
— ≪易言≫과 ≪盛世危言≫을 중심으로

이화진*

<目 次>

1. 서론
2. 정관응의 다층적 경계성
  2.1 문화 정체성의 측면
  2.2 계층의 측면
  2.3 지역의 측면
3. 글쓰기의 경계적 특성
  3.1 ≪易言≫에서 ≪盛世危言≫으로
  3.2 전통적 글쓰기와 실시간적 보완
4. 사유방식의 경계적 특성
  4.1 역사인식과 세계관
  4.2 합일적 사유와 실천 지향
  4.3 국가 재건을 위한 개혁사상 - 商과 公
5. 결론

1. 서론

중국에서 20세기 전환기는 '문(文)'에 대한 관념 자체가 '문(文)·사(史)·철(哲)'을 아우르는 '글 일반'을 가리키는 전통적 의미와 순수예술(fine art)의 의미로 축소된 '순수문학(literature)'을 일컫는 서구의 근대적 의미 사이에서 유동했던 개념적 과도기였다. 이 때문에 후자의 근대적 '문학'이라는 개념으로 이 시기의 지적 성과를 포괄한다면, 전통적인 지식장의 연속 속에서 변화를 도모했던 지식인들의 글쓰기는, 산문 혹은 수필 장르로 포섭이 가능한 부분을 제외하고 상당 부분 누락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분과학문의 범주 자체가 유동적이었고 저술 주체에게서도 새로운 학제에 대한 자각이 분명하지 않았던 시기의 글쓰기에 대해 이후에 확립된 근대적 분과학문에 따라 분류하고 연구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더해 19세기 중·후반 지식담론에 대한 연구와 문학사 및 지성사 서술은 경학에 기초한 전통적 문인, 그 중에서도 일부 명망 높은 전국 단위의 지도자급 인사에 치중되었다. 20세기 초의 경우 신정(新政)과 과거제도의 폐지라는 전대미문의 정치 및 문화사적 사건과 맞물려 생성된 새로운 직업군, 즉 직업정치가, 혁명가, 언론인, 문학가 등의 '근대적' 신지식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이전 시기와의 단절 속에서 신기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존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광(道光) 연간부터 신문화 운동시기까지의 흐름을 단선적인 사회발전사에 입각해 서술하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며, 신분이나 계층의 차원에서 일면 '주변'으로 정위(定位)된 인물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거나 과도기적 인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광동 매판상인 출신이면서도 상당한 양의 저술을 남긴 정관응(鄭觀應, 1842~1922)의 글쓰기와 그에 나타난 사유방식에 주목했다. 정관응이 살았던 20세기 전환기는 '주변'적 요소와 '중심'적 요소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자체가 유동적이었다. 중・서 교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던 근대 중국이라는 시공간 속에서 상인, 서학, 매판, 광동 등은 더 이상 고정적인 '주변'이 아니었다. 이것들은 기존의 '중심'을 향해 새로운 자극과 에너지, 즉 '서구성'과 '근대성'을 매개하거나 변용하는 역동적인 '주변'이었다. 그러나 장기간 존속된 제국의 '중심' 또한 이에 즉각적으로 자리를 내어준 것은 아니었다. 전통 학술, 문인 계층, 강남 지역 등에서 향유되었던 이념적, 학술적, 문화적 전통은 20세기 전환기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 때문에 정관응의 글쓰기와 사유방식은 기본적으로 '경계적'이었다.

본 연구는 정관응이 처한 이러한 시대적 조건과 개인의 생애에서 보이는 경계성은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이것이 그의 글쓰기와 사유방식에서 어떠한 양상과 방식으로 구현되었는가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성세위언(盛世危言)≫ 계열의 주요 판본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그 글쓰기의 성격을 규명하고 각 판본을 대표하는 주요 편장을 중심으로 관건적인 사유방식을 추출한다.[1)]

정관응과 그의 저서는 국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2)] 중국에서는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다.[3)] 분야 또한 경제학, 교육학, 정치학, 법학, 문헌학, 문학, 여성학 등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정관응의 활동분야와 저서에서 다룬 제재의 다양성 때문이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의 기여를 기대한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 정관응은 주로 초기 자산계급 개량주의 사상가, 양무운동 시기 변법론을 선취한 선구적 개혁가, 민족자본가로 성장한 대표적인 근대적 실업가 등으로 규정되었다. 이 가운데 1980년대까지는 정관응의 '보수적', '봉건적' 요소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존재했고, 1990년대 이후에는 '근대적', '선진적', '민족적' 측면에 집중되었다. 본 연구는 '경계성'에 입각하여 가치중립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양무에서 변법, 전통에서 근대, 유학에서 서학, 보수에서 진보로의 비판적 발전이라는 단선적 서사 밖에서 정관응의 글쓰기와 사유방식을 규명할 것이다. 둘째, 각 판본별 변이에 주목함으로써 개별 판본 중심의 연구와 분야별 내용 정리 위주의 연구 경향을 보완할 것이다. 셋째, 경제발전을 추동하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민족자산가' 및 '애국실업가'로서 정관응에게 투여했던 민족적 색채를 걷어낼 것이다. 이를 대신해 문화정체성, 지역, 계층의 측면에서 유동적 요소가 야기한 특수성에 주목하여 정관응의 실천적 사유의 동태적 측면과 다층적 특징을 조명함으로써 청말 지식담론에 대한 연구 다변화에 기여할 것이다.

2. 정관응의 다층적 경계성[4)]

2.1. 문화 정체성의 측면

정관응(鄭觀應)의 원명은 관응(官應)이고, 자는 정상(正翔), 호는 도재(陶齋)이며, 별호에는 기우생(杞憂生), 나부치학산인(羅浮倘鶴山人) 등이 있다. 1842년 7월 24일 광동성 광주부 향산현 삼향진(三鄕鎭)에서 태어났다. 정관응의 가문은 수대에 걸쳐 상업 활동에 종사했고 부친 정문서(鄭文瑞), 숙부 정정강(鄭廷江), 장남 정사제(鄭思齊)는 모두 상해의 매판이었다. 그런데 정문서는 귀향 후 향촌 사회의 교육 및 공익사업

1) 저본은 鄭觀應 著, 夏東元 編, ≪鄭觀應集・盛世危言上・下(全二冊)≫과 ≪鄭觀應集・求時揭要(外八種)上・下(全二冊)≫(北京: 中華書局, 2013)이다.

2) 유경선, <정관응의 개혁사상 연구: 상공업진흥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이화승, <19세기 상해의 경제개혁사상, 상전: 정관잉 사상의 배경과 전개>, ≪현대중국연구≫ 제4집, 2002; 김월회, <청말・민초의 신흥계층과 그 사유방식: 매판 정관응의 경우>, ≪동아문화연구≫ 제48집, 2004.

3) 다음의 세 편의 박사논문이 대표적이다. 邵建, <鄭觀應社會關系網研究>, 華東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2; 葛群, <鄭觀應商戰思想研究>, 東北財經大學 博士學位論文, 2012; 蔡旭, <鄭觀應新學思想研究>, 福建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2014.

4) 본장과 이어지는 3장에 서술된 정관응의 주요 행적, 성서(成書) 과정 가운데 별도의 출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夏東元 編著, ≪鄭觀應年譜長編上・下卷≫); 易惠莉 著, ≪鄭觀應評傳上・中・下≫; 廣東省情報網, ≪鄭觀應志≫; 夏東元 編, ≪鄭觀應集・盛世危言≫를 참조했다.

에 상당한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문서의 실질적 장남이었던 정관응은 이러한 부친의 영향을 받아 어려서부터 향촌 사회의 풍속과 민생에 대해 강한 관심과 책임감을 형성했으며, 가교(家教)와 사숙(私塾)을 통해 유가 교육을 받고 1858년(17세) 향산현 동자시에 응시하기도 했다.

향산 출신의 또 다른 매판 서윤(徐潤), 당정추(唐廷樞), 용굉(容宏)의 사례는 정관응과 사뭇 다르다. 서윤은 정관응과 유사하게 소주(蘇州)로 유학까지 갔으나 언어 문제로 학업을 포기하고 상해로 가 매판이 되었다. 반면 당정추와 용굉은 모리슨(Morrison) 학당에서 수학하며 서구식 교육을 받았으며, 용굉은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이들과 달리 정관응은 동남아 이외에 중국을 떠난 적이 없었으며, 끝까지 전통 복식을 고수했다. 또한 영어 실력이 부족하여 초기에는 크게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으며, 그의 사유와 글쓰기는 중국어와 한문으로 이루어졌다. 종교 및 사상적 신념에 있어서도 정관응은 행선과 적덕을 권고하는 유가 권계서를 다수 집필했다. 특히 교안(教案)이 발생할 때마다 기독교에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냈으며, 도교에 깊이 심취해 입실 수도를 하기도 했다.

중·서를 매개하는 매판으로서 정관응의 문화 정체성은 일차적으로 중국과 서구, 전통과 근대라는 두 영역의 경계에 있었다. 그런데 청말 매판 일반으로 보면 일정한 스펙트럼 속에서 개인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정관응의 경우 중국인이라는 자의식을 지닌 채 '중국'의 '전통' 문화에 입각해 사유하고 발화하고 생활했다.

2.2. 계층의 측면

사민체제 속에서 줄곧 말단에 처했던 중국 상인들은 청말 양행(洋行)과의 접촉을 통해 부국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하는 첨병으로 발돋움했다. 특히 양무운동의 기조가 '강병'에서 '자강'과 '부국'으로 전환된 1870년대 중반 이후 국부(國富)를 실현할 '새로운' 상인계층의 중심에는 매판상인이 있었다.[5] 여전히 조계지에만 머무는 유럽 상인들은 중국인 매판들을 고용했고, 이들이 과거 공행의 역할까지 흡수하면서 입지가 강화되었다. 이 시기의 매판은 중국 상품의 내지 구매, 대금 결제 및 보증, 선적, 중국 직원 관리, 회계 업무, 자금 운용 등을 폭넓게 담당했다.[6] 이 때문에 매판은 중국 안팎의 동향과 시세에 밝았으며 자본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투자는 물론 투기도 불사했다. 중국 매판에 대한 연구는 크게 '계급론'과 '중개론'에 입각한다. '계급론'에서 매판은 '반동', '매국', '착취'의 대명사로서 부정적으로 간주되나, '중개론'에서는 서양 상인과 중국 상인의 무역 거래, 나아가 중·서 문화를 매개하던 직업인이다.[7]

정관응은 1860년(19세)부터 1867(26세)년까지 약 8년을 덴트사(Dent Co., 寶順洋行)의 매판으로 일했다. 이후 차 산업, 윤항업(輪航業), 염매업(鹽賣業) 등에 투자해 큰 돈을 벌었다. 1874년(33세)에는 버터필드 윤선공사(Butterfield & Swire Co., 太古輪船)의 총판으로 고용되어 1882년(41세)까지 총 9년을 일했다. 정관응은 상업 활동 이외에도 구제(救濟), 저술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홍장(李鴻章), 성선회(盛宣懷) 등 양무관료, 왕도(王韜) 등 개혁파 언론인, 경원선(經元善) 등 신상들과도 폭넓게 교유했다. 1882년(41세) 정관응은 상해윤선초상국 등에 발탁되어 양무기업가로 성공적으로 변신했으나, 1884년(43세) 상해 금융위기와 청불전쟁에 연루되고 이듬해 버터필드사 송사에 휘말리면서 이후 6~7년 간 마카오에서 은거했다. 이 시기 정관응은 문인 내지는 지식인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1892년(51세) 성선회 등의 도

5) 1870년 상해와 홍콩에 약 550개의 양행이, 1899년에는 중국 전체에 약 930여개의 양행이 있었다. 이로써 19세기 말 중국에는 수천 명의 전·현직 매판이 존재했을 것을 추정할 수 있다.(하오옌핑, ≪동양과 서양, 근대를 잇는 상인 매판≫, 122~123쪽.) 18세기 말 매판은 중국 내 외국 상관(商館), 상선(商船)에 고용되어 외국인들의 생활을 돕거나 중국 상인과의 거래를 중개했던 중국인을 일컬었다. 이 중에서도 19세기 중반부터 근대적 민족주의가 흥기하기 시작한 1900년 전후까지 활동한 '근대적 매판(comprador)'은 대체로 중영전쟁으로 촉발된 조약제도의 산물로서 개항지에서 활동한 상선 매판이자 양행에 고용된 중개상을 가리킨다.

6) 하오옌핑, 위의 책, 93쪽.

7) 聶好春, ≪買辦與近代中國經濟發展研究1840-1927≫, 8~10쪽.

움으로 윤선초상국에 합류하면서 성공적으로 복귀한 정관응은 직후의 저서 출간을 통해 재계는 물론 관계와 학계에까지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상인으로서, 기업가로서 관계에 대한 정관응의 종속적 지위는 이와 비례해 더욱 강화됐다. 특히 윤선초상국에서 정관응은 독판(督辦) 성선회에게 고용된 실무자에 가까웠다. 이는 1900년대 성선회의 정치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욱 심화됐다. 상해 복귀 후 정관응은 '반관반상(半官半商)'의 모습이었다.

2.3. 지역의 측면

17세기 이래로 광동은 중국과 외부 세계의 교류와 충돌의 중심지였다. 광주에는 성숙한 양행 제도가 확립되어 있었으며, 이와 관련된 경험, 요령, 자금이 풍부했다. 관세는 세 번째로 중요한 국가 수입원이었는데, 광주 월해관(越海關)은 세관 수입 전체의 1/4에 달했다.[8] "광동은 변방의 부유한 지역으로 사민 중에 상인이 절반을 이룬다," "외국 선박에 근거해 생계를 이루는 자가 수십만이다" 등의 기록들이 이를 뒷받침한다.[9] 광동인은 개방적이고 도전정신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굉에 따르면, 당시 정부에서 진행한 미국 국비유학생 선발 사업의 1기 응시자 대부분이 광동인이었고, 과반수가 향산인이었다. 북부 지방은 시행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10] 향산은 정관응의 고향으로서 마카오 북부에 위치해 '매판의 고향향[買辦之鄉]'으로도 불렸다. 반면 학술 분야에서는 줄곧 변방이었다. 1824년 완원(阮元)이 학해당(學海堂)을 세운 이후 광동의 학자들이 학술계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으나,[11] 이것이 광동의 학술풍토를 대변하지는 않는다. 양녠췬(楊念群)은 강유위 학술의 신비주의적 면모를 광동의 지리적, 기질적, 사상적 배경으로 설명했다. 남쪽 연해 지역 거주자들은 시야가 넓고 개방적이며 화려하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고 이상주의적인 동시에 원시적 기복 신앙이 보존되어 있었으며 정통 유학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더해 선종(禪宗)이 전해지면서 기존의 낭만적・원시적 사유와 결합했으며, 이것이 명대에 지식인 계층의 경학적 사유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독특한 신비주의적 전통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양녠췬은 이러한 '복합기질'이야말로 광동만의 독특한 유학 풍토라고 설명했다.[12]

한편 1870년대 '이민사회' 상해의 번영은 강남의 전통적인 경제체제가 아닌 대외 무역활동의 결과였고,[13] 광동인들은 수십 년간 대외무역의 핵심 역량으로 활약했다. 특히 상해 매판들의 상당수가 향산 출신이었으며, 윤선초상국은 광동 매판상인들의 자본으로 태동했다. 반면 전통 상인들은 신식기업 투자와 경영에 흥미를 보이지 않았으며, 강남 매판들과 신상들의 활약은 1890년대 이후에 가시화되었다. 전통 신사 및 관료 중 상당수는 양무기업 경영에 무지했다.[14] 전통이 쇠락함과 동시에 새로운 조건이 형성되고 있던 상해에서 광동 상인들은 일정 기간 동안 그들만의 방식과 요령으로 중국의 산업 근대화에 기여하며 부를 거머쥔 셈이다. 광동 매판들은 1870년대 중반 광조(廣肇)공소를 설립하고 그들의 자본으로 윤선초상국을 개국시켰으며 ≪회보(滙報)≫를 창간하는 등 상해에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확립해나갔으며, 그와 비례해 강남 신상 사회와 상당한 세력다툼을 벌였다. 그런데 정관응은 그 세력의 핵심적 인물로서 강남 사회와도 긴밀히 교유해나갔다. 정관응의 저술 및 상업 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친 왕도와 성선회는 각각 소주(蘇州), 상주(常州), 즉 강남 출신이었고, 1900년 이후 양무기업 패권을 두고 상해파와 광동파가 대립할 당시 정관응은 상해파의 입장에 서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정관응은 광동을 대표하는 주요 인사로 활약했다.

---

8) 리궈룽, ≪제국의 상점: 광주 13행≫, 36-46쪽.
9) 박기수, <청대 광동의 대외무역과 광동상인>, 94쪽.
10) 容閎 著, ≪西學東漸記≫. 180쪽.
11) 청메이바오, ≪지역문화와 국가의식≫, 251쪽.
12) 楊念群 著, ≪儒學地域化的近代形態: 三大知識群體互動的比較研究≫, 217-224쪽.
13) 민정기, <晩淸 時期 上海 文人의 글쓰기 양상에 관한 연구: 王韜를 중심으로>, 46쪽.
14) 胡波, <近代中西文化碰撞中的香山買辦: 兼論近代中外關系的幾種研究模式>, 34쪽.

광동 매판상인으로서 정관응의 경계성은 사실상 그의 삶 속에서 다중적이고 다층적으로 나타난다. 청말 '서구문화', '매판계층', '광동지역'은 그 자체로서 신과 구, 중과 서, 전통과 근대를 매개하는 경계적 속성을 지닌다. 정관응은 '신중심'으로 부상한 '광동' 출신으로, 중·서의 두 문화권에 거간(居間)하는 '매판상인'으로서 경계적이었다. 그러나 정관응은 이러한 경계성을 전형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다. 여타 광동 매판상인들과 달리 정관응은 중국의 전통문화에 보다 천착했으며 국가적 시무에 관심을 갖으며 여러 저술활동을 통해 '문인-관료'의 지향을 형성했다. 즉 정관응의 행적에서 추출한 경계성은, 전통과 근대, 중국과 서구, 향촌과 국가, 광동과 상해, 그리고 상인과 문인관료라는 이질적 요소 사이에서 상황에 따라 불안하게 유동하던 '예외적 전형'에 가깝다.[15]

3. 글쓰기의 경계적 특성

3.1. ≪이언(易言)≫에서 ≪성세위언(盛世危言)≫으로

≪이언≫과 ≪성세위언≫은 정관응에게 지식인으로서의 명성을 안겨준 대표저서로 청말 개혁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경세서이다. ≪이언≫에는 1880년 홍콩 조판본과 36편 본과 1881년 상해 조판본이 있다. 36편 본은 1875~80년 집필, 1880년 출간되었으며, 20편 본은 1881년 여름에 출간되었다. 36편 본은 상, 하권 각각 정문 18편과 부록 1편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권은 대체로 '부국', 하권은 '강병'의 내용이다. 이듬해 바로 축약본, 즉 20편 본을 출간한 것은 1870년대 말 서북 및 동남 변강의 군사적 위기와 전반적 경제적 침탈이 가시화되는 새로운 현실, 그리고 36편 본의 '탈중화성'에 대한 왕도의 비판에 직면해 비판의 화살을 내부에서 외부로 전환한 결과였다.

정관응은 청불전쟁 당시 팽옥린(彭玉麟), 장수성(張樹聲)과의 교류 속에서 ≪이언≫의 수정을 결심했고 마카오 은거 기간에 이를 실천했다. 1892년 복귀시점에 맞추어 완성 후 1894년 초 첫 판본을 출간했다가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4편을 추가하여 그해 늦가을에 재출간했다. 이렇게 완성된 ≪성세위언≫(5권)은 1895년 초 광서제에게 진상된 후 총리아문(總理衙門)에서 2000부를 인쇄하여 전국적으로 배포하는 등 14권 본 포함 1만 부 가량 인쇄되어 '성세위언 신드롬[盛世危言熱]'이라는 말을 낳기도 했다. 정문 57편, 부록 30편, 총 87편으로 구성된 ≪성세위언≫은 ≪이언≫과 비교해 양적인 면에서 제재 및 분량이 크게 확대됐으며, 이론적 논의 또한 크게 확충되어 깊이와 체계성을 갖추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철학 및 학술적 논의와 정치 및 교육 제도에 대한 제도에 관한 전면에 새롭게 배치되었고, 해결책을 제시함에 있어 인성 및 풍속 교화의 접근에 더해 제도 확립 차원이 보충되었다.

1895년 출간된 ≪성세위언증정신편≫ 14권 본은 정문 47편, 부록 및 후기 100여 편이 새롭게 추가되어 총 200여 편에 달하며, 부국(富國), 개원(開源), 강병(強兵), 절류(節流)라는 네 개의 대주제 아래 새롭게 재편됐다. '부국'을 제1 주제로 삼은 점, 그리고 그 안에 근대적 상공업 활동에 관한 편장을 전면 배치 및 확대한 후 바로 정치 및 교육에 관한 편장을 추가한 점이 특징적인데, 상업 활동을 통한 국부의 창출과 이를 위한 정치 및 교육제도의 완비라는 주제가 전면화된 결과다. 1900년 8월에는 ≪성세위언증정신편≫이 8권의 형태로 재간행되었다. 8권 본은 광서제 복귀 이후의 신정을 염두에 두고 나름의 방안을 제기함으로써 국가 재건에 대한 참여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14권 본의 편목을 상당부분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대주제를 6개로 확대해 통론(通論), 예정(禮政), 이정(吏政), 호정(戶政), 병정(兵政), 공정(工政)으로 구성한 점이 특징적이다. 통론은 이 책의 전제이자 중심축이 되는 중앙정치 및 외교에 관한 내용이며, 나

15) 여기서 '전형'이라고 한 것은 전대미문의 사회변동 속에서 외래문화를 수용하며 신지(新知)를 기획하는 개항지의 지식인, 나아가 중국의 공공지식인 일반에게서 보이는 공통분모, 즉 중국의 토착성에 대한 강한 자의식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머지 5개는 당시 청조의 중앙관청인 5부의 분류를 그대로 차용한 실천적 각론으로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신정안(新政案)을 방불케 한다.

3.2. 전통적 글쓰기와 실시간적 보완

정관응의 경계성을 염두에 두고 글쓰기에 나타난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글의 명칭 및 체제 구성에 있어서 문인 전통의 경학적 글쓰기를 견지했다. '이언'이나 '위언'이라는 명칭은 모두 ≪논어≫ 등 유가 경전에서 비롯되었으며, 각 편목의 명칭을 두 글자로 구성한 것과 주요 제재 또한 멀게는 ≪순자(荀子)≫, ≪묵자(墨子)≫, ≪명이대방록(明夷待訪錄)≫, 가까이는 왕도의 ≪도원문록외편(弢園文錄外編)≫ 등 전통 문인들의 경세적 글쓰기 체제와 제재를 따른 것이다. 국내외 정세의 변화와 시무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판본들을 계속 달리하며 제재 유형, 배치 순서, 핵심 내용 등에 변화를 주는 가운데서도 근대 잡지가 아닌, 단행본을 통해 입론한 점 또한 문인들의 경세적 글쓰기 전통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학술 및 정치계 인사들, 특히 상해에서 활동하던 관료, 문인, 신상들의 관심사나 학술적 지향을 의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속적으로 개정하며 시대에 조응하려 한 측면과 그 변이 과정에서 나타난 근대적, 상업적 주제의 부각이다. 수정과 보완의 동력은 전통 시기 문인들과 같이 학문적 깊이나 인격적 수양의 결과가 아닌, 시대 상황의 변화, 상인으로서의 실무 경력, 시무에 대한 지식의 축적에 따른 성과이다. 실사구시와 지행합일에 대한 천착, 서구의 문물에 대한 폭넓은 관심, 시무의 변화에 대한 민감한 감수 등은 시대적, 개인적 상황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관심과 글쓰기를 촉발했고 이것이 저술상의 변화를 추동한 근본적인 요인이다. 이 때문에 그의 관심은 만국적 세계관, 정치 및 교육제도의 개편, 상무적 변법론, 국가 재건 등으로 지속 이동했다.

요컨대 시무에 대한 관심과 유동적인 문화적・계층적・신분적 변화 속에서 개혁의 현실화를 염두에 둔 임기응변적 내용을 작성함에 있어 당시 유행하던 잡지와 신문 등 근대적 매체가 아닌 전통적 글쓰기 방식에 담고자 했던 결과가 동일 저서의 지속적인 개정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실시간으로' 보완하는 글쓰기는 향촌 사회의 전통 교육을 받고 성장한 광동 매판상인 출신으로서 상해 문인, 신상, 관료 지향을 겸비한 정관응이 시대적 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었다.

4. 사유방식의 경계적 특성

4.1. 역사인식과 세계관

정관응은 ≪성세위언≫(36편 본)에서 "천도는 수 백 년에 한 번 작게 변화하고, 수 천 년에 한 번 크게 변화한다"[16]고 언명하며 유럽의 잦은 전쟁과 이로써 촉발된 진보에 근거한 역사적 변화를 천도의 '소변'에, 중국의 봉건에서 군현으로의 역사적 변화는 '대변'에 대응시켰다. 그리 수차례의 '소변'을 통해 부국강병을 구현한 서양의 도전으로 인해 중국은 지금 세 번째 '대변'의 전기를 맞이했다는 것이다. 중국이 '대변'의 전환기에 처했다는 정관응의 인식은 변화의 당위성을 환기하고 중화의 '천도'를 서국 또한 구현해 왔다는 인식은 서국의 위상을 제고시킨다. 그 결과 '지금', '서국'을 참조할 수 있는 역사적・이념적 정당성이 확보된다.

한편 정관응은 만국공법을 "이치의 마땅함을 준거로 삼고 전쟁으로 인한 이익를 강령으로 삼으니 모두 천리와 인정을 벗어나지 않는 것"[17]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중국을 만국 가운데 하나로 인식한

16) "天道數百年小變, 數千年大變" - ≪易言≫(36)・<論公法>

다는 전제가 있을 때 유효하며 전통적 화이지변의 질서에 대한 성찰을 요구한다. 정관응은 이에 중심을 자처하며 이에 자위했던 중국을 비판하면서 중심과 변두리,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화이지변'에서 탈피함으로써 공법질서에 편입될 수 있도록 호소했다.[18] 이와 함께 '일존(一尊)'에 대한 절대적 의존에서 벗어난, "중화와 오랑캐가 연결된[華夷連屬] 천하"가 중국이 맞이해야 할 새로운 '천하'임을 제시했다.[19]

서학과 서법을 수용하기 위한 정관응의 논리는 대체로 유가적 세계관의 권위에 도전하는 방식이 아닌, 서구의 역사와 근대적 세계질서를 그 안으로 끌어 올림으로써 그 합법성과 정통성을 증명하는 방식이었다. 즉 정관응의 경계성은 주류 담론의 해체가 아닌, 그 안에서 일정한 돌파를 시도함으로써 실천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발현되었다. 왕도가 문제 삼은 정관응의 '급진적' 세계관과 현실상황의 변화에 다른 인식의 빠른 전환 또한 정관응의 경계적 사유가 발현된 특이성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4.2. 합일적 사유와 실천 지향

정관응의 사유 속에서는 애초에 개념적, 이원대립적 인식이 없었다. 그러나 외세와의 연이은 불공정 조약을 지켜보고 주류 지식인들과의 교류를 확대해가며 정관응은 체용(體用), 도기(道器), 허실(虛實), 법도(法道) 등의 논의에 입각해 중서문화를 사유하기 시작했다.

먼저 '체'와 '용'의 관계이다. 정관응은 먼저 청불전쟁에서 작고한 장수성의 '중체중용, 서체서용'을 인용하며 '서체' 도입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어 '체-용'의 구도를 '중(中)-시중(時中)'의 구도로 전환하고, '말(末)'로 치부되었던 '용'을 성인의 지향인 '시중'에 포함시킴으로써 '용'을 '체화(體化)'하고 그 가치론적 위상을 제고하는 방식으로 '체-용'의 구도를 극복했다.[20] 또한 대립적 속성을 지닌 '체'와 '용'의 두 요소가 상호 의존적임을 강조했는데, 이는 현실의 차원에서 '서체'를 도입하는 실천적 행위를 중시하기 위한 설법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허'와 '실', '도'와 '기'의 관계이다. 정관응은 "허 안에 실이 있어 그 실이 바로 도이며, 실 안에 허가 있어 그 허가 곧 기이기에 합하면 본말이 모두 갖춰지지만, 나뉘면 한쪽에 치우쳐 불완전해짐"[21]을 지적했다. 정관응은 '도'를 '허'가 아닌 '실'에 정위함으로써 "유럽에서 증명한" '실'을 성인의 대도이자 공자의 가르침인 '도'의 차원으로 제고시켰다. 또한 그 전제조건으로서 '허'와 '실'은 서로가 서로를 포섭한 형태이며, 양자는 서로 결합하고 동시에 상호 전화(轉化)할 수 있는 속성임을 강조했다.

한편 '법'은 '기'의 한 영역으로서 좁은 의미의 '법률'에서 넓은 의미로는 국가의 전장(典章), 즉 제도와 문물 일반까지 아우른다. 정관응에 따르면, '법' 역시 '도'의 속성, 즉 '역(易)'을 구현하기 때문에 시의에 맞는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도'는 중국에만 국한되는 원리가 아닌 우주 만물의 보편적 원리이다. 따라서 중국은 우수한 서구의 '법'을 배워야 하며, 서구는 '도'의 원리를 깨달아야 한다. 그 결과 양자는 반목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22]

정관응에게 있어 실천의 영역이자 시무를 의미하는 '용', '기', '실', '법'의 가치와 위상은 '도', '중', '이'

17) "所謂公者, 非一國得而私; 法者, 各國胥收其範. 然明許默許, 性法例法, 以義理爲准繩, 以戰利爲綱領, 皆不越天理人情之外. 故公法一出, 各國皆不敢肆行, 實於世道民生, 大有裨益." - ≪易言≫(36)・<論公法>

18) "지구는 둥근 형체라서 동서도 없는데 어찌 중심과 변두리가 있을 수 있겠는가? 천지에 함께 거하는데 어찌 억지로 이적과 중화를 구분해야 하는가? 만일 중국이 만국 중에 하나로 자처할 수 있다면, 저들이 공법에서 중국만 배제할 수가 없고, 중국의 법 또한 만국에서 시행될 수 있다.(夫地球圓體, 既無東西, 何有中邊. 同居覆載之中, 奚必強分夷夏. 如中國能自視爲萬國之一, 則彼公法中必不能獨缺中國, 而我中國之法, 亦可行於萬國)" - ≪易言≫(36)・<論公法>

19) 정관응은 이듬해 20편 본에서는 중심에 천자가 있음을 환기시키고 이를 "불가역(不可易)"의 대상으로 삼는 인식적 전환을 보였으며 십여년 후 ≪성세위언≫에서는 공법이 강대국의 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되는 속성을 간파하는 현실 인식을 보였다.

20) ≪盛世危言≫(5)・<自序>

21) "不知虛中有实, 实者道也; 实中有虛, 虛者器也. 合之则本末兼赅, 分之乃放卷无具." - ≪盛世危言≫(5)・<道器>

22) ≪盛世危言增訂新編≫(8)・<道器>

의 속성을 지니거나 그와 관련되기에 확보되는 것이지, 후자를 파괴하거나 대체해서가 아니다. 정관응은 이처럼 전통 학술에 입각한 주류 언어와 담론 안에서 사유하면서도 강한 실천 지향으로 인해 특이성을 배태했으며, 이는 정관응의 경계성이 사유방식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측면이다.

4.3. 국가 재건을 위한 개혁사상 – 상(商)과 공(公)

서법을 도입하기 위한 이론적 설파는 청일전쟁 패배 이후 중국 지식계에서 더 이상 크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 이제는 부국강병을 위한 실천전략과 이를 통한 국가 재건의 의지와 역량이 보다 관건직이 되었다.

정관응에 따르면, 자강(自强)의 핵심은 국부의 증진에 있으며 국부는 '병전(兵戰)'이 아닌 '상전(商戰)'을 통해 도달할 수 있다. '상전' 또한 '전쟁'이기에 이는 국가 단위로 진행된다. 따라서 정관응은 '상무(商務)'를 필두로 한 변법을 주장하며 '이상입국(以商立國)'의 지향을 표출했다. 이를 위해 정관응은 '상'을 '사·농·공'과 질적으로 다른 속성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그 속성의 효과적 발현을 위해 국가 주도의 중상주의 전략을 제시하였다.

> …상인은 비록 사민의 후미라지만, 이는 실제로 상인이 사민의 벼리[綱]를 움켜쥐고 있음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사인(士人)이 상인과 결합되면 배운 바를 실천하니 배움이 더욱 정치해지고, 농민이 상인과 결합되면 경작한 것을 유통시키니 경작이 더욱 풍성해지며, 공인이 상인과 결합되면 제조한 것을 판매하니 제조가 더욱 진작된다. 상은 국가를 부유하게 할 수 있는데 어찌 말무(末務)로 볼 수 있겠는가?[23]

이에 따르면, '상인'은 더 이상 '말'에 불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의 창출의 핵심으로서 나머지 세 영역의 활동을 보다 정교하고 풍부하게 하는 '벼리'이자 동시에 그 '파생적' 행위이다. 만사를 보다 발전케 해주는 '기폭제'의 역량 자체를 상의 본령으로 꼽은 것이다. 정관응은 사민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상' 고유의 역할에 주목했다. 이는 관념 차원이 아닌 실질의 차원에서 '상'의 기능과 역할을 바라론 결과이며, 정관응 자신이 상인으로서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아닌, 사민(四民)으로 구성된 국가와 사회 전체의 부의 증식에 관심을 기울였던 결과였다.

정치체제에 대한 사유와 국가 재건의 의지에서 두드러진 점은 '공(公)'의 사유이다. 정관은 병폐의 근원을 군주의 '편사(偏私)'로 진단하고, 유가 전통의 '공'의 가치를 근대적 형태로 구현하는 제도로서 서구의 의회제도, 신문제도, 입헌군주제 등이 제시했다. 동시에 '공'의 현신(現身)인 군주의 윤리적 타락을 작금의 병폐와 위기의 근원으로 지목한 까닭에 정관응은 군주의 윤리성 회복을 강조하며 그 전제로 "군민공리(君民公利)"를 제시했다.[24] 즉 관념의 차원에서 백성의 권리와 군주의 의무를 제시하기보다는 실리(實利), 즉 민생의 차원에서 군주의 이로움이 곧 백성의 이로움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한 셈이다.

5. 결론

정관응의 생애로부터 추출한 전기적 차원의 경계성은 유동적이고 다층적이며 그 결과 비전형적이다. 이 다층성은 일차적으로 '시대'의 경계성이 배태한 결과이다. 즉 '관료체제-안분(安分)'을 기초로 한 대륙의 농업문명과 '시민사회-경쟁'을 기초로 한 해양의 상업문명 사이의 길항과 충돌, 그에 따른 조약체제로의

23) "…不知商賈雖爲四民之殿, 實握四民之綱…士有商則行其所學, 而學益精; 農有商則通其所植, 而植益盛; 工有商則售其所作, 而作益勤. 商足以富國, 豈可視爲末務" - ≪盛世危言增訂新編≫(14)・<商戰上>[附錄]滬報<變通商務論>附言

24) ≪盛世危言增訂新編≫(8)・<原君>

전환과 통상시대의 도래는 정관응의 문화, 신분 및 계층, 지역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차원에서 확인 가능한 정관응의 다층적 경계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관응의 글쓰기와 사유방식의 특이성을 야기했다.

경계적 정체성은 글쓰기의 측면에서 전통적 글쓰기의 형식과 체제 속에서 판본을 계속 달리하며 시무를 논의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보완하는 것을 통해 시대적 책무를 다하려는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그로부터 확인 가능한 사유방식과 논리구조 또한 서구의 역사, 세계관, 학술, 제도를 긍정하고 이를 중화 질서 안으로 포섭함으로써 그 가치와 위상을 제고하고 양자의 공존을 도모하는 방식이었다. 나아가 정관응은 이러한 사유방식을 담론의 입각점으로 삼아 '상'과 '공'의 가치를 전면화하여 근대적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가 재건의 의지를 피력했다.

정관응의 경계적 정체성의 내용과 그것이 글쓰기와 사유방식에 발현된 양상은 청말의 지식지형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 시공간적 조건에 따라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데에서 야기된 유동적 정체성과 그에 따른 다층적이면서도 비전형적인 경계성은, 용굉 등 광동 매판상인, 왕도 등 상해 개혁파 문인, 강·양 등 광동 출신 변법론자들과의 비교 속에서 보다 잘 드러난다. 용굉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수용했다. 용굉은 '광동 출신답게' 개방적이고 진취적 자세로 미국행을 선택했으며 그가 제시한 이상세계는 기독교와 '교양 있는' 서구인의 형상에 입각한 중국이었다. 정관응은 왕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았음에도 그의 합일적 도기론은 왕도의 이원대립적 도기론과 달랐고 주류적 중체서용관 안에서 여러 '틈새'를 드러냈다. 삼세설이나 중서문화관에서는 강·양과 유사했으나 실천 과정에서는 계급적 이해관계와 현실적 판단에 따라 이들과의 결별을 선택했다.

19세기 말 강남을 배후로 하는 상해에서 수십 년 동안 경제활동을 영위했던 광동 출신 매판상인 정관응의 정체성과 글쓰기, 사유방식에는 여러 층위의 속성들이 병존한다. 이처럼 상인, 문인, 관인 등 계층적 분화에 더해 호남, 광동, 강남 등의 지역적 구분이 고려된다면, 청말 신흥계층은 각자 저마다의 다양한 경계성 속에서 다양한 지적 지향을 보였을 것이다. 정관응은 문화, 계층, 지역이 중첩된 다층적 경계성을 지니는 하나의 사례로서 청말 지성사 연구에 있어 일정한 좌표를 제시한다.

〔참고문헌〕

鄭觀應 著, 夏東元 編, ≪鄭觀應集·盛世危言上·下(全二冊)≫, 北京: 中華書局, 2013.

鄭觀應 著, 夏東元 編, ≪鄭觀應集·求時揭要(外八種)上·下(全二冊)≫, 北京: 中華書局, 2013.

鄭觀應 著, ≪易言(諺解本)≫(影印本)

容閎 著, 權熙哲 譯, ≪西學東漸記≫, 乙酉文化社, 1974.

서경호 외, ≪중국의 지식장과 글쓰기≫, 서울: 소명출판, 2011.

하병체 저, ≪중국과거제도의 사회사적 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1988.

거자오광 저, 이등연 외 역, ≪중국사상사1, 2≫, 서울: 일빛, 2015.

리궈룽 저, 이화승 역, ≪제국의 상점: 광주 13행≫, 서울: 소나무, 2012.

미조구치 유조 지음, 정태섭·김용천 옮김, ≪중국의 공과 사≫, 서울: 신서원, 2006.

야마무로 신이치 지음, 정선태·윤대석 옮김, ≪사상과제로서의 아시아≫, 서울: 소명출판, 2018.

천샤오밍·단스롄·장용의 지음, 김영진 옮김, ≪근대 중국사상사약론≫, 서울: 그린비, 2008.

청메이바오 저, 정진선·최형섭 역, ≪지역문화와 국가의식: 근대 '광동문화'관의 형성≫, 서울: 심산출판사, 2014.

하오옌핑 저, 이화승 역, ≪동양과 서양, 근대를 잇는 상인 매판≫, 서울: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02.

하오옌핑 저, 이화승 역, ≪중국의 상업혁명: 19세기 중·서 상업 자본주의의 전개≫, 서울: 소나무, 2001.

陳旭麓 著, ≪近代中國的新陳代謝(插圖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2.
聶好春 著, ≪買辦與近代中國經濟發展研究1840-1927≫,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2013.
夏東元 編著, ≪鄭觀應年譜長編上・下卷≫, 上海交通大學出版社, 2009.
易惠莉 著, ≪鄭觀應評傳上・中・下≫(中國思想家評傳叢書), 南京大學出版社, 2011.
楊念群 著, ≪儒學地域化的近代形態: 三大只是群體互動的比較研究≫, 生活・讀書・新知三聯書店, 1997.
葛 群, <鄭觀應商戰思想研究>, 東北財經大學博士學位論文, 2012.
邵 建, <鄭觀應社會關系網研究>, 華東師範大學博士學位論文, 2012.
민정기, <晚淸 時期 上海 文人의 글쓰기 양상에 관한 연구: 王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김월회, <청말・민초의 신흥계층과 그 사유방식: 매판 정관응의 경우>, ≪동아문화연구≫ 제48집, 2004.
박기수, <청대 광동의 대외무역과 광동상인>, ≪명청사연구9≫, 1998.
이은자, <광주의 개항 기억: 내셔널리티와 로컬리티의 사이>, ≪아시아문화연구29≫, 2013.
陳康衡, <鄭觀應與晚清社會的三個派別>, ≪曆史教學≫, 2004.
胡 波, <近代中西文化碰撞中的香山買辦>, ≪山東社會科學≫, 2006年第11期.
李吉奎, <近代買辦群體中的廣幫(1845-1912): 以上海地區爲中心>, ≪學術研究≫, 1999.12.
劉聖宜, <鄭觀應與中西文化>, ≪華南師範大學學報≫, 2002.
馬學強, <論近代上海買辦的教育背景>, ≪史林≫, 2004年第4期.
倪俊明, <鄭觀應研究綜述>, ≪文史哲≫, 2003.
戚其章, <從“中本西末”到“中體西用”>, ≪中國社會科學≫, 1995年第1期.
蕭永宏, <王韜與鄭觀應交往論略: 兼及王韜對鄭觀應思想之影響>, ≪江蘇社會科學≫, 2016.5.
楊錦鑾, <晚淸‘中體西用’文化觀演變的階段性特徵探論>, ≪華南師範大學學報≫, 2007年第2期.
廣東省情網-鄭觀應志(http://www.gd-info.gov.cn/books/dtree/showSJBookTree.jsp?artId=85447)

4월 27일(토) 10:30~12:30

분과발표 1부

❖ 어학1분과 _ 어법(1)

(장소: 311호)

이명정(한국외대) '句尾"的/了"与"应该"的语义互动及其对情态解读的影响

염죽균(홍익대) 중국어 '要'와 '会'의 미래시제 용법 연구

김홍실(서울대) 현대중국어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관계 연구

김설화(중앙대) 중국어 의문사의 원형범주와 확장범주
– 미정사 '什么'를 중심으로

句尾“的/了”与“应该”的语义互动及其对情态解读的影响

李命定*

<目　次>

1. 引言
2. 句尾“的”与“应该”的情态解读
　2.1 句尾“的”的出现条件
　2.2 VP的情状类型与情态解读
3. 句尾“了”与“应该”的情态解读
　3.1 句尾“了”的出现条件
　3.2 VP的情状类型与情态解读
4. 两种句式与“是”的搭配情况
5. 结语

1. 引言

多义助动词“应该”既可以表达道义情态(deontic modality)，表示情理上必须如此；也可以表达认识情态(epistemic modality)，估计情况必然如此。[1] 有时，高频词“的”和“了”对多义助动词的情态解读(modal interpretation)，会起到关键性的影响作用。例如：[2]

(1) a. 小王应该$_{D/E}$来学校。
　　b. 小王应该$_{D}$来学校的。
　　c. 小王应该$_{E}$来学校了。

在例(1a)中，“应该”既可以解读为道义情态，表示施事有义务“来学校”；也可以解读为认识情态，推测施事“会来学校”。但是，在句尾插入“的”或“了”后“应该”只保留一种情态：或道义情态(如例1b)或认识情态(如例1c)。显然，句尾“的”或“了”过滤掉了多义词“应该”的另一种情态语义，起到了消歧的作用。

本文着重讨论，在“应该VP的”和“应该VP了”两种句式中，多功能语气词“的”和“了”与情态动词“应该”的搭配关系和选择限制，指出它们的出现环境，以及VP的情状对情态解读的影响。

2. 句尾“的”与“应该”的情态解读

2.1 句尾“的”的出现条件

袁毓林(2003)在朱德熙(1978)的理论基础上，进一步说明了句尾“的”的句法、语义功能。袁毓林(2003：9)指出，当“VP的”的VP中没有句法空位的时候，可以全局性地转指由VP造成的事态或属性，称为自指

* 한국외국어대학교

1) 文中“应该$_{D}$”意为“应该”表达道义情态，“应该E”意为“应该”表达认识情态。

2) 如无特殊标注，本文例句均来自北京大学CCL语料库；另外，出现“小王”的例句都是我们自拟的。

(Self-designation)；当“VP的”的VP中有句法空位的时候，可以局部性地转指VP中所缺位的论元成分，称为转指(Transferred-designation)，或全局性转指。[3]我们发现，在“应该VP的”句式中，转指的“的t”只能出现在道义情态句中。例如：

(2) a. 应该$_D$批判的，坚决批判；应该保卫的，坚决保卫。
b. 她妈妈曾经告诉过她，找丈夫应该$_D$找那种年纪比自己大一些的……

显然，例(2)可以补出VP中缺位的论元成分，如“思想”、“男人”，而且“应该”只能解读为道义情态，排斥解读为认识情态的可能性。我们认为，这跟认识情态动词的辖域(或论元结构)有关。蔡维天(2010)指出，认识情态动词处于大句子(CP)之上，而道义情态动词处于动词组(VP)和屈折词组(IP)之上。[4] 也就是说，“应该VP的”句式中，如果“应该”表达认识情态的话，VP补出其论元后，“应该”的辖域应该是CP而不是VP。例如：

(2') a. 应该批判的思想，坚决批判
b. 她妈妈曾经告诉过她，找丈夫应该E找那种年纪比自己大一些的男人……

例(2')中的“应该”的辖域不是整个句子“批判的思想”或“找丈夫找那种年纪比自己大一些的男人”，而是只到定语成分：谓语核心动词“批判”或“找”。所以，一般情况下，在“应该VP的”的句式中，如果VP有句法空位(或能补出论元角色)，那么“应该”就只能表达道义情态。反过来讲，转指的“的t”只能出现道义情态句中。需要注意的是，例(2)中的“的”是不能删除的。例如：

(2") a. *应该$_D$批判，坚决批判；应该保卫，坚决保卫。
b. *她妈妈曾经告诉过她，找丈夫应该$_D$找那种年纪比自己大一些……

我们再来看一下，“的”表示自指的情况。通过检索真实文本发现，在“应该VP的”中，如果VP没有句法空位的话，“应该”可以有两种情态解读。例如：

(3) a. 我应该$_D$回来跟你打个招呼的。
b. 你应该$_D$告诉我的，为什么欺骗我呢？
(4) a. 这一来多少意味着什么，你应该E明白的。
b. 他29岁，比连长、指导员年纪都大，当个炊事员应该E蛮合适的。

例(3)中的“应该”表达道义情态，表示义务或规定；例(4)中的“应该”表达认识情态，表示情理上的推测。通常，表道义情态的“应该”与句尾“的”搭配，传达一种反事实的语义[5]，如(3)。如果我们把句尾“的”去掉，反事实的语义会被取消，句法上的可接受度也会降低，如(3')；相反，删除认识情态句(4)的句尾“的”，语义和合格性保持不变，如(4')。

(3') a. *我应该$_D$回来跟你打个招呼
b. ?(出了事情，)你应该$_D$告诉我

3) 自指的“的”用“的$_s$”表示，转指的“的”用“的t”表示。
4) Lin & Tang (1995)也认为汉语中认识情态词的句法功能与提升动词(raising verb)相近，相反义务情态词则与控制动词(control verb)相似。
5) 关于“应该VP的”的反事实研究，请看林若望(2016)。

(4') a. 这一来多少意味着什么，你应该$_E$明白
b. 他当个炊事员应该$_E$蛮合适

总之，在“应该VP的”句式里，当VP存在句法空位并且能补出来，“应该”只能表达道义情态，而且句尾“的”不能删除。当VP没有句法空位的情况下，两种情态都有可能出现，句法上“的”可有可无。“应该”表达道义情态的时候，“的”的有无会造成语义上的差别：当VP表达过去未然事件时，“的”的删除将使原来的反事实意义消失；当VP表达过去已然事件时，“的”必须出现。

2.2 VP的情状类型与情态解读

正如上文所述，“应该VP的”句式在没有句法空位的情况下，“应该”的两种情态解读都是允许的。例如：

(5) a. 可能是因为事先生了气，枪打得不准，应该$_D$打心脏部位的，结果打到脑壳了。
b. 谁家谁家参军的人在区上没批准，应该$_D$回家的，可是曹振德硬要上级留下了。
(6) a. 地球很大，应该$_E$有这种地方的。而且，说真的，我就见过。
b. 那女人很瘦，脸色苍白，长相应该$_E$属于比较标致的，丁力扶着她，……。

显然，“应该”支配的宾语VP都没有句法空位，句尾“的”是自指标记。所以，同一句式“应该VP的”有不同情态解读的原因肯定是由VP的某种因素造成的。彭利贞(2007：178、195)认为，从情状类型(situation type)上，多义情态动词与动态事件结合，该情态动词一般解释为根情态意义；与静态事件结合，该情态动词就一般解释为认识情态。我们认为，这种大的倾向性是存在的。比如，在例(5-6)中，“应该”表示道义情态和认识情态的主要VP分别是：“打心脏部位”、“回家”和“有这种地方”、“属于比较标志”等。可以看出，例(5)中的VP所指谓的事件动作性比较强，内部是非均质的(heterogeneous)，属于动态事件；相反，例(6)中的VP所指谓的事件动作性比较弱，内不是均质的(homogeneous)，属于静态事件。[6] 但是，有时也会出现不同情况。例如：

(7) 小王应该$_D$住在北京的。
(8) 小王应该$_E$住过北京的。

上述例句中的“住在北京”和“住过北京”都是动态事件。按说“应该”都应该是表达道义情态，但实际却不然，如例(8)。我们认为，为了解决这种问题，有必要给VP重新做一个限定，即“可控性”(controllability)。[7] 在例(7)中，“住不住在北京”这件事情，对施事“小王”来说是可控的。所以，说话人才会对听话人说出“虽然你现在不住在北京，但你有义务住在北京”这种反事实表达。[8] 相反，例(8)则不一样，插入体标记“过”使VP变为过去已然事件。施事改变不了“住过北京”的事实，所以对该事件没有控制权，只能对命题的真假做一个判断。因此，“应该”只能表达认识情态。这样的情况在下面的例句中更加凸显。例如：

(9) a. *小王应该$_D$考上北大的。 b. 小王应该$_E$会考上北大的。
(10) a. 小王昨天应该$_D$来的。 b. 小王昨天应该$_E$来过的。

6) “动态”情状反映变化，在时间轴上各个时点上呈现出来的性质不完全一样，具有非均质性；“静态”情状不反映变化，在时间结构上的所有时段上呈现出来的状态都是相同的，具有均质性。(陈平，1988；戴耀晶，1997)
7) 有关汉语谓词可控性的问题，可以参考陆俭明(1991)、袁毓林(1993)、张国宪(1995)等。
8) 我们发现，一些非可控事件也和表达道义情态的“应该”结合，但这时“应该VP的”句式大都表达反事实的语义。例如：a.应该失眠的 b.应该中毒的 c.应该懂的 d.应该差两斤的

在例(9)中，“考不考得上北大”不在施事的掌控之下，所以即便是动态事件，“应该”还是无法识解为道义情态。如果要使该句合语法，则必须加表示信念的“会”或时体标记等(如，例9b)。当然，这时“应该”就表达认识情态。也就是说，VP指谓的事件对施事来说不可控，那么“应该”就表达认识情态。如果施事对该事件有控制权，在没有标记的情况下，“应该”表达道义情态。这时，如果想要“应该”做认识解读，则必须对这个VP做一个时间上的限定(如，例10b)。

总之，在“应该VP的”句式中，表“义务”义的“应该”跟可控的VP相容，排斥不可控的VP；相反，表“推测”义的“应该”则一般与不可控的VP相容，当出现可控的VP时，则要求与时体标记一起出现。当然，VP的可控和不可控跟动态和静态有一定的对应关系：一般来讲，可控的VP往往表示动态，不可控的VP往往表示静态。比如，可控动词“去、跑、吃、买”等表示动态，不可控动词“跌、摔、锈、死亡”等表示静态。[9] 需要特别注意的是，可控性是针对事件说的，而不是动词。如，虽然“考”是可控动词，但是“考上北大”是不可控事件。

3. 句尾“了”与“应该”的情态解读

学界普遍认为，体标记对情态识解能起到过滤作用(Leech，1971；Coates，1983；Alleton，1994；彭利贞，2007)。汉语典型的体标记有“了、着、过”。虚词“了”一般分为两种：句中(或词尾)“了$_1$”，表示完成或实现；句尾“了$_2$”，表示变化或出现新情况。句尾“了”的语法意义是什么，一直是语法学界争论不休的问题，对其意义及句法条件也都众说纷纷(刘勋宁，1990；金立鑫，2003；陈前瑞，2005；肖治野、沈家煊，2009)。彭利贞(2009)专门对祈使句句尾“了”与情态动词的关系做了讨论，指出“了$_2$”对根情态敏感，它不指向事件，而指向情态，是对情态敏感的情态指示成分。我们认为，这种看法是正确的。祈使句本身就跟道义情态融洽，所以包含句尾“了”的祈使句跟情态动词组配，该情态动词表达道义情态是非常自然的。但问题是不表达祈使义的句子是不是也是如此呢？答案是否定的。例如：

(11) a. 下午不去爬山了。　　b. 下午应该不去爬山了。
(12) a. 永远也不结婚了。　　b. 应该永远也不结婚了。

这里“了”应该是所谓的“了$_2$”，但是“应该”都只能解读为认识情态。“下午不去爬山”、“永远也不结婚”对说话人来说是“计划”或“决心”，是可以判断真假的命题。插入“应该”后，完全可以解读为认识情态句，而且只能是认识情态句。

另外，肖治野、沈家煊(2009)从概念域，即行域(content domain)、知域(epistemicdomain)、言域(speech-acts domain)的角度刻画了“了$_2$”语义：

① 了$_{行}$：表示新行态的出现(分为：位于动词后，表示动作完成；位于句尾，表示时态出现变化)
② 了$_{知}$：表示新知态的出现
③ 了$_{言}$：表示新言态的出现

我们发现，情态动词“应该”跟表示新知态出现的“了$_{知}$”结合，一般都解读为认识情态[10]；跟表示出现新言态的“了$_{言}$”结合，一般解读为道义情态；跟表示出现新行态的“了$_{行}$”结合，一般解读为认识情态。例如(a句是肖、沈文的例句，b句是我们插入“应该”后的例句)：

9) 关于(非)可控性动词可以参考，袁毓林(1993)。
10) 肖治野等(2009：525)也指出，表推测意义的副词和情态动词“一定、应该、可能”等总是出现在“了$_{知}$”句。

(13) a. 我写回信了行。　　b. 我应该E写回信了行。
(14) a. 这个办法最好了知。　　b. 这个办法应该E最好了知。
(15) a. 上课了言。　　b. 应该D上课了言。

3.1 句尾“了”的出现条件

前面指出，句中“了”只跟认识情态相容，而句尾“了”与道义、认识情态都相容。试比较：

(16) (到点了，)小王应该D去上学了。
(17) (她的书包不在，)小王应该E去上学了。

例(16)中的“应该”属于道义情态，表示小王有义务去上学，这里的“了”表示一种变化：从不该到应该，表示新言态的出现。例(17)中的“应该”属于认识情态，表示根据事态推测小王去上学了，这里的“了”表示一种动作(去)的完成，表示新行态的出现。首先，我们看一下“应该VP了”中“应该”表达道义情态时，“了”的有无情况。例如:

(16') a. (到点了，)小王(*就)应该D去上学了。
　　b. (到点了，)小王(就)应该D去上学。

删除“了”之后，该句还是一个合格的句子，如例(16'b)，“应该”仍表达道义情态。但是整个语义有很大的差别。显然，这种语义上的差别正是由“了言”来带的。在例(16'a)中，话题的焦点在“了”上，表示义务从无到有的变化，而“就”的出现会导致新焦点的出现，成为多焦点化，所以就会不合法。相反，(16'b)删除“了”后不表示这种变化，只表达一般常理(generic),“就”的功能只是把话题的焦点放在“应该”上，所以不影响其合法性。我们认为，如果说话时间早于参照时间(到点)，即说话时如果还没有到达“到点”这个时刻，那么一般用例(16'b)来表达，“应该”前可以出现承接性的时间/语气副词“就”，来强调一种泛指的事理；如果说话时间和参照时间重合，即说话的时候很接近“到点”或正好“到点”，那么用例(16'a)来表达比较合适，其中“应该”前不能加入副词“就”。也就是说，以“到点”为参照，有了一种从“不该到应该”的变化。所以，在表达这种变化的时候，句尾“了”必须出现。例如：

(18) (都八点了，)你应该D起床了。
(19) (你快走吧，)他应该D吃药了。
(20) (时间不早了，)我应该D走了。

显然，句子中的VP表示未来的行为动作。如果VP表示过去的行为动作，并且“应该”表达道义情态，那么正如前文，就要使用“应该VP的”句式。

再来看一下，“应该VP了”中“应该”表达认识情态的情况。试比较：

(17') a. (她的书包不在，)小王应该E去上学了。
　　b. *(她的书包不在，)小王应该E去上学。
(17") a. (她病了，)小王应该E不去上学了。
　　b. (她病了，)小王应该E不去上学。

删除“了”后该句不是一个合格的句子，如例(17'b)，“应该”的情态类型也很难确定。我们认为，这个跟认识

情态所管辖的命题(或事件)特点有关。例(17'a)中的"应该"表达认识情态，其辖域可以表示为："应该[小王去上学了]"。也就是说，句尾"了"是位于命题内的，是表示"去学校"动作完成的"了$_{行}$"，说话人用"应该"判断该动作完成。所以，如果删除"了"就不能表示完成，也就谈不上用"应该"对动作的完成做什么判断。所以，当说话人的判断跟动作的完成相连时，句尾"了"是不能删除的。相反，例(17"a)的"应该"也表达认识情态，其辖域可以表示为："应该[小王不去上学]了"。也就是说，句尾"了"位于命题外，是表示"不去上学"这种新知识状态出现的"了$_{知}$"，说话人用"应该"对该知识做出判断。这时，删除"了"后，句法和语义不变。

总之，在"应该VP了"句式中，当"应该"表达道义情态，句尾"了$_{言}$"可有可无，但是语义上有很大差别：说话时间和(隐含的)参照时间非常接近或重合时，"了"必须出现，表示一种"不该到应该"。当"应该"表达认识情态，如果句尾"了"在命题内，则"了$_{行}$"必须出现，如果在命题外则"了$_{知}$"可以不出现。

3.2 VP的情状类型与情态解读

显然，"应该VP了"是一个歧义句式，"应该"可作两种解读：道义情态和认识情态。例如：

(21) a. 假如本国的东西应该$_{D}$提倡了，他就是国粹主义者，然而他又决不顽固。
b. 他觉得和赵庆田、贾正商量好的事情，眼下应该$_{D}$朝外端了。
(22) a. 如此一算，我吃惊的想，先生至少也应该$_{E}$有五十岁了。
b. 你准备五千块吧，应该$_{E}$够了。回头我助手会告诉你具体数字。

前面指出，"了"隶属的概念域和"应该"的情态体现有很高的相关性。事实上，句尾"了"属于哪个概念域在语法上没有什么标记，所以对"应该VP了"句式的情态解读，还需要考察VP的特点。例如：

(23) 秦干事想，应该$_{D}$离开玛丽镇了。在这里她总想着王景，以致心绪纷乱。
(24) 我想你太太现在应该$_{E}$到达巴黎了。她一早就交还了钥匙，离开旅馆走了。

例(23)和(24)形式上都是"应该+V+N+了"。但是，(23)有歧义，而(24)则没有歧义。试比较：

(23') a. 秦干事想，应该$_{D}$离开玛丽镇了。在这里她总想着王景，以致心绪纷乱。
b. 秦干事想，(他)应该$_{E}$离开玛丽镇了。
(24') a. 我想你太太现在应该$_{E}$到达巴黎了。她一早就交还了钥匙，离开旅馆走了。
b. *我想你太太现在应该$_{D}$到达巴黎了。

例(23'a)表示"离开玛丽镇的时候到了"，有必要"离开"；(23'b)表示有可能"已经离开玛丽镇了"。例(34'a)表示有可能"已经到达巴黎了"；(24'b)我们无法将"应该"识解为表示"必要"的道义情态。这种不同就是由VP的特点造成的。"离开玛丽镇"是一个有起始点和终止点的动作，与"了"搭配后，这个"了"可以表示起始点有变化，即开始该动作(了$_{言}$)；也可以表示终止点有变化，使自然终止点变为实际终止点，即完成该动作(了$_{行}$)。也就是说，它的起始点和终止点都可以被凸显出来。相反，"到达巴黎"则不一样，该动作只能凸显终止点，即完成该动作(了$_{行}$)。我们可以通过"马上"来看出二者的不同。例如：

(25) a. 你马上离开玛丽镇。　　b. *你马上到达巴黎。
(26) a. 他马上离开了玛丽镇。　　b. 他马上到达了巴黎。

“马上”既可以指向起点，又可以指向终点(邓守信，1986；沈家煊，1995)。(25)是指向起始点的动作，(26)是指向终止点的动作。显然，(25b)是很难接受的。原因就在于“到达”一般是动作的结果，它凸显终止点。这样就排斥了表示起始点有变化的情况(24’b)，从而只剩下表示终止点有变化的情况(24’a)。另外，(23’a)的逻辑辖域应该是：“应该[离开玛丽镇]了”，表示施事有必要做活动“离开玛丽镇”；(23’b)的逻辑辖域应该是：“应该[离开玛丽镇了]”，表示推测事件“(离开玛丽镇了”为真。(24’a)的逻辑辖域和(23’b)相同，应该是：“应该[到达巴黎了]”，表示推测事件“到达巴黎了”为真；(24’b)则不同于(23’a)，它的辖域不是：“应该[到达巴黎]了”，我们无法将其理解为施事有必要开始做“到达巴黎”这个活动。我们认为，这种不能凸显起始点的动作与“了”搭配后，只能是自然终止点有变化，表示动作完成；而不能是起始点有变化，表示开始，从而也就不能表达一种要求施事开始做某动作的道义情态。

所以，在“应该VP了”句式中，当VP为只能凸显自然终止点的动作时，“了”只能是表示新行态出现的“了$_{行}$”，“应该”通常解读为认识情态。这种动作(VP)除了“来、到达、结束”等动词外，还有带结果补语的述补结构(VC)，如“看完、吃饱”等。例如：

(27) 你应该看完了。
(28) 他应该吃饱了。

4. 两种句式与“是”的搭配情况(省略)

5. 结语

助动词“应该”是一个可以表达道义情态和认识情态的多义词，而句尾“的/了”也是一个多功能词。这样的话，在“应该VP的”和“应该VP了”句式中，就有了多种可能的组配和情态的实现方式。我们发现，在“应该VP的”句式中，表示转指的“的$_{t}$”只和道义情态匹配，而且“的”必须出现。表示自指的“的$_{s}$”和两种情态都能够共现，当VP为可控性成分时一般解读为道义情态，反之则解读为认识情态。在VP可控的情况下，如果有时体标记则也会解读为认识情态。

另外，在“应该VP了”句式中，表示言域意义的“了$_{言}$”和道义情态搭配，当说话时间和(隐含的)参照时间非常接近或重合时，“了”必须出现，表示一种“从不该到应该”的情态变化。表示行域意义的“了$_{行}$”和表示知域意义的“了$_{知}$”和认识情态搭配，“了$_{行}$”必须出现、“了$_{知}$”可以不出现。还有，在“应该VP了”句式中，VP的过程结构也会影响“应该”的情态解读。当VP只能凸显终止点时，“应该”无法表达道义情态，只能识解为认识情态。

最后，我们又讨论了两种句式与“是”的语义互动以及情态解读之间的关系。具体来说，“应该VP的”、“应该VP了”与“是”搭配，当“是”位于情态动词前边时，“应该”表达道义情态；“是”位于情态动词后边时，“应该”则表达认识情态。“是应该$_{D}$VP的/了”句式中，道义情态成为焦点，“的”是对情态的肯定：关心合理性；“了”表示情态的变化：“从不该到应该”。“应该E是VP的/了”句式中，事件成为焦点，“的”是对事件的确认：关心发生；“了”表示事件的变化：“从没发生到发生”。

〔参考文献〕

蔡维天，谈汉语模态词的分布与诠释之对应关系，≪中国语文≫ 第3期，2010。

陈　平，论汉语时间系统的三元结构，≪中国语文≫ 第6期，1988。
陈前瑞，句尾“了”将来时间用法的发展，≪语言教学与研究≫ 第1期，2005。
戴耀晶，≪现代汉语时体系统研究≫，杭州：浙江教育出版社，1997。
邓守信，汉语动词的时间结构，≪第一届国际汉语教学讨论会论文选≫，北京：北京语言学院出版社，1986。
胡　波，汉语情态助动词的提升与控制，≪当代语言学≫ 第2期，2015。
金立鑫，“S了”的时体意义及其句法条件，≪语言教学与研究≫ 第2期，2003。
李　讷、安珊笛、张伯江，从话语角度论证语气词“的”，≪中国语文≫ 第2期，1998。
林若望，“的”字结构，模态与违实推理，≪中国语文≫ 第2期，2016。
刘勋宁，现代汉语句尾“了”的语法意义及其与词尾“了”的联系，≪世界汉语教学≫ 第2期，1990。
陆俭明，语义特征分析在汉语语法研究中的语用，≪汉语学习≫ 第1期，1991。
彭利贞，≪现代汉语情态研究≫，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7。
彭利贞，论一种对情态敏感的“了$_2$”，≪中国语文≫ 第6期，2009。
杉村博文，的字结构承指与分类，江蓝生，侯精一主编≪汉语现状与历史的研究≫，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9
沈家煊，“有界”与“无界”，≪中国语文≫ 第5期，1995。
肖治野，沈家煊 “了$_2$”的行、知、言三域，≪中国语文≫ 第6期，2009。
袁毓林，≪现代汉语祈使句研究≫，北京：北京大学出版社，1993。
袁毓林，从焦点理论看句尾“的”的句法语义功能，≪中国语文≫ 第1期，2003。
张国宪，双价形容词对语义结构的选择，≪汉语学习≫ 第4期，1995。
朱德熙，说“的”，≪中国语文≫ 第12期，1961。
朱德熙，“的”字结构和判断句，≪中国语文≫ 第1、2期，1978。
Alleton, Vivane. 1994 “Some remarks about the epistemic values of auxiliary verbs YINGGAI and YAO in Mandarin Chinese”. in Chen M. Y. & Tzeng J. L (eds.) *In honor of Willian SY. Wang: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language and language change*. Taipei: Pyramid Press.
Coates, Jennifer. 1983 *The Semantics of Modal Auxiliaries*. London & Canberra: Croom Helm.

중국어 ‘要’와 ‘会’의 미래시제 용법 연구

염죽균*

<目 次>

제 1 장 서 론
1.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2 선행연구 검토
1.2.1 ‘미래’ 범주에 대한 연구
1.2.1.1 ‘미래’ 범주의 연구대상
1.2.1.2 ‘미래’ 범주의 세부 분류
1.2.1.3 미래문법형태의 문법화 정도
1.2.1.4 미래문범형태의 기원과 문법화과정
1.2.1.5 중국어에서의 ‘미래’ 범주 연구
1.2.2 조동사 ‘要’에 대한 선행연구
1.2.3 조동사 ‘会’에 대한 선행연구
1.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3.1 연구대상
1.3.2 연구방법
1.3.3 논문의 구성
제 2 장 미래문법형태 ‘要’
2.1 ‘要’에 대한 통시적 고찰
2.1.1 ‘要’의 변천경로에 관한 선행연구
2.1.1.1 기원과 변천과정
2.1.1.2 출현 시기
2.1.2 ‘要’의 생성 과정
2.1.2.1 한대(漢代) 시기
2.1.2.2 육조(六朝) 시기
2.1.2.3 당오대(唐五代) 시기
2.1.2.4 송원(宋元) 시기
2.1.2.5 명청민국(明清民国) 시기
2.1.2.6 통시적 고찰의 결과
2.2 ‘要’에 대한 공시적 고찰
2.2.1 단순要미래와 복합要미래
2.2.2 ‘要’의 공시 분포 양상
2.2.2.1 장르별 ‘要’의 분포 양상
2.2.2.2 문장유형별 ‘要’의 분포 양상
2.2.2.3 문장성분별 ‘要’의 분포 양상
2.2.2.4 ‘要’의 주요 공기성분
2.2.2.5 공시적 고찰의 결과
2.3 소결
제 3 장 미래문법형태 ‘会’
3.1 ‘会’에 대한 통시적 고찰
3.1.1 ‘会’의 변천경로에 관한 가설

* 서울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어학전공

3.1.2 会미래와 관련된 会가능의 생성
3.1.2.1 会가능의 출현 시기
3.1.2.2 会가능의 기원과 변천과정
3.1.3 会가능에서 会미래로의 발전
3.1.3.1 한대-육조-당오대 (汉代-六朝-唐五代) 시기
3.1.3.2 송원(宋元) 시기
3.1.3.3 명청민국(明清民國) 시기
3.1.3.4 会가능 생성 후의 변천 추세
3.1.3.5 통시적 고찰의 결과
3.2 '会'에 대한 공시적 고찰
3.2.1 총칭적인 会후시 및 특정적인 会미래
3.2.2 '会'의 공시 분포 양상
3.2.2.1 장르별 '会'의 분포 양상
3.2.2.2 문장유형별 '会'의 분포 양상
3.2.2.3 문장성분별 '会'의 분포 양상
3.2.2.4 '会'의 주요 공기성분
3.2.2.5 공시적 고찰의 결과
3.3 소결
제 4 장 현대중국어 '要'와 '会'의 용법 비교
4.1 시간성 용법 비교
4.2 예측류 미래 용법 비교
4.2.1 '要'를 사용하는 경우
4.2.2 '会'를 사용하는 경우
4.3 확정류 미래 용법 비교
4.3.1 '要'를 사용하는 경우
4.3.2 '会'를 사용하는 경우
4.4 의도류 미래 용법 비교
4.4.1 '要'를 사용하는 경우
4.4.2 '會'를 사용하는 경우
4.5 소결
제 5 장 결 론

세계 여러 언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미래시간표현(future time expression)'은 상황에 따라 비시간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과거', '현재'와 같은 단순한 시간 개념과는 달리 그 본질이 비교적 복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의 중국어 연구에서 '미래시간표현'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통상적으로 '미래'를 시제 범주에 귀속시키고, 중국어를 무시제언어로 간주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언어유형론 연구에 따르면 많은 언어에서 전용성을 가지는 '미래시간표현'은 우언적이며 강제성을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유형론에 입각한 연구들은 넓은 의미의 시제 개념, 즉 기능적·의미적인 시제 개념을 채택할 것을 주장한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을 기반으로 넓은 의미의 시제 개념을 채택한다. (좁은 의미의 시제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본고는 미래 시간을 지칭하는 언어 요소를 '미래시제표지(future tense marker)'가 아닌 '미래문법형태(future gram)'로 명명한다.)

현대중국어에서 조동사 '要'와 '會'는 모두 미래 시간을 지칭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실제 사용에서 사용 영역이 중첩되거나 교체 사용되는 현상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는 이 두 어휘(이하 각각 要미래와 會미래로 부른다)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중국어의 '미래시간표현'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要'와 '會' 미래시제 용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통시적 고찰과 공시적 고찰,

중국어 연구와 언어유형론 연구를 결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은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을 제시하고, 언어유형론 연구와 중국어 연구에서 '미래' 범주에 관한 선행연구, 중국어 연구에서 조동사 '要'와 '會'에 대한 기존의 공시적 선행연구를 정리하고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을 확정하였다.

2장 1절은 한대부터 민국 시기까지 조동사 '要'의 통시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통시적 고찰을 통해, 본고는 要미래의 기원으로 要의지와 특정적인 要의무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변천과정은 (ㄱ) ['요구하다, 요청하다'를 나타내는 동사 '要' > 要의지 > 要미래]와 (ㄴ) ['어쨌든, 결국'을 나타내는 부사 '要' > 要의무 > 要미래]이다. 그 중에 첫 번째 변천경로가 더 이른 시기에 발생하였고 용례 또한 많은 편으로, 더욱 중요한 경로로 볼 수 있다. 기존연구는 당오대 시기에 일부 要의지가 의도의미를 가지게 되어 미래문법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하였지만 진정한 미래용법은 송대에 이르러서야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본고는 역사자료에 대한 직접적인 고찰을 통해 '要'가 의도의미에서 예측의미로 발전하는 언어환경을 최초로 제시하였는데, 의도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 '要'가 화자의 직접화법에 출현하면서 '要+VP'의 주어가 청자 혹은 제3자이고 추측의미를 나타내는 성분과 공기할 경우 예측의미로 발전할 수 있다.

2장 2절은 현대중국어에서의 要미래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았다. 의미·기능적 측면에서 보면, 要미래는 예측류, 확정류, 의도류 미래에 모두 사용 가능하며, 그 가운데 예측류 미래에 사용되는 용례가 가장 많다. 이는 상당수의 '要'가 이미 주요 기원인 要의지의 의미 제약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要미래는 단순히 시간상의 후시성을 나타나는 용법으로 발전하기도 하였다(이하 '시간상의 후시성'을 '시간성'으로 부른다). 통사 분포를 보면, 要미래는 주로 주절의 술어부분이나 서술성 용언, 단언적 용언의 목적어부분에 출현한다. 주절의 술어부분은 미래에 대해 예측을 할 수 있는 자리이고 서술성 용언, 단언적 용언의 목적어부분은 미래 사건에 대해 진술이나 단언을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要미래는 관형어로 사용되는 용례도 비교적 많고, 대표적인 미래문법형태인 '將'과의 결합사용 빈도도 매우 높다. 이 밖에도 要미래의 약 68%는 다음의 세 가지 중에서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통사적 특징을 지닌다. (ㄱ) 주어가 없는 문장에 나타난다. (ㄴ) 주어가 무생물이다. (ㄷ) 주어가 유생물이고 '要' 뒤의 V/VP는 자주성이 없다. 이상에서 제기한 의미적, 통사적 분포 양상은 要미래가 현대중국어에서 미래 시간을 지칭하는 중요한 형식이며,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문법화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3장 1절은 한대부터 민국 시기까지 조동사 '会'의 통시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会'가 [능력 > 근원적 가능성 > 의도 > 미래]의 변천과정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연구 성과가 있었으나 이러한 변천과정은 세계 언어에서 극히 드물게 나타난다. 본고는 일련의 고찰을 통해 '会'의 변천과정을 다음과 같이 추론하였다. '회합하다'를 나타내는 동사 '会'가 한대·육조시기에 '一定, 必'과 같은 필연성에 가까운 가능성을 나타내는 会가능1로 발전하였는데, 이러한 会가능1은 통사적으로 비전형적인 조동사에 속한다. 송대에 이르러 '능력'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 '会'가 会가능2로 발전하였다. 会가능2는 가능성의 정도가 会가능1만큼 높지 않고, 통사적으로는 전형적인 조동사에 해당한다. 会가능1과 会가능2는 의미가 유사하고 통사적 위치 또한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 합류되었고, 이로써 비교적 높은 수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조동사 会가능이 생성되었다. 会가능 중에 미래 시간을 지향하는 특정적인 용법은 실질적으로 예측의미를 나타내며, 이러한 용법은 会가능의 무표적 용법이다. 따라서 예측의미를 나타내는 '会'는 미래문법형태로 볼 수 있다. 민국 시기부터 특정한 화용 환경에서(화자가 자신이 가진 지식에 근거하여 미래에 발생할 사태를 확정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경우) 会가능의 의미 중심이 가능의미에서 시간성으로 변화한다. 또 한편 会가능은 주어가 1인칭인 문장에서 의도의미를 함축하게 된다. 이러한 두 개의 새로운 용법은 '会'가 '가능'의 의미 제약에서 벗어나 기타 미래용법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3장 2절은 현대중국어에서의 会미래의 분포 양상을 살펴보았다. 의미·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会미래는

예측류, 확정류, 의도류 미래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시간성도 나타낼 수 있다. 그 가운데 예측류 용법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약 85%), 이는 '会'가 그 기원인 会가능의 의미 제약을 아직까지 크게 벗어나지는 못했음을 보여준다. 会미래는 시간성과 의도의미를 나타내는 용법도 출현하였으나 해당 용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제약이 많다. 통사 분포를 보면, 会미래는 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절의 술어부분, 서술성 용언과 단언적 용언의 목적어부분에 빈번하게 출현한다. 그 밖의 문장성분으로 쓰이는 비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 会미래가 대표적인 미래문법형태 '將'과 공기하는 용례는 비교적 자주 보이지만 이들 둘의 결합이 会미래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 이상의 의미적, 통사적 분포 양상을 종합해보면, 会미래는 점차 会가능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要미래에 비해 그 문법화 정도가 낮다고 판단할 수 있다.

4장은 현대중국어에서 要미래와 会미래가 시간성용법, 예측류 미래, 확정류 미래, 의도류 미래에 쓰일 때의 사용 양상을 비교하였다. 要미래와 会미래는 모두 시간성을 나타낼 수 있지만 전자의 경우 단순한 시간성만을 나타낼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여전히 '추측'의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양자가 시간성 용법을 갖게 되는 과정에 기인한다. 현대중국어에서 '要'와 '会'의 시간성 표시 용법은 각각이 수행하는 여러 역할들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는 않다. 그러나 이들 둘 모두 미래문법형태로 점차 한층 더 발전해가는 추세를 보인다.

要미래와 会미래의 가장 주요한 미래 용법은 모두 예측류 용법이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다음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ㄱ) 要미래가 시간성에 의미 중점을 두는 반면, 会미래는 가능성에 의미 중점을 둔다. 이러한 의미 차이로 인해 要미래는 즉시미래와 과장적인 예측을 표현할 수 있는 반면, 会미래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ㄴ) 기타 의미의 영향으로 인해 要미래는 부정형식과 정반의문문형식이 없고, 유생물 제3자의 자주적인 행위에 대한 예측에 사용할 수 없다. 또한, 要미래는 의지의미와 의무의미를 배제할 수 있는 공기성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적극적인 사건에 대한 예측을 나타내지 않는다. 반면 会미래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ㄷ) 기원의 영향으로 인해, 要미래는 비동작성 동사나 형용사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반면, 会미래는 비동작성 동사나 형용사와의 공기가 가능하다. 종합하면, 会미래는 예측류 미래를 표현하는 주력이고, 要미래는 그에 비해 제약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중국어의 확정류 미래는 본래 要미래나 会미래를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확정류 미래에 사용되는 要미래와 会미래는 미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要미래의 주요 기능은 시간부사 '就, 正' 혹은 문미조사 '了'와 함께 사용하여 이미 확정된 미래 사건이 참조시간 이후에 곧바로 발생할 것임을 강조하는 데 있다. 이와 달리, 会미래의 주요 기능은 미래 사건의 실현이 화자 자신과 무관하고 이미 결정된 계획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있다. 이처럼 사건과 자신이 무관함을 강조하는 것은 특정한 화용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가령 객관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변통의 여지를 남기기 위한 것이다. 要미래와 会미래는 해당 문장 내에 사건 시간을 미래로 확정하는 성분이 결여된 경우에만 상술한 주요 기능과 더불어 미래를 나타내는 기능까지도 수행하게 된다. 한편, 확정류 미래에서도 要미래는 긍정형식으로만 사용하며 会미래는 긍정과 부정형식을 모두 사용한다. 종합하면, 확정류 미래에서 要미래의 주요 기능은 의미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고 会미래의 주요 기능은 화용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의도류 미래를 살펴보면, 要미래는 통시적으로 要의지의 의도 용법에서 발전되었기 때문에 현대중국어에서도 의도의미를 지니는 要의지의 용례가 다수 존재한다. 会미래는 주어가 1인칭인 문장, 특히 문장이 보장·위협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 의도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용법은 엄격한 통사적, 의미적 제약으로 인해 사용 범위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일정 정도 要미래와 상보적인 분포를 이룬다. 다시 말해, '要'를 사

용하는 의도류 미래는 강력한 의지의미를 지니는 반면, ‘会’를 사용하는 의도류 미래는 그렇지 않다. 또한, 要미래는 부정형식이 없고 会미래는 있다.

이상 2~4장의 고찰과 분석을 근거로 본고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ㄱ) ‘要’에 대하여 Bybee 등(1994)에서 제기한 [의지 > 의도 > 예측]의 변천경로 가설은 타당하다. ‘의도’에서 ‘예측’으로의 발전 과정에는 화자가 청자 혹은 제3자에 대해 언급하는 직접화법에 출현하고 추측의미를 나타내는 성분과 공기하는 언어환경이 존재한다. 또한 要미래의 기원으로 要의지 이외에 특정적인 要의무가 존재한다. ‘会’에 대하여 Bybee 등(1994)이 제기한 [능력 > 근원적 가능성 > 의도 > 미래]의 변천경로 가설에서 능력의미가 미래용법으로 발전하였다는 관점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 또한, ‘가능성’에서 ‘미래’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의도’ 단계를 거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ㄴ) 중국어는 분석적 언어에 속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미래문법형태가 출현하기 어렵다. 그러나 要미래의 경우 예측류, 확정류, 의도류 미래에 모두 사용 가능하고 단순한 시간성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준미래(futuroids)문법형태에 귀속시킬 수 있다. 会미래의 경우에는 要미래에 비해 문법화 정도는 낮지만 예측류 미래에서 우위를 차지고 있고 특정한 화용 환경과 통사・의미 환경에서 각각 시간성과 의도의미를 나타내는 경향성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준미래문법형태로 발전하는 과도기 단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ㄷ) 현대중국어에서 要미래와 会미래 모두 시간성을 나타낼 수 있고, 예측류 미래, 확정류 미래, 의도류 미래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의미 중점, 의미 기원, 기타 의미의 영향으로 인해 미래용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다.

현대중국어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관계 연구

김홍실*

<目 次>

1. 서 론
2. 공간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접근
3. '在' 뒤에 출현하는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관계
4. '到' 뒤에 출현하는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관계
5. '往' 뒤에 출현하는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관계
6. 주어로 쓰이는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관계
7. 처소명사구에 부가되는 '里'의 유형론적 특징
8. 결론

[요 약]

본고는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인간이 어떻게 공간을 인지하고 또 이를 어떤 방식으로 발화에 나타내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연구는 단순히 처소사의 분류에 따라 방위사의 후행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고에서는 인간이 신체적 경험을 바탕으로 공간과 공간에 위치하는 존재물과의 상관관계를 인지하고 또 이를 통해 어떻게 공간을 개념화하고 발화로 나타내는데 있어서 어떠한 기제들이 작용하는지에 대해 집중하여 논의하였다. 현대중국어에서 공간은 주로 처소명사구와 방위사로 나타낸다. 그 가운데서도 인간이나 사물이 존재하는 내부 공간의 경우 처소명사구와 방위사 '里'로 많이 나타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발화상황에서 '里'가 처소명사구 뒤에 후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감안하여 이들 간에 어떠한 제약 기제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통해 인간이 공간을 인지하는 방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처소명사구를 각각 '在'의 뒤에 출현하는 처소명사구, '到'의 뒤에 출현하는 처소명사구, '往'의 뒤에 출현하는 처소명사구 그리고 주어로 쓰이는 처소명사구 등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발화에서 어떤 경우에 '里'를 후행하고 또 어떤 경우에 '里'를 후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쓰이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처소명사구 뒤에서 '里'의 후행여부를 결정하는 제약조건으로 크고 작은 여러 기제들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 기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음절적 요인'. 1음절로 된 처소사는 불안정한 음보를 구성하기 때문에 뒤에 '里'를 후행하는 경향이 높다. 예를 들면 '屋里', '店里' 등에서 '里'는 '안'이라는 어휘적 의미는 소실되고 단지 접사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국어의 단어가 2음절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둘째, '대조성'. 처소명사구가 '공간 안'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공간 밖'과 대조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里'가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환유'. 처소명사구가 직장 또는 소속기관, 그 기관에 속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 '里'는 후행하지 않는다.

* 서울대학교

넷째, ‘유정물의 존재’. 사람이 어떤 장소에 위치해 있거나 또는 모 장소로 이동할 경우 처소명사구 뒤에는 ‘里’의 후행여부가 비교적 자유롭지만 동물이나 사물이 어떤 장소에 존재하거나 또는 이동할 때에 처소명사구 뒤에는 ‘里’를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다섯째, ‘경제성의 원칙’. 존재물과 처소 사이의 관계가 항상성을 지닐 경우 ‘里’가 후행하지 않지만 임시적인 관계일 때는 ‘里’가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존재물이 하나의 참조점만 가지는 경우 ‘里’의 후행여부가 비교적 자유롭지만 제2의 참조점이 존재하는 경우 처소명사구는 뒤에 ‘里’를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여섯째, ‘처소의 공간성 활성화 여부’. 처소명사구가 이동방향, 한 점으로의 도착지를 나타내는 경우 ‘里’를 후행하지 않지만 이동장소나 도착지의 공간성이 활성화되는 경우 ‘里’가 후행하는 경향이 강하다.

위의 논의를 통해 처소명사구 뒤에 후행하는 ‘里’가 단순한 방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문법요소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어휘적 의미가 거의 사라지고 때로는 전치사와 함께, 또 때로는 단독으로 처소명사구 뒤에 후행하면서 머리어와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어의 방위사 ‘里’를 부치사로 보고 문장에서 처소를 나타내는 격표지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본고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인간이 공간을 인지하는 근본적인 기제 즉 위의 여섯까지 기제들을 아우를 수 있는 상위제약으로 크게 두 가지가 인간의 두뇌에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인간의 존재를 암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기관 또는 단체를 나타내는 처소사의 경우 인간의 존재를 기본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里’가 후행하지 않고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처소를 나타내는 경우 처소명사구 뒤에는 ‘里’의 후행여부가 비교적 자유로우며 인간의 존재가 불가능한 일반명사의 경우 ‘里’를 후행하여 그 공간성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둘째, 물체 또는 장소로서의 개체 지시성. 인간이 처소명사구를 하나의 물체인 개체로 인지하는지 아니면 장소인 개체로 인지하는지에 따라 ‘里’의 후행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자의 경우 하나의 물체인 개체로 인지되는 경우 ‘里’를 후행함으로써 그 공간성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반면에 후자의 경우 처소사가 장소인 개체로 인지되는 경우 ‘里’의 후행여부가 자유로움을 볼 수 있었다. 화용론적 측면에서 위의 큰 두 가지 인지적 기제 외에도 개개의 구체적인 발화상황에 따라 처소사 뒤에 ‘里’의 후행여부가 결정됨을 볼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안과 밖’의 대조성에 의한 기제, 임시성과 항상성에 따른 언어경제성의 원리, 연결항 중간원칙 등 여러 크고 작은 기제들이 인간의 두뇌에서 작용함으로써 이를 발화로 대응시킬 때 처소사만 쓰느냐 아니면 ‘里’와 함께 쓰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인지언어학 이론에 근거하면 인간은 개념화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인 영상(Imagery)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영상도식은 많은 연구에서 언어 의미의 중심이 되는 골격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인지적 기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필요한 영상도식을 비교적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공간에 대한 개념화방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1. 서론

‘처소’는 사람들이 물리적 세계를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로서 구체적인 ‘공간’을 가리킨다. 인간에게 ‘공간’은 행위가 이루어지는 환경으로서 자신의 신체 및 일상에서 반복되는 구체적인 신체경험을 통해서 그 개념이 형성된다.

현대중국어에서 공간과 관련된 개념들은 주로 ‘방위사’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즉 처소명사구 뒤에 방위사를 후행하든지 아니면 일반명사구 뒤에 방위사를 후행하여 공간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

1) 처소명사구는 처소사 그리고 처소사가 지시사 또는 수량사 또는 기타 수식어의 수식을 받는 경우의 NP구를 모두 통

본고에서는 여러 방위사가운데서도 '里'를 중심으로 그가 처소명사구와 공기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제가 작용하고 있는지를 논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인간이 지각과 시각을 통해 어떻게 공간을 인지하고 이를 언어로 구상하여 발화로 나타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사람들의 인지세계와 언어 간의 대응관계를 밝힐 것이다.

2. 공간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접근

공간에 대한 경험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경험에 속한다. Lee(2001[2003]: 29)에서는 유아들의 공간 개념 이해 과정에서 공간 관계는 그것을 지시하는 낱말보다 먼저 개념적으로 잘 확립된다고 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공간을 통한 개념화 과정이 신체적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동시에 공간 개념 자체는 보편적이지만 공간과 공간 관계를 인지하고 개념화하는 방식은 언어마다 차별성이 있으므로, 공간 개념의 언어적 보편소가 적용되는 방식이나 공간 개념이 범주화되는 양상이 언어에 따라 실현되는지를 밝히는 사례연구에도 특정한 관심이 이어져 왔다. 인지언어학은 전통적이고 규범적인 객관적 의미론을 거부하고 인간의 인지적 처리에 바탕을 둔 주관적 의미론을 수용한다. 이 이론에 근거하면 인간은 개념화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인 영상(imagery)능력을 가지고 있다.

3. '在'의 뒤에 출현하는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관계

이 장에서는 처소명사구가 어떤 경우에 방위사 '里'를 후행하고 어떤 경우에 '里'를 후행하지 않으며 인간이 공간을 인지하고 발화하는 것 사이에 어떠한 도상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15〉 '在'의 뒤에 출현하는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 제약

'里'가 후행 하지 않음	'里' 후행 自由/생략가능	'里' 후행 경향 强	'里'가 후행
❸직장/소속 (Work/Institution) (과거직장: '里' / 현재 직장과 대조)	❺[유정성(Human)]	[무정성]	❶음절제약 (Syllabic constraints)
	❻공간성(Space) 强	물체성(Entity) 强 (수식어가 놓이는 경우)	
❹환유 (Metonymy)	❼[항상성] (Homeostasis)	[임시성] (Temporary)	❷대조성 (Contrast)
❽[비지시성]	[지시성 (Referentiality)]		
	❾[자주성 (Independence)]	[비자주성]	
	❿[정태성(Static)]	[동태성(Dynamic)]	
강(强) ◀	인간의 존재가 암시된 공간	▶ 약(弱)	

틀어 지칭하는 용어이다.

4. ‘到’의 뒤에 출현하는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관계

이 장에서는 처소명사구 뒤에 ‘里’를 후행하는 경우가 ‘在’의 경우보다 적은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到’는 대체적으로 방향과 종점의 표시 기능, 그리고 ‘완결’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공간을 나타내는 ‘里’와는 후행을 많이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몇몇 경우에는 ‘里’가 후행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10〉 ‘到’의 뒤에 출현하는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 제약

‘里’가 후행 하지 않음	**‘里’ 후행 자유/생략가능**	**‘里’ 후행 경향 强**	**‘里’가 후행**
❸ 은유(Metaphor)와 환유(Metonomy)	❹이동대상(Movement object) [유정물]	이동대상 [무정물]	❶음절제약 (Syllabic constraints)
❺도착지 (Arrival point)	도착공간 (Arrival space)		❷대조성 (Contrast)
인간의 존재가 암시된 공간 **강(强)** **약(弱)** **도착점 or 도착공간의 활성화**			

5. ‘往’뒤에 나타나는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관계

‘往’ 뒤에 처소사가 목적어로 쓰이는 경우 방위사 ‘里’를 후행하는 경우보다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가 더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往+처소구’구문의 앞뒤에 각각 이동동사, 자세동사, 배치동사, 看류 동사 등이 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往’은 방향을 나타내는 개사이기 때문에 이동동사와 가장 많이 통합하는 양상을 볼 수 있으며 기타 동사들은 출현하기는 하지만 그 빈도가 많지 않음을 볼 수 있었다.

〈표 5-5〉 ‘往’의 뒤에 출현하는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 제약

‘里’가 후행 하지 않음	**‘里’ 후행 경향 弱/생략가능**	**‘里’가 후행**
❶이동 방향(Direction)의 현저화	❸시선의 도착점(Arrival point)과 도착공간(Arrival space)의 활성화	❶이동 공간(Space)의 현저화
		❷이동과정을 함축한 공간의 현저화
이동방향 or 이동공간		

6. 주어로 쓰이는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관계

주어로 쓰이는 처소명사구의 경우 '里'와의 공기관계와 관련하여 가장 큰 인지적 기제로는 처소명사구를 하나의 물체인 개체로 인지하는지 아니면 장소인 개체로 인지하는지에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6-7〉 주어로 쓰이는 처소명사구와 '里'의 공기 제약

'里'가 후행 하지 않음	'里' 후행 자유/생략가능	'里' 후행 경향 强	'里'가 후행
❹환유 (Metonymy)	❶존재물의 참조점 (reference point)(1개)	❶참조점(2개)	
❷보유 (Possession)	❷존재(Existence)		
❺척도 (Yardstick)	❸존재물과 장소의 대등 관계		❸존재물과 장소의 비대등관계
물체 or 장소 인지 ◀——— ———▶			

7. 처소명사구에 부가되는 '里'의 유형론적 특징

지금까지 중국어는 언어 특성상 무격 언어로 구분되어 왔기 때문에 중국어의 격(case) 또는 격 표지(case marking)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어의 부사격조사와 대응되는 중국어 개사연구가 진행되면서 중국어의 '在', '到', '往' 등과 같은 전치사(개사)도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언어들과 나란히 NP논항의 앞에 놓여 발화에서 동사(술어)와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격표지의 기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앞서 3장부터 6장까지의 논의를 통해 처소명사구 뒤에 후행하는 '里'가 단순한 방위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문법요소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 어휘적 의미가 거의 사라지고 때로는 전치사와 함께, 또 때로는 단독으로 처소명사구 뒤에 후행하면서 머리어와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언어유형론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어의 '里'를 부치사로 보고 문장에서 처소를 나타내는 격표지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8. 결론

<생략>

중국어 의문사의 원형범주와 확장범주
— 미정사 '什么'를 중심으로

김설화*

<目 次>

1. 서론
2 의문사의 확장범주-미정
2.1 미정문의 양태: 비현실성
2.2 미정사 '什么' 경계성(有界)
2.4 미정문의 초점과 전제
3. 결 론

1. 서론

중국어에서 대명사(代詞)의 하위 부류로 의문사는 의문의 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으로도 활발하게 사용된다.

(1) 你吃点儿什么吧。 = 你吃点东西吧。
(2) 好什么呀，人家年轻夫妇天天出去玩，
(3) 互相叫什么'老张''老李'的？

(1)-(3)의 예문들에서 의문사는 서로 다른 기능을 나타내며 의문을 나타내는 의문사는 하나도 없다. 학자들의 실제 자료에 대한 분석 통계 결과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쓰임이 오히려 의문의 경우보다 사용율이 높다.[1]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의문사의 다양한 기능 중 의문의 기능을 원형적 범주로 하여 의문사의 미정의 기능과 주관화로의 확장을 살피고자 한다.

(4) 니는 철수가 뭘 묵었다고 생각하노/나?
대답 a. 짜장면요.
대답 b.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영준2008:123 인용)

(5) 不用咱们出一份钱，干的又不是什么缺德事，他们能坑咱么？ (懵然无知)

(4)에서 대답 a에 해당하는 질문은 의문문이고 b에 해당하는 질문은 미정이다. 본문에서는 주로 미정사의 양태적 특징과 경계성, 그리고 주관화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 중앙대학교

1) 이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데이터가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수치들은 50%를 넘는다. 陣虹先(2010)은 북경대학말뭉치의 자료를 근거로 집계를 한 결과 '什么'의 의문사용법은 58498건으로 33.76%를 차지하고 非疑问 사용은 114771건으로 66.24%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王海峰(2003:22)에서는 자연대화 속에서 '什么'의 답을 필요로 하는 의문적 사용으로는 겨우 8.2%에 그친다고 했고 李冬香(2008:28)에서는 '什么'의 비의문 사용이 50~80%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2 의문사의 확장범주-미정

2.1 미정문의 양태: 비현실성

불확실함과 불명확함을 나타내는 미정사는 질문, 부정, 가정, 추측 형식의 비현실문에서 주로 나타나며 화자의 인식양태[2]를 나타낸다. 현실과 비현실은 양태(modality) 범주에 속하는 두 개의 중요한 개념으로 양태란 화자의 명제에 대한 태도 혹은 인식 상황을 말한다. 비현실문은 현실 사건과 상대되는 것으로, 명제가 표현하는 상황이 발생 가능하거나 혹은 가설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否定문, 의문문, 조건문 등은 양태 상 모두 비현실문에 속한다.[3]

1) 부정형에서 미정. '什么'가 미정으로 쓰일 때 긍정형보다 부정형이 수적으로 훨씬 우세할 뿐만 아니라[4] 부정형은 긍정형은 다른 보조적 통사적 장치가 필요 없이 미정의 뜻을 나타낸다. 때문에 의문에서 긍정형이 무표라면 미정에서는 부정형이 무표라고 할 수 있다.

(6)	a 也许出了什么事。	미정	(给我顶住)
	b ?出了什么事		
	没出什么事	서술미정	
	出不了什么事。	서술미정	

위의 예문 (6b)를 보면 의문인지 미정인지 확실치 않은 문장을 否定으로 바꾸면 의문이 완전히 배제되고 미정이 된다. 모든 미정을 나타내는 否定문에서 부정부사를 제거하면 이와 같은 양상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왜 부정은 의문보다 미정에 가까울까?

의문문은 결여된 정보를 해결하기 위한 담화형식으로, 그 역할이 대화 순차의 교대에 있기에 회화의 원칙에 따라 상대에게 양과 질의 격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질문해야 한다.

		긍정형	부정형
(7)	1단계:	A： 吃了吗？	A': 吃了吗？/没吃吗？
	2단계:	B： 吃了。	B': 没吃。
	3단계:	A： 吃了什么？	A': ？ 没吃什么？
	4단계:	B： 吃了面包。	B': ？ 没吃面包。
	5단계:	A： 吃了什么面包？	A': ？ 没吃什么面包？

위의 담화 (7)을 보면 긍정형은 적어도 5단계까지 설계된다. 하지만 부정형은 3단계부터 대화의 연결이 어렵다. 설사 3단계가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3단계는 상대에게 따지는 느낌을 피할 수 없다. 그 이유는 3단계의 질문의 전제가 상대의 대답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3단계: 没吃什么？	5단계: 没吃什么面包？
전제: 吃了X_1, 没吃X_2.	전제: 有的面包吃了，有的面包没吃。

3단계의 질문은 'X라는 음식 중 일부는 먹고 일부는 먹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2단계의 대답

2) 인식양태란 화자가 명제 진위의 가능성과 필연성에 대한 견해 혹은 주장을 말한다. 혹은 어떤 상황 출현의 가능성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가리킨다.(彭利貞2005:24)
3) 沈家煊(1999:105)
4) 鹿钦佞(2005:46-48)에 의하면 수집한 848개의 미정문 중 부정형은 무려 512개로 60.38%을 차지한다.

과 상충된다. 5단계의 질문도 결국 이런 이유로 4단계의 답과 충돌하면서 대화가 동문서답형으로 진행된다. 이는 의문문에 있어서 부정형이 긍정형보다 제한을 받는 이유이다.

의문문에서의 부정형의 제한은 오히려 부정형이 미정에서 활약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위의 '出不了什么事', '没去哪儿'과 같은 부정형 특지의문문은 긍정형 특지의문문과 달리 특별한 성분의 도움 없이도 미정의 뜻을 나타내게 된다.

2) '好像、似乎' 등 부사나 어기조사, 조동사 등 화자의 인식양태를 나타내는 성분과 자주 결합하여 미정의 의미를 확실화한다. 부정문에서 의문사는 별다른 통사적 장치 없이도 미정을 나타내지만 긍정문에서는 미정을 표시하기 위해 화자의 인식양태를 나타내는 통사적 장치들이 필요하다. 吕淑相(1985b:162)은 긍정문에서 미정의 '什么'가 있을 경우 흔히 "想必、一定、恐怕、也许"와 같은 추측을 나타내는 단어와 함께 사용하여 화자의 비단정적인 나타낸다고 한다.

(8) a 他不在办公室，办什么事去了？ 특지의문문 (郭婷婷2005인용)
b 他不在办公室，大概/可能办什么事去了。 서술미정 (郭婷婷2005인용)

위의 특지의문문 (8)에 '大概、可能'과 같은 부사를 더한 (8b)는 미정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의문사의 미정의 기능을 부각시키기 위한 성분으로 어기부사 외에도 문미에 오는 어기조사 '吧'가 있다.

(9) 林老师，再讲点什么吧。你知道，再讲点什么？ (张承志 黑骏马)

미정문이 지닌 이런 추측이나 청유의 의미와 어기부사, 어기조사가 지닌 양태적 특징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서로의 의미적 자질을 더욱 부각시킨다고 할 수 있다.

3) 가정이나 조건문에서 미정.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복문에서 미정사는 결론절이 아닌 조건절에 오는데 이는 조건절의 사건은 현실성을 지니지 않은, 화자의 가상이나 설정에 의한 비현실적이며 주관적이기 때문에 미정사가 지닌 불확실성이 잘 드러낼 수 있다.

2.2 미정사 '什么' 경계성(有界)

사물은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경계를 지니고 있는데 경계가 있는 것은 有界(bounded), 경계가 없는 無界(unbounded)에 속한다. 동작은 일정한 시간을 차지하기에 시간의 축에서 有界와 無界의 구분이 있다. 沈家煊(1995)에 의하면 사람들이 사물이나, 동작, 성질 상태를 인식하거나 느낄 때 흔히 有界와 無界의 대립이 있는데 '有界-無界'의 대립은 인류의 '일반인지기제(general cognitive mechanisms)'의 일부분으로 인류 인지의 가장 기본적인 인지개념 중 하나라고 한다. 인간의 언어능력은 일반 인지능력의 일부분으로 '有界-無界'의 인지적 대립은 필연적으로 언어구조에 투사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언어구조에 투사된 '有界-無界' 경계성은 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한 경계로 객관세계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의문사와 달리 미정을 나타낼 때 '什么'는 경계를 지닌 사물을 지칭한다. 아래 예를 보자.

(10) 哥哥刚要说什么，被爸爸拦住了。 (等待)
≠哥哥刚要说话，被爸爸拦住了。

(11) 我笑了，离开窗子，又吃了几块她喂的糖，想起什么，问阿眉。(空中小姐)
≠想起事儿，问阿眉。

(12) 你快说话呀，别支支吾吾的。
*你快说什么呀， 别支支吾吾的。

(13) 他三岁就会说话
*他三岁就会说什么。

위의 (10)-(11)에서 비한정성 '什么' 대신 같은 비한정성 명사인 '话', '事儿'로 바꿔보면 원래의 예문과 조금 다름을 알 수 있다. 반대로 (12), (13)의 '话' 역시 '什么'로 바꿀 수 없는데 이는 단지 '什么'의 한정, 비한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미정사 '什么'가 지닌 경계성 때문인데 이는 실제 세계에서 미정사가 지니고 있는 경계가 아닌, 화자가 의도적으로 부여하는 화용적 경계라고 할 수 있다.

沈家煊(1995:368)에 따르면 중국어에서 가장 전형적인 경계를 지닌 명사의 형식은 '수사+양사+명사'로 수량사는 사물을 경계화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수단이다. 이런 수량사는 특지의문문에서 배척하지만 미정사는 자주 경계성 명사의 형식인 '수사+양사+명사'의 형식을 취한다. 이때 미정사 '什么' 앞에 온 '(一)句/些'와 같은 양사를 생략할 경우 쉽게 의문문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4) …或许，还有一些别的什么。 (给我顶住)
还有别的什么 미정/특지의문

(15) 杨重又说了几句什么，笑声再起。 미정 (顽主)
杨重又说了什么? -특지의문

위의 (14), (15)에서 수량사 '一些、几句'를 생략하면 미정의 뜻이 약화되고 의문의 뜻이 짙어진다. 이는 (14), (15)에서 수량사의 수식을 통해 '什么'를 경계화함으로 의문을 배제하고 미정의 뜻을 부각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어에서 특지의문문에서 흔히 양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매우 대조적이다.

(16) 你吃什么？ ？你吃一个什么？ 你吃点什么
(17) 他说了什么？ * 他说了几句什么？ 他说些什么

미정사 앞에는 양사 외에 또 다른 수식어들도 올 수 있는데 이는 미정사 '什么'가 비록 의미적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대상을 나타내지만 형태적으로는 경계화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8) 他拿了份什么请愿书叫咱签名。 (一点正经没有)
(19) 马林生觉得自己好像忘了件什么重要的事。 (我是你爸爸)

미정사가 있는 문장에서 郭婷婷(2005)은 VP 구조의 복잡화가 의문사를 비의문문으로의 전환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결국 郭婷婷(2005)이 지적한 비의문기능의 활성화에 VP 구조의 복잡화가 가능한 이유도 바로 미정사 '什么'가 서술어에 대한 경계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즉 VP 구조의 복잡화는 바로 서술어의 경계성을 높이고 나아가 什么'의 경계가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VP 구조가 복잡할수록 미정문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미정사의 이런 경계성이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미정보다 의문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서술어의 경계성의 통사적 표현으로는 동태조사 외에도 흔히 동사 앞의 부사어, 동사 뒤의 방향보어나 결과보어, 혹은 수량보어 등이 있다. 이런 성분들은 문장에서 서술어가 지닌 정보를 증가시켜 줌으로 서술어가 정보의 초점이 되게 한다. 이는 특지의문문에서 의문사가 흔히 정보의 초점이 되는 것과 충돌하기에 서술어가 복잡한 문장에서 의문사는 의문의 뜻을 상실하고 미정이 될 수 있다.

(20) 一个经理模样的人在总服务台和卫宁交代着什么, (一半是)
一个经理模样的人交代着什么,

(21) 两个保卫科干部走到总服务台同经理小声说了些什么, (一半是)
两个保卫科干部走到总服务台同经理说了些什么,
两个保卫科干部走到总服务台说了些什么,
两个保卫科干部说了些什么,

(22) 她则一动不动, 愁眉不展地坐在那里凝眸注视着窗几上的什么东西。(千万别把我当人)
她则一动不动注视着窗几上的什么东西
她注视着什么东西

위의 (20)-(22)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서술어 앞의 부사어가 줄어들수록 질문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부사어가 길수록 동작의 경계성이 분명해지고 뒤에 오는 목적어인 '什么'의 경계도 명확해지기 때문이다.

2.4 미정문의 초점과 전제

미정문에서 의문사 즉 미정사는 더 이상 문장의 초점이 아니라 동사가 문장의 초점이 되기에 미정문의 의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23) 미정: 他们个个表情严肃, 阴郁地低声议论着什么。 (动物凶猛)
의문: 他们议论着什么？

(24) 미정: 我们没买什么, 因为是夏天 (浮出海面)
의문: 你们没买什么？

'吗'와 의문사는 모두 잘 모르거나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구하는 의문의 기능을 하기에 단독으로 쓰일 경우 모두 자연초점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의문사와 '吗' 함께 쓰이는 혼합의문문의 경우 초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서술의 편의를 위해 먼저 중국어의 의문문 형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a, b, c로 유형화하여 살펴보자.

(25) a 我有过错吗？ 没有。
b 我有什么过错？ 没什么过错。
c 我有什么过错吗？ 没有。 (浮出海面)

위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시피 b형의 의문사는 초점으로 그에 대한 답을 필요로 하지만 c형에서 의

문사는 더 이상 문장의 초점이 아니기 때문에 '有吗'에 대한 응답을 해줘야 한다. 다. 따라서 혼합의문문에서 초점은 의문사가 아닌 어기조사 '吗'에 질문의 초점이 있다. 이런 대답의 차이는 결국 전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데 미정과 의문은 그 전제가 서로 다르다.

(25) a 我有过错吗? 전제: [我不知道我有没有]
b 我有什么过错？ 전제: [你认为我有过错]
c 我有什么过错吗? 전제: [我很可能有过错, 如果有是什么？]

(25)의 a, b, c의 조금씩 다른 전제는 서로 조금 다른 답을 유도한다. 이는 c형의 전제에서 알 수 있다시피 행동의 발생여부 자체가 확실치 않기에 청자는 부정적으로 대답할 경우 동작의 발생여부 대한 판단을 먼저 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정은 동작의 실제가 확실치 않은 비현실성을 지니게 되며 긍정형에서 추측을 나타내는 인식양태의 표지인 부사 같은 표현들이 자주 어울리게 된다. 즉 화자의 감정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어기사나 양태동사와 자주 함께 쓰이어 비인식양태에서 인식양태로의 전환을 유도하며 나아가 '什么'의 주관화를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화자는 불확실한 표지인 '什么'와 '吗'를 동시에 사용하여 추측의 태도를 나타내며 의문사에 대한 답을 직접적으로 요청하지 않는다. 때문에 청자는 이에 대해 답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제에 볼 수 있다시피 혼합의문문은 앞의 동작의 발생을 인정할 경우 미정사가 지닌 불확실함에서 비롯된 의심, 질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바로 이렇기에 刑福義(1987), 邵敬敏(1996)은 이중적 의문구조로 보고 郭婷婷(2005)은 '雙의문초점'형이라고 하나 본 논문은 혼합의문문에서 의문을 나타내는 것은 의문의 초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의문에서 미정으로 문법화 과정의 잔존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미정사 '什么'가 다른 성분이 있을 경우 흔히 생략해도 문장의 명제적 의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미정사로부터 파생된 불명확한 애매한 어기의 '什么'를 사용함으로써 명제적 의미인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화자의 탐색적 태도가 '자신감 결여, 주저함, 겸손, 반박' 등으로 표현된다.

呂淑相(1990)이 '什么'가 미정의 뜻으로 명사 앞에 놓일 경우 '什么'을 생략해도 되지만 '어기가 직설적이 된다'고 지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什么'는 주관화의 결과로 화행에서 흔히 어기의 완화, 비단정적이거나 모호함, 책임 결여, 시간 벌기, 거리감 유지 등 양태적 기능과 대인적 기능을 한다.

담화표지가 가진 주된 기능이 문장적 기능과 대인적 기능이라고 볼 때 '什么'는 문장 속 통사적 지위를 상실하고 문장 속에서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 원래의 명제적 의미를 상실하고 구조적으로 전체 격식의 의미를 표현한다는 점, 음율적으로 독립된 어조(語調)단위로 되었다는 점에서 의문에서 담화표지로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결 론

결론적으로 미정사 '什么'는 문장에서 비현실문에 쓰이어 불명확한 대상에 대해 화용적 경계를 지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미정사의 사용을 통해 화자는 불명확함과 우유부단함 등 주관적 감정이나 태도를 나타내고 청자에 대한 거리감을 유지하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는 등 효과를 기대하는 주관화된 표지라고 할 수 있겠다.

4월 27일(토) 10:30~12:30

분과발표 1부

❖ 어학2분과 _ 어법(2)

(장소: 312호)

류야페이(서울대) 조건문의 '会'의 사용현상 분석
– 유형론적 접근

김혜진(서울대) V个N구문 연구

김승현(연세대) 현대중국어 'V在(到)一起' 구문 연구

이정인(한국외대) 현대 중국어 방향표지구문 연구
– '向/往/到+DP'구를 중심으로

조건문의 '会'의 사용현상 분석*

— 유형론적 접근

류야페이**

<目 次>

1. 머리말
2. 기존연구 및 유형론적 접근
3. 조건문 유형에 따른 사용현상 분석
4. 조건문의 '会'의 역할 및 사용조건
5. 맺음말

1. 머리말

기존의 '会'에 관한 연구는 능력과 가능성의 의미만을 다룬다. 그러나 실제 사용에서는 '会'가 가정문이나 조건문의 주절에서 출현하여,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기 힘든 현상을 흔히 볼 수 있다.

(1) a. 只要在本周五主场吃掉中国队，就会成为B组头名。
b. 打开≪老子≫，你会看到全书只有约5000字，不长于杂志上的一篇文章。
c. 在一个标准大气压下，只有摄氏100度的水才会沸腾。

주절에서의 사건은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会'는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드러내는 '一定/肯定' 등으로 대체될 수 없고 생략될 수도 없다.

2. 기존연구 및 유형론적 접근

2.1 유형론적 접근

일반언어학연구에서는 주로 가정문과 조건문을 구분 없이 조건문(conditional)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연구해왔다. 왜냐하면 앞뒷절의 의미관계의 각도에서 보면 가정문의 종속절도 주절의 조건이다. 조건문의 분석 및 세부 연구는 주로 형식, 의미와 인식방식 이 세 가지의 각도에서 진행해왔다.

형식의 각도에서는 종속절과 주절에 있는 술어의 형태변화에 의거하여 다음 예문들과 같이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 영어 예문(2a)와 같이 시제의 변화를 통해 조건문을 구성한다. 둘째, 라틴어 예문(2b)와 같이 동사의 가정법(subjunctive)에 의해 표현한다. 셋째, 예문(2c)의 호주 원주민 언어 Manam과 같은 언어는 종속절과 주절에서 비현실(irrealis)의 표지를 사용한다.

---

* 본고의 조건문은 중국어 소위의 조건문과 가정문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처리방식의 이유는 구체적인 논의에서 다룬다.

** 서울대학교

(2) a. If it rains$_1$, the match will$_2$ be cancelled. (시제방식)
b. Si hoc facias, erres (가정법방식) Palmer(2001:125)
If this do+2SG+PRES+SUBJ$_1$ err+2SG+PRES+SUBJ$_2$
If you do this, you would be wrong.
c. ʔáti téʔe-o ŋa-pára-ra Bogiá n-láʔa (비현실방식) Palmer(2001:178)
boat one-3SG IRR$_1$-arrive-assume Bogia 1SG+IRR$_2$[1)]
If a boat should come, I would go to Bogia/If a boat had come, I should have gone to Bogia.

의미의 각도에서는 종속절의 진리값에 따라 조건문을 분류할 수 있다. 즉, 종송절의 명제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으며, 또한 화자는 그 명제를 반드시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3) a. If you heat$_1$ ice, it melts$_2$. (진실/real)
b. If you make$_1$ a mistake, someone will$_2$ let you know. (가정/hypothetical)
c. If I were$_1$ you, I would$_2$ go out with that man. (반사실/counterfactual)

인지의 각도에서는 종속절과 주절 간의 인지영역에 따라 조건문을 다른 방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그 중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결과는 Sweetser(1990)가 내용영역(content-domain), 인식영역(epistemic-domain) 및 화용영역(speech-act domain)에서 내용조건문, 인식조건문, 화용조건문을 분류하는 방식이다.

(4) a. If Mary goes, John will go. (내용조건)
b. If John went to that party, he was trying to infuriate Miriam. (인식조건)
c. If it's not rude to ask, what made you decide to leave IBM? (화용조건)

2.2 중국어 학계의 기존연구

중국어의 복문은 형태적 변화보다 복문관계를 상세히 구분하여 사용하는 접속사들에 의해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조건문은 주로 가정문과 독립된 유형으로 많이 언급되고 일반언어학연구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只有/只要/除非/无论' 등은 조건의 필요성에 따라 각각 연구되었다.

조건문과 가정문에서 출현하는 '会'에 대한 분석은 대부분 '会'가 이러한 문장에서도 여전히 가능성에 대한 판단의 역할을 한다고 본다. 이와 다르게 보는 연구결과는 주로 다음과 같다.

王晓凌(2007)은 '会'는 비현실의 표지라고 주장하며 그가 제시한 분류 중의 한 가지가 바로 가정문이다. '如果/要是'는 가정표지이기 때문에 종속절의 명제는 비현실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주절의 '会'도 명제를 비현실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에 의하면 문장에서 '如果/要是'는 생략될 수 있지만 '会'는 그렇지 못한다. 그러나 실제 사용에서 '会'는 생략될 수 있거나 심지어 출현할 수 없는 문장도 흔히 발견할 수 있다.

(5) a. 如果同一个词有两种不同的书写形式，就会显得不够确定。
b. 如果同一个词有两种不同的书写形式，就__显得不够确定。
(6) a. *保修期刚过，要是早坏两天就会好了。
b. 保修期刚过，要是早坏两天就__好了。

杨黎黎(2015)는 비진실조건문을 분석할 때 이는 미래시제 및 양태와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주절에서 미래시제의 표지나 양태적 수단을 자주 사용한다고 논의하였다. 그가 제시한 예문(8)의 '会'는 미래시제의

1) 문장의 종속절의 형태는 '1'로 표시하며 주절의 형태는 '2'로 표시한다.

표지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진행하지 않았다.

(7) 如果将来有机会写一本自传，我会把书名取做≪走上T台，春暖花开≫。

范晓蕾(2016,2017)는 '会'의 한 가지 용법을 '조건필연'으로 명명하고 습관(惯常)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즉, 일정한 조건하에 어떤 상황이 반드시 발생할 것이며, 그러한 조건은 반복적으로 출현한다. 따라서 '조건필연'의 의미를 나타내는 '会'가 출현하는 문장은 모두 조건문으로 바꿀 수 있다.

(8) a. 如果到零度以下，水会结冰。 a'.*如果到零度以下，水__结冰。
b. 哈尔滨冬天会下雪。(=如果在冬天，那么哈尔滨就要下雪。)
c. 人会生病。(=如果X是人，那么他会生病。)

그에 따르면 이러한 '会'는 문장에서 명확한 조건이 출현할 때 생략할 수 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보면, 그가 제시한 예문(8a)는 (8b), (8c)보다 더욱 전형적인 조건문임에도 불구하고 '会'를 생략할 수 없다.

闵星雅(2007)는 앞에서 언급한 Sweetser(1990)의 인지영역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会'의 용법을 연구하는데, 조건문과 가정문에서 사용되는 '会'는 인식영역의 용법이라고 하고 일정한 조건하에 결론을 추측하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본다.

(9) a. 只有你自己不尊重自己，别人才会不尊重你。
b. 如果他们早一分钟到，他们就会遇到东山。

3. 조건문 유형에 따른 사용현상 분석

중국어 '会'의 사용은 앞에서 제시한 일반언어학 연구결과와 대응해 보면, 형식적과 의미적 구분이 유효한 방법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중국어는 형태적 변화가 없고 종속절에 있는 명제의 진리값도 일정한 형식을 통해 표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지의 각도에서 분석해 보자.

Comrie(1986), Dancygier(1993) 등에 따르면 전형적인 조건문[2]의 종속절과 주절의 관계는 인과(causal)관계이다. 즉, 종속절은 일정한 조건이고 주절은 그러한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이다. 조건문과 인과문의 차이는 명제의 사실성에 있으며, 후자는 종속절은 사실이고 전자는 그렇지 않다.

3.1 내용영역의 문장에 대한 분석

현실세계에서는 종속절에서 묘사한 사건이나 상태는 주절에서 묘사한 사건이나 상태가 실현되는 충분조건이며, 이렇게 구성되는 조건문은 내용영역에 해당된다. 다음 예문(4)에서 메리가 가는 것은 존이 가게 하는 이유이자 조건이다. 즉, 메리가 가는 것은 존이 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시간의 각도에서 보면 주절의 사건은 반드시 종속절이 발생한 후에 출현할 것이다. 따라서 로망스어파(Romance)나 게르만어파(Grermanic)에 속하는 언어들은 주절에서 미래시제의 표지나 미래시제 용법에서 유래된 형태를 취한다. 이때 중국어의 '会'도 미래의 시간을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절대시제의 미래 외에 상대시제의 미래도 포함하고 있다. 다음 예문(10)은 바로 이에 해당된다.

2) 본고는 주로 유형론적 각도에서 논의하기 때문에 일반언어학의 관점을 취한다. 따라서 중국어의 가정문을 조건문의 일종으로 본다.

(4) a. If Mary goes, John will go. (내용조건)
a'. 要是玛丽去，约翰也会去。
(10) a. If you had studied harder, you would have passed the exam. (과거미래)
b. 要是你学得再认真一些，你(本来)会通过考试的。

3.2 인식영역의 문장에 대한 분석

인식영역에 속하는 조건문은 직접적으로 현실세계를 반영하지 않고 인류의 인식세계를 묘사한다. 종속절에서 묘사하는 사건이나 상태는 더 이상 주절에서 묘사하는 사건이나 상태가 실현되는 조건이 아니라, 종속절은 인식적 가정 전제(hypothetical premise)이고 주절은 이로 인해 얻은 결론(conclusion)이다. 종속절의 전제는 주절의 결론을 내릴 때의 충분조건이다.

(4) b. If John went to that party, he was trying to infuriate Miriam. (인식조건)
b'. 要是约翰去了那个舞会，那他__是想激怒米利亚姆。
(11) a. If he typed the thesis, he loves her. (인식조건)
a'. 要是他打了这篇论文，那就说明他爱她。
b. If he loves her, he will type the thesis. (내용조건)
b'. 要是他爱她，他会打这篇论文。

Dancygier & Sweetser(2005:117)는 예문(11a)와 (11b)를 대조 설명하였다. 후자는 내용조건문이며, 그 남자의 사랑은 조건이고 여자를 위해 논문을 타이핑해 주는 행위를 실행하는 결과를 이끌 수 있다. 반면 전자는 인식조건이고, 그 남자가 여자를 위해 타이핑해 주는 전제가 있으면 여자를 사랑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다시 말해, 인식조건문의 종속절은 주절의 결론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인식영역의 발화는 내용영역의 시간순서 원칙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인식세계의 인류의 일반적인 인식 원칙만을 따른다. 예문(11a)의 주절은 사실상 현실세계의 시간축에서 종속절 이후의 시간에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와 중국어에서 모두 미래시제 표지를 사용할 수 없다.

전	후
爱她 ---→	**为她打论文**
조건	결과

후	전
为她打论文 ---→	**爱她**
전제(조건)	결론

3.3 화용영역의 문장에 대한 분석

화용영역의 조건문은 주절에서 묘사한 화용행위는 종속절에서 묘사한 조건이 충족될 때만 실행할 수 있다. 즉, 종속절의 사건이나 상태는 주절의 행위를 초래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4) c. If it's not rude to ask, what made you decide to leave IBM? (화용조건)
c'. 要是(这个问题)不是那么鲁莽，(我想问)是什么让你决定离开IBM公司？
(12) a. 要是你下周很忙，那现在就告诉我。
b. 如果你不介意的话，我想向您请教一个私人问题。

이러한 문장의 종속절과 주절은 시간적 선후관계가 일정하지 않고, 조건과 결과의 관계나 전제와 결론의 관계도 가지고 있지 않다. 문장의 종속절은 조건이고 주절은 그러한 조건하에 실행하는 행위이다. 때

로는 종속절과 주절이 긴밀한 의미관계도 없고, 청자가 반드시 일정한 화용적 유추를 통해 문장을 이해해야 한다. Austin(1961:210)에서 제시한 그 유명한 예문(13)은 바로 이러한 사용이다. 중국어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용을 찾을 수 있다.

(13) There are biscuits on the sideboard if you want them.
= I hereby offer you some biscuits on the sideboard, if you want them. (Sweetser1990:119)
(14) 你要是饿了的话，柜子里有吃的。

4. 조건문의 '会'의 역할 및 사용조건

4.1 '会'의 역할 분석

앞에서 토론한 각 영역에서 '会'의 출현 상황 및 역할을 다시 분석해 보면 주로 다음과 같다.

내용영역에서는 주절의 사건이나 상태는 종속절 이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会'는 자주 출현하고 미래라는 시간을 지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15) a. 如果你也在北京住两年，你会知道得更多。
b. 只有心理健康了，才会有真正的身体健康。

인식영역에서는 주절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며, 현실세계의 미래시간과 관련이 없고 종속절 이후에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미래시제를 지시하는 '会'는 출현할 수 없다. 그리고 이를 통해 '会'는 화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 즉 일반 소위의 가능성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주절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식조건문의 주절은 주관적인 판단을 나타내는 조동사나 부사가 출현하는 절묘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16) a. 要是花枯萎了，那一定是你加了太多肥料。
a'. *要是花枯萎了，那一定会是你加了太多肥料。
b. 如果女性近期有这三个表现，可能是抑郁症找上你了。
b'. *如果女性近期有这三个表现，可能会是抑郁症找上你了。
(15) a'. 如果你也在北京住两年，你一定会知道得更多。
b'. 只有心理健康了，才可能会有真正的身体健康。

예문(16)의 주절은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데, '会'를 사용하면 매우 어색하다. 그러나 반대로 예문(15a)와 (15b)에서 가능성을 나타내는 부사는 '会'와 공기할 수 있다. 예문(15)는 내용영역에 해당하며, '一定'이나 '可能'을 삽입하면 화자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이 외에 기존의 일반언어학이나 중국어에 관한 연구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조건문의 종속절이 주절의 조건이기 때문에 미래나 주관적인 판단이 출현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 사용에서 인식영역이나 화용영역에 속하는 조건문의 종속절에서는 '会'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장이 성립하는 이유는 인식조건문과 화용조건문이 종속절의 사건이나 상태의 시간적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17) a. 她要是会相信才有鬼。
b. 如果这种人会被赵衍夫，就太令人失望了。

마지막으로 화용영역에서는 ‘会’가 자주 출현하지 않지만, 의지를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되는 ‘会’는 이러한 조건문의 주절에서 출현할 수 있다. 또한 내용영역의 조건문에서 ‘会’의 앞에 주어가 1인칭일 때도 ‘会’는 미래 이외에 의지의 의미로 해석되는 부분도 있다.

(18) 要是你愿意，我会一辈子对你好。
(19) a. 要是我赚了很多钱，我会先给你买很多礼物。
b. 现在如果我一天不吃中餐，就会觉得有点不舒服。

4.2 ‘会’의 사용조건

조건문에서의 ‘会’의 출현 여부는 주로 미래시간의 지시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즉, 사건이나 상태가 미래에 발생하면 ‘会’를 사용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의미 요인으로 인해 ‘会’의 사용조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첫째, ‘会’가 출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종속절의 상황은 미래에 발생하지만 기타 조동사가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会’가 출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장에서 기타 조동사는 미래시간이라는 것이 이미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어에서는 ‘will can’이나 ‘will must’와 같은 공기현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언어에서는 동적양태(dynamic)와 의무양태(deonic)에 속하는 표현들의 우선적인 해석 방식은 미래시간이다. 중국어도 예외가 아니다.

(20) a. 只有在各个方面都享受到同样的权利，男女才能平等。
b. 要是能有一个长假期，我要跑遍全中国。

둘째, ‘会’가 생략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또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 가지는 ‘会’를 생략할 수 있지만 의미 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会’는 미래를 지시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 주절은 종속절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반면 ‘会’가 없으면 종속절과 주절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다음 예문(21a)는 청자가 헷갈리는 상태면 나중에 그들도 헷갈리거나 그들을 헷갈리게 하는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 반면 (21b)는 청자가 헷갈리는 상태가 되면 동시에 그들도 헷갈리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21) a. 要是你糊涂，那他们也会糊涂。(你可千万要小心。)
b. 要是你糊涂，那他们也__糊涂。(所以没什么大不了的。)

다른 한 가지는 ‘会’를 생략한 후에 문장의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때 이러한 조건문은 내용조건문이나 인식조건문으로 동시에 볼 수 있다. 다음 예문(22a)는 일찍이 결혼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자신이 쉽게 가정에 갇히게 되는 결과가 출현한다고 해석된다. (22b)는 일찍이 결혼하는 전제가 있으면 화자가 주절에 있는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이중 분석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조건문은 주절에서 자주 평가의 의미를 지니는 정태동사나 형용사가 출현한다.

(22) a. 如果过早地结婚，会很容易把自己束缚在狭窄的小家庭圈子里。 (내용영역)
b. 如果过早地结婚，__很容易把自己束缚在狭窄的小家庭圈子里。 (인식영역)
(23) a. 选择课题不能草率，如果根本没有实现的可能，选题就会有害无益。(내용영역)
b. 选择课题不能草率，如果根本没有实现的可能，选题就__有害无益。(인식영역)

셋째, ‘会’가 반드시 출현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만약 문장이 전형적인 내용조건문이자 주절에 기타 미래시제를 함축되는 조동사가 출현하지 않으면 ‘会’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이는 ‘会’가 가능성 판단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사건이나 상태를 시간축의 미래에 위치하는 것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줄곧 ‘会’의 의미를 가능성이라고 교육 받은 중국어 학습자들은 자주 다음과 같은 오류를 범한다.

(24) a. *在这样的情况下，如果可以选择安乐死，可能产生很多利用安乐死的犯罪。
(在这样的情况下，如果可以选择安乐死，可能会产生很多利用安乐死的犯罪。)
b. *如果有这样的规定的话，抽烟的人应该减少。
(如果有这样的规定的话，抽烟的人应该会减少。)

4.3 ‘会’를 통해 다시 본 중국어 조건문

조건문에 관한 일반언어학의 주된 연구 경향은 종속절의 표현방식과 명제의 진리값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중국어에서는 진리값 차이에 의해 구분하여 표현하는 방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어의 조건문에 대한 연구는 일반언어학의 연구와 거의 단절된 상태이다. 그러나 중국어의 조건문이 과연 그렇게 특별한 것인가? ‘会’의 사용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Dancygier(1993)는 조건문의 원형범주를 규정하였다. 그에 의하면 원형적 조건(prototypical conditionality)은 사건들의 시간적 순서와 인과관계를 도상화한 결과이다. 따라서 원형적인 조건문은 모두 예측성 조건문(predictive conditional)이고, 비원형적인 조건문은 시간적 순서를 지키지 않는 비예측성 조건문(non-predictive conditional)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로망스어파나 게르만어파에 속하는 언어들은 미래시제의 표지나 미래시제에서 유래된 형태를 통해 이러한 예측성을 나타낸다. 중국어에서 ‘会’는 이에 해당한다. 중국어 조건문의 원형 및 원형에서 발전해 오는 기타 유형은 많은 언어들과 비슷하다.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중국어의 조건문도 인류의 일반적인 인지과정과 방식에 따르는 것이다.

(11) a. If he typed the thesis, he loves her. (비원형/비예측)
a’. 要是他打了这篇论文，那就说明他爱她。
b. If he loves her, he will type the thesis. (원형/예측)
b’. 要是他爱她，他会打这篇论文。

마지막으로 원형적인 조건문의 예측성은 미래가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에 해당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Bybee(1994:280)와 Dahl(2000)은 모두 미래를 지시하는 문법요소의 핵심 기능은 의도(intention)와 예측(prediction)이라고 언급하였다. 즉, 미래시제인데 예측의 기능을 실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어의 ‘会’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5. 맺음말

본고는 일반언어학의 연구결과를 참조하여 중국어 조건문에서 ‘会’의 사용상황 및 성질을 분석하였으며 이전과 다른 시각에서 중국어의 ‘会’와 조건문을 재조명하였다.

원형적 조건문에서는 종속절과 주절은 조건과 그 후에 초래하는 결과를 나타내며, 시간적 순서와 인과관계는 조건문이 원형인지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이다. 원형적 조건문의 주절은 예측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언어들은 자주 미래시제를 나타내는 수단을 이용하여 이러한 예측성을 나타낸다. 중국어도

그러하다. 따라서 주절에서 출현하는 ‘会’는 미래시제의 표지이다.

비원형적 조건문은 시간적 순서나 인과관계 중 어느 한 가지 요인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종속절과 주절의 관계가 예측성을 구비하기 않는다. 따라서 미래시제의 표지는 이러한 조건문의 주절에서 출현하지 않는다. 심지어 종속절에서 출현하는 사용도 허용한다. 중국어의 ‘会’도 그러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중국어의 조건문과 ‘会’는 많은 언어들과 유사함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참고문헌〕

Comrie(1986), Contionals: A typology, In Traugott(ed.), *On Conditional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77-99.

Dancygier(1993), Interpreting conditional: Time, knowledge and causation, *Journal of Pragmatics* 19: 403-434.

Dancygier&Sweetser(2005), *Mental Spaces in Gramma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Sweetser(1990), *From Etymology to Pragmatics: Metaphorical and Cultural Aspects of Semantic Struc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彭振川(2009),『现代汉语假设句的认知语用研究』, 浙江大学博士学位论文.

邢福义(2001),『汉语复句研究』, 商务印书馆.

王春辉(2012),「条件句分类的国内外比较」,『东方语言学第11辑』, 上海教育出版社, 115-128.

V个N구문 연구

김혜진*

<目 次>

1. 문제제기
2. V个N구문의 의미적 기제
2.1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一CL(一个)'의 문법화
2.2 V个N구문의 비지시성
3. V个N구문의 화용적 기제
3.1 상적 접근
3.2 정보구조적 접근
3.3 총칭성에 관한 접근
3.4 주관적 해석에 관한 접근
4.결론

1. 문제제기

현대중국어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존재한다.

(1) 来，喝个酒吧！
(2) 先去图书馆借个书。

중국어는 계량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수사 뒤에 분류사(classifier)를 첨가하여 명사를 수식하게 된다. 이때 수사가 '一(일)'이고, 동사에 후치하게 될 경우 수사 '一(일)'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V个N형식은 중국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사적 구조이다. (1)과 (2)에서 '酒'와 '书'는 비록 명사에 해당하지만 '酒'는 물질명사에 해당하고 '书'는 비교적 고정적인 전용 분류사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V个N구조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1), (2)에 나타난 V个N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구문적 지위를 인정받았고 많은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V个N구문에 대한 앞선 연구는 '个'의 기능적 의미를 나누거나 구문의 층차를 나누는 것으로 다양하지만 구문의 생성기제를 명사(N)의 확장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통일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도 구문생성에 있어 구성요소들의 변화가 중요한 기제중의 하나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단편적인 분석은 구문생성의 다양한 기제를 간과한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3) 刚从水里捞出来的pancake和炒鸡蛋。尝了一口，难以下咽，吃了个苹果就出门了。
(4) 男工小张买了 4 斤苹果，正在为斤两问题与卖主吵嘴时，同厂两女工也来买苹果，这两人二话没说，秤了 2 斤付钱就走，卖主趁机嘲笑道："一个大男人没人家小姑娘爽气！不就是多吃个苹果吗？"

* 서울대학교

(3)과 (4)의 V个N에 나타난 명사는 모두 개체명사 苹果(사과)로 동일하다. 그러나 (3)에서는 苹果(사과)에 대한 수량적 의미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수사 '一(일)'의 첨가 역시 자연스럽다. 또한 수량적 해석에 대한 의미변화를 고려한다면 '个'의 생략 역시 가능하다. 반면(4)에서는 수사 '一(일)'의 첨가와 '个'의 생략에 대한 원어민 화자의 의견이 분분하다.[1] 이를 통해 (3)과 (4)에 나타난 V个N은 표면적인 형식과 외연하는 의미는 같을지라도 서로 다른 화용적 문맥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명사범주의 확장만으로는 구문생성 기제를 설명해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문생성 기제를 기능적 의미와 화용적 의미 측면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2. V个N구문의 의미적 기제

V个N구문은 V一个N구문과 외연적 의미의 변별이 어렵다. 중국어에 후치하는 비한정명사구에서 비한정표지에 해당하는 '一个'는 종종 수사생략이 가능하다는 통사적 규칙에 의해 V(一)个N구문과 V个N구문이 형식적으로도 구별이 모호하다. 그러나 구문간의 차이는 비한정표지 즉 부정관사의 문법화로 인한 더 문법적인 의미의 함축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2]

2.1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一CL(一个)'의 문법화

하이네(1997:67)는 범언어적으로 부정관사를 사용하는 언어에서 부정관사는 대부분 수사 '하나one'에서 문법화 되어 왔는데 중국어의 '하나'라는 양화적 개념을 나타내는 '一个(一CL)'가 많은 문맥에서 부정관사의 기능을 갖는다는 점은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3] 이처럼 통시적 변화를 지닌'一个(一CL)'은 범언어적인 측면에서 부정관사의 보편적인 문법화 경로를 따르고 있다. 다음은 하이네(1997:71-73)가 제시한 부정관사의 문법화 단계이다.[4] 이는 통시적인 흐름을 나타내기도 하고 부정관사의 공시적 기능의 혼재를 의미하기도 한다.

1) 원어민 화자의 직관적 분석을 위해 간단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다음은 예문(4)의 분석을 위한 설문결과이다.
'一'첨가

첨가 할 수 없다	60%
첨가할 수는 있다	40%(첨가할 수 있지만 (4)문맥에서 부자연스럽다)

'个' 생략

个 의무적	80%
비의무적	20%(생략해도 되지만 (4)문맥에서 부자연스럽다)

2) Jinag(2012)는 '一+CL+N'과 'CL+N'은 '一'의 음성적 탈락에 의한 두 형식으로 실제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형식으로 논의하고 있다. Li & Feng(2015) 역시 두 형식을 음성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음성적 약화 및 탈락에 의한 형식으로 보고 있다. 반면 C & S(1999)은 중국어(Mandarine)와 광동어(contonese)의 'CL+N' 형식을 비교하여 논의하였는데 중국어(Mandarine)의 '一+CL+N'과 'CL+N'이 서로 다른 분포를 갖는다는 몇 가지 예를 들어 두 형식이 서로 독립적인 형식임을 주장하였다. 선행연구들의 상반된 입장은 수사의 부정관사로의 문법화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관점으로 통일될 수 있다.

3) 왕력(王力语言学词典,1995 : 248)은 중국어에서 일반적인 쓰임을 지닌 분류사 '个'는 '一'과 결합하여 '一个(一+CL)'를 이루어 五四 이후에 점점 부정관사의 성질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이때 '一个(一+CL)'는 구체적인 수량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하다. Li&T(1981:131-132)은 중국어에는 영어의 a(n)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었지만 점차 강세를 받지 않으면서 수사 '하나one'가 a(n)의 의미로 쓰이는 경향이 생겨났다고 하였다.

4) Heine(1997:73)는 중국어의 부정관사의 문법화정도를 4단계정도로 보았지만 본고의 입장은 5단계의 일반적인 부정관사의 기능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본다.

1단계: 수사(The numeral)
2단계: 제시적 표지(The presentative marker)
3단계 특정적 지시대상 표지(The specific marker)
4단계 비특정적 지시대상 표지(The nonspecific marker)
5단계 일반화된 관사(The generalized article)

1단계에서 2단계의 변화는 문법적인 의미의 함축이 이루어져 부정관사의 기본적인 기능이 생겨난 구간이라고 할 수 있다. 3단계와 4단계는 문법적인 의미가 탈색되고 더 문법적인 의미가 함축되는 구간으로 의미적 관계가 대립되는데, 이는 담화문맥 속에서 특정적인 의미를 부여받느냐에 따라 지시성(referentiality)과 비지시성(non-referentiality)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법화의 정도가 4단계 이상인 언어의 부정관사는 담화대상을 지시적으로 혹은 비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중국어도 문법화의 정도가 높은 언어에 속하며 이러한 의미적 대립을 갖는다.[5] 부정관사에 의한 지시성과 비지시성은 실현(realis)과 비실현(irrealis)에 의해 구분되어지기도 하는데 담화층위의 지시성은 범언어적으로 실현에서 고정적으로 실현된다. 반면 비실현에서는 지시성과 비지시성을 모두 함축할 수 있다.[6] 다음은 비지시성에 나타난 중국어 부정관사의 의미적 대립을 보여주는 예이다.

(5) “陪我去找个人！” “谁？” “一家姓迟的，叫ooo。”
(6) 妻的香水搞得我有点心神不定，很想找个人说说话，谁都好。

(5)와 (6)에서 ‘找个人’은 형식도 같고 명제적 의미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5)와 (6)에 나타난 ‘人’의 문법적 의미는 대립적이며, 이러한 중의성은 담화층위에서 해소된다. (5)에서 ‘人’은 담화 속에서 특정성을 부여받아 지시성을 내포하게 되며 이는 지시적(referring)으로 해석되고 있다. 반면 (6)에서 ‘人’은 담화층위의 특정성을 부여받지 않고 비지시성을 내포하며 속성적(attributive)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지시성과 비지시성의 의미적 차이는 양화적 의미를 함축할 수 있느냐 인데, (5)는 담화 속에 부여된 특정적 해석으로 수량적 의미를 보유하고 있지만 (6)에서는 수량적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법화에 따른 기능적 의미의 해석은 V(一)个N구문과 V个N구문의 구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V个N구문의 생성은 비실현(irrealis)에서 나타나는 비지시성이라는 의미적 기제를 따르게 된다.

2.2 V个N구문의 비지시성

전술했듯이 비한정명사구의 지시성과 비지시성의 중의성은 부정관사의 문법화정도와 관련 있다. 또한 화행측면에서 지시성과 비지시성의 의미적 대립은 담화문맥상에서 해소된다. 범언어적으로 담화층위에서 실현(realis)과 한정적 명사구에서는 지시성을 함축하게 되는데, 중국어에서 이러한 지시성을 지닌 명사구는 전용분류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5) 중국어의 ‘一个’는 굴절어에서 보이는 형태변화에 의한 음성적 소실과는 달리 수사 일의 생략으로 나타난다. 이는 동사 후치하는 비한정명사구에서 수사 ‘一’이 생략될 수 있는 통사적 환경으로 맞물려 V(一)个N구문과 V个N구문의 구분을 모호하게 한다.

6) Givon(2001:303~4)는 non-fact에서 NPs는 지시적(referring) 혹은 비지시적(non-referring)으로 해석되고, fact의 영역에서 명사구는 지시적으로만 해석된다고 하였다.
Fact: He has a dog. (a particular dog; Ref *any dog; Non-Ref)
Non-fact: He wants a dog. (a particular dog; Ref any dog; Non-Ref)

	수용도 높음	수용도 낮음
(7)	借了本专业书/那本书	借了个专业书/那本书
(8)	读了本老师写的书	读了个老师写的书
(9)	买了本书	买了个书

(7), (8)에서 专业书, 那本书, 老师写的书는 한정적 성분, 지시사의 수식 등으로 현저성이 높다. 이러한 명사구는 한정적 명사구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한정명사구는 지시성을 전제한다.[7] 또한 (9)에서 书는 비한정 명사구이지만 실현(realis)에서 발현되므로 지시성을 지니고 있다. 전술했듯이 지시적으로 해석되는 명사구들은 담화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양화적 의미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정보적 관점에서 두드러지지 않을 뿐이다. 반면 비지시성은 명사구의 속성적 해석을 유도하므로 수량을 전제할 필요도 없고, 상정해낼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지시성을 지닌 명사가 전용분류사를 채택하려는 경향은 역으로 V个N구문이 비지시성을 전제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3. V个N구문의 화용적 기제

V个N구문의 생성은 기능적 의미의 탈색과 함축 과정에 있기 때문에 외연(denotation)되는 의미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다만 구문생성의 요소인 화용적 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화용적 의미를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V个N구문은 VN구문과 명제적 의미가 같다(더 정확하게는 두 구문의 의미를 변별해내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구문은 화자에 의해 적절하게 선택되는데, 이는 각 구문이 서로 특정한 화용적 문맥을 갖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문맥적 분포를 고려해보면 두 구문이 교차되는 곳이 존재하지만 일치하지는 않는다.

선행연구에서 V个N구문의 화용적 의미는 주로 동작의 가벼움, 행위의 주관적 소량 등으로 해석된다(祈杰2009, 周艳清2009, 任鹰 2013). 또한 여숙상(1984:148)은 个의 기능 중 일부가 동작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고, 이때 동목구조는 숙어적으로 상당히 결합되어 있다고 하였다. 곡효여(2008:42) 역시 V个N구문이 동작행위의 전체과정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다. 본고는 선행연구의 V个N구문에 대한 직관적 분석을 토대로 화용적 기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3.1 상적 접근

Lindstedt(2001)는 진행상은 그 쓰임이 필수적이지 않아 덜 문법화되었다고 보았는데, 실제로 많은 언어에서 진행상은 표지 없이도 나타낼 수 있고, 중국어와 한국어도 이러한 언어에 해당한다.

(10) 你做什么呢？ (在)吃饭(呢) / *吃个饭 /

(10)은 상황적 맥락이 존재할 때 '吃饭'이 你做什么呢？의 대답으로 충분하다. 반면 '吃个饭'으로는 대답이 불가능하다. '吃饭'과 '吃个饭'이 나타내는 명제적 의미는 같을지라도 사건을 구성하는 방식이 다름을

7) Chen(2015:406)은 중국어에서 한정과 비한정을 나타내는 표지와 지시성과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Semantic Referential	Semantic Nonreferential
Definite	고유명사,대명사,지시사	+	-
Indefinite	一+CL+N, CL+N	+	+

알 수 있다. '吃个饭'은 전체적인 독립된 사건을 나타내므로 무표(unmarked)의 진행상으로 쓰일 수 없고 在, 呢와 같은 진행상 표지를 부가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문의 특성은 독립된 사건의 반복을 함의하는 습관성(habituality)과 복수성(pluractionality)으로 실현할 수 있다.

(11) 我在耕种菜园、土地时，常常带个粪筐。
(12) 妻子喃喃地说："一定要经常打个信 来！" 他点了点头。

(11)와 (12)은 常常, 经常 등의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와 함께 독립된 사건의 복수성을 함의하고 있다.

시간적인 형상에 따라 사태를 드러내는 방식이 다르다는 관점에서 V个N구문의 사건에 대한 해석이 드러난다. V个N구문은 VN구문과 달리 반복성을 나타내는 습관상으로는 실현가능하지만 진행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V个N구문은 사태의 연속적인 과정을 분절적으로 드러낼 수 없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구문적 의미를 전체사건의 발현으로 분석하고 있는 기존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다.

3.2 정보구조적 접근

V个N구문은 VN구문과 달리 분절적으로 초점을 나타내지 못하고 구문자체에 초점이 부여된다. 다음은 문답형식을 통해 두 구문의 초점에 관한 원어민화자의 직관을 분석한 것이다.

	(13)你写信还是寄信？（你写信还是写书？）	(14)你写什么？	(15)你做什么？
a.写信	100%	90%	10%
b.写个信			
a,b都可以		10%	90%

(13)은 대조초점, (14)는 논항초점, (15)은 문장초점을 변별하기 위한 물음으로 사용되었다. VN구문은 개별적 상황에서 V와 N이 초점으로 부각될 수 있고, VN을 포함한 문장초점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원어민 직관에 의거한 설문을 통해서 V个N구문은 문장초점만이 우세함을 알 수 있다.[8] 정보전달에 있어서도 V个N구문은 하나의 합으로 포장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분석 역시 V个N구문이 전체사건, 결합된 사건을 나타낸다는 기존견해와 관련 있음을 알 수 있다.

3.3 총칭성에 관한 접근

CL+N과 Bare Noun은 모두 비지시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속성적 해석이 가능하다. Bare Noun은 비지시성에서 총칭적 해석까지 가능한데 두 명사구의 이러한 차이는 V个N구문과 VN구문이 명제적 위치에 있을 때 공기하는 술어의 종류와도 관련된다. VN구문은 명제적 위치에서 개체층위술어(Individual-level predicates)와의 결합하여 총칭문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V个N구문은 개체층위술어와 공기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8) V个N구문의 정보구조적인 해석은 좀 더 구체적인 항목에서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다.

(16) 讨论会上通过的一项声明说，(吃饭/*吃个饭)是“人类的基本权利”
(17) (开空调/*开个空调)对身体不好
(18) 我最近没有时间(吃饭/*吃个饭)
(19) 北方人不习惯(吃面条/*吃个面条)

반면 V个N구문이 명제위치에 자리할 경우 (20),(21)와 같이 주관적 색채를 나타내며 상황에 따라 번복이 가능한 장면층위술어와 쉽게 공기함을 알 수 있다.

(20) 近些年，离个婚已不算什么了。
(21) 到了巴黎，他另找个仆人就是了

술어의 종류에 따라 만들어내는 문장의 특성은 비록 층차를 갖고 있지만 명제적 의미의 접근은 V个N구문이 나타내는 주관량, 주관적 해석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분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4 주관적 해석에 관한 접근

V个N구문은 대부분 VN구문으로 대체가능하다는 점에서 VN구문의 화용적 범위가 더 넓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 구문의 호환적 사용에 있어 나타나는 원어민화자의 수용도 차이는 두 구문의 화용적 층차를 짐작하게 한다. (22)~(24)는 V个N구문이 비교적 의무적인 문맥으로 ‘고작’, ‘기껏’ 정도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화자의 주관적 색채를 강하게 드러낸다.[9)]

(22) 男工小张买了 4 斤苹果，正在为斤两问题与卖主吵嘴时，同厂两女工也来买苹果，这两人二话没说，秤了 2 斤付钱就走，卖主趁机嘲笑道：“一个大男人没人家小姑娘爽气！不就是多吃个苹果吗？”
(23) 生活会的重要内容是开展批评和自我批评，但现在的党组织生活会基本没有这个内容，都是你好，我好，大家好，顶多提个 “希望”、“建议”。这怎么行？
(24) 另一种是多数人的意见，认为，潘纪根平时表现虽差，可也没违犯纪律，这次事故虽然严重，也带有偶然性，不能处分，顶多给个批评。

반면 (25),(26)과 같은 문맥에서는 个의 생략에 대한 수용도가 비교적 높다. 다시 말해 个가 생략되어도 문장의 의미관계나 내포적인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25) 比如扫个地，没有扫帚总不行吧；劈个柴，没有柴刀总不方便吧。
(26) 他不小心从高处摔下来导致脊椎错位，现在什么也做不了，只能乖乖躺在床上，连翻个身都是不允许的。

4. 결론

새로운 구문의 생성은 구성요소들의 변화의 합이라는 전제하에 V个N구문의 생성기제를 살펴보았다. ‘一CL(一个)’의 양화적 의미에서 부정관사로의 문법화는 범언어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경로를 따르고 있는데 중국어는 부정관사의 문법화가 높은 언어에 속한다. 높은 문법화를 보이는 언어에서 부정관사가 나

9) 이러한 구문적 의미는 V个Num구문과 유사하다.

타내는 명사구의 문법적 의미는 중의적이다. 비지시성은 V个N구문 생성의 의미적 기제로 작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근거로 지시성을 함축하고 있는 문맥에서는 비교적 전용 분류사가 선택되는 경향이 있다.

의미적 변화는 독립된 화용적 틀에 적용되는데 VN구문과 비교를 통해 V个N구문의 고유한 화용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V个N구문은 시간적 구성에서 사태를 나타내는 방식에 있어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구문전체를 합으로 정보를 포장하게 되고 이는 문장초점으로 드러난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들에서 V个N구문이 전체사건, 혹은 결합된 사건 관련이라는 해석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될 수 있다. 또한 V个N구문은 명제적 위치에서 술어와 공기할 때 개체층위술어와 공기하는데 제약이 따르며 총칭문을 만들 수 없다. 이는 주관적 해석, 혹은 주관량에 관한 기존견해에 대한 근거로 볼 수 있는데, V个N구문의 화용적 층차로 미루어볼 때 V个N구문의 사용이 비교적 의무적인 문맥에서는 '고작', '기껏' 정도의 의미로 해석되며 화자의 주관적 감정색채가 강하게 드러난다.

현대중국어 ‘V在(到)一起’ 구문 연구*

김승현**

<目 次>

1. 서론
2. ‘V在一起’ 구문의 통사・의미 특징
3. ‘V到一起’ 구문의 통사・의미 특징
4. ‘V在一起’와 ‘V到一起’ 구문의 인지적 분석
5. ‘V在(到)一起’와 ‘一X’의 통시적・공시적 발전 기제
6. 결론

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현대중국어 ‘V在(到)一起’ 구문의 전반적인 고찰을 통해 ‘V在(到)一起’ 구문의 어법특징과 형성 기제를 밝히는 데 있다.

현대중국어에서 ‘一起’는 흔히 한국어의 ‘함께’ 혹은 ‘같이’라는 의미로 주로 동사 앞에서 부사로 사용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一起’는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할 수 없다.

(1) 薛崇简与李隆基此时并排站在一起。
(薛崇简과 李隆基는 이 때 나란히 한데 서 있었다.)
(2) 我们把各自的行李搬到一起，组成了一个只有一间房子的家。
(우리는 각자의 짐을 한데 옮겼고, 한 칸의 방만 있는 집을 만들었다.)

예문(1), (2)의 ‘一起’는 ‘V在’, ‘V到’ 뒤에서 ‘한데’, ‘한곳’, ‘같은 공간’의 공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빈어로 사용되었고, 부사 용법이 아닌 명사 용법으로 사용되었다.[1] 흥미로운 점은 아래 예문과 같이 ‘V在’, ‘V到’ 뒤에서 ‘一起’ 외에 다양한 ‘一X’가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我真愿和你们住在一块儿。
(나는 정말 너희와 한데 같이 살고 싶다.)
(4) 我们兄弟生在一块，死在一处。
(우리 형제들은 한곳에서 함께 살고, 함께 죽자.)

그렇다면 ‘V在一起’와 ‘V到一起’ 구문은 현대중국어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떤 통사・의미 특징을 나타낼까?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떤 인지적 특징이 있을까? ‘V在’, ‘V到’ 뒤의 ‘一X’구성원(‘一起’, ‘一块儿’, ‘一堆’, ‘一处’)은 ‘一起’와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본고는 이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V在

* 발표문은 박사 학위 논문 ≪현대중국어 ‘V在(到)一起’ 구문 연구≫(2017)을 요약하였다.
** 現 경희대학교 강사.
1) ‘一起’의 명사적 용법은『现代汉语词典』(第六版, 2012:1527),『现代汉语八百词』([1980]1984:533-534) 참고.

(到)一起' 구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V在一起' 구문의 통사·의미 특징

본 장에서는 'V在一起' 구문에 대한 통사·의미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V'의 의미 특징과 'V在一起' 구문의 의미, '在'의 어법특징, '一起'의 의미 특징 등을 논의하겠다. 또한 '在一起V'구문과의 비교를 통해 'V在一起' 구문이 가지는 의미 특징을 좀 더 명확히 규명하겠다.

2.1 'V在一起'의 동사 분포와 구문의 의미

'V在一起'의 말뭉치 분석을 통하여 동사의 출현빈도와 분포를 분석한 결과,[2] 누적비율 70% 이상의 동사는 40개였고, zipf의 그래프 형태를 나타내었다.[3] 본고에서는 'V在一起'의 동사 의미특징을 의지성에 따라 구분하였고, 구문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귀납하였다.

〈표1: '在一起V' 구문과 'V在一起' 구문의 비교〉

의지성[4]	동사	'V在一起'의미	분포
의지 동사 [+意志] [+动作]	a. 走, 搞, 玩, 打, 鬪, 拉, 扭打, 坐, 站, 住, 挂, 放, 贴, 联繫, 结合, 聚, 摆	동작참여자가 동작 완성 후 같은 공간에서 상태를 지속하다.	89%
비의지 동사 [-意志] [+变化] [+属性]	b. 碰, 撞, 倒, 落, 相遇, 对撞, 接触	동작참여자의 순간 동작 후 같은 공간에 위치하다.	3%
	c. 死, 生, 出现, 发生, 长, 纠缠, 重合	동작참여자가가 같은 공간에서 상태 변화가 발생하다.	8%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V在一起' 구문에는 의지동사가 많이 출현하였고 기본적으로 '동작 완료 후 상태 지속'을 나타내고 있었다.

2.2 '在'의 통사적 특징과 '一起'의 의미 특징

'V在一起' 구문에서 '在'는 동사 뒤 보어로 기능하고 'V在'의 동보구조가 빈어 '一起'와 결합하여 술빈구조를 이룬다.[5] 말뭉치 조사 결과, 'V在一起'구문에 동태조사 '了'가 'V在' 뒤에 위치하는 경우를 종종

2) 본고에서 활용한 BCC말뭉치는 북경어언대학교 현대중국어 코퍼스로 총 150억자를 보유하고 있다. BCC 는 报刊(20억자), 文学(30억자), 微博(30억자), 科技(30억자), 综合(10억자), 古汉语(20억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언어자료를 검색할 수 있다. 통시적 언어 자료를 검색할 때 북경대학교 중국언어학 연구중심에서 개발한 CCL말뭉치를 활용하였다.

3) 이는 'V在一起'에 출현하는 동사가 높은 빈도를 보이는 동사는 자주 출현하지만 낮은 빈도를 보이는 동사는 드물게 출현한다는 경향성을 나타낸다.

4) 의지성에 따른 동사 분류는 马庆株(2005:227) 참조.

5) 胡裕树·范晓(1996), 서희명(2005), 송영규(2013) 등은 '동사+개사+NP'의 층차는 '동개식+NP'이고 개사는 동사 뒤에 붙어서 하나의 총체가 되며 하나의 동사에 준한다고 하였다. 이들 역시 뒤의 장소나 공간을 나타내는 'NP'는 빈어로 본다. 한편, 谷向伟(2007)은 '在'는 부가성분에 속하며 'V在'가 동보구조를 이루고 뒤에 오는 'NP'는 장소빈어라 하였다. 이들 학자들의 '在'의 품사 규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동사 뒤의 '在'가 앞 동사와 결합하려는 성질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보인다.

발견할 수 있었는데 ‘V在了一起’에 사용되는 동사는 총 290개가 출현하였고, 일음절 동사가 이음절 동사보다 더 자주 출현하였다. ‘V在了一起’를 읽을 때는 ‘了’ 뒤에 휴지를 두어 ‘V在了/ 一起’로 읽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러한 현상들은 ‘在’가 앞의 동사와 결합하려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구문에서 ‘一起’는 복수 개념을 내포한 추상적 공간개념의 명사로, ‘V在一起’ 앞에 출현하는 행위자나 대상은 복수개념을 내포하거나 복수형식으로 쓰인다. 즉 문장에서는 ‘NP(pl)+V在一起’ 혹은 ‘NP1和(與, 跟) NP2 +V在一起’형식으로 종종 사용된다. ‘一起’의 공간은 기본적으로 동작참여자가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간적 일치성의 개념을 갖는다.[6)]

2.3 ‘在一起V’과 ‘V在一起’ 구문의 비교

본고에서는 ‘V在一起’ 구문의 특징을 확인하고자 ‘在一起V’와의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표2: ‘在一起V’ 구문과 ‘V在一起’ 구문의 비교〉

구분	‘在一起V’	‘V在一起’
1. 기본 의미	같은 공간에서 동작참여자의 동작 행위가 지속됨([-결과], [+동작], [+지속])	동작참여자의 동작을 통해 같은 공간에 처하거나 위치함([+결과], [+상태], [+지속])
2. 동작참여자 NP	[+유생](구체적 동작 행위자)	[±유생]
3. 一起	구체적인 동작 활동 공간	구체적 / 추상적 공간
4. 동사의 내부구조	다양한 합성어, 동사구 결합	합성어, 동사구 결합에 제한
5. 동사 뒤 보충	보충성분 결합 있음	보충성분 결합 없음
6. 설문조사 결과[7)]	동태성이 강함	정태성이 강함
7. 정보구조와 초첨	‘연결부-초점부’ 혹은 ‘연결부-초점부-꼬리부’로 구성	일반적으로 문장의 초점부

3. ‘V到一起’ 구문의 통사・의미 특징

다음으로 ‘V到一起’ 구문에 대한 말뭉치 분석을 통해 동사의 의미 특징, ‘到’의 통사적 특징, ‘V到一起’ 구문의 의미 특징을 살펴보겠다.

3.1 ‘V到一起’의 동사 분포와 구문의 의미

본고는 말뭉치 분석을 통해 ‘V到一起’구문의 동사 분포를 확인한 결과, ‘走’, ‘凑’, ‘聯繫’, ‘聚’, ‘扯’, ‘拉’ 등 32개의 동사들이 누적비율 70%이상을 차지하였다. ‘V到一起’ 구문은 기본적으로 ‘동작참여자가 어떤 동작을 통해 ‘같은 공간(一起)’이라는 종점으로 도달하다’라는 의미를 갖으며 [+결과], [+이동], [+도달]의 의미 특징을 갖는다. 본고는 ‘V到一起’에 출현하는 334개의 동사를 이동동사와 비이동동사로 분류한 결과[8)], 비이동동사의 ‘집합’류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가 제일 많이 분포하였는데 이는 ‘一起’의 영향을 받

6) ‘一起’의 공간 개념에 대한 내용은 강병규(2008:40) 참조.
7) ‘在一起V’ 구문과 ‘V在一起’ 구문의 동태성과 정태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중국인 화자 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중국인 화자의 성별은 남성 4명, 여성 10명, 출신지역은 북방출신 10명, 남방출신 4명, 전공은 어법전공자 5명과 비어법전공자 9명으로 구성되었다.
8) 본고는 张斌(2000:158-159), 陆俭明(2002:7), 曾海清・史国东(2009:96) 등의 이동동사의 정의 및 이동성에 따른 의미특징

아 '둘 이상의 구성원이 한 공간에 이르러 모이다(연결되다, 섞이다)'의 '집합'류 동사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표3: 'V到一起' 구문의 동사 분류〉

구분	이동동사			비이동동사				
예	走, 跑	搬, 拿	叫, 撞	坐, 住	玩, 鬪	放, 寫	聚, 連接	說, 想
의미 특징	[+자립 이동] [-상태] [+지향]	[-자립 이동] [-상태] [+지향] [+수반]	[-자립 이동] [-상태] [+지향] [-수반]	[-자립 이동] [+상태] [+자세]	[-자립 이동] [+상태] [+동작]	[-자립 이동] [+상태] [+부착]	[-자립 이동] [+상태] [+집합]	[-자립 이동] [+상태] [+감각 인지]
통계	6.9%	8.3%	17.9%	2.4%	15.5%	4.8%	40.9%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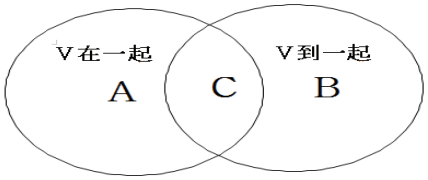
3.2 '到'의 통사적 특징

'V到一起' 구문에서 개사 '到'는 동사 뒤의 결과보어로 사용되고, '一起'는 빈어로 사용되어 술빈구조를 이룬다.[9] 말뭉치 조사 결과 동태조사 '了'는 종종 'V到'의 뒤에 서 사용되었는데 'V到了一起'에 출현하는 일음절 동사는 이음절 동사보다 더 많이 분포하고, 발음의 휴지는 'V到了/一起'가 'V/到了一起'보다 훨씬 자연스럽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보아 개사 '到'는 앞의 동사와 긴밀한 관계가 있고, 앞의 동사와 결합하려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파악된다.

3.3 'V到一起' 구문과 'V在一起' 구문의 비교

여기에서는 'V在一起'와 'V到一起'에 출현하는 동사 비교를 통해 두 구문을 비교하겠다.

〈그림 1〉 'V在一起'와 'V到一起'의 동사 비교



1) A: 말뭉치에서 'V在一起'에만 출현하는 동사는 546개이고,[10] 'V在一起' 구문에만 출현하는 동사는 보통 상태성이 강한 동사가 많으며 일부 상태변화 동사와 동작 동사들이 있다. 상태성이 강한 동사는 '躺, 待, 呆, 相處, 蹲, 居住, 立, 站立' 등이 있고,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는 '生活, 生, 生長, 發生, 活'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상태성이 강한 동사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가 'V到一起'에서 사용이 어색하거나

분류를 참고하여 'V到一起' 구문에 출현하는 동사를 분석하였다.

9) 胡裕树(1992), 胡裕树・范晓(1996)에서는 '在', '向', '于', '到', '给', '自' 등의 개사가 동사 뒤에 와서 앞의 동사와 총체를 이루며 'V+到'가 하나의 총체를 이룬다고 보았다. 박정구(1997)는 V到NP구문은 동사와 개사구가 결합된 것이고, 문법적으로 [vp V [pp P NP]] ⇒ [vp [v V- P] NP]의 재분석 과정을 통해 동사와 개사가 하나의 동사로 기능한다고 하였다. '到'의 품사 규정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동사 뒤의 '到'가 앞 동사와 결합하려는 성질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보인다.

10) BCC말뭉치에서는 'V在一起'에 출현하는 동사가 총 840개, 'V到一起'에 출현하는 동사가 총 334개로 분석되었다. 이 두 구문에 출현하는 동사의 개수는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현대중국어에서 'V在一起' 구문의 사용이 'V到一起'보다 훨씬 많음을 의미한다.

잘 쓰이지 않는 이유는 동사 뒤 '到'의 영향으로 동작의 결과로 어떤 장소에 도달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11]

2) B: 말뭉치에서 'V到一起'에만 출현하는 동사는 40개이고, 'V到一起' 구문에는 이동성이 강한 동사들이 기본적으로 '到'와 잘 결합하고 있었다. 말뭉치 조사 결과, B에만 출현하는 동사는 이동성이 강한 동사이며 '运, 传送, 迁, 搬运, 奔, 挪, 领, 划归, 划拉, 驱逐' 등이 있다.

3) C: 두 구문에 모두 출현하는 동사는 294개이다. 먼저 (1) '住, 坐, 站, 贴, 堆, 死' 등의 상태성이 강한 동사, (2) '走, 召集, 叫, 搬, 牵扯, 跑, 冲, 拉' 등의 이동성이 강한 동사의 경우가 있다. (1), (2)의 동사는 모두 두 구문에 출현할 수 있지만 (1)의 경우 'V在一起' 구문에 더 많이 출현하고, (2)의 경우 'V到一起' 구문에 더 많이 출현한다. 다음으로 (3) '집합'류 의미의 동사가 두 구문에 종종 출현하여 '같은 공간에 모이다', '같은 공간에서 서로 연결되다', '같은 공간에서 섞이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3)의 동사는 'V在', 'V到' 뒤의 빈어 '一起'와 호응하기 위해 종종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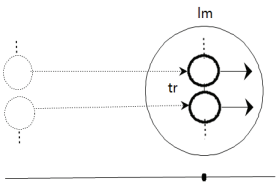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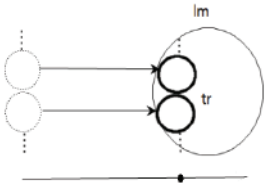
4. 'V在一起' 구문과 'V到一起' 구문의 인지적 분석

본 장에서는 'V在一起' 구문과 'V到一起' 구문의 인지적 공통점과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영상도식, 주사방식, 타동성의 관점에서 인지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4.1 영상도식과 주사방식

다음은 두 구문의 영상도식과 주상방식을 비교한 내용이다.

〈표 4〉 영상도식과 주사방식 차이

구분	'V在一起'	'V在一起'
영상도식		
	경로+그릇도식(정적)	경로+그릇도식(동적)
주사방식	요약주사(정적인 위치, 상태 부각)	요약주사(이동방향과 도달점 부각)

4.2 타동성

여기에서는 두 구문의 타동성을 살펴보겠다.[12] 타동성 분석 결과, 'V到一起'구문이 상적인 부분에서 'V在一起'보다 타동성이 더 높았는데, 결과보어 '到'의 영향으로 동작의 완료성과 사건의 종결성이 명확하였다. 두 구문의 타동성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1) 이 구문에만 출현하는 동작 동사는 '偎, 裹, 咬, 偎依, 合葬, 钉' 등이 있다.

12) 본고에서는 행위자와 대상의 타동성은 키틸래(2002)와 내스(2007)의 최대 구별 논항 가설을 참고하여 분류하고, 동사의 타동성과 상에 대한 분석은 호퍼 & 탐슨(1980), 이지현(2010), 이금희(2011)를 참고하였다.

〈표 5〉 'V在一起'구문의 유형과 타동성

타동성 자질		행위자주어문	대상주어문	把자문	
				행위자	대상
1. 의지성		+	-	+	-
2. 의도성		+	-	+	-
3. 통제성		+	-	+	-
4. 피영향성		-	+	-	+
5. 유생성		(+)	(+)	(+)	(+)
6. 한정성		(+)	(+)	(+)	(+)
7. 통사적 무거움		(+)	(+)	(+)	(+)
8. 동작성		(+)	(+)	(+)	
9. 상	동작 완료	(+)	(+)	(+)	
	종결성	-	-	-	
10. 순간성		(+)	(+)	(+)	

〈표 6〉 'V到一起'구문의 유형과 타동성

타동성 자질		행위자주어문	대상주어문	把자문	
				행위자	대상
1. 의지성		+	-	+	-
2. 의도성		+	-	+	-
3. 통제성		+	-	+	-
4. 피영향성		-	+	-	+
5. 유생성		(+)	(+)	(+)	(+)
6. 한정성		(+)	(+)	(+)	(+)
7. 통사적 무거움		(+)	(+)	(+)	(+)
8. 동작성		+	+	+	
9. 상	동작 완료	+	+	+	
	종결성	+	+	+	
10. 순간성		+	+	+	

5. 'V在(到)一起'와 '一X'의 통시적·공시적 발전 기제

본 장에서는 'V在(到)一X' 구문에 출현하는 '一起', '一块儿', '一堆', '一处'를 중심으로 통시적, 공시적 사용을 살펴보고 이들의 출현 기제를 분석하겠다.

5.1 통시적 발전 기제

먼저 'V在(到)一X' 구문의 통시적 변천 과정을 살펴본 결과, '一X'구성원의 기원은 차이를 보였지만, 서로 영향을 받으며 어법화 과정을 겪었다. '一起'는 다른 '一X'구성원과 달리 그 기원은 동사구에 있었지만 이후 수량구로 사용되었고 어휘화 과정을 통해 명사가 된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부사로 어법화가 이루어졌다. '一处'는 수량구에서 명사로 어법화가 이루어졌지만 부사의 기능어로는 어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一处'가 '一起'보다 먼저 '在'와 결합하여 동사의 앞과 뒤에 사용되고 있었고, '一起'가 잘 사용되지 않던 명·청대 전 시기에 활발히 활동을 하였다. 이로 미루어보아 '一起'와 '在'의 결합과정에 '一处'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一块儿'은 '一起'와 함께 동일한 어휘화를 겪었으며 부사로 어법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기능적으로 '一块儿'은 구어에서, '一起'는 문어와 구어에서 모두 사용되고 있었다. 한편, 이들 중 '一堆'는 어법화 정도가 제일 느슨하였다.

본고에서는 '一X'구성원에 작용한 어휘화와 어법화 원리를 층위화와 탈범주화, 의미지속성의 3가지로

설명하였다. 아울러 ‘V在(到)一X’ 구문의 형성에 통시적으로 재분석, 유추, 은유의 기제가 작용함을 밝혔다. 한편, ‘V在(到)一起’ 구문의 재분석 과정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었는데, 동사구→수량구→명사→부사 중 동사구에서 수량구로 사용되면서 융합 과정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개사 ‘在(到)’와 결합을 할 때 ‘V+[在+一起] ⇒ [V在]+一起’로의 재분석 과정, ‘一起’가 부사로 사용될 때 ‘[N+一起]+VP ⇒ N+[一起+(VP)]’의 재분석 과정이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본고에서는 ‘一起’와 ‘一处’, ‘一起’와 ‘一块儿’, ‘一堆’의 관계에 있어서 유추가 작용하고 있음을 살펴보았고, ‘一X’의 어법화 과정에서 구체적 의미에서 추상적의 미로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은유가 작용하였음을 밝혔다.

5.2 공시적 발전 기제

본고에서는 ‘V在(到)’뒤에서 출현하는 ‘一X’를 중심으로 공시적 사용 양상을 살펴본 결과, ‘一起’가 제일 많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었고, 다른 구성원들보다 경쟁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들의 빈도를 살펴보면, ‘V在一X’ 구문에서는 ‘一起’>‘一处’> ‘一块儿’> ‘一堆’의 순서, ‘V到一X’ 구문에서는 ‘一起’>‘一块儿’>‘一处’>‘一堆’>순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V在一X’, ‘V到一X’구문이 공시적으로 출현하게 된 기제를 구문문법의 구문의미 형성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V在一X’와 ‘V到一X’구문이 하나의 구문으로서 형성되고, 상속과 강요의 기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즉 ‘V在一X’와 ‘V到一X’ 구문의 형성이 ‘V在NL’과 ‘V到NL’의 구문에서 각각 부분 상속을 받은 것으로 보았고, ‘V在’와 ‘V到’ 뒤에서 사용될 때 ‘一’의 어휘강요로 인해 ‘一X’가 전체성을 갖고 공간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6. 결론

본고는 말뭉치 분석, 의미 특징 분석, 인지적 분석, 공시와 통시적인 고찰 등 다각도의 분석을 진행하여 ‘V在(到)一起’ 구문의 어법특징과 그 형성 기제를 분석하였다. 먼저 ‘V在一起’ 구문의 통사·의미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동사의 의미 특징과 구문의 의미, ‘在’의 통사 특징, ‘一起’의 의미 특징과 ‘NP’와의 관련성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V到一起’ 구문의 통사·의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동사의 의미특징과 구문의 의미, ‘到’의 통사 특징을 분석하고 ‘V在一起’ 구문과 비교하였다. 이 외에도 인지어법의 다양한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두 구문의 인지적 특징을 분석하고 공통점과 차이점, 통시적·공시적 발전 기제를 밝혔다.

현대 중국어 방향표지구문 연구

— '向/往/到+DP'구를 중심으로*

이정인**

<目 次>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론
1. 구(Phrase)의 도출
2. 사건의미
3. 의미역
4. 구(Phrase)의 전환가능
Ⅲ. 맺는 말

Ⅰ. 들어가는 말

본고는 현대 중국어 '向/往/到+DP'로 구성된 '向/往/到+DP+VP'구와 'V向/往/到+DP'구에 대해 생성문법 관점으로 통사구조를 고찰하였다. 두 방향표지구는 구의 도출, 구의 유형, 사건경동사에 의한 사건의미와 매개기능경동사의 논항인 DP의 의미역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2장에서는 '向/往/到+DP'로 이루어진 방향표지구 성분의 이해를 돕고자 선행 연구자들의 경동사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또한 '向/往/到'의 기본 개념과 두 구에서의 경동사적 근거를 제시하였고, 매개기능경동사를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사용될 DP와 V의 개념을 설명하였다.

Ⅱ. 본론

3장에서는 '向/往/到+DP+VP'구를 분석하였고, 4장에서는 'V向/往/到+DP'구를 분석하였다. 3, 4장의 비교 분석결과는 구의 도출, 구의 유형, 사건의미, 'DP'의 의미역 순으로 다음과 같다.

1. 구(Phrase)의 도출

'向/往/到+DP+VP'구와 'V向/往/到+DP'구의 기본형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경동사를 두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사건경동사 영역과 매개기능경동사 영역이다. 매개기능경동사구(Medv̥P)는 논항구조(VP)와 사건구조(vP)의 중간영역으로서 VP의 V와 달리 기능적 성

* 이 논문 제목은 본 연구자가 2019년 2월에 박사학위(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를 취득한 논문이다. 한국중어중문학회가 2019년 4월 27일(토) 숭실대학교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본 연구자는 신진연구자로서 박사학위 논문의 6장 결론(이정인(2019:320-331)) 부분 중 일부를 발췌하여 원문 그대로 옮겼으며, 논문의 흐름을 위해 목차만을 별도 제시하고 있다. 이런 까닭으로 본 연구자는 이 논문이 단지 학술대회 참여자와 함께 소통하기 위한 발표논문의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밝힌다.(표 번호 수정)

** 한국외국어대학교 시간강사

격을 가지고는 있으나 아직 완전하지 않은 사건을 나타낸다. 매개기능경동사구(MedvP)는 '向/往/到+DP+VP'구에서 부가어(adjunct)를 담당하고, 'V向/往/到+DP'구에서 비필수논항을 기본 논항으로 전환해주는 역할을 한다.

'向/往/到+DP+VP'구와 'V向/往/到+DP'구의 기본형 도출은 각각 아래와 같다.

$[_{vP}\ Spec_k[_{v'}\ \underline{Adjunct[_{MedvP}\ e[_{Medv'}\ [向/往/到_j]_{Medv}\text{-}TOWARD/TO[_{VP}\ [_{V'}\ t_j[DP]]]]]}\ [_{v'}\ [V_i]\text{-}v[_{VP}\ t_k[_{V'}\ t_i[Compl]]]]]]]$

$[_{vP}\ Spec_k[_{v'}\ [V_i\text{-}\underline{向/往/到_j}]\text{-}v[_{MedvP}\ t_k[_{Medv'}\ Medv[t_i\text{-}t_j][_{VP}\ DP[_{V'}\ t_i[t_k]]]]]]]$

2. 사건의미

'向/往/到+DP+VP'와 'V向/往/到+DP'의 사건의미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래는 사건의미에 대한 종합 비교분석표이다.

〔표1〕 사건의미 비교표

구/사건의미	BE	DO	BECOME	CAUSE-BECOME
向/往/到+DP+VP				
向+DP+VP	4.5%	75.5%	14.5%	5.5%
往+DP+VP	0%	56.4%	19.2%	24.4%
到+DP+VP	1.6%	74.3%	14.5%	9.5%
V向/往/到+DP				
V向+DP	0%	0%	63.6%	36.4%
V往+DP	0%	0%	71.3%	28.7%
V到+DP	0%	0%	71.5%	28.5%

'向/往/到+DP+VP'는 BE, DO, BECOME, CAUSE-BECOME에 의한 사건의미가 모두 나타난다. DO는 '向(75.5%) > 到(74.3%) > 往(56.4%)'이고, BECOME은 '往(19.2%) > 到(14.5%) = 向(14.5%)'이고, CAUSE-BECOME은 '往(24.4%) > 到(9.5%) > 向(5.5%)'이고, 마지막으로 BE는 '向(4.5%) > 到(1.6%) > 往(0%)'으로 나타난다. 이런 결과는 '向'이나 '到'는 자발적 동작 및 행위를 하는 행위자 위주의 사건의미에 빈번히 나타남을 말한다. 반면 '往'은 비자발적인 경험자나 대상자들이 동작이나 행위를 겪게 되는 사건의미에 주로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往'은 '向/到'보다 이동체를 옮기는 전이성 이동 사건의미인 BECOME이나 CAUSE- BECOME이 높고, 사건 BE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동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유추될 수 있다.

한편, 'V向/往/到+DP'는 'V向/往/到'의 통사적 구 도출에 의해 결과성 사건의미인 BECOME, CAUSE-BECOME만이 나타난다. BECOME은 '到(71.5%) > 往(71.3%) > 向(63.6%)'이고, CAUSE-BECOME은 '向(36.4%) > 往(28.7%) > 到(28.5%)'로 나타난다. 'V向/往/到+DP'에서 BECOME은 피험자나 대상자가 경험자 또는 대상자가 되는 경우, 행위자가 경험자가 되는 경우로 구분이 되는데, 상기 결과에서 '向'이 두 방면에서 '到'와 '往'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이성은 '往'과 '到'보다는 낮기 때문에 사역성 사건의미를 통해 전이성을 나타내야 하므로 CAUSE-BECOME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 유추가 가능한 것은 2장 동사의미분류표를 참고 했을 때, '向'은 본래 자발적 행위자 위주의 사건의미에서 경험자 위주의 사건의미로 전환되면서 행위성 양태를 제외한 약 40% 해당되는 약위치이동성 동사들이 강위치이동 동사의 방식성, 단순성, 순간성 순으로 분산되었다. 그러나 '往'은 약 7%, 到는 약 12%정도만 강위치이동동사로 전환되고 있다. 동시에 '向'은 전이성이 9%로 가장 낮고, '往'은 21.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到'는 여전히 행위성 양태가 30.7%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까닭이다.

두 구에 대한 상기 사건의미의 종합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의미를 고찰

하였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가) 사건의미 BE는 '向/到+DP+VP'에서만 나타난다. 심리, 소유 및 존재를 나타내는 2항 비능격동사가 사용된다.

나) 사건의미 DO는 '向/往/到+DP+VP'에서만 나타난다. 1항, 2항, 3항 비능격동사와 비대격 동사가 각각에 사용된다.

다) 사건의미 BECOME은 '向/往/到+DP+VP'와 'V向/往/到+DP' 모두에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경험자나 대상자가 주격을 받게 되는 구조로 결과나 변화를 나타낸다. 이 구조에서는 2항(존현), 3항 비대격동사 이외에 모든 동사들이 다양하게 출현한다. 비대격동사구문과 수동문으로 구분되고 그 차이는 다음 표와 같다.

먼저, 비대격구문에서 주격이 되는 구성소는 아래 표와 같다.

〔표2〕 비대격구문의 주격 비교표

'向/往/到+DP+VP'			
동사분류	向+DP+VP	往+DP+VP	到+DP+VP
1항 비대격			VP 지정어
	VP 보충어	VP 보충어	VP 보충어
1항 비능격(비대격화:流, 飞)	VP 보충어	VP 보충어	
1항 비대격(기동동사:沉, 开)	VP 보충어	VP 보충어	VP 보충어
'V向/往/到+DP'			
동사분류	'V向+DP	V往+DP	V到+DP
1항 비대격	VP 보충어	VP 보충어	VP 보충어
1항 비능격(비대격화:流, 飞)	VP 보충어	VP 보충어	VP 보충어
1항 비대격(기동동사:沉, 开)	VP 보충어	VP 보충어	VP 보충어

'到+DP+VP'에서 VP의 지정어가 주격이 되는 경우는 V가 '발생과 도달'의 '出现, 有了, 有' 등의 1항비대격동사들이다.

다음으로 수동문에서 주격이 되는 구성소는 아래 표와 같다.

〔표3〕 수동문의 주격 비교표

'向/往/到+DP+VP'				
수동문	분류	向+DP+VP	往+DP+VP	到+DP+VP
유표지	장거리	VP 보충어	VP 보충어	
	단거리	VP 보충어	VP 보충어	
무표지	2항 비능격			VP 지정어
	2항 비능격	VP 보충어	VP 보충어	VP 보충어
'V向/往/到+DP'				
수동문	분류	V向+DP	V往+DP	V到+DPP
유표지	장거리	VP 보충어	VP 보충어	VP 보충어
	단거리	VP 보충어	VP 보충어	VP 보충어
무표지	1항 비능격	Medv̩P 지정어	Medv̩P 지정어	Medv̩P 지정어
	2항 비능격	Medv̩P 지정어	Medv̩P 지정어	Medv̩P 지정어
	2항 비능격	VP 보충어	VP 보충어	VP 보충어

'到+DP+VP'에서 V가 2항 비능격동사들 중 '做, 当, 作' 등일 경우, 일반적으로 유정명사들은 VP Spec에 오며 최종적으로 주격을 받는다. 'V向/往/到+DP' 무표지 수동문에서 Medv̩P의 Spec이 주격이 되는 경우는 V가 1항, 2항 비능격동사로 이루어진 수동문인 경우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向/往/到+DP+VP'와 'V向/往/到+DP'의 사건의미 BECOME에 대한 분석은 전통문법에서처럼 유표지성 피동문에 국한되지 않고, 무표지성의 수동문 및 비대격구문을 통해서 동사의 논항과 관련하여 전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라) 사건의미 CAUSE-BECOME은 '向/往/到+DP+VP'와 'V向/往/到+DP' 모두에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원인자 또는 원인자와 관련된 의미역들이 사건에 주된 참여자가 되어 원인과 결과를 이룬다. 이 사건의미는 사역경동사(把, 让, 令, 叫 등)의 유무에 따라 유표지성과 무표지성으로 나눈다.

먼저, 유표지성 CAUSE-BECOME의 분석은 아래와 같다.

〔표4〕 유표지성 CAUSE-BECOME 비교표

'向/往/到+DP+VP'			
유표지성 유형	向+DP+VP	往+DP+VP	到+DP+VP
①A+把+B+向/往/到+DP+VP	+	+	
②A+向/往/到+DP+把+B+VP	+		+
③A+使/让/令/叫+B+向/往/到+DP+VP	+	+	+
④A+사역동사+B+向/往/到+DP+VP	+	+	+
⑤A+使/让/令/叫+B+把+C+向/往/到+DP+VP	+	+	
⑥A+사역동사+B+把+C+向/往/到+DP+VP	+	+	
'V向/往/到+DP'			
유표지성 유형	V向+DP	V往+DP	V到+DP
⑦A+把+B+V向/往/到+DP	+	+	+
⑧A+使/让/令/叫+B+V向/往/到+DP	+	+	+
⑨A+사역동사+B+V向/往/到+DP	+	+	+
⑩A+使/让/令叫+B+把+C+V向/往/到+DP	+	+	+
⑪A+사역동사+B+把+C+V向/往/到+DP	+	+	+

[표4]에서 '向/往/到+DP+VP'는 상기 유표지성 유형에 대부분 가능하나, 몇몇 유형은 발견되지 않는다. '①, ⑤, ⑥'은 '到+DP+VP'에서, ②는 '往+DP+VP'에 없는 구조들이다. 반면, 'V向/往/到+DP'는 모든 유표지성 유형이 가능하다. 그리고 두 구 모두 '使/让/令/叫'나 사역동사가 사역경동사 '把'와 함께 사용되는 사역성 구조(⑤, ⑥, ⑩, ⑪)에서 '把'는 사역성 기능뿐만 아니라 타동적 성질을 통사적으로 여전히 발휘하고 있다. 그래서 ⑤, ⑩에서 A는 직접원인자, B는 간접원인자가 되고, ⑥, ⑪에서 B는 간접경험자, C는 직접경험자로 간주될 수 있다.

다음으로, 무표지성 CAUSE-BECOME의 분석은 아래와 같다.

〔표5〕 무표지성 CAUSE-BECOME 비교표

유형/구	向		往		到	
무표지성	向+DP+VP	V向+DP	往+DP+VP	V往+DP	到+DP+VP	V到+DP
도구주어문	+	+	+	+		+
SVO (2항비대격)	+		+		+	

[표5]를 살펴보면, '向/往/到+DP+VP'는 '到+DP+VP'만 도구성 사역구조가 없다. 그 이유는 유표지성 '①, ⑤, ⑥'이 안 되는 이유와 동일하다. 이에 반해 'V向/往/到+DP'는 모두 가능하다. 2항 비대격동사로 이루어진 SVO유형은 'V向/往/到+DP'에서 모두 출현할 수가 없다. 그 까닭은 O는 V의 필수논항으로 VP의 보충어에 와야 하지만 Med*v*P에 의해 DP가 필수논항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V는 더 이상의 보충어를 취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본고는 '向/往/到+DP+VP'와 'V向/往/到+DP'의 사건의미 CAUSE-BECOME에 대하여 유표지성 사역구조뿐만 아니라 무표지성 사역구조를 통해서 동사의 논항과 관련한 다양한 구조를 전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

었다. 앞서 제시한 분석표는 이러한 도출 및 과정을 통해 다각도의 구조를 살펴 본 후 사건의미를 분석한 결과이다.

3. 의미역

‘向/往/到+DP+VP’와 ‘V向/往/到+DP’ 각 구에서 ‘DP’의 의미역은 다음과 같다.

〔표6〕 ‘DP’의 의미역 비교표

의미역/구		向+DP+VP	V向+DP	往+DP+VP	V往+DP	到+DP+VP	V到+DP
기점		+		+			
제공자	3항 비능격	+					
	2항 비능격	+					
도구	방식/정도			+			
	지속			+			
지향점		+	+	+	+		
추향점		+	+	+	+		
수혜자	3항 비대격	+					
	2항 비능격	+					
목표자		+	+				
경로		+	+				
범위				+			
목표점		+	+	+	+	+	+
종점		+	+	+	+	+	+
원점		+	(+)	+		+	+

4. 구(Phrase)의 전환가능

5장에서는 ‘向/往/到+DP+VP’와 ‘V向/往/到+DP’ 두 구의 예를 통해 전환 여부를 직접 실행하였다. 두 구의 전환조건을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하였다. 사건경동사 영역 내 VP 단계, DP의 의미역 단계, 사건의미 단계, 구 도출 단계로 구분하여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와 전환이 가능한 경우를 분석하였다.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向/往/到+DP+VP’는 사건경동사 영역 내 VP 단계, DP의 의미역 단계에서 이루어졌다. ‘V向/往/到+DP’에서 ‘V到+DP’는 DP의 의미역 단계이고, ‘V向/往+DP’는 최상위 개념인 구 도출 단계였다.

전환이 가능한 경우, 첫째, ‘向/往/到+DP+VP’와 ‘V向/往/到+DP’에서 ‘到+DP +VP’와 ‘V到+DP’는 사건의미의 동일여부에 관계없이 DP의 의미역 단계에서 모두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환 후 각 구의 의미는 다르다. ‘向/往+DP+VP’와 ‘V向/往+DP’는 사건의미 단계와 구 도출 단계에서 이루어졌다. 전환 후 각 구의 의미는 유사하나 각 구가 나타내려는 함축된 의미는 개방성과 폐쇄성으로 다르다. 둘째, ‘V向/往/到+DP’이 ‘V(TOWARD/TO)+DP’로 전환되는 경우, V(向/往)+DP에서 V는 비교적 일부 강위치이동동사에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V(到)+DP’에서 V는 약위치이동동사, 강위치이동동사 모두 대체로 폭넓게 사용될 수 있었다.

Ⅲ. 맺는 말

이상과 같이 본고는 ‘向/往/到+DP+VP’구와 ‘V向/往/到+DP’구의 도출, 구의 유형, 사건의미, ‘DP’의 의미역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두 구의 차이는 ‘DP’의 의미역에 의해 완전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위개념인 사건의미에 의해 좌우되며, 더 나아가 도출과정이 다른 구 도출 단계에 의해 최종적으로 지배됨

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Andrew Radford(2004), *Minimalist Syntax exploring the structure of English*, New York, USA: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omsky(1981), *Lectures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Foris Publications.

Chomsky, N.(1995), *The Minimalist Program*, Mass.: The MIT Press.

邓思颖(2010),『形式汉语句法学』,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董秀芳(1998),「述补带宾句式中的韵律制约」,『语言研究』第1期, pp.55-62.

杜克俭(2000),「临晋方言的"到"字句」,『语文研究』第2期, pp.63-65.

范干良(1990),「"向、往、朝"及其相关的介词」,『烟台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4期, pp.84-93.

方绪军(2004),「"V向……"和"V 往……"」,『语言教学与研究』第2期, pp.17-24.

冯胜利(2005),「轻动词移位与古今汉语的动宾关系」,『语言科学』第4卷, 第1期, pp.3-16.

何元建(2011),『现代汉语生成语法』,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김종호(2018),『중국어 최소주의 생성문법 13강』,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

이정인(2019),『현대 중국어 방향표지구문 연구 -'向/往/到+DP'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중어중문학과 박사학위논문.

Tzong-Hong Lin(2001), *Light Verb Syntax and the Theory of Phrase Structure*, PhD diss., UNIVERSITY OF CALLIFORNIA, IRVINE.

4월 27일(토) 14:00~16:00

분과발표 2부

❖ 문학3분과 _ 고전소설

(장소: 209호)

안인(연세대) 唐代 文人 네트워크 硏究
－『太平廣記』문인여행 故事를 중심으로

배우정(경희대) 『西漢演義』版本 硏究
－ 국내 소장된 版本을 중심으로

吳曉麗(숭실대) 明代 公案小說의 敍事전략 연구

함영은(한양대) 清代 子弟書 硏究

唐代 文人 네트워크 硏究
—『太平廣記』 문인여행 故事를 중심으로

안인*

<目 次>

1. 서론
2. 唐代 문인여행의 발전 배경
3. 唐代 문인여행 故事의 유형 분류
4. 唐代 문인여행 故事 속의 정보 이동 양상
5. 唐代 문인 네트워크와 사회 변화
6. 결론

1. 서론

본 연구는『太平廣記』에 수록된 唐代 문인여행[1] 故事의 분류와 분석을 바탕으로 그 유형 및 특징을 파악하고, 더 나아가 문인여행 故事에서 사실적이고 현실감 있게 반영된 사회 정황 분석을 통해 문인 네트워크[2]의 형성 과정 및 정보 이동 양상, 그리고 이로 인한 唐代만의 특수한 사회·문화 현상 등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唐代 科擧를 기반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문인여행은 당시 문인들의 생활 속 일부분이 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되면서 단순한 유람을 넘어서 唐代 문인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唐代 문인여행을 통한 리좀식[3]의 자유로운 접속은 문인들이 수평적 세력을 형성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되는 문인 네트워크 구축의 밑바탕이 된다. 唐代 문인과 여행은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었고, 이는 작가의 대부분이 문인이었던 唐代 小說의 주요 題材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唐代 小說을 많이 수록하고 있는『太平廣記』를 살펴보면 문인여행이 편목으로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양의 문인여행 故事를 접할 수 있다. 또한, 唐代 小說 속 문인여행 故事는 詩, 遊記와는 다르게 당시의 여러 가지 사회 정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면서 唐

* 연세대학교

1) 문인여행의 '文人'은 관료를 포함한 唐代 지식인을 의미한다.

2) 연결(connection, link, wired, join)은 두 개의 개체를 이어주는 선을 뜻하고, 연결망(network, cluster, group)은 연결들이 모여 하나의 군집을 이룬 형태를 뜻하는 단어로 서로 그 의미가 구분되는 단어이지만, 상황에 따라 연결은 연결망의 대표 단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본 논문에서 문인 네트워크는 唐代 문인들에 의한 연결망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안병익(2016),『커넥터: 세상을 지배하는 힘』, 영림카디널, 18쪽.

3) 리좀(rhizome)은 '뿌리줄기'라는 뜻으로 이런저런 줄기들이 어떤 중심 뿌리 없이 분기되고 접속되는 狀을 뜻하며, 어떤 지점이건 다른 어떤 지점과도 연결 접속될 수 있는 비중심화된 특성이 있다. '리좀적 체계'는 잔가지가 아무리 다양하고, 미세하게, 혹은 화려하게 뻗어 나가고 펼쳐진다고 해도, 그 모든 잔가지는 하나의 상위 이웃으로만 연결되고, 그를 통해 오직 하나의 중심으로 귀결되는 '수목적 체계'와 상반되는 특징을 지닌다. 최항섭은 리좀적 구조에서 사라진 수목형 사유는 바로 리더 중심의 수직적 체계에서 발견되었던 사유 방식이며, 리좀적 사유는 네트워크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사유 방식이라고 논하였다. 본 논문에서 리좀은 중심화된 특성을 갖는 '수목적 체계'와 상반되는 용어로 唐代 문인들의 자유로운 사유 방식과 다양하고 적극적인 접속 및 교류를 강조하기 위한 용어로 사용하였다. 들뢰즈·가타리 지음, 김재인 옮김(2001),『천개의 고원』, 새물결, 19쪽; 이진경(2002),『노마디즘』 1, 휴머니스트, 67쪽·110쪽; 최항섭(2008),「노마디즘의 이해 – 들뢰즈와 마페졸리의 논의를 중심으로」,『社會和理論』第12卷, 182쪽.

代 문인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을 비롯하여 문인들의 인식 변화 및 당시의 특색 있는 사회・문화 현상을 사실적이고 현실감 있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그 학술적 연구가치가 높다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은 『太平廣記』에 수록된 唐代 문인여행 故事의 분류, 분석을 통해, 그 유형 및 특징을 파악하고, 여행의 주체자인 문인을 비롯하여 문인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 및 정보 이동 양상, 그리고 이로 인한 唐代만의 특수한 사회・문화 현상 등을 면밀하게 분석, 고찰하였다.

2. 唐代 문인여행의 발전 배경

中國의 통일왕조 중 하나로 역사상 최고의 황금 시기를 이끌며 '大唐帝國'이라 불리는 唐 왕조는 대략 300년(618-906) 동안 지속되면서 강력한 황권에 의해 통치되는 수직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체계를 갖추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한 차원 높은 수준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게 된다. 또한, 동아시아 및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는 여러 나라와의 폭넓은 대외 교류를 통해 그 주변 민족들의 사회, 경제, 문화 발전을 촉진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唐代 문인 세력이 두각을 나타내는 데 있어 기반이 되었던 문인여행의 발전 배경을 정치적, 사회적, 문학적 배경으로 나누어서 상세하게 분석, 고찰하였다.

먼저, 唐代 문인여행이 흥기할 수 있었던 정치적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대외 개방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科擧制度의 발전과 확대이다. 唐代의 개방 정책은 전통적인 華夷 관념과는 다른 비교적 적극적인 의미의 개방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4], 그들은 주변국의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자신들만의 고유한 문화를 사방에 전파하였다. 이러한 적극적인 개방 정책은 당시 문인들의 시야를 넓혀주면서 이민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이끌었고, 그들의 행동반경을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며,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 세계를 경험해 보고 싶다는 의지를 다지게 해 주는 밑바탕이 되었다. 唐代의 科擧는 신분에 차등을 두지 않는 평등함과 시험 점수로만 우열을 가리는 공평함이라는 긍정적 요소들을 앞세워 응시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었으며, 唐 후기로 갈수록 科擧에 응시하고자 하는 문인들의 숫자도 점차 증가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문인들의 행동반경과 시야를 넓혀주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唐代에 문인여행이 크게 흥성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唐代에 다양한 형태의 여행이 보편화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주요한 사회적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사회의 안정적 제반 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변방 이민족과의 잦은 충돌을 들 수 있다. 唐代 주요 도로를 따라 조밀하게 설치된 驛路網 체제의 확충은 唐代 여행이 발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됨과 동시에 여행을 더욱 활성화 시키는 촉매제가 되었고, 이로 인한 다양한 숙박 시설의 활성화는 唐代 여행이 증가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개인 소유의 사택이나 寺刹에서도 빈객들이 머물 수 있었는데, 대부분 별다른 비용 없이 숙소는 물론이고 음식과 이동 수단까지 제공하면서 숙박 시설 못지않은 대우를 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唐代 문인들의 변방 지역을 향한 애국심과 공명심은 그들이 定住하던 곳을 떠나 밖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문인여행의 발전을 이끄는 밑바탕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唐代는 다양한 문학 장르의 발전과 함께 작가의 의식적인 창작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서 '1:n'의 다방향적인 교류가 보편화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이러한 문단의 흐름은 작가의 독립과 독자의 확대라는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문인들이 순수하게 文才를 교류하며 사적으로 친분을 쌓던 모임인 雅集이 증가하는 밑바탕이 되었으며, 中國 문학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4) 전통적인 華夷思想은 자기 나라를 '中華'라 하여 존중하는 반면 주변의 다른 부족을 '夷狄'이라 하여 천시한 사상으로 이민족에 대한 차별과 멸시가 담겨 있으며 中華思想이라고도 한다. 호리 도시카즈(堀敏一) 지음, 정병준・이원석・채지혜 옮김(2012), 『중국과 고대 동아시아 세계: 중화적 세계와 여러 민족들』, 동국대학교출판부, 6쪽 참고.

3ㅣ 唐代 문인여행 故事의 유형 분류

『太平廣記』에 수록된 唐代 문인여행 故事는 문인들이 여행 도중 겪은 사건이나 견문, 객창감 등을 비교적 상세하고 현실감 있게 서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小說의 주요 작가였던 문인들은 단순하게 여행을 기술하는 것에서 벗어나 작가 의식을 가지고 자신이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 小說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상징적 혹은 의도적인 서술을 추가하게 되면서 작품 안에는 문인들의 인식 변화 및 현실 비판, 시대적 특징 등이 담기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唐代 문인들이 문인여행을 통해 강력한 황권에 의한 수직적 구조의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중앙집권적 체제의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접속이 가능한 리좀식의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문인들은 자신들만의 연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주체적 자각 의식과 治者意識을 싹틔우면서 자신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다.

『太平廣記』에 수록된 647조의 唐代 문인여행 故事를 그 성격에 따라 크게 공적인 여행, 사적인 여행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각각의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서 그 유형과 특징을 논하였다. 아울러 문인과 그 외의 여행에 필요한 사회적 제반 여건들이 문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또 이러한 것들이 문인여행 故事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먼저, 공적인 여행은 『太平廣記』에 수록된 전체 647조의 唐代 문인여행 故事 중 202조로 대략 31.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적인 여행은 타의적 성격이 두드러지며, 주로 관료의 신분으로 赴任, 出差, 使行, 貶謫 등 공적인 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포함된다.[5] 唐代에는 전체 관료 중 대략 16,185명 정도가 지방관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들은 약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인사이동을 겪어야 했다.[6] 문인여행 故事 중 공적인 여행과 관련 있는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것도 唐代 문인여행에서 공무로 이동하는 여행의 비중이 높았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듯 唐代의 관료들은 빈번한 장거리 이동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매우 친숙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인 듯하다.

다음으로 사적인 여행은 『太平廣記』에 수록된 전체 647조의 唐代 문인여행 故事 중 445조로 절반이 넘는 68.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적인 여행은 자의적 성격이 두드러지며, 일반적으로 자연과의 동화를 즐기기 위함이 목적인 순수한 遊覽부터 求職, 訪問, 回歸 등의 사적인 동기로 개인이 자발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포함된다. 특히, 唐代 본격적으로 시행된 특수한 관리 선발 제도인 科擧는 문인여행을 활성화하는 밑거름이 됨과 동시에 문인들의 도시 공간으로의 여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隱居型에 속하는 문인여행 故事에서는 문인들의 隱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엿볼 수 있다.

4. 唐代 문인여행 故事 속의 정보 이동 양상

唐代의 문인여행은 순환 구조에 따른 단순한 여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5) 『唐六典』에 등재된 관부는 중앙에 삼사・삼공・6성・9시・1대・5감・18위 및 동궁의 1부・3방・3시10솔부와 친왕부・친왕국・공주읍사가 있고, 지방에 300여 개의 부・주와 1,500여 개의 현 및 630여 개의 절충부, 그리고 진・수・악・관・진이 있다. 이를 통해 唐代의 관제는 중앙부터 지방에 이르기까지 기능과 역할 따라 세밀하게 구분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택민 주편(2003), 『譯註 唐六典』, 신서원, 28쪽.

6) 『唐會要』 卷74 「選部上」의 "令內外文武官, 一品以下九品以上, 一萬三千四百六十五員. 擧大數當一萬四千人, 壯室而任. ….”이라는 기록과 『通典』 卷40 「職官」 22의 "右內外文武官員凡萬八千八白五. 文官萬四千七百七十四, 武官四千三十一, 內官二千六百二十, 外官州縣, 折衝府, 鎭, 戍, 關, 廟, 岳, 瀆等萬六千一百八十五.”라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듯이 唐 高宗 顯慶 2년(657)의 내외문무관 총수는 13,465명이었고, 80년 후인 唐 玄宗 開元 25년(737)에는 18,805명이었는데, 이 중 문관은 4,774명, 무관은 4,031명, 내관은 2,620명, 외관은 16,185명이었다. [宋]王溥 著, 楊家駱 編(1974), 『唐會要』 下, 臺北: 世界書局, 1334쪽; [唐]杜佑 撰, 王文錦 外 點校(1988), 『通典: 校點本』 1, 中華書局, 1106쪽.

기반으로 작용하면서 리좀식의 연결과 정보의 확산을 위해 여행의 주체자인 문인과 이들의 주요 교류 장소였던 공간들,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일정 사물들이 唐 사회에서 정보 전달과 확산의 주축이 되는 문인 네트워크가 완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각각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전체 647조에 해당하는 唐代 문인여행 故事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 공간, 사물들의 역할과 기능에 주목하고, 이러한 특징들이 문인여행 故事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고찰하였다.

먼저, 정보 교류 및 전달의 주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唐代는 오늘날처럼 발달한 교통과 통신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 즉 인적 연결을 통해서만 다른 지역 혹은 다른 사람의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비교적 큰 사람이 바로 문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唐代 문인들은 여행 도중 만나게 되는 낯선 사람들에게도 스스럼없는 태도를 보이면서 적극적인 교류와 소통을 이끌어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독립된 하나의 노드로서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다양하게 접속하고자 하는 문인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으며, 이를 통해 唐代 문인들의 정보 전달과 확산의 역할도 더욱 확대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문인들의 교류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이동하는 연결자인 문인에 의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지게 되며,[7]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문인에 의한 의식적인 창작이 덧붙여지면서 이야기는 더욱 생동감 있고 재미있게 재탄생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전달된 이야기가 연결자인 문인을 따라 이동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천수만 갈래의 연결 선상에 놓여 있게 되고, 그 연결 선상에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여러 문인을 거치는 동안 이야기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계속 상호작용하며 진화해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唐代 문인여행 속의 문인들은 자신들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독립된 하나의 노드로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정보 전달과 확산에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인들 중 李公佐, 白居易와 같이 사회에 대한 관심을 자신만의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표명하면서 대부분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커넥터' 역할을 수행하는 문인들도 존재했다. 이들은 위로는 지배 계층을 비판하고 아래로는 피지배 계층을 옹호하면서 사회 계층 간의 간극을 최소화시키고 사회의 변화를 시도하고자 노력하였다.

다음으로는 정보 교차 및 확산의 접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太平廣記』의 647조에 해당하는 문인여행 故事를 살펴보면, 특정 장소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숙박 시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연회장이다. 이러한 공간들은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모였다가 흩어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唐代 문인들이 이 공간들의 주요 이용 고객이 되면서 본연의 기능 외에 개개인의 연결을 통한 정보 확산의 접점으로서의 '플랫폼[8]' 기능을 확장하게 된다.

唐代 문인들의 여행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개개인이 독립된 하나의 노드라고 할 수 있는 A, B, C라는 문인이 각자의 동기와 목적에 따라 定住하던 곳을 떠나 여행을 시작한 후,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驛과 같은 숙박 시설에 들르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룻밤 혹은 며칠 밤을 묵으며 여러 사람과 교류하고 소통한 후, 다시 각자의 길을 떠나 각각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唐代의 교통 여건을 고려한다면 A, B, C라는 문인은 상술한 여행 과정 중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숙박 시설을 거쳤을 것이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숙박 시설은 자연스럽게 정보가 모였다 확산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오늘날

7) 『太平廣記』 권128 「尼妙寂」: "貞元 17년(801)은 辛巳年이었다. 李公佐라는 사람이 嶺南從事를 그만두고 오던 길에 옷을 떨치며 누각에 올랐는데, 풍채가 수려하고 호방해서 보통 사람과는 사뭇 달랐다. 妙寂이 앞으로 나아가 절하고 울면서 예전의 일을 李公佐에게 물었더니, …李公佐가 이 일을 매우 기이하게 생각하더니 마침내 妙寂을 위해 傳記를 지었다. 大和 庚戌년(830)에 隴西의 李復言이 巴南縣에서 노닐다가 進士 沈田과 蓬州에서 만났는데, 沈田이 이 기이한 일을 말하면서 傳記를 가져다 보여주었고, 李復言은 한 번 읽어보더니 다시 글을 지었다. 기이한 일을 기록하는 날 그 글을 여기에 합쳤다." 등의 예문, 『太平廣記』 권6, 90-95쪽.

8) 본 논문에서 '플랫폼'은 많은 사람과의 연결이 이루어지면서 정보가 한꺼번에 모였다가 흩어지는 '플랫폼' 기능이 확장된 장소임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유행하는 SNS에서 정보가 확산되는 속도, 시간과는 비교 불가하지만, 개개인의 연결을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갈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보 확산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그 형태가 매우 닮아있음을 알 수 있다. 唐代의 숙박 시설은 창의적인 글쓰기가 필요했던 문인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수많은 정보의 교차와 확산이 이루어지는 매개 지점으로서의 플랫폼 기능이 확장되면서 唐代만의 독특한 사회적 교환과 문화의 확산을 주도한 장소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唐代 특유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움이 더해진 사회 분위기는 문인들의 연회 참석을 독려하는 풍조를 만들었고, 이로 인해 연회 장소는 문인들이 文을 교류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접점으로 한시적으로 플랫폼 기능이 확장된다. 또한, 연회장의 참석자가 주로 문인으로 제한되면서 그곳에서 흐르는 정보는 숙박 시설의 정보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성격을 띠게 되지만 보다 전문적이라는 차별성을 갖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보 전달 및 확산의 매개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太平廣記』의 647조에 해당하는 문인여행 故事를 살펴보면, 특정 사물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이를 매개체로 하여 문인들이 연결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사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고정된 한 공간에서 사람들을 통시적으로 연결해 주는 題壁詩이고, 다른 하나는 독립된 하나의 노드인 문인들과 함께 이동하면서 시공간의 제한이 없이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詩卷이다. 唐代 題壁詩는 대부분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장소에 쓰여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1:n’의 다방향 소통이 이루어졌고, 唐代 문인들은 題壁詩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공개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획득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또한 唐代 문인들은 題壁詩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 작품을 평가받으면서 간접 소통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문인들을 통시적으로 연결해주면서 다른 시간대를 살아가는 문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성을 높이는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숙박 시설이나 연회장의 플랫폼 기능과는 또 다른 차별성을 갖는다. 詩卷은 唐代 문인들의 出仕와도 관련이 있는 중요한 사물로 문인들이 항상 휴대하고 다니게 되면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연결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題壁詩가 고정된 장소라는 제한이 생기면서 공간적인 특징이 강조된 매개체라고 한다면, 詩卷은 상대적으로 시공간의 이동에 제한이 없이 문인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다.

5. 唐代 문인 네트워크와 사회 변화

唐代 문인 네트워크는 개개인의 교류를 통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유기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면서 문인들의 인식 변화 및 사회 내부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게 되었고, 이는 唐代만의 독특한 사회 현상으로 구현되었다. 이를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인여행을 바탕으로 형성된 문인 네트워크는 사회 내부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唐代 문인 네트워크 형성에 일조한 科擧의 본격적인 시행은 ‘신흥 지식인층’이라는 진보적인 성향의 새로운 사회 계층의 출현을 낳게 되었다. 이들은 주체적 자각 의식과 治者意識을 가지고 스스로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였고, 고문운동과 신악부운동이라는 구체적인 개혁 운동을 성공시키면서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이들은 사적 모임인 雅集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갔다.

둘째, 문인여행은 당시 문인들이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넓은 식견을 갖게 하였다. 이로 인해 문인들의 시야는 확대되었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인식 변화에도 영향을 미치

게 되었다. 唐代 문인들은 위계질서에 의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사회 속에서 스스로 탈주하여 사회 내부에 여러 가지 변화를 끌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는 中唐 이후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이전 시기에 비해 황제에 의한 수직적인 힘보다 문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 수평적인 힘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문인들의 위상도 함께 높아질 수 있었다. 또한, 문인들은 현실과 이상의 괴리에서 오는 갈등으로 인해 이중적인 탈주 양상을 만들어냈는데, 이는 '中隱'이라는 새로운 공간 개념을 탄생시켰고, 번진 세력에 흡수되어 재영토화하는 문인들을 낳게 되었다.

셋째, 唐代 문인들은 사회의 지배 계층으로서 서민 문학에 관심을 가지며 대중 문학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하게 되었다. 新樂府가 확산의 임계점을 넘어서서 유행하고, 文人詞가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문인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지만, 이를 흡수하는 독자로서의 서민 계층의 문학적 욕구가 높아진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하나이다. 당시 長安이라는 거대 도시의 발전은 서민들이 더욱 많은 이야기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고, 이는 자연스럽게 서민들의 문학적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되면서 대중 문학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이는 宋代 서민 중심의 대중문화가 사회의 주류로 전면에 등장하는 데 있어 초석이 되었다.

6. 결론

지금까지 『太平廣記』에 수록된 647조의 唐代 문인여행 故事에 대한 유형 및 특징 분석을 통해, 여행의 주체자인 문인을 비롯하여 문인 네트워크의 형성 과정 및 정보 이동 양상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唐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를 집중적으로 밝혀보았다.

唐代 문인여행을 통해 넓은 식견과 경험을 갖게 된 문인들은 문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고자 시도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唐宋變革期'라 불리던 中唐 이후의 唐 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는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주체적 자각 의식과 治者意識이 싹 트기 시작한 '신흥 지식인층'이라는 새로운 사회 계층을 출현시켰다. 이로 인해 문인들의 유대 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동시에 담론 형성의 주요 자리였던 雅集이 발전하였고, 이는 고문운동과 신악부운동의 전개와 확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이들의 사상과 활동은 宋代 사회의 주류를 이룬 신진사대부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中唐 이후의 사회적 혼란은 문인들의 고정 관념에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면서 일부 문인들의 신분이 이동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당시 국가의 '홈 패인 공간'에 편입하고자 노력했던 문인들은 스스로 그 공간에서 탈주하여 '中隱'이라는 새로운 공간 개념을 탄생시켰고, 일부 문인은 번진 세력의 '홈 패인 공간'에서 재영토화 되기도 하였다. 셋째, 문인들이 사회 계층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게 되면서 대중 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새로운 문학 장르들이 탄생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의 각 계층은 서로 융화 될 수 있었고, 서민 계층이 독자층으로 새롭게 부상하게 되면서, 宋代의 대중문화 형성과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唐代 문인여행을 바탕으로 형성된 문인 네트워크는 당시 문인들이 수평적 연대 관계를 넓히며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唐代 사회는 다양한 소통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특히, 中唐 이후의 사회적 혼란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획기적인 변화들은 문인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인해 더욱 확대될 수 있었다. 따라서 과도기라 할 수 있는 '唐宋變革期'에 문인 네트워크가 중요한 변화의 일익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西漢演義』 版本 研究
— 국내 소장된 版本을 중심으로

배우정*

<目 次>

1. 序論
2. 『西漢演義』의 형성과정과 국내 전래양상
3. 中國版本 『西漢演義』의 現況 및 紹介
4. 국내 소장된 『西漢演義』의 筆寫本 분석
5. 結論

1. 序論

본 논문은 中國 歷史演義小說 가운데 明代 甄偉가 쓴 『西漢演義』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西漢演義』는 임진왜란을 전후로 국내에 유입되어 中國出版本・漢文筆寫本・飜譯筆寫本・坊刻本(完板本)・舊活字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수용되었다. 이 작품은 우리 문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며 현재 국내에서도 상당한 수의 판본이 남아 전해지고 있다. 현재 국내의 대학 도서관에는 『西漢演義』의 中國出版本・原文筆寫本・飜譯筆寫本과 그 계통의 飜譯出版本・飜案出版本까지 상당한 양의 책이 소장되어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직접 열람 및 수집하고 기존의 연구 자료들을 참고하여 소장처별 특이점을 보이는 版本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판본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으로만 진행되었기에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 소장된 『西漢演義』와 그 계통의 판본에 대한 전반적인 비교 연구에 집중하였다. 본 연구는 먼저 『西漢演義』의 형성에 영향을 준 작품 간의 수용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유입기록을 통해 이 작품이 언제 국내에 유입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또 국내에 소장된 『西漢演義』를 수집하면서 『西漢演義』의 중국 출판본과 국내에서만 보이는 상당한 양의 『초한연의』 필사본을 통해 두 책의 상호관계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재검토하였다.

국내에 남아있는 『西漢演義』는 다른 중국 역사연의소설들보다 다양한 書名의 異本으로 유통되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書名을 중심으로 판본을 분류하여 계통을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판본의 형태를 통해 대략적인 제작 시기를 가늠할 수 있었으며 異本간의 영향 관계에 대해 비교할 수 있었다. 또한 서책의 제작방법에 따라 中國出版本・漢文筆寫本・飜譯筆寫本 등으로 구분하여 그동안 단편적으로 정리되었던 『西漢演義』의 판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가운데 국내에서만 보이는 특이 판본들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내에 남아있는 『西漢演義』와 그 계통의 작품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의 다양한 수용양상과 변화과정을 규명하고자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1)]

* 慶熙大學校 中國語學科 講師

1) 본 논문에서는 『西漢演義』의 연구대상 범위를 먼저 중국 간행본과 국내 간행본 및 필사본으로 정하였고, 그 시기는 明末에서 17・18세기에 주로 등장했던 판본과 필사본 이후 방각본에서부터 1970년대 이전까지의 간행된 『西漢演義』계통의 책으로 그 범위를 정하였다. 현재까지 출간된 계통 작품을 모두 다루기에는 그 양이 방대하여 조선에서 근대출판물이 나온 시기까지로 연구범위를 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또 '楚漢演義'는 『西漢演義』를 바탕으로

2.『西漢演義』의 형성과정과 국내 전래양상

2.1『西漢演義』의 형성과정

『西漢演義』 西漢 初期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의 형성에 토대가 된 역사서를 살펴보면 司馬遷의 『史記』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西漢演義』에 영향을 준 작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唐代 變文인 「季布罵陳詞文」에서부터 이후 元代에 간행된 『全相平話五種』「秦幷六國平話」·「續前漢書平話」[2]와 明代 간행된 『全漢志傳』·『兩漢開國中興傳志』등이 그 예이다. 「秦幷六國平話」와 「續前漢書平話」이후 약 260여년의 공백기를 거쳐 明代에 등장한 熊大木의 『全漢志傳』과 작자미상인 『兩漢開國中興傳志』가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초점을 두고 살펴보아야 하는 작품은 『全漢志傳』으로 이는 『西漢演義』의 형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다. 『全漢志傳』이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 재미와 흥미가 떨어지는 부분을 과감히 수정·삭제하고 西漢·東漢의 개국 초기의 주요 이야기만을 집중적으로 기술한 책이 『兩漢開國中興傳志』이다. 이 책은 明代 萬歷 乙巳 33년(1605)에 간행되었으며, 겉표지에는 '撫宜黃化宇校正'이라 되어있어 黃化宇가 校正했다고 되어있으나 작가는 미상이다. 이후 나온 甄偉의 『西漢演義傳』은 明代 萬曆 40年(1612)에 大業堂에서 간행되었다.[3] 大業堂本이 나온 이후에도 『西漢演義』는 많은 출판사에서 간행되었는데, 현재까지 가장 통용된 판본으로는 劍嘯閣[4]의 『新刻劍嘯閣批評東西漢通俗演義』가 있다. 袁于令은 明末淸初 시기 江南 吳縣사람으로 희곡 작가이다. 본명은 晉이고, 字는 韞玉 또는 令昭이며, 號는 籜菴 또는 劍嘯閣主人, 幔亭仙史, 幔亭歌者, 吉衣道人, 白賓 등이다. 『新刻劍嘯閣批評東西漢通俗演義』의 간행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劍嘯閣이 활동했던 시기를 추정해보면 대략 明末淸初에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甄偉가 쓴 『西漢通俗演義』와 謝詔가 쓴 『東漢十二帝通俗演義』를 합하여 만든 책이다. 그 중 『西漢通俗演義』는 大業堂本 총 8卷 101則에서 100則으로 1則이 줄었으며[5], 『東漢通俗演義』는 10卷 125則으로 두 가지 판본을 재편집하여 총 18卷 225則으로 엮은 合刊本이다. 이때 간행된 『西漢通俗演義』의 卷頭에는 '新刻劍嘯閣批評西漢通俗演義'라고 되어있으며, 편찬자는 알 수 없다. 또 한 면이 10행 22자로 구성된 판본으로 19면의 삽도가 있으며, 回次는 따로 표시되어있지 않다. 각 則의 마지막 부분에 劍嘯閣의 總評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劍嘯閣本이후 經綸堂刊行本 『劍嘯閣批評東西漢通俗演義』에서 『西漢演義傳』은 8卷 101則으로 되어있으며 삽도는 18면이 포함되어있다. 袁宏道는 序文에서 『東西漢通俗演義』를 출판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책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통속소설을 접하고 이를 함께 나누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甄偉가 『西漢通俗演義』를 쓴 이유와도 일치한다. 經綸堂本이 간행이후에도 淸代에는 劍嘯閣批評本을 底本으로하여 여러 書林에서 覆印하였다.

축약하여 필사한 필사본이며 그 수가 상당하여 『西漢演義』과 관련이 없는 작품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연구 범위에 포함하게 되었다.

2) 『西漢演義』의 형성에 영향을 준 가장 이른 소설의 원형으로 추정되고 있다.

3) 甄偉는『西漢卷』을 읽었는데, 억지로 끌어들여 꾸며낸 부분이 많고 줄거리를 알 수 없으며, 또 언어가 비속하여 楚漢의 이야기를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 생각하여 『西漢演義』를 짓게 되었다고 序文에서 밝히고 있다. 그는 책을 펼치기만 하면 모두 한눈에 들어오도록 지었다고 하여 그가 통속소설을 왜 짓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4) 文革紅, 「袁于令 "劍嘯閣" 及期所刊戲曲、小說考」, 『明淸小說硏究』79集, 明淸小硏究會, 2006年 第1期, 236쪽 참고. 袁于令(1599~1674年 추정): 明末의 生員출신으로 벼슬은 水部郎, 荊州府知府 등을 지냈다. 袁于令은 劍嘯閣主人이며, 劍嘯閣에서는 출판활동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저서로는 『雙鶯傳』, 『傳奇西樓記』, 『金鎖記』, 『玉符記』, 『珍珠記』 등이 있다.

5) 『西漢演義』와 『東漢演義』를 합하여 간행하면서 『西漢演義』의 1則이 빠졌는데 바로 제69회 '彭酈生韓信背約'이다. 이 부분은 齊王 田橫을 酈生이 설득하는 데 성공하자, 韓信이 酈生의 功을 시기하여 齊나라를 쳐들어갔다. 齊王 田橫은 酈生이 자신을 속였다고 여겨 솥에 삶아 죽였다는 내용이다.

2.2『西漢演義』의 국내 전래양상

『西漢演義』는 壬辰倭亂을 전후로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中國出版本・漢文筆寫本・飜譯筆寫本・坊刻本(完板本)・舊活字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수용되었다. 『西漢演義』는 일찍이 국내에서 번역되어 읽혀졌으며, 다양한 형태의 수용양상은 향유계층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었다. 『西漢演義』는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번역・출판된 중국 통속소설 중 가장 다양한 書名의 異本이 많은 작품이다. 이는 당시의 독자들의 인기를 얻었다는 傍證이며, 『西漢演義』의 국내 유입기록을 시기에 따라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1〉『西漢演義』의 관련 기록과 국내 유입 및 간행시기

順番	書名	刊行時期 / 參考文獻記錄	其他
1	楚漢衍義	1569年 / 宣祖實錄	* 최초 국내 유입기록
2	漢楚演義	1595年 / 鎖尾錄	
3	兩漢演義	1613年 前後 / 惺所覆瓿稿	
4	楚漢衍義	1623-1633年 사이에 쓴 것으로 推定 / 東溟先祖遺稿8, 逸史目錄解	
5	諺譯西漢演義	1672年 / 承政院日記(顯宗13)	* 서한연의 서명이 처음 보이는 기록
6	東西漢(演義)	1678年 / 洪萬宗全集 중 旬五志	
7	西漢演義評	1696年 / 李志恒의 漂舟錄	
8	西漢演義	1736年 / 東溪集卷之二	
9	西漢記	1744年 / 字學歲月	
10	西漢記	1762年 / 小說經覽者	
11	西漢演義	1762年 / 中國小說繪模本	
12	西漢演義	1774年 / 承政院日記(英祖50年)	
13	초한연의	1786-1790年 사이 쓴 것으로 推定 / 玉鴛再合奇緣, 第15卷	* 이 시기 이미 중국 연의류 소설의 번역이 활발했음을 알 수 있음.
14	西漢演義諺	1801-1834年 건축 推定 / 大畜館書目	
15	西漢演義	1866年 / 梅山文集 第52卷	
16	漢演(西漢演義)	1876年 / 壬辰錄序文	
17	楚漢演義	1897年 / 薇隱集卷之二	
18	東西漢演義	1925年 / 아주신씨 인재파 전암후손가 日記	* 동서한연의 서명의 책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음

3. 中國版本『西漢演義』의 概況 및 紹介

3.1 국내 소장된 中國版本『西漢演義』의 現況

현재 국내 유입되어 남아있는『西漢演義』의 中國版本은 약 8종에 이른다. 이 중에는 刊記가 남아있어 그 유입 시기와 간행시기를 추정해볼 수 있는 版本도 있지만, 간행시기와 출판사를 알 수 없는 版本의 수도 상당수 존재한다.

『西漢演義』의 版本은 현재 국내 대학 도서관에 대부분 소장 되어있다.[6] 이들 도서관에 소장된『西漢演

義』의 中國版本은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西漢演義』와 『東漢演義』를 합하여 간행한 合刊本과 『西漢演義』와 『東漢演義』로 각각 출판된 單行本의 형태가 그것이다. 또 여러 시기를 거치며 다양한 출판사에서 출판되었기에 그 서명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서명은 『新刻劍嘯閣批評西漢演義傳』·『繡像東西漢演義』·『繡圖東西漢演義』·『增像全圖東西漢演義』 등이다. 『西漢演義』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록은 1569年 『宣祖實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책이 국내에 유입된 기록은 이렇게 이른 데 반해, 아쉽게도 국내에 현존하는 中國版本『西漢演義』는 대부분 淸代에 출판된 版本이 대부분이다.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 『西漢演義』의 中國版本은 인쇄형태의 종류에 따라 크게 木版本·活字本·石印本으로 구분된다.[7]

3.2 嶺南大 所藏本『西漢通俗演義』소개 및 분석

『西漢演義』의 版本을 수집하던 중 우연히 版心題에 '官版西漢演義'라는 서명의 版本을 발견하게 되었다. 『西漢演義』는 明 萬曆 40年(1612)에 甄偉가 편찬하였으며, 현재 남아있는 판본 중 가장 이른 판본은 大業堂 간행본이다.

大業堂本은 卷首에 甄偉의 自序가 있으며, 回次가 없으며 총 8권 8책, 101회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방점이 있고, 한 면에 14행 30자로 되어있으며 현재 日本宮內廳圖書館에 소장되어있다고 전해진다.

현재 국내에 가장 많이 통용된 版本은 明末에 大業堂本에서 간행한 『新刻劍嘯閣批評東西漢演義』로 『東漢演義傳』과 『西漢演義』를 합간한 版本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西漢演義』가 국내에 최초로 유입된 시기는 1569年이며 현재 국내 남아있는 版本은 同文堂에서 1815年에 간행된 木版本(고려대 소장본)이 가장 이른 版本이다. 『西漢演義』는 우리나라 역사 기록에서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여러 차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明代에 간행된 中國木版本은 발견된 적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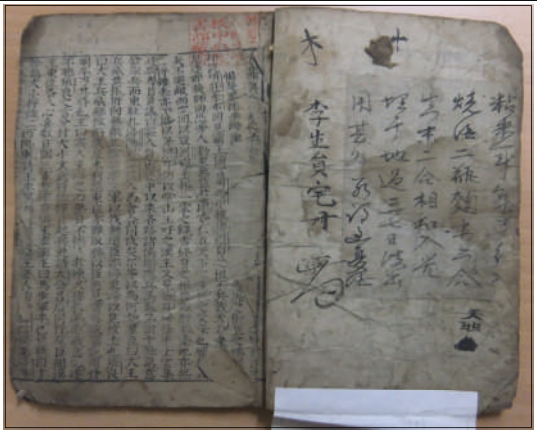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1>은 영남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西漢通俗演義』 木版本[8]이다. 영남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이 版本은 상태가 좋지 않아 序頭 부분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之五'라는 부분은 희미하게 보인다. 국내 소장된 中國木版本 『西漢演義』는 대부분 8권 8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책 또한 8권 8책으로 된 책일 것으로 추정된다. 본래 『西漢演義』卷 5의 부분은 제53회 '懼楚罪陳平歸漢'에서부터 제64회'出滎阳纪信诳楚'까지인데, 嶺南大本은 중간 중간 훼손된 흔적이 간간히 보이며, 맨 처음 제53회 부분도 몇 행만 확인할 수 있었고, 卷5의 마지막 부분인 제64회는 소실되었으며, 현재는 제53회부터 제63회 '行反间范增遭贬'까지만 남아있다. 淸代에 간행된 劍嘯閣批評本은 판심제에 '西漢演義評'이라 되어있는 데 반해 초기 간행본인 大業堂本은 판심제에 '官版西漢通俗演義'라 되어있음이 <그림-2>에서 확인된다. 劍嘯閣批評本의 판심제 '西漢演義評'은 回次가 끝날 때마다 나타나는 총평을 의미하며 영남대본에서는 回가 끝난 후 총평은 보이지 않는다. 이 점은 두 간행본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또 표지의 뒷면에는 '李生貞宅冊'이라 쓰여 있는데 李生貞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렵고, 현재 제5권만이 남아있어 간행시기 또한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영남대본의 간행시기는 기존의 版本들과의 비교를 통해 선후관계를 추측해야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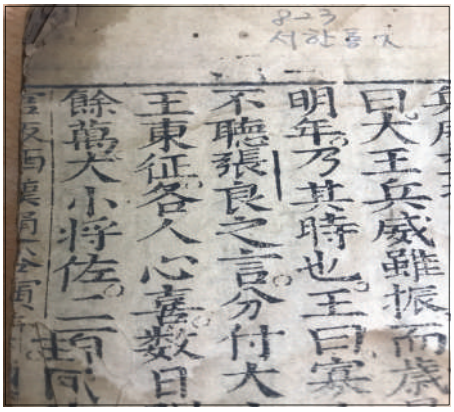
6) 대표적으로 경기대·경희대·고려대·규장각·국회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연세대·부산대·성균관대·영남대·원광대·이화여대·전남대·전북대·중앙대·충남대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한국국학진흥원에 수탁된 문중의 版本과 개인 소장자의 版本 등에 소장되어있다.

7) 구체적인 목록 및 현황 자료는 본 발표문에서 생략함.

8) 版式狀況: 中國木版本, 1冊(零本, 卷5), 26.7×15.7㎝, 14行 30字, 四周單邊, 無界, 上下向黑魚尾



<그림-1> 영남대 소장본『官版西漢通俗演義』



<그림-2> 영남대 소장본
『官版西漢通俗演義』판심제 부분

<그림-2>를 보면 版本이 워낙 오래되어 판심제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책을 옆으로 세워보면 官版本임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9] 중국에서 官版本(官刻本이라고도 함.)이 가장 성행했던 시기는 明代로 이 시기는 중국의 서적 출판사에 있어서 황금기였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발행한 서적의 수량과 종류가 가장 많았다. 주로 민간에서 즐겨 듣고 보던 통속물, 희곡, 소설 등의 각종 서적이 대량으로 출판되었다. 官版本의 경우에는 특정한 지역에서만 간행이 가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명대 간행본인『西漢演義』大業堂本을 살펴보면, 題에서 '金陵書林敬素周希旦校鋟'라는 부분이 보인다. 여기서 金陵은 지금의 南京지역에 해당한다. 杭州의 출판 기술자들이 南京으로 옮겨간 후 南京은 전국 출판의 중심지로 변했고, 16세기 중엽에 들어서는 插圖가 있는 소설과 희곡이 대량으로 출간되었던 곳이다. 이런 상황으로 추정컨대『西漢演義』의 초기 간행본은 1612年에 나왔고, 官版本은 민간 書林에서 출판한 版本을 底本으로하여 다시 官刻하였을 것이라 추측된다. 따라서 嶺南大本은 적어도 大業堂本보다는 뒤에 간행되었을 것이며, 이 版本은 明代末이나 늦어도 淸代初 사이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西漢演義』의 초기 간행본은 1612年에 나왔고, 官版本은 민간 書林에서 출판한 版本을 底本으로하여 다시 官刻하였을 것이라 추측된다. 따라서 嶺南大本은 적어도 大業堂本보다는 뒤에 간행되었을 것이며, 이 版本은 明代末이나 늦어도 淸代初 사이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 있는 中國木版本『西漢演義』의 行字數를 보면 10행 22자・10행 25자・11행 26자 등이 많고, 간혹 10행 30자・11행 24자로 된 版本이 있다. 木版本의 경우 行字數를 통해 版本의 크기도 대충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기존에 국내에서 나타난 木版本은 10행이거나 11행, 字數도 22자에서 30자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크기가 비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版本의 경우처럼 14행 30자로 된 木版本은 없었고, 그 크기 또한 기존의 版本과는 차이를 보인다.[10] 또 嶺南大本의 간행 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로 肅宗 22年(1696) 4월 13일 李志恒이『漂人部』에 李志恒이 가지고 있던 물품 중『西漢演義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흥미롭다. 여기서『西漢演義評』은 李志恒이 돌아왔을 때가 대략 1697年 이므로 적어도 이 시기에는 劍嘯閣批評本이 국내에 유입되어 양반계층에서는 이미

9) 上原 究一,「金陵書房周曰校万巻楼仁寿堂と周氏大業堂の関係について」,『斯道文庫論集』No48(2013.), 218쪽 참고. 上原究一이 쓴 논문에 大業堂本『西漢通俗演義』에 대한 서지사항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 부분이 있어 살펴보면, 이 책은 세 칸으로 나눠진 종이에 짙은 남색으로 된 인으로 봉해진 면 좌우에 큰 글자로「重刺官板西漢通俗演義」라 되어있다고 한다. 중앙에는「大業堂重校 」라고 새겨져있으며. 위로는 '魁星朱円印'이라 되어있고, 아래에는 '重校梓'라는 세 글자에 겹쳐 '醉耕/堂/藏板'이라고 정방 주인이 각각 찍혀 있다. 따라서 '官板'이라는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므로 영남대 소장본은 大業堂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10) 현재까지 木版本이면서, 行字數가 14행 30자인 版本은 국내에서는 嶺南大本이 유일한데, 이는 孫楷第의『中國通俗小說書目』에 따르면『西漢演義』의 가장 이른 版本인 大業堂本(1612年)이 14행 30자로 되어있음이 확인된다.

통용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고, 당시 그가 가지고 있던 책은 大業堂本 뒤에 나온『新刻劍嘯閣評西漢演義』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영남대본『官版西漢通俗演義』는 여러 서지사항들로 볼 때 明代末(1368-1662年)에 간행된『西漢演義』의 초기 大業堂本과 여러 가지 판식사항 등으로 볼 때 동일한 版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영남대본은『官版西漢通俗演義』는 국내 소장된『西漢演義』가운데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판본은 中國 官版本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기에 충분히 주목해 볼만한 자료이다.

4. 국내 소장된『西漢演義』의 筆寫本 분석

당시 조선에서는 인기가 많았던 중국 소설을 原版本 그대로 구입하여 읽기도 하였지만, 출판본을 구입할 수 없는 경우 소설의 또 다른 향유 방법인 '筆寫'를 통해 중국 소설을 애독하기도 하였다. 현재 국내 남아있는『西漢演義』필사본은 확인되는 것만 해도 100여종이 넘는다. 그 형태는 中國版本을 그대로 베껴 쓴 原文筆寫本・기존의 텍스트에서 수정과 삭제한 漢文縮約筆寫本・完譯 한글필사본・축약 번역 한글필사본 등 다양한 형태로 확인된다.

4.1 原文筆寫本

국내에서『西漢演義』는 일찍이 수용되어 조선시대 의 여러 기록에서 '楚漢演義'라는 서명의 책을 확인된다. 여러 역사서를 통해 초한고사와 楚漢戰爭의 이야기는 익히 알고 있는 소재였기에 왕실과 민간에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쳤다. 이는 중국 역사연의소설인『西漢演義』가 인기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었고, 中國版本이 들어온 이래로『楚漢演義』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필사본이 나오게 되었다. 필사본은 善本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으나,『楚漢演義』가『西漢演義』를 바탕으로 축약된 필사본이었기에 연구자들은 기록에서 보이는『楚漢演義』를『西漢演義』와 동일한 책으로 보았던 것이다.

『楚漢演義』는 현재까지 중국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국내에 남아있는 필사본 중 '楚漢演義'라는 서명으로 되어있는 것은 모두 漢文筆寫本이다. 간혹 표제에 '楚漢演義'라 되어있는 한글필사본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楚漢演義'는 여러 계통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필사되었으며, 크게 두 계통으로 나눌 수 있는데『西漢演義』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회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필사자에 따라 축약・삭제 등의 기법으로 변형된 필사본 계통과『西漢演義』의 내용 중에서 楚漢戰爭의 내용만을 중점적으로 필사하여 회목이 따로 없는 지금의 소설책처럼 쓴 계통의 필사본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초한고사를 위주로만 엮은 필사본도 있었다. 필사자의 의도에 따라 장량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기도 했고, 韓信에 대한 이야기로 끝내면서 韓信을 부각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필사본에서 劉邦과 項羽의 마지막 해하대전은 편폭이 길었고, 項羽와 虞美人이 이별하는 장면, 項羽가 자결하는 장면 등은 다른 회차에 비해 길었다.

국내에 소장되어 있는『楚漢演義』漢文筆寫本의 필사 시기는 간사시기를 기록해놓은 필사본을 중심으로 대략 가늠해본다면 17세기에서 18세기정도에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몇 가지의 필사에서 구체적인 절기를 표현한 것을 살펴보면 농번기 보다는 농한기인 초겨울이나 봄에 필사된 책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楚漢演義』는『西漢演義』를 바탕으로 쓴 것은 맞지만, 異本이 많고,『西漢演義』와는 구성이 다른 필사본도 있어 이들을 같은 책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표-2〉『楚漢演義』필사본의 내용상 분류

順番	內 容
1	秦나라가 멸망하는 과정- 楚漢戰爭- 西漢건국- 惠帝등극
2	異人(子楚)이 포로로 잡히는 부분-韓信 등극
3	異人(子楚)가 포로로 잡히는 부분-呂后가 韓信 죽임
4	異人(子楚)가 포로로 잡히는 부분-項羽와 虞美人 이별장면까지 다룬 작품 / 項羽가 자결하는 장면까지 다룬 작품
5	劉邦이 백사를 죽이는 장면 呂文이 비범함을 보고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는 장면 - 項羽가 자결하는 부분
6	張良이 秦始皇을 죽이려고 행차시 수레를 공격하고자 했다가 실패한 부분 - 惠帝등극
7	章邯이 끄는 秦軍의 기습을 받아 크게 패하여, 項梁이 전사하는 부분에서 시작 - 惠帝등극
8	秦始皇이 徐福에게 不死之藥을 구해오라는 장면으로 시작 - 惠帝등극
기타	安國君이 왕위를 물려줄 태자로 자초를 적자로 세우는 내용에서 惠帝 등극 / 呂后가 功臣들을 죽이는 결말을 다룬 작품 등

4.2 飜譯筆寫本

국내에 '서한'이라는 서명으로 된 飜譯筆寫本의 수는 약 20종이며, 이를 書名으로 분류해보면 총 6종이다. 『서한연의』·『셔한연의』·『西漢傳』·『셔한젼』·『서한젼』·『셔한지』 등 이렇게 다른 異名으로 필사되어 있다. 『西漢演義』의 번역은 吳希文(1539-1613年)이 작성한 『瑣尾錄』에서 그 시기를 추정해볼 수 있는데, 초 3일에 종일 집에 있자니 너무 심심하여 딸의 부탁으로 '漢楚演義'를 번역하여 둘째 딸에게 시켜서 쓰도록 했다는 구절이 있다. 이 기록을 통해 16세기 중반에는 적어도 번역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 후 현종 13년(1672年의) 기록인 『승정원일기』에서 諺解된 『西漢演義』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록은 통역관이 중국에서 온 칙사가 한글로 번역된 이 책을 보고 싶다고 하자, 찾아 드리겠다는 내용이다. 이 기록에서 한글번역본은 『西漢演義』를 뜻하며, 이 기록을 통해 적어도 17세기 중·후반에는 諺解필사본이 존재하였을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다.

현재 남아있는 『西漢演義』의 飜譯筆寫本은 완역과 부분 개작· 축약한 필사본으로 구분된다. 국내에 있는 『西漢演義』의 飜譯筆寫本 중 完譯에 가까운 필사본은 국립중앙도서관본 16권 16책·규장각본 29권 10책·고려대본 16권 16책·이화여대 12권 12책 등이 대표적인 필사본이다.

또한 서명에서 '초한'이 들어간 飜譯筆寫本을 살펴보면 필사본의 수 만해도 약 30여종이 넘고, 『楚漢演義』·『쵸한년의』·『쵸한연의』·『쵸한젼』·『楚漢傳』·『쵸한뎐』·『초한뎐』·『초한지』·『쵸한젼』·『초한전』·『초호지』·『쵸한연』·『쵸한녹』·『초한긔·옥셜기』·『초한실긔』까지 총 17개의 異名이 나타난다. 앞서 보았던 漢文筆寫本에서도 '서한'계열의 필사본보다는 '초한'계열의 필사본이 월등히 많았다. 이는 보통 전질 10권이 넘는 번역필사본보다는 간략하게 1권으로 단권화한 축약필사본이 보기에도 편하고 경제적이었던 까닭으로 추정된다.

5. 結論

『西漢演義』는 『史記』·『漢書』 등의 역사서를 근간으로 하여 만들어진 작품이다. 이 책은 대략 16세기에 국내에 유입되어 中國出版本·漢文筆寫本·飜譯筆寫本·坊刻本(完板本)·舊活字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수용되었다.

필자는『西漢演義』의 판본자료를 수집하던 중에『西漢演義』가 다른 중국 역사연의소설들보다 다양한 書名의 異本이 발견되는 것을 확인하고 1차로 書名을 중심으로 판본을 분류하여 계통을 정리해보았다. 이 과정에서 판본의 형태를 통해 대략적인 제작 시기를 가늠하고 아울러 異本간의 영향 관계에 대해 비교·분석을 하였다. 또한 서책의 제작방법에 따라 中國出版本·飜譯出版本·飜案出版本으로 구분하여 그동안 단편적으로 정리되었던『西漢演義』의 판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그 가운데 국내에서만 보이는 특이 판본들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외 국내에 소장된『西漢演義』의 다양한 異本들을 살펴보면서 책이 성행했을 당시의 출판문화와 향유 계층, 시대적 흐름의 변화를 통한 작품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西漢演義』의 국내에서의 수용양상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었다.

『西漢演義』필사본·방각본·구활자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서책들은 다양한 異名의 책으로 남아 존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楚漢戰爭을 소재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가장 많았는데,『楚覇王實記』·『楚覇王傳』·『楚漢記』·『楚漢奇略』·『楚漢實記』·『楚漢演義』·『楚漢傳』·『楚漢誌』·『楚漢戰爭實記』등의 서명이 확인된다. 이러한 작품은 간행시기와 내용 및 형식적인 부분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계통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통해 국내에서 '楚漢'이라는 서명이 얼마나 활발히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는『西漢演義』의 국내 소장 판본 상황과 수용양상의 변화를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고찰하고자 하였다. 국내에 있는『西漢演義』의 대부분의 판본들을 열람하였으나, 전부를 다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실제 판본을 열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은 추후에 보완할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은 향후 연구과제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明代 公案小說의 敍事전략 연구*

吳曉麗**

<目 次>

1. 서 론
2. 公案小说의 형성 및 발전
3. 明代公案小说의 敍事구조 및 전개양상
 3.1 公案小说의 敍事시점
 3.2 公案小说의 敍事구조
 3.3 公案小说의 사건전개 양상
4. 결 론

1. 서 론

중국의 '公案小說'은 범죄와 법률이라는 제재를 주도적인 모티프로 한 소설이다. 각종 민사·형사 사건의 발생과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다루는 소설로 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이 사건들의 해결을 주도하는 판관에 대한 서술을 통해 법을 집행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법률을 선전하는 역할도 한다. 그리고 公案小說은 사회변화나 제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출현된 소설로 수많은 사건을 서술하면서 당시 사회의 복잡한 모습들을 구현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勸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公案小說은 오락성, 실용성, 그리고 교화적 기능까지 겸비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公案小說은 사건의 발생과 사건의 해결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소를 설정하여 서술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른 제재의 소설과 분명히 다른 敍事전략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주로 公案小說의 특성을 바탕으로 敍事구조 및 전개양상에 중점을 두고 公案小說의 敍事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公案小說이라는 장르의 독특한 문화적 함의와 문학적 특징을 고찰하고, 당시의 사법문화와 백성들의 생활 실태도 함께 조명해보고자 한다.

2. 公案小说의 형성 및 발전

公案小說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은 없다. 문자로 折獄 및 소송 사건을 기록하는 서적은 일찍이 출현하였으나 公案小說에 대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公案小說이란 명칭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명확치 않지만 宋代 '說話'의 분류 중 '說公案'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公案小說史를 조명해보면, 公案小說은 오래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公案이야기부터 魏晉南北朝시대의 맹아시기를 지나, 唐代에 초보적인 형태를 갖추게 되고, 宋元代에 와서는 說公案 및 包公戲 등의 형태로 유행하게 되었으며, 明代에 이르러서는 전문적인 公案小說集의 형태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萬曆년간에는 대대적으로 公案 열풍이 일어난다. 이러한 현상은 清代에까지 지속되어 俠義公案小說의 출현까지 이어진다. 중국의 公案小说은 또한 주변 나라인 한국과 일본, 심지어 서양에까지 전파되어 많은 영향을 끼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12.
** 숭실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초빙교수

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公案小說은 좁은 의미로는 明代公案小說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 만큼 明代는 公案小說 발전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당시의 문학적인 환경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또한 明代의 통치계층이 법률의 보급을 중요시한 결과이기도 하다. 萬曆년간에는 '公案'이란 단어로 명명한 短篇公案小說專集과 문인들이 정리・창착한 擬話本短篇公案小說이 출현하고, 끊임없이 간행되어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

12종[1]으로 알려져 있는 短篇公案小說專集에 해당 작품으로는 ≪百家公案≫, ≪廉明公案≫, ≪諸司公案≫, ≪新民公案≫, ≪海公案≫, ≪詳刑公案≫, ≪律條公案≫, ≪法林灼見≫, ≪明鏡公案≫, ≪詳情公案≫, ≪神明公案≫, ≪龍圖公案≫ 등이 있다. 天啟년간 短篇公案小說集이 점차 쇠퇴되기 시작하고 擬話本公案小說이 성행하였다. '三言二拍'과 ≪型世言≫ 등의 擬話本小說 가운데 公案小說 작품이 상당히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학계의 일반적 견해를 봐서는 '三言'의 총 120편 작품 중 宋元시기의 40편 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80편 중 公案小說에 해당된 明代 작품은 18편이고, '二拍'의 총 80편 작품 중 公案小說에 해당된 明代 작품은 25편인 것으로 확인된다.[2] 擬話本小說 ≪型世言≫ 전서 40편 작품 중 公案小說에 해당된 작품은 13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3] 擬話本小說의 창작 과정 중 公案小說이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미루어 알 수 있다. 短篇公案小說專集들은 서로 답습하는 상황이 심각하고, 일반 문인이나 書坊主까지 나와서 公案小說의 창작과 편집에 참여하여, 작품들이 조잡하고 중복된 부분이 많아 예술적 가치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와 달리 擬話本公案小說들은 전문 지식인들이 글을 쓰기 때문에 창작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같은 제재인데도 서스펜스를 설정하여 긴장감을 주어 독자들의 흥미를 증가시켰다.

3. 明代公案小说의 敍事구조 및 전개양상

그 동안 계속 公案小說에 대해서 소재에 중점을 두는 장르로 보고 敍事전략은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해 왔다. 문학작품의 길이가 어느 정도는 敍事의 방식을 결정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公案小說들은 단편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어 길이가 짧고 구조가 단순함으로 예술적 가치가 떨어져 학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시간 순서대로 敍事 절차를 정하는데 먼저 사건 발생 과정을 서술하고, 그 다음 관리가 사건을 해결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는 식으로 公案小說의 가장 흔한 敍事방식이다. 이러한 敍事방식은 작품자체의 제재상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술자의 敍事전략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서술자는 법의 공정성과 엄격성을 선전하는 동시에 소설적 역할도 수행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보인다. 이에 본장에서는 敍事學에 입각하여 明代 公案小說의 敍事시점 및 敍事구조, 그리고 사건의 전개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

1) 黃巖柏의 ≪中國公案小說史≫(遼寧人民出版社, 1991)와 陳大康의 ≪明代小說史≫(上海文藝出版社, 2000)에서는 모두 12종으로 서술한 바가 있다.

2) 이 숫자는 俠義・公案이 뒤섞인 작품을 제외한 것으로 ≪喻世明言≫ 卷36, ≪二刻拍案驚奇≫ 卷39 등 협객에 관련된 작품은 모두 포함되지는 않았다.

3) 黃巖柏, ≪中國公案小說史≫, 遼寧人民出版社, 1991, 160-165쪽; 苗懷明, ≪中國古代公案小說史論≫, 南京大學出版社, 2005, 78쪽; 皋於厚, <明代公案小說的發展演進>, ≪江蘇公安專科學校學報≫, 1999年第6期, 152쪽; 모두 같은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鄧百意는 '三言二拍' 중 전형적인 公案小說 작품은 각각 18편과 9편이고, ≪型世言≫에는 4편이라고 주장한다. 鄧百意, <晚明的公案小說創作—小說觀念的變遷與敍事模式的曲折演進>, ≪明清小說研究≫, 2005年第4期, 45쪽.

3.1 公案小說의 敍事시점

3.1.1 전지적 敍事시점

전지전능한 서술자는 인물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모든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들을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사건 전개뿐만 아니라 등장인물의 외모, 동작과 심리까지를 모두 알고 독자에게 전달한다. 公案小說도 대체로 서술자의 전지전능한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사건은 시간순서에 따라 연속적으로 발전하고, 서술자는 그 발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들한테 전개한다. 이것은 또한 公案小說의 서스펜스가 부족하고 예술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원인 중 하나이다.

전지적 敍事시점은 전지전능한 서술자가 작중 인물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심지어 인물들의 동작과 심리까지도 자유자재로 독자한테 전달 할 수 있다. 그러나 서술자는 모든 작중 인물의 내부세계까지 독자에게 설명, 폭로하지는 않는다. 申丹에 따르면 “주요 인물 혹은 긍정적 인물의 내면세계만 집중적으로 밝힌다.”[4]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주로 敍事의 번잡함을 피하고, 敍事的 거리(narrative distance)[5]를 조절하기 때문이다. 한 인물의 내면의 심리활동을 집중적으로 밝히는 것은 독자와 작중 인물의 거리를 단축하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

전지전능한 서술자의 입장에서 사건 서술이 이루어져 독자에게 전달되므로 이에 독자들은 피동적인 각도에서 모든 정보를 알게 되어 점차 자신의 판단을 잃게 되면서 작품이 지루하게 느껴진다. 능동성을 지니고 있는 독자들은 점차 서스펜스가 있고 생동감이 넘치는 작품들을 찾게 된다. 그들은 권위를 믿지 않고, 자아가 작품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작중 인물과 공명이 생기게 된다. 이것은 아마도 明代 公案小說이 침체에 빠지게 되어, 清代의 俠義公案小說이 출현하게 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3.1.2 제한적 敍事시점

公案小說들은 대체로 전지적 敍事시점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분위기를 띄워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서술자는 또한 제한적 敍事시점을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특정인물인 판관의 시점에 맞춘 제한적 敍事시점이 드러난다. 제한적 敍事시점은 擬話本公案小說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전형적인 작품으로는 ≪警世通言≫ 卷13 <三現身包龍圖斷寃>[6]이 있다. 서술자는 독자의 호기심 유발을 위해 일부러 제한적 敍事시점을 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함축적인 敍事시점은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고 결말에 문득 크게 깨달음을 주는 효과를 보게 된다.

전지적 敍事시점과 제한적 敍事시점을 혼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 公案小說 작품은 서두에서는 전지적 敍事시점으로 사건의 배경이나 상황을 독자들에게 대략적으로 소개하여 독자로 하여금 빠르게 사건에 스며들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敍事시점을 끝까지 고수하면 이야기에 대한 신비감이 점차 떨어져 독자들의 흥미가 사라지게 된다. 그리하여 전지적 敍事시점과 다른 敍事시점을 혼용해야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敍事시점을 혼용하는 방식은 사건을 더욱 흡인력 있게 하여 독자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이로 인해 이야기와 독자 간의 거리 또한 좁혀지게 되어 독자는 끝까지 작품을 읽게 된다.

---

4) 申丹, ≪敘述學和小說文體學研究≫, 北京大學出版社, 1998, 213-215쪽 참조.

5) 敍事的 거리는 미국 시카고 수사학파 비평가인 웨인 부스(Wayne Clayson Booth)가 The Rhetoric of Fiction(≪小说的 修辞学≫(1961)에서 최초로 제시한 이론으로 소설의 敍事주체 간의 거리를 가리킨다. 敍事주체는 내포저자(Implied Author), 서술자와 작중 인물을 일컫는다. 웨인 부스는 저자는 내포저자를 통해 敍事를 진행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저자는 작품마다 자기 생각과 다른 인물을 만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제라르 주네트(Gérard Genette)는 Narrative Discorse(≪서사담론≫, 1972)에서 초점화(focalization)를 제안하면서 내포저자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6) ≪古本小說集成≫ 534 ≪警世通言≫, 449-483쪽.

3.2 公案小說의 敍事구조

3.2.1 公案기능에 의한 敍事

楊義의 ≪中國敍事學≫에서는 한 편의 敍事작품의 구조는 다양한 형식으로 작품의 많은 단원을 조직하고 있으므로 왕왕 작품 중에 가장 큰 隱義가 함축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7] 이에 敍事구조를 이해하면 텍스트를 더욱 깊이 있게 해독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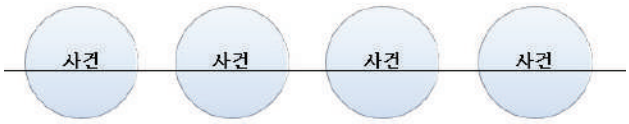
'綴段式'(episodic) 敍事구조는 중국 고전소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公案小說 또한 이러한 敍事구조를 애용한다. 明代의 短篇公案小說專集이나 擬話本公案小說, 淸代의 俠義公案小說 등이 모두 '綴段式' 敍事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본고는 사건의 발생과 해결을 서술하는 것을 公案기능에 의한 敍事라고 규정한다. 公案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綴段式' 구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총체적으로 말하면, '綴段式' 敍事구조의 특징은 2가지로 귀납할 수 있다.

① 사건들이 병렬관계에 있어 서로 독립적이다.

② 시간적 맥락은 에피소드식(episodic)이다.

〈그림3-1〉 綴段式 敍事구조



'綴段式' 구조의 기원은 宋代의 話本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話本의 敍事구조는 대부분 여러 개의 상대적이고 독립적인 작은 이야기들로 연결된 것이다. 이러한 작은 이야기들을 '小套'라고 하였다. 說話人은 이 '小套'들을 서로 결합하여, 한 고리 한 고리 서로 채워져 있는 듯한 '綴段式' 구조를 만들었다. 公案小說의 하나의 중요한 연원은 바로 宋代의 '說公案'이다. 그리하여 話本의 '綴段式' 구조는 당연히 公案小說을 창작하는데 채택된다.

短篇公案小說專集 ≪百家公案≫(100回)과 ≪海公案≫(71回)은 모두 '回'로 연결되어 있지만 회마다 아무런 관련도 없고 서로 독립적인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百家公案≫의 주인공은 包拯이고, ≪海公案≫의 주인공은 海瑞로 설정되어 있고, 그들을 둘러싼 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또 그들로 인해 사건들이 해결된다.

결국 '說話'에서 비롯된 公案小說의 敍事구조는 說書人의 說話방식에 달려 있다. 說書人들이 복잡한 표현수법을 사용하지 않은 이상 산발전인 公案사건들은 그저 구슬을 꿰듯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독자한테 알려준다. '綴段式' 敍事구조는 짜임새가 느슨하다는 반면 자유로운 형식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독자들에게 다각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明代 短篇公案小說專集을 대국적으로 본다면, 그 산발적인 公案사건들이 어떤 상부지휘구조로 통괄되어 있다는 느낌도 든다. 독립적인 이야기 사이에는 그럴만한 개연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드러나지 않는 引張力으로 법률을 선전하면서 선악을 가리고 있다. 또한 더 많은 사례를 보여 주어 독자들이 실제 소송을 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綴段式' 구조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라 짐작된다.

3.2.2 淸官의식에 의한 敍事

판관은 公案小說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판관 중 청렴하고 공정한 관리를 淸官이라고 한

7) 楊義, ≪中國敍事學≫, 人民出版社, 1997, 39쪽.

다. 清官을 핵심인물로 하는 公案小說에서는 清官의식에 의한 敍事도 주목할 만하다. 清官의식은 봉건적 전제군주 통치체제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봉건 시대에는 일반 민중들이 정치적 법률적 권리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운명조차 지배할 수 없었다. 억압과 억울함을 당할 때 현명한 통치자나 공정한 지방 관리를 기대하고 갈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중에도 특히 사건을 직접 주관하여 해결해주는 판관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간절하였다.

宋元 公案話本 중 清官에 대한 敍事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양상은 明代의 短篇公案小說專集에서도 지속되어 敍事의 중점은 여전히 사건 발생에 있는 작품이 많다. 明末 擬話本公案小說이 출현되어서야 清官 이미지를 중요시하여 사건해결에 대한 敍事도 많아진다. 清代에 이르러 俠義公案小說에서는 清官이 협객들과 결합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중심은 협객들로 전이된다. 清官은 사건의 종식을 선언하는 사람으로서 敍事의 繁简을 좌우하기도 한다. 소장을 보자마자 호통을 치면서 범인을 잡아오라고 하여 심판하는 관리가 있고, 소장을 접수하자 깊은 고뇌에 빠진 관리도 있다. 사건이 빨리 해결되면 이야기 또한 짧게 끝나는 것이고, 여러 심리과정을 거치면 이야기도 길어진다는 것은 당연하다.

明代 短篇公案小說集 중 특히 傳記體公案小說專集 ≪百家公案≫, ≪新民公案≫, ≪海公案≫, ≪龍圖公案≫은 다른 短篇公案小說集보다 한 명의 清官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묘사하여 清官의 이미지가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이러한 清官들은 현실을 넘어 신격화되어 사건을 해결하는데 활약을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短篇公案小說 중에서도 清官의식에 의한 敍事가 많다. 그러나 제목에 관직명이 들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清官의식에 의한 敍事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諸司公案≫6卷 59편이 모두 제목에 관직명이 들어 있지만 실제 敍事 과정에는 사건발생에 치중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擬話本公案小說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擬話本公案小說 중의 판관은 자각적으로 만들어낸 인물로 그에 대한 이미지 묘사는 短篇公案小說專集보다 훨씬 정교하고 생동감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추상적이거나 신격화된 인물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생생한 사람이다. 작품마다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도 다양하고 각자의 존재가 독특하며 다른 인물과 맞바꿀 수 없다. 작품 제목에서 판관들의 역할의 중요성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清官의식에 의한 敍事는 무조건 긍정적이지 않고 清官들의 본연의 모습도 敍事의 일부가 된다. 우매하고 무능한 관리의 사건해결 장면도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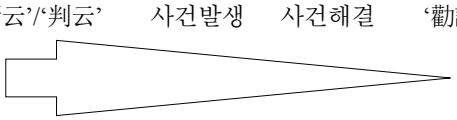
3.2.3 勸誡목적을 위한 敍事

宋元話本公案은 說書人의 底本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명확한 창작 목적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明代의 公案小說 창작은 명확한 목적이 보이기 시작해, 법률을 선전하고, 孝忠을 권하며, 권선징악을 선양하고 있다.

≪百家公案≫은 100回로 된 短篇小說專集으로 각 이야기들은 서로 관련은 없지만 비교적 통일된 것은 서두에 있는 '斷雲', '判雲' 형식과 말미에 있는 교의(敎義)를 전하는 말이다.

서술자는 작품을 통해 권계나 교화의 목적이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작가는 單線順敍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單線敍事는 소설의 가장 기본적인 敍事구조로, 즉 敍事에서 하나의 主線만 있고, 이 주선을 시간적 공간적 경과에 따라 이야기를 발전시키는 구조이다. 소위 '한 길로 끝까지 간다.[一條道走到黑]'는 방식이다. 한 주인공을 둘러싸는 줄거리가 단일하고, 敍事 과정 중 확연히 주제를 드러낸다. 이러한 敍事구조는 단편소설에 적합하고, 독자 또한 쉽게 이야기나 주제를 이해할 수 있다. 단점은 줄거리가 무미건조하고 표현력도 부족하여, 독자로 하여금 심미적 피로감을 쉽게 일으킬 수 있게 하는 것이다. 勸誡 목적에 의한 敍事구조는 아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3-2〉 單線式 敍事구조



서두에 있는 '斷雲', '判雲'은 말미에 있는 勸誡의 복선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勸誡를 하기 위해서 사건의 발생과 해결을 통해 서술자의 목적이나 의도를 표현한다. 이런 방식으로 短篇公案小說集의 작품수에 따라 몇 번 심지어 몇 십번이나 반복되어 勸誡하는 내용이 강화된다.

明代의 擬話本公案小說도 勸誡 목적에 의한 敍事 경향이 확연히 드러난다. 馮夢龍의 '三言'의 명명도 중생을 가르쳐 인도하는 의도가 보인다. 擬話本公案小說의 또 하나의 특징은 短篇公案小說專集처럼 勸誡가 말미에만 덧붙여져 있지 않고 入話부분이나 正話부분에도 때때로 勸誡의 글이 덧붙여져 있다는 것이다.

3.2.4 法律보급을 위한 敍事

公案小說은 당시의 사회상과 소송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短篇公案小說專集의 편찬부터도 법학서의 체계를 사용하여 범죄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으로 법률을 보급하는데 의도가 없지 않다. 일본학자 阿部泰记의 지적대로 당시 편찬자들의 의도는 결코 단순히 소설을 편찬하는데 있지 않고, 현실에서 응용할 수 있는 재판 입문서를 편찬함에 있다.[8]

明代의 公案小说에는 '三詞'라는 말이 있는데, 즉 원고의 소장[狀詞], 피고의 답변서[訴词], 판관의 판결문[判詞] 3가지이다. 書判體公案小說에서는 소장, 답변서, 판결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敍事하는데 있어서도 실용적인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書判體公案小說專集인 ≪廉明公案≫은 총105편 중 64편(약 61%)의 이야기에는 줄거리에 대한 敍事가 없이 소장, 답변서, 판결문만 들어 있다. 이뿐만 아니라 판결문의 내용 또한 法律類書 ≪蕭曹遺筆≫로부터 직접 초록한 것으로 보인다. ≪海公案≫은 4卷 총 71回로 제11回만 제외하고 거의 회마다 소장, 답변서, 판결문식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어 書判體의 색채가 가장 짙고 마치 판례집을 보는 것 같다.

한편, 公案小說에서는 敍事에 있어 소송하는 방식도 반영하고 있는데, 사건에 부닥칠 때 기본적인 기소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중국 고대의 소송제도에 의거하면 기소하는 방식은 주로 죄상을 들어 탄핵[举劾], 고발[告发], 고소[告诉] 등이 있다. 明代 公案小說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기소방식은 고소이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관청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소는 또한 自訴와 代訴 등 여러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公案小說에서는 自訴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가끔 代訴도 등장한다.

종합해보면 明代 公案小說의 편찬은 주로 문화 수준이 비교적 낮은 서민 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9] 소장, 답변서, 판결문을 통해 사건을 서술하는 동시에 기본적인 소송 과정을 제시하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 또한 고발, 고소 등의 기소 방식을 통해 날로 험악해지는 사회 기풍 속에 서민들의 정의감을 되살리는 의도도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8) 阿部泰記著; 陳鐵鎭譯, <明代公案小說的編纂>, ≪綏化師專學報≫, 1991年第1期, 48쪽. 이 논문의 원고는 ≪日本中國學會報≫(1987年第39輯)에 실려 있다.

9) 박소현에 따르면 "公案小說이 '팔린' 진정한 이유는 그것이 통쾌하고 흥미진진한 범죄소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公案小說에 삽입된 고소장과 판결문, 그것이 전달하는 이해하기 쉬운 법률상식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였다. 박소현, <중국과 조선의 법률문화와 범죄소설의 계보학>, ≪비교문학≫ 第53辑, 2011, 61쪽.

3.3 公案小说의 사건전개 양상

公案小說은 사건발생과 사건해결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작품으로, 敍事하는 데 있어서도 위 두 가지 방면이 가장 핵심이라 생각된다. 사건발생 부분은 주로 범죄를 저지르는 기인, 수단 및 과정을 서술하는데 이 부분은 대체로 공개식 범죄와 은닉식 범죄로 나눌 수 있다. 사건해결 부분은 주로 판관이 사건을 다루는 과정을 서술하는데 이 부분은 심리와 판결로 나눌 수 있다.

1) 法醫검사법; 2) 현장조사법; 3) 안색관찰법; 4) 기획수사법

마지막으로 결말을 짓는 양상은 판결문, 평론문, 후일담 등 주로 3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公案小說에 관련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明代에 성행했던 公案小說을 중점적 분석대상으로 삼아 기존의 소설 연구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公案小說에서 보여지는 敍事시점, 敍事구조, 갈등양상, 등장인물 등을 살피면서 公案小說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주로 敍事學에 입각하여 公案小說 작품 내부로부터 작품 자체의 법칙을 발굴하고, 작품의 심층구조를 연구하였다.

公案小說은 범죄 사건의 발생과 해결을 敍事의 주요 모티프로 하는 독자성을 지니고 있는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12종의 短篇公案小說專集은 비록 明代에 출현한 다른 명작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敍事的 취약성 및 제한성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古典小說의 전통적인 敍事방식을 흡수하여 書判體라는 公案小說의 특유한 유형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三言二拍' 중 擬話本公案小說은 公案小說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킨 작품으로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敍事시점의 측면에서 公案小說들은 전지적 敍事시점 위주로 사용되고 있다. 사건은 시간순서에 따라 연속적으로 발전하고, 서술자는 그 발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들한테 전개한다. 公案小說이 전지적 敍事시점을 즐겨 사용하는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이야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인공과의 거리를 단축함으로써 쉽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는 범죄사건에 대한 이해와 그 사건을 해결하는 판관에 대한 숭배심리가 깊게 남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법을 중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의 지루함과 단순함을 느끼게 하여 서시펜스가 더 강한 작품을 찾게 한다. 그리고 敍事구조의 측면에서 公案小說은 중국 古典小說에서 많이 볼 수 있는 綴段式을 위주로 사용하고 있다. 다른 소설과 비교하면, 公案小說은 綴段式을 사용하여 서술자가 더 다양한 유형과 수량의 사건들을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고, 죄지은 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清官들의 청렴함과 공정함을 부각시키고 있다. 더불어 법률을 보급하는 역할을 하면서 독자들이 실제로 소송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公案小說이라는 하위 장르는 중국 古典小說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출현하여, 독특한 장르로서 古典小說이 새로운 발전단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明代 성행했던 公案小說들은 영리목적으로 맹목적으로 표절하거나 답습하여 예술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문학작품을 조잡하게 양산하게 되면 문학 무대에서 물러나기 십상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예이다. 한편, 公案小說이 한때 수많은 독자들의 환영을 받고 번영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도 사실인데, 이는 당시 민중들의 법률지식에 대한 욕구가 강하고, 이를 통해 실제 생활 속의 법률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법률지식을 참고하는 동시에 오락성도 잃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진다.

清代 子弟書 研究

함영은*

<目 次>

1. 서론
2. 子弟書 형성 및 작가층
3. 子弟書와 관련 강창 장르와의 비교
4. 子弟書의 소재와 내용
5. 子弟書의 언어적 재현과 예술적 승화
6. 결론

1. 서론

본 논문은 子弟書를 독자적인 문학장르로 바라보고 그 문학성격을 작가 의식과 관련지어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그동안 간과된 속문학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으로 子弟書가 갖는 문학사적 의의를 확인하고자 하며, 고정된 텍스트가 아닌 전승 맥락을 고려한 텍스트 읽기에 그 의미를 둔다.

子弟書는 清 乾隆(1736~1795) 연간부터 光緒(1875~1908) 연간까지 北京, 天津 및 東北 지역에서 八旗子弟[1]들이 창작하여 유행한 강창문학(講唱文學)을 일컫는다. 강창문학은 운문(韻文)과 산문(散文)이 섞여 있는 중국문학의 한 양식이다. 운문은 노래하는 부분이고, 산문은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1907년 마크 오렐 스타인(Mark Aurel Stein)이 敦煌에서 변문(變文)을 발견함으로써 중국 문학사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일부 난제들이 해결되었다.[2] 鄭振鐸은 變文에 대해 "이런 문체는 중국에서 참신한 것으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이다."[3]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운문과 산문을 엇섞은 韻散結合의 형식을 지닌 變文이 관심을 받게 되었다.

현존하는 450여 편의 작품 가운데 戲曲에서 소재를 취하여 엮은 것이 140여 편 이상이고, 小說에서 소재를 취한 작품은 130여 편 이상이다. 또한 순수창작물은 110편 정도로 만주족들의 현실생활을 반영한 작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귀족자제의 몰락과 쇠퇴, 희로애락을 겪으며 생활하는 모습, 여러 가지 직업군의 신세한탄, 당대의 역사사건 등으로 旗人들의 현실생활을 담아내 작품으로 구체화하였다. 순수창작물에서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어떠한 메시지도 전달하려 하지 않고, 旗人들의 위치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삶과 모습의 사실적 묘사를 지향하였다. 기성작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언어적 기법과 특성보다는

* 한양대학교

1) 清代 만주족의 군사조직으로 八旗 구성원이자 귀족의 후대이다. 旗로 구분을 하며 正黃, 正白, 正紅, 正藍, 鑲黃, 鑲白, 鑲紅, 鑲藍의 八旗로 나눈다.

2) 變文은 甘肅省 敦煌의 莫高窟에서 발견된 唐代의 통속 문학 자료이다. 1907년과 1908년에 스타인(Stein)과 펠리오(Pelliot)가 중국에서 헐값에 사서 영국과 프랑스에 대량으로 가져갔다. "30년 전(1907년)에 스타인이 돈황보고를 발굴해 변문이라는 일종의 문체를 발견한 후 모든 의문이 서서히 해결되게 되었다. …… 우리는 수천 년간 민간사상을 지배해 온 보권(寶眷), 고사(鼓詞), 탄사(彈詞) 등 읽을거리의 연원도 원래 여기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三十年前史坦因把敦煌寶庫打開了而發現了變文的一種文體之後, 一切的疑問, 我們才漸漸的可以得到解決了. …… 我們才明白許多千餘年來支配着民間思想的寶眷, 鼓詞, 彈詞一類的讀物, 其來歷原來是這樣的." 鄭振鐸, ≪中國俗文學史≫, 商務印書館, 2010, p156.)

3) "這樣的文體, 在中國是嶄新的, 未之前有的." (위의 책, p163.)

사실적인 묘사에 치중하여 旗人들의 삶의 진실과 현실세계를 담아낸 작품으로 구체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작품들과 순수창작물의 공통점은 旗人들의 융화력으로 인간 내면의 감성을 잘 포용하여 스토리를 구축해 나간 것으로 子弟書 장르적 의미를 정립할 수 있다.

子弟書는 시대적 맥락에 의해 원작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대중의 취향에 적극적으로 반응한다는 특징이 있는 한편, 편폭 면에서의 단편화로 인물들의 내면세계를 표현함으로써 정서적 의미에 치중하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작품의 완결성보다는 흥미로운 부분을 확장하고 부연하는 방식으로 부분적인 감동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나갔다. 이는 한족문화를 동경하지만 그대로 흡수하지 않고 주체적 수용과정을 거쳐 독자적인 문학장르로 창조해낸 것으로 청나라가 공식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1912년까지 존재하였다.

旗人들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물에는 그들의 생각과 현실이 고스란히 담길 수밖에 없는데, 그간에는 旗人들이라는 독특한 집단이 갖는 강창예술의 언어적 특성은 그다지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 특히 작가들의 언어적 재현 양식의 저변을 구성하는 기제인 사회적 맥락과의 연결에서 충분한 의미부여가 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子弟書가 성행했던 시대의 현실과 조응하는 양상 또한 면밀하게 분석하여 타 문화의 수용이 어떠한 변화를 거쳐 새로운 문학으로 구축되었고, 또 점차 퇴색되어 갔는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子弟書를 연구함에 있어서 이해의 깊이와 폭을 넓히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2. 子弟書 형성 및 작가층

清・顧琳은 ≪書詞緖論≫에서 "신해년(乾隆 56年) 여름 도성에 갔다가, 子弟書라는 것을 듣게 되었다."[4] 라고 했다. 이를 子弟書에 관한 최초 기록으로 보고 있다. 任光偉는 "北京의 일부 八旗子弟들이 彈詞開篇을 참조하여 民間의 十三道大轍로 7언 체계의 '書段'을 만들어냈다. 三弦에 八旗子弟樂의 곡조를 곁들여 만든 것이 최초의 子弟書이다."[5]라고 하였다. 子弟書는 子弟段兒, 弦子書 라고도 불린다. 子弟段兒라 불리는 이유는 鼓詞처럼 장편이 아니라 단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고, 弦子書라 불리는 이유는 "이런 장르(書)를 창할 때, 三弦만 사용하여 혼자 다루고 혼자 노래한다."[6]고 하기 때문이다. 또 京音子弟書, 衛子弟書, 清音子弟書로도 불리는데, 이는 모두 子弟書가 전승되었던 지역과 관련이 있다. 北京에서 전승되었던 子弟書를 '京音子弟書'라고 불렀고, 天津에서 전승되었던 抄本과 刻本은 겉표지에 '衛子弟書'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고, '清音子弟書'는 주로 東北 일대에서 전승되었다.

子弟書 각 작품의 작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제기되어왔지만 모두 확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그 이상 확실한 고증은 어려운 형편이다. 子弟書 작가들의 생존연대는 康熙 연간부터 光緖 연간까지 걸쳐 있다. 羅松窗, 芸窗, 韓小窗은 子弟書 前期의 작가이고, 漁村, 雲崖, 西林, 鶴侶, 謁堂, 洗俗齋, 蛤溪釣叟는 子弟書 後期의 작가로 활동했다. 子弟書가 鼓詞에서 파생되었고 鼓詞에 기초하여 지은 것이라는 주장에 의하면 子弟書 작가들은 清 中・後期에 많은 작가를 배출해야 들어맞는다. 생존 연대를 추정할 수 없는 작가가 대다수이고 子弟書 대표 작가들은 清 初・中기에 활동했기에, 清 初보다 中・後期에 많은 작가를 배출했다고 볼 수도 없다. 羅松窗은 西城調 음악을 대표하는 작가이고, 韓小窗은 東城調 음악을 대표하는 작가이다. 羅松窗은 생존연대를 확정할 수 있는 작가로써 작품수량을 파악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韓小窗은 清 後期 작가로 보는 관점이 일반적이지만, 필자는 고증을 거쳐 清代 前・中期 의 작가로

4) "辛亥夏, 旋都門, 得聞所謂子弟書者." (黃仕忠、李芳、關瑾華, ≪子弟書全集≫(第十卷),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2, p4347.)
5) "北京的一些八旗子弟參照彈詞開篇, 用民間十三道大轍, 創造出以七言為體的書段, 佐以三弦再合之以八旗子弟樂之曲調, 即成為最早之子弟書." (任光偉, 「子弟書的產生及其在東北之發展」, ≪藝野知見錄≫, 1989, p2.)
6) "唱這種書時, 只用一架三弦, 自彈自唱." (李家瑞, ≪北平俗曲略≫, 上海文藝出版社, 1990, p9.)

보아야 한다고 본다. 일각에서는 韓小窗이 지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작품을 500여 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가 확실치 않다. 韓小窗의 이름을 새겨 넣지 않은 작품 중에서 필치가 흡사한 것을 韓小窗의 작품으로 고증하였다. 韓小窗은 東城調를 대표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지만, 애정 고사를 다룬 작품도 언어유희의 시적 기교로 서정성을 더욱 극대화하여, 西城調 역시 東城調 못지않게 잘 다룬 작가임에 틀림없다. 芸窗은 羅松窗, 韓小窗과 함께 子弟書 문단에서 3대 작가로 언급되어 왔지만, 그의 생애 역시 전해지는 것이 거의 없다.

3. 子弟書와 관련 강창 장르와의 비교

繆東霖은 ≪陪京雜述・雜藝≫에서 "說書人에는 네 등급이 있는데 가장 상등이 子弟書이고, 다음이 平詞, 그 다음이 漫西城, 다시 그 다음이 大鼓梅花調인데 황당하고, 구절은 번다하고 거칠고 속된 것이 공존한다."[7]고 하였다. 子弟書 공연의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공연이 점잖아서 일반적인 大鼓書와는 성질이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清代 강창 장르는 彈詞, 鼓詞, 子弟書, 大鼓(書)의 순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子弟書를 제외한 彈詞, 鼓詞, 評彈, 大鼓(書)는 모두 7언 운문을 바탕으로 하며 산문을 엇섞어서 사용하는 반면에 子弟書는 운문만 사용하였다. 서술구조에서 운문만 있는 경우 이야기의 전개, 상황묘사, 등 제반 임무를 함께 수행해야 하므로 이는 子弟書의 성격을 뚜렷이 보여준다. 子弟書와 鼓詞의 관계를 논함에 있어서 子弟書는 대체로 鼓詞에서 파생되어온 장르라는 관점이 일반적이다. 評彈과의 비교에서는 비슷하지만 子弟書만의 특징이 있으며 評彈보다 간결하고 섬세한 것이 돋보인다. 하지만 경물에 빗대어 감정을 토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여타 강창 예술 장르보다 彈詞開篇에 더 가깝다.

"子弟書, 快書, 牌子曲,[8] 岔曲[9]은 종종 大鼓書를 공연할 때 함께 공연되었다."[10]라는 기록을 미루어 볼 때, 이들 장르의 친연성은 분명히 보이나 상호관계와 상호작용은 매우 복잡하다. 이들 장르사이의 내용과 형식의 밀접한 연관성이 확보되는 동시에 강창 예술로서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子弟書는 여타 장르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창작해 나갔으며 清 後期에는 자신들의 개인사를 다듬어 순수창작물을 완성시킨다.

子弟書는 지역에 따라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려왔고 清 前期에서 後期로 가면서 음악형식과 제재면에서 차이가 있었다.[11] 鼓詞와 大鼓(書), 子弟書 사이에 여러 가지 설이 많이 보이는 점은 이들의 문체가 극히 유사하기 때문이다. 子弟書와 관련 강창장르와의 관계를 재정립한 결과, 시기적으로는 彈詞와 鼓詞가 子弟書보다 앞섰지만, 형식면에서 鼓詞보다는 彈詞開篇을 참고로 한 흔적이 보인다. 음악면에서 子弟書는 그 당시 유행하던 악곡에서 八旗子弟들만의 심미적 정취를 반영한 새로운 음악형식을 만들어내었다. 鼓詞는 後期로 들어서면서 단편을 위주로 공연했는데 이를 大鼓라고 불렀고, 내용면에서도 재자가인 이야기들로 확장된다. 大鼓와 子弟書의 같은 내용을 다룬 극목을 비교한 결과 작가와 내용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

7) "說書人有四等, 最上者為子弟書, 次平詞, 次漫西城, 又其次為大鼓梅花調, 既荒唐, 詞句又多, 鄙俚互見."(繆東霖, ≪陪京雜述・雜藝≫, 清光緒四年刊本, p1.)
8) 牌子曲는 여러 가지 곡패(南北小曲)를 연결하여 부르는 설창 예술의 하나이다. 北方에서 유행한 것은 三弦을 사용하였고, 南方에서 유행한 것은 揚琴, 琵琶, 二胡를 곁들였다.
9) 岔曲는 八旗子弟들이 지었고 그들 내부에서 종종 子弟書와 함께 공연되었다.
10) "除了大鼓書以外, 如子弟書、快書、牌子曲和岔曲等也是常在大鼓書場中演唱的." (趙景深, ≪大鼓研究≫, 商務印書館, 1937, p35.)
11) 이정재는 "鼓詞나 彈詞 등은 처음부터 명확한 장르개념으로 쓰였던 것이 아니고 민간의 藝人들이나 관중, 기록자 등이 관습적으로 말하고 들었던 경험이 누적되어 이루어졌던 용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子弟書 역시 이런 맥락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정재, 『鼓詞系 講唱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7.)

인되었다. 그러므로 大鼓가 子弟書의 일부를 흡수하였고, 大鼓는 子弟書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4. 子弟書의 소재와 내용

대부분의 子弟書 작품들은 그것의 전신이 되는 기성 장르의 작품에서 소재를 취하여 재창작하였기 때문에 소재는 광범위하다. 내용면에서는 크게 재자가인 이야기와 역사 이야기에서 소재를 얻은 작품으로 나눌 수 있고, 장르 면에서는 雜劇, 傳奇, 小說, 筆記, 詩歌, 民間故事 등 에서 각색되어 나온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남녀 간의 사랑이야기, 부부가 함께 어려움을 겪고 헤쳐 나가는 이야기가 주류를 차지한다. 이를 테면 부유한 집의 아가씨는 가난한 서생을 사랑하고, 가난한 서생은 공명을 얻는 이야기, 가족에 대한 사랑과 남녀 간의 사랑과 갈등을 겪는 이야기를 통해 그 시대를 지배하는 만주인들의 보편적인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450여 편의 子弟書 목록을 살펴보면 80%는 戲曲, 小說, 雜劇에서 소재를 취했고, 나머지 20%만이 八旗子弟의 생활에서 소재를 취한 것이다.

子弟書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색된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小說과 戲曲 그리고 순수창작물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旗人들이 기성작품을 수용하여 재창작 하는 과정에서 그들 자신들의 기호를 발견하고 子弟書에 반영한 것이기에 旗人 정체성과 의식이 형성된 배경을 살펴보는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먼저 八旗子弟들이 어떻게 중국문학을 수용하여 구체화하였는지와 중국문학이 子弟書에 미친 영향과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어서 중국문학 수용에서 시작된 子弟書 창작이 어떻게 주체적 창작의 방식으로 나아가 순수 창작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小說에서 소재를 취하여 엮은 작품은 ≪三國演義≫와 ≪紅樓夢≫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聊齋誌異≫, ≪水滸傳≫, ≪西遊記≫, ≪金瓶梅≫가 그 뒤를 잇는다. 이들은 모두 明·清代에 유행하던 小說들로 子弟書에서는 원작의 구성과 인물의 순서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원작의 스토리를 유지하면서도 구성을 해체하여 새로운 이야기로 단편화시킨다. 그 과정에서 인물의 정감과 언어표현에서 서정적 표현력을 한층 더 끌어올렸는데, 이는 子弟書 전반에 걸려 스토리를 완성시키는 방식으로 구축되고 있다.

戲曲에서 각색한 子弟書 목록을 보면 清代에 공연된 元·明·清 雜劇과 傳奇를 소재로 한 것이 많다. 이는 八旗子弟들이 널리 즐기던 공연들을 子弟書로 수용하였음을 시사한다. 극목을 보면 傳奇 작품 극목을 그대로 따온 것이 가장 많다. 戲曲에서 소재를 취하여 엮은 子弟書는 크게 재자가인, 역사 및 기타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小說과 戲曲을 수용하여 창작한 작품 외에도 순수창작물은 110편 내외로 전체 子弟書의 20% 가량을 차지한다. 주로 旗人들의 생활에 초점을 두고 그들의 현실세계를 표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자신들의 문학적 소양을 드러내기 위한 창작도 증가하여 궁극적으로 旗人들의 한어사용이 더욱 자유로워졌음을 보여준다. 필자는 이를 한족문화의 동경에서 시작된 창작이 자아발현의 글쓰기로 승화되었음으로 보고자 한다.

문학작품의 수용과 창작의 관점으로 보면, 기성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八旗子弟들에 의해 적절히 변용되어 子弟書로 재탄생되었다면, 순수창작물은 八旗子弟들의 온전한 창작의 결과다. 八旗子弟들이 기성작품을 수용하는 과정은 그들 문학 활동의 중요한 일부였다. 중국문학 작품을 수용하고 감상하는 수용자의 입장에서 창조적으로 재구성하는 노력을 통해 순수창작물을 창작할 수 있었다.

5. 子弟書의 언어적 재현과 예술적 승화

子弟書 목록을 살펴보면 小說과 戲曲에서 소재를 취한 작품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다. 小說을 수용하여 각색한 작품에서 언어적 기법이 유독 두드러진 작품은 ≪紅樓夢≫이다. 清 初 子弟書를 지은 旗人들은

한족문화에 대한 동경을 중국문학의 수용과 모방을 통해 표출했다. 수용과정에서 자연스레 자신들의 심미관에 맞는 변용이 이루어져 점차 독자적인 장르로 자리 잡아 나갔다. 처음에는 단순히 창작을 위해 다양한 기법이 활용되었고, 인물의 내면묘사에 있어서는 경물과 인물을 겹쳐 배치함으로써 서정적 시적 상황을 극대화하여 수용작품을 새롭게 의미화하였다. 이런 언어적 특징은 청중들의 정서에 직접 침투하는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子弟書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사용되었다.

戲曲 작품을 수용함에 있어서는 그 당시 유행하던 折子戲 극목을 그대로 따온 양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崑曲은 다소 난해하여 이해에 어려움을 느꼈으므로, 旗人들은 崑曲을 대신할 우아하면서도 창의적인 장르를 모색하였다. 崑曲의 서정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고, 흥미로운 부분을 확장하고 부연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여, 스토리의 완결성보다는 그 속에 놓인 인물들의 감정을 서사에 이입시켰다. 또한 子弟書 작가들은 작품 속에서 경물을 적절한 공간에 배치하고, 인물의 내면의식을 곁들여 스토리를 구축해나갔다. 경물과 인물, 인물의 내면이 겹치도록 묘사하는 수법을 즐겨 사용했다.

清 中・後期로 넘어가면서 모방을 통한 글쓰기 솜씨는 기법의 구애를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능숙해졌고 旗人들의 관심은 그들의 내면으로 전환되어간다. 이는 중국문학의 수용에서 자아발현으로 나아간 子弟書의 지향을 확인하는 준거가 된다. 그렇게 승화된 작품이 현실세계를 표상한 순수창작물이다. 순수창작물은 작가 개인의 구체적 경험과 관련이 커서 무엇보다 만주족 삶의 진실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다. 순수창작물에서는 주로 旗人들의 생활을 이야기하고 인물들의 처지나 상황이 변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기성작품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언어적 기법과 특성보다는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旗人들의 삶의 진실과 현실세계를 담아내어 작품으로 구체화하였다.

순수창작물에서는 대부분 旗人들의 생활을 이야기하여 清 初 수용작품의 모방의 방법론을 넘어서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냈다. 清 後期로 들어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작품에서 자기고백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바로 “한탄류” 작품으로 구체화된다. 신세를 한탄하는 작품에서는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애쓰지 않았지만 감정 이입이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작품들과 순수창작물의 공통점은 인간 내면의 감성을 旗人들의 특유의 융화력으로 잘 표현하여 스토리를 구축해나간 것으로 子弟書 장르로서의 의미를 정립하였다.

운문을 구성의 축으로 하는 子弟書는 언어의 조탁을 추구하고 생생한 시어를 구현하였다. 반복과 열거, 첩어의 사용, 대조의 수사법으로 인물의 감정을 극대화 시켰고, 특히 내면세계를 표현함으로써 청중들의 내면을 강하게 자극하였다. 이러한 수사법은 서사화를 위한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던 것으로부터 서정화의 기능까지 가지면서 확대 강화되어 쓰였다.

또한 사건 서술, 장면 묘사, 감정 토로 등의 방식으로 수용자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게 풀어나갔다. 이는 子弟書의 독특한 구성원리로 작가 자신의 감동과 정서를 밀도 있게 배치하여 청중들을 몰입시켰다가 해방시키며 스토리를 이끌어간다. 앞서 살핀바와 같이 대부분이 이미 알려진 수용작품으로서의 子弟書는 이야기의 존재론적 가치가 아닌 인물의 정감이 얼마만큼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는지 혹은 스토리 구성이 얼마나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지의 여부이다.

子弟書에서는 旗人의 정서에 언어적 기법이 깊이 작용하였다. 형식면에서 수사법의 활용으로 서사화를 완성시켰다면, 내밀한 정서를 표현함에 있어서는 수사적 기법과 서정성의 공존을 보여주었다. 이는 청중들에게 보다 많은 감정이입을 불러일으켜 子弟書만의 서정성을 확고히 구축해냈다.

6. 결론

본 논문은 子弟書의 언어적 재현 양식과 창작 특징을 작가 의식 및 시대 조류와 관련지어 규명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나아가 그 동안 간과된 속문학 영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子弟書가 갖는 독자적인 자리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子弟書 관련 연구는 문헌적 집성과 자료 정리의 성과를 바탕으로 큰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은 다름 아닌 언어의 조직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子弟書에 나타난 언어적 재현의 기법 및 그 문학성격을 충분히 해명한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子弟書를 이해함에 있어서 만주족이 한어로 쓴 작품이라는 점, 旗人들의 토착적인 정서를 담아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주족이라는 특수한 집단은 北京 성내에서만 제한되어 살면서 그들의 경험을 문학화하여 재현하였다. 이웃 강창 장르들과 확실히 구분되어지는 동시에 서로가 밀접한 친연성을 가지는 독자적인 문학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만주족이 한어로 기록하여 문학의 범주를 보다 확장하고 한족문화를 수용하고 융합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텍스트의 독창성과 대중화에 기여했다. 대부분의 작품은 널리 알려진 기성 작품들에서 소재를 취하여 중국의 전통문화, 즉 한족의 사유와 영향을 만주족들에게 전달하면서 그들만의 문화적 우월성을 확인하였다.

子弟書는 다른 문화와 친화적으로 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토대로 그 영역을 확장해나감으로써 清代 사회의 문화가 더욱 풍부해지도록 하였다. 子弟書라는 장르는 여타 강창 장르에서의 연결 고리역할을 수행하면서 다른 장르와 차별되는 특징으로 자리 잡아나갔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그간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던 子弟書 작품들도 강창문학 전체에서 적정한 자리를 찾아 清代 문학 전체를 풍성하게 하는 밑거름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4월 27일(토) 14:00~16:00

분과발표 2부

❖ 문학4분과 _ 고전산문

(장소: 326호)

김미라(원광대) 朝鮮 文壇의 唐宋 古文 지향 연구
– 茅坤과 그의 ≪唐宋八大家文鈔≫의 영향을 중심으로

박소현(전북대) 祈雨 祝文과 醮禮 靑詞를 통해 본 儒家와 道家의 祝文 比較
– 文體와 書寫를 중심으로

조민우(연세대) 중개자: 19세기 조선 역관 이상적의 세계도상

陳亦伶(香港浸會大學) 한국에서의『효경』의 수용과 전개

朝鮮 文壇의 唐宋 古文 지향 연구
— 茅坤과 그의 ≪唐宋八大家文鈔≫의 영향을 중심으로

김미라*

<目 次>

1. 들어가며
2. '唐宋八大家' 개념의 연원, 형성 및 유행
   (1) '唐宋八大家' 개념의 연원과 형성
   (2) '唐宋八大家' 選本의 正典化
3. 茅坤 ≪唐宋八大家文鈔≫의 판본 및 그의 비평 고찰
   (1) 茅坤의 문학관 및 문학사적 의의
   (2) 明淸 시기 간행된 唐宋八大家 選本과 茅坤 ≪唐宋八大家文鈔≫의 판본
   (3) 朝鮮에서의 茅坤 ≪唐宋八大家文鈔≫의 수용과 조선본 간행
   (4) 朝鮮 文人의 茅坤과 ≪唐宋八大家文鈔≫에 대한 인식과 비평
4. 朝鮮 文人의 중국 문학에 대한 인식과 創新에 대한 추구
   (1) 朝鮮 前期 중국 서적의 번역과 출판
   (2) 텍스트와 문체에 대한 인식과 창신: 韓愈의 <送窮文>을 중심으로
   (3) 한국에서의 歐陽修 문장에 대한 수용 및 변형
5. 조선 후기 문인이 편찬한 唐宋八大家 選本과 고문 지향
   (1) 正祖의 고문 지향: ≪八家手圈≫과 ≪唐宋八子百選≫의 편선, '文體反正'을 중심으로
   (2) 金錫胄의 고문 지향: 그의 출판 활동과 문장관을 중심으로
   (3) 金昌協의 고문 지향: 그의 정치적 배경과 문장관을 중심으로
   (4) 金澤榮의 고문 지향: 그의 교류 관계와 출판 활동을 중심으로
6. 나가며

1. 들어가며

주지하다시피 한국과 중국 양국의 교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다. 특히, 문화와 문학 방면에서의 상호 영향 관계는 매우 밀접하여 더더욱 무시할 수 없다. 필자는 우선 중국 문단에서 '唐宋 古文' 창작 전통의 연원과 관련 개념의 형성에 대해 주목하였고, 이런 창작 전통이 한국 문단에 유입되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 논문의 서론에서는 연구 동기와 방법, 현황에 대해서 서술하였고, 1장에서는 우선 중국에서 숫자 '8'에 대한 인식이 '唐宋八大家'에 어떤 인지적 작용을 하였는지부터 시작하여, 한국과 중국의 관련 문헌들을 비교 및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明代의 시대적 배경과 唐宋八大家라는 개념의 성립과 연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唐宋八大家文鈔≫에 반영된 茅坤의 비평과 문학관, 그리고 그의 편집 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조선 문인들의 중국 문학에 대한 인식과 創新에 대한 추구에 대해서 고찰하였는데, 우선 조선 전기의 서적 번역과 출판에 대해서 살펴

* 원광대학교 중국학과 강사

보고, 이어서 韓愈의 <送窮文>, 歐陽修의 <醉翁亭記>와 <六一居士傳>을 중심으로 조선 문인들의 중국 문학 텍스트와 문체에 대한 인식과 수용 그리고 변형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와 동시에 구체적인 조선 문인들의 작품을 통하여 韓愈와 歐陽修에 대한 추숭 양상과 그들의 고문에 대한 지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 논문 전반적으로 唐宋 古文의 正典化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현대적 관점으로 해석하고자 시도하였다.

2. '唐宋八大家' 개념의 연원, 형성 및 유행

본 장에서는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숫자 8에 주목하여 중국인들의 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 살펴보았고, 이어서 '唐宋八大家'라는 개념의 연원과 형성 과정 및 유행에 대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正典化의 개념에 대해 제시하고 이와 연관 지어 문장 평점과 문장 선집의 편찬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실, '唐宋八大家'라는 개념은 南宋 시기부터 元代에 이미 은연중에 형성되었으나, 明代에 이르러 唐宋派 문인들과 茅坤에 의해 비로소 확립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이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8명의 大家를 하나의 고정된 컨텐츠로 묶어 전파된 것이라 할 수 있다. '唐宋八大家' 라는 개념이 정립된 이후로 그 영향력은 매우 커서, 후대 문인들 대부분이 茅坤이 설정한 편선 체계와 비평을 기초로 하여 문장 선집을 편찬하였다. 게다가 여기에 여러모로 숫자 '8'에 대한 인지가 작용하여 '唐宋八大家'라는 개념이 사람들에게 더욱 각인되고 수용되었으며, 후대 문인들은 唐宋八大家의 가치에 대해 계속 다시 의미부여를 하였고, 그들의 문장을 문장 창작의 전범으로 세웠다.

唐宋八大家는 특히 南宋 시기 理學家들에 의해 '文統'의 개념이 더해지게 되었다. 그들은 唐宋八大家 文統의 정당성을 찾기 위하여 그 창작 연원에 대해 탐색하는 동시에 그것들을 근거로 하여 唐宋八大家가 지닌 典範性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였다. 사실, 주지하다시피 唐宋八大家는 모두 古文 運動을 제창한 문인들로, 그들은 또 官員이기도 했다. 그들이 제창한 古文 運動의 모토는 '載道'로서, 이는 문학뿐만 아니라 정치에도 적용되는 것이었다. 즉, 그들의 문학 사상은 儒家 경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들의 정통은 秦漢 이전의 고문에 있다는 것이다. 唐宋八大家의 문장 창작은 四六駢儷文의 구속에서 벗어나 秦漢 이전의 순정한 고문으로 되돌아가 자유롭게 작가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자 하는 지향에 중점을 둔다. 明代 八股文 창작의 유행과 과거 시험제도 등 유사한 환경에 이르러 이런 고문 지향에 다시 한 번 의미를 되새기고 평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唐宋八大家의 문장을 '選集'의 형식으로 편찬하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얻었다. 다시 말하자면, 古文 運動으로 인해 古文 評點의 흥기뿐만 아니라 '文統'과 '道統' 의 개념 또한 확립되었으니, 이는 '唐宋八大家'가 南宋 시기 이후로 正典化의 과정을 겪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사실, 正典化의 과정에 있어서 비단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각 시대의 문화 권력과 의식형태 또한 전범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각 시대 전반적인 상황과 분위기, 배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 시대의 독자들은 동일한 작품을 읽더라도 항상 자신이 습득한 독서 경험에 근거하여 작품을 감상하고 분석하게 되어 자연히 이전과 다른 견해와 느낌을 나타내게 된다. 즉, 이런 표현과 평점들은 모두 시대, 역사, 사회, 문화적 환경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選集'이란 보통 편선자가 자신의 관점 혹은 가치관을 근거로 하여 문장 혹은 작품을 선정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선집 자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수록되어있는 작품 하나하나가 모두 의의가 있으며, 역대 독자들이 그것에 공감하면서 점점 그 가치가 인정되어 '전범이 되는 작품들의 종합'이라고 칭할 수 있다. 전범이 되는 이런 작품들이 만약 사회적으로 공인받게 되면 비로소 '正典'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런 문학 작품들이 사회와 교육 제도 하에서 생존하였기 때문에 결국 正典이 되고 正典化 될 수 있

었던 것이라 하겠다. 즉, 正典이란 문학적 가치가 끊임없이 부여되는 과정에서 성립되는 것으로, 텍스트 안에 내포하고 있는 가치는 특정 시대와 사회를 초월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게 되며,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특수성은 모두 텍스트 자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唐宋八大家의 正典化에 대해 말하자면, 중국에서는 '範文', '載道', '文統'의 개념에서부터 나왔다. 즉, 과거제도와 연계되어 소위 '唐宋八大家'라고 하는 여덟 명의 문장가 객체 혹은 집단이 의도적으로 권위화되고 신성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작품이 正典化되는 과정은 바로 문학과 사회 그리고 문화 사이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한다. 이 관계는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문화권에 영향을 주어 하나의 문학적 표준이 되었는데, 이들 나라에서는 이런 표준을 기초로 하여 각각 자기 나라의 실정에 따라 唐宋八大家에 대해 正典化를 시도하고 진행하였다.

이른바 '正典化'란, 서로 다른 시대와 사회에 있어 각각의 수요에 따라 매번 재창조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성과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明淸 시기에 이르러 '唐宋八大家'라는 고문가들에 대해서 이전 시기에 비해 좀 더 업그레이드된 正典化가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단순한 문장 선집의 편선이 아니라 출판과 문화적 수요와 서로 결합하여 이런 正典化의 성과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계층들이 더욱 확대되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 또한 점점 더 확대되었다. 즉, 이런 고문 선집들은 과거 시험을 위한 교재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문화적 심미 대상이자 문장 창작의 전범이 되었던 것이다. 明淸 시기 문인들이 唐宋八大家에 대해 진행한 正典化 중, 특히 茅坤의 ≪唐宋八大家文鈔≫를 주목할 만한데, 이 선집은 중국뿐만 아니라 조선과 일본 등 동아시아 문화권 각국의 문단과 문학 창작에 영향을 주었고 또한 큰 반향을 얻었기 때문이다. 요컨대, 正典化가 사회적으로 끼치는 위력이 얼마나 강하였는지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3. 茅坤 ≪唐宋八大家文鈔≫의 판본 및 그의 비평 고찰

본 장에서는 茅坤(1512~1601)의 문학사적 위상, 그의 문학관, 그리고 ≪唐宋八大家文鈔≫의 판본 및 유전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唐宋派는 明 中期 문단의 중심에 서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시도하였다. 첫째, 唐宋派는 唐宋八大家 古文을 표방하며 문학 이론 구축에 있어 明 中期 과거 문풍에 대해 개혁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둘째, 그들은 唐宋 古文 관련 텍스트를 편선하는 방식을 통하여 과거 시험 응시자들을 위한 참고서 리스트를 제공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茅坤이 편찬한 ≪唐宋八大家文鈔≫는 문장 선별뿐만 아니라 거기에 비평을 더함으로써 당시 과거 응시생들에게 八股文 창작의 중요 참고서가 되도록 중점을 둔 選集이라 할 수 있다. 같은 唐宋派의 王愼中(1509~1559), 唐順之(1507~1569)와 비교해볼 때, 茅坤의 文論은 문학적 성격이 비교적 농후하고 오히려 道學的 성향은 약하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의 "만물의 情은 각자 지극함이 있다. (萬物之情, 其有各至)"라는 문학적 주장을 통하여 그가 문학 창작에 있어 감정의 표현을 중시하였다는 점과 '文以載道'를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茅坤의 唐宋八大家에 대한 評語 중 '得體'를 사용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그의 문체론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의 평점을 통해서 그가 문장의 편장 구조와 창작의 핵심 요소 등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는 특히 字法, 句法, 章法, 風格 그리고 기교 등 문장 창작의 기교에 주목하고 그것에 중점을 두고 평점을 하였다. 간략히 말하자면, 문장 창작에 있어 '法'을 취함이 적당해야 '그 體를 얻게(得體)' 되며, '그 體를 얻어야(得體)'만 '문장을 이룰 수(成章)' 있다는 것이다. 즉, 점진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문법과 문체 그리고 문장, 이 세 가지 단계가 고대 문학 작품의 구성과 창작에 있어서 서로 상호보완하여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渾然一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바로 茅坤의 평어 '得體'에 담겨 있는 그의 文體論이라 하겠다.

茅坤의 문체론은 특히 明代 吳訥(1372~1457)과 徐師曾(1517~1580)의 영향을 깊게 받았는데, 실제로 그의 평어에는 그들의 관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보인다. 그리고 茅坤은 문학사적으로 '唐宋派'에 귀속되어 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해서 茅坤은 擬古文派와 唐宋派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 그는 '文法'과 '文統'을 추구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그의 '情至'說 과 '風神'論 등과 같은 문학관은 文章批評의 영역과 연계되어 그만의 독창적인 면모를 나타낸다. 이로 인해 그는 '이전 문인들을 계승하고 후대 문인들을 계도하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또 후대 문인들의 창작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茅坤이 저술한 작품과 서적은 매우 다양하여, 현전하는 것만 이미 30여 종에 달하는데, 그중에서도 ≪唐宋八大家文鈔≫의 성취가 가장 훌륭하고 돋보인다. 조선본 ≪唐宋八大家文鈔≫에 대해서 말하자면, 비록 그 판본 종류는 많지 않으나 현재 전해지는 수량은 매우 많아 현재 한국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고루 소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茅坤의 ≪唐宋八大家文鈔≫가 조선 문단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수용되었으며, 아울러 ≪唐宋八大家文鈔≫가 여러 차례 많은 양이 조선에서 간행되고 두루 유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茅坤이 '文以載道'를 표방하여 편찬한 ≪唐宋八大家文鈔≫와 唐宋八大家의 문장은 儒家的 문학관을 중시하였던 조선 문인들의 특성과 기호에 딱 부합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조선에서도 과거제도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조선의 문인들 또한 唐宋 古文 학습을 통하여 문장 창작 실력을 키우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茅坤의 문학관, 그의 唐宋 古文에 대한 문체 분류와 비평 및 그 안에 담긴 사상, 그리고 문장 창작 방법론 등은 조선 후기 문인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주었고 또한 자연스레 흡수되었으며, 그 결과 '朝鮮式 創新' 혹은 '변형(즉, 朝鮮風 작품의 창작)'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많은 문인들이 여러 방면에서 자신의 唐宋 古文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었다.

그리고 18세기 조선 문단에서 가장 열띤 주제는 '어떻게 문장을 써야 할까'였다. 이 시기 문인들은 전범에 가깝게 자신의 작품을 창작하길 원했고, 더 나아가 고문의 작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18세기 문인들은 前代의 이런 한계를 넘어서길 원하였고, 그리하여 독서의 범위 또한 확대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典範的 성격이 비교적 강한 古文 작품을 선별하여 문장 선집을 편찬하였다. 그중에서도 한문학에서 '古文派'의 영수로 칭해졌던 金昌協(1651~1708)과 그의 門人들의 활약이 특히 두드러졌는데, 그들은 다채롭고 다양한 문장 수사 기법을 운용하여 문장 선집을 편찬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구체적인 비평을 첨가하여 더욱 체계 있는 문장 작법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18세기 조선 문단에 대해 말하자면, 實學派 문인들도 주목해야 한다. 實學은 17세기 조선에 이미 그 맹아가 싹텄으며, 18세기에 후반에 이르러 조선 문단에서 古文派와 나란히 서게 되었다. 그들은 '實事求是', '經世致用', '利用厚生'을 제창하며 여러 방면에서 더욱 실질적이면서도 실용적인 학문에 관심을 두었는데, 그들의 관심은 과학, 경제, 민생, 문학, 문화 등 각각의 방면에 두루 미쳤다. 문학 방면에 있어서 그들은 정면으로 '朝鮮風' 작품의 창작, '朝鮮式 創新'를 주장하였다. 그들은 유학 경전을 연구하면서 국가 차원에서의 전면적 개혁과 創新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또한 조선의 실제 상황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행정과 통치에 유용한지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활용하고자 하였다.

사실 조선 후기의 문단은 하나의 문파가 절대적으로 주도했던 것이 아니라, 擬古文派, 古文派, 實學派를 막론하고 모두 유학 경전과 통치 이념의 범주 안에서 '朝鮮式 創新'을 추구하며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며 발전해나갔다. 게다가 그들은 어떤 中國 朝代와 文派, 그리고 인물을 불문하고 그들의 文論과 작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자 하였으며, 그것들을 자신의 작품 안에서 비평하며 본인의 관점과 견해를 나타냈다. 그로 인해 조선 문인들이 茅坤과 그의 ≪唐宋八大家文鈔≫에 대한 비평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모두 골고루 나타난다. 그리고 茅坤에 대해 조선 문인들은 단순히 ≪唐宋八大家文鈔≫의 편선자, 唐宋 古文의 제창자가 아닌, 그가 실제로 왜구를 토벌하는데 직접 참가하고 兵書를 지은 것에 기인한 '文武兼備'의 이미지와 인식도 있었는데, 이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즉, 茅坤의 조선 문단에 대한 수용과 영향은 이를 통해 알 수 있으며, 그 영향력이 매우 컸을 뿐만 아니라 또한 광범위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4. 朝鮮 文人의 中國 文學에 대한 인식과 創新에 대한 추구

본 장에서는 먼저 번역 방식에 따라 분류하고 다시 시기를 기준으로 나누어 朝鮮 前期(17세기 이전)의 번역 서적 목록을 정리하고 그에 대해 선별적으로 분석하였다. 넓은 의미의 번역학 각도에서 말하자면 조선 문인들이 중국 문학을 이해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번역'이었다. 이에 근거하여 1절에서는 註解와 直解, 懸吐와 口訣 및 諺解 이 다섯 가지 번역 방식으로 나누어 조선 前期의 번역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조선 後期에 이르러서는 언해의 대상과 작품의 종류가 점점 더 광범위해졌을 뿐만 아니라 더욱 대중화되었다. 이는 조선의 중앙 정부가 한글 창작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계속 부단히 노력하였으며, 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1443년에 한글이 창제된 이후, 諺解 사업은 정부의 주도 아래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 시기에 번역된 서적들 또한 대부분 儒家의 典籍, 韓愈, 柳宗元, 蘇軾의 文集, 杜甫와 黃庭堅의 詩 등 唐宋 시기의 문학 작품이었다.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서적들은 조선 왕조가 표방하였던 통치 이념인 백성의 敎化와 正名 思想 등에 부합하였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지방 정부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지방의 학교들과 書院 및 書堂(私塾)에 종사하는 학자들과 문인들도 적극적으로 언해 사업에 참여하였다. 사실, 조선 前期에는 한글이 아직 백성들에게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고 또 번역의 주체와 읽고 사용하는 계층 또한 특정 계급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점차 시장경제가 발달하고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또 그것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 민중들의 문화 수준 또한 향상되었다. 이로 인해 朝鮮 前期와 비교해볼 때, 조선 후기의 譯註 및 번역서의 종류 또한 나날이 다양화되고 또한 번역의 범위 또한 점점 확대되는 등 점차 자연스럽게 대중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리고 韓愈 문장의 수용과 변용에 대해 말하자면, 한국의 역대 문단에서 韓愈는 계속 '문장의 正宗'으로 추앙되었으며, 조선 문인들 또한 적극적으로 그의 문장과 풍격, 수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그의 작품 혹은 창작 스타일을 모방하고 변용하고자 하였다. 그중에서도 그의 <送窮文> 같은 경우, 작품 자체의 성격이 상당히 복잡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문체 분류에 있어 역대 편선자들의 관점과 분류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다. 이 작품 문체가 가진 복합적인 특징은 그대로 한국에 영향을 주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변형 양상이 나타났는데, 첫째는 寓言의 성격이 강한 雜文의 형태이고, 둘째는 祭文의 성격이 강한 詩詞 혹은 잡문의 형태이다. 다시 말해 <送窮文>은 한국에서 문인들의 의도적 변형을 통해 새로운 형식의 작품으로 재창조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이는 <送窮文>의 문체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 성격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韓愈 이외에 歐陽修 또한 이러한 예에 속한다. 歐陽修는 北宋詩文革新運動의 제창자이자 唐宋八大家 중 하나로, 그의 문장 작품은 韓愈, 柳宗元, 蘇軾 등과 함께 '文章正宗'이라고 칭해진다. 특히, 그의 실용성이 강한 문장 작품들 예를 들어 書簡類 , 策文類, 碑誌類 같은 경우 따로 독립적으로 선집으로 편찬하여 간행되는 등 이 문체 창작에 있어서 전범이 되었다. 그중에서도 <醉翁亭記> 는 자체의 문체 형식뿐만 아니라 '載道' 문학의 대표작으로서 한국 문인들의 건축물 관련 記文 창작에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전범이 되었다. 특히, '醉翁'의 이미지와 '與民同樂'이라는 인식은 조선 후기 문인들의 唐宋 古文에 대한 지향과 결합하여 반향을 일으켰으며 그에 대한 오마주(hommage) 형식의 변형 창작 열풍이 일었다. 그리고 그의 <六一居士傳>에서의 '六一風度'는 개념의 확대를 거쳐 조선 후기 문인들의 건축물 관련 記文 창작에 큰 영향을 주었고, 작품 창작에 있어서 그에 대한 변형을 시도한 작품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5. 조선 후기 문인이 편찬한 唐宋八大家 選本과 고문 지향

본 장에서는 正祖, 金錫胄, 金昌協, 金澤榮 4명의 古文 지향과 그들의 選集 編纂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개별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正祖(1752~1800)는 조선의 군주로서 당시 문단과 정치 상황을 개혁하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抄啟文臣制'와 '文體反正'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문학운동일 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운동으로, 즉 국가 차원에서 주도한 唐宋 古文의 正典化라고 할 수 있다. 정조는 통치자로서 철저히 유가 사상을 숭상하여 '右文'정책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게다가 그는 문학 방면에서는 '載道論'을 지지하여 六經과 唐宋 古文을 가지고 당시의 문풍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이와 동시에 직접 ≪八子百選≫과 ≪八子手圈≫을 편찬, 간행하여 당송고문의 권위성과 정통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唐宋 古文의 보편화를 위하여 '抄錄','節錄', '批圈'의 방식을 사용하여 독자들의 가독성과 효율성 또한 높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正祖의 唐宋 古文에 대한 지향과 관점이 어떠했는지 이 두 선집에 그대로 잘 반영되어 있다 하겠다.

金錫胄(1634~1684)는 문학적 전통과 재능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당시 권세가였던 淸風 金氏 가문이라는 배경으로 인해 私鑄活字인 '韓構字'를 제작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련의 서적들도 私的으로 간행할 수 있었다. 그가 편찬 및 간행한 여러 서적들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皇明茅鹿門王弇州二大家文鈔≫와 ≪古文百選≫이다. 이 두 가지 서적은 古文 選集으로서 그의 문학관이 그대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韓國 漢文學史에 있어서도 매우 가치가 있다. 김석주는 그의 외삼촌인 申最의 영향을 받아 秦漢 시기부터 明代에 이르기까지의 古文을 모범으로 삼는 전통을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옛 선인들의 문장들이 가지고 있는 精髓를 골고루 흡수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8세기 문인들에게 '작가로서의 개성을 자각하고 그것을 작품에 표현해야 한다'는 인식을 깨우치게 하였다. 또 주목할 만한 것은 그는 과거 시험과 製術에 응용되는 문장 창작에 관심을 가지고 文章 選集의 편찬과 출판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그가 이미 文章 選集이 가진 正典化的 가치를 인식하고 활용하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하겠다.

17~18세기 조선 문단에 대해 말하자면, 明과의 교류가 나날이 빈번해지고 긴밀해짐에 따라 明代의 문학 작품과 사상이 거의 직접적으로 조선에 유입되었으며, 시기적으로 明代 文壇과 거의 비슷하게 문장의 전범이 되는 시기를 응당 언제로 설정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심지어 당시 조선은 붕당정치와 경전 해석을 둘러싼 차이로 인해 매우 엄중한 '史禍'가 발생하여 많은 文人들이 혼란스러우면서도 혹독한 시기를 보내야만 했다.

이런 시대적 배경 아래에서 金昌協(1651~1708)은 의도적으로 '唐宋 古文'을 제창하여 당시에 明나라의 前後七子를 추숭하던 擬古文派를 반대함으로써 '唐宋派'라고 칭해지는 하나의 문파를 이루고 세력을 확장하였다. 그는 茅坤의 ≪唐宋八大家文鈔≫와 明代 唐宋派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자신의 고문에 대한 지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 이와 동시에 '朝鮮式 創新'을 주장하며 결국 조선 문단의 영수가 되었고, 자신의 지위와 여러 가지 배경을 이용하여 문단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唐宋 古文의 正典化를 시도하였다.

金澤榮(1850~1927)은 조선의 마지막 古文家라고 칭해지는 인물 중 하나로, 그는 한국과 중국 모두 漢字, 儒家 文化圈이라는 공통점을 유대로 하여 중국으로 망명한 이후 중국 문인들과 적극적으로 먼저 연락하고 교류하였다. 그가 이렇듯 당시 중국의 유명 인사들과 깊이 사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儒家를 중심으로 하는 中世的 思惟와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 덕분에 그는 중국에서 출판사업을 통하여 '文章報國'이라는 그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의 문장과 출판 저작물에 자신의 고문에 대한 인식과 지향을 끈기 있게 표현함으로써 중국 유명 인사들의 공감을 샀다.

그는 항상 일본과 근대화가 민족 문화와 전통을 잃게 할 것이라고 걱정하여, 계속 고문을 창작해야 하며 민족 문화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그는 실제로도 자신의 작품 창작과 서적 출판

에 그런 주장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그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과 그것을 유지하고 했던 노력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중 하나이다. 즉, 그는 일찍부터 출판과 선집의 편찬이 교육과 문화의 보편화 및 자신의 이상인 '文章報國'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南通에 간 이후로도 계속 역사서와 조선 문인들의 시문집을 편집하고 출판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다. 요컨대, 그에게 출판 활동은 자신의 고문에 대한 지향을 드러낼 수단일 뿐만 아니라 古文의 正典化를 추구하는 방법 중 하나였다 할 수 있다.

6. 나가며

正典 혹은 古典 書籍의 正典化는 역사적으로 계속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모두 존재하였으며 진행되어 왔다. 특히 明淸 시기 중국과 한국 양국의 문단에서는 정전의 대상을 응당 秦漢 혹은 唐宋으로 해야 한다는 논쟁이 격렬하였는데, 즉 秦漢 시기 문장을 전범으로 해야 한다는 擬古文派와 唐宋 古文을 전범으로 해야 한다는 唐宋派로 양립하여 서로 대치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두 문파의 연원은 모두 六經, 즉 儒家의 경전에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唐宋 古文의 正典化를 기본 메커니즘으로 보고, 한국과 중국 양국에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韓愈와 六經에 대한 추숭 및 그에 대한 正典化를 '唐宋 古文 지향'이라는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았다. 이어서 茅坤과 그의 ≪唐宋八大家文鈔≫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학사적 의의 및 조선 문단에 대한 영향이 어떠하였는지 출판과 선집의 편찬 및 유통에 대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개별 연구를 진행하였다. 사실, 본 연구의 주제가 비교적 광범위하기 때문에, 텍스트의 깊이 있는 분석보다는 다각적인 관점에서 문인들의 唐宋八大家 古文에 대한 지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시도했다는데 조심스럽게 연구 의의를 두고자 한다.

祈雨 祝文과 醮禮 靑詞를 통해 본 儒家와 道家의 祝文 比較
— 文體와 書寫를 중심으로

朴素鉉*

<目 次>

1. 들어가기
2. 祈雨 祝文과 靑詞의 文體 淵源
3. 敬虔과 書寫 格式
4. 맺으며

1. 들어가기

현재까지 유가나 불교, 혹은 도교 한 사상적 측면에서 개별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을 뿐, 한 연구 대상을 儒佛道 통합된 시각에서 접근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우리나라 역사적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려는 불교를 국교로 삼아 유교를 모두 중시하였지만 실제로 도교 행사였던 초례 의식은 고려 시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국가적 주요 의례의식으로 거행되어 현재 한국문집에 남아있는 靑詞 작품은 총 111작품으로 19명의 다양한 문인들이 창작하였으며[1], 靑詞가 아닌 시로 표현한 작품 역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하지만 유교를 국교로 위시한 조선시기에는 도교 의식을 거행하였던 소격전의 축소와 함께 도교의 靑詞 역시 성리학자들에게 배척받고 쇠퇴의 길로 들어선다. 또한, 불교에서 올렸던 축원문의 일종인 "도량문(道場文)"은 불교 요소뿐만 아닌 도교 요소와 함께 혼합된 양상을 가진다.

유가나 불교, 혹은 도교에서 사용되었던 "축문"의 양식은 크게 "하늘이 내린 재앙에 대해서" 신을 높이고, 자신의 부덕함이나 과오를 아뢰고 신께 바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는 큰 틀은 같지만, "축문"의 문체적 특징으로 축원을 드리는 대상으로 다양한 신(神)이 등장한다. 이때 주목할 점은 유가나 불교 도교 각 그들이 숭배하였던 신들은 각기 달리 나타나고 있으며 각 여러 신의 경지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던 양식이 각기 달리 나타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연구는 미흡하다.

특히, "축문"은 神을 대상으로 국가 및 개인의 주요 儀禮에 사용했던 글로 각 거행된 의례의 성격에 따라 축문의 양식이 다양하고 달리 나타날 뿐만 아니라, 문학적 성취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주로 역사 영역에 국한되어 그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축문"이란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축문이란 인간의 報恩과 福을 구하는 가장 인간적이며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발로한 문장으로, 작게는 일신의 복으로부터 나아가 가정 그리고 국가 중대사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지만, 반드시 "의례"에서 사용했던 문장으로 단순한 개인의 감정을 읊는 서정적인 글이 아닌, 신께 바치기 위해 主祭者의 心身을 모두 청정히 재계하여 정제된 일련의 의

* 全北大學校

1) 崔致遠(857~?), 12 작품; 金富軾(1074~1151), 3 작품; 崔惟淸(1095~1174), 1 작품; 金克己(1150~1205), 4 작품; 李奎報(1168~1241), 38 작품; 閔思平(1295~1359), 2 작품; 李穀(1298~1351), 3 작품; 鄭誧(1309~1345), 2 작품; 李詹(1345~1405), 5 작품; 權近(1352~1409), 14 작품; 鄭摠(1358~1397), 3 작품; 卞季良(1369~1436), 12 작품; 尹淮(1380~1436), 2 작품; 徐居正(1420~1488), 2 작품; 李承召(1422~1484), 2 작품; 黃啓沃(?~1494), 1 작품; 金正國(1485~1541), 1 작품; 朴承任(1517~1586), 1 작품; 具鳳齡(1526~1586), 3 작품; 총 19명의 작가로 111 작품이 남아있다.

례를 갖추어 신께 제물을 바치는 글로, 典雅한 풍격을 갖춘 글로 오랜 역사를 거치며 점차 정교해지고 관례화되어가는 경향을 띤다.

이때, 주목할 점은 유가와 불교와 도교에서 거행한 의례의 성격에 따라, 사용되었던 축원문의 형태 역시 달리 나타나며, 비록 같은 의례이지만 시대에 따라 그 양식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기존 연구는 역사서나 각 문집에 나타나 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행해졌던 의례를 중심으로 그 형태와 사용되었던 의기들을 주로 연구하였다.

하지만 축원문은 국가적 주요 행사이기도 하지만 이를 위해 관리나 문인들이 지어 개인 문집에 많이 남아있으며, 뛰어난 문학적 성취를 보이기도 한다. 제례에 쓰였던 문체나 양식 그리고 典故 등 정제된 형식미뿐만 아니라 典雅한 풍격과 "誠"을 전제로 축문을 쓰는 창작자의 심미적 境界 역시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전무하다.

본 연구는 道教의 醮禮 靑詞를 중심으로 儒佛의 齋、疏、道場文을 비교 연구하여 儒佛道 三教 科儀文의 同異點을 규명하고 그 내재한 사상적 차이와 귀결 지어 그 궁극적 문화적 원인을 밝히기 위한 선결 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본고에서는 유가의 祈雨 祭文과 道家의 醮禮 靑詞에 한정하여 문체를 중심으로 儒家와 道家의 祝文을 비교하고자 한다.

2. 祈雨 祝文과 靑詞의 文體 淵源

(1) 祈雨 祝文

祈雨와 관련한 언급은 ≪禮記≫ <月令> 편이다. <月令> 편은 1년 열두 달 동안 천자가 해야 할 제사와 금해야 할 일들에 대해 시간 순서대로 소개한 글인데, 이편의 구성 방식을 살펴보면 1년을 春夏秋冬 4계절로 나누고, 이를 다시 孟, 仲, 季로 나눠 시기별 주재하는 神과 音, 氣, 味 등을 각 음양오행에 맞추어 개괄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천자의 성곽 축조와 전쟁 혹은 부역 등과 같은 일들로 백성들의 농사 시기를 잃지 않도록 때에 맞춰 지내는 일들을 소개한 글이다.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재난을 당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천자 역시 곤란에 처한다고 엄중한 경고의 방식으로 결론 맺는다.

이는 곧 농사를 기본으로 하는 백성들의 삶을 중심으로, 12개월 동안의 天道와 이와 상응하는 人事들을 연계하여 백성들의 삶을 평안케 하는 위정자로서의 治道에 관한 소개라 할 수 있다. 즉, 이를 바꿔 말하면 天道와 人道의 합일된 정치를 이상 정치의 표본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임과 아울러 인간사회의 지존으로 인식되는 통치자에 대한 유일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이에 <月令> 편에서는 천자가 시기 별 지내야 할 제사가 소개되어 있고, ≪禮記≫의 <郊特牲>, <祭法>, <祭義> 편에서 제사의 구체적인 儀禮와 제사의 절차와 제사를 지낼 적의 마음가짐에 대해 자세히 잘 나와 있다. 먼저 祈雨와 관련한 기록을 찾아보면, <月令> 仲夏 5月 조목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有司에게 명하여 백성을 위해 산천 百源에 제사를 올리고, 上帝에게 大雩를 올릴 때 성대한 음악으로 하고, 각 고을의 관리들에게 명하여 백성들에게 유익한 공덕이 있는 고대 백관들에게 雩祭를 올려 五穀이 풍성하기를 기원한다.[2)]

위 인용문의 "雩"가 곧 기우제를 뜻하는데, 먼저 山川에 제사를 지내는 이유는 물의 근본이 되는 山에 제사를 올림으로 "重本"[3)]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 외에도, "仲春"에 吉日을 택해 后土에 제사를 지낸다.

2) "命有司爲民祈祀山川百源, 大雩帝, 用盛樂. 刀命百縣, 雩祀百辟卿士有益於民者, 以祈穀實.", (漢) 鄭玄注, (唐) 陸德明音義, ≪禮記≫, 卷五, ≪四部叢刊景宋本≫.

이때, 감옥의 죄수를 풀어주고, 고문과 소송을 줄이며, “季春”에 만물이 소생하는 기운의 달을 맞이하여 위정자가 덕을 널리 베풂에 창고를 열어 빈곤한 자를 긍휼히 여겨 구제하고, 인재를 뽑고 예우하여야 한다고 말한다.[4] 이는 이후 ≪隋書≫에 보이는 “祈雨七事”[5]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呂氏春秋・順民≫에서도 탕임금이 5년의 긴 가뭄으로 구름을 일으켜 비를 내릴 수 있는 桑山[6]에서 上帝인 “天”과 天神인 “神”와 人神인 “鬼”에게 다음과 같이 빌었다.

> 탕임금이 하나라를 정벌하여 천하를 바로 잡았는데, 오 년 동안 크게 가물어 곡식들을 거둘 수 없었다. 이에 탕임금이 몸소 桑林에 빌길, “저 한 사람의 죄가 있나니 만백성들에게 그 죄를 미치지 마소서. 만백성들에게 죄가 있다면 저 한 사람에게 있나니, 제 한 사람의 불민함으로 상제와 귀신들에게 백성들의 목숨을 해치지 않도록 하소서. 이에 자신의 모발과 손을 자르고 자신을 희생으로 삼아 上帝에게 복을 구하니 백성들이 이에 매우 기뻐하고, 곧 비가 크게 내렸다.[7]

위 인용문 중 탕임금이 기도 올리는 내용인 “내 한 사람에게 잘못이 있지, 만민들에게 그 죄를 미치지 말라”하는 내용은 기우 제문의 양식과 모태가 되었다 할 수 있는데, 이후 지어진 祈雨 祝文 역시 이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 외에도 ≪詩經・大雅・雲漢≫은 周 宣王이 6년의 긴 가뭄에 신하 仍叔을 시켜 이 시편을 짓도록 하였다. 周 宣王이 재앙을 당하여 처음에는 外神에게, 그다음에 종묘에 제사를 지내도 효험이 없자, 혹여 자신의 정성이 지극하지 못할까를 살펴 人事를 다하여 天命을 기다렸다. 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仁愛로운 마음을 엿볼 수 있다.[8] 이에 이후 <雲漢>은 기우제의 예악으로 쓰였다.[9]

이처럼 祈雨祭는 농업 사회였던 시대의 천자의 중대한 소임 중 하나였다. 이외 기우제를 비롯한 천자가 社稷과 宗廟, 山川 등의 제사에 쓰인 祝文은 이후 漢代 이후 변화하게 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서술은 다음 3장 “敬虔과 書寫 格式” 부분에서 다루겠다.

(2) 靑詞

靑詞는 도교 醮禮 의식에 쓰인 축문의 일종으로 唐代 처음으로 쓰이게 된다. 靑詞와 관련된 용어가 가장 먼저 나타난 것은 ≪通典≫이다.[10] 이때 “淸詞”는 太淸宮의 “淸”을 의미하여, 이곳에서 朝服과 禮樂을

3) “山者水之源, 將欲禱雨, 故先祭其本源. 三王祭川, 先河後海, 示重本也. 雩者, 吁嗟其聲以求雨之祭. ≪周禮≫女巫凡邦之大菑, 歌哭而請, 亦其義也. 帝者, 天之主宰, 盛樂, 即韶韡以下十九物, 並奏之也”, (明) 胡廣撰, ≪禮記大全≫, 卷六, ≪淸文淵閣四庫全書本≫.

4) “擇元日, 命民社. 命有司省囹圄, 去桎梏, 母肆掠, 止獄訟”, “天子布德行惠, 命有司發倉廩, 賜貧窮, 振乏絕, 開府庫, 出幣帛, 周天下. 勉諸侯, 聘名士, 禮賢者.”, (漢) 鄭玄注, (唐) 陸德明音義, ≪禮記≫, 卷五, ≪四部叢刊景宋本≫.

5) “祈雨行七事. 一理寃獄及失職者, 二賑鰥寡孤獨者, 三省繇輕賦, 四舉進賢良, 五黜退貪邪, 六命會男女恤怨曠, 七撤膳羞弛樂懸.”, (唐) 魏徵撰, ≪隋書≫ 卷七, <志> 第二, <禮儀> 二, ≪淸乾隆武英殿刻本≫.

6) “桑林, 桑山之林, 能興雲作雨也.”, (秦) 吕不韋撰, (漢) 高誘注, ≪吕氏春秋≫, 第八卷, 仲秋紀, 第八, ≪四部叢刊景明刊本≫.

7) “湯克夏而正天下, 天大旱五年不收. 湯乃以身禱於桑林曰: ‘余一人有罪, 無及萬夫. 萬夫有罪, 在余一人. 無以一人之不敏, 使上帝鬼神傷民之命.’ 於是剪其髮其手, 以身爲犧牲, 用祈福於上帝. 民乃甚說, 雨乃大至.”, (秦) 吕不韋撰, (漢) 高誘注, ≪吕氏春秋≫, 第八卷, 仲秋紀, 第八, ≪四部叢刊景明刊本≫.

8) “宣王遇災憂懼, 始祈於外神, 次祈於宗廟, 旣而無驗, 則自揆事神之誠或未至, 誠旣盡則又盡人事, 以聽天命也”, (元) 朱公遷撰, ≪詩經疏義≫, 卷十八, ≪淸文淵閣四庫全書本≫.

9) “又遍祈社稷山林川澤, 就故地處大雩. 國南除地爲壇, 舞童六十四人. 皆衣玄服, 爲八列各執羽翳. 每列歌≪雲漢≫詩一章而畢.”, (唐) 杜佑撰, ≪通典≫, 卷四十三, 禮三吉二, <大雩>, ≪淸武英殿刻本≫.

10) “四載四月敕 【天寶4년(745년)】, 比太淸宮行事官, 皆具冕服, 爰及奏樂, 未易舊名, 并告獻之時,仍陳册祝. 旣非事生之禮, 皆從降神之儀, 且真俗殊倫, 幽明異數, 理有非便, 亦在從宜. 自今以後, 每太淸宮行禮官, 宜改用朝服, 兼停祝版, 改爲淸詞於紙上. 其告獻辭及所奏樂章, 朕當別自修撰, 仍令所司具儀注聞奏.”, (唐) 杜佑撰, ≪通典≫, 卷五十三, 禮十三吉十二, ≪淸武英殿刻本≫.

갖추어 醮禮 때 쓰인 獻詞이며, 이후 ≪翰林志≫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축문을 쓴 종이의 색깔에 따라 "靑詞"로 불린 후,[11] 이를 제목으로 쓴 문장가들이 많아짐에 따라 문체로 정착하게 되었다.

도교의 醮禮 의식은 왕실에서 국가의 安寧과 복은 물론 위정자들의 壽福을 구하는 왕실 제례로서, 이때 쓰인 靑詞는 일반적으로 翰林學士들이 짓게 되어 자연스럽게 관각문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때 쓰인 靑詞의 문체 양식은 四六駢文으로 典故를 사용하며 雅正한 풍격이다.

이후, 도교가 성행함에 따라 靑詞는 宋元明 시기를 거쳐 극성한 발전을 하게 되는데, 특히 명대 世宗 嘉靖 연간에는 도교를 너무 숭상한 나머지 "靑詞宰相"이라는 명칭이 출현할 정도로 靑詞는 본래 목적이 아닌 황제에게 아첨하여 자신의 영달을 구하는 도구로 전락하게 되어, 이후 도교를 배척하여 그 위상과 입지가 좁아짐에 따라 靑詞 역시 함께 쇠퇴하게 된다.

주목할 점은 靑詞는 唐代 처음 지어져 한림학사 중 文名이 떨친 자는 白居易가 있을 정도이지만, 송대에는 靑詞가 더욱 많이 발전하여 일반 수많은 문인 역시 靑詞를 짓게 된다. 그중 문학사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구양수는 물론 王安石, 黃幹, 魏了翁, 진덕수, 섭섭, 주필대, 원호문 등 수많은 성리학자 역시 참여하여, 唐代 보다 그 작가군이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靑詞의 내용 역시 기존 국가적 차원에서의 祈雨, 一國의 安寧과 풍년, 위정자들의 壽福에서 벗어나 개인 一身의 仕途와 安寧을 구하는 내용까지 출현하여, 官에서 民의 일상으로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敬虔과 書寫 格式

靑詞는 이미 앞서 살펴보아 알 수 있듯이, 도교 행사인 醮禮 지낼 때 썼던 일종 축문으로 이는 상고 시기의 祭文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祝文은 천지, 산천, 사직, 종묘, 五祀 그리고 여러 신에게 흠향 드릴 때 고하는 글로 산문과 운문의 차이가 있다.[12] 축문과 관련하여 그 연원과 변천에 대해 劉勰의 ≪文心雕龍・祝盟≫에서 잘 나타나있는데, 그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천지가 자리 잡히자 두루 여러 신에게 제사를 올렸다. 성심성의껏 "六宗"의 신에게 제사 올렸으며, 차례차례 "三望"인 泰山, 河, 海에 제사 올려 단비가 내리고 조화로운 바람이 불어와 오곡이 생장하였다. 억조창생들이 복을 내려주는 신을 우러러보고 찬미하고 탄복하는 과정 중에 제사가 발흥하게 된 것이다. 제사에 올리는 희생은 향기로운데, 이는 밝은 덕에 근본한 것이요, 축문을 올리는 관리의 말이 경건하고 진실하기 위해서는 축문에 힘입는 것이다. (중략) 춘추 이후 제사가 더럽혀져 남용되어 축문과 폐백이 이르지 않은 신들이 없었다. (중략) 한나라 여러 제사는 각종 의례를 정돈하여 엄숙케 하였으며, 巨儒들의 儀禮를 총괄하고 方士들의 方術도 참고하여 황실 내의 축관은 그 허물을 다른 이에게 미루어 백성들을 위해 자신에게 책임을 돌렸던 탕임금의 마음과 달라졌으며, 어린아이들을 "倀子" 삼아 역병을 몰아내는 것은 越巫와 祝禱와 같으며, 축문의 문체가 점점 본래 의의와 작용을 잃어갔다. 黃帝의 <祝邪之文>과 東方朔의 <罵鬼之書>로 인해 이 이후 나온 축문은 이를 모방하여 견책에 힘쓴다. (중략) ≪禮記≫에 기록된 祭祝에 쓰인 축문은 단지 신께 고하고 흠향하기를 바랄 뿐이었지만, 한 대 이후 제문은 讚도 함께 지어져 이러한 제문은 축문에서 인신 된 것이다.[13]

---

11) 唐 李肇 ≪翰林志≫는 819년에 완성됨. "凡太清宮道觀薦告詞文, 用青藤紙朱字, 謂之青詞.", (唐) 李肇撰, ≪翰林志≫, ≪清知不足齋叢書本≫.

12) "祝文者, 饗神之辭也. 其旨有六焉, 曰告, 曰修 曰祈, 曰報, 曰辟, 曰謁, 用以饗天地、山川、社稷、宗廟、五祀羣神, 而總謂之祝文, 有散文有韻語之異.", (明) 朱荃宰撰, ≪文通≫, 卷十四, <祝文>, ≪明天啓刻本≫.

13) "天地定位, 祀徧群神. 六宗既禋, 三望咸秩, 甘雨和風, 是生黍稷, 兆民所仰, 美報興焉. 犧盛惟馨, 本於明德; 祝史陳信, 資乎文辭. …… 春秋已下, 黷祀謟祭, 祀幣史辭, 靡神不至. …… 漢之群祀, 肅其旨禮, 既總碩儒之儀, 亦參方士之術. 所以祕祝

위의 인용문에서 천지에 만물이 소생함으로부터 "六宗"인 四時, 寒暑, 日, 月, 星, 水에 여러 신에게 泰山과 河海에서 제사를 올려 단비가 내리고 바람도 알맞게 불어줘 곡식들이 영글어 억조창생들이 이를 찬미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때 신들에게 바치는 犧牲은 단순히 흠향하기 위한 제물이 아닌 그 안에 깃든 덕과 이를 표현하는 祝文에서 힘입어 신들을 감복케 하여 이와 같은 복을 내린다고 말하며, 축문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 인류 창조 이후 자연스럽게 생긴 이러한 축원의 성격인 축문은 春秋 이후 온갖 신들에게 제사를 올리고, 그 축문 양식 또한 단순히 신들에게 흠향하기만을 고하였는데, 漢代 이후부터 讚까지 덧붙여 형식의 변화까지 왔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文章辨體彙選≫의 <祭文>에서 徐師曾의 말을 인용하여, 유협의 말을 그대로 말하면서, 이를 漢代 이후 축문의 변화라 말하고 있다.[14]

또한 漢代에 들어서 각종 의례를 장엄하게 하고, 巨儒들의 儀禮를 종합하고 方士들의 方術을 참고하여 축문의 양식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기존의 탕임금이 오랜 가뭄의 원인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萬方罪己"로 표현하지만, 이후 黃帝의 <祝邪之文>과 東方朔의 <罵鬼之書>로 인해 후대 축문에서는 귀신들을 책망하는 것으로 변하였다고 말하고 있다.[15]

축문은 신께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비는 것으로, 가장 중시되는 것은 바로 主祭者의 경건한 마음으로 이 마음에 감복하여 신이 강림하여 복을 내린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제사를 올릴 때의 의례는 이를 지극히 표현해야 한다. 이 때문에 ≪禮記≫에 <祭義>와 <祭法>과 같이 전문적으로 이를 다룬 편장이 구성되었으며, 해당 원문은 다음과 같다.

> 제사를 지낼 적에 왕은 곤룡포를 입어 天象을 상징한 것이고, 쓴 면류관의 구슬은 12줄로 天數를 상징한 것이다. 素車를 타는 것은 질박함을 귀히 여기는 것이요, 깃발에 12개의 끈이 있고, 용무늬 위에 日月이 그려져 있는 것은 모두 天象을 본뜬 것이다. 하늘이 드리우는 상을 성인이 모방하여 郊 제사가 天道를 밝힌 것이다. (중략) 만물은 하늘에 근본하고, 사람은 선조에 근본 한다. 이는 上帝에 배합된다. 郊 제사는 근본에 보답하고 시초로 돌아간다는 것을 크게 구현한 것이다.[16]

> 제사는 자주 하지 않는다. 자주 하면 번거롭고, 번거로우면 공경하지 않는다. 제사는 소략해서는 안 된다. 소략하면 태만하고, 태만하면 잊는다. 이 때문에 군자의 제사는 天道에 합치된다. (중략) 내적으로 마음을 致齋하고, 외적으로 행동을 散齋한다. 재계하는 날에 선인들이 거처한 것을 생각하고 선인들의 환담을 생각하고, 선인들의 뜻을 생각하고, 선인들이 즐겼던 것을 생각하고 선인들이 좋아했던 것을 생각한다. 이렇게 사흘 동안 재계하면 재계하며 생각했던 선인을 볼 수 있다.[17]

이는 朝服과 禮樂으로 內外 재계하여 경건한 마음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데, 天象과 天數를 상징한 朝服을 갖춰 입음으로 主祭者는 天道와 합치됨을 상징함과 동시에 위정자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제사 때 쓰이는 노래, 즉 신께 바치는 노래 또한 신이 흠향하는 것 외에도 主祭者 마음의 재계를 위함이기도 한다. 또

移過, 異於成湯之心; 侲子驅疾, 同乎越巫之祝; 體失之漸也. 至如黃帝有祝邪之文, 東方朔有罵鬼之書, 於是後之譴呪, 務於善罵. …… 若乃禮之祭祀, 事止告饗. 而中代祭文, 兼讚言行, 祭而兼讚, 蓋引神而作也.", (南北朝) 劉勰撰, ≪文心雕龍・祝盟≫, 卷二, ≪四部叢刊景明嘉靖刊本≫.

14) "古之祭祀, 止於告饗而已. 中世以還, 兼讚言行, 以寓哀傷之意, 盖祝文之變也.", (明) 賀復徵編, ≪文章辨體彙選≫, 卷七百四十九, <祭文>, ≪清文淵閣四庫全書補配清文津閣四庫全書本≫.

15) "至如黃帝有祝邪之文, 東方朔有罵鬼之書, 於是後之譴呪, 務於善罵.", (南北朝) 劉勰撰, ≪文心雕龍・祝盟≫, 卷二, ≪四部叢刊景明嘉靖刊本≫.

16) "祭之日, 王被衮以象天, 載冕, 璪十有二旒, 則天數也. 乘素車, 貴其質也; 旂十有二旒, 龍章而設日月, 以象天也. 天垂象, 聖人則之, 郊所以明天道也. …… 萬物本乎天, 人本乎祖, 此所以配上帝也. 郊之祭也, 大報本反始也.", (漢) 鄭玄注, (唐) 陸德明音義, ≪禮記≫, 卷八, ≪四部叢刊景宋本≫.

17) "祭不欲數, 數則煩, 煩則不敬. 祭不欲疏, 疏則怠, 怠則忘. 是故君子合諸天道. …… 致齋於內, 散齋於外. 齋之日, 思其居處, 思其笑語, 思其志意, 思其所樂, 思其所嗜. 齋三日, 乃見其所爲齋者.", (漢) 鄭玄注, (唐) 陸德明音義, ≪禮記≫, 卷十四, ≪四部叢刊景宋本≫.

한, 이때 天子와 諸侯와 公卿大夫, 士, 庶人들의 朝服과 儀禮에는 차등을 두어 그 主祭者의 신분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18] 이는 主祭者의 지위에 따라 축원 드리는 신이 달라지는 것과 일맥상통하다.[19]

이처럼 天道와 합치된 모습으로 心身 內外를 齋戒한 主祭者의 경건함을 중시할 뿐만 아니라, 축문 역시 이처럼 경건한 마음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祝文 書寫의 요건이다. ≪文心雕龍・祝盟≫과 ≪文章辨體彙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무릇 각종 문장은 화려한 문채를 드러내지만, 신께 강림하기 위한 축사는 질박함에 힘써야 하며, 修辭는 진실해야 하며 부끄러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축원하는 문사의 법식은 반드시 신에 대한 정성과 경건함으로 해야 하며, 祭奠에 올리는 문장은 준칙에 맞아야 하며, 공경하고 애통해야 한다. 이것이 축문을 쓰는 대체적인 원칙이다.[20]

> 제문에는 산문도 있고 운문도 있고 변려문도 있다. 운문 안에 산문도 있고, 4언, 6언, 잡언이 있으며, 초사체와 변려문의 다름이 있다. 유협이 말하길, 祭奠에 올리는 제문은 반드시 공경하고 애통해야 한다. 만약 제문이 화려하여 질박하지 못하거나, 마음속에 감정이 맺혀있어 밖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이는 모두 제문에 공교롭지 않은 것이다.[21]

앞선 예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사를 지낼 때의 의례는 너무 번잡하지도, 너무 소략하지도 않고, 다만 경건함을 다함을 주를 하듯이, 축문과 제문의 글 역시 공경과 슬퍼함이 주를 이루지, 화려한 수식으로 진실 되지 않음을 꺼리고, 마음속의 감정을 풀어내지 못하는 것 역시 잘 쓴 글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에, 靑詞 관련한 서사 규격과 書寫 시 집필자의 유의점에 관련한 양식은 여러 서적에서 빈번하게 출현하며, 점차 규격화 정제화 되어가는 경향을 보인다.

靑詞는 도교 의례였던 醮禮에 쓰였던 문장으로 당나라 처음 등장한 문체이다. 唐代에는 한림학사에서 황제를 대신하여 집필하였으며, 宋代에는 靑詞란 學士가 반드시 구사해야 할 요건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22] 이를 쓰는 문장가가 증대함과 동시에 문체가 宋代에 자리 잡게 된다. 이에 歐陽修와 蘇軾과 같은 대문장가 역시 관료로서 醮禮를 지내고 靑詞를 썼다. 이는 각 개인 문집의 ≪內制集≫에 수록되었으며,[23] 明代 徐師曾의 ≪文體明辨≫에서 <靑詞>를 별도로 기재한 것[24]은 靑詞의 발전을 알 수 있는 증거라 할 수 있다.

≪上淸靈寶大法≫, ≪靈寶玉鑒≫, ≪道門定制≫, ≪無上黃籙大齋立成儀≫, ≪天皇至道太淸玉冊≫ 등 靑詞의 서사 격식에 대해 논하고 있는데, 그중 ≪無上黃籙大齋立成儀≫에 나타난 서사 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8)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예는 ≪禮記≫의 <祭法>을 참고하기 바란다. “聖人以是爲未足也, 築爲宮室, 設爲宗祧, 以別親疏遠邇, 教民反古復始, 不忘其所由生也.”, (漢) 鄭玄注, (唐) 陸德明音義, ≪禮記≫, 卷十四, ≪四部叢刊景宋本≫.

19) “有天下者, 祭百神. 諸侯, 在其地則祭之, 亡其地則不祭.”, (漢) 鄭玄注, (唐) 陸德明音義, ≪禮記≫, 卷十四, ≪四部叢刊景宋本≫.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연구에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20) “凡群言發華, 而降神務實, 修辭立誠, 在於無愧. 祈禱之式, 必誠以敬; 祭奠之楷, 宜恭且哀; 此其大較也.”, (南北朝) 劉勰撰, ≪文心雕龍・祝盟≫, 卷二, ≪四部叢刊景明嘉靖刊本≫.

21) “其詞有散文, 有韻語, 有儷語, 而韻語之中, 又有散文, 四言, 六言, 雜言, 騷體儷體之不同. 劉勰云: 祭奠之辭, 宜恭且哀. 若夫辭華而靡實, 情鬱而不宣, 皆非工於此者也.”, (明) 賀復徵編, ≪文章辨體彙選≫, 卷七百四十九, <祭文>, ≪淸文淵閣四庫全書補配淸文津閣四庫全書本≫.

22) “學士之職, 所草文辭, 名目浸廣. 拜免公王將相妃主曰制, 賜恩宥曰赦書、曰德音, 處分事曰勅, 牓文號令曰御札, 賜五品官已上曰詔, 六品以下曰勅書, 批勅群臣表奏曰批答. 賜外國曰蕃書, 道醮曰靑詞, 釋門曰齋文, 教坊宴會曰白語, 土木興建曰上梁文, 宣勞錫賜曰口宣.”, (宋) 江少虞撰, ≪新雕皇朝類苑≫, 卷第二十八, <詞翰書籍>, ≪日本元和七年活字印本≫.

23) ≪歐陽文忠公集≫153卷, ≪四部叢刊景元本≫ 중 ≪內制集≫, 卷第1-卷第7에 <靑詞> 수록됨. ≪蘇文忠公全集≫ 115卷, ≪明成化本≫ 중 ≪東坡集≫, 卷三十三과 ≪東坡內制集≫ 卷1-卷8에 <靑詞> 수록됨.

24) “按陳繹曾云: ‘靑詞者, 方士懺過之詞也, 或以祈福, 或以薦亡, 唯道家用之.’”, (明) 徐師曾, 羅根澤校點, ≪文體明辨序說≫, <靑詞>, 北京：人民文學出版社, 1998年, 第172页.

≪無上黃籙大齋立成儀≫에 규범적인 靑詞 양식이 소개되어 있다. 이는 위의 ≪文筌≫에서 말한 "一籲天, 二懺過, 三祈禱"[25]의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아래에서 이 靑詞를 쓸 적에 어떠한 환경과 마음가짐으로 쓰는지에 대한 "丹誠" 내지 "敬虔"한 심신의 재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靑詞는 반드시 최고급 靑藤紙를 사용해야 하며, 조금이라도 더럽혀졌거나, 찢어진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만일 종이가 얇으면 두 겹으로 접으며 세로 길이는 一尺二寸이다. 단지 한 폭만 사용하며, 전후 통틀어 17줄을 넘지 않으며, 행간이 조밀하여도 무방하다. 응당 빈 뒷장 반 폭은 "維" 자 아래로 나란히 쓰며, 위로 팔 푼 남겨두며 아래는 개미가 지나갈 정도로 남겨 놓으면 된다. 행마다 글자 수에 얽매이지 않으며, 단지 작은 해서체로 쓰는 것이 좋다. 만일 "啓聖" 뒤 다음 문장은 16구를 넘어가서는 안 되며, 바로 직접적으로 아뢰는 일을 서술하여야 한다. 이는 간략하면서도 부화하지 않으며, 내용이 사실적이지만 거칠지 않으며, 절박하되 아찔한 문장이거나 수식이 번잡해서는 안 되며, 오직 질박함을 으뜸으로 삼는 것에 힘쓰는 것이다. 축문을 쓴 종이는 흩날려 자리나 땅바닥에 떨어져서는 아니 되며, 옷소매 등으로 마르지 않은 붉은 먹이 축문을 더럽혀서도 아니 된다. 무릇 靑詞를 쓸 적에는 반드시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책상에 깨끗한 천을 펼쳐두고 붉은 필묵은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하며 입에 아름다운 향을 머금고, 숨을 차고 靑詞를 써 내려가야 한다. 입김을 축문에 내뱉어서도 안 되며, 끝까지 다 쓰지 않았을 때 도중에 그만 쓰거나 다른 사람과 이야기해서도 안 되며 또한 그 당일에 끝내지 않고 다음 날에 이어서 써도 아니 된다. "下臣"이란 글자는 행의 맨 처음에 나와서는 안 되며 한 줄 안에 인명이 나뉘어 각기 써져서도 아니 된다. 이는 靑詞를 쓰는 격식이니 조금이라도 이에 어긋난다면 신께 올린 축원이 신께 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화를 부를 따름이다.[26]

위의 인용문에서 말하는 靑詞는 왜 청색 종이에 붉은 먹으로 썼어야 했을까? 본래 太淸宮에서 醮禮를 지낼 때 올린 축문이라 하여 "淸詞"였지만, 唐 玄宗의 "축판 대신 청지에 쓰라"[27]는 칙명에 따라, "靑詞" 내지 "綠章"이라 불리게 된다. 이러한 서사 도구의 변화에 따른 명칭 변화에는 동방을 뜻하는 청색의 종이에 마음속의 욕심을 제거하고, 至陽을 나타내는 붉은 글씨로 축문을 써서 제사를 올려 신이 이에 감화하여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28]

또한, 위의 예문에서 말했듯이 4글자와 6글자로 쓴 변려문의 형식으로 썼기에, 靑詞를 "四六金文"이라 부르기도 한다. 위 인용문처럼 글자와 글귀 수 등이 정해졌으며, 문체 양식이 규격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靑詞의 종이 역시 위와 아래 남겨야 할 종이 간격이 정해졌다. 이러한 정형화된 문체와 종이 양식 외에도 쓰는 장소 역시 정갈한 곳에서 정갈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유가의 祈雨 祝文을 쓸 적에 정성을 다하는 "敬"의 자세와 일치하며, 보다 더욱 형식화, 규격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法海遺珠≫에 보이는 "祈雨捷法"[29]은 ≪禮記≫와 ≪隋書≫에 나타난 "祈雨七事"에 비해 더

---

25) "靑詞, 方士懺過之辭. 一籲天, 二懺過, 三祈禱.", (元) 陳繹曾撰, ≪文筌≫, <四六附說>의 "五式", ≪淸李士棻家鈔本≫.

26) "應靑詞須用上等靑紙, 勿令稍有點汚穿破. 如紙薄, 即將兩幅背之, 高一尺二寸. 只許用一幅, 通前後不過十七行, 行密無妨. 當令後空紙半幅, 自維字之後平頭寫之, 上空八分, 下通走蟻, 逐行不拘字數, 但真謹小楷爲妙. 如啓聖後下文不得過十六句, 當直指其事, 務在簡而不華, 實而不蕪, 切不可眩文, 贍飾繁藻, 惟質朴爲上. 書詞紙不得令飛落床席及地上, 仍不得令衣袖等沾拂詞文. 凡書詞之時, 當入靜室, 几案敷淨巾, 朱筆朱盞, 勿用曾經殽穢之物, 口含妙香, 閉氣書之, 不得以口氣衝文, 寫未乖不得落筆及與他人言語, 仍不許隔日書. 下臣字不得在行頭, 行內不得拆破人姓名. 此爲書詞之格. 或稍有違, 不惟不達, 反招釁爾.", (宋) 蔣叔輿撰, ≪無上黃籙大齋立成儀≫, 卷十一, <書詞格式>, ≪明正統道藏本≫.

27) "自今以後, 太淸宮行禮官宜改用朝服, 兼停祝板, 改爲靑詞於紙上", (唐) 杜佑撰, ≪通典≫, 卷五十三, 禮十三吉十二, ≪淸武英殿刻本≫.

28) "靑者, 東方之色, 始生之炁, 紙所以用靑也. 以言者尙其詞, 詞所以捨中心之所欲也. 朱者, 至陽之精. 書以朱, 以類而感格.", ≪藏外道書≫, 成都：巴蜀书社, 1992年, 第17冊, 第459页.

29) "凡祈雨, 止要雨下, 而牒蠻雷, 默奏上帝, 於半夜子時, 面正東, 備香案時菓, 五分酒, 四十八分棘湯, 十二分烏水, 一盆盛烏龜七箇, 用靑紙三寸, 朱書起雨符, 用楓香烈火, 念祈雨木即呪八十一遍, 燒符, 雨便來也.", (元) 佚名撰, ≪法海遺珠≫, 卷九, ≪明正統道藏本≫.

주술적이고 종교화된 경향을 보인다. 이는 儒家와 道家의 축문 성격의 차이에서 기인 한 것이다. 즉, 儒家의 祈雨 祝文의 기원은 ≪禮記≫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報本反始"에 주안점을 가지고 있으며, 탕임금의 "萬方罪己"와 같은 자책이 그 근원을 찾는다. 반면에, 道家의 靑詞는 方士의 참회하는 글[30]로 祈福의 성격이 더욱 강하기 때문이며, 이후 도교의 주술적 신앙과 결부되어 종교화 되어 가는 것이 靑詞의 문체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4. 맺으며

인류는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연적 재해와 오곡의 생장과 수확을 대할 때, 위정자와 신들에게 祈福과 祈雨를 드리는 원초적이고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화가 바로 축문의 시초로 본다. ≪禮記≫에서 나타나는 탕임금의 기우제를 통해 자연재해를 자신의 과오로 귀책하며 백성을 비호하고 그들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으로 삼아 신께 비는 형태는 이후 기우 축문의 시초가 됨과 동시에 이러한 유형은 곳곳에서 보인다. 하지만 黃帝의 <祝邪之文>과 東方朔의 <罵鬼之書>의 영향으로 위정자의 "自責" 양상이 신을 "譴責"하는 양상으로 변하였으며, 이후, 천자와 제후, 대부 등의 신분에 따라 제사의 종류와 朝服과 禮樂 등의 儀禮에 차등을 두어 "報本反始"를 중시하고, 天道와 人道의 합치를 지향하였으며, 축문을 질박함과 경건함을 주로 하였다. 이러한 축문은 시대에 따라 축원하는 내용이 다양해짐과 동시에 축원 드리는 신들이 확대되었으며, 그 의례 또한 장엄은 물론 儒家와 道家의 의례가 혼합되어 가는 양상을 보인다.

靑詞는 도교 의례인 醮禮를 지낼 때의 문체로 道敎의 색채가 강하며, 唐代에 처음 출현하게 된다. 이는 祈雨 祝文과 함께 翰林學士들의 소임으로 굳어지고 宋代에는 靑詞를 짓는 작가와 작품이 증가함에 따라 靑詞의 문체가 자리 잡게 된다.

靑詞의 종류 또한 祝文과 같이 기원하는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신들에게 기원하는 祝文이라는 문체적 특징에 따라 靑詞의 서사 태도와 서사 격식은 엄정하고 경건함을 주로 한다. 하지만 이는 儒家 祈雨 祝文과 비교할 때, 보다 더욱 형식화, 주술화, 종교화되어가는 양상은 儒家 祈雨 祝文과 道家의 醮禮 靑詞의 문체의 연원 및 사상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參考文獻〕

(秦) 吕不韋撰, (漢) 高誘注, ≪吕氏春秋≫, ≪四部叢刊景明刊本≫.
(南北朝) 劉勰撰, ≪文心雕龍≫, ≪四部叢刊景明嘉靖刊本≫.
(唐) 陸德明音義, ≪禮記≫, ≪四部叢刊景宋本≫.
(唐) 魏徵撰, ≪隋書≫, ≪清乾隆武英殿刻本≫.
(唐) 杜佑撰, ≪通典≫, ≪清武英殿刻本≫.
(唐) 李肇撰, ≪翰林志≫, ≪清知不足齋叢書本≫.
(宋) 歐陽修, ≪歐陽文忠公集≫, ≪四部叢刊景元本≫.
(宋) 蘇軾, ≪蘇文忠公全集≫, ≪明成化本≫.
(宋) 江少虞撰, ≪新雕皇朝類苑≫, ≪日本元和七年活字印本≫.
(宋) 蔣叔輿撰, ≪無上黃籙大齋立成儀≫, ≪明正統道藏本≫.
(元) 朱公遷撰, ≪詩經疏義≫, ≪清文淵閣四庫全書本≫.
(元) 陳繹曾撰, ≪文筌≫, ≪清李士棻家鈔本≫.

30) "靑詞, 方士懺過之辭", (元) 陳繹曾撰, ≪文筌≫, <四六附說>의 "五式", ≪清李士棻家鈔本≫.

(元) 佚名撰, ≪法海遺珠≫, ≪明正統道藏本≫.
(明) 胡廣撰, ≪禮記大全≫, ≪清文淵閣四庫全書本≫.
(明) 朱荃宰撰, ≪文通≫, ≪明天啓刻本≫.
(明) 賀復徵編, ≪文章辨體彙選≫, ≪清文淵閣四庫全書補配清文津閣四庫全書本≫.
≪藏外道書≫, 成都：巴蜀书社, 1992年.
(明) 徐師曾, 羅根澤校點, ≪文體明辨序說≫,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98年.

중개자: 19세기 조선 역관 이상적의 세계도상

中介者：十九世紀朝鮮譯官李尚迪之世界圖像

조민우*

<目 次>

第一章 緒論
　第一節、眾聲喧嘩的東亞社會
　第二節、研究目的、範圍
　第三節、研究回顧與評述
　第四節、研究方法
第二章「中人」與「譯官」：十九世紀譯官的登場
　第一節「中人」：朝鮮身分制度與十九世紀「通清運動」
　第二節 朝鮮「譯官」簡史
　第三節 結語
第三章 ≪恩誦堂集≫的出版與李尚迪的世界圖像
　第一節 在燕京刻印的≪恩誦堂集≫
　第二節 出版≪恩誦堂集≫前：李尚迪生平概述
　第三節 朝鮮時期刊行私人文集與≪恩誦堂集≫的意義
　第四節 後≪恩誦堂集≫時期與李尚迪的世界圖像
　第五節 李尚迪的燕行經驗：轉型為「東亞知識分子」
　第四章 ≪燕行錄≫的種種問題：李尚迪≪恩誦堂集≫與同期≪燕行錄≫的文獻探討
　第一節 十九世紀之燕行與前人研究成果探討
　第二節 研究資料與研究方法
　第四節 李尚迪的詩文分析
　第五節 燕行瑣事考證
　第六節 結語
第五章 十九世紀朝清交流事例：以張曜孫與李尚迪的交流為中心
　第一節 十八至十九世紀朝、清文人交流與≪海鄰尺素≫
　第二節 張曜孫與李尚迪、金正喜的交流
　第三節 張曜孫≪續紅樓夢≫中的「歲寒樓」
　第四節 餘論
第六章 樂善齋本≪紅樓夢≫的翻譯特徵
　第一節 簡談韓國翻譯史
　第二節、樂善齋本≪紅樓夢≫的簡介
　第三節 樂善齋本≪紅樓夢≫對清代文化術語之翻譯方式與意義
　第四節 誤譯還是誤讀？：試論樂善齋本≪紅樓夢≫中「玫瑰」的名字
第七章 結論

본 논문은 조선 역관들을 19세기 조선과 청조 간의 "중개자"로 보고, 동아시아 교류사에서 "역관"의 의의를 추적해보았다. 본 논문의 저술 동기는 크게 두 가지이다.

* 연세대학교

우선, 동아시아 교류사에 있어서 문헌의 편중성이다. 기존 조선과 청 간 교류에 대한 주 자료로는 연행록과 각종 조선 문인 문집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대부분 양반들의 기록이기에 조선 역관의 역할은 다소 축소되거나 생략되었고 기존 연구의 방향은 자연스레 조선 양반과 청 문인간의 교류로 편중되어 있었다. 본 논문은 최근 주목받는 청 문인의 문집, 서신자료, 역관 문집 등을 통해 19세기 동아시아 교류사에서의 조선 역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낙선재본 번역소설의 번역자 연구의 필요성이다. 1960년대 창덕궁 낙선재에서 재발견된 113종의 서적 중 최소 33종에 달하는 소설이 중국소설의 번역본이며 그중 학계의 가장 주목을 받는 번역소설로는『홍루몽』을 꼽을 수 있다. 기존 학자들은 낙선재본 번역소설의 주 역자로 19세기 궁중 역관을 지목하지만 정작 그들의 배경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이에 본 논문은 동시기 조선 역관의 의의를 분석하여 낙선재본 번역소설의 번역자 연구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19세기 역관 자료의 의의와 그들의 문학적 성과 중 하나인 번역작품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문의 제2, 3장은 역관의 역사를 거시적, 미시적으로 살펴보고, 제4, 5장은 역관 자료의 의의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제6장은 역관의 번역작품, 낙선재본 홍루몽을 중심으로 역관의 번역활동의 의의를 논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 양반, 청조 문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19세기 조선 청간의 연구에서 역관 계층의 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제2장에서는 거시적으로 19세기 조선 역관이 처한 환경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조선시기 사회계층에 대한 연구를 위해, 80년대 한영우, 송준호의 계층 논쟁부터 최근 John B. Duncan, 미야지마 히로시(宮鳩博史)의 양반 연구를 참조하여 양반 개념을 정리하고, 박옥자 등의 중인 연구를 통해 19세기 중인 계층의 개념과 통청운동의 의의를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19세기 중인통청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과 그 실패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조선의 중인 계층은 단순히 등한시된 억울한 계층이라기보다는 세습적 지위 속에 "무사안일주의"로 자신의 계층에 안분자족한 중인 역시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또 본 장에서는 한국에서의 역관의 역사를 정리하여 고려시기부터 19세기까지 역관의 변천사를 간술하였다. 특히 조선후기 청일 중개무역의 흥쇠을 소개하여 19세기 역관계층은 부유했으나 중개무역의 단절로 새로운 상로 개척이라는 위기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필자는 바로 이러한 위기의식 때문에 이상적과 같이 중국어와 학문을 겸비한 새로운 역관이 19세기 동아시아 무대에 등장한 것이라 주장하였다.

제3장에서는 세부적으로 이상적 개인의 일생, 특히 그의 저서『은송당집』의 출간을 전후로 이상적의 변화를 살펴보았다.『은송당집』의 명명은 조선 국왕 익종, 헌종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상적은 1828년 당시 국왕 익종의 관심을 받은 적이 있고 1846년 익종의 아들인 헌종은 그 일을 기억하고 이상적을 다시 불렀다. 국왕이 송독했다는 뜻인 "은송당"은 이러한 일로 인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여기서 본 논문이 주목한 사건은 헌종이 이상적을 만났을 때, 궁중에서 출판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상적이 고사했다는 점이다.[1] 정후수는 이 일을 이상적의 중인 신분 때문이라 추측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정후수의 신분 문제 외에도 이상적의 서적 출판 방식에 대한 고집도 그 이유였음을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 이상적은 자신의 문집을 목판본으로 인쇄하고자 했던 계획이 있었다.

김영진의「조선조 문집간행의 제양상」[2]이나 박현규의「傳統時期在中國出版的韓國人編著書籍總覽」[3]등을 살펴보면『은송당집』의 의의는 더욱 분명해진다. 이상적은 1848년 중국 북경에서 목판을 만들어 자신의 문집을 출판한다. 만약 조선 조정에서 문집을 인쇄했다면 교서관에서 활자본으로 인쇄했을 텐데, 이상적은 굳이 중국에서 목판본을 주문하였다. 18~19세기 조선 문인들에게는 활자본보다는 목판본에 대한 선호

1) "及前席, 君王誦其詩篇, 令秘閣鋟梓, 固辭之." 李尚迪著, 金奭準編:「李藕船先生傳」,『藕船精華錄』高宗年間刊古活字本(國立中央圖書館藏 http://www.nl.go.kr), 7쪽.
2) 金榮鎭:「조선조 문집간행의 제양상」,『民族文化』제43집, 2014년 6월, 5-75쪽.
3) 朴現圭:「傳統時期在中國出版的韓國人編著書籍總覽」,『第一屆中韓人文學論壇發表論文集』, 2015년10월, 32-57쪽.

가 있었지만 중국에서 목판본으로 출판했던 적이 없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상적의 이러한 행동은 특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은송당집』의 출판경위를 살펴보면, 이상적이 일정 수준의 관직에 오른 다음 헌종의 추천도 거절하고, 중국에서 목판본으로 출간을 결정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주목할 만한 독특한 과정이며, 이상적의 철저한 준비성과 사회적인 문제 역시 엿볼 수 있는 사건이다.

제4장에서는 동아시아 교류사적 관점에서 조선 역관의 의의를 살펴보았다. 본 장의 연구 방법은 이상적의 12번의 연행을 중심으로 같은 시기 조선 문인들의 문헌과 이상적의『은송당집』을 비교하며 분석하였다. 더불어 조선 역관의 문헌 및 기타 청대 문인 자료를 통해 연행록 안의 역관 공로에 대한 축소나 생략 등 사례를 찾아내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연행록의 사각지대를 드러내었고, 또 조선 역관 문헌의 의의를 밝혀내었다.

본 발표문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상적의 두 번째 연행과 일곱 번째 연행 기록을 살펴보겠다.

1831년 7월에서 동년 12월까지 이상적은 두 번째 사행을 다녀온다. 이 시기 연행록으로는 정사 홍석주의『연천선생문집』제4권에 수록된 시문과 한필교의『수사록』을 들 수 있다. 한필교는 홍석주의 사위로서 군관 신분으로 연행에 동행하였다.

『수사록』을 살펴보면 동행한 역관들 중 오직 이상적만 그 이름이 네 번 기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831년 9월 15일: 정사 홍석주가 영평부 지부 완상생에게 편지를 보내다. (주, 역관 이상적을 시켜 가서 전하게 했다.)
2. 1831년 10월 5일: 정사 홍석주는 역관 이상적에게 소개를 하게 하여 만나고 싶은 뜻을 전하였고 유희해는 허락하였다.
3. 1831년 10월 21일: 유희해가 오늘 방문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저녁에 편지를 이상적에게 보내어 말하길 일이 생겨서 하루 늦게 봐야한다면 석암시 6권과 서첩 네 권을 정사 홍석주에게 드렸다.
4. 1831년 11월 2일: 정사 홍석주가 편지를 작성하여 이상적에게 영평부에 찾아가 완상생 지부에게 전하게 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문고, 삼이집, 상서보전, 정로 네 질을 보내었다. 4)

간단히 말해 정사 홍석주와 청 문인들 사이에 말을 전한 기록에 이상적의 흔적이 집중적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사역동사인 使가 자주 쓰인 사실이다. 이 동사로 인하여 만약 연행록만 읽는다면 이상적은 그저 정사의 명령을 받아 행동했던 역관으로만 기억되었을 것이다.

만약 이상적이 정사와 청 문인과의 만남에서 피동적인 역할뿐이었다면, 왜『수사록』에서는 이상적의 이름을 4번에나 언급하였을까? 하물며 다른 역관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상적의 입장에서 본다면, 위 유희해, 완상생과는 이상적과 인연이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44년 10월에서 1845년 3월까지 이루어진 이상적의 일곱 번째 사행에서 당시 서장관은 윤찬이었고, 이상적은 "이당상 별계청 역관"이었다. 이 사행에서 현재 남아있는 연행록으로는 서장관 윤찬의 사촌동생 윤정의『서행록』이 있다.『서행록』의 의미있는 사건으로 청 문인 장요손과 윤정의 만남을 들 수 있는데, 윤정은 1845년 1월 10일에 장요손의 집에 초청 받아 후한 대접을 받고 관사에 돌아와 다음과 같이 글을 쓰게 된다.

---

4) 1. (九月甲子條:)上使作書于永平知府阮常生 (註:使李譯尚迪往傳.) 2.<戶部郎中劉燕庭筆談 十月初五癸未>: 先是上使使舌譯李尚迪紹介示其所欲見之意, 劉肯許之. 3.(十月己亥條:)劉燕庭約以是日來訪, 至晩始抵書於李譯尚迪, 言有故, 當遲一宿, 且送『石菴詩』六卷及其書貼四卷, 俾呈于上使. 4. 十一月庚戌條: 上使先作書使李譯尚迪詣永平府傳于阮知府, 且賚『世稿』, 『三怡集』, 『尚書補傳』, 『訂老』四袠以遺之.

> 무릇 외국인이 연경에 오면 모두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조선인들은 역관부터 마두, 사상까지 수 백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연경성 내외를 두로 다니니, 마두배들은 인삼판매를 이유로 청사대부 집과 교류를 만들고, 친해지면 몇 개 토산품을 들고 누구누구 집에 가서 알현한다. 또 심한 자는 청인들에게 문안하고 기뻐하는 것이 가노가 집에 돌아온 것 같이 행동한다. 그들이 연경을 떠날 때는 또다시 가서 인사하니 그럼 청인들이 또 몇몇 선물을 내어주게 된다. 오늘 나 같은 사람들로 말하자면 청나라 조정의 사인들과 만나고, 또 하루 종일 이야기 하니, 이런 경우가 있겠는가? 가히 중국과 조선은 한 가족이라 할 수 있다.[5)]

이 기술만 본다면 조선 역관, 마두, 상인들의 행동은 “가노”와 같이 비굴하여 문제가 많고, 조선의 양반과 청 사대부 사이는 보다 기품있는 교류를 한다는 자부심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상적의 자료를 본다면 장요손과 이상적은 둘도 없는 친구 사이임을 알 수 있다. 또 윤정이 장요손을 만난 3일 뒤 1845년 1월 13일에 바로 그 장소에서, 장요손의 주최 아래 김정희의 세한도를 청 문인들이 관상하고 찬시를 쓰는 이른바 “세한도 감상회”가 열린 것을 감안하고, 그 후 장요손은 윤정에게 어떠한 연락도 취하지 않았음을 생각하면, 윤정의 기술은 역관 이하 조선 인력들의 연행에서의 기능을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이상적과 장요손을 중심으로 19세기 조선, 청조 사이의 문인 교류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본 장의 중요부분은 장요손과 이상적의 서신 왕래를 통해 김정희의 흔적을 살피고, 또 장요손의 만년 저작『속홍루몽』에 나오는 “세한루”가 김정희의 “세한루”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해 논하였던 점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19세기 양국 간의 문인 교류는 17, 18세기 조선의 일방적인 청조에 대한 호기심과는 달리 양국 문인이 모두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양방향” 교류였음을 밝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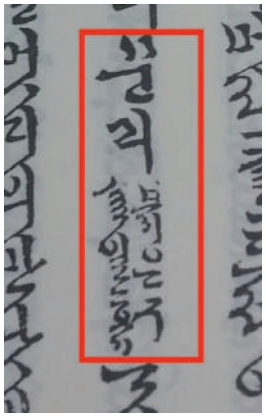
제6장에서는 조선 역관의 번역작품 낙선재본『홍루몽』을 분석하였다. 본 장은 벤야민, 데리다의 해체주의 번역학, 劉禾의 “Translingual Practice”등 번역이론을 참고하여 낙선재본『홍루몽』의 번역 기교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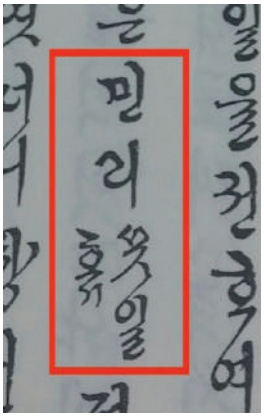
낙선재본『홍루몽』은 19세기 말 한국어로 번역된 120회『홍루몽』완역본으로,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세계 최초로 완역된 작품이다. 본문은 소설에서 “粽子”, “燕窩” 등 단어의 번역을 통해 번역자가 비록 오역을 하였지만, 상하문 맥락을 파악하면서 고심한 흔적을 찾아냈고, “花神”, “玫瑰” 등의 단어의 번역을 통해 전체 홍루몽 번역의 진행과정에 대해 논하였다. 특히 본 장에서는 “玫瑰”의 네 가지 번역어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玫瑰”를 “옥”으로 본 조선 번역자가 홍루몽 번역을 수행하며 홍학사에서 해석의 공간을 넓히는 의미가 있었음을 밝혀내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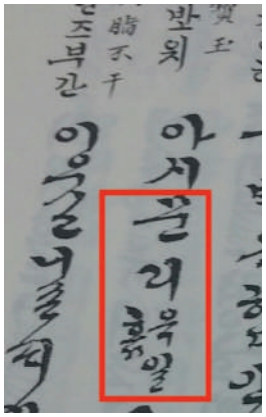
第八回：玫瑰紫二色金銀線的坎肩兒
제8회:문괴(붉은 구슬 일홈)
第三十四回：糖腌的玫瑰卤子
제34회: 민괴(옷 일홈)
第四十四回：如玫瑰膏子一樣
제44회: 문괴(옥 일홈)

---

5) 임기중 편,『연행록 속집』(서울:상서원, 2008년), 제137권, 142~143쪽. "蓋外藩人之赴京者, 皆不許任其所之, 而至於我東人, 則自譯官至馬頭私商輩近數百人遍行成內外, 馬頭輩則或為賣箋納交於士夫家, 其中慣熟者或持如干土 產往謁所親某某宅, 甚者或問侯內庭其欣欵無異出家奴之還歸, 及其發行也又往告歸, 則其內外俱有如 干贐物必饋餽云. 今以吾儕言之交結朝士, 竟日會穩, 有如是焉? 可謂中外一家也."


제8회 주석


제34회 주석


제44회 주석

이러한 “붉은 구슬”, “옥”으로 “玫瑰”를 번역한 것은 기존『홍루몽』해석과 다르기에 일차적으로는 “오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說文解字』,[6]『漢書』[7] 등을 비롯한 고서에서 사용한 사례를 살펴보면 “玫瑰”의 옛 의미에는 “붉은 구슬”, “옥”의 의미가 존재하고 제44회 이전의 번역자는 이러한 단어의 옛 의미를 더 선호하는 번역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붉은 구슬”이라는 번역을 진행한 제8회는 가보옥이 처음 설보채를 만나는 중요한 장면으로, 번역자는 설보채 옷의 “玫瑰” 무늬를 “붉은 구슬”로 번역했다. 이는 소설의 중요한 신화적 소재인 “강주선초(絳珠仙草)”를 양분하여 “강주(絳珠:붉은 구슬)”를 설보채의 상징으로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존 홍학에서 “강주선초(絳珠仙草)”를 임대옥 一人으로 보는 것에 비해 낙본『홍루몽』내 번역자는 설보채를 “강주”로 임대옥을 “선초”로 보는 새로운 해석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본 장은 구체적인 ‘오역’을 분석하는 방법으로『홍루몽』에서의 번역 사례를 살펴보았다. 위 분석만으로도 낙본『홍루몽』의 ‘오역’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보다 복잡한 문화사적 의의를 갖는다. 또 이러한 번역자의 독특한 해석은 홍학사 내에서 기존에 없었던 독창적인 해석이라는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 19세기 역관계층의 번역 능력과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 본문은 크게는 조선 역관의 역사, 작게는 이상적의 개인 교류사까지 구체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19세기 역관의 활동, 번역작품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19세기 조선 역관의 행적 분석을 통해 동아시아사에서 “양반”, “청대문인” 외의 “조선 역관”이라는 의미 있는 관찰자를 찾아내었다. 이 세 계층의 자료를 취합해보면 연행 교류를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19세기 동아시아 무대에서 조선 역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을 밝혀내었다.

6)『설문해자』에서 “玟”자를 설명하는 글에 “火齊玟瑰也. 一曰石之美者.”이란 기술이 있다.

7)『漢書・司馬相如傳』에는 “其石則赤玉玫瑰”라는 구절이 있고 진대 晉灼과 당대 顔師古가 각각 “晉灼曰: 玫瑰, 火齊珠也. 師古曰: 火齊珠, 今南方之出火珠.”라는 주를 달았다. 이를 보면 청대『홍루몽』을 읽는 시대의 독자에게 “玫瑰”는 꽃의 이름이지만, 고대에 “玫瑰”는 붉은 구슬, 옥 등의 의미로 더 많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의 『효경』의 수용과 전개

陳亦伶*

<目　次>

1. 前言
2. ≪孝經≫的傳入與流通
3. 朝鮮時代的≪孝經≫文獻與研究
4. ≪孝經≫研究式微之因
5. 結語

국문초록

『孝經』은 十三經 가운데 분량이 가장 적고 또 전체 경문이 천여 글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효 사상이 儒家文化의 핵심이라는 점은 틀림없다. 중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베트남에서도 효 문화와 『효경』에 관한 저술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중화권에서 출판된 『효경』 연구사 관련 저술은 동아시아 각국의 『효경』 연구 내용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일본을 위주로 서술한 것이고 한국에 대한 내용은 매우 적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의 『韓國經學資料集成』에 『효경』 관련 저술이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또 한국경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단어인 '四書三經'에서도 『효경』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하지만 『효경』은 한국 역사에서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여러 학자들이 도외시했던 것은 아니다. 『三國史記』의 기록을 살펴보면 늦어도 신라 시대에 이미 한반도에 유입되어 태학에서 교과서로 사용되었고, 고려시대에는 과거 시험에 등장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효경』에 대한 연구가 점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또 선조 때에는 『孝經諺解』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한국에서도 『효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조선시대에는 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면, 『효경』의 작자에 대한 토론을 벌였는데, 조선 학자들은 공자、증자、증자의 문인、공자의 문인이나 재전제자、자사、맹자의 문인, 제나라와 노나라 때 사람의 위작、한나라 때 유생의 저술 등 『효경』의 작자에 대한 여러 설에 대해 다방면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효경』 鄭注本과 孔傳本의 우열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朱熹 『孝經刊誤』의 分章에 대한 적절성 문제 등 여러 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펼쳤다. 이는 明淸 시대 학자들에 비해 치열하지 않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선시대에는 『효경』을 중시하지 않았고 당시 학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현재의 인식이 있을까? 현재까지 전해지는 조선시대 『효경』 저술은 얼마나 될까? 조선시대 학자들의 『효경』에 대한 인식과 연구는 명청시대 학자들과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이와 특징이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본 발표자는 조선시대 『효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조선시대 『효경』 관련 저술에 대한 조사와 정리를 진행한 후, 이어서 『효경』이 수용되고 전개된 양상과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는 한국 『효경』학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 香港浸會大學校

1. 前言

≪孝經≫雖是十三經中篇幅最小的一部，僅一千數百餘言，但其思想為儒家思想的核心之一，流傳廣遠悠久，亦影響鄰近東亞各國。現行出版之≪孝經≫學史相關書籍中，不少述及≪孝經≫對鄰近日本、韓國、越南等國家之影響內容，如陳鐵凡≪孝經學源流≫[1]、羅瑩與黃黎星合撰之≪孝經漫談≫[2]、舒大剛≪中國孝經學史≫[3]、劉增光≪晚明≪孝經≫學研究≫[4]等書。然而往往側重≪孝經≫傳入日本的研究情形，於韓國乃至越南則著墨較少，甚或少數幾語帶過。日本固然因≪古文孝經孔氏傳≫的回傳，於≪孝經≫研究史上，有其真偽論辨的空間。然而，若細看朝鮮學者之著述，可知韓儒對≪孝經≫的作者、成書、版本，思想等問題、鄭注本亦或孔傳本孰優孰劣、≪孝經刊誤≫分章的適切性、日本傳回≪孝經≫本真偽等，皆有深入的討論，亦值得學界關注。

有鑑於華文學界目前尚未對≪孝經≫流傳於韓國的情形與研究有深入了解，韓國學界亦對現存朝鮮時代之≪孝經≫論著究竟有多少，未能有明確掌握，筆者試圖從眾多韓國史料文獻中，梳理上述問題。本文於≪孝經≫學史研究面上，將可補充≪孝經≫海外傳播之了解；於韓國經學研究面上，將可資掌握研究題材之用。尤其是現存的朝鮮時代≪孝經≫論著內容，筆者雖爬梳大量史料文獻、蒐羅資料，並盡可能地至各大圖書館目驗覆核，然一人之力有限，定有疏漏，尚祈先進、同道不吝賜教。

2. ≪孝經≫的傳入與流通

由金富軾的≪三國史記≫可知至少在景德王二年(743)時已從唐朝傳來唐玄宗御注之≪孝經≫：

> (景德王二年春三月)唐玄宗遣贊善大夫魏曜來吊祭。……并賜御注≪孝經≫一部。[5]

到了新羅時≪孝經≫除了廣布於民，使孩童褓子皆能習之外，[6]也成為國家拔擢人才的標準之一：

> 四年春，始定讀書三品以出身，讀≪春秋≫、≪左氏傳≫，若≪禮記≫，若≪文選≫，而能通其義，兼明≪論語≫、≪孝經≫者，爲上；讀<曲禮>、≪論語≫、≪孝經≫者，爲中；讀<曲禮>、≪孝經≫者，爲下。若博通五經三史諸子百家書者，超擢用之。[7]

之後，於≪朝鮮王朝實錄≫與≪承政院日記≫中，除可見得王室教育中，多次於書筵授講≪孝經≫予世子的紀錄外[8]，另有為普及而多次刊印≪孝經≫的記事[9]。宣祖(李昭，1567~1608年在位)時更是下令進行諺解，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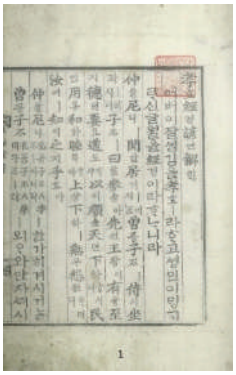
1) 陳鐵凡：≪孝經學源流≫，臺北：國立編譯館，1986年7月。書中第六章<漢語言以外孝經學>敘述≪孝經≫於鮮卑、高昌、西夏、女真、蒙古、滿州、韓國、日本、越南、歐美等地的傳播。
2) 羅瑩、黃黎星：≪孝經漫談≫，臺北：頂淵出版社，1997年3月。作者於第四章<≪孝經≫的地位與影響>中，設有「≪孝經≫對朝鮮、日本的影響」一節，以近五百字的篇幅談到≪孝經≫傳到朝鮮半島的內容。
3) 舒大剛：≪中國孝經學史≫，福州：福建人民出版社，2013年5月。第十二章<清代孝經學>及附論<20世紀的孝經研究>(楊世文撰)兩章，有不少的篇幅討論到日本傳回古文≪孝經≫的問題。
4) 劉增光：≪晚明≪孝經≫學研究≫，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5年7月。第六章第四節雖題為<從東亞的視角看晚明≪孝經≫學>，但實際上僅談論到日本，尤以中江藤樹與大鹽中齋對≪孝經≫的解釋為主，並未涉及韓國、越南或其他國家。
5) 金富軾：≪三國史記≫，卷九<新羅本紀>第九，「景德王二年春三月」條。
6) 鄭麟趾等：≪高麗史≫，世家卷第十六，仁宗十二年三月條：「壬申以≪孝經≫、≪論語≫分賜閭巷童稚」。
7) 金富軾：≪三國史記≫，卷十，<新羅本紀>，「元聖王四年」條。
8) 如≪太宗實錄≫2年6月18日庚午條：「殿下乃爲元子擇儒臣爲賓師，又置諭善侍學之官，使之日開書筵，講習≪孝經≫」。(本文所引實錄來源皆為≪朝鮮王朝實錄≫［漢城：國史編纂委員會，1968年］之網路版，網址：http://sillok.history.go.kr/main/ main.jsp，下省略僅標明該實錄朝代名稱)。

祈讓更多人可以接觸、學習≪孝經≫。

> 宋朱子始為≪刊誤≫，又次其經傳，以復孔氏之舊。繼以鄱陽董氏爲之註釋，極其歸趣。然後一經之條貫煥然，其有功於聖門甚大……一日御經筵，與儒臣論治道。因歎≪孝經≫之教久廢於世，又問其註疏之有無，左右以是編聞，即蒙宣索覽之，嘉賞將鋟梓以廣其傳。猶慮窮閭愚下之民，未喻其義也。**下弘文館，悉解以諺語，使人易曉**。[10]

上述引文是柳成龍(1542~1607)的<孝經大義跋>，可知宣祖當時下令弘文館進行諺解的≪孝經≫是以元董鼎(生卒年未詳)≪孝經大義≫為主，但又不完全依據≪孝經大義≫進行諺解。眾所周知朱熹將原本≪孝經≫重新釐定，改為經一章、傳十四章，删削字句後卻未及作注訓解。董鼎依據朱熹≪孝經刊誤≫訓解纂成≪孝經大義≫。而≪孝經諺解≫是以朱熹≪孝經刊誤≫經一章、傳十四章的經文部分為本文，附上韓文的讀音、口訣後，接著直接翻譯內容，≪孝經大義≫的註解則省略。

在此需留意的是，宣祖下令對≪孝經≫進行諺解的機構為弘文館，而不是校正廳。我們知道宣祖受了≪四書五經大全≫的影響，認為為便於讀書人參加科舉考試，應有一個明確的本子可以研讀背誦，因此於宣祖十八至二十一年(1585~1588)時刊定了≪校正廳本四書三經諺解≫。但為何≪孝經≫的諺解工作是指派給弘文館而不是校正廳?雖然柳成龍在<孝經大義跋>中沒有明確揭示緣由，但李忠九認為這表示相較於其他經書，對≪孝經≫的諺解工作較不重視之故。[11]



圖：韓國中央圖書館館藏編號古1236-22之≪孝經諺解≫

此外，李宰榮曾依據≪攷事撮要≫、≪冊板置簿冊≫、≪芸閣冊都錄≫及各道冊板目錄訪查韓國現存≪孝經≫相關古籍，發現朝鮮時代流通的≪孝經≫絕大部分為≪孝經大義≫。即便表紙書名為≪孝經≫，但實際內容為≪孝經大義≫。[12]這應與諺解本採用≪孝經大義≫有關。

3. 朝鮮時代的≪孝經≫文獻與研究

韓國慶尚大學漢文系教授崔錫起先生於2003年時，曾在<韓國經學研究的回顧與展望>文中指出：「(韓國)經學在現代學科體系中開始進行研究不過是近三十年的事」。[13]韓國近年來經濟起飛，政府挹注大量經費發展人文

9) ≪世宗實錄≫5年6月23日壬申條：「禮曹據司譯院牒呈啓：『≪老乞大≫、≪朴通事≫、前後≪漢≫、≪直解≫、≪孝經≫等書緣無板本，讀者傳寫誦習，請令鑄字所印出。』從之」。
10) 柳成龍：<孝經大義跋>，≪西厓集≫收入≪韓國文集叢刊≫，第52冊，頁347。
11) 李忠九：≪經書諺解研究≫，成均館大學國語國文學科博士論文，1990年，頁47：「언해의 전담기구인 교정청에 맡기지 않았다는 것은 다른 經書諺解보다 중시돼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12) 李宰榮：<朝鮮時代『孝經』의 刊行과 그 刊本>，≪書誌學研究≫第38輯，2007年12月，頁331-343。

事業，韓國經學的研究也愈加蓬勃發展。韓國經學的研究逐年增長，現在已於韓國研究財團的學術研究分類中，設立「韓國經學」（分類code：A110405）一門。崔錫起先生於2003年撰寫<韓國經學研究的回顧與展望>時，當時研究韓國經學相關論文僅315篇，現今僅搜尋研究韓國≪論語≫學之論文，便達一千多篇。相關專書的出版亦逐年增長。會有如此飛躍的進展與≪韓國經學資料集成≫的編成出版有很密切的關係。

然而≪韓國經學資料集成≫的收錄方式，是依≪大學≫、≪中庸≫、≪論語≫、≪孟子≫、≪尚書≫、≪詩經≫、≪周易≫、≪禮記≫、≪春秋≫之序編輯而成。不似≪四庫全書總目≫的經部編排次序，也沒有五經總經類，因此有些無法明確分割排入上述各經類目之作，便無法見著於≪韓國經學資料集成≫。例如≪韓國經學資料集成≫的≪論語≫、≪孟子≫、≪尚書≫、≪詩經≫、≪周易≫、≪禮記≫、≪春秋≫各類中，分別收錄姜必孝(1764~1848)的<時習錄論語>、<時習錄孟子>、<時習錄書傳>、<詩傳>、<謙卦圖>、<易說>、<時習錄禮記>、<春秋說>、<時習錄春秋>等，收錄於其個人文集≪海隱遺稿≫中的經學論說。但<五經要旨圖>、<孝經大義圖>這兩篇同樣收錄於≪海隱遺稿≫的圖說與解經論作則未見於≪韓國經學資料集成≫。

朝鮮儒者的經學論著常夾在其個人文集中刊刻印行，像茶山丁若鏞(1762~1836)般有多部經學論著單獨刊行者不多。而≪孝經≫論著常出現在個人文集的「雜著」裡，因此若不是到圖書館目驗這些文集，一部一部翻找，不易發現朝鮮時代曾有不少儒者撰寫過≪孝經≫論說。筆者認為≪韓國經學資料集成≫的便利是一把雙刃，因太便利致使研究者過於依賴，而未能察覺還有很多未收入的重要著作。例如趙穆(1524~1606)<尚書疑義>、河謙鎭(1870~1946)<古文尚書辨>皆未收入≪韓國經學資料集成≫或是補遺篇。諸如上述收藏在個人文集中的經學論著還很多，筆者蒐羅朝鮮時代≪孝經≫文獻計有十四位朝鮮學者的十九種≪孝經≫著作，其中僅有尹鑴的論著已被現代學者所關注與研究[14]。下舉數種說明之:

(1) 正祖

正祖不管在韓國學界，或中文學界皆是備受矚目的朝鮮學者，尤其是對正祖「經史講義」的探究。其中，「經史講義」中的≪易經講義≫、≪詩經講義≫、≪書經講義≫等，曾以單行本的方式刊刻，參與問對文臣人數亦多，故在韓國相關研究論文便有數十篇，同時也有多本專書、學位論文深究專探。唯獨≪孝經≫部份付之闕如。

正祖的<經史講義—孝經>主要針對今古文≪孝經≫的真偽、≪孝經刊誤≫分章、聖治章、≪孝經≫與<西銘>等問題與抄啟文臣相互問對。其中，正祖問：「張子<西銘>，蓋出≪孝經≫」時，朴師轍對：「<西銘>之義，出於≪孝經≫，真德秀嘗推演其說」。呂妙芬曾言在其模糊記憶中，宋元時期並未出現將<西銘>與≪孝經≫合論的情形，並指出將<西銘>與≪孝經≫合論是由晚明開始，以<西銘>註解≪孝經≫。[15]但由正祖與朴師轍問對之語，可知他們認為南宋真德秀(1178~1235)便以<西銘>註解≪孝經≫，或可找尋更多資料，一探朝鮮學者對<西銘>與≪孝經≫的詮釋看法。

(2) 姜必孝、沈大允

韓國學者琴章泰認為圖說是朝鮮時代性理學研究中廣泛應用的一種獨特方法。[16]解釋經文的圖說很多，多是≪易經≫、≪大學≫或≪中庸≫[17]，姜必孝的≪孝經≫圖說是相對少見者。在≪孝經≫作者問題上，姜必孝於<孝經大義圖>圖說中主張≪孝經≫為曾子門人所記，大多數的朝鮮文人持此觀點，但沈大允於≪孝經刪正≫

13) 崔錫起：<韓國經學 研究의 回顧와 展望(韓國經學研究的回顧與展望)>，≪大東漢文學≫第19輯，2003年，頁162。
14) 關於尹鑴的≪孝經≫著作與思想相關研究，目前有兩篇論著：1、安秉杰：<白湖 尹鑴의 實踐的 經學과 그의 社會政治觀>，≪朝鮮後期 經學의 展開와 그 性格≫，서울：成均館大學校出版部，1998年5月，頁9-25。2、정호훈：<朝鮮後期새로운 政治論의 展開와『孝經』—尹鑴의『孝經』이해와 孝治論—>，≪朱子思想과 朝鮮의 儒者≫，서울：혜안，2003年12月，頁191-227。
15) 呂妙芬：<<西銘>為≪孝經≫之正傳?—論晚明仁孝關係的新意涵>，≪中國文哲研究集刊≫第33期，2008年9月，頁139。
16) 琴章泰：≪韓國儒教思想史≫，坡州：한국학술정보，2003年10月，頁56。
17) 崔錫起曾集結朝鮮時代文集中的≪大學≫、≪中庸≫圖說並加以解釋、翻譯，出版≪朝鮮時代≪大學≫圖說≫(서울：보고사，2012年7月)、≪朝鮮時代≪中庸≫圖說≫(서울：보고사，2010年3月)兩書。

中指出≪孝經≫為漢儒所作。沈大允曾在≪孝經刪正≫序文中言「≪孝經≫非孔氏之書也。今為刪正，取其合於道者，而棄其餘。」與朱熹≪孝經刊誤≫有異曲同工之意。

(3) 金榍

金榍生於朝鮮高宗33(1896)年，隔年便進入大韓帝國。其一生歷經朝鮮王朝末年、大韓帝國、日本強佔期、盟軍託管期、南北韓分裂後大韓民國等多個政權。其曾言：「甲戌年作≪孝經章句≫、己卯歲纂≪外傳≫」，故可知≪孝經章句≫撰成於1934年、≪孝經外傳≫完成於1939年。嚴格上來說金榍之作不能算是朝鮮時代≪孝經≫文獻，但其師承寒洲學派主理學之代表人物郭鍾錫(1846~1919)，故從寬認定納入。金榍的≪孝經章句≫、≪孝經外傳≫可能是朝鮮最後的≪孝經≫著述。關於這兩部著作的撰作源由，其曾言：

> 鄱陽董氏者，乃專據朱子≪刊誤≫而為作≪大義≫，則庶幾乎知所從矣。然而其文稍涉蔓衍，支離穿鑿，讀者厭焉。近代又有清世祖新≪注≫，頗絕詳明，而其所據者仍用古本，故其所為說亦不免傅會牽合，而反不如董氏之正者，多矣。榍之愚，自始受讀，固嘗歷稽諸說而未得所安。既復熟複屢年，始若有得其要領者，然後迺敢私著為書，名曰≪孝經章句≫。蓋其規模大體壹以朱子為主而仍存原本以見所刊之誤，隨文附釋，參取三家之長而芟夷繁亂，翦截浮辭，以便初學之考觀。又雜采傳記諸文之意類相近者，別為外傳，以附其後。寔亦朱子之遺意也。

又

> 子朱子嘗欲掇取傳記諸書，可發≪孝經≫之旨者，別為外傳而未果，余既為≪孝經章句≫，一從朱子≪刊誤≫之意，因復抄出四子、三≪傳≫、戴≪記≫、≪家語≫諸書之言，以為此卷而附之後。蓋亦竊附朱子而成其所未遑者云。[18]

朝鮮時代流通的≪孝經≫著述是董鼎≪孝經大義≫，而金榍為改善≪孝經大義≫的缺失增益補強而作≪孝經章句≫，≪孝經外傳≫則是追敬朱子之志而纂。上述引文的「四子」指的是荀子、揚雄、韓嬰、董仲舒。

朝鮮後期的經學論著中，不只上述之金榍，朴文鎬(1846~1918)、李炳憲(1870~1940)、河謙鎭(1870~1946)等跨越舊韓末到近代的韓國學者，他們對二十世紀的中國有非常深入的了解與接觸，李炳憲甚至與康有為(1858~1927)通過書信；金榍在其經學著作中有多次提到康有為，並尊稱其為康子；河謙鎭的<古文尚書辨>也提到康有為的≪新學偽經考≫中考辨古文尚書的觀點。吾人觀看韓儒的經學論著，應拋棄「尊朱」的先入為主之見，雖然在≪孝經≫一書的看法上，金榍明顯追隨朱熹，但在其他經書上，包含金榍在內的舊韓末學者，皆因接受多元新說，而有更多樣化的觀點出現。

4. ≪孝經≫研究式微之因

台灣學者呂妙芬曾言：「≪孝經≫這部書是少數能夠跨越身分、年齡、性別、宗教等界限，廣泛被閱讀的儒家經典之一。」[19]在男尊女卑的古代社會，女子一般無法讀書習字。但由≪朝鮮王朝實錄≫可知女子在當時也可學習≪孝經≫，世宗時便有令醫女學習≪孝經≫的紀錄：

> 禮曹啓，濟生院醫女，必先讀書識字後，習讀醫方。請外方選上醫女，亦令所居各官，先教≪千字≫、≪孝經≫、≪正俗篇≫等書，粗解文字後上送。[20]

18) 金榍：<孝經章句序>，≪重齋先生文集≫，收入≪韓國歷代文集叢書≫第2591冊，首爾：景仁文化社，1997年7月，頁540。
19) 呂妙芬：≪孝治天下：≪孝經≫與近世中國的政治與文化≫，臺北：中央研究院、聯經出版事業股份有限公司，2016年5月，頁8-9。

此外，韓國學者강문식由朝鮮15~16世紀墓誌銘發現，當時在士大夫家裡教導子女學習≪孝經≫者，往往是家中女主人，由此可知≪孝經≫在當時是女子必讀教科書。[21]由是，강문식認為≪孝經≫在朝鮮前期作為童蒙用書的印象太過強烈，致使讀書人不願深入探究，並引周世鵬(1495~1554)之語輔證：

> 獨怪≪孝經≫之書，上不列於六經，下不列於四書，所謂至德要道者，徒見誦於童牙，而不為大人君子之所服膺。[22]

강문식之主張固然有理，但筆者認為除此之外，另有兩個因素。朱熹撰作≪孝經刊誤≫後，大大削弱其經典性，是為其一。第二則與科舉取士有關。前面提到新羅時曾設有讀書三品科作為取士之法，≪孝經≫在當時雖然成為評比考核科目之一，但僅止於此。依據≪經國大典≫可知，朝鮮朝舉行的科舉考試中，≪孝經≫未曾列入考科。因科舉不考，讀書人不願深究，致使相關著述不多。科舉影響著述最明顯的例子是≪周易≫。由於≪周易≫的內容理解起來較困難，也不容易背誦，所以從成宗朝(李娎，1469~1494在位)開始≪周易≫考科分數可以加倍[23]，自此≪周易≫相關解經之書也倍增不少。如同現代因外語(英語)考試之故，坊間英語學習、應考用書也多如牛毛。

之後，朝鮮後期因壬辰倭亂帶來的衝擊，使人們再度拾起≪孝經≫，探究忠孝大義，也對≪孝經刊誤≫有更多元的看法。例如身為諸侯國的朝鮮，如何看待≪孝經≫中的天子章?對朝鮮百姓而言，≪孝經≫中的天子、諸侯、卿大夫之孝是否有其實用意義與經典閱讀價值?故而朝鮮時代≪孝經≫著述也多集中於朝鮮後期。

周予同曾對≪孝經≫評為：「其在經學上論難之繁，亦不亞於他經」[24]。中國學者相互論難討論的問題，在朝鮮時代也同樣獲得關注。現代學者關注的問題，放到朝鮮時代來看，同樣趣味盎然。例如，在呂妙芬[25]與張崑將[26]的研究中，皆指出晚明有將≪孝經≫宗教化的傾向，更進而影響日本，尤其是陽明學者。雖然就筆者目前所見，≪孝經≫在朝鮮時代似乎沒有出現像晚明或是日本陽明學者般的「宗教化」情形，但卻有相當有趣的現象可討論。關鍵點在「宗教化」的宗教指涉對象為何種宗教?

在這呂妙芬與張崑將的研究中，≪孝經≫在宗教化的過程多與佛教結合，指涉的「宗教化」對象為佛教。但朝鮮文人排佛源自朝鮮開國之初，以佛教為國教的高麗時代，僧侶可直接參與政事，過度頻繁舉行各種法式佛會，使得國庫耗損嚴重。更有甚者，僧侶霸佔土地、訛詐百姓，衍生許多弊端。因而太祖李成桂(1335~1408)建立朝鮮王朝時，便採用儒教(朱子學)作為國家圭臬。一方面是為了清除原高麗禑王(1365~1389)勢力，另一方面亦為革除前朝過於重視佛教帶來之弊端。故朝鮮時代初期，李穡(1328~1396)、鄭夢周(1337~1392)、鄭道傳(1342~1398)、趙仁沃(1347~1396)、金子粹(生卒未詳，1374年甲寅榜乙科壯元)[27]等人發表崇儒排佛之言論，輕視佛僧觀念深植人心。[28]

倘若宗教化之宗教非佛教，而是儒教則又是另一種面貌。我們知道儒學一語，在韓國與其他國家不同，慣

---

20) ≪世宗實錄≫5年12月27日甲戌第四條記事。
21) 강문식：<조선전기의『효경』이해>，≪정신문화연구≫，第35卷第1號，2012年2月，頁14。
22) 周世鵬：<與宋參判眉叟>，≪武陵雜稿≫，收入≪韓國文集叢刊≫第27冊，서울：民族文化推進會，頁10。
23) ≪中宗實錄≫，2 年 2 月 27 日條：「今別試，於三經，抽一經試之，而≪周易≫獨倍晝， 甚爲不均。 請罷倍晝之法。傳曰：≪周易≫倍晝之法，成宗豈不詳度，而爲之乎？仍舊可也」。
24) 轉引自[唐]李隆基注、[宋]邢昺疏、金良年整理：≪(十三經注疏)孝經注疏≫，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9年4月，點校前言頁1。
25) 呂妙芬：≪孝治天下：≪孝經≫與近世中國的政治與文化≫，臺北：中央研究院、聯經出版事業股份有限公司，2016年5月。
26) 張崑將：<晚明孝經風潮與中江藤樹思想的關係>，收入張寶三、楊儒賓編≪日本漢學研究續探：思想文化篇≫，臺北，國立臺灣大學出版中心，2005年8月，頁143：「日本陽明學的開宗者中江藤樹，受晚明這股≪孝經≫熱潮影響甚深，將≪孝經≫當作拜誦經典，把「孝」進一步宗教化」。
27) 編著者不詳：≪登科錄前編≫(首爾大學校奎章閣韓國學研究院藏本)，索書號古4650-10。
28) ≪純祖實錄≫，純祖8年4月25日辛卯：「僧徒之出入城闈，一切禁止」。

稱儒教。儒教不僅是學術思想上的儒學，也同時包含宗教意義，首爾大學宗教系教授琴章泰的著作中，便認為儒教是一種宗教信仰。縱使對於儒教(儒學)是否為一種宗教在韓國學界仍有正反兩論，然而於韓國政府的宗教信仰調查中，常設有儒教一項，認為儒教是一種宗教者亦不少。那麼，在儒教是一種宗教的大命題下，≪孝經≫自然也自動歸為該宗教之經書，那麼便沒有「宗教化」的過程。

5. 結語

綜上所述，本文梳理韓國史料文獻，蒐羅朝鮮學者≪孝經≫論著，共14位學者的19種論著。並得出≪孝經≫在朝鮮時代不受重視之因有三：朱熹≪孝經刊誤≫影響、≪孝經≫作為童蒙書籍象徵過於強烈、科舉不考。但仍有不少朝鮮學者因個人學術興趣撰作≪孝經≫著書，但過去由於對朝鮮≪孝經≫文獻無法掌握，故現代研究者無從著手。縱使研究孝文化、孝思想的相關論文多如牛毛，但專以≪孝經≫為主的經學研究卻極少。本文僅為拋磚引玉之作，定有疏漏，尚祈先進、同道不吝賜教，挖掘更多韓國≪孝經≫論著，了解≪孝經≫學的朝鮮傳播。

4월 27일(토) 14:00~16:00

분과발표 2부

❖ 문학5분과 _ 현당대 문학

(장소: 404호)

조영경(고려대) 중일전쟁시기 여성 생존 현실의 모순성
– 巴金의 ≪寒夜≫를 중심으로

남희정(고려대) 일본 점령시기 상하이 문학의 일상성 연구

이승희(연세대) 路遙 소설에 나타난 1980年代 中國 回鄕知靑 서사 연구

중일전쟁시기 여성 생존 현실의 모순성
— 巴金의 ≪寒夜≫를 중심으로

조영경*

<目 次>

1. 서론
2. 전쟁 비극 속 주체적 여성의 현실
3. 여성의 자유 추구가 초래한 현실에의 곤혹
4. 결론

1. 서론

바진(巴金, 1904~2005)은 중일전쟁과 내전시기 대후방(大後方) 사회현실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다수의 소설작품으로 표현하였다. 작가의 전쟁 현실에 대한 관심은 대후방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인물들에 집중되었고, 작가의 대후방에 대한 관심은 그들이 전쟁에 의해 전복된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야기된 모순과 부조리에 대한 인식 및 비판과 연결된다. 바진의 중일전쟁과 내전시기 소설에는 전방에서 벌어지는 전투의 생생한 체험이 형상화된 것이 거의 없고, 후방에서 일어난 삶의 여러 모습들을 핍진하게 묘사한 것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바진이 대후방 사회현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작품에 서술한 것은 전쟁이 발생한 인과관계와 책임을 따지기보다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갔고 사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관심을 집중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사회에 대한 바진의 글쓰기는 사건의 서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비판하고 사회를 고발하는 성격을 가지며, 바진은 구체적 인간의 모습들을 묘사하고 포착해냄으로써 중일전쟁과 내전시기 대후방의 현실을 총체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여주었다.

본고에서는 "바진의 후기 창작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평가되는"[1] ≪寒夜 추운 밤≫을 중심으로, 중일전쟁과 내전시기 여성의 삶 그리고 가난과 소외, 질병 등으로 인한 가족 해체와 죽음을 소설에 묘사한 바진이 대후방 민중의 비극적 삶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바진의 이전 작품들에서 볼 수 있었던 열정적이고 직설적인 비판은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점차 줄어들고 비교적 객관적인 묘사에 치중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하나의 예로 ≪추운 밤≫을 들 수 있다. ≪추운 밤≫은 주인공 왕원쉬안(汪文宣)의 어머니와 부인인 쩡수성(曾樹生)의 갈등을 기본 축으로 하여 쩡수성과 그녀가 일하는 은행의 상사, 왕원쉬안과 그가 일하는 출판사 동료들과의 대립 등을 부차적인 갈등 요소로 교차시키며 중일전쟁시기 막바지에 이른 대후방의 사회적 풍조를 세밀하게 묘사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전쟁에 대한 직접적인 고발이나 사회에 대한 비판의 묘사는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평범하면서도 고뇌에 찬 한 가정 내의 비극이 세심한 인물 성격과 심리 묘사를 통해 작품의 밀도를 더해 주고 있다.[2]

* 고려대학교

1) 백영길, ≪현대의 중국문학≫(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p.167.

2) "그리고 그러한 작품의 공감대가 바로 전쟁의 부조리에 대한 독자의 분노와 평화에의 갈망을 환기시키는 이 작품의 예술적 성과일 것이다.", 백영길, ≪현대의 중국문학≫(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p.168.

또한 ≪추운 밤≫에서는 쩡수성의 성격과 행동에 대한 묘사를 통해 중일전쟁과 내전시기 바진이 지녔던 여성인식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다. "≪추운 밤≫에서 바진의 여성 윤리사상은 주로 두 방면으로 표현되는데, 첫 번째 방면은 사회현실과 전통윤리 환경 하에서의 현대여성의 생존 곤경이다. 다른 방면은 여성해방의 물결 아래 현대여성 특히 지식여성이 도대체 어떤 인생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 선택이 정말 현대여성을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및 진정한 여성해방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3]

바진 소설의 여성 인물은 크게 '봉건제도에 순응하여 희생되는 인물'과 '제도에 반항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인물'로 나뉘어 그려졌다.[4] ≪추운 밤≫의 쩡수성은 후자인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극복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각성이나 성공에 이르는 여성인물'에 속한다. 그녀는 집에서는 고부갈등을 겪고 일터인 은행에서는 '꽃병'[5] 역할을 하며 권태롭게 하루하루를 보내지만, 자신의 청춘과 자유를 위해 란저우로 가는 선택을 함으로써 여성해방 및 개인해방에 대한 각성에 이르는 인물이다. ≪추운 밤≫에 나타나는 쩡수성의 성격이나 여성의식을 왕원쉬안과의 관계 속에서 밝혀본다면, 바진이 소설 속에서 여성 인물을 다룬 방식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추운 밤≫을 쩡수성이 고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편소설로 상정하여, 사회고발 소설 내에 존재하는 바진의 여성인식을 조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바진의 중일전쟁과 내전시기 소설에서 여성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바르게 파악하고, 나아가 어지러운 대후방 사회의 틈바구니 속에서 여성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각과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전쟁 비극 속 주체적 여성의 현실

본고가 주목할 점은 쩡수성이 가출을 통해 주체적인 여성으로 서게 되는 과정이 그녀가 사상적 각성을 통해 자립하는 실존적 인간임을 드러내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점을 밝히기 위해서는 왕원쉬안, 그리고 그와의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왕원쉬안은 "앞에서든 뒤에서든 모두들 그를 '호인(老好人)'이라고 불리기 일쑤였던"[6] 인물로, 자신의 본심과 다르더라도 남의 부탁을 들어주고 혼자 끙끙대며 참고, 결국 힘든 일의 대가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고통스러워하는 인물이다. 이렇게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그의 우유부단하고 독립적이지 못한 성격은 쩡수성과의 사이에서도 그대로 반영되는데, 무엇보다도 그는 아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7] 소설 초반에 쩡수성은 왕원쉬안과 말다툼을 하고 홧김에 집을 나가는데, 그는 시도 때도 없이 그녀를 그

3) "在≪寒夜≫中巴金的女性倫理思想主要表現在兩個方面，第一個方面是在社會現實和傳統倫理環境下現代女性的生存困境。另一個方面是在女性解放的浪潮下現代女性尤其是知識女性到底應該選擇什麼樣的人生道路，而這種選擇是否真的能讓現代女性得到幸福，以及什麼樣的解放形式才算得上是真正的女性解放。"，邱方梅、楊紅旗，<≪寒夜≫與巴金的女性倫理觀>，≪齊齊哈爾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2年 2月，p.106.

4) 陳丹晨，<巴金創作中的女性形象>，≪文藝研究≫ 1983年 6期，pp.67~70. 참고.

5) '꽃병(花瓶)'은 쩡수성의 시어머니가 그녀를 지칭하는 단어로 소설에 처음 등장하며, 그 글은 다음과 같다. "'걔는 꽃병 노릇만 할 테니 월급 걱정은 하지 않을 텐데.' 어머니는 시기와 증오에 차서 화를 터뜨렸다. 이 말이 아들을 얼마나 상심시키는지는 생각하지도 않았다.('她們當花瓶的，不怕扣薪水。'她的妒忌和憎恨又被他那句話引起來了。)"，≪寒夜≫，≪巴金全集≫ 제8권，p.474. 바진 지음, 김하림 옮김, ≪차가운 밤≫(서울: (주)시공사, 2010), p.77. 참고. 즉 '꽃병'은 쩡수성에 대한 시어머니의 시기와 증오를 담고 있는 단어라 할 수 있다.

6) "當面也好，背後也好，大家喜歡稱他做'老好人'。"，≪寒夜≫，≪巴金全集≫ 제8권，p.488.

7) 袁阿靜은 "왕원쉬안과 쩡수성의 부부관계에 있어서 작가는 여성에게 더 많은 주동권을 주었다. 부인이 남편을 중심으로 여기던 옛 전통은 철저하게 전복되었고, 쩡수성은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반되게도 아내에 대한 왕원쉬안의 의존이 훨씬 많았다.(在文宣與樹生的夫妻關系上，作者給予了女性更多的主動權。舊時妻子以夫夫爲綱的傳統遭到了徹底的顛覆，樹生不僅不依賴於丈夫，相反，文宣對妻子的依賴要更多些。)"면서, 두 사람의 성별역할이 마치 도치된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袁阿靜，<≪寒夜≫: 女性精神世界的鏡子>，≪文學界(理論版)≫ 2013年 1期，p.25.

리워하다 일상생활을 모두 망쳐버리고 만다. 그는 쩡수성의 삶에 있어 일부에 불과했지만, 그녀는 왕원쉬안의 삶의 전부였다.

> '그녀를 떠날 수 없다'라는 말에 그는 스스로 상처를 입었으며 쓸쓸해졌다. 쓸쓸함 속에는 초조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8)]

"쩡수성은 자신의 생명의지에 따라 사는, 독립적이고 강한 인물이지만, 왕원쉬안은 곳곳에서 참고 양보하며, 자아가 약해지면서 권위에 맹종하는 빌붙는 약자"[9)]다. 위기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쩡수성이 대범하게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반면, 왕원쉬안은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늘 눈물범벅이 되어 마치 "영원히 자라지 못하는 아이"[10)]같은 모습을 보인다. 그는 참고 양보하는 것이 미덕인 양 행동하다가 정작 마음 속 진실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눈물을 흘릴 뿐이다. 게다가 자신의 폐병에 대해서도 소극적이고 비관적이며 심지어 자포자기하는 태도를 취한다. 바로 답답한 감정과 고민이 가슴 속에 가득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할 수 없을 때 술집에 가서 술을 빌려 걱정을 덜어버리려는 모습이 그것으로, 이는 왕원쉬안이 삶에 대한 상실감과 그에 따른 적막과 초조함에 대항하지 못하는 불안하고 유약한 인간임을 보여준다.

또한 왕원쉬안은 "어머니 앞에서 아직도 온순한 아이에 지나지 않았"[11)]으며, "뚜렷한 관점이 없었"[12)]던 탓에 강하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지도 못하고 늘 울먹거리며 참고, 회사 내에서 존재감도 없이 무기력하게 살아간다. 소설에서 그는 한 집안의 가장이자 아들을 가진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생의 의지를 잃어버린 듯한 인상을 주고, 사회 현실과 정세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13)]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늘 "항일전에 승리하면, 서로 잘 지낼 수 있을 것이다."[14)]라 말하며 기약 없는 미래에 희망을 기탁하려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

> 그녀는 마음이 쓰렸고, 불만스런 감정도 생겨났다. 갑작스런 이런 감정에 그녀도 어찌할 수가 없었다. 울고 싶었지만 있는 힘을 다해 참았다. 따뜻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집, 선량하지만 무기력하고 병든 남편, 극히 이기적이고 완고하며 보수적인 어머니, 싸움과 질시, 적막과 빈곤, 전쟁 중에 사라진 청춘, 자신이 추구하고 노력했으나 날아가 버린 행복, 어두운 앞날 ……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파도처럼 솟구쳤다.[15)]

쩡수성은 같은 은행에서 일하는 천주임에게 란저우로 함께 피난을 가자는 제안을 받고 불현듯 위와 같이 자신의 처지와 가족의 상황을 떠올린다. 그녀는 남편 왕원쉬안과 같은 대학 교육학과를 나와 교육 사

---

8) "'離不開她'四個字傷了他自己，使他感到寂寞。寂寞中又夾雜了一點焦急不安。", ≪寒夜≫, ≪巴金全集≫ 제8권, p.499.
9) "曾樹生按照自我生命意志活著，是獨立者與自強者，而汪文宣處處忍讓、弱化自我、盲從權威，是一個依附者和弱者。", 盧曉, <兩種不同生命力狀態的沖突 - 論≪寒夜≫中的愛情悲劇>, ≪大家≫ 2010年 第8期, p.16.
10) "一個永遠長不大的孩子", 袁阿靜, <≪寒夜≫: 女性精神世界的鏡子>, ≪文學界(理論版)≫ 2013年 1期, p.25.
11) "他在母親的面前還是一個溫順的孩子", ≪寒夜≫, ≪巴金全集≫ 제8권, p.450.
12) "他並沒有自己的明確的看法", ≪寒夜≫, ≪巴金全集≫ 제8권, p.480.
13) 다음의 문장은 사회 현실에 대해 무관심한 왕원쉬안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생활의 부담에 눌려서 그는 몇 년 동안 줄곧 시원하게 숨 한 번 내쉬지 못했다. 주위의 모든 것이 그와 무슨 관계가 있나? 사람들은 모두 세계정세가 점점 호전되어간다고 말하지만, 그의 나날은 매일매일 더욱 나빠졌다.(生活的擔子重重地壓著他，這幾年他一直沒有暢快地吐過一口氣。周圍的一切跟他有什麼關系呢? 人人都在對他說，世界大局一天一天地在好轉，可是他的日子卻一天比一天地更艱難了。)", ≪寒夜≫, ≪巴金全集≫ 제8권, p.470.
14) "等到抗戰勝利了，大家就可以相安的。", ≪寒夜≫, ≪巴金全集≫ 제8권, p.555.
15) "她覺得心酸，她又起了一種不平的感覺。這是突然襲來的，她無法抵抗。她想哭，卻竭力忍住。沒有溫暖的家，善良而懦弱的患病的丈夫，極端自私而又頑固、保守的婆母，爭吵和仇視，寂寞和貧窮，在戰爭中消失了的青春，自己追求幸福的白白的努力，灰色的前途 …… 這一切像潮似地湧上她的心頭。", ≪寒夜≫, ≪巴金全集≫ 제8권, p.539.

업에 헌신하고자 했고 제도에 편입되기를 거부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처럼 근대교육을 받고 개방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쩡수성은 전쟁 발발 후 경제적으로도 심리적 · 신체적으로도 모두 나약해져 가는 왕원쉬안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사라지고 그와 동등해지려는 주체의식이 강해진다.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 방황하는 쩡수성에게 대후방의 혼돈 상황은 그녀의 내적 갈등을 상승시키는 요소다. 돈을 벌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은행에서의 꽃병 역할을 하지만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커피숍을 드나들며 파티에 가서 춤을 추는 집 밖에서의 생활과, 자신을 정부라 멸시하는 시어머니와 병들어 무기력하게 세월을 보내는 남편과 무뚝뚝한 아들이 있는 '따뜻함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집' 안에서의 생활은 혼돈 그 자체이며, 현실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쩡수성에게 전쟁은 혼란을 가중시키는 기제이다.

> 생명은 이처럼 무미건조하게 조금씩 소모되어 가고 있었다. 수성의 인내력은 한계에 도달했다. 그녀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왜 벌을 받아야 하나? 이곳은 생명을 갉아먹는 감옥이 아닐까? 그녀는 날아야 한다, 날아야만 한다, 아직 날개가 있을 때. 그녀는 왜 가면 안 되는 건가? 그녀는 그들과 아무런 공통점도 없으니, 그들과 함께 희생될 수는 없다. 그녀를 구할 수 있는 건 그녀 자신이다.[16]

쩡수성이 바라는 것은 주체적 존재로서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아내로서의 역할, 며느리로서의 역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어한다. 이러한 그녀의 심리는 관습적으로 주어진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의 본질로 받아들일 수 없는 자아의 고민을 표출한 것으로, 이후 실존에 대한 자각으로 이어진다. 그녀의 욕망은 가족 구성원과의 소통의 단절에서 오는 고독감과 함께 개인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 "난 어둠이 무섭고, 쓸쓸함이 두렵고, 적막이 싫어요."[17]
>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그저 유쾌하고 편안하게 지냈으면 해요."[18]

쩡수성은 구속을 싫어하는 독립적 사고의 소유자로 그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그저 유쾌하고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랐지만 그녀의 욕망 실현은 '어둡고 쓸쓸하고 적막한' 현실과 충돌한다. 여기서의 현실은 병든 남편 왕원쉬안이 아닌 그의 어머니 즉 그녀의 시어머니다.

≪추운 밤≫에는 두 명의 여성인물이 등장한다. 쩡수성과 그녀의 시어머니가 바로 그들로, 이들의 왕원쉬안에 대한 태도는 여러 모로 대조적이지만 그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큰 비중을 가진다는 면에서 비슷하다. 시어머니는 "예전에 공부를 한 적이 있어서, 반드시 윈난(雲南) 쿤밍의 재녀였을 것"[19]이라는 작가의 소개에서 알 수 있듯이 전형적인 구시대 여성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신여성 사상에 우호적이지도 않은 인물이다. 특히 일찍 과부가 되어 "아들에 대한 전통적인 과부가 지니는 강렬한 소유욕을 가지"[20]고 있었는데, 그 소유욕은 자신보다 젊고 아름다운 며느리 쩡수성이 아들의 사랑과 관심을 빼앗아갔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쩡수성에 대해 갖은 방법으로 트집을 잡고 적대적인 태도[21]를 취하게 하는 원인이 되

16) "生命就這樣平平淡淡一點一滴地消耗。樹生的忍耐力到了最高限度了。她並沒有犯罪，爲什麼應該受罪？ 這裏不就是使生命憔悴的監牢？她應該飛，她必須飛，趁她還有著翅膀的時候。爲什麼她不應該走呢？她和他們中間再沒有共同點了，她不能陪著他們犧牲。她要救出她自己。"，≪寒夜≫，≪巴金全集≫ 제8권，p.588.
17) "我就怕黑暗，怕冷靜，怕寂寞。"，≪寒夜≫，≪巴金全集≫ 제8권，p.500.
18) "我活著的時候我只想活得痛快一點，過得舒服一點。"，≪寒夜≫，≪巴金全集≫ 제8권，p.502.
19) "她從前念過書，應當是雲南昆明的才女。"，<談≪寒夜≫>(≪作品≫新1권 제5，6기 합본호에 최초 발표)，≪巴金全集≫ 제20권，p.505.
20) "有著傳統的寡婦對兒子的強烈占有欲"，邱方梅、楊紅旗，<≪寒夜≫與巴金的女性倫理觀>，≪齊齊哈爾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2年 2月，p.107.
21) 이와 같은 시어머니의 태도에 대해 馮靜은 시어머니가 심각한 "아들을 사랑하는 콤플렉스(愛子情結)"를 지니고 있기

었다.

또한 무엇보다 왕원쉬안의 어머니가 쩡수성을 결코 아들의 아내가 아닌 동거녀일 뿐이라 치부하며 무시하면서도 쩡수성의 늦은 귀가, 짙은 화장 등 일거수일투족을 눈에 거슬려하며 비난할 때에는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들먹이는 모순적인 행동을 보인 근본적인 이유는, 그녀가 가진 아내라는 역할에 대한 관념이 쩡수성의 그것과 매우 달랐기 때문일 것이다. “시어머니의 관념 속에서, 쩡수성은 반드시 전통적인 현모양처의 역할을 맡아, 자아희생의 정신을 본보기로 삼으며 남편을 대하고 아들을 교육시켜야 했다. 바로 그녀 자신이 했던 것처럼. 그녀는 이것이야말로 아내 된 여인이 반드시 해야 하는 직책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쩡수성에게는 그녀가 며느리일 때 가졌던 시어머니에 대한 공경과 효심 및 순종이 없었기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위엄과 지위를 찾고자 했지만, 그 일이 쩡수성에게서는 불가능한 일임을 깨달았다.”[22] 왕원쉬안의 어머니는 줄곧 아들이 쩡수성과 이별한 후 자신이 마음에 들어 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하기를 바랐고, 쩡수성과의 끝없는 말다툼은 계속되었다. 그 결과 쩡수성은 남편을 생각하면 자신이 왕원쉬안과 함께 할 것을 선택하였으니 현실의 어려움도 인내하고 꿋꿋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다짐하다가도[23], 시어머니와의 갈등 상황에 맞닥뜨리면 화가 나고 참을 수 없게 되어 결국 왕원쉬안에게 “나는 당신을 동정할 뿐 다시 사랑할 수는 없어요.”[24]라 말하며 이별을 고하기에 이른다.

> ‘나는 정말 그를 떠나야 하나? - 그러면 나는 내 행복을 희생하고 그와 함께 해야 하나? - 그는 치료를 받지 않으려 해서 큰일 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를 구할 수 있을까, 그의 어머니가 날 원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그의 어머니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
>
> 그녀는 한참을 생각한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불가능해.’ 이어서 그녀는 생각했다. ‘쓸데없는 짓이야. 난 나를 구해야만 해.’[25]

이렇듯 쩡수성의 진정성은, 남편 왕원쉬안과 14년간 동거를 하고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살아왔으나 그녀를 정부라 폄하하고 무시하다가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비난할 때는 당신이 원하는 며느리로서의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며 다그치는 시어머니라는 현실에 부딪혀 좌절했지만, 그로 인해 자신의 실존적 의미에 대해 고뇌하고 자아를 돌아보는 기회를 갖게 된다.

때문이라 여겼다. 즉 아들이 며느리를 사랑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그녀로 하여금 분개와 각박한 감정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 펑징은 “설령 아들이 어머니에게 매우 효성스럽더라도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 사이에서, 그 잠재의식은 역시 아내를 향한 사랑으로 기울어진다. 이는 줄곧 아들이 전부였던 시어머니에게 있어, 당연히 마음 속 감정의 불균형을 가져올 것이다.(盡管兒子也十分孝順母親, 但在母愛與妻愛之間, 其潛意識還是向妻愛傾斜。這對一向占有兒子全部感情的汪母來說, 自然會引起內心情感的失衡。)”라 말하면서, ≪寒夜≫속 시어머니와 쩡수성의 다툼을 시어머니의 질투로 인한 것이라 분석하였다. 馮靜, <對≪寒夜≫中汪母心理的分析>, ≪安康學院學報≫ 第21卷 第1期, 2009, p.61.

22) “在汪母的觀念裏, 樹生應該扮演傳統的賢妻良母的角色, 本著自我犧牲的精神相夫孝子, 正如她自己所做的, 她認爲這才是一個爲人妻的女人應盡的職責。”, “汪母想要恢複自己作爲婆婆的威嚴和地位, 然而她明白在曾樹生這裏是不可能的。”, 邱方梅、楊紅旗, <≪寒夜≫與巴金的女性倫理觀>, ≪齊齊哈爾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2年2月, p.107.

23) 작품을 보면 쩡수성이 왕원쉬안에게 대하는 행동과 말투가 결코 차갑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소설 초반 쩡수성이 왕원쉬안과 싸우고 홧김에 집을 나가고 이에 힘들어하며 술을 마신 왕원쉬안이 거리에서 쩡수성과 마주치는 장면이 나온다. 여기서 쩡수성이 보인 반응은 “부드러운 외침(柔和的呼喚)”, “놀라서 묻는다(驚問道)”, “관심을 가지고 말한다(關心地說)”, “급하게 말한다(著急地說)”, “큰 소리로 신신당부한다(大聲叮囑道)”가 있고, 이어서 “바로 또 그를 따라 걸어가(馬上又跟著他走下去)”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이 같은(孩子似的)” 왕원쉬안을 “부축하여 집에 돌아갔다(扶著走回家去)”고 되어 있다. ≪寒夜≫ 8권, pp.462-463. 즉 쩡수성은 결과적으로 가출을 하여 蘭州로 떠나지만, 그녀가 가출을 결정하기까지 가장 망설이고 고민했던 이유는 바로 남편 왕원쉬안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을 것이다.

24) “我只能憐憫你, 我不能再愛你。”, ≪寒夜≫, ≪巴金全集≫ 제8권, p.645.

25) “‘我真的必須離開他嗎? - 那麼我應該犧牲自己的幸福來陪伴他嗎? - 他不肯治病, 他完決了。我能夠救他, 能夠使他母親不恨我, 能夠跟他母親和睦地過日子嗎?’
她想了一會兒, 她低聲說出來: ‘不能。’接著她想: 沒有用, 我必須救出自己。”, ≪寒夜≫, ≪巴金全集≫ 제8권, p.572.

3. 여성의 자유 추구가 초래한 현실에의 곤혹

쩡수성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사회 변화와 함께 개인적 의식의 변화를 의미하며, 변화를 선도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경제력이다. 그녀는 왕원쉬안보다 훨씬 높은 월급을 받으며 가정 살림의 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었고, 비록 자신이 원하던 직업과는 매우 거리가 먼 일을 했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의 처지에 비해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이렇듯 그녀는 인간 존재의 실존적 의미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가장 현실적인 요소인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다.

"사직, 사직하면 되죠! 당신이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부양할 수 있어요!"[26]

쩡수성이 몸이 점점 쇠약해져가는 왕원쉬안에게 사직을 권하면서 자신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니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고난에 대항하고 독립적이며 스스로 강해지는' 성격에 의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녀의 경제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쩡수성이 가출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집을 나온 노라의 운명에 대한 예측을 통해 여성해방의 전제조건이 참정권이 아니라 경제권에 있음을 강조한 루쉰의 산문 <노라는 집을 나간 뒤 어떻게 되었는가 娜拉走後怎樣>를 떠올리게 한다. 루쉰은 그 글에서 집을 나온 노라가 택할 수 있는 것은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면 바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 두 가지 길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27] 바진이 일찍이 "모든 사람은 다 살고 싶어 한다. 한 명의 사람에게는 단지 한 개의 생명만 있어서, 하나의 삶만 살 수밖에 없으니, 누구든 힘을 다해 그 삶을 잘 살아내기를 바란다. 우리는 살면서, 즐거움을 원하고, 햇빛을 원한다.", "누구도 '생'과 '즐거움'을 우리에게서 박탈해갈 권리는 없다."[28]라고 말한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추운 밤≫은 루쉰의 산문이 표명한 여성해방이라는 주제의식을 개인해방이라는 큰 틀 안에서 공유한다. 그리고 그 개인해방의 근저에는 여성의 경제력이 자리하고 있다.

쩡수성이 누렸던 자유는 향락만이 아닌, 인격 완성을 위해 진행된 긍정적인 자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녀의 행위는 자신의 실존을 확인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녀의 내면에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자세와 현실을 초월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쩡수성의 가출은 명확한 개인해방의 의지와 자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녀는 그 의지와 자의식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갖고 있었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자유는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도 수반한다는 사실일 것이다.

실제로 란저우로 떠난 지 2개월이 지난 후 쩡수성이 충칭의 집으로 돌아와 왕원쉬안이 죽었고 시어머니와 아들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서 느끼는 것은 "마치 정면으로 찬 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온몸에 한기를 느끼고, 안색이 창백해"[29]지는 놀라움과 "콧날이 시큰해지고 회한의 감정이 교차하"[30]는 후회와 증오의 감정이다. 이는 그녀가 가족해체와 맞바꾼 개인의 자유가 초래한 현실에의 곤혹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평탄하지 못할 것임을 암시한다.[31] 특히 그녀는 아래층에 살다가 지금은 자신이 살던 집에 들어와

---

26) "辭職, 就辭職! 你不做事我也可以養活你!", ≪寒夜≫, ≪巴金全集≫ 제8권, p.554.

27) "但從事理上推想起來, 娜拉或者也實在只有兩條路: 不是墮落, 就是回來。", 魯迅, <娜拉走後怎樣>, ≪魯迅全集 · 1≫(上海: 人民文學出版社, 1973), p.145. 번역은 루쉰 지음, 루쉰전집번역위원회 옮김, ≪루쉰전집 1≫(서울: (주)그린비출판사, 2014), p.244. 참고.

28) "所有的人都是想活的。一個人只有一個生命, 只能活一生, 所以誰都想盡力使它過得很好。我們活著的時候, 我們需要快樂, 需要日光。", "誰也沒有權利把'生'和'樂'給我們剝奪去的。", 芾甘, ≪從資本主義到安那其主義≫(上海: 上海自由書店, 1930), p.176. 여기서는 盧曉, <兩種不同生命力狀態的沖突 - 論≪寒夜≫中的愛情悲劇>, ≪大家≫ 2010年 第8期, p.17.에서 재인용.

29) "樹生好象讓人迎頭澆了一桶冷水似的, 她全身發冷, 臉色慘白。", ≪寒夜≫, ≪巴金全集≫ 제8권, pp.695-696.

30) "她的鼻頭酸痛, 悔恨的情感扭絞著她的心。", ≪寒夜≫, ≪巴金全集≫ 제8권, p.697.

사는 팡 부인(方太太)의 단란한 가정을 보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망쳐버리는 데에 가세했다.”[32]라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 회의하고 혼란스러워한다.

> 그녀는 갑자기 꿈을 꾸는 듯했다. 자신이 살던 방, 탁자, 책상, 책장, 찬장, 침대 등 자신이 쓰던 가구 …… 모든 것이 그녀에게 익숙한 것들이었다, 비록 부서진 것은 수리하고, 오래된 것은 깨끗이 닦고, 벽을 하얗게 칠했다고는 하지만. 그녀는 몇 년 동안 자신이 앉아 있던 의자에, 지금은 낯선 손님으로 앉아 있게 되었다. 심지어 익숙한 모든 것들에게서 과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똑같은 초가 타고 있는데, 지금은 그 때보다 더 밝았다. 1년이 채 가지도 않았는데, 모든 것이 변해 버렸다. 그는 죽었고 어머니와 아이는 사라졌다.[33]

쩡수성은 ‘자신이 살던 방’에 ‘낯선 손님으로 앉아서’ 팡 부인이 아기에게 불러 주는 자장가 소리를 들으며 사라진 자신의 아이를 그리워하고 ‘익숙한 모든 것들’을 보며 왕원쉬안과의 추억을 떠올린다. 이처럼 그녀는 가출에 대한 후회와 동요, 과거에 대한 미련 및 바꿀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허망한 감정을 드러낸다. 물론 쩡수성이 겪게 된 시련은 한 개인이 독립된 자아로서 주체적 자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설정되는 것일 수 있다. 그녀는 화목한 가정, 남편과의 소통, 따뜻한 말 한 마디를 그토록 원했지만 얻을 수 없었고, 그로 인한 결핍과 소외감은 그녀가 가출을 결심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돌아온 날에도 ‘똑같은 초가 그 때보다 더 밝’게 느껴지게 했다. “쩡수성은 여전히 자신의 낭만주의적인 이상과 사랑을 견지한”[34] 강한 주체적 자립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상과는 확연히 다른 현실 속에서 그녀는 가족 해체와 결혼 실패를 겪은 당시의 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이다. 소설의 마지막 두 문장 “밤은 확실히 너무 추웠다. 그녀는 따뜻함이 필요했다.”[35]가 사무치게 차갑고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것은, 쩡수성의 가출 자체는 권태적이고 종속적인 삶을 부정하는 자아해방의식을 보여주지만 그녀는 추운 밤과 같은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필요로 하는 외로운 한 개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4. 결론

바진은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열정적으로 감정을 직접 표현하고 발산하던 것에서 이성적으로 소설 속 인물을 대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여성 및 여성해방에 대한 태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바로 전쟁 이전의 소설에서는 여성의 삶을 학대하는 봉건가족제도에 대해 맹렬하게 비난했고 여성에 대해 절절한 동정과 관심을 표현했지만 전쟁 이후의 소설에서는 그 태도가 객관적이고 냉정해졌으며 신여성에 대한 감정이 더욱 복잡해진 것이다. “이전의 격앙된 정서는 가라앉았다. 그는 일찍이 사람들이 추앙했던 신여성의 모습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으며, 개성해방과 인격독립을 추구하는 현

31) 王芳麗는 “비록 쩡수성에게 선명한 신시대 여성의 사상과 행동이 나타났을 지라도, 여성 특히 아내에 대한 전통적 윤리도덕의 제약은 여전히 그녀에게 일정한 영향을 만들어낸다.(盡管在她身上體現出了鮮明的新時代女性的思想和行動, 但傳統的倫理道德對女性尤其是對妻子的約束仍對她產生著一定的影響。這也造成了她的矛盾、猶豫和痛苦。)”고 말하며 쩡수성의 현실에의 곤혹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王芳麗, <曾樹生的妻性和母性>, ≪山西煤炭管理幹部學院學報≫ 2007年 1月, p.91.

32) “她爲了自己的幸福, 卻幫忙毁了別一個人的。”, ≪寒夜≫, ≪巴金全集≫ 제8권, p.699.

33) “她忽然起了一種似在夢中的感覺。這是她自己住過的屋子, 自己用過的家具: 方桌, 書桌, 小書架, 碗櫥, 床 …… 一切都是她熟悉的, 雖然破的修理好了, 舊的弄幹淨了, 牆壁刷得白白的。可是她坐在她坐了幾年的凳子上, 現在卻變成了一個陌生人, 一個生客。甚至在那一切熟悉的東西上面她也找不到過去的痕跡了。同樣燃著一支蠟燭, 可是現在卻比從前亮了許多。不到一年的功夫, 一切都改變了。他死了, 母親和孩子走了。”, ≪寒夜≫, ≪巴金全集≫ 제8권, p.698.

34) “曾樹生還在堅持自己浪漫主義的理想愛情”, 任現芝, <≪寒夜≫女性的婚姻愛情>, ≪青年作家≫ 2011年 4期, p.89.

35) “夜的確太冷了。她需要溫暖。”, ≪寒夜≫, ≪巴金全集≫ 제8권, p.702.

대여성형상을 다시 생각하고 자리매김했다."[36] 이는 바진이 여성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전에 비해 성숙해진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추운 밤≫에서 남성인물인 왕원쉬안은 마르고 나약하다 못해 병들어 소멸해 버리는 존재로 묘사되는 반면, 여성인물은 시어머니처럼 다소 부정적인 방식이기는 하나 현실을 지탱해 나가거나 쩡수성처럼 현실적 고난을 타개하고 초월하려는 존재로 묘사된다. 즉 어지러웠던 중일전쟁과 내전시기 작가에게 있어 역사를 담당하는 주체에 성별 구분은 없었던 것이다. 바진이 "세 사람은 모두 정면인물도 아니고, 반면 인물도 아니다; 모두가 다 장점도 있고 결점도 있다; 나는 전부 동정한다."[37]라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작품 속 인물들은 바로 이와 같은 작가의 복잡한 애정과 증오가 서로 맞물려 형상화된 것이다.

≪추운 밤≫에서의 쩡수성은 주체적인 인물로 해석이 가능하며, 그녀의 성격은 가출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바진은 여성의 행복과 운명에 맞닥뜨려진 인물의 처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졌고, 단순하고 간단하게 혁명여성을 표현하던 것에서 성격이 복잡하고 때로는 모순적이기도 한 현실 속 여성을 묘사하기 시작했으니, ≪추운 밤≫의 쩡수성이 바로 그가 심사숙고하며 형상화해낸 인물일 것이다.

36) "早先的激昂情緒沉澱下來, 他開始質疑早起人們推崇的新女性形象, 重新思考與定位尋求個性解放和人格獨立的現代女性形象。", 邱方梅、楊紅旗, <≪寒夜≫與巴金的女性倫理觀>, ≪齊齊哈爾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2年 2月, p.106.

37) "三個人都不是正面人物, 也都不是反面人物; 每個人有是也有非; 我全同情。". 巴金, <談≪寒夜≫>, ≪巴金全集≫ 제20권, p.503.

일본 점령시기 상하이 문학의 일상성 연구

남희정*

<目 次>

1. 서 론
2. 전쟁과 문화 그리고 일상
3. 억압에 대한 분투로서의 여성의 일상—장아이링(張愛玲), 쑤칭(蘇青)
4. 소외된 도시의 일상—첸충수(錢鍾書), 스튀(師陀)
5. 일상의 소비와 망각—쑨랴오훙(孫了紅), 친서우어우(秦瘦鷗)
6. 결론

1. 서론

1990년대 이후 쏟아진 상하이 관련 연구는 상하이라는 도시공간이 어떤 단일한 관념이나 체계, 사유방식으로 포착될 수 없는 보다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성질을 지닌 공간임에 천착하여 그 연구 영역을 넓혀 왔다. 이는 특히 문화적 황금기를 구가하며 화려한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1930년대 상하이의 근대/근대성에 상당부분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상하이 관련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중일전쟁 발발이후 피점령지(淪陷區) 상하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다.[1] 여기에는 몇 가지 연구의 난점이 뒤따르는 바, 우선적으로 피점령지 상하이의 (半)식민성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는 근대성의 논의와도 관련되는데, 식민지 경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따라 근대화의 촉진을 강조하는 입장과 저항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대립되어 왔다. 그러나 근대성이 보편적 지향점인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으며, 근대성과 식민성이라는 양자를 단순한 길항관계 내지 일방의 우위관계가 아닌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관계 속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상하이가 일본에 점령된 이후 기성작가군이 대거 소실되었다는 점 역시 피점령지 상하이 연구를 어렵게 만들었다. 일반적인 문학사적 서술에서 1940년대 상하이는 일본의 점령으로 인하여 문단이 침체되었다는 식의 간단한 서술로 대체되고 있는 점은 이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전쟁시기 항전이라는 역사적 과제가 부각되면서 개인의 도덕적 선택의 문제는 보다 엄격하게 다루어졌다. 상하이의 많은 작가가 한간(漢奸)으로 분류되었던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피점령지 상하이는 저항과 협력의 이분법으로 간단히 판단할 수 없는 '회색지대'를 그리고 있으며, 여기에는 단순한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환원할 수 없는 다양한 양태가 존재한다. 본 논문은 피점령지 상하이를 이처럼 다양한 존재방식이 상호 교차하고 충돌하는 공간으로서 보고, 전쟁이라는 특수성 속에서 삶의 조건으로서의 일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포착되

* 고려대학교

1) 상하이는 1937년 중일전쟁의 연장선상에서 일본이 일으킨 8·13 사변을 시작으로 하여 11월 12일 조계를 제외한 부분적 지역이 일본에 점령되어 이른바 고도(孤島) 시기로 접어들었다. 이후 1941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으로 전화가 확대,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종전을 맞기까지 상하이는 일본에 완전히 점령되기에 이른다. 이 8년간의 직·간접적인 일본의 통치체제는 상하이 경제와 문화를 전체적으로 쇠락기로 이끌었지만, 그 내부적 부침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작가들의 다양한 생존방식과 창작이 어떠한 형태로 드러나는가를 다루고자 하였다.

2. 전쟁과 문화 그리고 일상

본 논의에 앞서 먼저 본고에서 키워드로 삼고 있는 일상성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상이 학문적 영역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후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후설(Edmund Husserl)은 20세기 유럽 문명의 위기가 모든 존재를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수량화하는 자연과학적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생활세계'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는 유럽 문명이 사회문화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이 망각한 경험과 사유의 토대로서의 생활세계를 회복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후설이 사용한 생활세계라는 개념은 특정한 형태로 규정된 것은 아니었으나, 이후 전개된 일상생활에 관한 논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크게 마르크스주의자들을 필두로 한 비판이론이 한 축을 이루고, 현상학이나 상호작용론, 민속방법론을 포함하는 이해사회학이 또 다른 한 축을 이루며 전개되었다. 그 가운데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잇는 르페브르(Henri Lefebvre)는 일상에 관한 논의를 크게 진전시켰다. 그는 마르크스주의의 경제적 환원주의를 비판하면서 경제적 요건만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총체성으로서의 일상에 주목한 바, 전체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일상의 본질, 즉 지배적 전략이 작동하는 장으로서의 일상을 포착함으로서 근대성의 이면을 비판하고자 하였다.[2)]

일상의 개념은 현상학이나, 상호작용론을 비롯하여 마르크스주의적 전통 등으로 다양한 이론적 분화를 거쳤으나,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회를 변화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변화 과정에서 인간적인 개입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특정 측면으로 환원될 수 없는 총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강조하고 있다.[3)] 이는 전체 사회를 읽어내는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서의 일상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변적으로 폄하되거나 간과되어 버리던 것의 역사적 중요성을 인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에 관한 논의가 사회사를 넘어 정치·경제·문화사로 확대되어 가는 것은 현대사회에 대한 반성적 기제로서의 일상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일상의 개념이 가지는 문제의식을 공유하여 상하이라는 도시가 지닌 현대적 특징으로서의 일상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물론 이러한 상하이의 일상성은 점령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상업도시로의 골격을 갖추어 나갈 때부터 내재해 있던—혹은 축적되어 온—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전쟁이라는 사건은 익숙함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던 삶의 조건들을 변화시킴으로써 그 이면에 존재해오던 다양한 삶의 구체적 형태들을 가시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억압에 대한 분투로서의 여성의 일상—장아이링(張愛玲), 쑤칭(蘇青)

여성의 일상은 흔히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 그리고 가사노동, 출산, 양육과 같은 성역할로 제한되어 왔다. 개인에 앞서 어머니로서, 주체에 앞서 타자로서 존재해온 여성의 일상은 가부장적 권력이 작동하고 있는 장으로, 여성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다양한 삶의 형태가 삭제된 채 지배 권력의 기획과 의도 속에서 축소되거나 이상화되어야 했다. 여성의 삶 자체를 구체화하려는 여성작가들의 끊임없는 시도는 바로 그 문제적 공간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그에 내재한 권력이 여성의 삶을 얼마나 왜곡시키고 은폐시키고 있는가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가부장제가 공고한 중국의 보수적인 사회에서 여성은 더욱이 공적

2) 앙리 르페브르 지음, 박정자 옮김, ≪현대세계의 일상성≫, 기파랑, 2016, 94-95쪽.
3) 강수택,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민음사, 1998, 251쪽. 강수택은 이 세 이론적 전통의 차이점을 인식론과 행위론, 사회론적 측면에서 정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224-249쪽을 참고.

인 영역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한 측면에서 1920년대에 일군의 여성작가들이 대거 문단에 등장하여 여성해방을 외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한편 이 시기 여성해방운동의 물결은 5·4신문화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인간해방의 일환으로 여겨졌으며, 이에 따라 여성은 개인이 아닌 민족으로 다시금 수렴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 것이기도 하였다.

주춤하던 여성작가의 활동은 1940년대 상하이에서 다시금 활로를 찾게 된다. 장아이링을 비롯해 쑤칭, 관루(關露), 판류다이(潘柳黛), 스지메이(施濟美) 등의 여성작가들이 출현한 것이다. 상하이가 일본에 점령되면서 지식인들의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정치적인 주제가 제한된 특수한 환경 속에서 여성은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비정치적인 존재로, 일상적인 소주제로 공정영역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이들은 단순히 작가로서가 아닌 일종의 문화인으로서 창작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활동에 전면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장아이링이나 쑤칭의 경우 모두 자발적으로 매체활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세간의 날선 비판이나 가십거리에도 오히려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는 정치·문화적 변동에 놓인 여성들의 행위방식과 일상의식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점령이 기존의 상하이 주류 권력을 식민권력으로 대체함으로써 상하이라는 공간이 지니고 있던 남성성이 약화된 것은 확실히 여성에게 기회였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여성 역시 피점령지 인민이라는 점은 마찬가지였고, 가정 내 성별적 지위 역시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상하이 여성작가들은 더욱 복잡한 문화심리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전 세대 여성작가들이 집을 박차고 나가는 혁명적 행위를 통해 그들의 개조를 증명했다면, 이 시기 여성작가들은 보다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태도가 두드러진다. 이들에게서는 가정 내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성별적 지위뿐만 아니라, 현실의 물질적 조건에 기반한 경제적 문제, 상하이의 기형적 도시문화와 뒤섞인 문화심리가 착종된 채로 여성의 일상적 체험을 이루고 있었다. 때문에 이들은 낭만적 차원이 아닌 현실적 차원에서 연애와 결혼을 다루고, 모성의 신화를 깨는가 하면, 출산과 육아의 문제에 있어서도 신성함 대신 생리적 반응과 경제적 문제로 되돌린다. 황량하고 세속적인 이 세계에서 여성이 살면서 겪는 관계의 얽힘과 사소하고 범속한 일상은 이상과 혁명적 행위보다도 더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여성의 삶과 맞닿아 있는 것이다.

4. 소외된 도시의 일상—첸충수(錢鍾書), 스퉈(師陀)

도시라는 공간은 근대의 모순을 응축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현대문명을 비판하기 위한 상징적 장치로 많은 문학작품에서 다루어져왔다. 산업혁명 이후 급속히 확립되기 시작한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는 한편으로 생산양식의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며 기술진보와 문명화를 이루게 해 주었지만, 인간이 누리는 물질적 풍요의 이면에는 결국 탈인간주의라는 근본적인 모순이 자리하게 되었다. 이성과 과학, 합리성으로 표상되는 근대는 오히려 인간을 도구화킴으로써 소외를 야기하였고, 인간의 본질은 자본주의의 지배논리가 공고하게 자리한 물화된 일상 속에 매몰되기에 이르렀다.

일찍이 개항도시로서 유연한 개방성과 포용력을 지니며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상하이는 1930년대 이래 그 외연을 급속히 확장시켰다. 외부세력이 개입된 상태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과도했다고 할 수 있는 중국은 외래적 요소와 본토적 요소가 혼재한 가운데 더욱 불안정한 사회구조를 띨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개입된 식민성의 문제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중국의 근대가 누구에 의해 주도되었는가에 대한 반복적인 논박이 아니라, 그것이 체현하고 있는 복잡한 권력관계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다양한 의식구조와 행위방식의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근대와 함께 수반되는 새로운 공간의 재편 속에서 그에 내재하는 갈등과 모순의 다양한 층위를 살펴보는 것이다.

본 장에서 살펴본 첸중수와 스톄의 도시소설은 이러한 당시 상하이의 도시 생활을 압축적으로 옮겨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점령 당시 상하이에서 생활하면서 느낀 지식인으로서 스스로의 복잡한 심리와 도시체험을 특유의 풍자적이고 유머러스한 필치를 통해 완성도 높게 표현해 내고 있다. 이들의 도시인식과 근대에 대한 반성적 사유는 특히 작중 인물들을 통해 구현되는데, ≪포위된 성≫에서 끝없이 타자로서 주변을 배회하는 주인공 팡훙젠(方鴻漸)이나 ≪결혼≫에서 물질적 욕망에 끝내 기만당하고 마는 후취어(胡去惡)는 모두 상하이라는 도시 공간에서 식민지 현실에 의해, 물질적 욕망에 의해,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 의해, 또 자기 자신에 의해 소외되어 가는 도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첸중수의 경우, 이성과 진보의 신화가 깨어지고, 식민지적 문화환경이 착종된 1940년대 상하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근대의 지배논리인 이성의 세계, 절대적 가치에 물음을 던진다. 때문에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공간적 경계, 작중 인물들로 표상되는 주체와 타자의 경계, 과거(전통)과 현재(근대)라고 하는 시간적 경계 사이에서 안/밖, 타자/주체, 과거/현재는 언제든 전도될 수 있는 것으로 포착된다. 이는 작품에서 그려지는 지식인들의 형상 속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서구화된 지식인이자, 피점령지 상하이의 타자라는 이들의 이중적인 신분은 근대 지식인의 모순과 분열 상태를 드러내는 동시에, 이들이 맹신하는 서구적 매너와 교양, 자본 역시 우스꽝스러운 모방을 통해 그 권위와 우월의식의 틈새를 노출시킨다. 결국 그의 텍스트 속에서 과거/현재, 전통/근대, 중/서의 이원대립은 경계가 무너지고 상하이라는 공간은 다양한 가치들이 공존하는 동시에 언제든 전도될 수 있는 갈등의 터전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스톄는 창작 초기 대부분 향촌과 지방 소도시 민중의 마비된 일상을 소재로 삼았다. 이후 1936년 상하이로 이주하면서 도시 제재로 창작영역을 확장하게 되는데, 이는 향촌에 대한 체험과는 또 다른 새로운 도시적 삶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보여준다. 태평양전쟁을 전후한 도시 상하이를 배경으로 한 ≪결혼≫은 '돈'이라는 기호로 표상되는 도시의 문화구조와 인간의 욕망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인간마저도 양적 가치로 환원되는 근대 사회의 속성을 들추어낸다. 물질적 삶의 전형을 체현하는 작중 인물들에게 있어 전시 상하이라는 시공간은 단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에 지나지 않고, 오히려 전쟁이라는 불안정한 상태가 이들의 욕망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동한다. 단지 이익에 얽혀있는 피상적인 인간관계와 물질적 욕망에의 집착이 야기한 인성의 상실은 문명이라는 기호에 덧씌워진 물화된 일상을 정면으로 파고들면서 반식민지 도시의 생활양태와 현대인의 심리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5. 일상의 소비와 망각—쑨랴오훙(孫了紅), 친서우어우(秦瘦鷗)

상하이가 일본에 점령되고 각종 문화방면의 통제 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문단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제한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호황을 맞이한 것이 바로 통속소설이었다. 통속소설은 민감한 정치적 소재를 다루지 않았기에 일본의 제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고, 시장성도 보장받을 수 있었기에 시대적 요구에 맞아떨어지는 문학형식이었던 것이다. 통속문학이 활기를 띠면서 일각에서는 전체 문학작품의 질적 저하나 독창성 결여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1942년 ≪만상≫의 '통속문학운동'에 관한 토론과 1943년 ≪잡지≫의 '신문예필법'에 관한 토론 등의 움직임은 대중성과 문학형식을 둘러싼 문학계의 자구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작품의 질적 저하와 지나친 상업성은 분명 통속소설 자체가 지닌 역기능 중 하나로 작용하였지만, 이와는 별도로 전시 일반 민중이 지닌 독자심리의 측면에서 통속성은 전시 문화 환경을 구성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전쟁이라는 탈정상적인 문화 환경 속에서 개인으로서의 인간은 오히려 인간이 지니는 본능적인 측면에 대한 가상적 체험을 통해 정신적 위안을 찾을 수 있었고, 이러한 측면에서 통속성에 내재된 오락적 요소는 일상의 불안을 해소해 주기도 하였다. 즉, 통속성은 그것이 기반 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과 주어진 현실에 대한 또 하나

의 체험 영역으로, 일상에 존재하는 “안정에 대한 희구와 권태로부터의 도피”라는 대조적인 심리적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4] 이에 본 장에서는 당시 상하이에서 인기를 끌었던 쑨랴오훙의 탐정소설과 친서우어우의 언정소설을 중심으로 피점령지 상하이에서 통속소설이 어떠한 방식으로 독자에게 소비되었으며, 그 근간을 이루는 독자의 심리적 욕구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쑨랴오훙은 1930,40년대 상하이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탐정소설 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낯선 이름이다. 탐정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중국에서 일시적인 번역과 소개에 그치면서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쑨랴오훙은 1920년대 후반 프랑스 작가 모리스 르블랑의 뤼팽을 모델로 삼은 ‘루핑(魯平)’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여 40년대에 창작이 무르익었다. 쑨랴오훙의 탐정소설이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무엇보다 루핑이라는 캐릭터의 비범함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와 관련된 문학을 읽는 독자들의 동기와 심리에 관한 문제를 정신분석학적으로 다루고 있는 레오폴드 벨락은 탐정을 “원초적이고 소망 성취적인 슈퍼맨의 특징들을 지닌 자아 이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5] 이는 현실에서 충족될 수 없는 욕구에 대한 상대적 투영으로, 특히 점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독자들은 비범한 인물을 통해 일상에 존재하는 모순들을 상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설은 서구 탐정소설의 형식을 따르면서도 중국의 문화심리에 부합하는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 즉, 소설은 주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투기꾼이나 벼락부자에 대한 루핑의 응징이라는 도식을 따르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독자는 부재하는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을 통해 일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친서우어우의 소설 ≪추하이탕(秋海棠)≫은 원작의 성공에 힘입어 당시 연극과 영화의 개작 및 흥행으로 이어질 만큼 높은 인기를 구가하였다. 소설은 일견 남녀의 삼각관계라는 도식을 따르는 언정소설로 보이지만, 전형화된 인물 형상들은 오히려 선과 악(피억압자와 억압자)의 세계를 명확히 보여줌으로써 독자들의 강한 몰입과 정서적 환기를 이끌어낸다. 또 다른 한편 소설이 단순한 사랑이야기에 국한되지 않고 더욱 다양한 의미망을 통해 읽힐 수 있는 것은 소설 곳곳에 자리한 상징적 장치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은 주인공 추하이탕의 얼굴에 난 상처를 통해 전쟁으로 분할된 중국을 상징하는가하면, 후반부에서 추하이탕이 겪는 일련의 고난사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생활의 압박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가는 한 개인의 강인함을 부각시킨다. 이러한 서사전개는 전망이 부재한 전시의 일상 속에서 현실을 은유하는 동시에 시대에 대한 작가의 주제의식을 우회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작가의식과 수용주체 양자를 효과적으로 통합시켜나갔다고 할 수 있다.

6. 결론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사건은 중국 현대문학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1940년대 전체를 ‘항전’이라는 키워드로 포괄시켜 왔다. 최근 들어 더욱 다양한 관점으로 문학사가 재편되고,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작가와 작품들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높아져감에 따라서 피점령지 문학에 대한 연구도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상하이의 경우 역시 장아이링이나 첸중수와 같은 작가들에 대한 단편적인 연구에 그치지 않고 점차 다각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일본 점령시기 상하이의 경우, 조선이나 타이완의 경우와 달리 시간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태도가 빈약하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상하이는 억압적인 문화정책 속에서도 일정부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였고, 식민권력에 포섭되지 않는 회색지대 역시 더욱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지배/피지배, 저항/협력, 억압/해

4) J. G. 카웰티, <도식성과 현실도피와 문화>, 박성봉 편역, 앞의 책, 89쪽.
5) 줄리언 시먼스, 김명남 옮김, ≪블러디 머더≫, 을유문화사, 2012, 22쪽.

방이라는 이분법적인 도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욱 다양한 삶의 형태들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이 무수한 균열과 틈새 속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과 그에 반하는 힘들이 서로 교차하고 갈등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갈등과 긴장의 장으로서의 피점령지 상하이의 일상을 크게 여성작가, 도시서사, 통속소설의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부장적 지배권력, 자본주의적 근대의 원리, 주류담론과 식민권력 등은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익숙한 일상 속에서 서로 뒤얽힌 채 다양한 양태로 존재하며, 이를 포착해내는 작가들의 지향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반성과 회복에의 요구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전시 상하이를 단일한 힘의 일방적인 통합 내지 포섭이 아닌 관계들의 복합체 속에서 파악한 것에 다름 아니다. 물론 이와 같은 분석 역시 피점령지 상하이 문학의 전체 면모를 드러내주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많은 작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기존 작가와 작품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의 존재방식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기에, 여기에는 적극적으로 지배 권력에 동조하거나, 이와 반대로 완곡한 방식으로 저항을 모색한 작가들 및 개개인이 직면한 현실적 조건과 내적 모순 등과 같은 문제들이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路遙 소설에 나타난 1980年代 中國 回鄕知靑 서사 연구

이승희*

<目 次>

제1장 서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동기
1.2. 기존 연구동향
1.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제2장 루야오의 생애와 창작방법
2.1. 루야오의 생애
2.2. 리얼리즘이라는 창작방법
제3장 루야오의 소설 속 청년 형상(1): 지식청년
3.1. 하향지청과 회향지청
3.2. 회향지청의 탄생
3.3. 회향지청의 진로 및 출로
제4장 루야오의 소설 속 청년 형상(2): 노동자
4.1. 노동자가 된 지식청년
4.2. 직업의식과 노동정신
제5장 1980년대 중국 청년들의 고민
5.1. '교차지대'와 차별의 '교차성'
5.1.1. 1980년대 중국 농촌과 '교차지대'
5.1.2. 차별의 '교차성' - 교차지대×회향지청
5.2. 당시 청년들의 시대적 고민
5.2.1. 루야오 소설의 동시대성
5.2.2. 1980년대 청년들의 '인생의 의의' 찾기
제6장 결론: '루야오의 유산'

"평범한 세계, 평범하지 않은 인생(平凡的世界, 不平凡的人生)"

루야오(路遙, 1949.12.3.-1992.11.17.)는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아직 충분히 전문적으로 연구되지 않았지만, 중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인기를 누렸으며 여전히 연구대상으로써 '다시 읽히는' 중국 당대(當代)의 리얼리즘 작가이다. 루야오는 1982년 대표작 『인생(人生)』으로 독자들과 비평가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이후,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그의 작품은 끊임없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평범한' 청년들의 '인생 교과서(人生教科書)'라고 불리기도 했다.

본 논문은 중국 당대 작가 루야오의 생애와 시대 배경 및 그가 리얼리즘을 통해 창작한 소설을 연결하여, 그의 작품 속 청년들, 특히 '회향지청'의 형상을 되살려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루야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국에서 연구자들이 그동안 발견해내지 못했던 루야오 소설 속의 사회구조적 모순에 대해 주목하는 데 의의가 있다. 즉, 당시 청년들이 진학 및 진로 결정 시 부딪쳤던 걸림돌이 결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별 때문에 발생한 것임을 작가가 인식하여 문학이라는 서사행위를 통해 드러내고 있음을 밝히려 시도하였다.

*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본 연구는 한국에서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았던 루야오라는 작가의 작품이 중국의 독자들에게 왜 끊임없이 사랑받고 연구자들에게 다시 읽히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였다. 중국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지나면서 문화대혁명 이후 붕괴된 공동체 사이에서 청년들은 자아에 대한 의미를 찾기 시작했지만, 사회변혁이 극심했던 개혁개방 시기 혼란이 가중되면서 이 문제가 더욱더 심각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출판된 루야오의 『인생』[1]이나 『평범한 세계』와 같은 작품들에 나타난 평범한 시골 출신의 청년들이 자아인식과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 분투하는 모습을 보며, 당시 청년들은 위로를 받고 공감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1980년대 당시 문학사는 상흔문학, 반사문학 등이 주류 서술로 정리되듯이, 문화대혁명에 대한 폭로와 비판이 주를 이루었던 시기였다.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도시 출신의 지식엘리트 계층의 목소리였다. 그 사이에서 루야오와 같은 목소리는 그 합당한 자리를 차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엘리트 학자들의 엘리트 작가에 대한 문학사 서술에서 변방에서 작품 활동을 했던 루야오는 보이지 않았거나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정통문학사에서 루야오에 대한 서술은 찾아보기 어렵다.[2] 하지만 그렇게 잊힐 수도 있었던 루야오는, 대중 독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읽혔고 끊임없이 소환되었다.

루야오의 본명은 왕웨이궈(王衛國)로, 산시성(陝西省) 위린시(榆林市) 칭젠현(淸澗縣)의 가난한 농민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옌안시(延安市) 옌촨현(延川縣)의 백부 왕위더(王玉德)에게 양자로 보내졌다. 옌촨현립(延川縣立) 초급중학(初級中學)까지 수학하고 산시 석유화공학교(陝西石油化工學校)에서 합격통지를 받았으나, 문화대혁명의 시작으로 인해 입학하지 못했다. 문화대혁명 시기 홍위병(紅衛兵) 및 조반파(造反派)로 활동하다 1969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일에 종사하였다. 이후 소학교에서 교사로 1년간 일하기도 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1973년 옌안대학(延安大學) 중문과에 입학한 뒤 본격적으로 문학창작을 시작하였다. 대학 졸업 후, 잡지 『산시문예(陝西文藝)』(현재 『옌허(延河)』)의 편집을 맡았다. 1980년 『놀랍고도 두려운 한 장면: 1967년의 기록(驚心動魄的一幕: 一九六七年紀事)』을 발표하여 제1회 전국 우수 중편소설상(全國優秀中篇小說獎)을 받았다. 1982년 중편소설 『인생』을 발표하였고 이후 영화로 개작되기도 하면서 전국에 명성을 크게 떨쳤다. 1988년 장편 거작 『평범한 세계』를 완성하였으며, 1991년 제3회 마오둔 문학상(茅盾文學獎)을 받았다. 1992년, 지병인 간경화로 인해 시안(西安)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간략한 생애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농촌에서 가난한 농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자랐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농촌과 도시 사이의 소위 '교차지대(交叉地帶)'에서 보내며 창작 활동을 했다. 물론 이러한 경험이

---

1) 그 대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 가오자린(高加林)은 현성에서 고급중학을 졸업한 후, 현의 소학교에서 3년간 교사로 일하다가 갑자기 퇴직 통보를 받는다. 그의 자리를 대신한 것은 같은 동네 가오싼싱(高三星)으로 당 지부서기인 가오밍러우(高明樓)의 아들이었다. 가오자린은 매우 억울했지만 어쩔 수 없이 고향마을로 돌아와 우울한 나날을 보내다가, 아버지와 같이 생산대에 복귀하여 농사일에 참여한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육체노동이 힘들기도 했고 고향의 다른 농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아 내적인 갈등과 번뇌에 괴로워한다. 그러던 중 같은 동네의 시골처녀 류차오전(劉巧珍)의 고백을 받아주면서 연애를 시작해, 어느 정도 마음을 잡고 농촌에 정착하고자 한다. 하지만 둘의 자유연애에 화가 난 류차오전의 아버지 류리번(劉立本)과 갈등이 생기고 마을에서도 위생을 강조하다가 마을 사람들의 미움을 사는 등 계속해서 '지식' 청년으로서 시골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다. 가오자린의 마음이 편치 않은 이때, 오랫동안 타지에 나가 있던 숙부가 노동국 부국장이라는 고위공직으로 부임해온다. 숙부의 위세 덕분에 가오자린은 신문사의 기자가 되어 다시 한번 현성으로 들어간다. 시골을 떠나 (중소)도시의 맛에 취한 가오자린에게 고급중학 동창이자 도시 처녀인 황야핑(黃亞萍)이 다가오고, 갈등하던 가오자린은 류차오전에게 이별을 고한다. 류차오전은 가오자린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를 떠나주는 것이 그를 위한 길이라 생각하여 황급히 중매를 통해 결혼해버린다. 황야핑 역시 이전 남자친구 장커난(張克南)에게 이별을 선언한다. 커난이 실연의 아픔을 겪자, 화가 난 커난의 어머니는 가오자린이 연줄을 이용해 기자가 된 것을 알아내서, 이를 고발하여 현성에서 쫓겨나게 만든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남지 않은 가오자린은, 그를 따라 시골로 갈 생각이 없는 황야핑과 헤어진다(장커난과 황야핑의 부모는 모두 현성에서 지위와 부를 누리는 고위공직자이다). 가오자린은 모든 것을 잃고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야 류차오전의 진정한 사랑과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후회하며 고통스러워한다.

2) 루야오에 대한 대중적인 인기와 열기에 비해 중국문학사 서술의 분야에서는 마치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루야오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자신이 작품에서 그려냈던 농촌 출신의 '회향지청(回鄉知靑)'들이 역사 속에서 '소외'되고 '은폐'되었던 작가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유사하여 더욱 관심을 끈다.

그의 작품창작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루야오는 그가 가장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하던 1980년대 문학계의 주요 흐름과 달리,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던 '리얼리즘(現實主義)'적인 창작 방법을 고수하며 당대의 중국 농촌의 현실을 배경으로 삼아 본인의 경험과 보고 들은 내용을 합쳐, 동시대 청년의 형상을 그려내었다. 루야오는 동시대의 농촌 출신 청년들의 경험을 소재로 삼되, 실재하는 일들을 재현하는 방식인 '리얼리즘'적 창작방법을 통해 작품으로 나타내려 했다. 또한 특유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농촌 혹은 도농 '교차지대(交叉地帶)'에서 살아가며 '노동'하던 농민들의 '삶(生活)'을 그려내려 노력했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중국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특히 작가가 주요 등장인물로 내세워 빚어낸 다양한 청년 형상들은 1980년대 실제 존재했던 중국의 농촌 청년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루야오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중 주요인물은 중국 농촌의 '지식청년(知識青年, 이하 간칭 '지청')'이라 할 수 있다. 흔히 '지청'이라 하면 문화대혁명 시기 상산하향 되었던 '하향지청(下鄉知青)'을 떠올리게 된다. 중국에서 교육제도가 정립되고 교육이 보편화됨과 동시에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도시, 더 나아가 시골-고등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현성에 나가야 했지만-에 이르기까지 학교가 세워지면서 수많은 지식청년들이 생겨났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하향지청'과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 같은 제도에 의해 일정 정도 이상의 교육을 받았던 시골의 지식청년들, 즉 '회향지청(回鄉知青)'은 사람들의 인식 밖에 존재했다. 그들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거나, 어쩌면 자신의 목소리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소리가 외부 사람들에게 가 닿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루야오 자신과 루야오가 빚어낸 인물들, 가오자린(高加林), 쑨사오핑(孫少平), 쑨사오안(孫少安) 등이 바로 그들이다.

루야오(路遙)의 대표작이라 칭하는 『인생(人生)』과 『평범한 세계(平凡的世界)』는 그 창작 시기도 물론 다르고 편폭도 다르지만, 무엇보다도 문제의식의 발전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인생』에서도 지청(知青)과 농민 사이의 이중신분(雙重身份)이 초보적으로 드러난다. 이에 따른 가오자린(高加林)의 모순과 갈등이 나타나지만, 이에 대한 평론과 연구논문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특히 초기의 평론에서는 가오자린이라는 인물에 대해 '회향지청(回鄉知青)'이라는 사회적 산물로 바라보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3] 그저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면서 가오자린의 도덕성을 문제 삼는 경우만 허다했다. 이와 비교하면, 『평범한 세계』에서는 이중신분의 청년들의 더 많은 사례를 펼쳐 보여주고 그 대비도 훨씬 명확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인물들의 감정적인 내적 갈등도 격화되고 있긴 하지만, 이보다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더욱 눈에 띄게 되는데, 루야오가 리얼리즘이라는 창작방법으로 당시 사회상을 펼쳐보여 주었기 때문에 그 안의 사회구조적 모순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다.

'지청'의 개념에 대해서는 딩이좡(定宜莊)이 그의 책, 『중국지청사: 시작(中國知青史: 初瀾)(1953~1968)』의 서두에서 광의와 협의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딩이좡은 처음부터 '지청'이라는 개념이 "교양과 지식이 있는 청년을 두루 가리키는" 것처럼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특정한 역사 배경 하에 탄생한 특수한 집단"임은 강조한다. "일찍이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이후, '상산하향'이라는 특수한 정책 하에, 정부가 조직하여 농촌 혹은 농업 생산에 종사한 청년들"을 포함한다. '지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합의된 범위는 중학, 혹은 소학교 학생 중에서 상산하향 되었던 청년들을 칭한다. 넓은 의미에서 '지청'이란 "진학을 계속하지 못하고 국가의 부름에 호응하여 상산하향한 모든 청년을 가리킨다. 집이 농촌에 있어서 졸업 후 고향에 돌아와 농업생산에 참가한 '회향청년(回鄉青年)'도 이 안에 포함된다." 비록 실제로는 회향지청이

3) 최근의 기사(雷頤, 「路遙的"身份"與"意義"」, 經濟觀察網 2015.4.4)와 논문(陈林 , 「『人生』的现代想象與身份焦虑」, 『小说评论』 2016年4期) 등에서 『인생』의 가오자린을 회향지청으로 다룬 경우를 발견했으나, 이들 역시 그의 '신분'을 회향지청으로 판단하고 인식해야 함을 제기하는 데 그쳤고, 더 나아가 이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심층적으로 다루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인원도 훨씬 많았고[4] 농업발전에 힘쓴 선봉그룹이었으며 개인적 희생이 가장 컸던 집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여러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하향지청(下鄉知靑)과 달리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다. 좁은 의미에서 '지청'은 1962년 이후 국가의 전문적 작업 항목에 의해 상산하향되어 생산활동에 배치된 지식청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국가가 정식으로 상산하향된 도시 청년학생들에게 정착비를 주고, 대도시·중도시에서 하향된 초·고급중학 졸업생이다.

이와 같이, 회향지청은 보통의 '지청', 즉 하향지청과 구분되는 경우가 많다. 회향지청은 처음부터 지청의 연구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포함이 되더라도 그 실질적인 규모에 비해 언급되는 비중이 절대 크지 않았다.[5] 또한 회향지청에 대한 사회학적인 연구나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간혹 있다고 해도 문혁시기 하향지청과 비교한 연구논문에서 조금 언급되어 있을 뿐, 본격적인 회향지청 실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혁 전후 회향지청의 규모나 구체적 활동에 대해서 통계 수치조차 얻기 힘들다.

그동안 연구되기는커녕 적당한 대우와 관심조차 받지 못했던 존재인 회향지청의 입장에서 지청사를 간략히 정리해 보자면, 문혁이 시작되었던 1967년에야 비로소 그 물결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1950년대 집이 원래 농촌인 중등학교 혹은 소학교 졸업생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농사일에 참여하도록 동원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1950년대 농촌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농촌의 유휴인구 역시 급증하였고 이들이 도시에 진출하는 경우도 늘어났다. 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호구 정책을 확립하여[6] 농촌 인구의 자유로운 도시 유입을 사실상 금지했다. 오히려 도시 사람들을 농촌으로 보내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그중 하나가 잘 알려진 지청의 '상산하향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도시의 인구가 포화됨에 따라, 원래 농촌 출신의 지청부터 농촌에 돌려보냈고, 이후에는 '재교육(再教育)'이라는 명의 하에 도시 지청들도 시골로 내려보냈다. 특히 1970년대 교육의 보급으로 인해 농촌 출신의 지청들이 증가하자 더 이상 도시에서 받아줄 수 없었던 원인도 한몫 했던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시골에 내려온 지청들이 문화대혁명이 끝난 이후 도시로 돌아가는 순서는 이와 정확히 반대라고 보면 된다. 먼저 도시 출신의 청년들이 돌아간 뒤, 시골 출신의 지청들 중에서도 간부의 자녀들이 돌아갔다. 처음에 도시 인구가 포화됨에 따라 농촌으로 청년들을 보낸 것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농민 출신의 지청들을 도시에서 다시 수용해줄 리 만무했다. 그들은 결국 농촌에 남거나 떠도는 삶을 살 수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지만 지청 집단은 하향된 지역에서 융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이 만약 시골에서 융합되거나 정착에 성공했다면 아마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테지만, 원래 시골 출신이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청년들조차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였다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미 다른 세상을 접해 본 이들이 농촌, 시골 생활에 적응하기는 힘들었던 데다, 지식인에 대한 농민들의 시각문제도 없지 않았음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시골에서 나고 자랐던 지식청년들 마저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회향지청은 문혁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4) "'문혁' 십년간, 하향된 도시출신 청년들은 총 1400여 만 명이었고, 회향지청의 수는 그 숫자의 몇 배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각 성, 자치구, 지구, 현에 이르기까지 그렇지 않은 곳이 없었다. 1975년 4월 10일『인민일보(人民日報)』에는 다음과 같이 싣고 있다. '문혁' 중 허난성(河南省)의 경우, 36만 명의 도시청년, 500만 명의 회향지청이 연이어 농촌으로 달려갔다. 7월 19일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1968년 이후, 닝샤(寧夏)에는 50만 여 명의 회향지청, 14만 여 명의 도시지청이 하향되었다. 오래지 않아 또 발표하길, 장쑤성(江蘇省)에 하향 삽대(揷隊)한 도시지청은 5만 여 명, 회향지청은 24만 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강조_인용자) 劉小萌,『中國知靑史: 大潮(1966-1980)』(中國當代出版社, 1998), 787쪽.

5) 이상에서 언급한 딩이쟝과 더불어, 류샤오멍(劉小萌)이 회향지청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회향지청의 기원 및 시기별 상황에 대해 다룬 것(『中國知靑史: 大潮(1966-1980)』, 中國當代出版社, 1998)과 양젠(楊建)이 지청문학 중 회향지청 문학을 별도로 서술한 것(『中國知靑文學史』, 中國工人出版社, 2002)을 제외하면 회향지청에 대한 관련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6) 1958년 1월 9일 발표된「중화인민공화국 호구등록조례」라는 법률적인 구속 하에, 농촌 인구의 자유로운 도시 유입은 근본적으로 거의 차단되었고, 농촌과 농민에 대한 차별은 갈수록 심화되었다. 이 조례는 도시 호구와 농촌 호구를 명확히 분리하여 농민들이 도시에 들어와서 거주할 수도,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도록 제재하였다. 定宜莊, 위의 책, 90-92쪽.

존재하는 호구 등록제 때문에, 그리고 도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없었으므로 하향지청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농촌에 남아야만 했다. 농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이중 삼중의 차별 속에 놓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쓴 작품이 루야오의 『인생』과 『평범한 세계』라 할 수 있다.

교육의 보급으로 인해, 소학교, 초급중학, 고급중학까지 수학하였지만, 『평범한 세계』의 주인공 쑨사오핑은 1977년 초, 고급중학 졸업을 앞둔 시점에 졸업한다는 사실에 기쁘기도 하지만 다시 시골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착잡한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사오핑은 자신이 나고 자란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기 보다는 "낯선 세계로 가"길 원하고, 도시로 진출하길 열망하지만, 회향지청 신분으로 농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고급중학을 다니면서 적지 않은 책을 읽었고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새로운 삶을 꿈꾸고 갈망하지만 그가 처한 현실은 이상과 너무나 다르다.

> 그는 지금부터 다음과 같은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그는 매일 집안 식구들의 눈물, 병듦, 배고픔과 고통에 찌든 얼굴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는 따로 거주할 곳이 없기 때문에, 집에서 희멀건 죽 두 그릇쯤 마신 후, 예전처럼 진자완 쪽에 찾아가 잠을 자야한다. 물론 다음날은 역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톈자거라오 이쪽 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일해야 한다. 아무런 의심 없이, 그는 앞으로 책 읽을 시간은 없을 것이다. 낮에는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는 바로 엎어져 쿨쿨 잠들 것이다. 다시 말해, 어디에 가서 책을 찾아 읽겠는가? 신문이야 마을의 소학교에 가면 볼 수 있겠지만, 『참고소식』은 다시는 보지 못 할 것이다. 그는 다시 한 번 드넓은 외부세계와 격리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그가 애초부처 이 세계가 이렇게나 크다는 것을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솽수이촌과 스거제가 그가 속한 세계이다. 하지만 그는 책들을 통해 이미 그렇게 많은 곳에 '가' 보았는데, 그의 생각이 어떻게 원래의 그 작은 천지에만 또다시 국한될 수 있겠는가?[7]

하지만 쑨사오핑, 가오자린 등의 회향지청은 고향으로 돌아온 후, 끊임없이 도시에 진출하기를 바란다. 중등교육을 받은 그들은 농사를 짓는 대신, 도시로 나가 학업을 계속 이어나거나 직업을 구하고 싶은 열망에 가득 차 있다. 이것은 비단 육체노동을 경시하고 정신노동을 중시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농촌에 남아있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라는 데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내년에 노동자 모집하는 그 일은 보아하니, 나랏밥 먹고 있는 사람들만 구하려나 본데, 농촌 호구를 가진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니겠소? 자세한 상황은 나도 잘 모르지만, 현재 농민에 대한 국가 정책은 명백히 심각한 이중성을 갖고 있어 보이는군요. 경제상으로는 도움을 주지만, 문화상으로는 억압(광의의 문화, 즉 정신문명)하는 것이지요. 최소한 농촌 호구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더 높은 문명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에는 신경 쓸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지요. 이것이 수많은 젊은이들을 고뇌하게 만들어. 멀리 내다보면, 이건 국가의 잠재적인 위험이 될 것이오. 이 고뇌하는 사람들, 동시에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기도 하고. 대량의 문화인들이 토지에 얽매여 있다면, 이건 불평등 중 가장 큰 불평등이지요. 만약 경제 조절의 목적이 최후에는 이런 불평등을 점차 줄여나가려는 것이 아니라면, 상황은 비할 데 없이 심각해질 것 같소. 이 상황이 어쩌면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것 같기도 하고.[8]

루야오가 그의 지인이자 작가인 차오구시(曹谷溪)에게 보낸 편지에 이와 같은 상황인식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학교 교육을 통해 지식과 문화를 접한 젊은이들에게 농촌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며 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불만과 고뇌를 키워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루야오가 회향지청과 함께, 혹은 그 연장선상에서 소설 속에서 묘사하고 있는 청년의 또 다른 일면은

7) 路遙, 『平凡的世界(第一部)』(北京十月文藝出版社, 2013), 349쪽.
8) 路遥, 「致谷溪」 1980.2.22, 梁向陽, 「新近發現的路遙1980年前後致谷溪的六封信」(『新文學史料』 2013年3期), 143쪽.

‘노동자’로서 청년이다. 회향지청은 이미 도시에서의 학교 교육과 독서 과정을 거쳐 넓어진 시야와 ‘자아’의 각성으로 인해, 농사일과 농촌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시 진출을 열망한다. 그렇지만 당시는 개혁개방이 막 시작된 사회적 전환기였으므로, 산업화가 성숙하지 못하여 도시에서 정신노동이 가능한 일자리는 한정적이었고 그마저도 대부분 인맥이나 연줄에 의해서 채워졌다. 도시 출신의 청년들이나, 부모의 배경이 좋은, 즉 간부의 자녀인 청년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었던 데 반해, 아무 연고가 없는 농민 출신 청년들에게 그 문턱은 너무나 높았다. 그런 상황을 익히 알고 있었던 쑨사오핑의 경우, 고급중학까지 수학하여 당시의 평균 학력을 훨씬 넘어서는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을 숨긴 채 문맹인 양 막노동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우리는 근래 들어 중국의 사회문제로 여겨지는 ‘농민공(農民工)’의 원형을 찾을 수 있다.

루야오는 소설을 통해, 회향지청의 마지막 흐름이자 농민공의 시초로 볼 수 있는, 가난한 농민 자제 청년들의 지식인과 육체노동자 사이의 고민과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본인의 정체성과 자아를 찾고 인생의 의미를 알아가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내적 갈등은 물론이고 외부의 시선 및 이중적 잣대에 의해 차별을 겪기도 한다. 특히 루야오는 그의 소설 속에서 1980년대 개혁개방 초기라는 시기와, 농촌과 도시 사이인 ‘도농 교차지대(城鄉交叉地帶)’라는 공간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그 갈등을 더욱 첨예하게 드러내고 있다. 가오자린과 쑨사오핑 등은 농촌과 도시, 그리고 지식인과 노동자 사이에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었다.

“삼대차별(三大差別)의 폐지”, “필요한 만큼 배분한다(按需分配).”라는 정책 등은 중국 공산당이 전면에 내세웠던 구호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고, 그 속에도 여전히 차별이 존재했고 그 차별 중에서도 ‘교육 기회의 차별’은 많은 것의 원인이자 결과가 되었다. 『평범한 세계』를 통해 본 것과 같이, 쑨사오핑과 사오안 형제는 교육의 기회부터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없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보급의 문제, 간부와 농민 사이의 비용의 문제 등이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교육을 통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했던 것도 여전히 존재하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간 차별 때문이었고,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세습되는 차별의 연장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도 했다. 쑨사오핑은 결국 아무런 연줄 없이 도시로 나오면서, 공사장의 막노동꾼이 되었고, 교육과 학습에 대한 열망은 어느 정도 접어야 했다. 당시에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 역시 본인의 능력이나 학력 등의 객관적인 조건에 앞서, 인맥이나 연줄 등이 작용되어야 가능했기 때문에 여기에도 농민, 혹은 인민의 무기력함이 드러난다. 간부, 노동자 등이 본인 혹은 지인의 자녀들에게 좋은 직업을 추천해줄만한 우세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것이다. 청년 중에서도 본인과 같이 농촌에서 나고 자란 가난한 농민의 자녀들, 도시 출신의 지청이나 간부의 자녀 등과는 확연히 다른 저층 청년들이 겪어야 했던 차별을 루야오의 작품에서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회향지청’들이 겪었던 차별은 중층적이며, 서로 얽혀 있는 ‘교차적’인 차별이었다. 도농 간의 차별, 간부와 농민 간 차별, 지식인과 농민 간 차별 등이 층차를 넘나들며 상호 영향을 주기도 하며 ‘차별’을 심화시킨다. 농촌 출신의 회향지청은 지식이라는 무기를 갖고 있지만, 기층간부의 권력 앞에서 그것은 무력하며, 오히려 농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만 한다. 도시로 진출한 회향지청은 도시 출신의 청년들과 같이 정신노동에 종사하지 못하고, ‘농민공’이 되어, 도시인들의 차별을 감수해야 했다. 학식이 있어도 가난한 농민 출신이라면,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 상대가 되어버린다. 농촌은 더 이상 회향지청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므로,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단지 중국의 어느 시기, 한 농촌 마을에 국한된 특수한 사건이 아니었다. 국가를 불문하고 시대를 넘어서서 여전히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출신 계급’이나 ‘조건’에 의해 ‘차별’받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요, 사회구조적 문제였다, 그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며 ‘차별’을 벗어나려 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불평등은 현재 진행 중이며, 그것을 넘어선 평등으로 가는 길은 요원해 보인다.

프레드릭 제임슨에 따르면, “모든 계급의식(혹은 이데올로기)은 유토피아적이다”. 루야오의 작품을 통해 발견된, 각성된 청년들의 계급의식은 공감을 통해 사회의 발전을 요구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 계급 모순 등을 포함한 사회 모순은 직접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더라도 문학과 예술로써 그 모순의 해결을 ‘꿈꾸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류칭(柳青)에 비해 루야오가 ‘탈정치화’ 되었다고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정치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제임슨에게 ‘정치적’ 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현실정치만을 의미하지 않고 더 나아가 계급적. 집단적. 역사적 차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루야오의 정치적 무의식이 소설로 재현되어 나타난 것에 당시 청년들이 함께 공감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루야오의 문학을 읽는 것은 이데올로기 비판에 그쳐서는 안 되며 “작품 속에 담지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 또한 발견해 내야” 할 것이다.

루야오의 작품을 통해 개개인이 지금 갖고 있는 청년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언제 다시 읽어도 공감하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작품의 현실성과 문학성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그 현실성에 대해 2018년의 한국을 사는 청년의 눈으로 재조명하고자 시도했다. 루야오의 작품 속에서 특정한 시공간이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가 처한 ‘현재’, ‘여기’의 문제를 보여준 것일 뿐 한정적인 시간과 공간에서만 벌어진 문제는 아니었다. 연속적인 세월의 흐름 속에 위치한 ‘주체’로서 ‘청년’의 고뇌와 갈등을 펼쳐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이 단지 중국의 어느 시기, 한 농촌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국가를 불문하고 시대를 넘어서서 여전히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출신계급’에 의해 ‘차별’받고, 그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며 ‘차별’을 벗어나려 하지만, 동일하지 않은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불평등은 현재 진행 중이며, 그를 넘어선 평등으로 가는 길은 요원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1980년대, 1990년대의 청년을 넘어서 바링허우(80後), 주링허우(90後) 청년들까지 루야오의 작품에 공감하고 호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동안 문학작품이나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았고 크게 부각되지 않았으나, 루야오는 ‘유산(遺産)’으로 남겨놓은 그의 작품을 통해 중국 농촌 청년 형상과 그들의 고민을 펼쳐 보여줌으로써, 현재까지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문제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보편적인 차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4월 27일(토) 14:00~16:00

분과발표 2부

❖ 어학3분과 _ 어법(3)

(장소: 312호)

이은경(서울대) 현대중국어『S的O+VP』구문의 의미 기능 연구

서진현(전북대) 현대중국어 焦點敏感詞 연구

김은주(고려대) 현대중국어 어휘 사동문 연구
– 형태, 통사, 의미적 특징과 형식 기제를 중심으로

김원희(연세대) 현대중국어의 '원형적 초래구문'

현대중국어『S的O+VP』구문의 의미 기능 연구

이은경*

<目 次>

1. 서론
2. 소유관계와 'S的O'
3. 'S的O'의 의미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
4. S와 O의 지시성
5. VP의 의미적 제약
6.『S的O+VP』구문의 정보구조적 특성
7. 결론

세계의 많은 언어들을 살펴보면 동일한 형식이지만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와, 같은 명제적 의미를 나타내지만 언어마다 다양한 형식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본고에서는 S的O+VP 구문의 의미 기능에 대하여 형식은 다르지만 명제적 의미가 동일한 SVO+VP, SO+VP 구문들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S的O+VP 구문이란 아래의 (1.b)과 같은 문장을 가리킨다.

(1) a. 他的老师教得好。 그의 선생님은 잘 가르치신다.
b. 他的老师当得好。 그는 선생님 역할을 잘한다.

예문 (1.a)와 (1.b)의 '他的老师'는 동일한 형식이지만 두 예문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예문 (1.a)에서 '他的老师'는 일반적인 소유관계를 나타내고 '그의 선생님'이라는 한 개체를 뜻하지만, 예문 (1.b)에서는 단순히 한 개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선생님 역할을 하는 행위'를 나타내므로 일반적인 소유관계와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이를 통해 현대중국어에서 속격(genitive)표지를 사용한 수식구조는 수식어와 피수식어 간에 다양한 의미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예문 (1.b)에서처럼 수식어가 행위자, 피수식어가 행위의 대상으로 해석되는 구문은 다른 언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특별한 의미 관계를 나타내기도 한다.

본고는 기존의 형식주의적 분석 방법에 의문을 제시하고, 인지문법(Cognitive Grammar) 및 유형론(typology)에 근거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Langacker (2008)와 Heine(1997) 등의 인지적 소유 개념을 바탕으로 소유의 개념이 어떻게 S的O+VP 구문에 적용되는지를 밝혔다. 아울러 유형론적 관점에서 Li & Thompson(1981), Lyons(1977), Stockwell, Schachter & Partee(1973)의 명사구의 지시성에 대한 이론과 Smith(1991)의 동사구의 상에 대한 이론으로 S的O+VP 구문의 주어의 지시성과 술어의 상적 특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서 구문문법(construction grammar)의 관점에서 S的O+VP 구문의 구문적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Lambrecht(1994), 朴正九(2016), Li & Thompson(1981), Chao(1968) 등의 정보구조 이론을 바탕으로 다른 구문과의 차별성을 분석하였고 북경어언대학의 BCC 현대중국어 말뭉치(BCC现代汉语语料库)를 이용하여 다양한 문맥을 통해 S的O+VP 구문과 유사 구문 SVO+VP, SO+VP들의 정보구조를 고찰하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였다.

본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 본고의 기본 연구대상인 S的O+VP 구문에 대해 소개하고, 동일 형식이지만 주어가 일반적인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NP的NP+VP 구문과 의미적으로 구별됨을 밝혔다. 또한, S的O+VP 구문과 형식은 다르지만 명제적 의미가 동일한 동사복사구문과 이중주어구문에 대해 분석한 선행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S的O가 SVO에서 V를 생략하고 '的'를 삽입한 결과로서 SVO+VP 구문에서 S的O+VP 구문이 파생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선행 연구들의 분석에 따르면 SVO+VP, SO+VP, S的O+VP 구문들이 서로 전환이 가능하다.

제2장에서는 Langacker(2008)의 영상도식을 통해 S的O의 추상적인 소유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Heine(1997)의 소유에 대한 의미적 분류와 형식적 분류를 바탕으로 S的O가 어떤 자질들을 갖는지에 대해여 분석하였다. S的O+VP 구문에서 S的O는 속격표지 '的'를 사용함으로써 수식구조의 형식으로 쓰였지만, S와 O는 일반적인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관계가 아니다. 해당 구문의 S는 의미적으로 행위자이고 O는 행위가 가해지는 대상이다. 본고에서는 소유의 개념을 인지적이고 범언어적인 관점에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S的O가 가지는 추상적 소유의 개념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3장은 S的O의 의미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에 대한 내용이다. 즉 S的O+VP 구문의 S와 O에 어떤 의미역(thematic roles)들이 할당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의미적 특징들이 해당 구문에 어떤 제약을 주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우선, S의 위치에 어떤 명사들이 출현 가능한지에 대해 분석하고 대상(patient), 결과(result), 접수자(recipient), 처소(locative), 기점(source)과 종점(goal), 도구(instrument), 시간(time) 명사들이 O의 자리에 출현했을 때 S的O+VP 구문이 어떤 제약을 받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S와 O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석하고 그 관계가 S的O에 어떤 의미적 제약과 구조적 제약을 주는지에 대해 영어, 한국어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Li & Thompson(1981), Lyons(1977), Stockwell, Schachter & Partee (1973)의 명사구에 대한 지시성(referentiality) 이론들을 종합하여 S的O+VP 구문의 S와 O의 지시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명사구(noun phrases)의 지시성(referentiality)에 대해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학자마다 다양한 견해들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총칭 명사를 비지시적인 명사구의 한 부류라고 보고 S的O+VP 구문의 S와 O의 지시성에 대해 한정성, 특정성, 총칭성을 중심으로 유사 구문 SVO+VP, SO+VP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Smith(1991)의 동사 상의 상황 유형(aspectual situation type) 이론을 바탕으로 S的O+VP 구문의 동사구의 상적 특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Smith(1991)에 따르면 동사구는 상적인 상황 유형(aspectual situation type)과 관점(viewpoint)에 대한 독립적인 두 가지 정보를 나타낸다. 상황 유형은 일반적으로 동사 배열(verb constellation)로써 명제를 시간적 자질과 연결시켜주고 관점은 문법적 형태소(grammatical morpheme)로써 명제의 상을 표현한다. 다음으로 S的O+VP 구문의 S와 O의 지시적 특성과 VP의 상적 특성 간의 상호 관련성을 살피고 해당 구문이 이러한 특성을 갖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6장에서는 중국어의 정보구조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맥에서 S的O+VP 구문의 정보구조를 분석하고 SVO+VP, SO+VP 구문들과 문맥에서의 제약이 어떻게 다른지를 고찰하였다. Lambrecht(1994:5)는 문장의 '정보구조'란 "사태의 개념적 표상인 명제가 주어진 담화 맥락에서 그 구조를 정보의 단위로 사용하고 해석하는 대화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어휘문법적 구조와 짝지어지는 문장 문법의 한 부문"이라고 정의하였다. 전제(presupposition)와 단언(assertion), 초점(focus)이 문장의 정보구조를 이루는 요소이다. 전제는 문장이 발화될 때 청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화자가 추정하는, 문장에서 어휘, 문법적으로 환기되는 명제들의 집합이다. 단언은 청자가 발화된 문장을 들은 결과, 알 것이라고 또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문장에 의해 표현된 명제이다. 초점은 단언이 전제와 구

별되게 하는 화용적으로 구조화된 명제의 의미 부분이다. 중국어의 정보구조에 대해 Chao(1968:67-104)는 중국어 문장은 주어와 술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의미기능은 행위자와 행위의 관계가 아니라 화제와 진술이라고 보았다. 즉 주어를 진술의 대상으로서 화제라고 정의하였다. 이는 Li & Thompson(1981:15)이 중국어가 화제부각언어(topic - prominent language)라고 말한 것과 부합한다. 또한 朴正九(2016)는 중국어의 정보구조에서 주어가 화제인 것은 무표적(unmarked)이며 주어가 화제가 아닌 것은 유표적(marked)이라고 분석하였다. 즉 중국어에서 서술어-초점 구조를 가장 무표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으며 논항-초점 구조와 문장-초점는 유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제7장은 결론으로서 전체 내용을 종합적으로 개괄하고 본 논문의 성과를 함축적으로 서술한 부분으로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추상적 소유의 의미를 가지는 S的O에서 S는 행위자로서 동작성이 강하다. 그리고 O는 S의 구체적인 소유 대상이거나 특정한 개체가 아니라 S가 할 수 있는 행동 범위 내에 있는 추상적인 대상이다. S的O+VP 구문에서 S는 의미상의 주어로서 그 행위가 가해지는 대상 O를 추상적으로 소유한다고 볼 수 있으며, S的O가 나타내는 의미는 O에 대한 S의 행위를 나타낸다.

둘째, S는 의미적으로 동작성이 강한 행위자로서 그 행위 O를 통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특징 때문에 S의 위치에는 유정성을 가진 사람명사가 올 수도 있고 환유를 통해 기관명사, 나라 이름으로 확장될 수도 있다. O의 위치에는 동작의 대상이거나 결과,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도구 명사들이 올 수 있다. 또한, 행위의 결과도 다른 의미역들과 비교했을 때 동작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 있어서 동작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 S와 O의 의미역에 대한 분석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S와 O의 의미역

의미역	S	O
행위자(agent)	√	X
대상(patient)	X	√
결과(result)	X	√
접수자(recipient)	X	X
처소(locative)	X	X
기점(source)	X	X
종점(goal)	X	X
도구(instrument)/대상	X	√
도구(instrument)/비대상	X	X
시간(time)	X	X

셋째, 중국어에서는 영어와 달리 명사구 안에 행위 동사가 반영되지 않고, ‘他的篮球’, ‘他的老师’처럼 그 행위가 가해지는 대상만이 반영된다. 즉 중국어에서는 속격표지 ‘的’ 뒤의 피수식어가 명사성 성분이여야만 한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적 제약으로 하여 현대중국어에는 ‘*他的打篮球’, ‘*他的当老师’ 등과 같은 형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 영어, 한국어, 중국어 절의 명사화 대조

언어 분류	S-gen Nv of O	S-gen V-inf O	S-gen O + VP
영어	√	√	X
	His reading of the book is ~	His reading book is ~	*His book is read well.
한국어	X	√	X
	*그의 책의 읽음은 ~	그의 책을 읽음은 ~	*그의 책은 잘 읽는다.
중국어	△	X	√
	他(的)对汉语的研究 *他(的)篮球的打	*他的研究汉语 *他的打篮球	他的篮球打得很好

넷째, SVO+VP, SO+VP 구문은 주어의 일시적인 행위를 나타낼 수도 있고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낼 수도 있다. 반면, S的O+VP 구문은 일반적으로 주어의 단발적인 특정한 행위가 아니라 습관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에 대한 평가를 나타낸다.

다섯째, SVO+VP, SO+VP 구문에서 S는 지시성의 제약을 받지 않지만, S的O+VP 구문에서는 한정 명사만 가능하다. SVO+VP, SO+VP 구문에서 O는 비지시적이거나 한정 명사일 수 있지만, S的O+VP 구문에서는 비지시적인 명사만이 가능하다. S와 O의 지시성 분석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표3>과 같다.

〈표3〉 S와 O의 지시성

구분		비지시	특정	한정
S	S的O+VP	△	△	√
	SVO+VP	√	√	√
	SO+VP	√	√	√
O	S的O+VP	√	**X**	**X**
	SVO+VP	√	**X**	△
	SO+VP	√	**X**	√

여섯째, VP에 상태보어, 시량보어, 동량보어, 가능보어가 오는 경우에만 S的O+VP 구문이 성립하며 모두 [+지속(durative)]과 [−종결(telic)]의 속성을 가진 동작 상황 유형과 상태 상황 유형이다. S的O+VP 구문과 유사구문의 VP의 상적 특성을 <표4>로 정리할 수 있다.

〈표4〉 VP의 유형과 상적 특성

VP 유형	S的O+VP 성립 가능성	상황 유형	상태성 (static)	지속성 (durative)	종결성 (telic)
상태보어	√	동작	[−]	[+]	[−]
시량보어	√	동작	[−]	[+]	[−]
동량보어	√	동작	[−]	[+]	[−]
결과보어	X	달성	[−]	[+]	[+]
방향보어	X	달성	[−]	[+]	[+]
개사구보어	X	달성	[−]	[+]	[+]
가능보어	√	상태	[+]	[+]	[−]

일곱째, S的O+VP, SO+VP, SVO+VP 구문들은 모두 서술어-초점 구조로 기능할 수 있고 S的O+VP 구문을 제외한 나머지 구문들은 문장-초점 구조로 기능할 수 없다. 또한, SO+VP 구문과 달리 S的O+VP 구문

에서 ‘S的O’와 O는 단독으로 초점을 구성하기 힘들고 SVO+VP 구문에서는 S는 논항-초점으로 기능을 할 수 없다. S的O+VP 구문과 유사 구문의 정보구조적 특징을 <표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5〉 S的O＋VP 구문 및 유사구문의 정보구조적 특징

구분	서술어초점	문장초점	S-초점	O-초점
S的O+VP	√	√	√	X
SO+VP	√	X	√	√
SVO+VP	√	X	X	√

여덟째,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S的O+VP 구문의 구문적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화자와 청자에 의해서 인지된 한정적이거나 총칭적 행위자(S)의 특정되지 않은 어떤 비지시적 개체(O)에 대한 반복적, 습관적 행위(S的O)에 대해서 술어(VP)가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속성을 진술한다.”

〔參考文獻〕

1. 논문류

백은희(2003), <중국어 정보구조 구현방법에 대한 연구>.

_____(2004), <중국어의 비한정 주어 출현 현상에 대한 연구>.

이복희(2011), <장면층위 술어와 개체층위 술어의 존재 해석>, ≪현대영어영문학≫ 55(4), 177-202쪽.

전영철(2012), <총칭성과 양화>, ≪한국어 의미학≫ 39, 51-76.

邓思颖(2009), <“他的老师当得好”及汉语方言的名物化>, ≪语言科学≫ 第8卷 第3期, 239-247.

梅 广(1978), <国语语法中的动词组补语>, ≪屈万里先生七秩荣庆论文集≫, 台北联经出版事业.

朴正九(2016), <从类型学视角看汉语形容词谓语句的信息结构>, ≪中国语文≫ 2016年, 第四期, 387-396.

史金生・邝艳(2010), <‘他的老师当得好’句式的形成机制>.

邵琛欣(2015), <汉语工具宾语的次范畴及其形成机制>, ≪语言科学≫ 第14卷, 第6期, 579-588.

沈家煊(2007), <也谈“他的老师当得好”及相关句式>, ≪现代中国与研究≫ 第9期, 1-12.

吕叔湘(1984), <“他的老师教得好”和“他的老师当得好”>, ≪吕叔湘全集≫(2002), 辽宁教育出版社.

吴怀成(2008), <“准定语+N+V得R”句式的产生机制>, ≪语言科学≫ 第2期, 127-134.

聂仁发(2001), <重动句的语篇分析>.

张伯江(1994), <领属结构的语义构成>.

张伯江・方梅(1996), <汉语功能语法研究>.

钟小勇(2010), <重动句宾语话语指称性分析>.

黄国英(1982), <“的”的句法、语义功能>, ≪语言研究≫ 第一期, 101-129.

_____(2008), <伪定语和准定语>, ≪语言教学与研究≫ 第4期, 38-44.

黄正德(2008), <从“他的老师当得好”谈起>, ≪语言科学≫ 第3期, 225-241.

Andrews, Avery. (1985). ‘The Major Functions of the Noun Phrase.’ In Timothy Shopen(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1.Ⅲ: Grammatical Categories and the Lexicon, 259-308.* Cambridge University Press.

Chae, Hee-Rahk (2002). ‘An Analysis of Gerund Phrases: NPs with N Heads.’

Paris, Marie-Claude (1994). ‘Stage-level and Individual-level Predicates in Chinese.’ In honor of William S-Y.

Wang. *Interdisciplinary Studies on Language and Language Change*, 373-382. Pyramid Press.
Yao, Shui-ying (2010). 'Stage/Individual-level Predicates, Topics and Indefinite Subjects.'

2. 단행본

石毓知, 李纳(2004), ≪现代汉语语法化的历程≫, 北京大学出版社.
孙红玲(2005), ≪现代汉语重动句研究≫, 北京语言大学博士学位论文.
完 权(2016), ≪"的"的性质与功能≫, 商务印书馆.
张伯江(2016), ≪从施受关系到句式语义≫, 学林出版社.
赵元任(1982), ≪中国话的语法≫, 中文大学出版社.
钟小勇(2008), ≪重动句信息结构研究≫, 复旦大学博士学位论文.
朱德熙(1982), ≪语法讲义≫, 商务印书馆.
Blake, Barry J. (1994). *Ca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ybee, Joan (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Tense, Aspect, and Modality in the Languages of the World*.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arlson, Gregory N. (1977). Reference to Kinds in English. Ph.D. Thesis.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Comrie, Bernard (1976). *Aspect*.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llmore, Charles J. (1968). *The Case for Case*. Eric Document Service.
Foley, William & Robert D. Van Valin (1984). *Functional Syntax and Universal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ldberg, Adele E. (1995). *Construction: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eine, Bernd (1997). *Possess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Huang, Cheng-Teh James (1982). *Logical Relations in Chinese and the Theory of Grammar*. Doctoral Dissertation. MIT Press.
Langacker, Ronald W. (1987).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V1,V2)*. *S*tanford University Press.
_____ (2008). *Cognitive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Lambrecht, Knud (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Li, Charles N. & Sandra A. Thompson (1981). *Mandarin Chinese: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Lyons, John (1977). *Semantics 1,2*. Cambridge University Press.
Radford, Andrew (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Saeed, John I. (1997). *Semantics*. Blackwell Pub.
Smith, Carlota S. (1991). *The Parameter of Aspect*. Kluwer Academic Publishers.
Stockwell, Robert P., Paul Schachter and Barbara H. Partee (1973). *The Major Syntactic Structures of English*. Holt, Rinehart & Winston.
Taylor, John R. (2002). *Cognitive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현대중국어 焦點敏感詞[1] 연구

서진현*

<目 次>

1. 서론
2. 초점민감사의 구분 및 어법특징
3.『家有兒女』담화 속 초점민감사의 초점 분석
4. 초점민감사의 위치 실현 원리
5. 결론

1. 서론

실제 담화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문장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표현하지는 않는다. 화자에 따라 혹은 화자가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이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따라 문장의 형식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 결국 발화과정에서 화자가 담화맥락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선택하는 문장구조인 정보구조를 구성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정보구조에 대한 연구는 어순에 따라 주제와 초점을 구분하는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문장의 어순뿐만 아니라 어떤 문법항목이 실제 어떻게 초점으로 실현되는지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現代漢語詞典(第七版)』에서는 부사를'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한정하여 범위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명사는 수식하거나 한정할 수 없다'고 정의하고 있다.

(1) 瑪麗<u>只是</u>去看電影。
　　마리는 **오직 영화 보러 가기만** 했다.
(2) <u>只是</u>瑪麗去看電影。
　　오직 마리만 영화 보러 갔다.

예문(1)과 예문(2)에서 볼 수 있듯 부사는 문장 내에서 이동성을 가지는 품사이다. 본래 부사의 기본 위치는 예문(1)과 같이 주어와 술어 사이에 놓여 뒤따르는 술어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또 예문(2)와 같이 주어 앞에 놓여 뒤따르는 주어를 한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문(2)는 현대한어 사전의

* 전북대학교

1) 이 논문에서 다루는 '초점민감사(焦點敏感詞)'라는 용어는 영어로는 'Focus Sensitive Operator', 중국어로는 '초점민감연산자(焦點敏感算子), 초점제시어(焦點提示語), 초점부사(焦點副詞)' 등으로 번역된다. 본래의 원어로 된 용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초점민감연산자(焦點敏感算子)'가 가장 적합한 용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초점을 표지하는 어휘인 'Focus Marker'를 '초점표지사(焦點標記詞)'로 '단어(詞)'의 범주로 번역한 반면, 똑같이 초점을 표지하는 어휘에 속하는 'Focus Sensitive Operator'는 '단어(詞)'가 아닌 문장 내 기능인 '연산자(算子)'로 서로 다른 층차로 번역을 하였다. 또한 초점민감사는 '초점제시어(焦點提示語)' 혹은 '초점부사(焦點副詞)'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초점제시어(焦點提示語)'의 '어(語)'는 단어와는 또 다른 층차의 개념이고, 초점민감사로 사용되는 어휘에는 부사가 아닌 다른 품사도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Focus Sensitive Operator'를 '단어(詞)'의 범주에 속하는 초점을 표지하는 어휘로 '초점민감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부사 정의에 반하는 예문으로 이때는 부사의 예외용법이라고 여겨져 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용법을 오직 예외의 용법으로만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정보구조적 측면에서 부사의 이동을 정보전달의 필요에 의해 정보를 재구조화 하는 것이고 부사가 초점민감사(Focus Sensitive Operator, 焦點敏感詞)의 역할을 하여 초점구조와 관련을 맺음을 개별 문법항목을 통해 분석해 보고자 한다.

2. 초점민감사의 구분 및 어법특징

의사소통 과정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최소한의 노력으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상대적으로 새로운 내용에는 인지적으로 현저성을 주어야 하는 연유로 초점에 여러 표지를 사용하게 된다. 초점민감사(焦點敏感詞)와 초점표지사(焦點标记词)는 모두 어휘를 통한 초점표지 방식이지만 이 두 용어가 서로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았다. 이 두 표지 방식은 모두 문장에서 초점성분 앞에 놓여 뒤따르는 초점성분을 두드러지게 한다는 특징과 문장에서 화자의 주관성을 표현한다는 특징이 있다.

(3) 夏: 可是媽媽跟往常一樣，**是**六點鍾准時回的家呀？
근데 엄마는 평상시처럼 6시 정각에 돌아오셨다고?
夏: 社交？哼，你這麼小的年紀，你懂什麼叫社交？我**是怕**你犯錯誤。
교제? 흥, 이렇게 어린 애가 교제가 뭔지 알기나 하니? 나는 네가 잘못될까봐 걱정이야.
夏: 我**是早就**知道了。我還說過你沒聽見……
나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는데. 내가 말했는데 네가 못 들었어…

예문(3)과 같이 초점표지사는 문장의 주요성분을 담당하지 않아 생략을 하여도 통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본래의 어휘가 가진 의미 보다 기능인 강조 의미의 비중이 크게 작용하기에 생략해도 의미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항목이다. 이처럼 현대중국어에서 초점표지사로 사용되는 어휘들은 문장에서 통사적으로나 어휘 의미적으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강조의 기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에 어휘의미보다는 기능의미의 비중이 큰 조사의 성질을 갖는다.

(4) 星: 可是別人都沒想到，**就**我一人想出來了！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들 생각지도 못하고, ***오직 저 혼자만*** 생각해 냈어요!
(5) 星: 可是別人都沒想到，我一人想出來了！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들 생각지도 못하고, 저 혼자 생각해 냈어요!

예문(4-5)에 제시 '我' 뒤에 사용된 수량구 '一人'으로 인해 한 사람이라는 범위가 한정되어 '就'가 없어도 예문(5) 문장이 성립되고, 통사적으로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문장에 해당부사의 사용유무에 따라 그 의미명제는 달라지는데, '다른 사람이 아닌 너 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위해서는 부사 '只'의 의미를 가진 어휘 사용이 필수적이다. 즉 '就'의 사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또 다른 차이점은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차이이다. 화자는 '다른 사람은 다들 생각해 내지 못했지만, 그것을 생각해 낸 것이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나 한사람'이라는 의미를 더함으로써 '我一人'을 더 두드러지게 제한적으로 강조한 것이다. 초점민감사는 실질적인 어휘의미를 지녀 문장 전체 의미에 변화를 야기시키는 항목으로 생략

을 하면 통사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나 의미적으로는 차이가 생긴다.

초점표지사는 본래 어휘가 가진 품사는 그대로 가지고 있지만 조사의 기능을 갖는 부류이고, 초점민감사는 부사라는 품사로 분류되어야 함을 고찰하였다. 이처럼 초점민감사와 초점표지사는 용어는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항목을 일컫기 때문에 각각의 기능에 따른 용어를 분리가 필요하다.

3.『家有兒女』담화 속 초점민감사의 초점 분석

실제 중국어 담화인『家有兒女』을 통해 제한성과 어기성초점민감사가 문장 속에서 어떤 문장 성분과 초점관계를 맺게 되는지 살펴보았다. 초점민감사의 성질을 정의함으로써 현대중국어 부사에서 제한성 부사와 어기성 부사가 초점민감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선별해 낼 수 있었다. 또한 선별된 부사들의 실제 담화 속 쓰임을 분석함으로서 여러 상황을 가정하여 논의하는 종래의 방식이 아닌 정확한 문맥을 통해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만을 분석하여, 문형별로 초점구조를 귀납시킬 수 있다.

제한성 초점민감사가 문장에서 어떤 초점구조를 갖는지를 문형별로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제한성 초점민감사의 개별 문형 및 해당 초점구조 분류

	초점민감사	문 형	초점구조분류[2]	비 고
총괄성	都	ⓐ 주어(NP1)+**都**+술어(VP)	논항초점1	NP1=복수명사구
		ⓑ((목적어(NP2))+주어(NP1)+(把+목적어(NP2)))+**都**+술어(VP)	서술어초점	NP1과 NP2의 생략 혹은 NP2의 전치
		ⓒ 주어(NP1)+**都**+술어(VP)+목적어(NP2)	논항초점2	NP1=단수명사구
유일성	就	ⓐ **就**+주어(NP)+술어(VP)	논항초점1	주어
		ⓑ 주어(NP)+**就**+술어(VP)	서술어초점	서술어전체
		ⓒ 주어(NP)+**就**+술어(VP)+목적어(NP)	논항초점2	목적어
	只	ⓐ **只**+주어(NP)+술어(VP)	논항초점1	주어
		ⓑ 주어(NP)+**只**+술어(VP)	서술어초점	서술어전체
		ⓒ 주어(NP)+**只**+술어(VP)+목적어(NP)	논항초점2	목적어
	光	ⓐ **光**+주어(NP)+술어(VP)	논항초점1	주어
		ⓑ 주어(NP)+**光**+술어(VP)	서술어초점	서술어전체
		ⓒ 주어(NP1)+**光**+술어(VP)+목적어(NP2)	논항초점2	목적어
		ⓓ 주어(NP)+**光**+부사어(ADV)+술어(VP)	논항초점3	부사어
	只是	ⓐ **只是**+주어(NP)+술어(VP)	논항초점1	주어
		ⓑ 주어(NP1)+**只是**+술어(VP)	서술어초점	서술어전체
		ⓒ **只是**+부사어(ADV)，주어(NP)+술어(VP)	논항초점3	부사어
	只有	ⓐ (범위)+**只有**+주어(NP)+술어(VP)	논항초점1	주어
		ⓑ 주어(NP)+**只有**+술어(VP)	서술어초점	서술어전체
		ⓒ 주어(NP)+**只有**+술어(VP)+목적어(NP2)	논항초점2	목적어
		ⓓ **只有**+부사어(ADV)，주어(NP)+술어(VP)	논항초점3	부사어

2) 초점구조는 Lambrecht(2000)이 제시한 바에 따라 논항초점구조, 서술어초점구조, 문장초점구조로 분류한다. 또한 그 중 논항초점구조의 논항은 명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서 명제의 비-서술적 표현 어느 것이나 포괄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장소, 시간, 태도, 방법을 논항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 중 주어 자리에 오는 논항이 초점이 되는 구조는 '논항초점구조1', 서술어의 목적어가 초점이 되는 구조는 '논항초점구조2', 문장에서 부사어가 초점이 되는 구조를 '논항초점구조3'이라 한다.

<표1>에 제시된 제한성 초점민감사로 사용되는 어휘는 중국어의 범위부사에 해당하는 항목들이다. 그 중에서도 총괄성을 나타내는 '都'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문장 내의 유동성에 제한이 있다. 초점민감사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특히 총괄성을 나타내는 '都'라는 항목은 의미지향이라는 개념과 관련지어 유동성이 없어 연구가 미비하였다. <표1>에서 제시된 '都'의 ⓐ와 ⓒ는 모두 논항초점구조로 분류되고, NP1의 단·복수에 따라 '논항초점1'과 '논항초점2'로 나타난다. 이 경우에는 '都'의 의미지향과는 동일하게 의미지향하는 성분이 문장에서 초점화되는 것이라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전의 연구에서는 '都'의 의미지향과 관련지어 초점구조를 설명하기에 서술어 초점구조를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서술어 초점구조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의 문장만을 예로 들어 그 실제 쓰임을 귀납시키기에는 한정적이었다.'都'의 문형ⓑ는 귀납결과 복수명사구인 주어(NP1)가 생략되거나, 주어(NP1)와 목적어(NP2)가 모두 생략되거나 혹은 목적어가 술어 뒤에 놓이지 않고 주어 앞으로 전치되거나'把자문'형식으로 문장의 어순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술어를 강조하는 서술어초점구조로 분류된다. 또한 이 경우에는 앞 성분을 의미지향일 수도 있고, 뒷 성분을 의미지향일 수도 있지만, 초점관련 방향은 일방적으로 오직 바로 뒤 따르는 성분과만 초점구조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문장에서 총괄성을 나타내는 '都'는 문장 내에서 유동성이 제한적인 반면, 문장에서 화자의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초점민감사를 제외한 다른 문장 성분의 문장 내 이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나타났다.

제한성 초점민감사 중 유일성을 나타내는 '就', '只', '光', '只是', '只有' 총 다섯 가지 항목의 공통점은 모두 의미지향과 초점관련을 맺는 성분의 방향이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 바로 앞에 위치하여 뒤따르는 명사구와 초점관련을 맺어 주어의 수량이나 개체만으로 한정하고 그 이외의 수나 다른 종류의 개체를 배제하여 해당 명사구를 두드러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술어 앞에 위치하는 경우는 바로 뒤따르는 동사구에 속한 명사구인 목적어만을 초점화 시켜 '논항초점구조'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문장에서 화자가 새로운 사건 전체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술어의 동사 바로 앞에 초점민감사를 사용하여 서술어 전체와 초점 관련현상을 갖는 '서술어초점구조'를 형성할 수도 있었다.

유일성 초점민감사인 '只是'는 주어와 술어 사이에 사용될 경우 서술어전체인 사건 전체에 초점을 맞출 수도 술어인 동사 그 동작만으로 한정하여 그 행동만 주어가 한 것임을 나타내고, 목적어를 초점화 시키는 '논항초점구조2'는 갖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였다.

'光', '只是', '只有'이 세 항목은 각 항목의 문형ⓓ와 같이'光/只是/只有+부사어(ADV)'라는 문장형태를 갖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초점민감사가 부사어 앞에 놓여 부사어 역할 하는 성분과 초점관련 현상을 갖고, '논항초점구조3'을 갖게 된다.

이처럼 유일성 초점민감사는 문장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문장성분과 초점구조를 갖는 경향을 보인다. 이 부류의 초점민감사는 의미지향과 초점관련 성분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문장에서 초점성분은 항시 유일성 초점민감사 뒤에 위치해야 한다. 그래서 초점성분의 이동 없이 초점민감사의 이동으로 초점구조가 형성되게 된다.

이외에 어기성 초점민감사로 선별된 '居然', '明明', '难道', '反正', '多亏'는 어휘가 가지는 유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점민감사로는 논의되지 않았던 항목들이다. 이 항목들이 문장에서 실현되는 문형과 개별 초점구조를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 어기성 초점민감사의 개별 문형 및 해당 초점구조 분류

	초점 민감사	문 형	초점구조분류	비 고
어기성	居然	ⓐ 주어(NP1)+**居然**+술어(VP)	서술어초점	서술어전체
		ⓑ **居然**+주어(NP1)+술어(VP)	문장초점	문장전체
	明明	ⓐ 주어(NP1)+**明明**+술어(VP)	서술어초점	서술어전체
		ⓑ **明明**+주어(NP1)+술어(VP)	문장초점	문장전체
	难道	ⓐ 주어(NP1)+**难道**+술어(VP)	서술어초점	서술어전체
		ⓑ **难道**+주어(NP1)+술어(VP)	문장초점	문장전체
	反正	ⓐ 주어(NP1)+**反正**+술어(VP)	서술어초점	서술어전체
		ⓑ **反正**+주어(NP1)+술어(VP)	문장초점	문장전체
	多亏	ⓐ 주어(NP1)+**多亏**+술어(VP)	서술어초점	서술어전체
		ⓑ **多亏**+주어(NP1)+술어(VP)	문장초점	문장전체

어기성 초점민감사는 이음절로 이루어진 어기성 부사가 담당하는데, 그 중‘居然’, ‘明明’, ‘難道’, ‘反正’, ‘多亏’들이 문장에서 사용되는 위치에 따라 문장 내 초점 성분이 달라진다. 또한 이 부류의 초점민감사는 어떤 사건[3]에 대한 평가 혹은 사건 전체에 대한 평가를 위한 어휘이다. 이 다섯 가지 어휘 항목은 각 항목의 문형ⓐ와 같이 주어와 술어 사이에 위치하여 뒤따르는 술부 전체와 초점관련을 맺는다. 이 경우에는 서술어전체가 현저성을 갖게 되어 서술어초점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동사구(VP)에 속한 문장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NP)는 어기성 초점민감사와는 초점관련 현상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눈에 띄는 특징이다. <표2>에 제시된 다섯 가지 어휘항목의 문형ⓑ를 보면 어기성 초점민감사는 모두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한다. 하지만 이 경우도 절대 초점민감사 바로 뒤에 따라오는 주어인 명사성분과 초점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 문장전체와 초점관련 현상을 가져 문장초점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이라 분석되었다.

Kuno(1987:207)는 하나의 언어에 두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의 가능한 어순이 있을 경우에, 구체적인 문맥 중에서 하나의 어순을 선택하는 것은 모두 정보표현의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 하였다. 제한성 초점민감사와 어기성 초점민감사 모두 기본적으로는 술어 앞에 위치하지만, 문장의 가장 앞인 주어 앞에 놓이기도 하고, 부사어 앞에 놓이기도 한다. 초점민감성으로 사용되는 해당 부사들은 문장 내 여러 가지 가능한 위치가 있지만, 화자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의도하는 부분이 제대로 잘 드러나도록 그 위치를 선정해야 하는 것이다. 초점민감사가 가진 고유의 특성에 따라 해당 어휘가 문장 내 유동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초점민감사 자체의 이동을 통해, 유동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문장성분의 이동을 통해 확실한 초점표현을 하게 됨이 분석을 통해 나타났다. 또한 초점민감사는 담화 속에 제시된 정보 가운데 핵심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와 새로운 의미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4. 초점민감사의 위치 실현 원리

초점민감사는 문장에서 화자가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문장성분과 초점관련 현상을 맺게 된다. 이로 인해 초점민감사와 초점관련 현상을 맺는 문장성분은 화용적으로 현저성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현저성을 가지게 되는 부분은 초점민감사가 관할하는 영역이라고도 볼 수 있다. 관할영역을 살피는 첫 번째로 초점민감사는 부사라는 품사로 분류되기에 통사적으로 인접성원칙에 따라 초점민감사 뒤에

3) 사건은 어떤 행동에 국한된 것이다. 즉 A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은 알지만, 그 행동에 관한 것이 사건인 것이다(A做了某一件事). 사건 전체는 누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일컫는 것으로 사건에 관련된 실체와 그 실제 벌어진 행동 혹은 사건(某個人做了某一件事)이 무엇인지에 관한 것인 사건 전반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놓이는 성분을 관할하고 그 관할 영역이 초점영역이 되게 한다. 두 번째로 초점민감사는 어휘 실재의미를 지니는데, 특히 유일성 초점민감사 '就, 只, 光, 只有, 只是'는 다른 초점 가능성분을 다 배제하고 유일하다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문장의 명사 성분 앞에 위치하여 해당 명사성분을 관할한다. 문장에서 기본성분의 생략이나 위치 이동이 발생하지 않으면 총괄성 초점민감사 '都'는 의미지향과 동일하게 명사성분이 관할영역이 된다. 어기성 초점민감사는 사건 전체와 의미관련을 맺어 관할하게 되어 전체 명제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문장의 맨 앞에 사용되고, 사건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술어 앞에 위치하여 뒤 따르는 문장성분을 관할한다. 세 번째로 문장의 화용적 전제이다. 초점민감사를 사용한 문장은 전제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 초점민감사와 초점관련을 맺는 부분 이고 더 나아가 초점민감사는 전제에서 x로 제시된 내용의 바로 앞에 제시되기 때문에 초점성분의 단방향성을 지니는 항목들은 x의 바로 앞으로 이동하게 된다.

초점관련 성분의 방향성에 따라 초점민감사가 문장에서 자유성을 가질 수도, 초점민감사가 아닌 다른 문장성분이 문장에서 자유성을 가질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개별 초점민감사의 의미지향의 방향에서 기인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의미지향이 단방향성일 경우에는 초점민감사 자체가 문장에서 자유성을 갖지만 의미지향이 양방향성일 경우에는 초점민감사가 아닌 문장 성분이 자유성을 갖고 문장에서 어순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처럼 문장의 자유성은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문장성분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 어순을 통해 정보를 재배치하여 정보구조에 변화를 가져온 결과물이다.

마지막으로 문장에서 초점민감사의 사용 순서는 상대적으로 주관성이 큰 초점민감사 일수록 주관성이 작은 초점민감사의 앞에 사용된다. 또한 주어 앞과 주어와 술어 사이에 동시에 초점민감사가 사용된 경우에는 주어 앞에 위치한 초점민감사가 통사적 우세성을 지녀 문장의 유일한 초점으로 승격됨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본 논문은 실제 담화 속에서 현대중국어 초점민감사로 사용되는 부사들을 고찰하여 현대중국어의 초점구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화자에 따라 혹은 화자가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이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따라 문장의 형식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

그 가운데 중국어에서는 초점민감사로 사용되는 부사를 사용하여 다양한 의도를 나타내고, 특히 문장에서 사용 위치의 변화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게 됨을 고찰하였다.

초점민감사는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어휘의미를 가지며 부사라는 품사를 가진 어휘 항목들이 담당할 수 있는 기능임을 확인하였다. 담화 속의 초점구조를 분석한 결과 초점민감사는 유동성을 가져 문장에서 여러 자리에 위치할 수 있지만 유동성을 가지지 않더라도 명사성분과도 의미관계 및 초점관계를 가질 수 있는 단어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종래 논의되지 않던 어기성 부사도 문장에서 화자의 강한 주관성과 함께 초점을 나타내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초점구조를 분석하는 데 단일 문장으로 여러 가정 하에 초점구조를 고찰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고 실제 담화 속에서 초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의미지향이 단방향성인 초점민감사는 통사적인 제약을 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문장의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사어 등의 문장성분을 초점화 시키기 위해 해당 성분 앞에 놓이는 유동성을 보인다.

특히 총괄성 초점민감사 '都'는 종전의 연구에서는 명사성분과만 초점구조를 가져 주어, 목적어를 초점화 시키는 것이라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초점민감사를 제외한 문장 기본성분의 어순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 서술어초점구조를 갖게 됨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의미지향의 방향으로만 연구되었던 종전의 초점표지사에 관한 연구와는 달리 실제 초점구조를 구성하는 데 있어 의미지향과 초점성분의 방향에는 차

이가 있음을 밝힐 수 있었다.

〔참고문헌〕

고석주・김현강・박용한・서승현・손희연・이병규・황선영 역(2000), 『정보 구조와 문장 형식』(Lambrecht Knud., 1994). 서울: 월인.

Kuno, Susumu.(1987), *Functional Syntax: Anaphora, Discourse and Empath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Knud, Lambrecht(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鄧方・劉立新(2009),『家有兒女(Home with kids)1』. 北京: 世界圖書出版公司.

鄧方・劉立新(2009),『家有兒女(Home with kids)2』. 北京: 世界圖書出版公司.

鄧方・劉立新(2009),『家有兒女(Home with kids)3』. 北京: 世界圖書出版公司.

張誼生(2004),『現代漢語副詞探索』. 上海: 學林出版社.

張誼生(2014),『現代漢語副詞研究(修訂版)』. 北京: 商務印書館.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2016),『現代漢語詞典(第七版)』. 北京: 商務印書館.

현대중국어 어휘 사동문 연구*

— 형태, 통사, 의미적 특징과 형식 기제를 중심으로

김은주**

<目 次>

1. 들어가기
2. 현대중국어 어휘사동문의 범주와 통사적 특징
 2.1 보충형 어휘 사동
 2.2 영파생 어휘 사동
 2.3 복합어 어휘 사동
 2.4 도치식 어휘 사동
3. 나가기

1. 들어가기

사동(使動, causative)이란 사동주가 피사동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하는 태(態, voice)의 하나로 정의되는 문법적 장치이다(이익섭・채완 2002). 현대중국어에서는 이러한 사동의 개념을 가리켜 '致使', '使役', '使動', '使成', '使令' 등의 다양한 용어로 지칭하는데, 그 명칭은 서로 다를지라도 범언어적으로 정의되는 사동의 개념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이미 하나의 중요한 문법범주로 자리 잡고 있다.

중국어에서 사동을 표현하는 장치는 두 가지가 있다. 중국어는 고립어(isolated language)로 사동 접미사에 의해 실현되는 사동법, 즉 형태적 사동법(morphological causative)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에 통사적 사동법(syntactic causative)과 어휘적 사동법(lexical causative) 통해 사동을 표현한다. 현대중국어의 통사 사동 형식으로는 일음절 통사표지(causative maker) '使, 叫, 讓, 令, 給' 등이 겸어식 구조를 형성하는 구문이 있다. 이러한 통사 사동은 '원인'을 나타내는 서술어와 '결과'를 나타내는 서술어가 통사적으로 구분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 밖에도 '把'자구문과 'V得'구문 등도 통사 사동의 형식을 통해 사동문을 구성한다.[1] 통사 사동문은 중국어의 전형적인 사동문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사동문 연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그런데 현대중국어에는 이러한 통사 사동문 이외에도 어휘적 수단으로 표현되는 다수의 어휘 사동문

* 본고는 김은주(2018)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요약하여 작성되었음.
** 고려대학교

1) 현대중국어의 사동이 주로 아래와 같은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논의가 일치된다.
(1) 致使賓語句: '타동사/자동사/형용사+목적어', '동사+결과보어+목적어' 구문
(2) 使字句: 사동 표지사 '使', '叫', '讓', '令', '給' 등이 겸어식 구조를 형성하는 구문
(3) 得字動結句: 'V得+보어'의 형식으로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문
(4) 把字句: 사동 표지사 '把'가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문
그러나 사동문의 분류 기준과 분류 형태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을 달리한다. '使'를 일종의 사동사로 보고 '使字句', '遞系式', '致使賓語句'를 어휘 사동(詞彙致使), '動結句', '得字動結句'를 통사사동(句法致使)로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周紅 2005), '使令句', '使成式', '部分得字句'를 어휘 사동으로 분류하고 일부 자동사와 형용사를 사동용법을 가진 '使動句'로 분류하는 견해도 있다(宛新政:2005). 본고에서는 Comrie(1981/1989), 宛新政(2005), 박미정(2002) 등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1)을 어휘 사동으로 (2), (3), (4)를 통사 사동으로 분류한다.

이 존재한다.

현대중국어의 사동에 관한 연구에서 어휘 사동은 통사 사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여 왔다. 그 이유는 통사 사동의 경우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형식적 표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사동문의 유형을 범주화 해내거나 이에 따라 의미적 특징을 체계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어휘 사동문의 경우 주동문에서 형용사, 자동사, 결과보어 등으로 사용되는 어휘들이 아무런 형태적 변화 없이 사동문에서 사동사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중국어의 형태적 특성 때문에 이를 규칙화하거나 범주화 해내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어휘 사동을 다룬 논의 중에서도 이러한 동사들에 대해 품사적 문제를 다룬 연구가 비교적 많은 편이고 사동화라는 관점에서 그 범주와 특징을 전면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드물었다. 따라서 본고는 현대중국어에서 하나의 동사 술어로 사동의 의미를 표현하는 어휘적 사동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어휘 사동문의 범주를 확정하고, 어휘 사동문이 어떠한 통사 의미적 기제에 의해 사동의 의미를 구현해 내는지 어휘 사동의 통사적 특징과 의미적 특징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이로써 범언어적으로 다양한 양상으로 실현되는 사동태라는 문법범주를 보다 더 깊이 인식하는 동시에 현대중국어 사동의 유형론적 위치를 새롭게 점검해 본다.

2. 현대중국어 어휘사동문의 범주와 통사적 특징

2.1 보충형 어휘 사동(suppletion causative structure)

보충형 사동이란 사동 용언과 비사동 용언의 형식적 연결에 있어서 어떤 규칙성도 찾을 수 없는 어휘 사동 형식으로 Comrie(1981/1980)는 영어의 ‘kill’과 ‘die’, 러시아어의 ‘ubit(죽이다)와 ‘umeret(죽다)’처럼 보충 짝(suppletive pairs)으로 이루어진 사동 형식을 가장 명확한 어휘 사동의 예로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형식은 ‘결과표현 형식과 원인표현 형식 사이에 규칙성이 전혀 없어서 어휘로서 처리할 수밖에 없으며, 어떠한 생산적 과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동이다’라고 언급하였다. Dixon(2000) 역시 이러한 사동 형식을 가장 원형적인 어휘 사동으로 보았는데, 이렇게 보충 짝으로 이루어진 보충형(suppletion)을 가장 명확한 어휘 사동의 예로 꼽는 이유는 사동형식과 비사동 형식의 연결에 있어 어떤 규칙성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중국어에서도 일부 대격 동사가 동사 자체의 특성으로 인해 사동의 의미 구조를 만들어 내는 형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동사는 의미적으로 대립되는 주동사를 설정할 수 있지만 주동문에서는 사용될 수 없다.[2)]

(1) a. 地主殺牛殺馬來大吃大喝。
지주는 소와 말을 잡아 잔치를 열었다.
b. 目前我們要多喂點粗飼料。
이제 우리는 굵은 사료를 더 많이 먹여야 한다.
c. 妻子送丈夫去，母親送兒子去參軍。
아내는 남편을 군대에 보내고, 모친은 아들을 군대에 보냈다. (BCC)

이러한 동사들은 어휘 자체에 사동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가의 변화나 논항의 위치 이동

2) 현대중국어의 ‘食(shí)’과 ‘食(sì)’, ‘飮(yǐn)’과 ‘飮(yìn)’ 역시 의미적으로는 사동-비사동이라는 교체를 이룰 수 있지만, 이들은 형태적 교체를 통해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성조의 변화를 통해 교체 쌍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동형과 비사동형의 성조 교체는 고대중국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사동용법이 현재까지 소실되지 않고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며, 형태적 사동법의 특성에 더욱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없이도 사동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중국어에서 사동-비사동의 보충 짝으로 설정할 수 있는 동사의 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다소 비생산적인 사동으로 볼 수 있다.

2.2 영파생 어휘 사동(zero-derivation causative structure)

현대중국어의 사동사 중에는 주동문에서는 형용사나 자동사로 쓰이는 술어들이 사동문에서 목적어를 가지면서 사동화(causativization)의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현대중국어의 일부 형용사와 자동사는 사동사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사동 관련 연구에서 이러한 용법은 대부분 '겸류사 사동 용법'으로 분류되어 왔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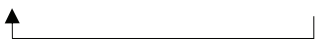
(2) a. 他很痛苦。(A)
그는 고통스러워한다.
b. 父母的離世痛苦着他。(V)
부모님의 죽음이 그를 고통스럽게 한다.
c. 人們的思想麻痹了。(Vi)
사람들의 생각이 마비되었다.
d. 舊社會的統治麻痹了人們的思想。(Vt)
낡은 사회의 통치가 사람들의 생각을 마비시켰다.

사동목적어를 수반할 수 있는 형용사로는 상태성이 강한 이음절 성질 형용사가 다수를 차지하며, 동사의 경우 동작동사, 상태동사 모두 사동화가 가능하지만 [+변화], [+상태] 류의 동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4)] 이러한 술어들은 완전한 형태범주(어휘 층위)의 속성을 지니고 있으나 여전히 통사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즉 사동화가 가능한 형용사나 자동사의 내부구조를 살펴보면 사동 행위와 피사동 행위를 가시적으로 짐작할 수 있지만 두 형태소가 형태범주로 정착되어 더 이상 분리 될 수 없을 뿐이다.

주동문의 주동사가 사동문의 사동사로 교체되기 위해서는 먼저 통사 구조에서 논항의 이동 과정을 거쳐야한다. 이러한 과정을 일종의 타동화 과정으로도 볼 수도 있다.

(3) a. 他的緊張抑鬱的情緒舒緩了。
그의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이 완화되었다.
b. 心理輔導舒緩了他緊張抑鬱的情緒。
심리상담은 그의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을 완화시켰다. (CCL)

(3) a′. [他的緊張抑鬱的情緒] [舒緩了]。
b′. [心理輔導] [舒緩了] [他緊張抑鬱的情緒] *ti*。



형용사나 자동사가 사동사로 쓰일 때, 형태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통사 구조에서 하나의 논항이

3) 겸류사적 용법이라는 분류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이러한 술어들의 품사적 구분 문제이다. 사실 겸류사로 분류되는 자동사와 타동사는 기본적으로는 모두 동사에 속한다. 또한 형용사로 분류되는 어휘들 역시 기본적으로는 동사적 특성, 즉 술어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겸류사라는 본래의 의미로 처리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겸류사는 동사와 명사, 혹은 형용사와 명사, 동사와 형용사처럼 서로 다른 품사에 속하는 어휘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4) 사동화가 가능한 형용사에는 일음절 형용사도 포함되는데, 일음절 형용사의 경우 사동화를 과정에서 반드시 '了'와 같은 문법적 장치의 도움을 받는다. 일음절 형용사 '紅', '急', '樂' 역시 사동문에서 동작의 시작과 변화라는 의미 자질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그 종결점, [+Telic]을 내포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피사동주의 상태변화와 결과상태를 나타내 줄 수 있도록 [+Telic]을 내포하는 상표지 '了'와 병합되어야 비로소 사동의 의미를 형성할 수 있다.

더 추가되며, 의미적으로는 원인사건과 결과사건을 동시에 나타내게 된다.[5] 본고에서는 이러한 술어의 품사 전환 과정을 영파생(zero-derivation)으로 보았는데, 영파생적 전환을 거친 일부 형용사와 자동사는 사동문에서 사동주의 힘을 동작의 대상 또는 변화의 대상에 작용하게 하고, 동작이나 변화의 대상을 어떠한 결과나 상태에 놓일 수 있도록 하는 사동술어의 역할을 한다.[6]

3.3 복합어 어휘 사동(verb-compound causative structure)

복합어 사동 구문은 동사의 뒤에 보충어(complement)가 결합된 형식을 술어로 사동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구문이다. V-V구조로 이루어진 복합어 사동 구문에서 원인을 나타내는 술어 'V_1'과 결과를 나타내는 술어 'V_2'는 순서대로 결합하여 사동문에서 사동의 의미 구조를 만들어 낸다. 복합어의 내부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어떤 동작을 통하여 사람 또는 사물이 갖게 되는 어떤 결과 혹은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러한 성격이 사동의 의미 기능을 나타내는 데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7]

(4) a. 冷冷的寒風凍紅了學生們的雙頰。
　　매서운 겨울바람이 학생들의 두 뺨을 (얼려서) 붉게 만들었다.
　 b. 大火烤熱了四周的空氣。
　　큰 불이 사방의 공기를 (덥혀서) 뜨거워지게 했다. (CCL)

그러나 '원인-결과'의 의미를 내포하는 복합어로 형성된 구문일지라도 사동의 의미구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통사적 환경을 필요로 한다.

(5) a. 他吃饱了飯。
　　그는 배부르게 밥을 먹었다/밥을 먹어 배가 불러졌다.
　 b. 他喝醉了酒。
　　그는 술을 마셔 취했다. (吳爲善 2010:8)

이러한 유형의 복합어 구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보충어에 후행하는 목적어가 피사동주인지 동작의 대상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문 (5) 역시 '원인-결과' 구조의 복합어로 이루어져 있지만 사동의 의미구조를 가지지 못하는데, 목적어에 '飯'과 '酒'는 동작의 대상일 뿐 피사동주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피사동사건으로 간주될 수 있는 보충어에 대해 목적어 논항이 사건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결과사건을 발생시키는 피사동주의 의미역을 가질 수 없다.[8]

---

5) Song(1996a)은 고대중국어의 경우 동일한 동사가 본동사와 사동사로 사용되는 영파생 어휘 사동의 예가 광범위하게 나타났음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來'는 고대 중국어에서 본동사 [오다]와 사동사 [오게 하다]로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를 통해 고대 중국어의 영파생 어휘 사동을 긴밀 사동으로 보았다.(김성주 2003:37 재인용)

6) 영파생은 전성(conversion)이라고도 하는데, 형태상의 어떤 부수적인 변화도 없이 어휘의 문법범주를 바꾸는 과정을 의미한다(Lieber 2005:37).
　 a. I walked five miles to school.
　　나는 5마일을 걸어서 학교에 갔다.
　 b. He often took long walks in the hill.
　　그는 종종 언덕에서 긴 산책을 한다.

7) 현대중국어에서 'V_1'과 'V_2'가 결합된 복합어는 형태적 특성상 생산성이 매우 뛰어나다. 그중에서도 사동화가 가능한 복합어의 내부구조를 살펴보면, 'V_1'은 일반적으로 원인을 나타내는 동작성 술어가 출현하는 경우가 많으며, 'V_2'는 상태성 술어가 출현하는 경우가 많다.

8) 복합어 사동문 중에는 재귀사동(反身致使) 형식도 포함되는데, '妻子哭紅了眼。(아내가 울어 눈이 빨개졌다'와 같은 구문이 이에 해당한다. 재귀사동 형식은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관계가 '전체-일부'인 것으로, 사동주의 사동 행위 결과가 자신의 신체 일부에 미치게 됨을 나타낸다. 이러한 재귀 사동 형식은 피사동주가 어휘로 외현되지 않아 사동으로

복합어로 이루어진 사동문은 영파생 사동문과 기본적인 통사구조는 일치하지만 구체적인 방식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건구조적 특징을 달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파생 사동문과 비교해 볼때, '醉了'와 같은 영파생 사동사는 '취하게 하는' 사동사건과 피사동사건을 내포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복합어 사동사를 통해 표현해 보면, '喝醉(스스로 마시고 취하게 만드는)', '灌醉(강제로 마시게 해 취하게 한)' 등 구체적인 행위 '방식(manner)'이 드러나는 형식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3.4 도치식 어휘 사동(inverted causative structure)

도치식 어휘 사동이란 행위자가 경험자의 신분으로 대상 목적어의 위치에 출현하고 원래 활동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주어의 위치에 출현하는 사동 형식으로, 일반적인 어순을 벗어남으로 해서 사동 구문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문을 말한다.[9)]

(6) a. 那碗麵吃了他一頭汗。
그 국수 한 그릇이 그의 머리를 땀범벅이 되도록 만들었다.
b. 這封信抄了我半天。
이 편지 한 통이 나를 반나절 동안이나 베껴 쓰게 했다. (沈陽・何元建・顧陽 2001:117)

이러한 형식에 주로 출현하는 동사들은 '吃', '写', '做', '摸' 등과 같은 일음절 활동동사 또는 상태동사에 해당하는 동사들이며, 'V了'의 형태로 피사동주에 해당하는 NP2에게 활동 또는 상태의 변화를 야기하는 역할을 한다.

도치식 사동 구조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사동술어 VP가 수량사로 이루어진 결과성 목적어를 반드시 수반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예문 (6a)의 '머리를 땀범벅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결과 성분이 수량구(NumP)를 통해 표현되고 있으며, (6b)의 '반나절 동안 베껴 쓰게 했다'는 결과 성분이 NumP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도치식 사동 구조에서 VP가 수반하는 NumP로는 주로 시량(예: 一個禮拜), 동량(예: 好幾遍), 임시양사(예: 一頭汗), 단위수량(예: 半月的工資) 성분 등이 출현하며, 이러한 성분들은 술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치식 사동문의 술어는 대부분 활동 동사로 이루어지지만, 전체 사동문이 나타내는 의미구조는 완수사건(accomplishment events)에 속한다.

(7) a. He sweeps the floor clean.
그는 깨끗하게 마루를 쓸었다.
b. [[He sweeps the floor] CAUSE [BECOME [the floor is clean]]] (Dowty 1979:93)

Dowty(1979)는 (7)과 같이 하나의 사동사건은 두 가지 명제로 이루어져 있음을 언급하였다. 즉 (7)의 사건구조에서 첫 번째 명제는 활동이나 상태변화에 의한 과정을 나타내고, 두 번째는 그에 의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데 도치식 사동문에 출현하는 VP성분들은 대부분 활동동사나 상태동사로 동사 자체

범주화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사동의 형식적 구조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이 역시 사동 구문임을 알 수 있다.

9) 도치식 구조라는 개념은 기타 언어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으로 Blake(1994)에서는 영어, 독일어, 라틴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의 이러한 심리동사가 구(phrase)를 이루어 문장을 형성할 때 경험자가 목적어로 나타나고 객체가 주어로 나타나는 도치식 구조의 예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Jackendoff(1972)의 논항의 계층(hierarchy)에 따르면 행위자(Agent)는 논항계층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며, 경험자(Experiencer)논항은 대상(Theme)논항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다. 일반적인 문장 구조에서는 이러한 논항의 계층에 따라 의미역을 부여받게 되지만 도치식 사동구문과 같이 일부 동사에 의해 사동의 의미구조가 형성될 때, 각 논항이 부여받는 의미역의 순서에 도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만으로 상태의 변화에 이르게 하는 과정까지는 나타낼 수는 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야기되는 모종의 결과까지는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사동문이 완수사건의 구조를 가지기 위해서는 결과성분의 개입이 필수적인데, 도치식 사동문의 VP는 결과성분이라는 한정량의 논항을 가짐으로써 사건을 종결점으로 가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3. 나가며

원인사건과 결과사건이 복합사건을 이루는 구문을 사동문이라고 정의할 때 어휘 사동문은 그 복합사건을 하나의 사동사가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본고는 현대중국어의 어휘 사동문이 어떠한 기제를 통해 사동의 의미를 구현하는지 통사·의미적 특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현대중국어에서 어휘 사동은 언어적 특성상 사동을 표시하는 특정한 표지가 없기 때문에 문장 내 다른 요소의 개입이 작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소에 대해 충분히 점검을 받지 못했다. 비록 어휘 사동문이 동일한 형식적 수단에 의해 표현되는 형식일지라도 그 세부적 특성은 모두 다르게 나타나며, 원형성의 정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동사 자체의 기능에 대한 접근 이외에도 통사적 요소나 의미적 요소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차후 어휘 사동문에 대한 보완적 논의를 통해 보다 심화된 사동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보며, 이상으로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현대중국어의 ‘원형적 초래구문’

김원희*

<目 次>

1. 서론
2. 현대중국어의 ‘초래구문’
  2.1 ‘초래구문’의 정의
  2.2 ‘초래구문’의 의미관계
  2.3 ‘초래구문’의 범주화 문제
3. 현대중국어의 ‘원형적 초래구문’
  3.1 ‘원형적 초래구문’의 선정기준
  3.2 ‘원형적 초래구문’의 선정
4. 결론

1. 서론

‘초래(causation)’[1]라는 개념은 세계 언어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의미범주이다. 어떤 사물의 행위나 상태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내부, 외부의 작용이나 영향력의 다른 힘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런 다른 힘으로 연계된 두 사물의 관계를 개념적으로 표현 한 것을 ‘초래’ 라고 한다. 현대중국어는 언어 유형적 특성상 형태적 표지가 부족하여 다양한 구문 형식을 빌려 ‘초래’개념을 나타내는 ‘초래구문’의 범주화를 형성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초래’ 범주에 속한 현대중국어의 ‘초래구문’ 중에서 그 범주를 대표할 만한 가장 ‘전형적’인 보기에 해당하는 ‘원형적 초래구문’[2]을 선정하려 한다. 우선, 현대중국어에 나타나는 ‘초래구문’에 대한 정의와 ‘초래상황‘과 ‘피초래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초래구문’에 나타나는 의미관계에 대해 설명하겠다. 다음으로 원형 이론의 관점에서 기존의 ‘초래구문’ 범주화 문제에 대해 살펴 본 뒤 ‘원형적 초래구문’의 선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겠다. 마지막으로 ‘원형적 초래구문’의 선정 기준에 대해 고찰 해 본 뒤 다섯 가지 유형의 ‘초래구문’ 중 가장 원형효과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초래구문을 ‘원형적 초래구문’으로 선정하도록 하겠다.

2. 현대중국어의 ‘초래구문’

본 장은 현대중국어의 ‘초래구문’에 대한 정의에 대해 논하고, ‘초래구문’에 나타나는 의미관계와 범주화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 연세대학교

1) 중국어의 ‘致使’를 ‘초래’라고 번역한 것은 김현철(1999)을 참고했다.

2) 영어의 사역이동구문을 원형이론의 관점에서 ‘원형적 사역이동 구문’과 ‘비원형적 사역이동 구문’으로 나누었다. 본 논문에서도 가장 원형적 효과를 나타내는 ‘초래구문’을 ‘원형적 ‘초래구문’, 덜 원형적인 속성을 나타내는 ‘초래구문’을 ‘비원형적 ‘초래구문’으로 명명하였다.

2.1 ‘초래구문’의 정의

현대중국어에서는 ‘초래(致使)’라는 용어 외에 ‘致动’, ‘使役’, ‘役使’, ‘使成’, ‘使动’ 등의 용어도 사용되어 왔다. 후자에 속한 용어들은 경우에 따라 ‘초래(致使)’ 개념의 일부 개념만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 본 논문에서는 여러 언어현상을 포괄할 수 있는 광의의 의미범주에 속한 ‘초래(致使)’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기존 학자들은 ‘초래(致使)’라는 개념구조와 통사형식이 결합되어 나타난 문장을 대부분 ‘초래문(致使句)’이라 명명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문법 속에서 언어 표현의 의미 기술에 조합성의 원리가 작용한다고 보았고 문장구조를 부분의 합으로 보았다.

본 논문은 인지언어학적 관점과 골드버그 구문문법의 ‘구문’의 정의에 의거하여 현대중국어에 나타나는 ‘초래’개념을 나타내는 특수한 형태를 가진 구문을 ‘초래구문’으로 간주하고 ‘초래구문’은 그 구성요소들의 단순한 합이 아닌 문법 체계 안에서 어떤 구성체가 그 구성성분으로부터 유추할 수 없는 더 큰 의미의 구문의미를 가진 독립적인 구성체로 보고 본 연구를 진행하겠다.

2.2 ‘초래구문’의 의미관계

본 절에서는 두 개의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초래구문’에 나타나는 사건구조와 ‘초래구문’과 ‘인과’ 관계구문의 의미관계에 나타내는 개념적 차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초래’ 사태를 나타내는 ‘초래구문’의 사건구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초래구문’은 언어형태상 한 문장 형태로 표현되지만 본질적으로 두 개의 사건구조인 ‘초래상황’과 ‘피초래상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래자’가 ‘초래력’을 발휘하여 ‘피초래자’에게 영향력을 주는 부분이 ‘초래상황’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피초래자’가 ‘초래상황’의 영향력을 받고 ‘초래결과’라는 변화를 가져오는 부분이 ‘피초래상황’이다. ‘초래구문’의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는 전체 구문의미는 구성요소의 단순한 총합이 아니라 의미요소의 부분에는 없었던 전체 게슈탈트 구문 의미인 ‘초래상황의 영향력으로 인해 피초래자가 어떤 결과 상태에 이르게 되다’라는 의미의 통합된 구성체(게슈탈트)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초래구문’에 내포된 ‘인과’ 사건과 ‘인과’ 관계 구문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1) 因为河裡结了厚厚的冰，所以轮船开不出去了。
(강에 얼음이 두껍게 얼어, 기선이 나아갈 수 없었다.)

(2) 由于我数学课程学得认真，数学老师李西涛在课上表扬我“種瓜得瓜”，使我一直记住一分辛勤一分收成的道理，也对数学产生浓厚兴趣，以致成为我的终生职业。
(‘이서도(李西涛)’ 선생님은 수학 공부에 열심인 나를 보시고, 수업시간에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며 칭찬하셨다. 선생님의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노력한 만큼 얻는다는 이치를 새길 수 있게 하였으며, 이 일로 수학에도 깊은 흥미를 느껴 내 평생 직업이 되었다.)

위 예문(1)은 ‘인과’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복문, 예문(2)는 ‘초래’ 의미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복문이다. 본 논문은 예문(1)의 ‘인과’ 관계 복문과 예문(2)의 ‘초래구문’의 의미관계에 나타난 개념상의 차이를 원형이론의 원형적 보기와 주변적 보기 그리고 ‘초래구문’에 존재하는 의미요소인 ‘초래력’을 통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첫째, ‘인과’ 의미관계를 나타내는 복문은 원형적인 인과관계의 의미 속성을 많이 공유한 가장 원형적인 보기로 볼 수 있고, ‘초래구문’은 소수의 속성만 공유한 덜 원형적인 주변적인 보기로 볼 수 있다. ‘초래구문’에 내포되어 있는 인과사건을 직접적 물질세계속의 인과관계의미와 혼동하는 것은 원형적인 인과

관계와 유사한 의미 속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보면 된다.

둘째, ‘초래구문’에 존재하는 ‘초래력’은 ‘인과’ 관계를 나타내는 구문과의 개념상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요소이다. ‘초래구문’에 내포되어 있는 ‘원인 사건’과 ‘결과 사건’은 언어학적인 개념구조를 가지고 있고, 물질세계 속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는 논리학적인 개념구조를 나타낸다. ‘초래력’은 ‘초래상황’과 ‘피초래상황’을 연결하는 핵심의미요소로 ‘초래구문’의 ‘피초래상황’은 ‘초래상황’에 존재하는 ‘초래력’의 영향력으로 인해 나타난다. 반면 ‘인과’ 구문속의 원인 사건은 대다수의 근거와 이유로 제시될 수는 있으나 ‘초래구문’의 ‘초래력’과 같은 의미특징은 나타내지 않는다.

2.3 ‘초래구문’의 범주화 문제

본 논문은 기존의 현대중국어 ‘초래구문’ 범주에 속한 문형들 중에서 가장 문제시 되고 해결하기 어려웠던 ‘N1+使/让/叫+N2+V1+(N3)’구문 내에 존재하는 범주화 문제를 원형 이론의 관점을 적용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연구에서는 ‘N1+使/让/叫+N2+V1+(N3)’구문의 범주를 필요충분 자질의 집합으로 보았기 때문에 ‘N1+使/让/叫/令+N2+V1+(N3)’구문들 내에 존재하는 의미범주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광의의 관점에서 특수 표지로 구성된 ‘使’자문 유형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이러한 연구 방법으로는 ‘초래’ 개념 외에도 ‘명령’, ‘허락’, ‘방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고 의미와 용법이 교차하는 ‘N1+让/叫+N2+V1+(N3)’구문을 어떤 기준에 의해 동일한 범주의 구성원으로 보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기 어려웠다.

구문의 통합된 전체 게슈탈트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지언어학적 관점과 인간의 지각작용이 전체적이고 종합적이어서 범주화 행위도 형태의 전체적인 유사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는 관점에 입각하여 볼 때 다른 의미범주를 포함하고 있는 구문들을 동일한 의미 속성을 가진 동등한 구성원으로 보는 것은 올바른 범주분류 방법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N1+使/讓/叫+N2+V1+(N3)’구문 내에 존재하는 범주화 문제는 원형 이론의 ‘가족적 유사성’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구성원들의 관계를 보면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즉 형태가 유사하고 의미와 용법이 교차하는 ‘N1+使/讓/叫+N2+V1+(N3)’구문들은 ‘가족 닮음’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는 구문으로, 구문들 중 가장 원형 효과를 잘 나타내는 구문을 원형적 구문으로 선정하고 덜 원형적인 주변적 보기에 해당하는 구문을 비원형적 구문으로 구분하여 두 범주의 개념적 구조와 개념화 양상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N1+使/讓/叫+N2+V1+(N3)’구문을 필요충분 자질의 집합이 아닌 ‘원형’과 가족 닮음의 관계에 있는 ‘비원형’의 범주화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좀 더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둘째, 기존의 범주화의 고전 이론은 ‘N1+使/讓/叫+N2+V1+(N3)’구문의 의미요소와 의미 속성에 존재하는 정도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질적인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구성원 간에 존재하는 정도성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범주 구성원의 자격에 대해 윤석만(2003:98)은 범주는 가장 전형적인 구성원인 원형을 중심으로 다른 구성원들이 상대적으로 등급화 된 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원형 이론을 통해 범주의 가장 전형적인 보기인 ‘원형’과의 유사성의 정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N1+使/讓/叫+N2+V1+(N3)’구문 내에도 ‘원형적 초래구문’과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 ‘초래성’ 등급이 존재하리라 보고, 원형적 ‘초래성’ 등급 척도를 기준으로 하여, ‘비원형적 초래구문’의 각 의미요소에 나타난 의미 속성의 정도를 고찰하여 ‘N1+使/讓/叫+N2+V1+(N3)’구문의 ‘초래성’ 등급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N1+使/讓/叫+N2+V1+(N3)’구문의 범주의 구성원들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기존의 범주화 연구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N1+使/讓/叫+N2+V1+(N3)’구문들 중 ‘N1+讓/叫+N2+V1+(N3)’구문은 기존에 ‘초래’ 개념을 나타내지 않던 구문이 개념범주 확장과 어법화의 ‘층위화’ 현상으로 인해 ‘초래’ 개념 외에도 ‘명령’, ‘허락’, ‘방

임’의 개념을 나타내게 되었다. ‘N1+讓/叫+N2+V1+(N3)’구문은 ‘N1+使+N2+V1+(N3)’구문과 의미와 용법이 교차하는 복잡한 의미망이 형성되어, ‘N1+使/+N2+V1+(N3)’구문과 ‘N1+讓/叫+N2+V1+(N3)’구문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이러한 범주 경계 모호성에 대한 문제는 ‘N1+使/讓/叫+N2+V1+(N3)’구문들 중에 가장 원형 효과를 잘 나타내는 ‘원형적 초래구문’을 선정하고 가족 닮음의 관계에 있는 ‘비원형적 초래구문’과 어떤 개념적 양상의 차이를 보이는지에 제시할 때 범주 경계 모호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현상을 줄일 수 있다.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N1+使/讓/叫+N2+V1+(N3)’구문 내에 존재하던 기존의 고전적 범주화 문제는 우선 원형 이론의 ‘가족적 유사성’의 이론에 의해 가장 원형 효과를 잘 나타내는 구문을 ‘원형적 초래구문’으로 덜 원형적인 주변적 보기에 해당하는 구문을 ‘비원형적 구문’으로 선정하여 두 범주에 나타나는 개념화 양상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N1+使/讓/叫+N2+V1+(N3)’ 구문 내에 존재하는 ‘정도성’ 차이에 대해서는 원형적 ‘초래성’ 등급 척도와의 정도성 차이를 통해 ‘N1+使/讓/叫+N2+V1+(N3)’구문의 ‘초래성’ 등급을 설정하여 그 해결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는 위 두 가지 범주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원형적 초래구문’의 선정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겠다.

3. 원형적 초래구문

본 장은 원형이론의 관점에서 ‘원형적 초래구문’의 선정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5종류의 ‘초래구문’을 ‘초래구문’의 오류율과 습득 현황 그리고 도상성 원리와 사용빈도를 통해 ‘원형적 초래구문’을 선정하고자 한다.

3.1 ‘원형적 초래구문’의 선정기준

기존 논문에서는 특별한 선정기준 없이 ‘N1+使+N2+V1+(N3)’구문을 전형적인 ‘초래문’이라 지칭했다. 비록 사용빈도가 높은 것이 그 기준의 하나로 제시될 수 있지만 원형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는 가장 원형 효과를 잘 나타내는 구문을 원형적 보기로 선정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원형적 초래구문’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원형 효과의 관점에 근거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범주의 원형적인 보기를 먼저 습득한다는 원형 효과의 관점에 근거해 볼 때, 실제 교학 현장에 나타나는 ‘초래구문’의 오류율과 습득현황을 조사해보면 학습자들이 어떤 구문을 가장 기본 구문으로 인지하는지 유추해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은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학습하거나 습득된 구문을 기본 구문으로 인지하여 유사한 개념의 다른 구문에 대치하거나 응용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기본 구문으로 인지되는 경향이 높은 구문은 유사한 개념의 다른 구문을 판단하거나 추론할 때 원형적 보기로 제시될 수 있고 다른 구문에 비해 오류율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초래’ 범주에 속한 ‘초래구문’들의 오류율과 습득현황의 조사를 통해 가장 오류율이 낮고 습득율이 높은 ‘초래구문’을 ‘원형적 초래구문’에 근접한 기본구문으로 유추하고자 한다.

둘째, 원형적인 보기는 비원형적인 보기에 비해 그 범주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간이 덜 걸린다고 한다. 이는 언어 주체자의 인지적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초래구문’의 어순에 나타난 도상성에 대해 고찰해 볼 때 어떤 유형의 ‘초래구문’이 ‘초래’ 사태의 개념구조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현대중국어의 어순에 대해 이운재(2014)는 문장성분의 순차적 배열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사유방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기술했고,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중국어 어순에 존재하는 시간순서 원리와 인접성 원리를 설명했다. 또한 중국어는 어떤 사태에 대해 도상적 순서를 어순에 반영하려는 경향이 있어 문장성분의 선형적 배열은 시・공간의 개념적 순서와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고, 문장의 요소들은 개념적으로

긴밀한 요소일수록 서로 가까이 있으려는 경향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말한 도상적 순서란, 언어의 형태와 의미가 자의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관계, 즉 도상적 관계로 인지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초래' 범주에 속한 '초래구문'들 중에 순서의 원리와 거리의 원리가 가장 잘 반영된 '초래구문'을 '초래' 사태의 개념구조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원형적 초래구문'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셋째, '초래구문'의 범주에는 'N1+使/讓/叫+N2+V1+(N3)'구문과 같이 의미와 용법이 교차하여 문맥에서 치환이 가능한 '유사 동이어'가 존재한다. 원형 이론에서는 이러한 '유사 동의어'의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빈도가 높고 문맥의 제약을 덜 받는 쪽이 원형적인 보기가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논문은 宛新政(2005)이 제시한 여섯 가지 유형의 '초래구문' 중 기존에 전형적인 '초래문'이라 명명한 '使字句(N1+使/让/叫/令+N2+V1+(N3))'과 '致使性把字句(N1+把+N2+V1V2)', '使動句(N1+V1+N2)', '使成句(N1+V1V2+N2)', 'V得致使句(N1+得+N2+V1)'의 다섯 가지 문형을 '원형적 초래구문'의 선정대상으로 지정하여, 실제 교학 현장에서 나타난 오류와 습득현황을 통해 '원형적 초래구문'에 근접한 기본구문을 유추해 보고, '초래구문'의 어순에 반영된 순서의 원리와 거리의 원리, 그리고 사용빈도의 조사를 통해 '원형적 초래구문'의 선정기준에 가장 부합한 '초래구문'을 '원형적 초래구문'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3.2 '원형적 초래구문'의 선정

다섯 가지 유형의 '초래구문'을 오류율과 습득현황, 시간 순서 원리와 거리 순서 원리 그리고 사용 빈도를 통해 가장 '원형적 초래구문'에 부합한 '초래구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3.2.1 '초래구문'의 오류율과 습득 현황

아래 <표3-1>, <표3-2>는 한국어 사동구문을 현대중국어 '초래구문'으로 번역할 때, 현대중국어 '초래구문'을 한국어 사동구문으로 번역할 때의 오류율과 습득 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표3-1〉 한중번역

'초래구문'	문항	초·중급 (1-3년, 29명)		고급 (3년 이상, 24명)	
		완성률	오류율	완성률	오류율
N1+使/让/叫/令+N2+V1	7	14(48.3%)	15(52.7%)	20(83.3%)	4(16.7%)
	9	15(52.7%)	14(48.3%)	22(91.6%)	2(9.4%)
	14	20(68.9%)	9(31.1%)	24(100%)	0(0%)
N1+把+N2+V1V2	1	6(20.7%)	23(79.3%)	6(25%)	18(75%)
	4	1(0.3%)	28(97.7%)	5(21%)	19(79%)
	13	10(34.5%)	19(65.5%)	11(45.8%)	13(54.2%)
N1+得+N1+V1	4	15(52.7%)	14(48.3%)	16(66.7%)	8(33.3%)
	10	6(20.7%)	23(79.3%)	8(33.3%)	16(66.7%)
N1+V1V2+N2	13	4 (13.8%)	2586.2%)	11(45.8%)	14(54.2%)
N1+V1+N2	14	1(3.4%)	28(96.6%)	0(0%)	24(100%)

〈표3-2〉 중한번역

‘초래구문’	문항	초·중급 (1-3년, 29명)		고급 (3년 이상, 24명)	
		완성률	오류율	완성률	오류율
N1+使/让/叫/令+N2+V1	5	27(93.1%)	2(6.9%)	23(95.8%)	1(4.2%)
	8	26(89.6%)	3(10.4%)	23(95.8%)	1(4.2%)
N1+把+N2+V1V2	6	24(82.8%)	5(17.2%)	22(91.7%)	2(9.3%)
N1+得+N1+V1	12	23(79.3%)	6(21.7%)	23(95.8%)	1(4.2%)
N1+V1V2+N2	3	24(82.8%)	5(17.2%)	24(100%)	0(0%)
	11	20(69.1%)	9(30.9%)	23(95.8%)	1(4.2%)
N1+V1+N2	2	24(82.8%)	5(17.2%)	23(95.8%)	1(4.2%)

3.2.2 도상성 원리

도상성의 원리 중에서 우선 시간 순서의 원리에 가장 부합한 ‘초래구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3-3〉 순서의 원리에 의한 의미요소 배열

초래구문	시간 순서 원리
(3) 你太讓我失望了。 (당신은 나를 실망시켰다.)	①초래자→②(초래력)→③피초래자→④초래결과
(4) 她用叉子把春卷斷成兩段。 (그녀는 포크로 춘권을 두 조각으로 나눴다.)	①초래자→③피초래자→②초래력→④초래결과
(5) 他哢嚓一聲扭斷了黃瓜。 (나는 툭 오이를 비틀어 잘랐다.)	①초래자→②초래력→④초래결과→③피초래자
(6) 風吹得我十分舒服。 (바람이 부니 내 기분이 아주 상쾌해졌다.)	①초래자→②초래력→③피초래자→④초래결과
(7) 深情獻讀者, 方便千萬家。 (애정 어린 마음을 독자들에게 전하여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①초래자→②(초래력)→④초래결과→③피초래자

위 표<3-3>에서 시간 순서의 원리 즉 ‘초래상황’과 ‘피초래상황’의 발생순서인 ‘①초래자→②(초래력)→③피초래자→④초래결과’로 배열된 구문은 예문(3)와 예문(6)이다. 예문(5)과 예문(7)은 ‘피초래자’가 구문 뒤에 위치해 있고, 예문(4)은 ‘피초래자’와 ‘초래력’의 순서가 반대로 놓여 있어 순서의 원리에 맞지 않다.

다음으로, 도상성의 원리 중에서 거리의 원리에 가장 부합한 ‘초래구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3-4〉 거리의 원리에 의한 의미요소 배열

초래구문	거리 순서 원리[3]
(8) 你太讓我失望了。 (당신은 나를 실망시켰다.)	N1+(使/讓/叫/令) + N2+ V [●] (△) [◆] [■]
(9) 她用叉子把春卷斷成兩段。 (그녀는 포크로 춘권을 두 조각으로 나눴다.)	N1 + 把+N2 + V1 V2 [●] [◆] [▲] [■]
(10) 他哐嚓一聲扭斷了黃瓜。 (나는 툭 오이를 비틀어 잘랐다.)	N1 + V1 V2 + N2 [●] [▲] [■] [◆]
(11) 風吹得我十分舒服。 (바람이 불어 내 기분이 아주 상쾌해졌다.)	N1 + V1 得 + N1 + N2 [●] [▲] [◆] [■]
(12) 深情獻讀者, 方便千萬家。 (애정 어린 마음을 독자들에게 전하여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N1+ V1+ N2 [●] [■] [◆]

위 <표3-4>에서 거리 순서의 원리에 가장 부합해 보이는 '초래구문'은 예문(8)과 예문(11)이다. 예문(11)의 'N1+得+N2+V1'구문은 '정도보어'와 '상태보어'를 나타내는 기존개념에서 '초래' 개념으로 개념범주가 확장된 경우로 '초래' 개념을 나타내는 '초래구문'의 사용률이 낮고 '초래력'이 구체적 의미의 동사로 나타나 '원형적 초래구문'으로 선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초래상황'과 '피초래상황'이 발생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고 의미요소의 거리가 서로 인접해 있는 'N1+使/讓/叫/令+N2+V1'구문이 도상성 원리에 가장 부합하는 '초래구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초래' 개념을 나타내는 'N1+使/讓/叫/令+N2+V1+(N3)'구문의 네 가지 문형 중 어떤 구문이 가장 '원형적 초래구문'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위 네 가지 구문은 모두 '초래' 개념을 나타내고 있는 유사 동의어에 속한다. 이런 유사 동의어의 경우 원형 이론에서는 사용빈도가 높고 문맥의 제약을 덜 받는 구문을 원형적인 보기로 선정할 수 있다.

3.2.3 'N1+(使/讓/叫/令)+N2+V1'구문의 사용빈도

본 절은 사용기반 가설에 의해 실제 언어 말뭉치에서 나타난 'N1+使/讓/叫/令+N2+V1+(N3)'구문의 사용빈도를 통해 '원형적 초래구문'을 선정하도록 하겠다.

용법기반 모형의 관점에서 살펴보게 될 'N1+使/讓/叫/令+N2+V1+(N3)'구문은 실제 발화에서 상향적으로 얻어지는 도식의 방대한 언어의 망으로 파악된다. 도식에 대한 구체적 사례의 사용빈도가 높고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관용도의 정착도가 높은 사례에 속하며 그 정도에 따라 상대적인 분포도를 나타내게 된다.

본 논문은 'N1+使/讓/叫/令+N2+V1+(N3)'구문의 구체적인 발화 상황이나 문맥에 나타나는 언어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크게 구어체와 문어체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아래는 'N1+(使/讓/叫/令)+N2+V1'구문의 각 문체를 발화유형별로 나누어 조사한 통계결과표이다.

3) 초래자: ●, 초래력: △(추상적 개념의 초래력) / ▲(구체적 의미의 초래력), 피초래자: ◆, 초래결과: ■

〈표3-5〉 'N1+(使/讓/叫/令)+N2+V1'구문의 사용빈도

문체		발화상황유형	N1+使+N2+V1	N1+讓+N2+V1	N1+叫+N2+V1	N1+令+N2+V1	출현 횟수
구어체		상황초래형	51(11.59)	360(81.81)	2(0.45)	27(6.13)	440
		행위요구형	0	101(81.45)	23(18.54)	0	124
		행위허락형	0	108(100)	0	0	108
		행위방임형	0	13(100)	0	0	13
문어체	문예	상황초래형	110(48.67)	83(36.7)	12(5.30)	21(9.29)	226
		행위요구형	0	46(93.87)	3(6.12)	0	49
		행위허락형	0	28(100)	0	0	28
		행위방임형	0	11(100)	0	0	11
	정론	상황초래형	115(93.49)	8(6.50)	0	0	123
		행위요구형	0	6(85.71)	1(14.28)	0	7
		행위허락형	0	21(100)	0	0	21
		행위방임형	0	1(100)	0	0	1
	과기	상황초래형	82(40.79)	111(55.22)	3(1.49)	5(2.48)	201
		행위요구형	0	12(92.30)	1(7.69)	0	13
		행위허락형	0	5(100)	0	0	5
		행위방임형	0	0	0	0	0
	공문	상황초래형	130(73.44)	26(14.68)	2(1.12)	19(10.73)	177
		행위요구형	0	4(80)	1(20)	0	5
		행위허락형	0	10(100)	0	0	10
		행위방임형	0	1(100)	0	0	1

<표3-5>에서 알 수 있듯이 순수한 '초래'개념을 나타내는 '상황초래형'은 구어체를 제외한 문어체에 'N1+使+N2+V1'구문의 사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N1+令+N2+V1'구문은 비록 순수 '초래'개념을 나타내지만 사용률이 'N1+使+N2+V1'구문에 비해 아주 낮아 '원형적 초래구문'으로 선정되기는 어렵다. 그리고 'N1+叫+N2+V1'구문도 '초래'개념을 나타내지만 'N1+令+N2+V1'구문과 같이 사용률이 매우 낮고 다른 의미범주도 포함하고 있어 원형초래구문으로 선정될 수 없다. 'N1+讓+N2+V1'은 구어체에서 '초래'개념을 나타내는 사용률이 'N1+使+N2+V1'보다 훨씬 높고 'N1+叫+N2+V1'구문에 비해 사용비율이 높다. 하지만 다른 의미범주인 '행위요구형'、'행위허락형、'행위방임형'도 포함하고 있어 '원형적 초래구문'으로 선정될 수 없다. 따라서 순수 '초래'개념만을 나타내고 있고 가장 사용빈도가 높은 'N1+使+N2+V1'초래구문을 '원형적 초래구문'으로 선정하고, 다른 의미범주를 포함하고 있는 'N1+讓 / 叫+N2+V1'를 '비원형적 초래구문'으로 지정하고자 한다.

4. 결론

본 논문은 현대중국어 '초래구문'에 대한 정의와 의미관계 그리고 '원형적 초래구문'의 선정기준에 대해 고찰해 본 뒤 원형적 초래구문을 선정했다. 본문에서 기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골드버그 구문어법의 ‘구문’의 정의에 의거하여 현대중국어 ‘초래구문’의 용어에 대해 정의를 내렸고, ‘초래상황‘과 ’피초래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초래구문’에 나타나는 의미관계와 원형적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구문과의 개념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원형 이론의 관점에서 ‘초래구문’ 의 범주화 문제에 대해 고찰해 보고 ‘원형적 초래구문’의 선정 필요성에 대해 제시했다.

둘째, ‘원형적 초래구문’의 선정 기준에 대해 고찰 해 본 뒤, 5종류의 ‘초래구문’을 ‘초래구문’의 오류율과 습득 현황, 시간 순서 원리와 거리 순서 원리 그리고 ‘N1+(使/讓/叫/令)+N2+V1’구문의 사용 빈도를 통해 가장 원형효과를 잘 나타낼 수 있는 ‘N1+使+N2+V1’구문을 ‘원형적 초래구문’으로 선정했다.

〔參考文獻〕

골드버그(Adele E. Goldberg),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손영숙・정주리 공역 (2004), 구문문법, 서울: 한국문화사.

김동환(2013),『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이론』, 박이정.

M. Sandra Pena 지음; 임지룡, 김동환 옮김(2006),『은유와 영상도식』, 서울: 한국문화사.

야마나시 마사아키 山梨正明(2012),『인지구문론: 문법의 게슈탈트 』, 영남대학교출판부.

宛新政(2005),『現代漢語指使研究』, 浙江大學出版社.

李雪花・金原希(2015), <韩国学生致使句偏误分析及教学对策>,『中語中文學』第61輯, 611-636.

임지룡, 요시모토 하지메, 이은미, 오카 도모유키 옮김 (2004),『인지언어학 키워드 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임지룡(2006), <인지언어학 관점에서 본 의미의 본질>,『한국어 의미학』第21號, 1-29.

임지룡・김동환 옮김(2010),『인지언어학 용어 사전』, 서울: 한국문화사.

프리드리히 웅거리・한스-요르드 슈미트 지음; 임지룡・김동환 옮김(2010),『인지언어학 개론: 개정판』, 태학사.

4월 27일(토) 14:00~16:00

분과발표 2부

❖ 어학4분과 _ 언어 변천

(장소: 328호)

王贝贝(서울대) “X+容易+V” 구문의 특징과 문법화

姜燕(명지대) 浅析上古汉语“S+以+O+V+C”句式的致使情况
– 以《论语》, 《孟子》, 《吕氏春秋》, 《韩非子》为中心

홍현지(한국외대) 近古時期 중국어 북방음 韻母체계 연구

“X+容易+V” 구문의 특징과 문법화

王贝贝*

<目　次>

1. 서론
2. 술어 앞에 오는 “容易”의 품사에 대한 정의
3. “ X+容易+V”의 통사적 특징
4. “X+容易1+V”의 의미 특징
5. “容易”의 문법화 과정
6. 결론

1. 서론

1.1 문제의 제기

“容易”는 형용사로서 주로 술어 위치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1) a. 学汉语很容易，你跟我学。
　　b. 养活一家人，她真不容易。

그러나 “容易”는 술어 앞에도 올 수 있다.

(2) a. 汽油容易挥发。
　　b. 象棋容易学。
　　c. 这些知识可以很容易学到。

이 경우 “容易”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통사적으로는 어떤 제한을 받고 있는지, 또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지 등에 대해서 기존 연구는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문은 “容易”가 문장 속에서의 다양한 분포와 그 문법화 과정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증해 보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검토

奥田宽(2000)는 비교적 일찍 “好”와 “容易”의 조동사적 용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容易”가 세 종류의 의미를 표현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容易”는 “象棋容易学”와 같이 어떤 행위나 동작을 할 때 별로 힘이 들지 않는 것을 표현한다. 둘째, “容易”는 “象棋容易学好”처럼 어떤 행위나 동작을 통해 이상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음을 표현한다. 셋째, “容易”는 “夏天食物容易变质”처럼 발생하기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표현한다.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古川裕(2003)과 刘迪(2011)는 (“NP+容易/难+V”을 포함하는) “NP+AP+V”가 중국어의 중동구(middle construction)라고 생각한다. 중동구는 행위나 사건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이 특정한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묘사하는 것이다.

崔宰榮, 姜夢(2017)는 “容易”가 평가양태를 표현할 뿐이며 조동사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郭兴燕(2017)는 “NP+容易/难+V”가 실제로는 “어떤 행위나 동작을 진행할 때나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난이도”를 표현하거나, “가능성이 많거나 적음”을 표현하는 등 두 종류의 의미를 표현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선행 연구는 동사 앞에 오는 “容易”의 품사에 대해 명확한 고증을 하지 않았고 “X+容易+V”의 의미 특징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논증하지 않았다. 둘째, 선행 연구는 “容易”와 “好”나 “难” 와 유사한 어휘를 같이 고찰하였는데, 필자는 이 세 단어가 문장에서의 분포는 유사하지만 각 어휘의 문법적 표현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함께 고찰하는 것은 “容易”가 여러 종류로 분포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2. 술어 앞에 오는 “容易”의 품사에 대한 정의

2.1 “X+容易+V” 구문의 유형 구분

우선 상술한 예문(2)의 3개 문장을 아래와 같이 두 가지 테스트 기준에 따라 구분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테스트 기준은 “容易” 뒤에 “地”이 따라올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 테스트를 통해 우리는 C유형의 구문을 분리해낼 수 있다. C유형 구문에서 “容易”는 명확히 부사이고 “일을 하는 과정에 힘이 들지 않음”을 표현한다. 따라서 C유형 구문에서 “容易”는 실질적으로 “容易地”이며 “地”가 생략된 것일 뿐이다. 이러한 구문은 술어 앞에 오는 “容易”가 부사인지 조동사인지, 즉 우리의 “容易”의 성질에 대한 판단을 곧잘 헷갈리게 한다. 그러나 첫 번째 테스트를 통해 우리는 부사 “容易”를 확실히 분리해 낼 수 있고, 본문에서는 일단 이러한 C유형 구문에 출현하는 “容易”를 “容易2”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와 반대로 본문에서 A유형이나 B유형의 구문은 모두 “地”를 붙일 수 없는 “容易1” 라고 부르기로 한다. C유형 구문의 특징에 대해서는 본문의 3.2 부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한다.

(3) A. 汽油容易挥发。/ 汽油容易地挥发*
B. 象棋容易学。/ 象棋容易地学。*
C. 这些知识可以很容易学到。/ 这些知识可以很容易地学到。

두 번째 테스트 기준은 “好”나 “难”으로 “容易”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A유형의 “容易”는 “好”나“难”로 대체할 수 없지만, B유형은 대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 A유형과 B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4) A. 汽油容易挥发。/ *汽油好挥发/ *汽油难挥发。
B. 象棋容易学。/ 象棋好学。/ 象棋难学。

2.2 “容易1”의 품사

朱德熙(1982 : P66)는 술어 앞에 오는 “容易와 “难”에는 조동사적 용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汉语八百词≫도 “容易+동사” 구문의 “容易”는 조동사와 유사한다고 분석했다. 孙克敏(2011), 奥田宽(2000)와 马庆株(1992)는 모두 술어 앞에 오는 “容易”을 조동사로 처리하고 있다.

문법 위치상으로만 보면 “容易1”는 부사여서 부사어로 사용되거나, 조동사일 가능성이 모두 있다. 그렇다면 “容易1”는 과연 부사인가, 아니면 조동사인가? “容易1”의 품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필자는 다음의 두 가지 테스트를 진행했다.

테스트 1：

朱德熙(1982: 61)는 조동사는 아래와 같은 5개의 문법적 특징을 갖는다고 정리했다. 필자는 그의 기준에 따라 “容易1”의 특징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가. 술어 목적어만이 뒤에 올 수 있고 명사성 목적어는 올 수 없다. *容易东西
나. 중첩하여 사용할 수 없다. *容易容易、*容容易易
다. “了、着、过” 등의 접미사를 붙일 수 없다. *容易着挥发
라. “∽不∽” 구문으로 사용 가능하다. 容易不容易挥发
마. 단독으로 사용 가능하다.
?A：汽油容易不容易挥发？ B：容易。
?A：象棋容易不容易学？ B：容易。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가’에서 ‘라’까지는 모두 확실하게 기준에 부합하지만, ‘마’는 어감상 단독으로 사용 가능한지가 불명확하다. 왜냐하면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형적인 조동사 “能/敢”와 같이 명확하게 단독으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5) a. 你能不能帮我？能。
b. 你敢不敢跳？敢。

테스트 2：

蔡维天(2010)는 동사구 생략(VP-ellipsis)을 통해 부사와 양태조동사(modal auxiliaries)를 구분하였다. 생략 조건은 “중심어 관할 (head-governed)” 기제이다. 그는 동사구 생략을 인가할 수 있는 것은 중심어를 담당하는 조동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사는 일반적으로 부가어(adjunct)나 지정어(specifier) 역할을 담당하므로 동사구 생략이라고 인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테스트를 할 때 예문(6)a와 같이 조동사 “会”가 부사인“大概”의 표현(예문6b)과 달리 동사구 생략을 인가할 수 있다. 그러나 (6)c나 d를 보면 “容易1”는 인가가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모두 존재한다.

(6) a. 阿Q会去县城，小D也会_____。
b. *阿Q大概会去县城，小D也大概_____。
c. 汽油容易挥发，柴油也容易_____。
d. ？象棋容易学，围棋也容易_____。

상술한 두 개의 테스트 결과를 종합하면, “容易1”는 조동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 완전히 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형적인 조동사는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容易1”가 현재 부사에서 조동사로 문법화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문은 “容易1”을 완전히 허화되지 않은 조동사로 볼 것이다.

3. “X+容易+V”의 통사적 특징

3.1 X와 V의 특징

A유형은 동사를 기준으로 다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한 종류는 예문(7)과 같다. 이 경우의 동사는 일반적으로 비대격 일원동사(生锈, 挥发, 碎) 혹은 양태동사(激动, 疯狂)이다.[1)]

(7) a. 铁容易生锈。
b. 汽油容易挥发。
c. 没有框的玻璃容易碎。
d. 球迷们大都容易激动，也容易疯狂。

다른 한 종류는 예문(8)과 같다. 이 경우 동사는 주로 목적어 성분을 가진 비능격 이원 동사이다. 예를 들어 患, 养成, 接受, 找到 등이 있다.

(8) a. 近视眼患者容易患青光眼。
b. 独生子女容易养成发脾气的坏习惯。
c. 年轻人容易接受新事物。
d. 颜值高的人容易找到工作吗？

A유형 구문의 X 성분은 NP이고, 주어의 의미역는 주로 경험자(experiencer)이다. 주어는 “汽油”나 “近视眼患者”와 같이 일반적으로 총칭(genericity), 즉 한 종류가 공동으로 가진 속성의 주체를 의미한다.[2)] 그러나 아래 예문(9)에서 보는 것처럼 비한정 명사구나 특정명사구는 주어로 올 수 없다.

(9) a. *一块玻璃容易碎。
b. *有块玻璃容易碎。

그리고, 예문(10)와 같이 X위치에는 술어를 포함하는 절(clause)도 올 수 있다.

(10) a. 说真心话容易伤害对方的感情。
b. 快乐工作容易成功。
c. 跨学科研究容易获得高学术影响力。

전체적으로 보면 A유형 구문의 동사는 많은 경우 비자주동사 (nonvolitional verb)이다.[3)] 马庆株(1988)의 분류에 따르면 앞에서 언급한 “生锈, 挥发, 碎, 患, 养成, 接受, 找到, 成功, 发胖, 获得, 伤害” 등은 모두 비자주동사로 분류할 수 있다. 이는 A유형 구문에 오는 동사의 공통된 특징이다.

B 유형 구문의 주어는 명사성 성분이고 피행위자(patient)가 되는 주어이다. B 유형 구문의 X는 총칭일 수도, 특정명사구일 수도 있다. 동사는 “开, 解决” 등과 같이 자주동사일 수도 있고 “捉到, 写错” 등과 같은 비자주동사일 수도 있다.

1) 본문은 邓思颖(2011:P31)에 따라서 조동사 “容易” 뒤에 오는 형용사를 양태동사로 분류하고 통일해서 V로 표기한다.
2) Krifka et al(1995) 참고.
3) 자주동사(自主动词)와 비자주동사(非自主动词)에 관한 분류는 马庆株(1988) 참고.

(12) a. 电动汽车容易开。
b. 这类问题容易解决。
c. 河里的鱼容易捉到。
d. 简体字容易写错。

C유형 구문 중 NP는 행위자일 수도 있고, 피행위자일 수도 있으며, 주어는 일반적으로 한정성 성분이고, 동사 성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요구조건이 없다.

(13) a. 这些知识可以很容易学到。
b. 他很容易地在政府机关找到一份工作。

〈표1〉 세 종류 구문의 성분 구조 대조

	X의 속성	X의 의미역	X의 지칭	V의 특징	X의 속성
A	NP/절	경험자	총칭	비자주동사	X+容易1+V
B	NP	피행위자	총칭/한정	자주동사/비자주동사	
C	NP	행위자/피행위자	한정	자주동사/비자주동사	X+容易2+V

3.2 "容易+V"의 통사적 제한

C유형 구문의 "容易2+V"와 비교할 때 "容易1"+V 구문이 가지는 통사적 제한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완료상(perfective aspect) 표기인 "了"를 사용하여 검증해 볼 수 있다. "容易1+V"구문 형태의 2 개 예문(14a,b)에서 모두 술어 뒤에 "了"를 붙이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지만, "容易2+V"에는 완료상 표기인 "了"를 붙여서 이미 발생한 상황을 표현하는 사건구(episode sentence)이다. (예문14c).

(14) a. 年轻人容易接受新事物。/*年轻人容易接受了新事物。
b. 电动车容易开/*电动车容易开了。
c. 他很容易地在政府机关找到一份工作/他很容易地在政府机关找到了一份工作。

둘째, "容易2+V"이 표현하는 것이 아직 실현하지 않은 사건인 경우에는 "能, 可以, 会" 등과 같은 양태사가 오는 것이 강제적인 문법 조건이다. 하지만 "容易1"+V 구문에는 양태사를 붙일 필요가 없어서 양태사 없이도 문장이 성립한다. 본문은 예문(2)에 사용했던 세 개 문장을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다.

(15) A. 汽油(应该)容易挥发。
B. 象棋(可以)容易学好。
C. 这些知识可以很容易地学到。/这些知识很容易地学到。*

셋째, "容易2+V" 앞에는 일반적으로 "十分, 很, 比较, 最, 更" 등과 같은 정도 부사가 수식한다. 필자가 BCC의 "문학" 영역에서 "容易地"를 검색어로 검색한 바에 따르면, 검색된 276개 예문 중에서 3개 예문만이 "容易地" 앞에 정도부사가 수식하지 않았다. 반면 "容易1+V" 구문에는 반드시 정도부사가 수식할 필요는 없다.

Smith(1997)는 완료상 표기"了"와 비 상태구(non-stative sentence)가 같이 출현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위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容易1+V" 뒤에는 "了"가 올 수 없기 때문에 "容易1+V" 구문은 본질적으로 상태를 표현하는 특징구(characterizing sentences)이다. (본문 하단에서 이에 대해 상세히 분석할 것임)

〈표2〉 "容易1+V"와 "容易2+V"의 통사적 특징 구별

容易1+V	V뒤에"了"가 올 수 없음	반드시 양태사와 함께 쓸 필요는 없음	정도부사의 수식이 필수적이지 않음	특징구
容易2+V	V뒤에"了"가 올 수 있음	비현실사건은 반드시 양태사를 함께 사용해야 함	통상적으로 정도부사가 수식함	사건구

4. "X+容易1+V"의 의미특징

본문 3.2에서 필자는 "X+容易2+V"가 주로 구체적인 사건 의미를 표현한다고 분석했었다. 여기서는 "X+容易1+V"의 의미 특징을 중점 분석하고자 한다.

4.1 총칭 의미

Krifka et al(1995)의 정의에 따르면 총칭은 명사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명제일 수도 있다. 총칭이 명제로 쓰일 때는 특별한 사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 성질, 즉 어떠한 사건 중에서 귀납해 낸 규칙성을 표현한다. 이때 총칭은 NP가 아니고 한 문장의 특징이다. 또한 이 경우의 문장은 특징구라고 부를 수 있고 이 종류의 문장이 발생시키는 의미는 "총칭의"라고 부른다. "John smokes a cigar after dinner." 은 특징구에 속하는 문장이다.

영어에서는 총칭의미를 발생시키는 세 가지 상황이 있다. ① 어떤 어휘 형식이 총칭의미를 발생시킬 수 있다.(예문16a,b) ② "-able"과 같은 파생 형용사가 총칭의미를 발생시킬 수 있다.(예문16c) ③ 중동구도 총칭의미를 갖는다.(예문16d)

(16) a. Susan has the disposition to get the flu in winter. 苏珊冬天的时候容易感冒。
b. Milk tends to sour during thunderstorms. 雷雨天牛奶容易变酸。
c. The potato is highly digestible. 土豆容易消化。
d. This shirt washes easily. 这件衬衫容易洗。

이러한 대비를 통해 우리는 중국어의 "X+容易1+V"가 표현하는 의미가 영어에서는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①과 ②는 어휘 형식을 통해, ③은 구문 형식을 통해 표현된다. 그 중에서 ①가 표현하는 의미 유형은 본문에서 언급한 A유형 구문에 해당하고, ②와 ③이 표현하는 유형은 본문에서 언급한 B유형 구문에 상응한다.

Krifka et al(1995)의 논술에 따르면 어떤 문장이 특정구인지 아닌지는 "总是, 通常, 一般"등과 같은 부사를 넣어 검증해볼 수 있는데, 이 경우 A유형 구문과 B유형 구문 모두 성립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X+容易1+V"구문을 특징구라고 귀납할 수 있고 이 문장이 표현하는 것은 사물의 상태임을 알 수 있다.

(17) a. 汽油通常容易挥发。
b. 象棋一般容易学。

4.2 양태 의미

전반적으로 A유형 구문은 사물 혹은 사건에서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 경향성을 표현한다. 奥田宽(2000)는 "容易" 뒤에 오는 술어는 일반적으로 부정적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필자는 사물의 속성을

표현하는 “容易”가 반드시 부정적 의미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사물이 가진 특정한 상태 혹은 변화 발생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容易1”는 어떠한 양태의미를 가지는가? 필자는 여기에서 두 종류의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다. 첫번째 테스트는 다른 양태사와 A유형 구문의 “容易1”가 함께 출현하는 상황을 고찰해 보았다.

(18) a. 汽油可能/一定/应该容易挥发。
b. *汽油必须容易挥发。

이로부터 A유형 구문의 “容易1”는 “可能, 一定, 应该” 등 지식 양태 (Epistemic Modality)부사와 잘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테스트는 “容易1”을 “会”로 바꿔보는 것인데, 결과는 “会”로 대체해도 A유형 구문은 의미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19) a. 汽油容易挥发。/汽油会挥发。
b. 年轻人容易接受新事物。/年轻人会接受新事物。
c. 说真话容易伤害对方的感情。/说真话会伤害对方感情。

상술한 두 종류의 테스트를 통해 A유형 구문의 “容易1”가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지식 양태이고, 추측을 표현하는 “可能, 一定, 应该”등 의미와 잘 결합했다. 이는 Halliday(1970:331)가 말한 “양태의 조화로운 결합(Harmonic combinations)”이다.

한편, “会”와 유사하게 “容易1”도 조건성 가능성을 표현할 수 있다. 蒋绍愚(2007)은 예문(20)를 통해 “会”의 특징 중 하나는 “조건과 결과의 논리적 연결”이라고 정의한다. “容易1”도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특정 조건 하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즉 조건은 S이면, P가 발생할 수 있다. S는 명사성 성분일 수도 있고 절일 수도 있다.(S= 사물이나 사건, P=결과)

(20) 又如大黄吃着便会泻，附子吃着便会热(<朱子语类>)

그러나 B유형 구문의 양태의미는 A유형 구문의 양태의미와 다르다. 아래 예문을 보자.

(21) 象棋容易学。/*象棋会学。

李明(2016)과 曹广顺(2011)은 “好”가 중국어에서 평가 양태 조동사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숨겨진 화자 주어가 문법 주어에 대한 어떤 성질 평가를 표현한다. 필자는 여기서의 “容易”의 B유형 용법의 양태의미가 “평가(估价)” 양태로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 그림과 같이 “容易”는 두 종류의 양태를 표현할 수 있다. 한 종류는 지식 양태이고, 다른 한 종류는 평가 양태이다.

〈그림1〉 "容易" 두 종류의 양태



5. "容易"의 문법화 과정

술어 전에 오는 "容易"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필자는 "容易"의 문법화 과정을 고찰해 보았다. 晁瑞(2007)의 고증에 따르면 "容易"는 우선 어휘화 과정을 겪어서 "许可"의 의미를 표현하는 "容"과 "简易"를 나타내는 "易"가 결합된 후 형성된 단어이다. "容易"은 형성된 후 형용사로서 주로 "轻易"을 표현하였다.

(22) 况当在兵家, 言之岂容易(唐・元结诗)

송나라 시대에 "容易"는 세 종류의 용법이 있었다. 첫 번째 용법은 예문(23a)과 같이 당나라 시대까지도 존재했던 "轻易, 草率"의 의미이다. 두 번째 용법은 예문(23b,c)과 같이 어떤 일을 할 때 힘이 들지 않음을 표현하는 형용사로 사용되는 것으로 송나라 시대부터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세 번째 용법은 예문(23d)과 같이 "容易"가 동사 앞에 자주 출현하면서 부사의 성질을 가지게 되었다.

(23) a. 女出来相看曰：小弟容易, 老宿莫怪。(南宋・祖堂集)
b. 全不思量祖宗创造基业时, 直不是容易也！(南宋・大宋宣和遗事)
c. 时常眼泪不曾干, 只恐别郎容易见郎难。(南宋・张协状元)
d. 容易抛离不肯归。(敦煌变文集新书/父母恩重经讲经文(一))

원나라 시대에 이르러 술어 앞에 오는 "容易"는 주로 자주동사와 함께 사용되었다.

(24) a. 那厮们只是夜猫不是强盗, 有法度容易提防, (元・朴通事谚解)
b. 此时秋末冬初天气, 征夫容易披挂, 战马易得肥满。(明・水浒传)
c. 若是一两家, 晁夫人也倒容易拣择。(明・醒世姻缘传)

명나라와 청나라 시기에 이르면 "容易"는 비자주동사와도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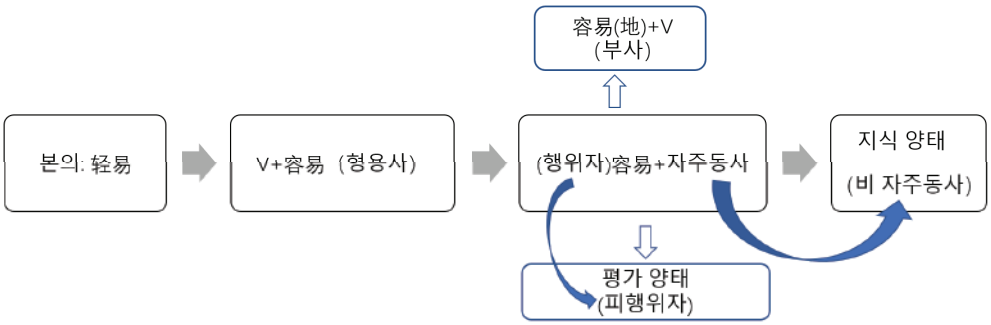
(25) a. 贾道士病中容易焦躁, 便骂道：狗弟子孩儿！你晓得什么。(明・平妖传)
b. 繁华到极, 便容易沦于虚浮。(清・二十年目睹之怪现状)
c. 古人打仗, 以铠仗鲜明威慑敌人, 常常容易取胜。(清・曾国藩家书)

"容易"의 어휘화 과정이 완성된 후에는 행동의 주체가 어떤 일을 할 때 힘들지 않음을 주로 표현하였다. 그런데 "容易"가 동사 뒤에서 쓰이던 것이 동사 앞에 쓰이기 시작하면서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완성하는 과정이 힘들지 않았음을 표현하게 되었고 뒤에 오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자주동사였다. 이후 "X+容易+V" 구문은 2개의 분화 과정을 거쳤다. 첫째는 X의 위치에 피행위자가 오면 전체 문장은 "평가"의 의

미를 가지게 되었다. 둘째로 X가 경험자이고 동시에 동사 위치에 비자주동사가 오면 전체 문장의 의미는 재분석을 통해 경험자가 외부의 힘을 극복할 수 없어서 비자발적으로 어떤 상태에 진입하게 되고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표현한다.

C. Lehmann(1995:98)는 V와 NP 사이에 위치한 부사는 대체로 두 개의 방향으로 문법화가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그 중 하나는 부사와 V의 관계가 밀접해져서 동사의 부가성분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容易"의 조동사적 용법은 부사로부터 문법화가 진행되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림 2〉 "容易"의 문법화 경로



6. 결론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문 내용을 정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본문의 관점은 술어 전에 오는 "容易"는 두 개의 성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부사로 문장 내에서 구체적 사건을 표현한다. 다른 하나는 "容易"가 조동사로 사용된 문장은 특징구이다.

(2) "容易1"는 현재 부사에서 조동사로 문법화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조동사의 성질을 갖지만 아직 전형적인 조동사로 허화되지는 않았다.

(3) 조동사로 쓰이는 "容易"는 두 종류의 양태를 표현할 수 있다. 한 종류는 지식 양태이고, 다른 한 종류는 평가 양태이다. "容易"가 양태를 표현하는 용법은 "X+容易+V" 구문 전체에 대한 재분석을 통한 문법화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다.

浅析上古汉语“S+以+O+V+C”句式的致使情况

— 以≪论语≫，≪孟子≫，≪吕氏春秋≫，≪韩非子≫为中心

姜燕*

<目　录>

1. 绪论
2. “S+以+O+V+C”句式的提取及分类
3. “S+以+O+V+C”句式的致使情况
4. “S+以+O+V+C”句式各语义角色特征
5. 结论

1. 绪论

王力（1980:373）指出：“‘致动’就意义上说，它是使宾语所代表的事物具有某一性质、行为，或成为另一事物。” 上古汉语“S+以+O+V+C”句式是否具有致使性是本文讨论的重点，换言之，哪些句式有致使性，哪些没有，具有致使性的句式各语义角色所呈现出的语法意义是怎样的？

为了解决这些问题，本文以≪论语≫，≪孟子≫，≪吕氏春秋≫，≪韩非子≫这四部作品为中心。首先从这四部作品中提取了“S+以+O+V+C”句式，然后通过论证提取有致使性的句式，最后分析具有致使义的“S+以+O+V+C”句式各语义角色特征。

董秀芳(2013:22)指出要理解语言的共时状况，离不开对历时演变过程的调查和分析，在解释历时变化规律时，也不能不把共时层面的情况作为一個参照系以提出合理的推测。

由此可见，历时研究有助于更好地理解语言共时层面的特点；共时研究也可以为历时研究提供一个参照系。所以，这样的比较研究既可以探究共时层面，即上古时期“S+以+O+V+C”句式致使情况，又有助于今后的历时研究，为其提供一个共时层面的参考。

2. “S+以+O+V+C”句式的提取及分类

“S+以+O+V+C”句式到底属不属于处置式，其实在语学界存在分歧。对于处置式的起源在学术界大概有三种看法：

第一，以王力(1980:408)为代表，认为在上古时期和中古的上半期，汉语里还没有处置式的存在。

第二，以陈初生(1983:201～206)和太田辰夫(1987:241)为代表，认为最早的处置式是“以”。

第三，梅祖麟(1990:194)认为处置式的发展经历了三个阶段，先秦的“以”字处置式，五、六世纪“将”字处置式和“以”字处置式通用，唐代“把”“将”字处置式通用，以后就形成了现代的“把”字句。并且梅祖麟(1990:194)认为先秦就有用“以”字表示处置(给)的处置式，从先秦到南北朝一直有表示处置(作)的处置式，先秦的“以”字不能表示处置(到)的意思。

* 明知大学中文系

综上所述，各家各派对处置式的起源还是有很大的分歧。本文认为任何一个句法结构都有其发展的过程，处置式不是一朝一夕形成的，而且本文旨在探求“S+以+O+V+C”句式的致使性及各语义角色特征。所以，本文并不断言先秦时期没有处置式，也不主张把“S+以+O+V+C”句式称为处置式。

吴福祥(2003：2)认为汉语处置式的产生与演变经历了“连动式＞工具式＞广义处置式＞狭义处置式＞致使义处置式”。广义处置式有处置(给)，处置(作)，处置(到)三个句式，狭义处置式就是“将”，“把”字句。根据吴福祥的理论，本文至少可以认为具有致使义的“S+以+O+V+C”句式更接近于处置式，是处置式的一个萌芽阶段。

为了更好地探讨“S+以+O+V+C”句式致使情况，本文首先遵循以下原则从四部作品中提取了“S+以+O+V+C”句式：

1) 对于≪论语≫，≪吕氏春秋≫中的“S+以+O+V+C”句式，本文主要以边濬雨(1997)，张雙棣，殷国光，陈涛(2009)，将“以”解释为“表示工具、凭借等，用、拿、把、依据”和“把～作为，把～看作”的义项为依据，提取了同义项，同句式的“以”，然后将其释义和频率整理出来。

2) 在这里需要强调的是，本文对“以”的两个义项有所限制，首先，在“表示工具、凭借等，用、拿、把、依据。”这个释义中，不提取“用、拿、依据”义的语料，只提取“把”义的语料，即只提取“主语把什么怎么样”义的语料。然后，对于“把～作为，把～看作”义的语料，不提取“认为”义的语料，只提取“把～作为，把～看作”义的语料，即只提取“主语把什么看成什么，当成什么”义的语料。

3) 对于≪孟子≫，≪韩非子≫中的“S+以+O+V+C”句式，本文以CCL[1]所提供的语料为基准，首先提取了所有含有“以”的语料，然后以表示“把”和“把～作为，把～看作”两个释义为标准进行提取。

依据上述原则，本文提取了具有上述两个义项的语料，然后将其释义和频率整理出来，如表＜1＞所示：

＜表１＞ 四部作品“S＋以＋O＋V＋C”句式“以”释义和频率整理

	以１		以２		总
	释义	频率	释义	频率	频率
论语	把	8	把～作为 把～看作	1	9
孟子		22		24	46
吕氏春秋		16		42	58
韩非子		65		113	178

虽然本文不主张将“S+以+O+V+C”句式称为处置式，但是通过对上述语料的分析和比较，本文认为“S+以+O+V+C”确实存在梅祖麟(1990)和吴福祥(2003)所说的“给”义，“作”义，“到”义。所以，本文在这里对上述语料进行了再分类，将其分为“给”义，“作”义，“到”义。具体情况如表＜2＞所示：

＜表2＞ 四部作品“S＋以＋O＋V＋C”句式分类及其动词频率表

	“作”义		“给”义		“到”义	
	动词数量	例句总数	动词数量	例句总数	动词数量	例句总数
论语	1	1	5	8	0	0
孟子	1	24	6	19	2	3
吕氏春秋	1	42	6	14	2	2
韩非子	1	113	25	59	6	6

那么，这些“S+以+O+V+C”句式及其动词是否都具有致使义呢？换言之，哪些具有致使义，哪些不具有致使义？本文在下文会展开详细地论述。

1) CCL: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index.jsp?dir=gudai

3. “S+以+O+V+C”句式的致使义

张豫峰(2014)认为现代汉语中表致使态的“把”字句不仅包含致使词“把”和致使原因、致使对象和致使结果三要素，还具有四个特点：(1)句首词语常为名词性词语，关涉全句的原因事件。(2)致使对象在致使词“把”后，是句中主要谓词的主事。(3)句中动词性词语为已然致使结果。(4)该句式可以转换为“使”字句。本文以张豫峰(2014)提出的四个特点为标准来分别讨论。

3.1 表“作”义的“S+以+O+V+C”句式

本文把表“作”义的句式是否具有致使态四个特点的情况以表格的形式整理出来，如<表3>所示：

<表3> 表“作”义的“S+以+O+V+C”是否具有致使态四个特点情况统计表

	主语			宾语					谓语部分已然致使结果	可转换“使”字句
	名词或名词性短语	省略	原因事件	宾语位置				主事		
				“以”后	“以”前	动词后	省略			
论语	1	0	1	1	0	0	0	1	0	0
孟子	18	6	24	22	0	0	2	24	0	0
吕氏春秋	25	17	42	41	0	0	1	42	0	0
韩非子	65	48	113	91	4	0	18	113	0	0

如<表3>所示，主语是关涉全句的原因事件，宾语都是动词的主事，动词不具备已然性，句式无法转换为“使”字句。所以经分析证明≪论语≫，≪孟子≫，≪吕氏春秋≫，≪韩非子≫四部作品中所有表“作”义“的“S+以+O+V+C”句式均没有致使义，例如：

(3) 世之人主，多**以**珠玉戈剑**为**宝。（吕氏春秋/侈乐）
翻译：世上的君主，大多把珍珠、玉石、长戈和利剑看作宝物。

3.2 表“给”义的“S+以+O+V+C”句式

本文把表“给”义的“S+以+O+V+C”句式是否具有致使态四个特点的情况以表格的形式整理出来，但由于节省页面空间缘故，只列举具有致使义动词在这四个方面的凸显情况，如<表4>所示：

<表4> 表“给”义“S+以+O+V+C”句式致使态四个特点对应表

		主语		宾语			谓语部分已然致使结果	可转换“使”字句
		名词	原因事件	宾语位置		主事		
				“以”后	省略			
论语	妻	3	3	3	0	3	0	3
吕氏春秋	妻	1	1	1	0	1	0	1
	媵	1	1	1	0	1	0	1
韩非子	妻	1	1	1	0	1	0	1

如<表4>所示，≪论语≫中的“妻”，≪吕氏春秋≫中的“妻”和“媵”，≪韩非子≫中的“妻”可以满足主语为名词，是原因事件。宾语都位于“以”后，均是谓语动词的主事。并且都可以转换为“使”字句，但是谓语部分不具备已然致使结果的特征。

但除上述动词外，其他动词不能满足宾语是动词主事的条件，谓词部分没有已然致使结果特征，其句式不

能转换为“使”字句。所以除上述动词外四部作品中表”给“义的“S+以+O+V+C”句式均没有致使义，例如：

(4) A 请以头托白晏子也。（吕氏春秋/士节）
(我愿把头托付给您来为晏子洗清冤诬。)
B *请使头托白晏子也。

例(4)中主语虽然省略，但可以补充出来，是关涉全句的原因事件，宾语位于“以”的后面，“托”没有已然致使结果的特性，但是谓语部分如果将“托白晏子”改为“托给白晏子”的话，“给”就会帮助谓词部分突显其事件的终点。这里虽然没有“给”，但是“托”进入“S+以+O+V+C”句式后，其句式激活了“给”义的语义特征。但“头”不是“托”的主事，其句式转换为“使”字句后“请使头托白晏子也。”是个病句。所以，例(4)不具备致使义。

但是≪论语≫中的“妻”，≪吕氏春秋≫中的“妻”、“媵”，≪韩非子≫中的“妻”除了动词本身没有凸显已然致使结果以外，其他各项都满足处置式致使态的特征。

正如前面所阐述过的一样，本文所提取“S+以+O+V+C”句式在句法结构上存在残缺。本文提取的这些动词后没有补语或介词。因为古汉语表“给”义的“S+以+O+V+C”句式动词后直接为名词，不像现代汉语的“其他成分”需要有一个介词，即“给”。所以动词部分已然致使结果的特性并不具备。但是张豫峰(2014：94)指出：“把”字句的致使意义是通过致使词“把”和句中各个结构成分共同作用而实现完成的。本文认为整个事件的完成并不是由一个动词促成的，而是各个结构成分共同作用而实现完成的。所以，“S+以+O+V+C”句式激活了这些动词所关联的一些相关因素，虽然本文提取的这些动词后面没有介词或补语，谓词部分没有明确已然致使结果，但是当这些词进入“S+以+O+V+C”句式后，激活了“给”义的语义特征，使其动词部分具备已然致使结果的特征。例如：

(5) A 昔者郑武公欲伐胡，故先以其女妻胡君以娱其意。（韩非子/12.6）
翻译：从前郑武公想要攻打胡国，故意先把自己的女儿嫁给胡国的君主来使他心里高兴。2)
B 郑武公使其女妻胡君。
翻译：郑武公使自己的女儿嫁给胡国的君主。

例(5)主语“郑武公”是一个名词，是关涉全句的原因事件。宾语位于“以”后面，是这个作用力“妻”的主事。“妻”为”嫁“之义，虽然没有已然致使结果的特性，但是进入“S+以+O+V+C”句式后，激活了“给”的语义特征。可以转换为“使”字句，即，郑武公使其女妻胡君。所以“妻”进入“S+以+O+V+C”句式后具有致使义。

3.3 表“到”义的“S+以+O+V+C”

本文表“到”义的“S+以+O+V+C”是否具有致使态四个特点的情况以表格的形式整理出来，具体情况如＜表5＞所示：

2) ≪韩非子≫的翻译均出自张觉(1991)≪韩非子全译≫。

<表5> 表"到"义的"S+以+O+V+C"是否具有致使态四个特点统计表

		主语			宾语			谓语部分已然致使结果	可转换"使"字句
		名词	省略	原因事件	宾语位置		主事		
					"以"后	省略			
孟子	远	1	0	1	1	0	1	0	1
	及	2	2	2	2	0	2	0	2
吕氏春秋	先	0	1	1	1	0	1	0	1
	教	1	0	1	1	0	1	0	1
韩非子	往	0	1	1	1	0	3	0	3
	牵	1	0	1	0	1	1	0	1
	加	0	1	1	1	0	1	0	1
	先	1	0	1	0	1	1	0	1
	盈	1	0	1	1	0	1	0	1
	来	1	0	1	1	0	1	0	1

如<表5>所示，主语都是名词，并且是关涉全句的原因事件。宾语除一处省略，其他都位于"以"后，并且宾语都是后面动词的当事。动词不具备已然性，谓词部分是否已然致使结果并不明确，但是其句式都可以转换为"使"字句。例如：

(6) 焉有**以**一时之务**先**百世之利者乎？（吕氏春秋/义赏）

翻译：哪有把只顾及一时的放在对百世有利的前面的道理呢？

例(6)主语是关涉全句的原因事件，宾语位于"以"的后面，是"先"的主事。"先"虽然没有已然致使结果的特性，但整个句式激动了其"到"的语义特征。其句式可以转换为"使"字句，所以"先"进入"S+以+O+V+C"句式后具有致使义。

综上所述，虽然表示处置(到)的动词没有在句法结构上凸显其已然性，但是进入"S+以+O+V+C"句式后，激活了"到"的语义特征。并且可以满足所有条件，所以都具有致使义。

小结：综上所述，表"作"义的"S+以+O+V+C"句式没有致使性，表"给"义的≪论语≫"妻"，≪吕氏春秋≫"妻"、"媵"，≪韩非子≫"妻"所属"S+以+O+V+C"句式具有致使性，表"到"义的"S+以+O+V+C"句式都具有致使性。四部作品中"S+以+O+V+C"句式中具有致使性的语料频率如<表6>所示：

<表6> 四部作品中"S+以+O+V+C"句式中具有致使性的动词频率表

	"给"义		"到"义		比例
	词	语料	词	语料	
论语	1	3	0	0	33.33%
孟子	0	0	2	3	6.52%
吕氏春秋	2	2	2	2	6.90%
韩非子	1	1	6	6	3.93%

如<表6>所示，存在致使义的"S+以+O+V+C"越多，白话进程越快，数据除了≪论语≫以外，其他作品中具有致使义的"S+以+O+V+C"句式并不多。在这里本文暂且排除≪论语≫，因为语料较少，我们不能用低频语料去概括那个时代的语言特征。

4. “S+以+O+V+C”中各语义角色特征

本文对所提取语料中动词所支配的语义角色进行分析考察。探求当时具有致使义的“S+以+O+V+C”句式各语义角色的特征。

4.1 主语的省略和指人特征

杨伯峻・何乐士(2001)主语的省略是古汉语省略里最重要的问题，因为古汉语里省略主语的句子很多。可是在本文统计出的语料中，≪论语≫3个语料中无主语省略现象，≪孟子≫3个语料中 2 个主语省略，≪吕氏春秋≫4个语料中1个主语省略，≪韩非子≫中7个语料中2个主语省略。占具有致使义的“S+以+O+V+C”句式总数的29.41％。由此可见，本文所提取语料的主语省略现象比较普遍，这是符合古汉语的语法规则的。

张豫峰(2014:94)句首词语常为名词性词语，关涉全句的原因事件。本文对所提取语料中主语指人的特征也进行了考察，主语都具有指人特征。由此可见，本文所提取语料主语的指人性比较强。在具有致使义的“S+以+O+V+C”句式中主语由一个指人名词来充当，是关涉全句的原因事件。其语法意义可解释为“由主语发出某个动作，这个动词使宾语发生了某种变化。”

4.2 宾语的省略和受控特征

在本文所提取语料中，≪韩非子≫7个语料中宾语省略用例为2个，其余作品没有宾语省略现象。本文认为，在具有致使义的“S+以+O+V+C”句式中，宾语，即致使对象是一个信息焦点，具有承前启后的作用。所谓的承前启后指的是，承受主语给它的作用力，作用力在宾语身上实现的同时导致宾语会产生某种变化。

本文也对主语和宾语的控制与受控情况进行了考察，发现所提取语料中都有主语控制宾语的特性。所谓的主语控制宾语特性主要体现在两个方面，一是主语与宾语的等级关系上，二是主语为有生命体，宾语为非生命体，呈主语可控制的语义特征。本文将具体情况以表格的形式整理出来，如＜表7＞所示：

＜表7＞ 宾语受控的凸现情况频率表

	等级关系（主语＞宾语）	主语为有生，宾语非有生
论语	3	0
孟子	0	3
吕氏春秋	2	2
韩非子	3	4

如表所示，具有致使义的“S+以+O+V+C”句式中主语控制宾语的特性非常明显，达到了100％。例如：

(7) 何不亟**以**兵**来**？（韩非子/31.68）
翻译：为什么不赶快把兵带来呢？

(8) 仁者**以**其所爱**及**其所不爱。（孟子/尽心章句下・第一节）[3)]
翻译：仁人把他对待所喜爱者的恩德推而及于他所不爱的人。

例(7)主语为省略，宾语为“兵”，通过上下文意可以推断出主语和宾语之间的等级关系，主语应高为宾语，具有主语控制宾语的特性。例(8)主语为”仁者“，宾语为“其所爱”，主语为有生命体，宾语为非生命体，具有主语

3) ≪孟子≫的翻译均出自杨伯峻(2012)≪孟子译注≫。

控制宾语的特性。

4.3 致使事件在句法中的凸显情况

首先，本文对致使事件的词性也进行了考察，除如上文例(6)情况的两例以外，其他语料中致使事件是以名词或名词短语的形式出现在句法结构中，或者省略。例如：

(9) 胡不以其真往也?（韩非子/23.32）
翻译：为什么不把那只真的送去呢？

(10) 不仁者以其所不爱及其所爱。（孟子/尽心章句下・第一节）
翻译：不仁者却把他加给所不喜爱者的祸害推而及于他所喜爱的人。

例(9)的致使事件被省略，为“杖头”，解释为“手杖上”，为名词短语。在例(10)中致使事件为”其所爱“，为名词短语。分析得出，这里所有以名词或名词短语形式出现的都是省略了名词前面的介词。

5. 结论

本章以“以”为考察对象，提取了≪论语≫，≪孟子≫，≪吕氏春秋≫，≪韩非子≫中“S+以+O+V+C”句式。得出存在致使义的“S+以+O+V+C”越多，白话进程越快，数据证明四部作品中具有致使义的”以“字句式并不多，这也为对于上古汉语中”S+以+O+V+C“到底是不是处置式提供了旁证。

然后分析致使义“S+以+O+V+C”中各语义角色特征，即主语省略现象比较普遍，具有指人特性，宾语不常被省略，具有受控于主语的特性，致使事件以名词或名词短语形式凸现于句法结构上。

最后，正像前文所说，任何一个句式都不是一下子出现的，有其演变过程，在表“处置”义的处置式出现以前，“S+以+O+V+C”被广泛使用，所以，本文认为本文所分析出的这些具有致使义“S+以+O+V+C”句式为晚唐五代“把”，“将”致使义处置式的产生奠定了基础。

〔参考文献〕

王力，1980，≪汉语史稿≫，中华书局.
郭锡良，1981，≪古代汉语≫，第一册，北京：北京出版社.
陈初生，1983，＜早期处置式略论＞，≪中国语文≫.
太田辰夫・蒋绍愚，1987，≪中国语历史文法≫，北京大学出版.
梅祖麟，1990，≪梅祖麟语言学论文集≫，商务印书馆.
边濬雨，1997，≪论语词典≫，博士论文附录（未刊）.
张双棣・张万彬・殷国光・陈涛，2000，≪吕氏春秋译注≫，北京大学出版社.
杨伯俊・何乐士，2001，≪古代汉语语法及其发展≫，语文出版社.
吴福祥，2003，＜再论处置式的来源＞，≪语言研究≫.
周红，2004，＜现在汉语致使范畴研究＞，华东师范大学博士论文.
杨伯峻，2006，≪论语译注≫，中华书局.
张双棣，殷国光，陈涛，2009，≪吕氏春秋词典≫，商务印书馆.

王振来・苏莹莹，2012，＜现代汉语致使义表达研究＞，≪辽寧师范大学学报≫.
杨伯峻，2012，≪孟子译注≫，中华书局.
董秀芳(2013)，≪词彙化—汉语雙音词的衍生和发展≫(修订本)，商务印书馆.
张豫峰，2014，≪现代汉语致使态研究≫，复旦大学出版社.

近古時期 중국어 북방음 韻母체계 연구

홍현지*

<目 次>

1. 서론
2. 연구대상의 音韻체계
3. 韻母체계 변화
 3.1 舒聲韻
 3.2 促聲韻
4. 결론

1. 서론

중국어 音韻史에서 近代는 上古와 中古중국어를 회고하고 現代중국어로의 변화를 추론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近代 이른 시기인 近古의 북방음은 濁音淸化, 舌尖後音의 생성, 入聲韻의 陰聲韻化, 撮口呼의 생성, [-m]韻尾의 [-n]韻尾化, 兒化韻의 생성 등 現代중국어가 형성되어가는 과도기적 音韻변화를 담고 있어 이미 많은 音韻학자들이 주목하고 연구를 수행했던 분야이다. 音韻학계는 관련 연구를 北音學이라고도 칭한다. 하지만 종전의 北音學은 ≪中原音韻≫ 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채 이를 現代표준중국어의 전신으로 한정하여 연구의 시각을 제한시켰다는 한계가 있다. 北音學은 ≪中原音韻≫이 반영하는 공시적 音韻체계를 다룬다. 이를 기점으로 하는 音韻체계 연구는 現代중국어 형성의 音韻學적 맥락을 제공하지만 中古중국어에서 近古중국어로의 音韻변화에 대한 정보는 찾기 어렵다. 본 논문은 金代의 ≪五音集韻≫[1]과 元代의 ≪蒙古字韻≫[2] 그리고 明代의 ≪合併字學集韻≫[3]의 韻母체계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세 韻書를 대조 분석하여 中古 이후 북방음 韻母체계의 변화를 통시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동시에 음소의 변별적 자질을 활용하여 韻母 변화의 실제와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 한국외국어대학교

1) 韓道昭의 ≪五音集韻≫은 南宋시기 북방의 金에서 편찬된 韻書이다. ≪廣韻≫의 206韻을 160韻으로 병합하였고 각 小韻의 等呼관계가 ≪廣韻≫을 기반으로 하는 ≪韻鏡≫, ≪七音略≫ 등의 韻圖와 일치하는 등 音韻체계는 切韻系韻書를 기반으로 하였다. 하지만 韻部의 병합과 함께 重紐의 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中古시기 切韻系韻書가 지닌 규범적 韻母체계 요소들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中古시기를 대표하는 ≪廣韻≫의 音韻체계가 점차 近代중국어로 향하는 과도기적 音韻변화의 모습을 제한적으로나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2) 元代의 ≪蒙古字韻≫은 중국어 韻書史上 최초로 표음문자를 활용하여 중국어를 표음한 韻書이다. 파스파문자의 창제는 '譯寫一切文字'의 의의를 지닌다. 元은 각 민족의 언어에 대한 통일된 서사체계의 확립으로 文治를 강화함으로써 국가경영을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현실정책의 수요로 비롯된 파스파문자 창제는 곧 ≪蒙古字韻≫이 현실에 맞는 音韻체계의 반영이 우선시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과거 中古의 音韻체계가 아닌 당시 문인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音韻체계의 반영을 의미한다. 또한 파스파자모로 한자에 注音함으로써 反切이 지닌 표음의 한계를 보완하고 각 韻母의 음가에 대해 보다 정확한 轉寫를 가하였기 때문에 당시 북방음 音韻연구에 있어 매우 가치 있는 韻書라 할 수 있다.

3) 明代의 ≪合併字學集韻≫은 17세기 初에 편찬된 ≪合併字學篇韻便覽≫의 수록본으로 音韻체계는 이미 상당부분 현대중국어의 音韻체계에 근접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近代 북방음 音韻체계 변화의 향방을 제시해주는 매우 의미 있는 韻書라 할 수 있다.

2. 연구대상의 音韻체계

≪五音集韻≫(이하 ≪五音≫)의 160韻을 반절계련법에 따라 분류하면 106韻母로 귀납된다. 각 韻母의 재구음은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廣韻≫의 재구음을 참고하고 ≪廣韻≫과 ≪五音≫ 사이에 나타난 韻母 변화를 추론하여 그 음가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陰聲韻

攝	韻	等呼		재구음
止	脂	三	開	i
			合	iui
	微	三	開	iəi
			合	iuəi
遇	魚	三	開	io
	虞	三	合	iu
	模	一	合	u
果	歌	一	開	ɑ
	戈	一	合	uɑ
假	麻	二	開	ɨa
		三		ia
		二	合	ua
		三		iua
蟹	齊	四	開	iei
			合	iuei
	皆	二	開	ɨai
			合	uai
	灰	一	合	uæi
	咍	一	開	ai
	祭	三	開	iɛi
			合	iuɛi
	泰	一	開	ɑi
			合	uɑi
	廢	三	合	iuæi
效	宵	三	開	iɛu
	肴	二	開	ɨau
	豪	一	開	ɑu
流	尤	三	開	iəu
	侯	一		əu

陽聲韻

攝	韻	等呼		재구음
通	東	一	合	uŋ
		三		iuŋ
	冬	一	合	uoŋ
	鍾	三	合	iuoŋ
江	江	二	開	ɨɑŋ
宕	陽	三	開	iaŋ
			合	iuaŋ
	唐	一	開	ɑŋ
			合	uɑŋ
梗	庚	二	開	ɨɛŋ
			合	uɛŋ
	清	三	開	iɛŋ
			合	iuɛŋ
	青	四	開	ieŋ
			合	iueŋ
曾	蒸	三	開	iəŋ
	登	一	開	əŋ
			合	uəŋ
山	元	三	開	iɐn
			合	iuɐn
	寒	一	開	ɑn
	桓	一	合	uɑn
	山	二	開	ɨan
			合	uan
	仙	三	開	iɛn
			合	iuɛn
臻	眞	三	開	ien
	諄	三	合	iuen
	文	三	合	iuən
	殷	三	開	iən
	痕	一	開	ən
	魂	一	合	uən
深	侵	三	開	iəm
咸	覃	一	開	ɑm
	鹽	三	開	iɛm
	咸	二	開	ɨam
	凡	三	開	iɐm
			合	iuɐm

入聲韻

攝	韻	等呼		재구음
通	屋	一	合	uk
		三		iuk
	沃	一	合	uok
	燭	三	合	iuok
江	覺	二	開	ɨɑk
宕	藥	三	開	iak
			合	iuak
	鐸	一	開	ɑk
			合	uɑk
梗	陌	二	開	ɨɛk
			合	uɛk
	昔	三	開	iɛk
			合	iuɛk
	錫	四	開	iek
			合	iuek
曾	職	三	開	iək
			合	iuək
	德	一	開	ək
			合	uək
山	月	三	開	iɐt
			合	iuɐt
	曷	一	開	ɑt
	末	一	合	uɑt
	鎋	二	開	ɨat
			合	uat
	薛	三	開	iɛt
			合	iuɛt
臻	質	三	開	iet
	術	三	合	iuet
	物	三	合	iuət
	迄	三	開	iət
	沒	一	開	ət
			合	uət
深	緝	三	開	iəp
咸	合	一	開	ɑp
	葉	三	開	iɛp
	洽	二	開	ɨap
	乏	三	開	iɐp
			合	iuɐp

≪蒙古字韻≫(이하 ≪蒙古≫)의 15개 韻部에 수록된 69개 韻母는 파스파字母가 지닌 음소적 기능을 고려하면 50개 韻母로 귀납된다.[4)]

4) ≪蒙古≫에서 파스파字母와 중국어 음절의 각 음소는 기본적으로 일대일의 대응관계를 이루나 韻頭에서는 최대 두 개의 字母가 출현하기도 한다. 韻頭에 출현하는 파스파字母는 음소적 기능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선행

韻頭 \ 韻腹 \ 韻尾		e	ø				j		w		ŋ			n				m	
ø	i		i						iəu		iəŋ			in					im
ė			i						iəu		iəŋ			in					im
h			ï				/əj		əu		əŋ			ən					əm
i̯											iəŋ								
u̯			uei											iun					
ø	u	uei		u					ou	uŋ				un					
ė		iuei		iu						iuŋ	iuəŋ			iun					
u̯											uəŋ								
o	ø				ɔ				ou			uɑŋ			uɑn				
u̯o					uɔ														
ø						a	ai/aj	au/aw				aŋ			an			am	
e						iɛ		iau/iaw									iɛn	iɛm	
ė						iɛ		iau/iaw				iaŋ					iɛn	iɛm	
h												ɑŋ							
i̯						ia	iai/iaj	iau/iaw							ian			iam	
u̯						ua	uai/uaj	/uaw				uaŋ			uan				
u̯e						iuɛ													
u̯ė						iuɛ		/iuaw				iuaŋ					iuɛn		
ėo																	iuɛn		
ėe																	iɛn	iɛm	
攝 \ 韻		支	魚	歌	麻	佳	蕭	尤	東	庚	陽	眞	寒	先	覃	侵			

≪合併字學集韻≫(이하 ≪合併≫)의 25개 韻에 50개 韻母는 44개 韻母로 귀납되며 韻母체계와 함께 재구음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5)]

陰聲韻				
攝	韻	等呼		재구음
止	資	開	一	ɿ
				ər
			二	ʅ
			三	i
	居	合	二	ų
			三	y
祝	都	獨	一	u
			三	iu

蟹	咍	開	一	ai
			三	iai
	乖	合	一	uai
壘	盃	開	一	ei
	灰	合	一	uei
効	蒿	開	一	au
			三	iau
	包	合	一	uau
果	訶	開	一	o
			三	io
	多	合	一	uo

假	他	開	一	a
			三	ia
	誇	合	一	ua
拙	遮	開	一	ɛ
			三	iɛ
	靴	合	一	uɛ
			三	yɛ
流	鳩	開	一	əu
			三	iəu
	捋	合	一	uəu

陽聲韻				
攝	韻	等呼		재구음
通	登	開	一	əŋ
			三	iəŋ
	東	合	一	uəŋ
			三	iuəŋ

臻	根	開	一	ən
			三	iən
	昏	合	一	uən
			三	yən
山	干	開	一	an
			三	ian

	滿	合	一	uan
			三	yan
宕	當	開	一	aŋ
			三	iaŋ
	光	合	一	uaŋ

하는 聲母 또는 후속하는 주요모음에 영향을 주어 인접분절음의 자질변화를 유동적으로 이끄는 字母로 '/e/()', '/ė/()', '/h/()', '/o/()' 등이 있다. /e/와 /ė/는 음절의 細音을 나타내는 동시에 聲母에 대한 '/e/:/ė/'의 대립을 형성하여 聲母의 경구개음화에 관여하며 후속하는 [a]모음의 고모음화에도 관여한다. /h/는 후속모음의 후설모음화에 관여하며, /o/는 음절의 合口를 나타내는 동시에 후속모음의 후설고모음화에 관여한다. 둘째는 인접분절음의 자질변화에 영향은 없고 단지 음절의 合口 또는 細音 여부를 나타내는 字母로 '/u̯/()', '/i̯/()'등이 이에 속한다. 韻腹의 [i]와 [u]는 각각 '/i/()', '/u/()'로 표음되며 [a]는 대응되는 파스파字母가 없다. 韻尾에는 '/j/()', '/w/()', '/ŋ/()', '/n/()', '/m/()' 등 총 5개 字母가 있다.

5) ≪合併≫은 모든 輕脣音字를 合口・三等에 배속한다. 이는 輕脣音을 조음 할 때 입술을 오므리는 것과 撮口呼의 개음이 조음상 유사한 동시에 ≪合併≫이 독서음을 반영하는 운서로서 과거의 배속양상을 따르는 등 조음적, 기능적 특징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輕脣音字만을 수록하는 合口・三等韻을 독립된 韻母로 보지 않고 洪音韻母로 간주하겠다.

3. 韻母체계 변화

3.1 舒聲韻

1) 近古시기 북방음의 韻母변화에서 보이는 가장 일반적인 동화현상은 바로 모음상승이다. 비고모음인 주요모음이 개음의 [+고설성] 자질에 동화되어 모음상승의 변화가 나타났다.

① 개음 [i]·[u]의 [+고설성] 자질에 동화되어 모음상승이 일어났다.

《五音》 韻母	재구	모음상승	《蒙古》 韻	재구	변화	《合併》 韻	재구
魚韻	io	o → u / i + __#	魚韻	iu	분절음 융합	居韻	y
虞韻	iu	-					
戈韻	uɑ	ɑ → ɔ / u + __#	歌韻	uɔ	-	多韻	uo
麻韻	ia	a → ɛ / i + __#	麻韻	iɛ	-	遮韻	iɛ
麻韻	iua	a → ɛ / iu + __#	麻韻	iuɛ	분절음 융합	靴韻	yɛ

② 聲母의 [+고설성] 자질에 동화되어 모음상승이 일어났다.

《五音》 韻母	재구	모음상승	《蒙古》 韻	재구	변화	《合併》 韻	재구
歌韻	ɑ	ɑ → ɔ / 구개음 + __#	歌韻	ɔ	-	訶韻	o
					非연구개음 脣音化	多韻	uo

2) 북방음 韻母체계에서 주요모음에 미치는 韻尾의 영향은 주요모음의 전설모음화 또는 후설모음화의 변화를 일으켰다.

① 韻尾의 [+후설성] 자질에 동화되어 주요모음이 후설모음화하였다.

《五音》 韻母	재구	조음점 이동	《蒙古》 韻	재구	변화	《合併》 韻	재구
庚韻	ɨ/uɐŋ	① ɨ → i / 喉牙音 + __N ② ɐ → ə / __ + ŋ	庚韻	iəŋ	-	登韻	iəŋ
淸韻	i(u)ɛŋ	ɛ → ə / __ + ŋ					
靑韻	i(u)eŋ	e → ə / __ + ŋ					
曾韻	i(u)əŋ	-					
宵韻	iɛu	ɛ → a / i + __ + u	宵韻	iau	-	蒿韻	iau
江韻	ɨɑŋ	ɨ → u / __ + ɑŋ	陽韻	uaŋ	-	光	uaŋ

② 韻尾의 [+전설성] 자질에 동화되어 주요모음이 전설고모음화하였다.

《五音》 韻母	재구	조음점 이동	《蒙古》 韻	재구	변화	《合併》 韻	재구
咍韻	ai	-	佳韻	ai	-	咍韻	ai
泰韻	ɑi	ɑ → a / __ + i #					
灰韻	uæi	æ → e / u + ___i	支韻	uei	-	灰韻	uei
眞韻	ien	e → i / i(u)__ + n	眞韻	in	-	根韻	iən
眞韻	iuen		眞韻	iun	-	昏韻	yən

元韻	iɐn	ɐ → ɛ / i__ + n	先韻	iɛn	-	干韻	ian
仙韻	iɛn						
凡	iɐm	ɐ → ɛ / i + ___ + m	覃韻	iɛm	m → n / ___#		
鹽	iɛm	-					
元韻	iuɐn	ɐ → ɛ / iu__ + n	先韻	iuɛn	-	湍韻	yan
仙韻	iuɛn						

③ 聲母의 설첨자질에 동화되어 주요모음이 설첨모음화하였다.

《五音》		설첨모음화	《蒙古》		설첨모음화	《合併》	
韻母	재구		韻	재구		韻	재구
脂韻	i	i → ɨ / 精·莊 + __#	支韻	ï	ɨ → ɿ / 精組 + __#	資韻	ɿ
					ɨ → ʅ / 莊組 + __#		ʅ
		-	支韻	i	i → ʅ / 知·章 + __#		
					i → ər / 日 + __#		ər

3) 近古중국어 韻母변화에서 보인 모음상승과 조음점의 전후 이동은 모음의 중화로 이어진다. 중국어 韻母변화에서 중화는 중국어 韻母를 구성하는 모음음소 수의 감소와 결부된다. 《五音》에서 저모음은 전설과 후설의 위치대립이, 중모음은 개구도가 변별기능을 갖지만 《蒙古》에서 위치대립 또는 개구도의 차이가 중화되어 하나의 韻母로 통합된다.

① 蟹攝·開口의 一·二等韻, 江·宕攝, 그리고 山·咸攝 一·二等韻의 주요모음 [a], [ɑ]가 [a]로 통합되었다.

② 蟹攝·合口 一·三·四等韻의 주요모음 [ɑ], [æ], [ɛ], [e]가 [e]로 통합되었다.

③ 效攝·開口 二·三等韻의 주요모음 [a], [ɛ]가 [a]로 통합되었다.

④ 通·遇攝 三等韻의 주요모음 [o], [u]가 [u]로 통합되었다.

⑤ 梗攝의 주요모음 [ɐ], [ɛ], [e]가 [ə]로 통합되었다.

⑥ 山·咸攝 三·四等韻의 주요모음 [ɐ], [ɛ]가 [ɛ]로 통합되었다.

4) 모음탈락은 聲母의 영향으로 개음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이다.

① 非喉牙音字에 후속하는 二等·[ɨ]개음이 탈락되었다.

② 輕脣音에 후속하는 合口·三等의 개음이 탈락되었다.

③ 舌上·正齒·日母에 후속하는 三等·[i]개음이 탈락되었다.

5) 모음삽입은 중국어의 音韻변화에서 극히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止攝·合口·三等字의 莊組字에서 유일하게 나타났다. 고모음의 분절음 사이에 과도음이 생성된 후 과도음이 점차 저설모음화하여 중향복모음韻母가 형성되었다. 본 논문은 이를 권설聲母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주요모음이 인접분절음의 조음점에서 가까워지는 동화가 아닌 더 멀어지는 이화현상으로 분석하였다.

6) [-m]韻尾의 [-n]化는 近古시기 북방음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韻母변화이다. 양순비음韻尾가 지닌 [+순

음성] 자질의 탈락으로 비음韻尾 가운데 [+전방성]의 동일자질을 지닌 치경음비음韻尾로 변하였다.

3.2 促聲韻

入聲韻의 陰聲韻化는 近古시기 북방음의 韻母체계 변화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p]韻尾와 [-t]韻尾는 구강의 전반에서 형성되는 조음동작의 단절로 성문폐쇄음화 이후 [-ø]韻尾의 陰聲韻으로 변하였다. [-k]韻尾는 성문폐쇄음화 과정에서 조음점이 잔여자질로 남아 반모음을 생성한다. 저모음 또는 후설모음에 후속하는 경우 연구개이동음 [-w]가, 그 외의 경우에는 경구개이동음 [-j]가 생성되며 생성된 음운 성문폐쇄음韻尾 탈락 후 韻尾의 공백을 메워 중향복모음을 형성하였다.[6)]

《五音》	변화	《蒙古》	변화	《合併》
[-t]韻尾韻母	-t > -ʔ > ø / ___#	[-ø]韻尾韻母	-	[-ø]韻尾韻母
[-p]韻尾韻母	-p > -ʔ > ø / ___#	[-ø]韻尾韻母	-	[-ø]韻尾韻母
[-k]韻尾韻母	① -k>-^{w}ʔ>w / 후설모음+___# ② 주요모음 통합	[-ø]韻尾韻母	-	-ø]韻尾韻母
	-k>-^{w}ʔ>w / 저모음+___#	[-w]韻尾韻母	-	[-u]韻尾韻母
			주요모음과의 융합	[-ø]韻尾韻母
	-k>-^{j}ʔ>j / 非저모음+___#	[-j]・[-ø]韻尾韻母	-	[-i]韻尾韻母
			주요모음과의 융합	[-ø]韻尾韻母

4. 결론

近古시기는 中古중국어가 現代중국어로 변해가는 과도기적 音韻변화를 반영하여 음운학적 연구가치가 높다. 본 논문은 金의 ≪五音集韻≫과 元의 ≪蒙古字韻≫ 그리고 明의 ≪合併字學集韻≫이 반영하고 있는 韻母체계를 비교하여 近古시기 이후 중국어 북방음에 일어난 韻母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동시에 음소의 변별자질을 활용하여 近古시기 중국어 북방음 韻母변화의 실제와 그 원인을 규명해보았다.

본 논문은 ≪五音集韻≫의 160韻을 106韻母로 귀납하고 ≪蒙古字韻≫의 15韻・69韻母를 50韻母로 귀납하며 ≪合併字學集韻≫의 25韻・50韻母를 44韻母로 귀납하였다. 近古시기 北方音의 韻母체계는 合口・三等의 撮口化, [-m]韻尾의 -[n]化, 入聲韻의 陰聲韻化 그리고 인접 분절음에 동화된 주요모음의 모음상승과 전설고모음화 또는 후설모음화 등의 변화를 거쳐 음소 수의 감소와 개방음절의 우세라는 북방음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

6) [-p]韻尾는 입술을 폐쇄시킴으로써 앞선 분절음을 조음하기 위해 사용된 공기의 흐름을 순식간에 차단시키고 [-t]는 순간적 폐쇄가 치경음에 혀를 접착함으로써 이뤄지기 때문에 두 폐쇄韻尾 모두 구강의 앞부분에서 폐쇄점이 형성되어 [+전방성]의 공통자질을 지닌다. 반면 [-k]韻尾는 폐쇄점이 연구개에서 형성되어 [-전방성] 자질을 지니며 이는 성문폐쇄음과정에서 폐쇄의 조음점이 연구개에서 성문으로 이동하여 더 어두운 자질을 지니게 될 뿐 조음기관의 후반부에서 폐쇄가 형성되는 [-전방성] 자질은 동일하다. 즉 [-p], [-t]韻尾의 성문폐쇄음화는 폐쇄점의 [±전방성]자질 전환으로 구강 전반부의 조음동작이 탈락되었다면 [-k]韻尾는 폐쇄점이 동일한 [-전방성] 자질을 지닌 성문으로 이동하며 본래 연구개에서 형성된 접착이 잔여음가 생성으로 이어진다. 연구개폐쇄음 [-k]韻尾는 주요모음을 위해 조음점을 형성한 혀를 연구개로 끌어올려 폐쇄점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구강의 전반부에서 폐쇄지점이 형성되는 [-p], [-t]韻尾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음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 성문폐쇄음 [-ʔ]韻尾는 성대를 밀착시켜 긴장을 조성함으로써 폐쇄가 형성되는 음으로 韻尾에 선행하는 분절음을 위해 사용되는 혀의 조음점 형성에 非관여적이라 볼 수 있다. 즉 [-k]韻尾는 연구개폐쇄를 위해 후설을 끌어당기는 조음점 이동에서 폐쇄자질만이 탈락되어 조음점 이동은 그대로 남겨지게 된 것이다. 이로써 동일 조음점에서 반모음이 생성되고 성문폐쇄음韻尾의 陰聲韻化로 반모음이 韻尾의 공백을 차지하여 이중모음으로 변하는 것이다.

4월 27일(토) 14:00~16:00

분과발표 2부

❖ 어학5분과 _ 응용언어학

(장소: 311호)

김춘희(연세대)	韩国汉语禮貌语用教学
김웅(경북대)	2015 개정 교육과정 중국어 기본어휘의 텍스트 점유율 고찰
吳思敏(연세대)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 아동 중국어 교육
이혜중(한국외대)	음성언어가 수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 한중 수어에 나타난 차용어의 유형과 수용양상

韩国汉语禮貌语用教学

김춘희*

<目　次>

1. 引言
2. 汉语與韩国语的敬语、禮貌语用
　2.1 敬语
　2.2 禮貌语用
3. 汉语與韩国语的交际禮貌语用
4. 汉语與韩国语禮貌语用特點
　4.1 交际内容體现禮貌语用
　4.2 交际言语體现的禮貌语用
5. 韩国汉语教学中汉语禮貌语用教学探讨
　5.1 韩国学生的汉语禮貌语用偏误
　5.2 加强禮貌语用能力培养的教学活动
　5.3 编写重视汉语禮貌语用能力培养的汉语教材
6. 小结

1. 引言

使用敬语是韩国学生语言文化的特點。这一特點，对韩国学习者学习汉语的影响很大。汉语是没有形态标记的语言，日常会话中汉语恭敬义是通过上下文语义表达，说话者的态度、语调、肢體行为，以及一些汉语词汇、句式来表达的。得體的语言应用是汉语表达恭敬禮貌的重要方法。

国际汉语教学是以汉语本體研究为基礎的，而本體研究对汉语禮貌语的研究成果，在汉语教材中體现不足。與韩国人的语言生活相比较，中国人使用禮貌语言不带有强迫性。禮貌语言使用因人教养而異。因此，长期以来国际汉语教学中对汉语禮貌语用的教学比較薄弱，對韩汉语教学迫切需要填补这一空缺。重视汉语禮貌语用教学，不仅是提高汉语教学的品质，也是对汉语言生活实际的反映，是汉语言文化的一部分。

本论文研究，基於先贤对汉语敬语、禮貌语研究成果，通过情境交际中语言应用，说明汉语禮貌语用特點，探讨对韩汉语教学中有效地實施汉语禮貌语用教学的方法。

2. 汉语與韩国语的敬语、禮貌语用

2.1 敬语

敬语是含恭敬口吻的用语，如：请问、借光[1]。汉语对敬语的研究主要是对古汉语，现代汉语中的敬语研究，如：委婉语、道歉语、招呼语、谦辞等的研究。

韩国语有敬语[2]體系，且十分複雜。敬语又稱为尊卑法、恭逊法、尊敬法、谦让法、恭待法、敬让法、尊

* 연세대학교

1) 见≪现代汉语词典≫（2002:672）。

待法、敬语法等等。

2.2 禮貌语用

汉语是没有形态变化的语言[3]。也就是说，缺乏语法形态标记是汉语的特點。因此，是否是敬语，汉语很难从语法形态上直接看出來。

汉语敬语使用更多的是通过语境體现的。不同语境，不同身份交际者，使用相應的词语、语调、行为态度等，选择使用得體的言语，使交际者感到舒适，是汉语恭敬的含义，敬语的表达。因而只有从语用层面上理解汉语恭敬含意，才更接近汉语敬语的实质。陈松岑先生曾提出：禮貌语言是一切合於禮貌的使用语言的行为，是各種交际中合理和可接受的，表达利益的，特殊词语[4]。

汉语禮貌是一種语用现象，是话语者运用语言的策略。因此本文采用禮貌语用来表示汉语的敬语应用，并與韩国语的敬语使用进行对比，阐述汉语交际中禮貌语用的特點。

提及禮貌语用，不得不涉及禮貌原则，本文主要是指格莱斯提出的合作原则的四条準则，利奇提出的禮貌原则[5]，以及顾曰国提出汉语禮貌言语行为的禮貌準则[6]。学者们的观點，相互补充，體现本文关於禮貌的语用的标準和原则。

使用得體的语言手段完成交际任务，體现汉语禮貌语用。这也包括禮貌地破壞禮貌原则。例如代言人、记者之间的言谈交际。有时通过恰如其分地破壞禮貌原则，达到言语者的交际目的，表达说话人的观點。

国际汉语教学中禮貌语用教学，既包含交际中使用合作原则，符合禮貌準则的汉语词语，也应包括得體地破壞禮貌原则,委婉语应用方法。培养学习者禮貌语用的交际能力，是国际汉语教学中必不可少的一部分。

3. 汉语與韩国语的交际禮貌语用

为了了解交际中的禮貌语用，本文例举三個日常生活场景，这也是汉语教学中最先接触到的语境，来说明韩国语與汉语的禮貌语用體现。三個场景分别是打招呼寒暄、就餐、告别。人物选择分别是晚辈对长辈之间交际、與陌生人的交际、平辈之间交谈、平辈之间交谈关於长辈的近况、师生之间、职员與上司的交际等。

4. 汉语與韩国语禮貌语用特點

通过分析汉语與韩国语禮貌语的表达方式，可以看到，汉语與韩国语运用语言形式表达恭敬的方式既有共同之处，也存在著差異。

相同之处表现在交际内容上體現自谦、自贬，抬人、尊人。不同之处在於汉语在表达否定對方,或表达不满时，内容表示更委婉含蓄，有时单从语言符號或话语者的态度上，难以了解话者本意。使用词语方面，汉语與韩国语都有敬语词汇或短语。韩国语敬语词汇是成系统的，而汉语的敬谦词语更多地使用於书面语中，现代汉

2) 남기심 고영근 지음, <표준 국어문법>, 탑출판사, 1993년. PP.325-326.
3) 吕叔湘主编, ≪现代汉语八百词≫, 中国北京: 商务印书馆, 1996年。P.1。
4) 陈松岑（1989:4）: “冠以的禮貌语言是指一切合於禮貌的使用语言的行为以及使用的结果，狭义的禮貌语言则单指各種交际场合中具有合理性和可接受性的表达利益的特殊词语。”
5) 格莱斯（Grice, 1967）合作原则的四条準则:量準则、质準则、关系準则、方式準则。利奇在他的著作≪语用学的原则≫（1983）中提出禮貌原则，即得體準则（用於指令和承诺，减少表达有损於他人的观點。）、慷慨準则、赞誉準则、谦逊準则、一致準则、同情準则。
6) 顾曰国（1992）禮貌、语用與文化，≪外语教学與研究≫第4期。“汉语禮貌言语包括两层意义：一是内容上禮貌；二是在表达方式上禮貌。”并阐述了制约汉语言行为的禮貌规范，稱之为禮貌规范。对“贬己尊人準则、稱呼準则、文雅準则、求同準则、德、言、行準则”等五条準则作了进一步的阐释。

语口语使用較少，不成系统。

韩国语交际中，禮貌语是有形态标记的，汉语没有。韩国语不仅有对交际雙方,即说话者與聽话人的敬语表示方法，还有对第三者的敬语表达方法。韩国语敬语从语法到词汇成系统，语言交际生活中对禮貌语用有明确的要求。

4.1 交际内容體现禮貌语用

汉语與韩国语禮貌语用都有通过交际内容體现的特點。一方面从交际内容顺应话者意思应答，形成和谐的气氛；另一方面是根据交际对象选择交际内容的表达方式，也就是对不同的人有不同的表达，在不同的场合有不同的表达，重要的是讓聽者能够體会到话者的體谅和尊重。無论用什麽词、什麽句子、什麽内容，首先让聽者舒适；其次是话者选择使用文雅的词语。汉语敬重體验，光凭语言有时需要一點时间。

交际中表示禮貌，個人的修养，往往體现於恭顺的思维中。比如與长者对话时，晚辈应对的内容要顺从长者的语义来沟通，赞美长者的观點。例1：

晓梅：老爷爷，您多大年纪啦？
爷爷：89岁了。
晓梅：哟，看不出来。您这身體可真硬朗。
爷爷：不行了。你看，我牙都掉了。
晓梅：爷爷，我也掉牙了。您看！

禮貌语用表现在交际内容顺应交际者的思路，采取合作原则，多使用赞美对交际对象的词语，汉语與韩国语相同。这體现了禮貌语用中的合作原则。此外，禮貌语用也體现在交际者的态度言行上。有问有答，用词自然，态度温和，加之禮貌交际内容上的顺应，这是汉语禮貌语用明显的特點。

即便是拒绝，破壞禮貌语用中的合作原则，也会从内容表达的言辞上做调整，禮貌地拒绝。委婉表达是汉语和韩国语禮貌语用的又一特點。實際是拒绝，但通過內容委婉表达，字面上看不出恶意、不满、拒绝，例如:

例2：

本代表团对这個建议有著最大的同情，但是愿意指出……
我对某国傑出的代表懷有深深的敬意，但是我认为……

例3：

妈妈的朋友：晓梅，毕业了，工作也找到了，多不容易啊！ 祝贺你啊！
晓梅：谢谢阿姨。
妈妈的朋友：你妈说你还没有男朋友呢，要不要阿姨给你介绍一個呀？
晓梅：刚开始工作，我还没摸著门呢，每天忙得晕头转向的，真没心情谈对象。

例2、例3，实际内容从字面上看不出否定或拒绝的意思，而实际上表达的是不赞成，委婉地拒绝。例2中“但是”之前所表达的與话者主旨無关痛痒，“但是”之後才是实际要表达的内容，表达主旨是不赞成对方的建议。例3晓梅的拒绝十分委婉，从字面看没有否定，内容上只是表达自己状态十分忙碌，無法应对。顾左右而言他，委婉地破壞了禮貌语用的合作原则。

4.2 交际言语體现的禮貌语用

汉语禮貌语用使用的语境带有很大的随意性。而韩国语禮貌语用是日常言语生活的組成部分，是否使用禮貌语言会影响韩国人人生发展。

韩国语境中有长者、上级人士在场的交际场景，晚辈必须使用敬语體系，不仅在言辞上，也體现在肢體行为上。例如就餐场景中，與长者交际必然使用韩国语的敬语體系，同时还有一套固定的仪式，长者先提议“来，用餐吧（자，먹자.）”晚辈回应说：“잘 먹겠습니다.”然後才可以就餐。同时，在长辈面前饮酒时，要背过身，以示恭敬，自谦敬人。

再比如與陌生人交际场景中的禮貌语使用。学生坐公交车，往往会跟司機师傅打招呼说“辛苦了”；跟餐厅熟悉的服务员點完餐後，有时会说一句：“拜托您做的好吃一些。”告别时会说一句：“今天吃得真好，下次我还来啊。”在菜市场买菜，买完东西告别时，韩国人会说一句“많이 파세요.（多卖一些。再见）”。

韩国语的禮貌语用十分日常化生活化，这與汉语中禮貌语用似有不同。因而韩国学生学习汉语时，一方面会产生禮貌语用的负迁移，另一方面，还会出现在與长者或陌生人交际时，羞於開口说汉语的情况。

汉语的禮貌语用主要體现在交际内容的恭顺，與交际者的合作方面。同时委婉，不直接地表达，也是汉语禮貌语用的特點。根据不同的交际者，不同的交际目的，应对不同的内容，使用恰當的词语，是交际者感到舒适，是汉语禮貌语用教学应该予以重视的。

韩国语禮貌用语十分日常化。一方面韩国语言生活离不开敬语體系，语法、词汇都带有敬语的形态标记；另一方面韩国语禮貌语用思想與汉语十分接近。长幼有序，尊卑有别；自谦抬人；自贬贵人等。因此从语言交际内容方面看，禮貌语用内容有很多相似之处。

5. 韩国汉语教学中汉语禮貌语用教学探讨

语用能力是语言者的语言水平體现，它既反映出话语者的语音、词汇、语法、文字的掌握水平，同时也反映出话语者思维、文化教养。

对韩汉语教学，除了语音、语法、词汇、汉字的教学外，主要是培养学生聽说读写的语言交际技能。提高交际能力，完成交际任务，理解汉语言思维十分重要，汉语禮貌语用很好地體现著汉语言文化與思维方式，因此禮貌语用教学不可忽视。

其次，对汉语禮貌语用能力的掌握，韩国学生有很好的条件。韩国语自身就带有敬语體，因此何时使用禮貌语，韩国学生很容易理解。韩国学生使用汉语禮貌语时的问题在於，很容易扩大化，其次是选择恰當的词语。

韩国汉语禮貌语用教学展开，需要有针对性，以提高教学效率。首先了解一下韩国学生使用汉语禮貌语用的偏误，然後针对学习者的偏误，展开教学活动。

5.1 韩国学生的汉语禮貌语用偏误

韩国汉语学习者运用汉语进行交际时，最常出现的禮貌的语用偏误有两種，一種是不必要使用禮貌语而使用的情况，再一種是对交际对象选择错误的禮貌语。前者属於母语负迁移，後者属於目的语语内负迁移[7]。

不必使用禮貌语而使用的情况。例如就餐时，不必聽到长辈说“来，尝尝吧”後，回应说：“我会吃好的”，吃完饭後也不必在长辈说：“那咱们就这样吧。服务员，结账。”时回应说“吃得很好，谢谢。”再比如在公司办公室，不必说：“我先走了，大家辛苦了，明天见！”相互寒暄时，不必说“承蒙您关照，周末过得很愉快”“托你的

7) 这裡的语内负迁移（intralingual transfer)是指，学习者根据所学到的知识和掌握的结構来创造该语言中不存在的结構变體。

福，我身體很好。”等。又比如，受母语禮貌的语用的影响，下课时，学生與老师告别时总喜欢说：“老师辛苦了”，而实际上汉语的禮貌的语用是“老师再见”。

比如作自我介绍时，韩国语禮貌的结束语一般是“잘 부탁합니다.”因此，韩国学生在使用汉语作自我介绍後，也总喜欢说上一句“好好拜托大家了”抬高聽话人。说话人才感到舒服。但在汉语的实际运用中無需此言，禮貌的自我介绍结束的表达是“谢谢大家！”也就是無需贬己尊人的内容。

第二種偏误，是对交际对象选择使用不恰當的禮貌敬语。比如汉语教材中出现“高寿、令尊、告辞”等词，并有注释说，“高寿”是对年纪大的人使用的，含有敬意。“令尊”是稱呼别人父亲的敬词。那麽就有学生外出旅游时，遇到乡下老爷爷，就和有禮貌地攀谈起来，问老大爷：“老大爷高寿啦？”乡下老大爷一脸茫然,学生又问：“您多大年纪了？”这才得以开始完成交际任务。如果问一位文化水平并不高的人“高寿”，那显然一方遵守了使用禮貌语的规则，另一方却全然無感，造成交际失败。再比如，在中国生活的韩国主妇，得知保姆的父亲病愈出院了，想寒暄一下时说：“令尊身體是否已痊愈了？”可想而知，“令尊”对一個文化水平不高的小保姆是多麽的陌生，交际会陷入尷尬。

因此，汉语禮貌语用中，包含著使用符合交际对象身份的得體言辞，符合交际场景的语言和交际内容。语内负迁移的出现时源於学生对所学知识掌握不準确，或是因为教材、教师的说明與训练不充足造成的。

5.2 加强禮貌语用能力培养的教学活动

非目的语环境中的汉语教学，需要教师具备得體使用汉语语言的意识。教师是学生眼中中国形象的代表，活生生的汉语言权威。汉语教师不但有使用得體汉语应对的能力，还需要对韩国语有所了解，对韩国语语境下的汉语得體表达提供得體準确的幫助。

在情境中掌握汉语禮貌语用。设计对话情景，或角色扮演等口语练习时，注意设计对话人物的身份。及时给学生补充得體的词语和展开的内容。

情境。在设计的情境中运用，培养汉语禮貌语用能力。韩国语环境下的汉语教学，情境设计的真实性往往受到质疑。比如学习和朋友一起在餐厅吃饭。情景对话设计，学生大都没去过中国，难以想象是汉语环境裡的中国餐厅情景，学生背景知识中的中餐馆就是韩国中华料理店。那麽，我们可以通过视聽材料，幫助学生了解汉语语境中的餐厅裡，如何就坐、點菜、上菜、劝酒、聊天、结束。初级汉语水平学生也许说不出，但是输入的视频材料信息可以幫助学生建構汉语餐饮习惯的认知，以备具體實踐中使用。

协作。学习者之间协作，扮演不同身份角色，培养汉语禮貌语用技能。情景对话中多样身份人物。汉语教材编写由於强调贴近学生生活，因而课文出现人物往往是学生同龄人。但也有汉语教材编写课文时注意到不同身份人物之间的对话。比如≪맛있는 중국어≫中就出现了母子之间、男女朋友之间、师生之间、上下级之间等不同身份人物之间的对话。因而课堂练习很容易从模仿课文人物的角色扮演开始，在情境角色扮演中體验汉语禮貌语用思维，掌握汉语交际技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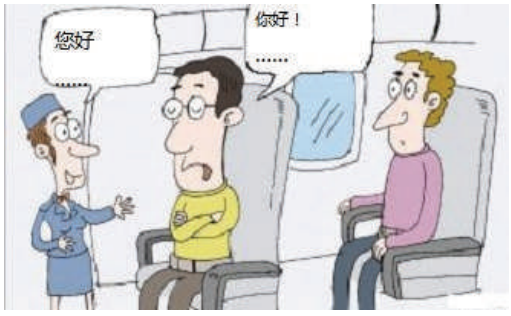
看图说话。使用與学生生活相关，有可能使用汉语进行交际的场景图片，比如乘坐飞機、與中国人就餐、爲中国遊客作导游、乘坐出租车、租房子、购物、機场接人等等，启发学生采用得體的禮貌语用完成交际任务。

使用图片设计情景交际时，注意设计好交际雙方扮演的身份、交际任务，并把相关信息分别写在交际者拿到的图片上。设计交际任务时应该给出交际者之间的信息差，并让交际者清楚了解交际目的。在更接近真实的情境中对话，使练习者更有效地體验汉语禮貌语用功能。

例如乘坐飞機，與空姐交际。分别把下面两张图片给两名学生：



乘客：你好！
空姐：您好！……
乘客：幫我把行李……
有點冷，要毯子、耳機、熱茶……
表示感謝、對不起……空姐：



空姐：您好！……
乘客：
空姐：好的。請您……
乘客：
空姐：請您關掉手機、把座椅靠背調正、
把手提包放在椅子下面……

首先，教师扮演空姐，请学生A扮演乘客，然後教师扮演乘客，请学生A扮演空姐。之後给全班学生五分钟时间準备空姐與乘客的交际言行。最後两人一组扮演乘客與空姐进行交际练习，教师观察各小组练习情况，及时提供学生需要的幫助。小组练习後，再在全班同学面前演示，教师做讲评。

網络。积极利用網络视频，建構学生对汉语禮貌语用认知。例如看电视剧时，让学生带著问题看。例如主人公第一次相遇是怎麼打招呼的？告别的时候是怎麼告别的？到人家做客的时候怎麼应对餐桌上的话题。然後请学生用自己的话编一段对话，进行角色扮演，在语言应用中掌握得體使用的能力。

由於韩国语境下生活场景與汉语语境生活场景有很多不同，使用的禮貌语用方式也有所不同。比如韩国语裡有，而汉语没有的敬语套语。见面时韩国人喜欢说“덕분에”；过节全家团聚时要说“덕담（吉祥祝语）”禮貌文化；写信时开始要写明“—에게”给谁的信，然後才开始写“您好！”；最後要写上致敬的词语後，要署名“— 드림”。

遇到汉语中没有具體词语表达时，教师需要从交际雙方应的态度，说话内容，插话的时機，察言观色选词应对等角度解释汉语禮貌语用方法，进行针对性有效的练习，以培养学生使用汉语禮貌语用进行交际的能力。

5.3 编写重视汉语禮貌语用能力培养的汉语教材

一本好的汉语教材应该是基於学习者特點编写的。根据学习者已有的认知構建汉语言能力，满足学习者学习跨文化交际的需求。这是有针对性汉语本土教材特點體现。

很多对韩汉语教材，对韩国语汉语教学长期以来对汉语禮貌语用教学重视不够，教学中教师重视不足，教材中也没有充分的说明與练习。这就造成对敬语十分敏感的韩国学生产生对汉语禮貌语用的误解。很多学生以为禮貌语都是书面语，现代人已经不常使用了；使用禮貌词语是骨灰级使用的语言，不时尚；以为汉语没有禮貌语形态标记，汉语语用中就不讲究禮貌敬语了。有些韩国人编写的汉语教材就会出现不足效仿的汉语交际对话。例如下面这段对话，编者是要表达母子代沟的存在：

妈妈：哎哟，不是我说你，今年你起码换了三個女朋友了吧？你一個男孩子这样怎麼行？
小雨：妈，您懂什麼？现在都这样，您真是老脑筋，再说，我才不在乎别人怎麼看呢。
妈妈：那这次总该定下来了吧？
小雨：……
妈妈：看来真是有代沟啊！算了，我老了，管不了了……　　≪맛있는 중국어 leve-5≫

汉语教材是语言学习的范本，学习这種不符合禮貌语用的情景对话，是对学习者的不负责任。汉语虽然没有形态标记，现代汉语口语的恭敬词语没韩国语那麼发达，但是并不表示汉语裡没有禮貌语用存在。

因此，对韩汉语教学有必要加强汉语教材中禮貌语用的对比與学习。汉语禮貌语用既含有汉语言的思维，也代表著汉语言文化。对汉语言思维理解不透彻，跨文化交际能力就是空谈。

以往编写汉语教材时，一般都遵循科学性、实用性、趣味性等原则进行编写。教材力求再现汉语语境下的以自然的汉语表达方式，选择学习者感兴趣的话题，教材中的人物设定尽量贴近学习者身份，以引发学习者共鸣，激发学习者的热情。

今後教材编写中对於出场人物的身份及场景也应该有所考虑。人物设定不仅要有年轻人之间的对话，也需要有不同社会背景、年龄人物的登场；对话场景和内容在背景人物之间展开，以體现汉语语用與韩国语的不同，特别是汉语禮貌语用。

6. 小结：

本文在先贤对比汉语與韩国语敬语的研究基礎上，通过韩国语與汉语交际情境中的禮貌语用表现分析，提出交际中的汉语禮貌语用的特點。

汉语禮貌语用是汉语交际能力的體现。汉语禮貌语用是通过话语者的态度，言语所表达的内容逻辑来體现的。态度和善，语气温和，有问有答；交际内容遵守合作原则與禮貌原则，特别是通过委婉表达，得體地实现交际目的，比如表达拒绝或否定观點时，虽然是对禮貌原则的破壞，但不直接表达观點的委婉表达是汉语禮貌语用的特點之一。汉语交际中使用的许多潜台词，委婉表达等，是培养汉语交际能力的重要内容。

由於汉语是缺少形态的语言，和韩国语相比较，现代汉语的敬语语法、词汇不成體系。因而汉语交际禮貌语用，需要通过交际者的态度、应对内容和阐述方式的委婉程度来體现，通过适合语境、话者身份的言辞，恰當的词语意义、有节奏地来表达。这也是掌握汉语禮貌语用的难度所在。可以说，交际中运用汉语禮貌语用的能力，是交际者汉语言思维、汉语言文化能力的體现。

韩国学生对禮貌语用十分敏感。由於汉语教学对汉语禮貌语用的重视不足，使得一些韩国学生忽视了对汉语禮貌语用规则的存在，造成一些误解。为此，本文从教学实际與教材编写两方面提出具體方案，建议加强对学习者汉语禮貌语用能力培养。汉语禮貌语用教学是建構在韩国学生对禮貌语用的认知背景上的，因此無论是教学实际还是汉语教材编写，都应该围绕著韩国学生的背景知识，来建構汉语禮貌语用的交际能力。随著对汉语学习的深入，逐渐调整、完善对汉语言的认识。汉语禮貌语用是对韩汉语教学特點，只有掌握了汉语禮貌语用，才能实现运用汉语完成交际任务的目標。

〔参考文献〕

陈松岑（1989），≪禮貌语言≫，北京：商务印书馆.
洪成玉（1989），<谦词、敬词、婉辞概说>，≪首都师范大学学报≫第5期.
顾曰国（1992），<禮貌、语用與文化>，≪外语教学與研究≫第4期.
周筱娟（2008），≪现代汉语禮貌语言研究≫，北京：中国社会科学院出版社.
北京大学朝鲜文化研究所编（2006），≪韩国语1≫，中国北京：民族出版社.
李翊燮 李相亿 蔡琬著（2008）张光军 江波译，≪韩国语概论≫，中国：世界图书出版社。
中国社科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编（2002），≪现代汉语词汇≫，中国北京：商务印书馆。
朴锦海，<汉韩敬语对比研究>，延边大学大学硕士学位论文，2007年5月.

薛文颖, 李宇哲 (2016), <汉语和韩语的敬语表达对比研究>, ≪동아인문학≫ 37, 365-387.
刘雅南, <对外汉语教学禮貌用语研究>, 湖南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17年.

2015 개정 교육과정 중국어 기본어휘의 텍스트 점유율 고찰

김웅*

<目 次>

1. 들어가며
2. 연구 범위 및 방법
3. 연구 결과 및 분석
4. 나오며

1. 들어가며

교육과정 기본어휘표는 중·고등학교 중국어 교육에서 교과서 집필 및 시험 출제 시 중요한 근거가 되며, 실제 수업 과정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기본어휘표가 수록하고 있는 어휘 항목의 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876항목, 2015 개정 교육과정이 880항목으로 비교적 적은 편인데, 이것은 과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1,000여 개이던 것을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를 위해 20% 줄인 데 따른 것이다.(손민정, 2011)

중국 교육부에서 2010년 발표한『중국어 국제교육용 음절·한자·어휘 등급 구분』(汉语国际教育用音节汉字词汇等级划分, 약칭『等级划分』)은 중국어 교육과정 설계, 교재 편찬 등 중국어 교육 전반에서 널리 활용되는 요강으로, 어휘 부분에서는 총 11,092개의 항목을 3등급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낮은 1급, 즉 대중화 등급(普及化等级)은 2,245개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중국어 기본어휘의 2.5배를 넘는 수량이다.

물론『等级划分』이 국적, 연령 등의 요소와 무관하게 일반 중국어 학습자를 위해 만들어진 데 비해, 교육과정 기본어휘는 '한국 중·고등학생'이라는 특정 국가의 특정 집단 학생들을 위해 선정되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어 기본어휘에 대한 중국어 대응어휘를 참고하는 방법이 활용되었고 학생들의 생활과 거리가 먼 어휘들은 배제되었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 포함된 880항목의 기본어휘표는 '초급 수준의 학습용 어휘 망라'와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라는 다소 모순되는 두 가지 목표를 이루고자 많은 연구자들이 고심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초급 수준 학습용 어휘로 880항목이 과연 충분한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위에서 언급한『等级划分』은 물론이고 구HSK의 갑(甲) 급 어휘와 신HSK의 1~4급 어휘도 각각 1,033개, 1,200개로 우리나라 교육과정 기본어휘와는 규모 차이가 많이 난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중국어 기본어휘가 초급 수준 중국어 텍스트에서 차지하는 텍스트 점유율(lexical coverage)을 살펴봄으로써 그것이 초급 수준 학습용 어휘 목록으로 적절한지 검증해 보고자 한다. 텍스트 점유율이란 특정 단어 집합이 텍스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독자들이 텍스트에 대한 '적절한 이해'(reasonable comprehension)에 도달하려면 일반적으로 그것을 구성하는 단어의 95%~98%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ation, 2006; Laufer & Ravenhorst-Kalovski, 2010; 윤새

* 경북대학교

롬, 2011) 학습자들이 교육과정 기본어휘를 숙지했다고 가정한다면, 텍스트 점유율이 95%에 도달할 경우 학습자들은 그 텍스트를 적절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2.1 분석 대상 어휘 목록

본 연구는 현행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중국어 기본어휘 목록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7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2019학년도 현재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1]을 제외한 초・중・고 전 학년에 적용되고 있다. 이 교육과정의 중국어 과목 기본어휘는 880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목록에는 없지만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낱말은 발음, 의미, 기능의 차이가 있더라도 형태를 기준으로 한 번만 제시한다.
② 수사(기수, 서수, 자릿수)는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 '一', '两', '零', '一百', '第一', '千', '万', '亿' 등
③ 요일, 계절, 명절, 기념일 등을 나타내는 낱말은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 '星期天', '礼拜一', '春天', '中秋节', '国庆节' 등
④ 고유명사(인명, 지명, 국가명, 언어명 등)는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⑤ 단음절 방위사 및 이것과 '边', '面', '头'가 결합된 방위사는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 '东', '前', '左', '里', '东边', '上面', '里头' 등
⑥ 복합방향보어는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 '~上来', '~上去', '~起来', '~过去' 등
⑦ '们'이 결합된 낱말은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예) '我们', '他们', '咱们' 등
⑧ 기본어휘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낱말이 원래 낱말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기본 어휘로 간주한다. 예) '头疼', '开门', '早饭', '绿茶', '冷水', '不行', '不够' 등
⑨ 기본어휘에 포함된 이합사가 형태소를 분리하여 사용될 경우 각각 기본어휘로 간주한다.
⑩ 기본어휘에 포함된 중첩어는 각 형태소도 기본어휘로 간주한다. 예) '谢谢', '妈妈' 등
⑪ 기본어휘에 접미사 '儿'이 부가되거나 생략되더라도 기본어휘로 간주한다. 예) '花儿,' '鸟儿', '一点儿' 등

이상의 어휘 수록 원칙은『等级划分』과 같은 일반적인 어휘 목록과는 차이가 있다.『等级划分』은 교수・학습의 다양화, 현지화 수요를 맞추기 위해 국명, 지명, 학교명, 인명 및 현지의 특성을 반영한 식품, 용품, 일상어 등을 5% 범위 내에서 추가하거나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의 ④에 해당하는 것이며 나머지 10개 원칙은 해당하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等级划分』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교육과정 기본어휘의 항목 수는 좀 더 늘어나게 된다. ②를 예로 들 경우 수사 '零',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百', '千', '万', '亿' 등 적어도 15개 항목이 늘어나고, ③을 예로 들 경우 일요일을 뜻하는 '星期日', '星期天'[2], 계절을 나타내는 '春天', '夏天', '秋天', '冬天', 명절 '春节', '元宵节', '清明节', '端午节', '中秋节' 등 적어도 11개 항목이 늘어

1)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은 여전히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다.
2) 일요일을 뜻하는 말은 이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等级划分』에 수록된 단어들만 제시하였다. 다른 예시들도 마찬가지이다.

난다. 그리고 ⑥을 예로 들면 ‘上来’, ‘上去’, ‘下来’, ‘下去’, ‘进来’, ‘进去’, ‘出来’, ‘出去’, ‘回来’, ‘回去’, ‘过来’, ‘过去’, ‘起来’ 등 13개 항목이 늘어난다. 또 ⑧은 형태소를 통해 의미 유추가 가능한 단어는 모두 포함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양의 단어들이 포함될 듯하다.

교육과정의 중국어 기본어휘표는 하나이지만 이것이 모든 세부 과목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어휘표에 수록된 어휘를 중심으로 세부 과목의 수준에 맞게 일정한 수량의 낱말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중학교 공통 교육과정 ‘생활 중국어’의 경우 250개 내외의 낱말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일반 고등학교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일반・진로 선택)의 경우 중국어Ⅰ은 400개 내외, 중국어Ⅱ는 800개 내외의 낱말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어 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전문교과Ⅰ) 중 전공 기초 중국어는 800개, 중국어 회화Ⅰ은 1,000개, 중국어 독해와 작문Ⅰ, 중국 문화는 1,200개, 중국어 회화Ⅱ는 1,300개, 중국어 독해와 작문Ⅱ는 1,500개 내외의 낱말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기본어휘 목록의 880개 항목 중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학습할지 규정하지 않고 일부 과목은 이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수량의 낱말을 학습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어휘 목록 활용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2.2 대조군 어휘 목록

일반적으로 텍스트 점유율이 95%~98%가 되면 독자들이 텍스트를 적절히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주로 5,000~8,000개의 단어와 일반적인 난이도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른 결과이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2015 개정 교육과정 중국어 기본어휘는 항목 수가 880개로 많지 않다. 이것이 초급 수준 학습용 어휘로 적절한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수준의 텍스트를 선정하는 한편, 비교 검증이 가능하도록 대조군 어휘 목록을 활용할 수 있다.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等级划分』은 국가 표준으로 개발되어 중국어 교육 전반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요강으로, 그 어휘 부분의 1급 어휘 목록은 우리나라 교육과정 기본어휘의 비교 대상으로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어휘 항목 수가 2,245개로 큰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等级划分』1급 2,245개 항목은 다시 최저 입문 등급 505개, 최고빈도 837개, 고빈도 903개로 나뉘는데, 이 중 최저 입문 등급과 최고빈도를 합친 1,342개[3] 항목을 주된 조사 범위로 삼으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2.3 텍스트의 선정

2015 개정 교육과정 중국어 기본어휘표는 초급 수준의 학습용 어휘 목록이다. 그러므로 그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텍스트 점유율을 분석한다면 일반적인 텍스트가 아닌 초급 수준의 텍스트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위적 가공을 거치지 않고서는 초급 수준의 어휘로 이루어진 질 높은 텍스트를 얻기가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비교적 공신력 있는 출판사의 단계별 읽기 교재(graded readers)를 활용하였다.

단계별 읽기 교재는 외국어 학습자들이 수준에 맞게 읽을 수 있도록 어휘, 문법 등의 난이도를 조정하고 등급을 매긴 책이다. 베이징어언대학교 출판사에서는 6단계로 이루어진 단계별 읽기 교재 시리즈를 출간하였는데 각 단계의 명칭 및 사용된 단어 수는 다음과 같다.

入门(Beginner) 300 단어
初级(Elementary) 600 단어

3) 물론 교육과정 기본어휘는 880개로 이루어져 있어 1,342개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친다. 하지만 목록에 없더라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단어들이 있어 실제 항목 수는 훨씬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准中级(Pre-intermediate) 900 단어
中级(Intermediate) 1,200 단어
准高级(Pre-advanced) 2,500 단어
高级(Advanced) 5,000 단어

교육과정 기본어휘가 880항목으로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6단계 가운데 '初级' 이하 단계에서 텍스트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텍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오늘날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생활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入门' 단계의 현대 창작 동화 중 출판 순서가 앞선 5권, 즉『小鸟说话』,『小黑和小白』,『飞吧』,『我的小狗』,『小兔和小狗』를 선정하고, '初级' 단계의 현대 창작 동화 중 한국 중·고등학생의 생활과 관련이 비교적 크다고 판단되는 것 5권, 즉『学校之运动会』,『学校之中文课』,『学校之考试』,『学校之黑色星期五』,『学校之朋友』를 선정하였다.

이상 10개 작품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2015 개정 교육과정 중국어 기본어휘와 대조군인『等级划分』의 어휘 목록이 차지하는 텍스트 점유율을 고찰하고 비교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먼저 각 작품에서 두 가지 어휘 목록이 차지하는 점유율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것인데, 이를 종합하면 최종적인 텍스트 점유율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2.4 통계 처리

본 연구의 통계 처리는 먼저 텍스트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목록을 추출하고 그 가운데 교육과정 기본어휘와『等级划分』1급 어휘에 수록된 단어들의 비율, 즉 텍스트 점유율을 각각 확인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동일한 어휘 항목일지라도 연구진의 관점 또는 교수·학습상의 필요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生词'를 교육과정 기본어휘는 한 항목으로 수록하였지만『等级划分』은 '生'과 '词'를 따로 수록하였으며, 반대로 '长跑'는『等级划分』이 한 항목으로 수록하였으나 교육과정 기본어휘는 '长'과 '跑'를 따로 수록하였다. 이러한 경우 단어 추출의 기준을 확실히 세우지 않으면 어휘 목록 간의 비교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等级划分』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록 어휘 수가 많다.『等级划分』은 총 11,092개의 어휘 항목을 수록하고 있어 텍스트 내에 간혹 중·고급 어휘가 출현할지라도 이를 대부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 반면 교육과정 기본어휘는 어휘 항목이 880개에 불과하여 다소 어려움이 있다.

둘째, 단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等级划分』은 수록되지 않은 일부 고유명사와 현지 특성을 반영한 어휘를 사용자가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일반 어휘는 생략 없이 모두 싣고 있으며 품사까지 밝히고 있어 텍스트로부터 단어를 추출할 시 용이하다. 반면 교육과정 기본어휘는 목록에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동형어를 한 항목으로 처리하고 품사를 밝히지 않는 등 모호한 부분이 적지 않다.

『等级划分』이 기준이라고 해서 교육과정 기본어휘의 수록 방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飞吧』에 출현한 '天上'의 경우 교육과정 기본어휘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天'과 '上'은 수록되어 있으므로 포함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밖에 텍스트 점유율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점 가운데 하나로 '고유명사 포함 여부'가 있다. 본 연구는 고유명사를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Nation(2006)과 Laufer & Ravenhorst-Kalovski(2010)를 따라, 중등교육과정 기본어휘와『等级划分』의 수록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고유명사를 이해될 수 있는 것

으로 처리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분석

3.1『等级划分』의 텍스트 점유율 분석

본 연구는 초급 수준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1급 2,245개 항목 중에서도 최저 입문 등급 어휘와 최고빈도 어휘를 합친 1,342개 항목을 주된 조사 범위로 한다. 그런데 초급 수준 텍스트에도 간혹 중·고급 어휘가 출현할 수 있고, 비교 대상인 교육과정 기본어휘 내에도 이러한 어휘들이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좀 더 전면적인 분석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텍스트 내 모든 단어의 등급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等级划分』각 등급의 어휘가 10종의 초급 수준 텍스트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누적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다. 1급의 최저 입문 등급, 최고빈도, 고빈도와 2급, 3급[4]을 각각 1.1, 1.2, 1.3, 2, 3으로 표시하였다. 최저 입문 등급(1.1), 최고빈도(1.2), 고유명사(고유)를 합친 단어 집합은 본 연구의 주된 조사 범위이므로 특별히 '+1.2+고유'로 표시하였다.

〈표 1〉『等级划分』의 어휘 등급별 텍스트 점유율

구분	1.1	+1.2+고유	+1.3	+2	+3
小鸟说话	76.0%	89.6%	96.9%	99.0%	100%
小黑和小白	73.8%	89.3%	93.2%	97.1%	100%
飞吧	73.6%	90.9%	93.6%	96.3%	97.3%
我的小狗	78.6%	92.9%	94.3%	100%	100%
小兔和小狗	72.4%	84.2%	88.1%	93.4%	100%
学校之运动会	66.1%	89.6%	92.2%	97.4%	99.1%
学校之中文课	71.4%	93.7%	94.5%	97.7%	99.2%
学校之考试	74.1%	91.9%	92.6%	97.8%	97.8%
学校之黑色星期五	72.6%	90.4%	94.8%	98.5%	98.5%
学校之朋友	74.5%	87.8%	89.8%	96.0%	98.0%
평균	73.3%	90.0%	93.0%	97.3%	99.0%

'+1.2+고유'는 평균적으로 약 90%의 점유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学校之中文课』에서 9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小兔和小狗』에서 84.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텍스트의 적절한 이해를 위한 최소한의 점유율인 9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1.3(고빈도 어휘)을 더하여 1급 전체의 상황을 살펴보면 점유율이 좀 더 높아져『小鸟说话』의 경우 96.9%로 적절한 이해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지만 10종 텍스트 전체 평균은 93%에 그친다. 그리고 2급 어휘까지 포함할 경우『小兔和小狗』를 제외하고는 모두 95%를 넘으며 평균은 97.3%에 이른다.

그런데 2,245개 항목으로 구성된 1급 어휘의 텍스트 점유율이 단 한 작품에서만 95%를 넘는다는 것은 해당 단계별 읽기 교재가 초급 수준 텍스트로서 적합한지 다소 의문을 가지게 한다. 형태 변화가 없는 중국어의 특성상 형태소를 통한 단어 의미 추측이 비교적 용이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난이도 조절은 필요해 보인다.

아래에서 살펴볼 2015 개정 교육과정 기본어휘는 880항목에 불과하여『等级划分』1급 어휘와 마찬가지

4) 3급은 '고급 수준(高级水平)'과 '고급 부록(高级"附录")'을 포함한다. 고급 부록은 중국어 전공자와 일부 고급 학습자를 위해 추가된 것이다.

로 해당 텍스트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텍스트 점유율의 절대적인 수치보다는『等级划分』과의 상대적인 비교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겠다.

3.2 2015 개정 교육과정 기본어휘의 텍스트 점유율 분석

교육과정 기본어휘는 목록에 수록된 것 외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단어들이 있어 텍스트 점유율 계산 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에서는 목록에 수록된 것을 '수록'으로 표시하고 고유명사는 '고유', 수록되지 않은 것은 '미수록'으로 표시하였다. 그리고 '时', '室' 등 두 차례 이상 다른 단어 내부에 형태소로 출현한 단음절어는 추측 가능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점유율은 누적하여 표시하였다. 비교를 위해 위에서 알아본『等级划分』의 텍스트 점유율을 포함하였는데 이것은 본 연구의 주된 조사 범위인 최저 입문 등급(1.1), 최고빈도(1.2), 고유명사(고유)를 합친 단어 집합의 점유율이다.

〈표 2〉 2015 개정 교육과정 기본어휘와『等级划分』의 텍스트 점유율 비교

구분	수록+고유	+미수록	+추측 가능	等级划分
小鸟说话	89.5%	96.9%	97.9%	89.6%
小黑和小白	84.5%	93.2%	93.2%	89.3%
飞吧	75.5%	88.2%	88.2%	90.9%
我的小狗	87.1%	95.7%	95.7%	92.9%
小兔和小狗	84.0%	86.7%	88.0%	84.2%
学校之运动会	86.1%	90.4%	91.3%	89.6%
学校之中文课	84.9%	92.1%	92.1%	93.7%
学校之考试	85.2%	94.8%	94.8%	91.9%
学校之黑色星期五	82.9%	91.8%	93.3%	90.4%
学校之朋友	85.7%	88.8%	88.8%	87.8%
평균	84.5%	91.8%	92.3%	90.0%

『等级划分』의 1,342개 항목과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기본어휘 880항목은 10종의 텍스트에서 점유율 95%를 넘기지 못하였다. 그런데 미수록 어휘를 포함할 경우『飞吧』와『学校之中文课』를 제외한 모든 텍스트에서 교육과정 기본어휘가『等级划分』의 점유율을 앞서는 것을 볼 수 있다. 추측 가능 어휘까지 포함하면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 특히『小鸟说话』에서는『等级划分』의 점유율이 80%대에 머무르는 것에 비해 교육과정 기본어휘는 98%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미수록 어휘와 추측 가능 어휘를 포함하지 않더라도『小鸟说话』와『小兔和小狗』는 교육과정 기본어휘와『等级划分』의 점유율 차이가 0.2% 이하로 거의 차이나지 않으며『学校之朋友』도 차이가 약 2%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교육과정 기본어휘의 어휘 수록은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휘량으로 최대한의 텍스트 점유율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수록 어휘를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점유율이 각각 91.8%와 84.5%로 차이가 상당한 점은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飞吧』의 경우 13% 가깝게 차이가 나는데 그 미수록 어휘는 다음과 같다.

〈표 3〉『飞吧』의 미수록 어휘

구분	어휘
수사	一 二 五 六 十 两
방위사	上 前 后 里 外 前面 里面
계절을 나타내는 낱말	春天

위 표3에 나온 단어들은 다른 텍스트에도 자주 출현하는 것이므로 수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교육과정 내용의 적정화를 위해 수록 어휘 수를 880항목으로 제한하는 것은 좋으나, 일부 단어 집합을 제외한 다음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와 같은 단서를 다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단어만을 제시하는 것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원칙에 따르면 모든 수사, 모든 방위사, 그리고 계절을 나타내는 모든 낱말이 다 포함될 수 있는 셈인데, 그렇다면 '兆', '京' 등 천문학적인 숫자를 나타내는 수사도 포함되며, 계절을 나타내는 낱말 중 봄만 하더라도 '春', '春日', '春季', '春上', '大春', '三春', '九春', '青春', '阳春', '艳阳天' 등이 모두 교육과정 기본어휘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기본 어휘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낱말이 원래 낱말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기본 어휘로 간주한다'라는 원칙은 과연 교육과정 기본어휘가 포함할 수 있는 단어 집합의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될지 가늠하기 어렵게 한다.[5] 결국 교육과정 적정화를 위해 제한된 880항목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나오며

적합한 초급 수준 텍스트의 부재로 텍스트 점유율이 적절한 이해가 가능한 수준인 95%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으나,『等级划分』과의 비교를 통해 2015 개정 교육과정 기본어휘가 적은 어휘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원칙에 따른 미수록 어휘를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점유율 차이는 상당히 컸다. 어휘 수를 제한하고 미수록 어휘를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기보다는 필요한 단어는 모두 수록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이 밖에 교육과정 기본어휘에 수록되어 있는데『等级划分』어휘 등급은 2, 3급으로 높은 경우도 주목할 만하다. 다음 개정 때 삭제가 필요한 단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复习', '运动会'처럼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생활과 관련이 깊은 단어들도 적지 않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추가를 고려할 만한 단어들도 있다. 김석영(2014)에서도 언급된 '组'는 모둠별 학습이 중시되는 오늘날 교실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으며, '班主任'과 같은 단어도 추가할 만하다. 이처럼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어휘 선정은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김석영,「중등교육과정 중국어 기본어휘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중국어문학지』제49집, 2014.
손민정,「2011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고등학교 중국어 기본어휘 선정 시론」,『중국문학』제68집, 2011.

5) 원칙과 함께 제시된 예 가운데 '绿茶'도 포함되었는데 이를 통해 교육과정 기본어휘에서 말하는 '원래 낱말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상당히 넓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윤새롬,「알고 있는 단어의 텍스트 점유율이 읽기 이해 및 우연적 어휘 학습에 미치는 영향」,『응용언어학』 제27집, 2011.
이상도,「중등교육과정 중국어 기본어휘 선정 시론」,『중국학연구』제43집, 2008.

钱彬,「汉语分级读物的词汇复现考察」,『华文教学与研究』第3期, 2015.
宋贝贝・周小兵・金檀,「高频超纲词的覆盖率及语义透明度」,『汉语学习』第3期, 2017.

Laufer, B. & Ravenhorst-Kalovski, G, C. “Lexical threshold revisited: Lexical text coverage, learner’s vocabulary size and reading comprehension”. *Reading in a Foreign Language* 22.1, (2010).
McCarthy, M. “What constitutes a basic vocabulary for spoken communication?”. *Studies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1, (1999).
Nation, I. S. P. “How large a vocabulary is needed for reading and listening?”. *The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63.1, (2006).
Nation, I. S. P. & Hwang, K. “Where would general service vocabulary stop and special purposes vocabulary begin?”. *System* 23.1, (1995).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한국 아동 중국어 교육

우스민*

<目 次>

1. 서론
2. 문화콘텐츠와 한국 아동 중국어 교육의 관계
3. 동요와 시의 활용
4. 그림책과 유희의 활용
5. 고정의 활용
6. 문화콘텐츠 활용 아동 중국어 교육의 의의와 제약
7. 결론

1. 서론

오늘날 중국어 교습을 중심으로 '한풍(漢風)'이 전 세계에 불고 있다. 한국에서도 '영어 학구열(英語熱)'처럼 '중국어 학구열(漢語熱)'의 열기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영어 교육의 저연령화(低年齡化) 현상이 발생한 것처럼, 중국어에서도 저연령화(低年齡化) 현상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중국어 학습에서의 저연령화(低年齡化)현상이 필연적이라고 여기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 확장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린 나이에 중국어와 중국문화에 접근하는 것은 개인이나 사회에 유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어린 세대는 나라의 미래이자 또한 인류의 미래이다. 중국의 부흥과 한·중 관계, 그리고 글로벌사회를 전망할 때 미래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 중국어와 중국문화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어습득과 문화이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실 아동기는 언어 발전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외국어 학습에도 황금시기(黃金時期)이다. 그러므로 어린 시절부터 중국어를 학습하는 것은 중국어 능력을 키울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미래성이 있는 것이다.

아동 교육 기관을 보면 유아교육기관, 초등교육기관 그리고 사설 교육기관 등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한풍(漢風)'의 영향으로 먼저 생긴 것이 사설 교육 기관이다. 그 다음으로 중국어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곳은 초등교육기관이다. 초등교육기관의 전 단계인 유아교육기관(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구분할 수 있음)에서의 중국어 교육은 외부 강사나 중국어가 가능한 유치원 교사가 실시하고 있다. 상관 연구에 근거하여 아동 교육 기관에서 진행된 아동 중국어 교육은 종종 문제가 존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수업내용이 지루하다는 것, 멀티미디어 자료와 문화자료가 부족하다는 것, 아동 대상 중국어 교육 환경과 교육 실정이 그에 대한 수요 그리고 선호도와도 맞지 않다는 것 등등. 이러한 문제들 앞에서 본 연구자는 아동 중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 특히 수업 내용과 문화자료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연구동기로부터 본 논문에서는 한국 아동 대상 중국어 교육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중국문화와 언어 교육의 접목/융합을 시도하였다. 또한 이를 통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활성화된 중국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아동 대상 중국어 교육에 적합한 문화 콘텐츠와 그 활용법

* 延世大學校 中語中文學科 博士

에 관한 연구와 고찰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아동”은 만 3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다음 3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만 3세～5세 취학 전의 아동, 둘째는 만 6세～12세의 초등학령기의 아동. 세 번째는 초등학령기의 아동을 다시 저학년(1～3학년)과 고학년(4～6학년)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저학년(1～2학년), 중학년(3～4학년), 고학년(5～6학년)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2. 문화콘텐츠와 한국 아동 중국어 교육의 관계

언어와 문화, 언어교육과 문화교육의 관계를 볼 때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콘텐츠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아동 대상 중국어 교육에서도 문화콘텐츠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이다. 사실 외국어 교육에서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프랑스에서 1883년 7월21일에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설립하여 자국의 음악, 영화를 1,000개 이상의 문화센터를 통해 보급하며 문화의 확산을 프랑스어 교육과 연결시킨 것[1]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이 한국의 중국어 아동 학습자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문화콘텐츠가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 ‘아동’, ‘중국어’ 3가지 키워드를 모두 배려하는 상태에서 앞에서 제시한 한국 아동 대상 중국어 교육에 대한 3가지 제안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문화콘텐츠여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요・시・그림책・유희・경전・사자성어 등 여섯 가지 문화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한다. 여섯 가지 문화콘텐츠 중에 동요와 시(詩)는 듣기·말하기의 단계에 해당되고, 그림책은 듣기·말하기·읽기의 단계, 경전과 사자성어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도 글자를 눈에 익히는 것을 빠뜨릴 수 없기 때문에 ‘읽기’와 ‘쓰기’의 단계로 넘어간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유희는 유희의 내용과 성격으로 인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중 어느 한 영역과 관련지을 수 있거나 혹은 모든 영역과 관련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 연령의 학습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취학 전의 아동에게 아주 중요한 학습방법이다.

3. 동요와 시의 활용

3.1 동요의 활용

동요와 중국어 교육의 관계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동요와 기억의 관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사실 언어학습을 포함한 모든 학습은 그 기억능력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요와 기억의 관계는 동요와 중국어 교육의 관계를 살피는데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동요는 기억을 촉진하고 기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동요가 압운을 강구하고 반복의 기법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이다. 둘째, 동요의 재미있는 내용과 형상화된 언어 그리고 활발한 리듬이 어린이의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요와 기억의 관계를 확인한 후 본 연구는 동요와 중국어 교육의 관계에서 중국어 교육에 중점을 둔 동요의 가치를 분석했다. 첫째, 세련된 운율과 강한 리듬감이 있는 동요는 중국어의 음운 학습과 어감을 형성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뿐만 아니라 동요를 통해 중국어 문형, 어휘, 연결어, 수사 등도 학습할 수 있다. 둘째, 동요는 문화교육에 있어서도 높은 가치가 있다. 전래동요, 현대창작동요와 번안동요는 모두 창작과 유전되었을 때의 사회풍속, 생활상황과 중국적 사유를 반영한다. 따라서 동요를 학습하는 동시에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중국문화를 접할 수 있다. 셋째, 동요를 활용한 중국어 교육을 논함에 있어 중국어 번안동요의 가치를 강조하고 싶다. ‘중국어 번안동요’란 다른 언어로 창작된 동요를 중국어로 번역하거나 중국어로 재창작한 동요이다. 그 중에서 영

1) 최희진(2013:vi) 참조.

어를 포함하여 제3언어로 창작된 동요 중 중국어와 한국어로 모두 번역된 동요는 교육용으로 매우 가치가 크다고 생각된다. 동요의 구체적인 활용의 면에서 본 연구는 아동 학습자에게 반복하여 듣고, 따라서 독송하고, 반복하여 부르고, 따라서 율동하는 방법을 위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림이나 동영상을 이용하여 어린 학습자를 집중하게 만들고, 그들을 어느 정도로 이해시키는 것을 주장한다.

3.2 시의 활용

시는 아동 대상 중국어 교육에 있어 언어 교육적 가치와 문화 교육적 가치가 모두 담겨있다. 살펴보면 시의 언어적 가치는 뒤와 같이 있다. ① 시의 언어는 간결해서 학습하기에 부담이 적어, 규정된 수업 분량으로 적절하다. ② 운율과 리듬 규칙에 따른 소리의 특징적 효과를 가진 시 학습은 중국어의 발음을 습득하는데 매우 가치가 있다. ③ 반복적인 낭송하기를 통해 시를 외우는 동시에 시에서 나타난 한자를 익힐 수 있다. ④ 시에서 나타난 어휘를 확장하는 것으로 학습자의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⑤ 가독성(可讀性)이 강한 시 텍스트를 낭송하는 것을 통해 중국어 어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동시에 운율에 맞춰 시를 반복해서 읽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언어를 배워 나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갖게 한다. 문화의 면에서 살펴보면 시어(詩語)에는 반드시 시가 작성된 때의 생활양식이나 문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은 시(詩)가 인격과 문화교양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중국인의 사상, 가치관과 중국식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일종의 대표적인 문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아동 대상 중국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시(詩)는 절구(絶句)와 현대동시(現代童詩) 2가지를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4. 그림책과 유희의 활용

4.1 그림책의 활용

한국 아동 중국어 교육에서 그림책은 아동의 눈과 귀를 모두 즐겁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아동으로 하여금 언어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과 풍부한 상상력도 길러준다. 중국어로 창작된 그림책이나 중국어로 번역된 명작 그림책은 그림책 원래의 모든 장점을 갖고 있으며, 이에 더해 풍부하고 실용적인 중국어 어휘와 어법 등을 통해 생생한 중국어 표현을 알려 준다. 중국어 학습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책을 학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어를 접할 수 있고, 반복하여 그림책의 내용을 들음으로써 중국어를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림책은 아동의 관심과 집중력을 끌어내는 교육콘텐츠로서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구체적 활용의 면에서 본 연구는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시험을 통해 그의 실효성을 검증했다.

4.2 유희의 활용

유희는 중국어 교육, 문자 교육 또는 문화교육에 모두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자는 아동 대상 중국어 교육에서 유희의 기능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유희를 통해 중국어와 문화를 교육하는 것이다. 즉 유희 자체는 수업의 진행방식이다. 학습할 내용이 모두 유희에 들어있기 때문에 놀면서 학습할 수 있다. 둘째, 유희를 통해 중국어를 연습한다. 즉 유희를 통해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고, 기억하여 응용하는 것이다. 셋째, 유희를 통해 테스트와 평가를 한다. 주지하다시피, 교육에 있어 평가는 필요하다. 하지만 아동, 특히 학령전의 아동에게 필기 실험으로 테스트하거나 평가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데 유희를 활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5. 고전의 활용

5.1 경정의 활용

중국어 교육에서 경전의 활용은 발음・어휘・어법을 포함한 언어교육, 문화교육 및 한자 교육에 모두 도움이 된다. 그 이유는 뒤와 같이 있다. 첫째, 경전은 중국문화의 정수 혹은 본질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중국 전통 맹학서인 '三百千'은 상용자를 모아 편찬한 과학적인 식자서로서 아동 대상 중국어 학습자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한자를 학습할 수 있게 한다. 한자는 한문의 기초로 한자를 학습하는 것은 중국어의 기초를 다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일정한 양의 한자를 공부하는 것은 어휘학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반복적으로 단어나 문장을 독송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중국어 발음을 연습할 수 있으며, 어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 셋째, 어법상으로 볼 때 고전 경전들은 중국어의 '의합(意合)[2]' 특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현대 중국어에서 사용된 문장구조를 또한 어느 정도로 보여줄 수 있다. 본 논문은『삼자경』,『천자문』과『논어』로 아동 중국어 교육용 문화콘텐츠로 선정하고 그들의 특징을 분석한 후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5.2 사자성어의 활용

주지하다시피 사자성어는 중국어의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 아동들은 다양한 학습 자료와 방식을 통해 사자성어를 학습해 왔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은 실제 의사소통할 때에도 종종 사자성어를 애용한다. 때문에 중국어 학습자들은 중국인의 말과 문화를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 중국의 사자성어를 알 필요가 있다. 아동이라 할지라도 간단한 내용의 사자성어부터 조금씩 학습하다 보면 나중에 어려운 사자성어도 이해하게 되어 정확히 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사자성어는 중국어 음운교육과 어법교육 그리고 문화교육이 긴밀한 관계가 있다. 중국어 소리의 고(高)・저(低)・장(長)・단(短)・강(強)・약(弱)을 나타내는 사성의 변화와 조화로 이루어진 사자성어는 중국어 아동 학습자가 중국어 소리의 변화규칙을 익히는 것, 그리고 중국어 어감을 양성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쌍성・압운・첩운・중언으로 인해 강한 리듬감을 갖게 된 사자성어를 통해 중국어의 소리 반복 현상과 원리를 습득하는 동시에 발음을 제대로 연습할 수 있다. 사자성어는 네 글자로 구성된 짧은 구조이지만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수사, 조사 등 여러 가지 품사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법구조를 포함하고 있어서 학습자는 간결한 사자성어를 통해 중국어 어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사자성어는 중국의 역사와 문화 등과 관련된 풍부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자성어를 통해 중국문화에 접근할 수 있다. 한국 아동 중국어 교육을 위해 사자성어를 선정할 때 연구자가 아동의 특성과 취향을 고려해서 '고사성어'를 첫 번째로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사성어 중에도 우화성어는 가장 알맞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선택으로 중국의 우화성어는 아니지만, 한국의 우화 혹은 전래동화와 연결시킬 수 있는 사자성어들이다. 세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사자성어는『이솝우화』와 연결시킬 수 있는 사자성어이다.

6. 문화콘텐츠 활용 아동 중국어 교육의 의의와 제약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아동 중국어 교육의 의의는 크게 3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의는 문화와 언어의 통합학습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 아동의 외국어 학습능력을 제고하는

2) '의합'이란 언어적인 형식이나 형태를 빌려 쓰지 않고 의미, 논리 혹은 어순을 통해 각 차례나 차례 사이(구, 단문, 문장, 문단 심지어 편과 장)의 언어 요소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이다. 郭富強(2006:5) 참조.

것이다. 세 번째, 아동의 중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다.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아동 중국어 교육은 언어 훈련과 문화습득에 큰 의의가 있지만 또한 제약도 있다. 첫째, 언어교육 측면에서 보면 동요나 시, 경전과 사자성어 등은 특수 언어이다. 일반적으로 운문적 언어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중국어와는 차이가 있다. 둘째,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아동 중국어 교육은 문화교육 측면에서 보면 과연 한국의 아동학습자를 어느 정도로 이해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다. 하지만 아동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화콘텐츠를 접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문화적인 '훈습'을 받게 된다. 깊은 함의는 당장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학습과정에서 그 뜻을 생각하고, 그 내용도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을 것이다.

7. 결론

본 논문의 최종 관점은 '順其自然' 네 글자로 귀결할 수 있다. 즉 교육 대상인 아동의 특성을 따르되, 한·중의 언어·문화에 연결되어 있는 객관적인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하여 문화콘텐츠의 장점을 살리고, 아동 학습자가 흥미롭게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언어와 문화능력을 획득할 수 있게 한다. 마치 봄비가 조용하고 부드럽게 만물을 적시는 것과 같다.

한국에서의 아동 중국어 교육의 발전은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더 많이 발전해야 하고, 더 크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서 더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한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화 된 세계를 위해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는데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한국의 아동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중국어 교육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음성언어가 수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 한중 수어에 나타난 차용어의 유형과 수용양상

이혜중*

<目 次>

1. 머리말
2. 음성언어와 수어간의 언어접촉과 어휘차용의 상관성
3. 한중 수어에 나타난 차용어의 형태 및 구조적 특성
  3.1 한중 수어에 나타난 차용어의 양상
  3.2 한중 수어 차용어의 구조적 특성
4. 맺음말

1. 머리말

강력한 우세 언어(dominant language)인 음성언어(spoken language)에 둘러싸여져 생활하는 대부분의 농인(deaf people)들은 상대적으로 약세 언어(minority language)라고 할 수 있는 시공간적(visual-spatial) 동작 기반 언어(gestural based language)인 수어(sign language)를 기본 모국어로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사회 진출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각국의 농인들은 음성언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와 지식의 습득을 필요로 하는 생존과 직결된 상황에 직면하였고 그 결과 이중 언어(bilingual) 사용자로서의 신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는 농인들의 90%~95%가 청인 가정(hearing families)에서 태어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일상생활 내내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음성언어, 즉 청인들이 구사하는 구어 또는 문어(spoken and written languages)형태의 구두청각(audio-oral)에 의한 언어 양식(language form)에 끊임없이 노출되고 평생학습마저 강요되는 상황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인간의 서로 다른 감각 양식(modality)을 매개로 한 언어들이 과(跨, cross)언어적 접촉할 때 음성언어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수어 사용자들(sign language users) 사이에서는 그들만의 특별한 차용규칙과 어휘들이 자연스레 생겨나고 보급되었는데 이 문법적 차용(grammatical borrowings) 현상은 전 세계 대부분의 수어들 안에서 발견된다.[1)]

시각동작언어인 수어는 청각조음언어인 음성언어와 달리 언어 구조적으로 많은 다른 양상을 띤다. 이 점을 고려하여 서양에서는 예로부터 수어언어학(sign linguistics)에 관한 연구가 적지 않은 학자들에 의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는데[2)] 그 중에서도 수어 어휘 분야에 있어서 선구적인 연구로 『Lexical Borrowing in American Sign Language』(Robbin Battison 1978)가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다. Battison은 미국 수어(American Sign Language, 이하 ASL)에 존재하는 손짓 알파벳(manual alphabet)인 지화(fingerspelled signs)[3)]를 차용한

* 한국외국어대학교/강사

1) 예컨대 모든 언어에서의 차용은 접촉이 제일 많은 언어로부터 일어나기 마련이다. 영국 수어(British Sign Language, 이하 BSL)만 예를 들더라도 영어는 영국수어의 가장 주요한 기증언어(donor lanaguage)이며, 영국 수어 사용자들은 영어와 가장 많은 언어적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로부터 다수의 문법적 요소들을 빌려오게 된다. 물론 수어들 간의 차용 어휘 수 역시 다양하고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정보 매체의 발달 추세로 볼 때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 수어의 언어학적 연구는 Stokoe(1960)를 중심으로 1960년대 후반부터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한국 수어의 경우, 석동일(1989), 최상배(2012) 등이 있고, 중국 수어의 경우, 吴铃(2005), 龚群虎(2009), 郑璇(2010), 李惠中(2016) 등이 있다.

3) 미국 수어의 알파벳 지문자들은 모두 각자의 구조, 모양, 위치 그리고 방향들을 가지고 있다. 물론 영어 알파벳의 영

수어 어휘들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지문자 형태소들의 수어 어휘 형성 시에 일어나는 변화 과정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어서 Brentari와 Padden(2001: 89)은 미국 수어의 어휘 체계를 고유어(native vocabulary)와 외래어(foreign vocabulary)로 양분하여, 한 언어의 어휘가 다양한 층위로 구성되어 있고 어휘를 구성하는 특성에 따라 여러 갈래의 하위분류가 가능하듯이, 어휘화된 지문자(lexicalized fingerspelling), 두문자화된 지화(initialized signs), 약어[4](abbreviation signs), 고유명사[5](name signs) 등을 음성언어의 접촉과 교섭 과정에서 차용되어 들어온 외래어로 구분 지었다. 또한 수어에서의 '외래'어란 음성언어를 그대로 단순히 코드화한 것이 아닌 자연수어(natural sign language)구조 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수어에서는 수형, 수동, 수위, 수향이라는 조음자질, 즉 수어소(chereme)의 생략, 첨가, 동화와 같은 변화로 단어가 생성되는데, 이는 각각의 형태소들이 단일 수어 어휘가 되는 과정에서 음성 언어의 음운변화에 해당하는 특성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류의 언어가 가지는 경제성의 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음성언어의 영향을 받은 차용어가 한국 수어(Korean Sign Language, 이하 KSL)와 중국 수어(Chinese Sign Language, 이하 CSL)[6]에서 어떻게 기호화되는지를 고찰하고 그 구조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 2장에서는 이론적 바탕이 되는 음성언어와 수어간의 언어접촉과 어휘차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파악한다. 3장에서는 차용어가 한중 수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고 수용되는지를 살펴보고, 수어에 반영된 구조적 특성을 밝힌다. 4장에서는 논의를 마무리 하고 향후 수어언어학 연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탐색한다.

논의에서 사용한 한중 수어 자료는 국립국어원・한국농아인협회에서 온라인상에 무료 배포한『한국수어사전』(sldict.korean.go.kr)과 저자 본인이 한국과 중국(2016-2018년)을 왕래하며 직접 촬영한 수어 동영상들을 참조하여 활용하였다.

2. 음성언어와 수어간의 언어접촉과 어휘차용의 상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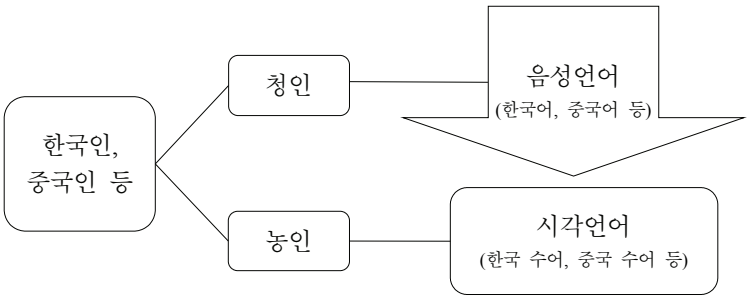
이 장에서는 음성언어와 수어 사이에 발생하는 언어접촉과 어휘차용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먼저, 음성언어에서 정의하는 차용어란 외래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외국어로부터 들어와 국어의 체계에 동화되어 사용이 허용된 단어를 일컫는다. 하지만 이 글에서 논의할 수어 차용어의 범위는 외국수어가 아닌 자국의 음성언어로부터 영향을 받아 사용하게 된 수어 어휘들에 대한 의미로 한정하였다. 이 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향을 받았기 때문에 글자 모양(written symbol)과 수어 형태의 생김새가 유사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는 이 지화 체계를 그저 유성언어에 대응되는 각각의 글자(letter)개념이 아닌 수어에서 쓰이는 독자적인 기호(sign) 자체로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언어는 일종의 '기호'이며, 기호는 '형식(구조)'과 '내용(의미)'으로 구성(임지룡 2008: 324)되기 때문이다.

4) 영어에서 'because'의 줄임말인 'b/c'가 약어의 형태로써 사용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동일한 의미의 중국어 단어인 '因爲'의 중국어대응식수어(Signed Chinese, 이하 SC)의 형태는 한어병음이라는 음성언어 발음표기에서 차용된 알파벳 두문자를 활용한 약어 'Y—W'이다.

5) 음성언어에서 쓰이는 고유명사의 의미와 마찬가지로, 수어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고유명사 역시 사람이름이며, 이 밖에 지역이름・회사이름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기존 고유명사의 수어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잘 모르는 경우에 가장 많은 지문자의 차용이 발생하는 단어 부류이기 때문에 차용의 실현 방식을 연구함에 있어서 특별히 주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6) 동북아시아 지역의 수어 어족(sign language family)은 크게 두 개의 어파로 나뉜다. 바로 중국 수어 어족과 일본 수어(Japanese Sign Language, 이하 JSL) 어족이다. 전자는 중국 본토의 북방 및 남방 수어와 홍콩수어(Hong Kong Sign Language, 이하 HKSL)까지 포함하며, 후자는 일본 수어와 대만 수어(Taiwan Sign Language, 이하 TSL) 그리고 한국 수어까지 포함한다. 참고로 이 글에서 한정한 한국 수어의 조사 범위는 시간상이나 여건상으로도 복잡하거나 한계가 있는 조선족 동포 농인들과 북한 농인들이 사용하는 수어를 배제한 현재 남한 지역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농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구사하는 한국 수어만을 일컫는 개념으로 사용할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동북아 지역의 수어언어학 연구는 서양의 연구 성과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1〉 음성언어와 수어간의 언어접촉 상관관계

<그림 1>에서 보듯이, 이 글에서 논의할 한중 수어 차용어의 범위는 한중 음성언어와 한중 수어가 쌍방향 혹은 상호교차로 주고받는 영향이 아닌, 자국의 다수집단이 사용하는 우세한 음성언어가 상대적으로 열세인 자국의 수어에게 단(单)방향으로 미치는 영향과 작용만을 논의대상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명시하는 바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중국은 같은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지만, 한국 수어에서 나타나는 한자의 모양을 본떠 만든 차용 기호들과 중국 수어에서 나타나는 한자 관련 차용 기호들은 상당히 상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형태로나 수적으로나 일대일 대응관계가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 이 사실만으로도 수어는 침투의 깊이로나 받은 영향으로나 자국의 음성언어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또 크게 영향 받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음성언어의 세계에서 언어와 언어가 접촉할 때 차용이 발생하듯이 음성언어와 수어가 접촉을 하는 경우에도 이 언어적 차용 현상이 발생한다. 음성언어권 안에서 일어나는 차용 현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어에서 차용이 가장 잘 일어나는 요소 또한 어휘이다. 선진 문화가 상대편에 유입되면서 그것들을 가리키는 단어를 함께 받아들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휘적 차용(lexical borrowing)의 결과물로써 차용어 또는 외래어가 생겨난다. 현재 수어의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와 적은 어휘량을 감안해 볼 때 수어의 세계에서 고유어와 차용어의 경계가 그리 뚜렷한 것은 아니다. 다만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단어를 차용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단어가 자연수어의 어휘 체계 안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 문제는 우세한 쪽인 음성언어의 단어가 권위와 품위가 있어 보이고 더 유식해 보이며 새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굳이 수어에 들어와 있는 고유어를 밀쳐놓고 특정 상황에 따라 임시적으로 차용(nonce borrowing)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상황들을 일단 차치해 놓더라도, 그 무수한 중간 단계의 어디에서 고유어와 차용어의 경계를 확실히 그을 수 있는지는 그 기준이 아직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른바 연속체(continuum)라는 개념을 가지고 더 많은 사례 조사를 통해 차용어 수용 양상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한편, 대체할 수어 단어가 정말 마땅치 않은 전문용어의 경우나 유의어들을 보다 정확하게 구분하고 풍부하게 활용해야 하는 경우에 쓰이는 차용어들은 기존의 고유어 형태의 단어 활용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 수어 구조에 맞게 적절히 수용하여 재편(restructuring)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 몇몇 차용어들이 지리적·사회적 확산을 통해 두 언어의 정체성을 강하게 의식하는 소속 언어 사용자들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다면 이는 곧 수용하는 언어의 어휘 체계에 완전하게 편입된 진정한 차용어로써의 지위를 얻게 되는 것과 같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문화적 배경과 언어 내부의 필요충족적 동기라는 외재적·내재적요인 파악을 통해 음성언어와 수어간의 언어접촉과 어휘차용의 상관성을 충분히 고찰할 수 있었다. 이어서 본고는 위 논의의 연장선에서, 한중 음성언어가 한중 수어의 차용어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살핌으로써 양 수어 차용어의 구조적 특성은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밝혀 보고자 한다.

3. 한중 수어에 나타난 차용어의 형태 및 구조적 특성

이 장에서는 먼저 한중 수어에 나타나는 차용어의 형태를 살펴보고, 양 수어의 차용어 수용과정의 구조적 차이와 그에 따른 특성을 논하고자 한다.

3.1 한중 수어에 나타난 차용어의 양상

한중 수어가 한국어와 중국어로부터 어휘 차용을 실현하는 방식은 크게 두 부류로 대별할 수 있다. 이 절에서 우리는 먼저 한중 수어에 나타나는 '지문자'와 '번역차용(loan translation)'이 어떠한 양상으로 수용되는가를 아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3.1.1 지문자의 형태

지문자란 음성언어의 표기에 쓰이는 문자를 손으로 시각기호화 한 것이다. 즉 말의 소리인 음성언어는 1차 매체이고, 말의 소리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문자가 2차 매체인데, 그 문자를 손으로 형상화한 것이 3차 매체에 해당하는 우리가 흔히 지문자라고 부르는 손가락 철자법인 것이다. 지문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수어란 상상할 수가 없다. 그 독자적이고도 독립적인 차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1.1.1 자모(字母) 지문자



〈그림 2〉 KSL의 한글 및 영어 알파벳 지문자와 CSL의 한어병음 지문자

<그림 2>에서 보듯이, 한중 수어에 나타나는 지문자 구성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모두 자형에 기초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각 나라별로 그 형태를 비교해보면 동일한 형태의 영어 알파벳이라 할지라도 수어로는 제각기 다른 양상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지언어학적으로도 '언어의 형식과 의미가 가지는 관계는 필연적이지 않다'는 언어의 '자의성'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중국 수어에서 쓰이는 한어병음 알파벳 지문자의 수형에는 다른 나라의 수어 알파벳 지문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중국어 발음 특성을 고려한 'ZH','CH','SH','NG' 등이 추가로 고안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한어병음이란 북경어 발음에 기초를 두고 음성언어인 중국어의 한자 발음을 로마자로 표기하는 발음 부호 시스템을 일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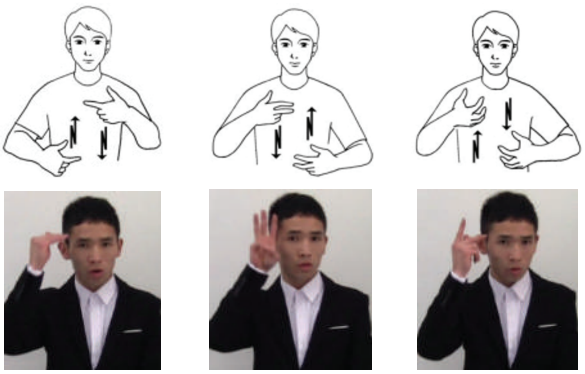
〈그림 3〉 중국 수어 '級'과 한국 수어 '코치', '커피', '손자' (시계방향)

이처럼 한중 수어에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음성언어의 문자표기에서 차용한 지문자 형태소들을 가지고 일련의 어휘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수어 어휘들을 생성해내는데, 특히 중국 수어에서는 많고도 복잡한 한자 사용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로마식 발음표기 알파벳(Romanized Chinese pronunciation manual alphabet), 즉 한어병음(漢語拼音)을 활용한 두(頭)문자화된 지화의 사용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을 주목해 볼만 하다. 예를 들어, 중국 북방의 대표격 수어인 북경 수어에서는 한어병음을 통한 동음이의어 형태의 수어(pronunciation pun signs) 어휘의 의미 실현이 가장 활발하다. 그 예로 <그림 3>에서 보듯이, 북경 수어에 대한 지식이 있는 모든 수어 사용자들은 급수의 의미를 나타내는 '級'의 첫 음절 발음인 [Ji]가 닭을 뜻하는 명사 '鷄 Ji'의 발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鷄'의 수어 형태로 '級'이라는 수어의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다. 또한 한국 수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음성언어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한 차용어로 '코치'와 '커피(COffee의 Co발음을 차용)' 그리고 '손자'의 수어 형태를 그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직접 '코'와 '손'을 지시한다거나 접촉하는 등의 동작을 통하여 해당 단어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그림 4〉 한중 수어의 'C'와 'WC'

한편, <그림 4>에서 보듯이 알파벳 지문자 'C'는 한 손으로 조음이 가능한 간단한 형태이면서도 수어 표현 공간에서 움직임이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한중 수어에서 모두 쓰임새가 높다. 예를 들어 한국 수어에서의 핵심 고유어 '천주교'의 수어 형태는 오른손을 구부려 지문자 'C'모양을 만드는 동작으로 그 의미를 실현하는데, 이는 중국 수어에서 지숫자와 병합하여 몇 '번째'라는 개념을 표현할 때 그 의미가 비로소 실현되는 의존형태소 '次 ci'의 한어병음 지화인 'C'와 같은 형태이다. 또한 한중 수어에서 공통적으로 동일한 수어의 형태로 나타나는 화장실이라는 의미의 차용어 'WC'는 수어의 조동을 보다 자연스럽고 쉽게 하기 위한 음운변화를 잘 보여주는데, 2개의 지문자 'W'와 'C'를 하나하나 연이어 산출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의 수어 단어처럼 한꺼번에 한 손에서 동시에 발화하여 위 그림처럼 표현하는 것이다.



〈그림 5〉 한국 수어 '기쁘다-즐겁다-반갑다'와 중국 수어 '思想－思维－思考'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중 수어에서 지문자 형태의 도입은 새로운 어휘를 생성해 내는 기능 외에도 어휘를 분화시키는 기능면에서도 탁월한 힘을 발휘한다. <그림 5>에서 보듯이, 그 예가 바로 한국 수어의 '기쁘다-즐겁다-반갑다'와 중국 수어의 '思想—思维—思考'와 같은 수어 형태들이다. 즉, '기쁘다'의 한글 지문자 수형 'ㄱ'을 'ㅈ'의 지문자 형태로 바꾸면 '즐겁다', 'ㅂ'의 지문자 형태로 바꾸면 '반갑다'가 된다. 마찬가지로 '思想'의 한자병음 지문자 수형인 'S'를 'W'의 지문자 형태로 바꾸면 '思维', 'K'의 지문자 형태로 바꾸면 '思考'가 되는 것이다. 이 두 언어의 의미 표현 양상은 모두 표면상 단순한 수형들의 변화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 의미 파생 과정을 유심히 살펴보면 한 수어의 형태가 유표(有票)성 이론에 입각한 자질의 첨가 또는 변경에 해당하는 지문자 차용이라는 방식을 통해 세 가지의 조금씩 다른 의미 역을 가진 어휘들로 분화되어 새롭게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1.1.2 한자(漢字) 지문자



〈그림 6〉 중국 수어 {'昌', '品'}, {'胃', '肝'}

한자는 중국어를 표기하는 중국 고유의 문자이다. 시각적 기호에 익숙한 중국 농인들에게도 한자를 모두 기억하여 올바르게 쓰기란 어려운 일이다. 한자의 사용이 중국은 물론 한국・일본・베트남 등 인접한 여러 나라에서 널리 쓰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역시 한자 지문자의 차용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수어는 중국 수어일 것이다. 아래에 정리한 바와 같이 중국 수어가 수용할 수 있는 한자 지문자의 총 획은 최대 6획을 넘지 않는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글자들이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昌','品'과 같은 한자들의 형태는 글자 그대로 양 손을 다 동원하여도 쉽게 모방이 힘들기 때문에, 먼저 글자에서 반복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수 '曰', '口'를 두 손으로 모방한 후에 위치 이동을 통하여 표현해낸다. '胃' 와 '肝'의 수어 형태 역시 먼저 각 한자들이 의미하는 신체 기관이 자리한 부위에 직접 양 손을 위치시키고, 비교적 간단한 형태의 한자 '田'과 '干'을 부분적으로 차용하여 표현한다.

<중국 수어에서 쓰이는 한자 차용어>

(1) 묘사형(depicting, 仿字) 한자 지문자:
(1.1) 전체묘사형 : 北、公、从、工、十、个、人、古、介、辽、区、凶、义、山、田、王、伍、册、众、仙、士、仁、只、乍
(1.2) 부분묘사형 : 部、癌、共、民、文、市、江、西、亿、厅、胃、肝、东、中、回、央
(2) 추적형(tracing, 书空) 한자 지문자: 千、万、子、才、士
(3) 묘사겸추적형(depicting&tracing, 仿字兼书空) 한자 지문자: 闵、才、厂、刑、井、川、丁、丰、非、州、干、于、昌、品、业、丈、夫、功、形、历、申、巡、玉
(4) 시각적환유형(visual metonymic, 近形替代) 한자 차용어: 彭（鼓）、衡（鱼）、化/华（花）、像（象）、啡（非）、福（富）、练（炼）、奉（棒）、嘉（加）

이어서 논의하자면, 위와 같이 정리한 중국 수어에 나타나는 다양한 상용한자 차용어의 유형들 중에 (4)에 해당하는 시각적 환유를 기반으로 한 동형이의어를 생성해내는 수어 형태들을 살펴보건대, 중국 수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이 현상을 처음 접하기에 언뜻 한자 표기의 오류라든지 의미 관련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한자들의 조합이라든지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농인들의 세계에서 받아들이는 입장은 좀 다르다. 겉으로는 동일한 수어의 형태를 표현하고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는 의미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용어 조합들은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습관적으로 굳어진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림 7〉 중국 수어 '花'와 '象'

예를 들어, <그림 7>에서 보듯이 본래 꽃을 나타내는 수어 형태인 '花'는 음성언어, 즉 중국어에서는 엄연히 다른 의미로 쓰이는 '化, 华'와 동일하게 사용되며, 추상적이라는 뜻의 형용사 '抽象'의 '象 xiang'은 중국어 발음에 기초한 한어병음 지문자 'X'의 수어 형태를 차용하여 표현되는데 중국어 동사 '像'을 표현할 때도 동일하게 쓰여 지는 것이다. 이는 평소 시각적 환유에 익숙한 농인들이 어느 한 작은 부분이라도 한자의 형태를 포함한 새로운 글자를 접할 때면 그것이 비유적인 표현일지라도 유사해 보이는 기존 고유어의 형태로 최대한 전환하여 수용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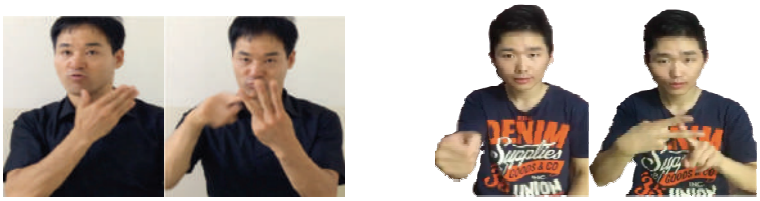


〈그림 8〉 한중 수어의 '井', '田', '中', '仁', '千'

한편,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중 수어에서 동일한 형태로 공통적으로 차용된 한자 지문자의

수어 형태는 <그림 8>에서 보듯이 '井', '田', '中', '仁', '千' 등 5개의 예에 국한되어 있었다. 한국 수어에 나타나는 한자 지문자의 차용 현상은 실생활에서 이미 그 쓰임이 많지 않거나 어원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선행 연구인 이율하(2010)『韓國手語 漢字指文字의 구성 자질 특성』에서 소개된 바와 마찬가지로, 그나마 고유명사를 표현할 때 드러나는 몇몇의 수어 형태만으로 간간히 명맥을 유지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어의 표기 방식만이 익숙한 한글 전용 사회에서의 한국 수어가, 한자와 중국 수어와의 관계에 비해 언어 환경이 가지는 구조적 특성상 한자 요소 차용·확산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3.1.2 번역차용의 형태



〈그림 9〉 한국 수어 '청주(清州)'와 중국수어 '아르바이트(打工)'

수어에서의 번역차용이란 수어에게서 전에 없던 단어나 표현을 음성언어로부터 차용할 때, 번역 대상어의 의미를 살려 옮기는 것을 말한다. 차용의 특별한 유형으로, 음성에 따라 옮기는 음역차용과는 대조적인 개념이다. 이 번역차용은 개별 단어가 아닌 합성어나 어구를 옮기는 경우에 종종 발생한다. 예를 들어, <그림 9>에서 보듯이 한국어 고유명사인 지역이름 '청주(清州)'의 수어 형태는 고유어 '깨끗하다'와 한자 지문자 '州'의 결합이다. 또한 중국 수어에서 '아르바이트(打工)'라는 단어는 '하다'라는 의미의 '打'가 아닌 한자 그대로의 기본 의미를 직역한 고유어 '치다, 때리다'의 수어 형태 '打'와 한자 지문자 '工'이 연이어 합성되어 만들어진다. 이어서 중국어의 관용어 표현인 '질투하다'라는 의미의 '吃醋' 역시 어휘에 나타난 한자의 뜻을 순차적으로 의역하여 표현하는데, '먹다'라는 의미의 '吃'와 '식초'라는 의미인 '醋'가 그대로 합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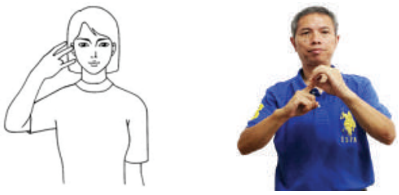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번역차용된 수어의 음절구조가 동일 어휘를 기반으로 표현하다 보니, 한 어휘의 음절수도 음성언어 음절구조의 보편적인 음절수와 같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한중 음성언어의 상황만 보더라도 본래 2음절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음절어가 많이 차지하는 단어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원어(源語)가 수어로 수용된 이후에도 역시 2음절로 된 합성어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따라서 어떤 언중이 음성언어와 수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와 지식을 갖춘 청인 혹은 농인집단에 해당된다면 수어의 번역차용어 어휘화 과정에 언제든지 참여할 수가 있다. 그 실현 방식이 일시적 혹은 의도적 인용의 목적으로 섞어 사용하는 코드 스위칭(code-switching) 혹은 코드 믹싱(code-mixing)의 단계를 넘지 못할지라도 시간이 흐른 후에 어느덧 수어 차용어의 가장 큰 원천이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음성언어가 수어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차용어 수용은 수어가 독립적인 언어라는 사실과 관계없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연스레 계속 늘어날 것이다.

3.2 한중 수어 차용어의 구조적 특성

이 절에서는 먼저 지문자의 음절수 증가와 관련하여, 자음과 모음의 수용에 적용된 음절구조제약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한중 수어에서 실현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수형은 하나이거나 혹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2개의 수형이다. 3개 이상의 수형이 연이어 일어나는 수어의 형태는 찾아보기 힘들다. 예를

들어, 한국어대응식수어(Signed Korean, 이하 SK)에서 '는' 또는 '를'의 조사는 지문자의 차용을 통해 한 단어처럼 표현하기 위해서 중간 모음 'ㅡ'를 생략하여 수형의 변화를 줄인다. 또한 지문자 '과'와 같은 수어 형태를 표현하는 경우에도 역시 'ㄱ-ㅗ-ㅏ'를 순차적으로 하나씩 발화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엄지를 펴서 중지 쪽에 붙이고 검지를 구부린 채 하나의 병합된 수형 'ㄱ-ㅗ'를 만든 후에 바로 'ㅏ'의 지문자를 결합하여 보다 자연스러운 손의 움직임을 구현해낸다. 그러므로 지문자를 차용한 수어의 형태에서도 2개 이하만의 수형을 갖는다는 수어 어휘구조의 조음규칙의 제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0〉 한국 수어 '예'와 중국 수어 'QQ'

한편 여기서 주목할 만한 재미있는 사실은 종래의 규범화된 지문자의 수어 형태 이외에 시각언어의 구조적 특성을 잘 반영한 지문자의 외형을 직접 본떠 만든 특수한 차용어들이 한중 수어 안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림 10>에서 보듯이, 한국 수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수어 형태인 대답할 때 쓰는 말 '예' 가 바로 그것이다. 먼저 수위의 변화(지화가 실현되는 공간은 보통 수어사용자의 오른/왼쪽 어깨 앞 조금 아래쪽)를 보여주는 신체부위인 오른쪽 눈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지문자 'ㅇ'으로 삼고, 그 오른쪽에 한글 지문자 'ㅖ'를 덧붙여 차용어 '예'를 재치 있게 실현해낸다. 또 다른 예로 중국 수어에서 사용되는 고유명사인 메신저 프로그램 'QQ'의 수어 형태는 한어병음 알파벳 지문자 'Q'가 아닌 순전히 시각적인 모방 속에서 탄생한 새로운 기호이다. 따라서 위 예와 같은 한중 수어의 지문자 차용어 수용 구조의 다양한 활용 연구는 음성언어와는 다른 수어의 시각적 환경을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다.



〈그림 11〉 한중 수어의 '千'과 중국 수어 '介绍'

한편, 지금까지 살펴본 음운론적인 관점과 더불어 연장선상에서 형태론적인 관점에서도 지화의 차용 구조 특성을 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1>에서 보듯이, 한중 수어에서 동일한 수형으로 차용되는 한자 지문자 '천(千)'의 수어 형태는 공중에 오른/왼 주먹에 1지(집게 손가락)를 펴서 끝이 왼/오른쪽을 향하게 한 후 흘림체로 한자 千을 그리는 동작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천'이라는 형태소는 유표적인 수형 자질인 지숫자와 결합함으로써 어떤 특정 양(2천, 9천 등)에 해당하는 의미를 표현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평소 자립형태소로는 존재할 수 없지만 시간을 나타내는 {시, 주, 달, 년} 등의 수어 형태들 역시 이 수사포합(numeral incorporation)과정을 통하여, 함께 병합되는 수형만이 지숫자에 의해 변화를 하여 단어를 형성한다. 또 다른 예로 중국어에서 '소개하다'라는 뜻의 '介绍'에서 차용한 한자 지화 '介'는 중국 수어에서 대표적인 일치동사(agreement verb)중의 하나인데, 동사 활용 측면에 있어서 시각언어만이 가질 수 있는 형태론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상대방이 있는 위치에 도착점을 잡고 지문자 수형을 그 방향으로 보내면 상대방에게 소개를 '해주다'라는 사동의 의미를, 반대로 상대방이 있는 위치로부터 수

형을 출발시켜서 도착 목표 지점(본인 혹은 다른 사람)으로 돌아오면 소개를 '받다'라는 피동의 의미를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이제까지 음성언어가 수어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 한중 수어의 차용어의 형태와 수용양상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간추리고 남은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중 수어의 차용어 형태와 수용양상에 초점을 두고 대조언어학적 방법으로 한중 수어의 차용어구조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음성언어의 문법적 요소가 수어의 어휘에 차용되면서 재편되는 조음자질 구조를 고찰한 결과, 수어도 음성언어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조음자질(수형, 수위, 수동, 수향)의 변화에 바탕을 두고 차용이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중 수어가 자국의 음성언어를 각각 다른 양상으로 수용하는 것은, 음성언어의 텍스트매체 차용에 있어서 한중 수어 사용자의 매체 인지과정과 경향성이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며, 영향을 미치는 음성언어의 구조와 제약 또한 다른 데서 연유한 것임을 예로써 대비하였다.

지금까지 음성언어와 다른 음성 언어의 대조 연구는 수어와 음성언어 또는 수어와 다른 수어와의 대조 연구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구는 또 다른 과제를 남길 수 있다. 본고의 연구 결과가 한중 수어의 어휘대조를 중심으로 수어와 음성언어 간의 언어접촉과 차용현상의 상관성을 고찰하는데 기초를 닦았다면 앞으로는 차용의 연구 범위를 문장 층위까지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 차차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국립국어원(한국표준 수화규범 제정추진 위원회)·한국농아인협회(The National Committee for Standard Korean Sign Language in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and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Deaf). (2007)2015.『한국수화사전(*Korean Sign Language Dictionary*)』. 서울: 농아인협회(Seoul: The Korean Association of the Deaf).

석동일(Seok, Dong-Il). 1989.「한국 수화의 언어학적 분석(A linguistic Analysis of Korean Sign Language)」. 박사학위논문(Ph.D. diss.), 대구대학교(Daegu University).

이율하(Lee, Yool-ha). 2010.「한국수어 한자지문자의 구성 자질 특성(The Construction Features of Chinese Characters in Korean Sign Language)」.『중앙어문학회(*The Society of Chung-Ang Language & Literature*)』44:1-18.

임지룡(Lim, Jiryong). 2008.『의미의 인지언어학적 탐색(*A Cognitive Exploration of Meaning*)』. 서울: 한국문화사(Seoul: Hankookmunhwasa).

최상배(Choi, Sang Bae). 2012.「한국수화언어의 수형소 분석(Analysis on Handshape of Korean Sign Language)」.『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13:233-56.

Stokoe, William C. 1960. *Sign Language Structure: An outline of visual communication systems of the American deaf. (Studies in Linguistics: Occasional Paper, No. 8.)* Buffalo, N.Y.: University of Buffalo.

Battison, Robbin. 1978. *Lexical borrowing in American Sign Language*. Silver Spring, MD: Linstok Press.

Brentari, Diane, and Carol Padden. 2001. *Introduction. Borrowed elements in sign languages: A window on word formation: Foreign vocabulary in sign languag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龚群虎(Gong, Qunhu). 2009.「聋教育中手语和汉语问题的语言学分析(Linguistic Analysis of Sign Language and Chinese in Deaf Education)」.『中国特殊教育(*Chines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3:63-77.

李惠中(Lee, Hyechung). 2016.「多维传播语境下韩国手语的地名造词方法 (Geographical Nouns of Korean Sign Language in Multidimensional Communication Context)」.『新闻传播(*Journalism and Communication*)』19:4-6.

吴铃(Wu, Ling). 2005.「汉语手语语法研究(Research on Chinese Sign Language Grammar)」.『中国特殊教育(*Chines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8:15-22.

郑璇(Zheng, Xuan). 2010.「中国手语中的比喻和借代(Metaphor and Metonymy in Chinese Sign Language)」.『中国特殊教育(*Chines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2:3-8.

〈Abstract〉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poken Languages on Signed Languages: The Adaptation of Loan Words in Korean Sign Language (KSL) and Chinese Sign Language (CSL)

It is well established that sign languages are distinct languages with their own structure, but they also have loan words using their own constraint parameter rules or strategies. Firstly, grammatical borrowings from spoken languages can be found across most sign languages. Secondly, these foreign forms examined here commonly appear as a combination of loan translation and the use of manual alphabet such as Korean alphabet fingerspelling signs, Chinese character signs and English alphabet fingerspelling signs respectively. Thirdly, KSL and CSL commonly offer a unique perspective in discovering how aspects of cognition interact with spoken languages. Additional scientific and logical research on the cross-modal linguistic study between spoken languages and sign languages is obviously needed.

Key Words 음성언어(spoken language), 한국수어(KSL), 중국수어(CSL), 언어접촉(language contact), 차용어(loan word)